

한국 전통 사상 총서 · 불교편

정선
화엄
精選華嚴
III

05



대한불교조계종 韓國傳統思想書 刊行委員會



한국전통사상총서 · 불교편 05

精選華嚴正心華嚴II · 譯註역주

Hwaeom Works II

Collected Works of Korean Buddhism, vol. 5

역주 ▣ 정병삼

엮은곳 ▣ 대한불교조계종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전화 · 팩스 ▣ 02)725-0364 · 02)725-0365

펴낸이 ▣ 대한불교조계종

펴낸곳 ▣ 대한불교조계종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출판부

등록번호 제 300-2009-5호(2009.1.22)

인쇄일 2009년 10월 15일

발행일 2009년 10월 25일

편집 · 디자인 ▣ 아르떼203

인쇄 · 제책 ▣ 동화인쇄공사 · (주)가원

ISBN 978-89-962509-5-1 94220

ISBN 978-89-962509-0-6 (세트)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e-CIP 홈페이지(<http://www.nl.go.kr/cip.php>)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09003062

© 2009 by Compilation Committee of Korean Buddhist Thought,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이 “한국전통사상총서” 간행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전통사상총서·불교편

정선
화엄
III
精選華嚴

05

역주... 정병삼 鄭炳三

이종수·옥나영·전보영



刊行辭 간행사

2000년이 시작되던 몇 년 전, 인류는 21세기를 새 천년 즉 밀레니엄이라 부르며 희망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살육이 자행되는 분쟁지역의 비극과 경제위기 등 지구촌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불교는 이미 세계는 늘 불안정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엄연한 고통의 바다라고 확인시키고 있으니 무상(無常)·고(苦)·무아(無我)의 가르침입니다.

이 불안정한 생명의 바다에, 탐욕과 분노와 사건 즉 삼독이 파도치면, 무한으로 연결된 중생계의 고통은 더없이 가중될 것이며, 이에 반하여 탐욕을 치유하는 인내와 절제의 계학(戒學), 분노를 진정시키는 정학(定學), 사건을 정화하는 혜학(慧學) 등 삼학의 활동이 점차 증장될 수 있다면, 인류는 온 생명계를 요익케 하는 제일류(第一流)의 유정(有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5세기 이후 이미 불교공동체인 승가전통과 대승교학의 수승한 요체를 토착화한 이후 선문(禪門)의 정화를 거쳐 현재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수행승가를 통해 정법유산(正法遺産)을 단절 없이 전승하고 있는 귀중한 불연토(佛緣土)입니다.

자원과 영토 그리고 탐욕의 자본과 사건으로 얼룩진 종교분쟁 등, 삼독의





화염이 치연한 지구촌 그 한가운데서, 무명(無明)의 파도를 진정시킬 정
법유산을 전승하고 또 널리 유통하는 일은 실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대중을 애호하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광대무변한 불법의 교설을 활약한
‘중요’로서 남긴 원효스님의 대자대비행으로부터, 대승의 광장설과 그 실
천규범 등을 널리 유통키 위해 주석 등의 유산을 남긴 동아시아에 빛나는
지성 원측스님과 대각국사 그 외 수많은 선지식들의 활동, 그리고 선문
(禪門)을 중흥시켜, 경계 없는 마음의 영토를 계발시켜준 선사들의 어록
과 행장 등, 우리불교의 전통으로 전승된 귀중한 유산들은 실로 우리 국
민 나아가 인류공익의 위대한 유산들입니다.

이미 수집 출간된 『한국불교전서』 총14책에는 현재 한국고승 등 150여
인에 의해 찬술된 320여 종의 문집이 고전 한문의 형태로 수록되어 있습
니다. 금번 문집간행불사의 1차 사업은 그 중 대표적인 고승문집 90여 종
을 선별, 국역과 영역을 거쳐 각각 13책씩 총26책으로 출간하여 널리 유통
하는 대작불사업입니다.

근대 이후 우리사회는 서세동점에 급속히 포획되어, 전통의 단절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경험했을 뿐 아니라, 서구식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과 대중





들에게 전통의 위대한 유산들은 열리지 않는 보물창고로 남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과거와의 단절은 어떤 생명에게도 불행한 일입니다. 모든 생명은 오래된 과거의 기억들을 바탕으로 현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며, 누적된 성찰과 지혜를 바탕으로 미래로 이어지는 무한한 연속성을 감득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에게 있어 기억의 상실은 세계 자체를 사라지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독해하기 어려운 고전한문의 높은 담 안에 갇혀 있는 정법의 유산들을 대중에게 회향하는 일은 그래서 더욱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 빛을 감추어 머금고 있는 한국불교의 전통유산은 한국사회에서만 아니라, 세계인류에게 있어서도 생명계의 의내명주(衣內明珠)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구슬을 꺼내 갖고 닦아 빛을 회복하는 일이 바로 우리들이 하고 있는 번역간행불사입니다. 위대한 유산의 전승은 그 인과(因果)를 아울러 수행할 때 원만히 성취될 수 있습니다. 체용(體用)이 상응하고 성상(性相)이 불유(不謬)해야 명실상부할 수 있으니, 모양은 그 쓰임의 결과로 빛나고 쓰임은 모양을 빌어 비로소 충실해지기 때문입니다.

금번 번역사업은 불교문헌번역의 오래된 전범인 다자번역전통(多者翻譯傳統)을 원칙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삼장전승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전통이기 때문입니다. 삼장은 처음부터 합송(合誦)으로 결집(結集)되고 역장설치(譯場設置)를 통해 번역되는 등 다자가 참여하는 공동작업에 의해 전승되었습니다. 범어삼장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역장에는 범어를 이해하는 자와 한문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외의 역할을 달리하여 협력한 주인공들이 있었습니다. 9인의 역관(譯官)으로 구성된





역장에는 범본삼장을 읽고 풀이하는 역주(譯主), 역주의 좌측에서 역주와 함께 그 뜻을 꼼꼼히 살피는 증의(證義), 역주의 우측에 자리하여 문장의 정밀함을 살피는 증문(證文), 출발어인 범문을 자세히 살피는 범학승(梵學僧), 현지어로 받아쓰는 필수(筆受), 번역된 글을 한자문법에 맞게 구문을 구성하는 철문(綴文), 범문과 한문을 대조하여 오류가 없도록 참교(參校)하는 참역(參譯), 산만한 문장을 다듬고 정리하는 간정(刊定), 역주와 마주하여 번역된 문장을 다듬어 아름답게 하는 윤문(潤文) 등이 협력하여 번역하였습니다. 다자들의 합송에 의한 결집으로 전승된 삼장은 다시 이렇듯 다자에 의한 협동으로 번역되어 전승되었고, 한국승가의 강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논강(論講) 또한 이러한 전통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전독해와 전통이해 그리고 다양한 불교술어를 번역할 수 있는 연구자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고, 국고지원이 갖는 시간적 한계 등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 시작한 불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전통의 다자번역 전통이라는 의미 있는 작업까지 아우르는 고난도 작업에 열성을 다하고 있는 간행위 여러분들과 국내외 번역자들 그리고 간행위 사무처 관계자 등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이 불사의 원만회향을 부처님께 기원드리며 간행사에 대신합니다.

불기 2553(2009)년 10월 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위원장

가산지관 적음





대각국사의천 영정(선암사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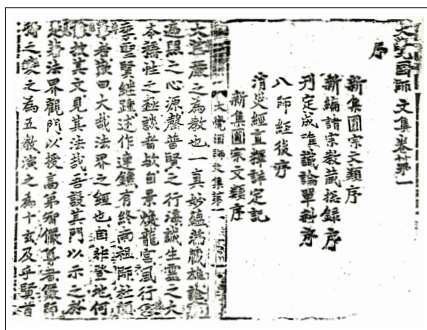


(위 왼쪽) 의천의 영통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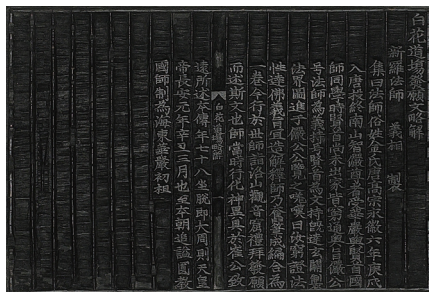
(위쪽) 영통사비 탁본

(아래쪽) 의천을 기려 근래에 증창된 항주 고려사





(위쪽·오른쪽)
의천의 『대각국사문집』



(오른쪽·아래쪽)
체원의 『백화도량발원문』





總目次 총목차

【海印三昧論 해인삼매론】

【華嚴經文義要決問答 화엄경문의요결문답】

【大覺國師文集 대각국사문집】

【白花道場發願文略解 백화도량발원문약해】





凡例 일러두기

1. 이 책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한국불교 전통사상의 선양·유통을 위하여 기획한 한국전통사상총서 제5권 [화엄Ⅱ편]이다. 화엄Ⅰ편은 『일승법계도』와 관련 전적으로 엮었고, 화엄Ⅱ편은 『일승법계도』 이외의 화엄 관련 전적에서 가려 뽑았다.
2. 이 책의 번역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의 번역 지침에 따랐다.
3. 번역의 저본은 「한국불교전서」로 하여 교감한 교감본을 대본으로 번역하였다. 저본과 다른 교감 내용은 각주로 밝혔다.
4. 전체 내용을 여러 단락으로 나누어 번역문과 원문을 나란히 실었다. 단락은 내용의 체계적인 이해를 위하여 역주자가 구분하였다.
5. 번역문과 원문의 표점은 직접인용은 큰 따옴표(“ ”), 직접인용 안의 인용은 작은따옴표(‘ ’), 작은따옴표 안에 다시 인용이 있을 경우는 홑낫표(「 」)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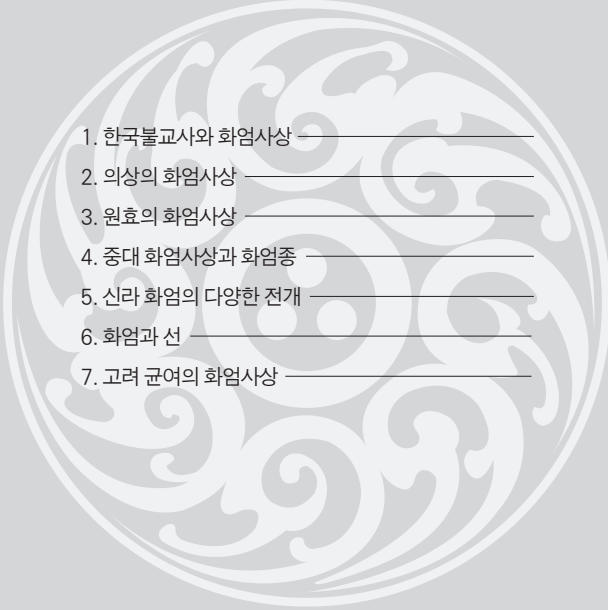
6. 한자어 그대로인 경우에는 (), 한자를 풀어서 쓴 경우에는 []를 사용하였으며, 원문에 없는 내용이지만 이해를 위하여 덧붙인 부분은 ()를 사용하였다. 원주는 < >로 표시하고 글씨의 크기를 작게 하였다.
7. 한국불교전서(韓國佛教全書)는 韓, 대정신수대장경(大正新修大藏經)은 大, 대일본속장경(大日本續藏經, 卍續藏經)은 卍으로 표시하고, 그 인용문은 번역문-전거-원문 순서로 제시하였다. 전거는 『책 이름』- 권수- 전거권수-면수 순서로 표기하였다. 예) 『화엄경문의요결문답』권1 韓2 p.350b2.
8. 산스크리트어는 ㄴ, 팔리어는 ㅍ로 표기하였다.
9. 이 책에서는 명효의 『해인삼매론』, 채원의 『백화도량발원문약해』는 전문을 번역하였으나 대상 전적의 많은 분량을 한권으로 엮는 제한으로 인해 표원의 『화엄경문의요결문답』, 의천의 『대각국사문집』은 일부분만을 가려 번역하였다.





解題 해제

신라 화엄사상사

- 
1. 한국불교사와 화엄사상 _____
 2. 의상의 화엄사상 _____
 3. 원효의 화엄사상 _____
 4. 중대 화엄사상과 화엄종 _____
 5. 신라 화엄의 다양한 전개 _____
 6. 화엄과 선 _____
 7. 고려 균여의 화엄사상 _____



1. 한국불교사와 화엄사상

인도에서 시작되어 중국에 수용된 불교는 남북조시대에 불교사상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었다. 반야 공관사상의 지속적인 연구에 따라 중관(中觀)계 사상이 이해를 더해 갔으며, 섭론(攝論)과 지론(地論)을 중심으로 유식(唯識)계 사상의 연구가 심화되었고 여래장(如來藏)사상에 바탕한 불성론(佛性論)의 연구도 활발하였다. 6세기말에 남북조를 통합한 수나라에 들어서서 남북조불교의 성과를 종합하고 교학(敎學)과 관행(觀行)을 체계화한 지의(智顗)의 천태종(天台宗)이 일어나 종파불교의 장을 열었다. 7세기 전반 당의 개창 이후 현장(玄奘)에 의한 신유식의 소개를 바탕으로 법상종(法相宗)이 형성되었고, 남북조의 유식사상을 계승하여 법장(法藏)은 화엄종(華嚴宗)을 대성하여 중국불교 교학의 빼어난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중국불교의 동향은 신라불교의 전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삼국기 신라불교의 중심을 이루었던 유식 교학의 기반 위에 고구려나 백제에서 발달한 삼론학이나 천태학이 수용됨으로써 통일기 신라불교는 불교 교리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고 신유식과 화엄과 같은 중국의 신불교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었다. 신라 화엄사상은 그 한 성과이다.

삼국시대 자장에 의해 수용되기 시작한 화엄은 통일기에 의상이 화엄사상의 체계를 확립하여 제자들에게 전수한 이래 신라 교학의 중요한 줄기를 이루었다. 신라 하대 선종의 수용에 대응하여 고려초에 균여를 중심으로 사상을 재정비한 화엄은 의천과 지눌의 사상 중심에 자리 잡았고, 조선 후기 교학 진흥의 추세에도 중추를 이루었다. 이는 화엄사상이 지속적으로 한국불교 사상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엄에 대한 이해는 한국불교사상의 이해에 중요한 바탕이 된다. 이와 같

은 한국 불교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화엄사상의 이해를 위해 신라 화엄사상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의상의 화엄사상

한국 화엄의 이해는 자장(慈藏)에서부터 시작된다. 선덕왕대에 중국에 유학했던 자장은 오대산 문수신앙의 감응을 얻고 이를 전해왔으며, 신라에 돌아온 후 자신의 집을 고쳐 절을 만든 낙성회에서 『화엄경』을 강의하였다. 후대의 윤색이 가해진 설화이지만 삼국시대 말에 신라에 『화엄경』이 전래 소개되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이행구, 1994)

신라 불교철학이 정립되는 통일신라기에 화엄사상을 주도한 것은 의상(義相, 625~702)이었다. 의상은 화엄일승(華嚴一乘) 법계연기(法界緣起)의 핵심을 언어의 절제 하에 210자의 법계도시로 엮고 이를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법계도인을 만들어 그 내용을 『일승법계도(一乘法界圖)』로 정리함으로써 화엄일승 사상을 체계화하였다.(조명기, 1962) 이 저술은 지엄을 계승하면서도 이전의 지론 교학에 영향을 받았고 초기선종과도 연관성을 갖는다. 이 독특한 사상을 형상화한 법계도는 처음과 끝이 이어지는 상징적인 효과를 위해 당시 유행하던 회문시(回文詩) 형식을 채용하여 최신 기술이던 목판 인쇄에 다라니를 강조하여 담아 낸 것이었다.(石井公成, 1996)

『일승법계도』는 화엄 법계연기설의 핵심인 일중다 다중일과 일즉다 다즉일의 상입상즉(相入相卽)의 연기법을 수십전(數十錢) 등의 비유로 풀이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 일다(一多)의 상입상즉, 미진(微塵)과 시방(十

方), 일념과 무량겁, 초발심과 정각 및 생사와 열반으로 이루어진 다라니 이용(理用)·사(事)·세시(世時)·위(位)의 4가지 범주로 구성하였다. 의상은 이들 자리행에 이타행과 수행문을 추가하여 강한 실천적 성격의 『일승법계도』를 완성하였다. 법계도가 의상의 저술이 아니라 지엄의 저술이고, 의상이 이에 대해 해석한 것이 『일승법계도』라는 견해가 제기되었으나(姚長壽, 1996), 의상의 저술이 분명함이 재차 확인되었다.(전해주, 1999; 佐藤厚, 1999)

『일승법계도』에서 나타난 의상의 화엄사상은 교판설, 심식설(心識說), 이이상즉론(理理相卽論)과 십현육상론(十玄六相論), 단혹(斷惑)과 수도론 등으로 분류된다.(坂本幸男, 1956) 이 중에서 의상 화엄사상의 독자적인 면모는 다라니법의 강조와 수십전설과 육상의 등에 나타난다. 의상은 교판과 십문현(十門玄)의 연기론 등은 지엄의 학설을 계승하였으나 수십전설과 육상설을 중도의(中道義)와 함께 연기설의 중요한 교의로 정착시키는 독자적인 관점을 열었다. 의상의 화엄사상은 실천행을 중시하였고 이는 사상과 문도 형성으로 이룩한 화엄종단에서 경설에 토대를 둔 관음과 미타신앙을 전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일기 신라사회가 지향하던 사회 안정에 부응하였다. 의상 화엄사상의 중심을 이루는 일과 다의 상입상즉의 법계연기는 평등과 조화를 상징하는 논리로서 의상의 화엄교단에서 사회적으로 실천되었다.(정병삼, 1998) 의상이 강조한 연기실상다라니법은 실천 중시의 신앙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다.(진영유, 1995) 의상 사상의 특징인 중도의는 일승과 삼승을 중도와 이변(二邊)으로 인식하는 핵심이며, 모든 상대법이 각자의 형식을 지니면서 그대로 중도임을 인정하는 중층적 구조를 보였다.(佐藤厚, 1996) 이 중층 구조는 『화엄경』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어가는 과정을 상징하며, 보현에서 부처로 점차 『화엄경』의 심오한 부분으로 들어가 최종적으로 법성에 귀착하는 구조를 보이는 것이었다.(佐藤厚, 1998) 의상

의 특징적인 이이상즉설은 일반적인 관점처럼 이(理)의 무분제(無分齊)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사(事)에 있어서의 본래성을 나타내려는 것으로서, 화엄연기에서 모든 사물은 융통함을 말하기 위한 것이었다.(坂本幸男, 1956 ; 오다 겐유, 2007) 의상에게 법계연기란 사와 이의 무분별을 인으로 하여 일어나는 상즉상용(相卽相融)이고, 상즉을 중시하지만 상입은 중시하지 않는다.(大竹晋, 2007)

해인삼매에 있어서의 육상원융한 연기관이라는 점에서 의상의 『법계도』는 실천적이며 종합적으로 화엄경에 기초한 해인삼매의 정신을 드러내는 것이었다.(이기영, 1982) 성기(性起)사상의 관점에서 보면 의상의 연기법은 실성(實性)의 성기세계를 드러내고자 한 법계도의 실천적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을 맺으며 범성관과 구래성불설(舊來成佛說)과 해인삼매론에 연계되어 구성된 것이었다.(전해주, 1993) 의상은 범성과 불성, 총상과 별상, 시공의 중도를 제시하여 중도적 공관(空觀)을 보였다.(신현숙, 1989·1990) 의상의 융합사상은 성기취입적인 성향을 가진 횡진법계관(橫盡法界觀)의 논리로 구조된 원융사상으로 관음신앙과 연결된 실천수행적 신앙을 지닌 것이었다.(김두진, 1995)

의상의 원융사상이 전제왕권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뒷받침하기에 적당하다는 관점도 있지만, 『법계도』의 일과 다의 상입상즉한 관계는 조화와 평등이 강조되는 관점에서 이해될 수도 있다.(김상현, 1991)

3. 원효의 화엄사상

원효(元曉, 617~686)는 모든 경론의 존재 의의를 인정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종합적인 입장을 가졌다. 원효는 『화엄경』을 원만무상의 돈교(頓敎)법문으로서 법계법문을 널리 열고 무변(無邊)의 행덕(行德)을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무장무애한 법계법문은 일체법이 공간적인 대소(大小), 시간적인 촉사(促奢), 운동면의 동정(動靜), 수량적인 일다(一多)의 제 범주에 아무런 걸림 없는 것을 말한다. 원효의 4교판에서 그 최상에 자리하는 원만교는 곧 보법(普法)을 갖춘 것이고, 보법이란 일미진과 일체세계, 일찰나와 삼세제겁과 같이 일과 일체가 상입상즉하여 혼융무애한 것이다. 이처럼 일체법이 공간적·시간적인 제 범주에 아무런 걸림 없이 무장무애한 법계법문의 화엄 세계가 원효사상의 정점에 있다고 보았다.(고익진, 1989) 원효는 『기신론』 연구에 기반을 두고 섭론교학과 삼론학에 힘입어 독자적인 보법화엄사상을 성립시켜 십종인, 수십전유, 육상설, 사교판, 법계론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원효의 화엄사상은 의상의 화엄을 일부 수용하면서 법장에 영향을 미쳤다.(석길암, 2003)

4. 중대 화엄사상과 화엄종

의상은 『법계도』를 중심으로 부석사와 태백산 소백산 등지에서 여러 제자들에게 화엄사상을 강의하여 신라 화엄사상의 주류를 이루었다. 그 대표

적인 제자들이 십대제자로 불리는 오진(悟眞)·지통(智通)·표훈(表訓)·진정(眞定)·진장(眞藏)·도용(道融)·양원(良圓)·상원(常元)·능인(能人)·범체(梵體)·도신(道身)들이다.

표훈은 의상의 지도에 따라 새로운 해석을 전개하기도 했던 고제(高弟)였다. 그러나 경덕왕대에 활동한 자취를 보여주어 직제자가 아닐 수도 있다.(김복순, 1990) 진정은 기충민 출신으로 문하의 사상을 주도하던 제자였다. 지통(655~?)은 가노(家奴)로서 화엄을 깨치고 관행을 닦던 수행인으로 스승의 강의를 기록한 『추동기』(혹은 『錐穴問答』, 『要義問答』)를 지었고, 도신은 의상의 강의를 기록한 『도신장(道身章)』(『一乘問答』)을 남겼는데, 일부가 남아 있는 이들 저술은 의상과 지엄이나 제자들의 문답과 학설들이 실려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김상현, 1991) 이들 문헌과 『화엄경문답』은 비슷한 내용을 전하면서도 다소 차이가 있다. 분량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도신장』을 보면 이들이 의상의 사상을 계승하면서도 독자적인 사상을 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박서연, 2003a) 이들 외에 상원은 의상 문하의 강의에서 많은 문답을 남겼고, 양원은 『법계도』에 주석을 남겼다. 다시 이들에 이어 신림(神琳)과 법용(法融) 등이 의상의 화엄 전통을 널리 계승하여 8세기에 왕성한 흐름을 이루었다.

성기사상의 중요한 전적으로 평가되는 『화엄경문답(華嚴經問答)』은 그동안 법장의 저작으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그 문체와 인용 문헌이나 삼승인이 성불한 후 일승에 들어간다는 극과회심(極果迴心) 또는 방편을 중시하는 반정(返情) 등의 사상이 의상 계통의 사상과 공통점을 보인다.(石井公成, 1996) 의상의 강의를 필록하였다는 『추동기(錐洞記)』(『지통기(智通記)』)의 내용이 『화엄경문답』과 일치하는 점에서 이를 『추동기』의 이본으로 보기도 한다.(김상현, 1996) 그러나 『화엄경문답』의 일승연기법 해석은 『도신장』의 것과 같지만, 시불(十佛)설은 의상계 『고기』에서 말하는 범부

의 오척의 몸을 중심으로 시불을 해석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의상계 문헌과는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박서연, 2003b)

의상계 화엄의 교리적 특색은 『일승법계도』에 대한 주석서인 『대기(大記)』·『법기(法記)』·『진기(眞記)』를 모아 편집한 『법계도기총수록(法界圖記叢髓錄)』과 그 계승 관계에 있는 균여의 『일승법계도원통기(一乘法界圖圓通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총수록』은 의상계 화엄사상이 신라 하대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이론 토의를 거치며 부단히 전승되던 사실을 알려준다. 균여 저술의 인용이 있어 고려 중후기에 편찬된 것으로 생각되는 『총수록』은 2차에 걸쳐 편집되었다. 1차적으로 『대기』와 『법기』와 『진기』의 주석서를 모으고, 다시 이에 부수적인 보충 자료를 추가하여 2차 편집이 이루어져 현재와 같은 구성이 되었다.(김상현, 1991) 세 주석서는 『법기』 『진기』 『대기』의 순서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며, 균여는 특히 『대기』를 기반으로 『원통기』를 저술하였다.(佐藤厚, 1994)

의상계 화엄에서는 중국의 화엄과는 다른 독자적인 사상 경향도 나타난다. 무주(無住)의 개념이 무자성과 같이 상즉상입의 근거로서 의상의 직제 자료부터 균여에 이르기까지 널리 수용되었다.(사토 아츠시, 1999) 의상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는 오해인(五海印)설은 선종과 지론 및 삼론학의 영향이 나타나며, 이는 의상 문하에서 『화엄경』을 절대시하고 경문을 관심석(觀心釋)하는 특색으로 나타난다.(石井公成, 2003) 이처럼 의상계 화엄에서 강조된 구래성불(舊來成佛)과 무주(無住) 등은 중국 화엄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다.

의상계 화엄에서는 원효의 사상을 그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고익진, 1989) 예를 들면 진리를 오척(五尺)과 같은 구체적인 것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일심 등의 추상적인 원리로 파악하는 『기신론』과 차별화를 의도하여 원효 계통과는 다르게 파악했다.(佐藤厚, 2000)

신라 하대에 이르기까지 의상을 계승하는 화엄종단에 의해 건립된 전교 십찰(傳敎十刹)은 화엄의 성세를 대변한다. 부석사(浮石寺)·화엄사(華嚴寺)·해인사(海印寺)·범어사(梵魚寺)·옥천사(玉泉寺)·미바라사(毘摩羅寺)·미리사(美理寺)·보광사(普光寺)·보원사(普願寺)·갑사(岬寺)·화산사(華山寺)·국신사(國神寺)·청담사(靑潭寺)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시기에 따라 그 위상이 다소 달랐다.

5. 신라 화엄의 다양한 전개

의상의 화엄을 계승한 의상계는 신립 범용 순응 등으로 나누어 보기도 하고 부석사계와 표훈계 및 해인사계 등으로 세분하기도 한다. 그리고 의상의 직계 제자들과는 사상의 내용을 달리 하는 신라 화엄도 많아 여러 갈래로 파악된다.

일차적으로 의상을 계승한 주류와 그렇지 않은 부류로 구분된다. 비주류는 원효계(고익진, 1989), 비의상계(김상현, 1991), 황룡사계(김복순, 1990) 등으로 나눈다. 이중 원효계는 원효와 범장의 융합에 따른 화엄과 기신의 융합이 특징이며, 비의상계는 다시 원효계, 오대산·지리산·천관산계, 기타의 셋으로 구분한다.

범장의 제자인 승전(勝詮)은 690년대에 당에서 귀국하면서 범장이 의상에게 보내는 서신과 함께 집필 중인 『탐현기』 등의 저술을 가져왔다. 심상(審詳, ?~742) 역시 범장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일본에 건너가 일본 화엄종의 초조가 되었다.

화엄사의 연기(緣起)는 754년에 화엄 사경(寫經)을 주도했는데 『개종결의(開宗決疑)』 『화엄경요결(華嚴經要決)』 『진류환원락도(眞流還源樂圖)』와 『기신론』 관계 저술을 남겨 원효의 사상과 연관된 면모를 보였다. 화엄사에서는 이밖에도 정행(正行)·정현(定玄)·영관(靈觀) 등이 활동하였다.

황룡사에는 경덕왕 13년(754)에 법해(法海)가 활동하였으며 원성왕대에 지해(智海)는 화엄을 강의하였다. 경덕왕 말년(759 경)에 보림사를 창건한 원표(元表)는 천관(天冠)보살 신앙을 지녔던 화엄행자였으며, 원성왕 3년(787)에 소년서성(少年書省)을 지낸 범여(梵如)는 『화엄경요결(華嚴經要決)』 6권을 지었고, 범수(梵修)는 소성왕 원년(799)에 정관의 화엄소를 강의하였다.

의상의 화엄과 다른 사상을 보여주는 자료들도 한 부류를 이룬다. 8세기 중반 경에 활동한 황룡사의 표원(表員)은 화엄사상의 중요 과제에 대한 제 학설을 집대성하여 『화엄경문의요결문답(華嚴經文義要決問答)』을 편찬하였다. 표원은 화엄경의 구조·설시(說時)·설불(說佛)에 대한 문제, 화엄교설의 중심사상인 육상·수십전유(數十錢喻)·연기·탐현·보법 등의 문제, 그 진리성으로서의 실제 여여(如如) 법계의 문제, 일승론과 교판 문제, 대승보살의 수행도 문제 등을 18과로 묶어 각 과목을 석명(釋名)·출체(出體)·문답(問答)으로 설명하였다. 표원은 80화엄을 본격적으로 연구하여 법계연기의 근원을 밝히고 각종 법계와 역대 교판을 두루 이해하였으며, 보살의 수행 계위에도 정통하였다.(김인덕, 1982) 표원은 신라화엄학의 주류인 의상의 사상을 위주로 하지 않고 법장의 사상을 토대로 하면서 원효와 혜원 안륜 등의 학설을 집중적으로 인용하고 있어 의상계가 아닌 원효계의 화엄학승으로 생각된다.(고익진, 1989) 이처럼 원효와 법장의 사상을 융합한 형태가 태현·표원·견등으로 계승되어 한 흐름을 이루었다.(吉津宜英, 1991) 표원은 법장의 교학을 대체로 수용하였지만 다른 사상가들의 이

론도 자신의 취지에 따라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독자성을 보였으니, 예를 들면 일승의(一乘義)에서 법장의 5교판 위에 혜원과 원효의 교판을 수용하여 구성한 것이 그런 예이다.(김천학, 1998)

원효와 의상계의 사상을 통합해 보려는 시도는 나말여초에 찬술된 것으로 생각되는 『건나표하일승수행자비밀의기(健拏標訶一乘修行者秘密義記)』에서도 엿보인다. 화엄과 기신론 사상을 바탕으로 밀교적 요소와 주술적 요소를 가미한 이 책은 이런 시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이후 계승되지 못한 한계와 노력을 동시에 보여준다.(佐藤厚, 2002; 최연식, 2004)

명효(明晄)는 『해인삼매론(海印三昧論)』을 저술하였는데 형식상 의상의 법계도인과 같은 상징적 형상을 취하고 있으나 『기신론』과 상통하는 해석을 하였다. 따라서 의상의 계통보다는 화엄과 기신을 동일한 경계로 보았던 원효와 같은 계통에 속한다.(이기영, 1982) 「법계도인」과 『해인삼매론』은 양자가 모두 도인(圖印)을 사용하여 성불을 지향한 것은 동일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의상이 원교 화엄을 범성 성기의 구래불(舊來佛)로 드러냈고 명효는 생사즉열반의 연기 구성불(舊成佛)을 주장하였다.(전해주, 1993)

견등(見登)은 화엄사상의 성불의(成佛義)를 밝힌 『화엄일승성불묘의(華嚴一乘成佛妙義)』와 『기신론동이략집(起信論同異略集)』을 저술하였다고 알려졌다. 견등은 법장의 저술을 집중적으로 인용하며 삼승 유가교의 경계와는 판연히 다른 화엄의 성불의를 해석하며 원효와 법장의 사상을 융합 수용하였다.(고익진, 1989) 그러나 견등은 의상계와 비의상계 화엄을 고루 익혀 일본에서 활동하였으며, 『기신론동이략집』은 견등이 아닌 지경(智憬)의 저술이라고도 한다.(최연식, 2002)

6. 화엄과 선

9세기 이래 남종선이 본격적으로 신라에 수용되어 불교계가 개편되면서 화엄과 유식이 중심이 된 중대 교학은 교학의 관념화로 인한 사상 자체의 문제와 지지기반의 변화로 사회적 기반이 크게 축소되었다. 화엄종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한편으로 왕실과 연계하여 지엄과 의상 등 신라 화엄 사상의 기반을 이루는 조사들에 대한 추모사업을 일으키고 화엄경을 사경하는 결사(結社)운동을 추진하였다.

결사운동은 해인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현준(賢俊)과 결언(決言)은 884년에 지엄을 추모하는 보은(報恩)결사를 조직하였고 886년에는 헌강왕의 명복을 비는 화엄경결사를 조직하였다. 결언은 861년에 경문왕의 초청으로 곡사(鶴寺)에서 원성왕의 명복을 비는 강의를 하였으며 『교분기(敎分記)』를 강의하였다. 895년에 해인사는 도적의 침입을 받아 승군(僧軍)을 조직하여 사원을 보호하였는데 승훈(僧訓)이 이 일을 주도하였다. 최치원도 만년에 해인사에 머물며 법장의 덕을 기리는 일을 주도하였다.(김상현, 1993)

선종의 부상에 대응하여 화엄종의 교리와 조직 및 신앙을 강조하며 정체성 확립의 노력으로 나온 것이 『신중경(神衆經)』의 성립이었다. 9세기 후반 화엄종단의 중심으로 부상한 해인사에서는 전장과 승군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에서 강력한 사원공동체를 구축하고, 그들의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화엄경』에 나오는 40류의 신종과 입법계품의 53선지식 그리고 39품의 이름을 더하여 『신중경』을 만들었다. 해인사의 희망이 왕건에 협력함에 따라 『신중경』은 고려에 전승되어 균여에게도 이어졌다.(남동신, 1993)

후삼국 시기에 해인사에는 두 계통의 화엄학풍이 공존하고 있었다. 하나

는 희랑(希朗)으로 왕건의 복전이 되었고, 다른 하나는 관혜(觀惠)로 견훤의 복전이 되었다. 희랑은 의상계 화엄학의 정통을 주도하던 태백산 부석사 학풍을 계승하여 북악(北岳)이라 불렀고, 관혜는 지리산 화엄사 학풍을 계승하여 남악(南岳)으로 불렀다. 남북악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은데, 화엄기신을 토대로 하는 화엄사 연기계를 남악으로, 법계도기를 중심으로 하는 부석사의 의상계를 북악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최병헌, 1980 ; 고익진, 1989) 신라말의 화엄학은 삼교·진부진(盡不盡)·육상·정토·성기·공양 등 30여 화엄 교학의 개념에 대해 이견들이 전개되어 있었고(李永洙, 1984) 이를 균여가 정리함으로써 사상체계의 재정립과 화엄 교단의 통합이 이루어졌다.

7. 고려 균여의 화엄사상

균여(均如, 923~973)는 나말 이래의 사상적으로 분열된 화엄교단의 내부적 과제와 교 선간의 갈등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러한 과제에 대응하는 사상체계를 정립하였다.

균여는 화엄의 초기 종장들인 지엄과 의상 법장의 주요 전적에 대해 10종 65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술을 이루어 신라 화엄에 대한 주석서인 『법계도원통기(法界圖圓通記)』와 『십구장원통기(十句章圓通記)』, 그리고 중국 화엄의 대성자인 법장의 저술에 대한 주석서들인 『교분기원통초(敎分記圓通鈔)』 『지귀장원통초(旨歸章圓通鈔)』 『삼보장원통기(三寶章圓通記)』 등을 남겼다. 균여는 이들 저술에서 지엄과 의상 법장의 견해를 인용하며 자신

의 입론 기초로 삼았다.

균여의 화엄사상은 신라 화엄의 전통을 의상의 화엄사상에서 확인하면서 그에 부가하여 중국 법장의 화엄사상을 아우르는 것이었다. 균여는 전체적인 내용 체계에서 법장의 해석을 따라 풀이하는 경우가 많지만 구체적인 해석에 들어가면 법장의 해석과 아울러 다른 견해를 함께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개진하였다. 이는 신라 화엄의 저술에 대한 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것으로 균여는 이와 같은 독자적 사상 정립을 바탕으로 고려 초기 사회에서 화엄의 위상 확립을 의도하였다.

균여는 화엄사상의 정리에만 관심을 두지 않고 향가 보현십원가(普賢十願歌) 11수를 지어 『화엄경』 보현행원(普賢行願)의 실천을 대중에게 전파하고자 하였다. 의상 이래 신라 화엄의 전통이 교학 연마보다 실천행을 중시한 결과로 신라말의 교학 재정비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는 균여에 의해 실현되었다. 균여는 동시에 실천행에 대한 관심을 보현행의 추구로 나타내 보였다. 이처럼 균여의 화엄사상은 초기 화엄교학의 기본 성격인 성상융회(性相融會)에 중심을 둔 것으로 이론면에서 약점을 보였던 신라 화엄학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이었다.(최병현, 1980)

균여 화엄사상의 특징은 교판론에서 드러나는데 균여는 『화엄경』만이 가장 높은 가르침인 원교(圓敎)이고 나머지는 그보다 낮은 하사교(下四敎)에 해당한다는 독자적인 별교일승절대론(別敎一乘絶對論)과 함께 『화엄경』이 점교에 해당하는 다른 경전과 구분되는 우월성을 갖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는 돈원일승론(頓圓一乘論)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교판론을 통해 균여는 『화엄경』과 화엄사상의 정당성과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화엄사상에 모든 법이 포섭될 수 있음을 주장함으로써 신라 하대 이후 크게 위축된 화엄종의 위상 강화를 의도하였다. 아울러 균여는 화엄사상의 핵심을 십현과 육상으로 설명하고 이를 체득하는 수행으로 자신의 몸을 분석함으

로써 이해할 수 있다는 관법을 강조하였다.(최연식, 1999) 균여가 돈원일승을 강조한 것은 원교와 하사교라는 이분법에 기초하면서 동시에 근기론적 동교론(同敎論)을 전개함으로써 모든 근기를 화엄의 세계로 진입시키려는 의식의 소산이었다. 균여의 이러한 의식은 법장과 징관 등 중국의 조직화된 화엄 이론을 활용하여 『도신장』과 같은 의상계 신라 화엄의 구체지향적인 사상 전통을 계승한 데서 성립된 것이었다. 도신과 징관의 영향을 받아 도입한 『법화경』의 인식으로 균여는 의상계 근기론과 구별되는 논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 중하근의 중생까지 포함하는 다수의 종교를 구축하려는 균여의 화엄학은 향가를 지어 중생을 제도하였던 행동과도 통하는 것이었다.(김천학, 2006)

참고문헌

- 高翊晉, 1989 『韓國古代佛教思想史』, 東國大學校出版部
- 金杜珍, 1995 『義湘- 그의 생애와 화엄사상』, 민음사
- 김두진, 2002 『신라 화엄사상사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金福順, 1990 『新羅華嚴宗研究』, 民族社
- 金相鉉, 1991 『新羅華嚴思想史研究』, 民族社
- 金天鶴 譯註, 1998 『華嚴經文義要訣問答』, 민족사
- 김천학, 2006 『균여 화엄사상 연구-根機論을 중심으로』, 해조음
- 오다 겐유 지, 태경 번역, 2007 『초기화엄사상사』, 불교시대사
- 李箕永, 1982 『韓國佛教研究』, 韓國佛教研究院
- 全海住, 1993 『義湘華嚴思想史研究』, 民族社
- 정병삼, 1998 『의상 화엄사상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趙明基, 1962 『新羅佛教의 理念과 歷史』, 新太陽社
- 吉津宜英, 1991 『華嚴一乘思想の研究』, 東京: 大東出版社
- 大竹晋, 2007 『唯識說を中心とした初期華嚴敎學の研究』, 東京: 大藏出版
- 石井公成, 1996 『華嚴思想の研究』, 東京: 春秋社

- 陳永裕, 1995 『華嚴觀法の基礎的研究』, 民昌文化社
- 坂本幸男, 1956 『華嚴教學の研究』, 京都: 平樂寺書店
- 金相鉉, 1996 「錐洞記와 그 異本 華嚴經問答」 『韓國學報』 84
- 金仁德, 1982 「表義의 華嚴思想」 『韓國華嚴思想研究』, 佛教文化研究院
- 南東信, 1993 「羅末麗初 華嚴宗團의 대응과 『(華嚴)神衆經』의 성립」 『外大史學』 5
- 朴書延, 2003a 「『道身章』의 華嚴思想 研究」, 東國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朴書延, 2003b 「신라 義相系 저술과 『華嚴經問答』의 관련성 연구」 『韓國佛敎學』 34
- 사토 아츠시, 1999 「일승법계도의 텍스트 문제」 『佛敎春秋』 15
- 石吉岩, 2003 「元曉의 普法華嚴思想 研究」, 東國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申賢淑, 1989 「法界圖記를 통해 본 義湘의 空觀」 『佛敎學報』 26
- 申賢淑, 1990 「義湘의 華嚴法界緣起와 空觀」 『如山柳炳德博士華甲紀念 韓國哲學宗教思想史』
- 李杏九, 1994 「新羅 華嚴의 初祖考: 慈藏法師의 華嚴思想」 『東國論集』 13
- 全海住, 1992 「一乘法界圖와 海印三昧論의 比較 研究」 『伽山李智冠스님華甲紀念論叢 韓國佛敎文化思想史』
- 海住, 1999 「『一乘法界圖』의 著者에 대한 再考」 『韓國佛敎學』 25
- 崔柄憲, 1980 「高麗時代 華嚴學의 變遷」 『韓國史研究』 30
- 최연식, 1999 「均如 華嚴思想研究-敎判論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崔鉉植, 2002 「新羅 見登의 著述과 思想傾向」 『韓國史研究』 115
- 최연식, 2004 「『健挈標訶一乘修行者秘密義記』와 羅末麗初 華嚴宗의 一動向」 『韓國史研究』 126
- 木村清孝, 1982 「韓國佛敎における理相即論の展開」 『南都佛敎』 49
- 石井公成, 2003 「朝鮮華嚴の特質-義湘系にみられ禪宗と地論敎學の影響」 『東大寺の歴史と敎學』
- 姚長壽, 1996 「房山石經における華嚴典籍について」 『中國佛敎石經の研究』, 京都大學學術出版會
- 李永洙, 1973·1974·1979·1984 「均如大師傳の研究」上·中·下一·下二, 『東洋學研究』 7·8·13·18
- 佐藤厚, 1994 「『一乘法界圖圓通記』解讀における二つの問題」 『東洋大學大學院紀要』 30
- 佐藤厚, 1996 「義湘の中道義」 『東洋大學大學院紀要』 32
- 佐藤厚, 1998 「義湘系華嚴文獻に見える論理-重層的敎理解釋-」 『韓國佛敎學 SEMINAR』 7
- 佐藤厚, 1999 「義湘系華嚴思想におけるの無住」 『印度學佛敎學研究』 94
- 佐藤厚, 2000 「義湘系華嚴學派の基本思想と『大乘起信論』批判-義湘と元曉の對論記事の背後にあるもの-」 『東洋學研究』 37
- 佐藤厚, 2002 「『健挈標訶一乘修行者秘密義記』の基礎的研究」 『東洋學研究』 39



목차

• 간행사	004
• 화보	008
• 일러두기	014
• 해제	017

1. 【明鼎 명효·海印三昧論 해인삼매론】

해제 43

1. 귀경송(歸敬頌) 50
2. 해인삼매 다라니 51
3. 도인과 계송 56
4. 해인삼매의 의의 59
5. 도인의 모양과 읽기 62
6. 다라니의 이해 67
7. 회향송(迴向頌) 71

2. 【表員 표원·華嚴經文義要決問答 화엄경문의요결문답】

해제 75

1. 7처와 9회의 의미 79
2. 육상의 의미 107
3. 십전을 세는 비유의 의미 129
4. 연기의 의미 146
5. 깊은 뜻을 탐구하는 의미 156
6. 보법의 의미 183





- 7. 법계의 의미 197
- 8. 일승의 의미 217
- 9. 교법을 나누는 의미 226
- 10. 십지의 의미 238

3. 【義天 의천・大覺國師文集 대각국사문집】

해제 257

1. 序 서문 265

- 1) 새로 모은 『원종문류(圓宗文類)』 서문 267
- 2)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教藏總錄)』 서문 274
- 3) 『성유식론단과(成唯識論單科)』를 간정(刊定)하는 서문 280

2. 辭 사 293

- 1) 국청사(國淸寺)를 새로 짓고 강의를 열며 295
- 2) 『우란분경(盂蘭盆經)』 강의를 시작하며 300
- 3) 『원각경(圓覺經)』 강의를 시작하며 304
- 4) 『유교경(遺敎經)』 강의를 시작하며 311

3. 表 표 313

- 1) 송나라에 들어가 법을 구하기를 청하는 표 315
- 2) 항주(杭州) 정원(淨源) 아사리(阿闍梨)의 처소에 가서 법을 배우기를 바라는 표 320
- 3) 법을 전함을 감사하는 표 322
- 4) 대궐에 나오라는 것을 사양하는 표 323





4. 狀 장 327

- 1) 정원(淨源)법사께 올리는 글 329
- 2) 송나라 정원(淨源)법사께 올리는 글 1 336
- 3) 송나라 정원법사께 올리는 글 2 339
- 4) 송나라 정원법사께 올리는 글 3 342
- 5) 송나라 선충(善聰)법사께 드리는 글 1 344
- 6) 송나라 선충법사께 드리는 글 2 345
- 7) 송나라 선충법사께 드리는 글 3 346
- 8) 송나라 정인(淨因)법사께 드리는 글 347
- 9) 송나라 원소(元炤)율사께 답하는 글 348

5. 疏文 소문 353

- 1) 동전을 주조하자는 소 355
- 2) 내시(內侍) 문관(文冠)에게 드리는 글 378
- 3) 송나라 천태(天台)대사의 탐을 친히 참배하고 발원한 소 382
- 4) 일본국의 여러 법사에게 교장(敎藏)을 모아줄 것을 요청하여 보내는 소 385
- 5) 세자(世子)를 대신하여 교장(敎藏) 모으기를 발원하는 소 386
- 6) 우란분일(盂蘭盆日)에 연비(燃臂)하고 발원하는 소 393
- 7) 선종(宣宗)을 대신하여 여러 종파의 교장(敎藏)을 새겨 인쇄하는 소 395
- 8) 반야도량 소 399

6. 文 文 403

- 1) 경덕(景德)국사 제문 405
- 2) 분황사(芬皇寺) 원효(元曉)성사 제문 406
- 3) 용두사(龍頭寺) 우상(祐詳)대사 제문 409





- 4) 새로 공부하는 학도 치수(緇秀)에게 보임 410
- 5) 새로 공부하는 학도 지웅(智雄)에게 보임 420
- 6) 새로 공부하는 학도 혜수(慧修)에게 보임 424
- 7) 새로 공부하는 학도 덕칭(德稱)에게 보임 426

7. 詩 詩 429

- 1) 칠장사(柒長寺)에서 혜소(慧炤)국사의 영정에 예배함 431
- 2) 고대산(孤大山) 경복사(景福寺)의 비래방장에서 보덕(普德)성사의 영정에 예배함 432
- 3) 지리산 화엄사(華嚴寺)에 머물며 지음 434
- 4) 화엄사에서 연기(緣起)조사 영정에 예배함 435
- 5) 새로 대선(大選)에서 대덕(大德)을 받은 이에게 보임 436
- 6) 『남산율초(南山律鈔)』를 강의하던 차에 우연히 한 구절 이룸 437
- 7) 삼각산(三角山) 인수사(仁壽寺)에서 문수보살 성상에 예배함 437
- 8) 윤관(尹瓘)상공이 상(常) 상인의 결사에 비기어 뜻을 담은 시를 보고 다행하고 감사함을 이기지 못해 화답하여 지음 438
- 9) 속리사(俗離寺)로 돌아가는 도생(道生)승통을 보내며 440
- 10) 봉선사(奉先寺)로 돌아가는 문인 낙진(樂眞)대사를 보내며 441
- 11) 문인 혜선(慧宣)대사가 주지가 되어 작별을 고하므로 지어 줌 442
- 12) 법왕사(法王寺) 화엄강주 이(利) 상인에게 줌 442
- 13) 학원에서 일삼아 쓰다 443
- 14) 현화사(玄化寺)에서 머물며 지음 444
- 15) 이자현(李資玄)거사에게 부침 445
- 16) 봉선사(奉先寺) 익승(翼乘)대사가 배우기를 좋아하고 싫증내지 않아 내가 그 뜻을 아름답게 여겨 『화엄경』 대경의 청량대소를 주어 유통하게 하다 446





- 17) 원각대참회를 삼각산(三角山) 현(玄)도인에게 부침 447
- 18) 감회를 학도에게 보임 447
- 19) 모후의 국상으로 서경에 이르러 영명사(永明寺) 부벽료(浮碧寮)에 올라 448
- 20) 반룡산(盤龍山) 연복사(延福寺)에 이르러 보덕(普德)성사의 비래방장(飛來方丈) 옛 터에 예경함 449
- 21) 낙진(樂眞)대사의 강의를 듣고 450
- 22) 스스로 경계함 450
- 23) 의천은 사신이 왕명을 받들어 와서, 천축국의 천길상(天吉祥)삼장의 진영과 복당(福唐) 비산계주(飛山戒珠)장로의 진영 1폭씩을 가져와 귀의 경례하게 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기 그지 없어, 삼가 시 세 수를 지어 주상께 받들어 올리고 보아 주시기를 엿드려 빕니다 451
- 24) 해인사에 물러나 지음 452
- 25) 해동소(海東疏)에 의해 『금강경』을 강설하고 축하하여 지음 456
- 26) 해동 교적(敎迹)을 읽고 455
- 27) 학도 중에 내 진영을 그린 이가 있는데 그 필묘를 아름답게 여겨 그로 인해 보임 456
- 28) 당나라 배(裴)상공의 「보리심을 일으키는 글[發菩提心文]」을 읽고 456
- 29) 기묘년 6월 21일에 이방(梨房)에서 이야기한 후에 우연히 시한 수를 이루어 세자전하께 올림 457
- 30) 혜덕(慧德)왕사를 애도함 458
- 31) 경진년 6월 4일에 국청사(國淸寺)에서 천태묘현(天台妙玄)의 강의를 마치고 나서 학도들에게 뜻을 말하여 보임 459





4. 【體元 체원·白花道場發願文略解 백화도량발원문약해】

해제 465

저자 472

1. 제목을 풀이함 476

2. 바르게 글을 해석함 479

1) 귀의하고 공경하여 봄을 이루고 능관과 소관을 잇음 479

(1) 공경하는 의식 479

(2) 모습을 관함 480

2) 삼가 발원을 내어 일을 이어 결과를 이룸 500

(1) 귀명하는 모습 500

(2) 따로 발원을 밝힘 503

3) 귀의하여 우리름을 맺고 본사에게 회향함 530

간기 531

- 찾아보기 533
- 역주자 563
-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565
- 한국전통사상총서 567





明晶 명효

【海印三昧論 해인삼매론】

해제

1. 귀경송(歸敬頌) _____
2. 해인삼매 다라니 _____
3. 도인과 계송 _____
4. 해인삼매의 의의 _____
5. 도인의 모양과 읽기 _____
6. 다라니의 이해 _____
7. 회향송(廻向頌) _____





解題 해제

『해인삼매론』은 통일신라 전기의 승려 명효(明暲)가 지은 책이다. 명효는 다른 곳에 관련 자료가 전하지 않아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신라 유식사상가인 도륜(道倫)의 『유가론기(瑜伽論記)』에 인명(因明)에 대해 “신라효법사(新羅暲法師)”의 견해를 인용하였는데, 이 효(暲)를 명효와 동일 인물로 보아 도륜 이전에 활동했던 것으로 추정한다.¹⁾ 『유가론기』가 705년 전후의 저술이므로 『해인삼매론』은 그 이전에 저술된 것이 된다. 또 『해인삼매론』은 일본에 전해져 740년에 필사되었고, 고려 의천의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教藏總錄)』에 “해인삼매론 1권 명효술(海印三昧論一卷 明暲述)”(韓4 p.682a24)이라고 목록이 실린 것을 비롯하여 일본의 목록에도 전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해인삼매론』이 인용된 책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명효에 관해서도 앞서 말한 도륜의 인용 외에는 알려진 내용이 없다. 이에 비해 밀교승 명효(明曉)가 있다. 명효는 총지문(總持門)에 관심을 갖고 700년에 인도에서 온 이무침(李無諂)에게 『불공견삭다라니경(不空羼索陀羅尼經)』

1) 金煥泰, 1994 『韓國佛教 古典名著의 世界』, 民族社, p.115



의 번역을 부탁하여 번역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開元釋教錄』 권9 大55 p.566b13~24) 이를 바탕으로 명효가 화엄과 밀교를 융합하려 했던 인물로 보기도 한다.²⁾ 그러나 밀교승 명효와 효법사는 다른 인물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³⁾

『해인삼매론』은 『화엄경』의 중심사상을 7언 28구 196자의 계송에 담아 내고 이를 정사각형의 틀 안에서 중심으로부터 외곽으로 구불구불 돌아 글자가 이어지는 도인(圖印) 형태로 엮고, 이에 대한 간략한 해설을 덧붙인 것이다. 내용을 단락지어 편의상 소제목을 만들어 대략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론
귀경송(歸敬頌)
해인삼매 다라니
도인(圖印)과 계송
해인삼매의 의의
도인의 모양과 읽기
다라니의 이해
회향송(迴向頌)

『해인삼매론』의 구조

명효는 널리 중생들이 큰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하고자 이 책을 지었다고 귀경송에서 밝혔다. 명효 자신의 서술과 같이 이 『해인삼매론』은 “모든 보살의 지혜의 눈을 열 수 있고, 모든 보살이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핵심적인 것으로서, “모든 경전의 중요한 뜻을 다 지니고 있으며,

2) 김상현, 1999 『신라의 사상과 문화』, 一志社, pp.354~377

3) 김두진, 2002 『신라 화엄사상사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pp.116~118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두루 품고 있는” 다라니에 해인삼매의 요지를 담아 낸 것이다. “삼세제불의 비밀법장 가운데 이 다라니보다 나은 것은 없기 때문에 위 없는 깨달음에 나아가려면, 미묘한 서원을 내어 자비심을 일으키고 선지식을 공경하고 삼보를 공경하고 대승경전에 의지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죄와 업장을 참회하고 선지식의 설법을 듣고 쉬임 없이 설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명효는 계송의 내용에 대한 해설이 없는 이유를 짧은 문장 가운데 많은 뜻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문장의 내용에 치중하면 수행자들이 몇 구절을 새겨보느라 근본 뜻에서 멀어질까 염려한 것이다. 불법을 배우는 데는 본심을 참회하는 것이 중요하지, 많이 듣게 해야 교만함만 키울 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생에는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문장에 대한 상세한 해석은 내가 많이 안다든가 하는 작은 소견을 가진 이들의 그릇된 견해를 더욱 증가시켜, 영원히 고해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게 할 수 있음을 염려한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도인(圖印) 형태의 저술은 이보다 앞서 의상(義相)의 『일승법계도(一乘法界圖)』가 있다. 『해인삼매론』과 『일승법계도』는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있다. 중생들의 성불을 위해 상징적 도인에 계송을 담아낸 것이 그 비슷한 점이다. 글자 배치를 구불구불 돌아가게 한 도인의 구성과 설명도 비슷하다. 그러나 도인을 읽어가는 방향은 서로 반대가 되며 계송에 대한 해설이 있고 없는 것은 큰 차이점이다. 『일승법계도』는 3언 30구 210자의 계송을 비슷한 형태의 도인으로 만들고 이 계송을 화엄교학의 체계에 맞춰 조직적으로 구조화하여 이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붙였다. 이점에서 계송 내용에 대한 해설이 없는 『해인삼매론』과 비교된다. 또 『일승법계도』는 신라 화엄사상을 대표하는 저술로 여겨져 이에 대한 후학들의 강학과 해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법계도기총수록』 등의 계송이 이루어졌지만 『해인

삼매론』에 대한 해석서는 찾아지지 않는 점도 다르다. 『일승법계도』가 계승을 자리행과 이타행과 수행으로 나누어 이론과 실천을 양립하는 치밀한 구조를 의도한 완결적 저술이라면 『해인삼매론』은 연기의 해설에 거의 집중했다는 차이를 보이는 점도 다르다.⁴⁾

『해인삼매론』은 『일승법계도』와 비슷한 형태로 저술되었으면서도 내용상 다른 점이 있다. 특히 『일승법계도』가 법성 성기로서의 구래불(舊來佛)을 강조한 데 비해 『해인삼매론』은 생사즉열반의 연기 구성불(舊成佛)을 주장하고자 한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⁵⁾ 이와는 달리 『해인삼매론』을 화엄과 기신을 함께 수용하여 원효의 사상 계통을 계승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⁶⁾

대본으로 삼은 원문은 『한국불교전서』 권2 p.397b1~399b22에 수록되어 있다. 이 수록본은 『대일본속장경』에 수록된 것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 속장경본은 1113년(일본 永久元年)에 서사한 것을 1721년(享保六年)에 조범(助範)이라는 이가 성건(城乾) 고산사(高山寺) 장본(藏本)과 대교하였다고 부기되어 있다.⁷⁾

4) 海住, 1992 「一乘法界圖와 海印三昧論의 比較 研究」 『李智冠스님華甲紀念論叢 韓國佛教文化思想史』 上, pp.434~445

5) 海住, 위 글, p.445

6) 高翊晉, 1989 『韓國古代佛教思想史』, 동국대학교출판부, 348쪽; 김두진, 앞의 책, pp.133~134

7) 永久元年癸巳八月二十日書寫了, 筆生助範享保六年三月以城乾高山寺藏本對校.

참고문헌

- 高翊晉, 1989 『韓國古代佛教思想史』, 동국대학교출판부
- 金杜珍, 1999 「明晶의 海印三昧사상」 『震檀學報』 88, 震檀學會(2002『신라 화엄사상사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에 재수록)
- 金相鉉, 1992 「新羅 明晶의 海印三昧論考」 『何石金昌洙教授華甲紀念史學論叢』(1999『신라의 사상과 문화』, 一志社 재수록)
- 金煥泰, 1994 『韓國佛教 古典名著의 世界』, 民族社
- 李箕永, 1973 「明晶의 海印三昧論에 대하여」 『鷲山李殷相博士古稀紀念 民族文化論叢』(1982『韓國佛教研究』에 재수록)
- 海住, 1992 「一乘法界圖와 海印三昧論의 比較 研究」 『李智冠스님華甲紀念論叢 韓國佛教文化思想史』上
- 허남진 외, 2005 『삼국과 통일신라의 불교사상』, 서울대학교 출판부
- 木村清孝, 2003 「海印三昧論考」 『印度學佛敎學研究』 51-2, 印度學佛敎學研究會

해인삼매론 海印三昧論¹⁾

『대방광불화엄경』에 의해 명효(明晞) 지음

큰 도는 끝이 없으니 좁은 수행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극한 이치는 깊고 아득하니 얕은 지혜로 알 수 있는 바가 아니다. 만일 국한된 마음으로 도에 들어가려고 하면 도는 국한되어서는 들어갈 수 없고, 가르침에 집착하여 이치를 구하고자 하면 이치는 집착으로는 구할 수 없다. 요컨대 모나지 않는 큰 수행이어야 비로소 도라고 할 수 있으며, 높은 공(空)의 원만한 지혜이어야 멀리 이치에 맞는다. 그러므로 장래의 군자들은 여가 부치는 뜻에 같이 생각하기 바란다.

依大方廣佛華嚴經 明晞所述

若夫大道無邊，非隘行之能尋，至理深玄，非淺智之所識。如以局情入道，道非局入，執教求理，理非執求。要以無方大行，始可稱道，屢空圓智，迥會理矣。故請將來君子，同懷寄筌之意。

1) 해인삼매(海印三昧, Sāsāgara-mudrā-samādhi)는 『화엄경』의 전체적인 선정을 말한다. 『화엄경』은 7처8회로 구성되어 있고(이는 60화엄에 의한, 80화엄은 7처9회여서 다소 다르나, 명효가 의거한 『화엄경』은 60화엄이므로 7처8회임), 각 회마다 설법에 들어가기에 앞서 부처님은 특별한 선정에 들어간다. 해인은 비유이다. 큰 바다에 바람이 그쳐 파도가 고요해지고 물이 맑아지면 온 세상의 모든 것이 해

1. 귀경송(歸敬頌)

시방의 모든 법계에 계신 삼보께

목숨 바쳐 귀의합니다

제가 부처님의 은혜를 갚고자

경전의 뜻을 간략히 연설하여

널리 중생들이

면에 비추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이처럼 부처님의 마음 속에서는 분별의 파도가 일지 않아 맑고 고요하여 삼라만상이 한번에 비추어져 삼세의 일체법이 모두 뾰족없이 나타나는 부처님의 삼매 경계를 해인삼매라고 한다.(法藏, 『修華嚴奧旨妄盡還源觀』 大45 p.637b21~28. 言海印者, 真如本覺也. 妄盡心澄, 萬象齊現, 猶如大海因風起浪, 若風止息海水澄清無象不現. 起信論云, 無量功德藏法性真如海, 所以名爲海印三昧也. 經云, 森羅及萬象, 一法之所印, 言一法者所謂一心也. 是心即攝一切世間出世間法, 卽是一法界大總相法門體, 唯依妄念而有差別, 若離妄念唯一真如, 故言海印三昧也.) 『화엄경』은 이 해인삼매 중에 비추어 나타나는 만유에 의거하여 여실히 설했다고 한다. 법장(法藏)은 『화엄경문의강목(花嚴經文義綱目)』에서 7처8회는 여래의 해인삼매가 현현한 것이라 하고, 각 회를 구분하여 제1회는 일체여래장삼매(一切如來淨藏三昧), 제2회는 선정에 들지 않았고, 제3회는 보살무량방편삼매(菩薩無量方便三昧), 제4회는 선복삼매(善伏三昧), 제5회는 명지삼매(明智三昧), 제6회는 대지혜광명삼매(大智慧光明三昧), 제7회는 불화엄삼매(佛花嚴三昧), 제8회는 여래사자분신삼매(如來師子奮迅三昧)에 든다고 해설하였다.(大35 p.498c25~499a11.) 법장은 또 화엄교학의 대강을 제시한 『오교장(五教章)』의 첫머리에서 여래 해인삼매의 일승의 교의를 10문으로 해석한다고 하였다.(『華嚴一乘教義分齊章』 권1 大45 p.477a6~7.) 명효의 『해인삼매론』의 도입보다 앞서 이루어진 의상(義相)의 『일승법계도(一乘法界圖)』에서는 법계도인(法界圖印)의 해석에서 왜 인에 의지했는가 하는 물음에 석가여래의 가르침의 그물이 포섭하는 3종세간이 해인삼매에 따라 빙빙 돌며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一乘法界圖』 韓2 p.1a2~4. 將欲釋文, 二門分別. 一總釋印意, 二別解印相. 問何以故依印? 答欲表釋迦如來教網所攝三種世間, 從海印三昧, 槃出現顯故.) 이들은 모두 화엄사상의 대강이 해인삼매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나타낸 것들이다.

큰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하고자 하오니

원컨대 자비로서 지켜주시어

저의 본래 서원을 이루어주소서

歸命盡十方 法界中三寶

我欲報佛恩 略演契經義

普令衆生類 得大涅槃樂

願慈加護念 滿我本誓願

2. 해인삼매 다라니

논하여 말한다.

위대한 삼매(三昧)²⁾가 있어 해인(海印)이라 한다. 수행자가 물러남이 없는 경지[不退地]³⁾에 속히 이르게 하고, 작은 방편을 써서 큰 이익을 얻게 한다. 해인의 안에 있는 중요한 뜻을 계송으로 읊은 것을 다라니(陀羅尼)⁴⁾

2) 삼매(三昧) : ㉠samādhi, 등지(等持)·정(定) 등으로 의역함. 마음을 한 곳에 고정해 두는 일종의 안정 상태. 수행자가 마음을 한 곳에 두고 흐트러지지 않아 안정을 유지하는 상태를 삼매라 한다. 삼매에 이르게 되면 바른 지혜가 일어나 진리를 깨닫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 삼매를 수행하여 부처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을 삼매발득(三昧發得) 또는 발정(發定)이라고 한다.

3) 물러남이 없는 경지[不退地] : 불퇴(不退, ㉠avinivartanīya)는 아비발치(阿鞞跋致) 또는 아유월치(阿惟越致)라고 음역하며, 불퇴전(不退轉)·무퇴(無退)라고도 한다. 삼악도나 성문·연각의 이승의 지위로 물러나 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증득한 보살의 지위와 깨달은 법에서 다시는 물러나지 않고 반드시 성불에 이르는 지위이다.

4) 다라니(陀羅尼) : ㉠dhāraṇī, 총지(總持)·능지(能持)·능차(能遮)로 의역한다. 무량한 불법을 모두 거두어 기억하여 지니므로 총지(總持)라고 하고, 악한 법을

라고 하는데, 모든 경전의 중요한 뜻을 다 지니고 있으며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두루 품고 있다.

그런데 다라니는 대략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법(法)이고 둘째는 의(義)이다. 법에 세 가지가 있으니 본체(體)와 지혜(智)와 작용(用)이다.⁵⁾ 본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중생의 근본적인 한마음[一心]을 말한다. 이 마음은 본래의 자성(自性)이 청정하여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으며,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 넓고 크고 끝이 없어 허공과 같으니, 모든 세간법(世間法)⁶⁾과 출세간법(出世間法)⁷⁾을 다 지녀 받아들이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다.

모두 막아주어서 능차(能遮)라고 한다. 법문의 한 글 한 뜻을 기억하여 일체법을 연상하게 함으로써 무량한 불법이 없어지지 않도록 한다. 다라니는 여러 가지 좋은 법을 지녀 악법을 막아주므로 보살이 중생을 위하고 교화할 때 반드시 이 다라니를 얻어야 대중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자재로 법을 설할 수 있다고 한다. 후대에 들어 다라니의 형식이 주문과 비슷해져 혼동하므로 주문[呪]도 다라니로 함께 부르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자구가 한 두자인 것을 종자(種子), 짧은 것을 진언(眞言)이라 하고, 긴 것을 다라니라고 한다.

5) 다라니에 법과 의가 있고, 법은 체·지·용, 의는 원교대묘라는 이 해석 구조가 『기신론』의 대승에 법과 의가 있고, 법은 중생심, 의는 체·상·용이라고 하는 구조와 같은 것이라고 보아, 이 『해임삼매론』이 『화엄경』의 보법(普法)세계를 『기신론』의 삼대설(三大說)과 동일한 경계로 보는 원효의 화엄사상을 계승한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高翊晉, 1989 『韓國古代佛教思想史』, 동국대학교출판부, p.348)

6) 세간법(世間法) : ㉠loka-dharma. 번뇌의 인연으로 생긴 삼계의 유정과 비유정의 일체법. 이들 제법은 모두 번뇌가 있고 무상한 것이다. 사제(四諦) 중에서 고제와 집제가 세간법에 속한다. 일체 세간법 중에서 이롭고[利], 쇠락하고[衰], 험고[毀], 영예롭고[譽], 칭찬하고[稱], 꾸짖고[譏], 괴롭고[苦], 즐거운[樂] 여덟 가지를 특히 8세간법이라 한다.

7) 출세간법(出世間法) : ㉡lokottara. 세간을 벗어났다는 뜻으로, 번뇌에 묶인에서 벗어난 번뇌가 없는 해탈법. 사제 중에 멸제와 도제가 출세간법이다. 세간이 세속의 일을 말하는 것에 대해, 출세간은 불법을 말한다. 세간이 번뇌를 말하는 데 대해, 출세간은 해탈을 말한다. 또한 일체의 생사법을 세간이라고 하는데 대해, 열반법을 출세간이라고 또 해탈을 위해 닦는 사제와 육바라밀 등이 모두 출세간법이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래의 경지의 여리지(如理智)⁸⁾와 여량지(如量智)⁹⁾의 두 지혜를 말한다. 비추지 않는 이치가 없고 통달하지 않는 일이 없어서, 모든 끝이 없는 공덕을 모두 지녀 받아들이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다.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래의 경지의 응신(應身)¹⁰⁾과 화신(化身)¹¹⁾의 두 몸을

-
- 8) 여리지(如理智) : 근본지(根本智). ⑤mūla-jñāna. 근본무분별지(根本無分別智) · 실지(實智) · 진지(眞智)라고도 한다. 무분별지(無分別智)의 하나. 후득지(後得智) 곧 여량지(如量智)에 상대된다. 모든 지의 근본이 되며, 진여의 미묘한 이치를 증득할 수 있는 것으로, 평등하여 여실하며 차별이 없기 때문에 무분별지라고 한다. 10바라밀 중의 반야바라밀을 말한다. 다음의 여량지 참조.
- 9) 여량지(如量智) : 후득지(後得智). ⑥pr̥ṣṭha-labdha-jñāna. 무분별후지(無分別後智) · 후득무분별지(後得無分別智) · 권지(權智) · 속지(俗智)라고도 한다. 무분별지의 하나. 근본지(根本智) 곧 여리지(如理智)에 상대된다. 근본지에 의해 진리를 깨달은 후에 다시 분별하는 얇은 지혜를 일으켜서 의타기성의 세속의 경계를 아는 지혜이다. 또 근본지가 분별하거나 분별되지 않는 것인데 비해 후득지는 분별되며 분별하는 지혜이다. 10바라밀 중 방편선교 등 4바라밀이 이에 해당한다. 여리지가 제일의제(第一義諦)의 진리를 비추는 지혜라면, 여량지는 속제(俗諦)의 삼라만상의 차별을 비추는 지혜이다. 실지는 절대진실의 평등하고 차별 없는 도리의 지혜이고, 권지는 상대하고 차별 있는 방편의 가르침에 관련된 현상의 지혜이다.
- 10) 응신(應身) : ⑦nirmāṇa-kāya. 응신불(應身佛) · 응화신(應化身)이라고도 한다. 부처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중생의 근기에 따라 변화하여 나타난 불신. 승응신(勝應身)과 열응신(劣應身)이 있는데, 승응신은 초지 이상의 보살을 위해 법을 설하는 부처님이고, 열응신은 지전(地前)의 보살과 이승을 위해 법을 설하는 부처님이다. 진신(眞身) · 응신 2신 중의 응신은 변화하여 나타난 불신을 말하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것 저것의 구별이 있고 상호가 구분된다. 이 경우 응신은 응신과 화신(化身)을 통칭하는 것이다. 법신(法身) · 보신(報身) · 응신 3신 중의 응신은 시간공간을 초월한 부처의 경계로부터 시공의 제한을 받는 형상으로 변화한 불신이다.
- 11) 화신(化身) : ⑧nirmāṇa-kāya.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형상으로 변화하는 불신. 이 경우 응신과 같다. 응신과 화신을 구분할 경우, 응신은 상대방에 따라 교화하기 편리한 모습을 나타내어 설법하는 부처님으로 32상 80종호를 갖춘 불신으로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지역에 출현하는 부처님이며, 화신은 특정

말한다. 널리 법계에 응하여 중생을 교화하여 미래가 다하도록 교화 작용을 그치지 않고, 모든 세간과 출세간에 있는 법을 모두 지녀 받아들이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다. 의라고 하는 것은 대승 원교(圓敎)¹²⁾에서 드러난 크고 넓고 미묘한 뜻을 말한다. 시방 삼세의 모든 부처님의 비밀스러운 가르침[法藏]¹³⁾을 모두 지녀 받아들이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다.

論曰, 有大三昧, 名曰海印. 速令行者至不退地, 用小方便獲大利益. 其印之內要義偈頌名陀羅尼, 總持一切契經要義, 普含一切諸佛功德. 然陀羅尼略有二種, 一法, 二義. 法中有三, 謂體智用. 所言體者, 謂諸衆生根本一心. 是心本來自性清淨, 不增不減, 不生不滅, 曠大無邊, 猶如虛空, 總持一切世出世法, 無不攝故. 所言智者, 謂如來地理量二智. 無理不照, 無事不達, 總持一切無邊功德, 無不攝故. 所言用者, 謂如來地應化二身. 普應法界, 教化衆生, 盡未來際, 化用無竭, 總持一切世出世間所有諸法, 無不攝故. 所言義者, 謂摩訶衍圓敎所顯, 廣大

한 상호를 갖추지 않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불신으로 범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범천이나 마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 12) 원교(圓敎): 구경(究竟)의 원만(圓滿)한 가르침. 『화엄경』(60) 권5에서는 선재동자(善財童子)를 위해 원만인연수다라(圓滿因緣修多羅)를 설했다고 하였다. 중국의 교판에서 북위의 혜광(慧光)이 점(漸)·돈(頓)·원(圓) 3교를 세우고 『화엄경』을 원교에 배당하였다. 수의 지의(智顗)는 오시팔교(五時八敎)의 교판을 세워 그 중 화법사교(삼장교·통교·별교·원교) 중 하나로 보았다. 지의는 원(圓)을 치우치지 않고 원만하다는 뜻으로 보아, 특히 법화의 가르침을 원교로 파악하였다. 당의 법장(法藏)은 오교를 주장하여 소승교·대승시교·대승종교·돈교·원교 중에서 특히 화엄의 가르침을 원교라 하였다. 원교는 일승의 교법을 가리킨다.
- 13) 가르침[法藏]: 법(法)은 교법(敎法)을 말하고, 장(藏)은 품어 간직함을 말한다. 그래서 법장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말하는데, 이 가르침은 많은 뜻을 품어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법장이라고 한다. 혹은 이러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경전을 말하기도 한다.

妙義. 總持十方三世諸佛秘密法藏, 無不攝故.

이와 같은 두 가지의 다라니문은 각각 헤아릴 수 없는 티끌과 모래만큼이나 많은 범문을 받아들여, 서로 용납하여 걸림이 없이 서로를 받아들인다. 하나의 문을 따라 들어가면 통하지 않은 곳이 없어, 모든 티끌과 모래만큼 많은 범문에 밝게 통달하여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서 두려워 할 것 없음[無所畏]¹⁴⁾을 얻는다. 『화엄경』의 계송에서 “하나 가운데 한량없는 것을 알고, 한량없는 것 가운데 하나를 안다. 이리저리 변하여 생기는 것은 진실이 아니므로, 지혜로운 이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¹⁵⁾ 라고 한 것과 같다.

이와 같은 두 가지의 다라니문은 헤아릴 수 없는 티끌과 모래만큼이나 많은 범문에 이르기까지 모두 해인삼매의 안에 들어간다. 비유하자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이 다 큰 바다에 들어가서 받아들이지 않는 물줄기가 없는 것과 같다. 해인삼매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경전의 (가르침의) 물을 다 받아들인다. 비유하자면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여러 하늘 궁전과 아수라(阿修羅)¹⁶⁾ 군대와 천제석(天帝釋)이 거느리고 있는 병사의 무리들이 모두 큰 바다의 물 가운데에 비치어 나타나는 것과 같다. 해인삼매 또한 이와 같아서 헤아릴 수 없고 끝이 없는 법계의 모든 부처와 보살의 성스러운 이

14) 두려워 할 것 없음[無所畏]: 부처님께서 설법할 때 갖추는 네 가지의 두려워할 것 없는 자신감으로 용맹하여 편안한 것. 부처만이 갖추고 있는 18가지의 공덕법[十八不共法] 중에 제법현등각무외(諸法現等覺無畏)·일체누진무외(一切漏盡無畏)·장법부허결정수기무외(障法不虛決定授記無畏)·위증일절구족출도여성무외(爲證一切具足出道如性無畏)의 4무소외가 있다.

15) 『대방광불화엄경』 권5 「여래광명각품(如來光明覺品)」 大9 p.423a1~2.

16) 아수라(阿修羅): ㉠Asura, 본래 인도의 전쟁을 관장하는 신이었었는데 흔히 악신으로 간주되었다. 그가 인드라신인 제석천(帝釋天)과 싸워 싸움을 그치지 않아 싸움의 상징이 되어, 그가 출현하는 곳을 아수라장(阿修羅場)이라 부른다. 업에 의해 태어나는 욕도 중의 하나로, 나쁜 쪽인 삼악도에 속한다.

들이 다 그 가운데 나타난다.

다라니의 뜻은 계송과 같다. 만일 독송하려고 하면, 인(印)의 가운데 모서리의 ‘생(生)’자에서 시작하여 인의 글을 따라 이리저리 돌아 ‘열반(涅槃)’에 이르러 끝나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如是二種陀羅尼門，各攝無量塵沙法門，相容無礙，互相攝入。隨入一門，無所不通，了達一切塵沙法門，入佛境界，得無所畏。如經偈言，“一中解無量，無量中解一。展轉生非實，智者無所畏。”如是二種陀羅尼門，乃至無量塵沙法門，悉入海印三昧之內。譬如天下所有諸水，悉入大海，無流不納。海印三昧亦復如是，悉納一切諸契經水。譬如空中日月星宿諸天宮殿，阿修羅兵及天帝釋所將兵衆，悉皆影現大海水中。海印三昧亦復如是，無量無邊法界諸佛菩薩聖，衆悉現其中。陀羅尼義如頌。應知如其欲讀，從印中角生字爲始，隨印文轉周迴，乃至涅槃爲終。

3. 도인과 계송

계송은 이렇다.

생사와 열반은 다른 곳이 아니며

번뇌와 깨달음은 본체가 둘이 아니네

열반이 가까이 있지만 아는 이 없고

깨달음이 가까이 있으나 보기 매우 어렵네

몸과 마음은 본래 생겨나고 없어짐이 없어

일체의 모든 법도 또한 그러하네

생겨남도 없어짐도 머뭇도 없는 곳
 이것이 곧 깨달음과 열반의 본체라네
 지혜로운 이는 하나 가운데 모든 것을 알고
 모든 법 가운데서 하나를 아네
 헤아릴 수 없는 법이 곧 하나의 법이며
 하나의 법이 곧 헤아릴 수 없는 법이네
 하나의 불토가十方 세계를 가득 채우나
 한 세계의 본래 모습은 커지지 않네
 하나의 불국에十方 세계를 받아들이나
 모든 세계가 겹쳐 쌓이지 않네
 하나의 티끌이十方 세계를 포함하고
 모든 티끌 가운데에도 또한 그러하네
 하나의 티끌이 더 넓게나 커지게 하지 않으니
 모든 세계의 본래 모습이 항상 그렇기 때문이네
 헤아릴 수 없이 광대한 시간을
 지혜로운 이는 곧 한 순간임을 깨달아 아네
 한 순간이 길고 멀리 늘어난 적 없고
 오랜 시간 또한 줄어서 급한 것도 아니네
 十方에 두루 나아가 성불하기를 구하나
 몸과 마음이 옛부터 성불하였음을 모르네
 지난 날 정진하여 생사를 버렸으나
 생사가 곧 열반임을 알지 못하네

頌曰

生死涅槃非異處 煩惱菩提體無二
 涅槃親而無人識 菩提近而甚難見

身心本來無生滅 一切諸法亦如是
 無生無滅無住處 則是菩提涅槃體
 智者一中解一切 一切法中解於一
 無量法則是一法 一法則是無量法
 一佛土滿十方刹 一刹本形亦不大
 一佛國容十方界 而諸世界不重累
 一塵包含十方刹 一切塵中皆如是
 不令一塵增曠大 諸刹本相恒如故
 無量無數曠大劫 智者了知則一念
 一念未曾演長遠 長劫亦不縮成促
 遍詣十方求成佛 不知身心舊成佛
 往昔精進捨生死 不知生死則涅槃

量	無	故	如	恒	相	佛	一	大	不	亦	形	本	刹
無	含	一	一	方	刹	國	一	切	一	一	法	中	一
數	包	塵	一	一	刹	容	解	量	無	一	於	解	刹
曠	塵	中	曠	大	諸	十	中	法	佛	土	滿	十	方
大	一	皆	增	一	一	法	一	則	一	法	量	無	是
劫	累	如	一	一	令	界	者	是	一	法	一	法	則
智	重	一	不	界	一	而	智	體	槃	涅槃	提	菩	是
者	一	知	一	一	念	生	死	涅槃	一	非	異	處	則
成	求	方	一	一	詣	槃	難	甚	一	近	提	煩	處
佛	一	知	一	身	徧	涅槃	見	一	心	本	菩	惱	住
佛	成	舊	一	心	促	未	滅	一	無	來	識	菩	無
往	亦	一	不	縮	成	曾	親	一	而	無	人	提	滅
昔	劫	長	一	遠	長	演	槃	涅槃	二	無	體	無	無
精	進	捨	一	生	死	一	諸	法	亦	如	一	無	生

4. 해인삼매의 의의

논하여 말한다.

이 법문은 모든 보살의 지혜의 눈을 열 수 있고, 모든 보살이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정토(淨土)¹⁷⁾에 낳고자 하는 모든 수행자는 마땅히 이 문에 의지하여 순간순간마다 익혀 배워야 하며 모든 시간 중에 잠깐이라도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이 법을 타는 이는 작은 방편을 사용하지만 부처의 과위(果位)에 빨리 이르게 된다.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바다에 들어가 저 언덕에 도달하려고 할 때, 좋은 순풍(順風)을 만나면 작은 방편을 사용해도 빨리 저 언덕에 도달하는 것과 같다. 이 법을 타는 이는 걷고 머물고 앉고 눕는[行住坐臥] 모든 시간 중에 항상 멸정(滅定)¹⁸⁾에 들어간다.¹⁹⁾ 이 법을 타는 이는 오래지 않아 마땅히 결림이 없는 인

17) 정토(淨土): 깨달음을 닦아 이룬 청정한 곳. 중생의 세계는 탐(貪)·진(瞋)·치(癡) 삼독(三毒)에 의해 이루어진 번뇌로 오염된 더러운 국토[穢土]인데 비해, 부처님께서 머무는 곳은 깨달음에 의해 거룩한 청정 세계이므로 청정한 국토[淨土]라 한다. 그래서 청정국토(淸淨國土)·청정불찰(淸淨佛刹)·정계(淨界)·불찰(佛刹)·불국(佛國)이라고도 한다. 몸을 재로 만들고 지혜를 없애[灰身滅智] 남음 없는 열반[無餘涅槃]을 이상으로 생각하는 소승불교에서는 정토를 말하지 않아 오직 대승불교에서만 말한다. 열반의 적극적인 활동을 인정하여 열반을 성취한 여러 부처들이 각자 무량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교화활동을 하는데 그 부처가 머무는 곳이 불국정토라고 하기 때문이다. 『무량수경』에서는 사바세계 이외에 다른 곳인 서쪽[西方]에 정토가 있다고 했으나, 『유마경』에서는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도 청정하고 깨달음을 열면 사바세계가 그대로 정토라고 하였다.

18) 멸정(滅定): 멸진정(滅盡定). ㉔nirodha-samāpatti. 심불상응행법(心不相應行法)의 하나. 마음[心]과 마음의 작용[心所]을 모두 단절한 정(定)이다. 무소유처(無所有處)의 번뇌를 떠난 성자가 신체마저 벗어난 열반[無餘涅槃]의 고요함에서 무심의 고요한 경계를 즐기기 위해 들어가는 정이다. 유부(有部)에서는 이 정의 실체가 있다고 주장하고, 경부(經部)나 유식에서는 거짓으로 만든 것으로 실제 법이 아니라고 본다.

지(忍地)²⁰⁾를 얻는다. 이와 같은 갖가지 이익이 있으니 모든 부처님이 셀 수 없는 겁을 머물면서 설하여도 다할 수 없을 정도이다.

삼세의 모든 부처님의 비밀스러운 법장 가운데 이 다라니 송보다 나은 것은 없다. 만일 빨리 위 없는 깨달음에 나아가고자 마음먹은 수행자가 있다면 마땅히 먼저 넓고 크고 미묘한 서원을 내어 모든 중생에게 큰 자비심을 일으키고, 선지식(善知識)²¹⁾에게 만나기 어려운 분들이라는 생각을 내며, 삼보를 공경하고 소중히 여겨 아만(我慢)²²⁾을 깨뜨려 없애고, 대승경전에 의지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모든 죄와 업장(業障)²³⁾을 참회해야 한다. 그런 뒤에 오로지 큰 선지식을 구하여 불법의 요체를 묻고, 설법을 다 듣고 난 다음에는 마음에 붙들어 매고 생각하여 설한 대로 수행하여, 모든 시간 중에 잠시라도 수행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만일 이와 같이

19) 『한국불교전서』의 교감에는 이 다음에 “乘此法者，蒙佛慈風，用小方便，速至佛果，亦復如是。乘此法者，不捨五欲，見無數佛。”이 추가되어 있는 본도 있다고 하였으나 내용이 중복되는 듯하여 제외한다.

20) 인지(忍地) : 보살 초지인 환희지(歡喜地)를 감인지(堪忍地)라고도 하나 여기서는 무생법인(無生法忍)의 지위를 말한다. 무생법인은 생겨남도 없고 없어짐도 없는 이치를 관찰하여 진여를 깨달아 알아 거기에 안주하여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보살이 초지나 7·8·9지에서 얻는 깨달음이라 한다.

21) 선지식(善知識) : ⑤ kalyāṇa-mitra, 정직하게 가르치고 덕행을 가졌으며 바른 길로 이끌어 주는 사람을 말한다. 지식(知識)·선우(善友)·승우(勝友)라고도 한다. 『반야경』에는 공이나 무상 등의 법을 설하여 사람들이 기뻐하며 믿음을 내게 하는 이를 말한다고 한다. 『화엄경』에서는 선재동자가 구도행을 하는 도중에 만나는 53 선지식을 말하여, 위로는 불보살에서부터 아래로는 천이나 인간에 이르기까지 어떤 형태인지를 가리지 않고 중생이 악을 버리고 선을 닦도록 하여 불도에 이끄는 사람을 말한다.

22) 아만(我慢) : ⑤ ātma-māna, 자신을 중심으로 삼아 집착하여 생겨나는 교만한 마음.

23) 업장(業障) : 악업(惡業)에 의해 생긴 장애. 언어나 행동 또는 마음으로 악업을 지어 정도를 방해하는 장애. 번뇌가 항상 일어나는 장애인 번뇌장(煩惱障)과 지옥이나 축생에 떨어져 불법을 들을 수 없는 장애인 보장(報障)과 함께 3장의 하나.

할 수 있다면 머지않아 마땅히 다라니문에 들어갈 것이다.

위에서 말한 해인삼매는 『화엄경』 「십지품(十地品)」²⁴⁾에서 나온 것이다.²⁵⁾ 그 인의 모습은 뜻에 따라 안배한 것이며, 그 계송의 글은 한 부 경전의 중요한 뜻을 총괄적으로 서술하여 계송으로 만든 것이다.

- 24) 『화엄경』 「십지품(十地品)」: 대본 『화엄경』 구성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한 부분. 화엄 보살도 수행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이다. 지(地, ṣbhūmi)란 주처(住處) 또는 주지(住持), 생성(生成)의 뜻으로서, 그 자리에서 법을 보존하고 육성함에 의해 과보를 남게 됨을 말한다. 불지(佛智)를 생성하고 능히 주지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온갖 중생을 젊어지고 교화하여 이익되게 하는 것이 마치 대지가 만물을 싣고 이를 윤택하게 하는 것과 같으므로 지(地)라 한다. 60권 『화엄경』에서는 제22품(권23~27)이며, 80권 『화엄경』에서는 제26품(권34~39)이다. 이 품은 『화엄경』의 7처8회(80권본은 7처9회) 중에서 제6회인 타화자재천회(他化自在天會)에서 설한 것으로, 십지보살의 수행을 상세하게 말한 것이다. 보살이 이 지위에 오르면 비로소 번뇌 없는 지혜[無漏智]를 내어 불성을 보고 성자가 되어 부처의 지혜[佛智]를 길러 보존함과 동시에 중생을 지키고 기르기 때문에 이 10지위를 십성(十聖)이라 한다. 초지 이전의 보살을 지전(地前) 보살, 초지에 오른 보살을 등지(登地) 보살, 초지부터의 십지보살을 지상(地上) 보살이라 한다. 십지는 ① 환희지(歡喜地, ṣpramuditā-bhūmi), ②이구지(離垢地, ṣvimalā-bhūmi), ③발광지(發光地, ṣprabhākārī-bhūmi), ④염혜지(焰慧地, ṣarciṣmatī-bhūmi), ⑤난승지(難勝地, ṣsudurjaya-bhūmi), ⑥현전지(現前地, ṣabhimukhī-bhūmi), ⑦원행지(遠行地, ṣdūraṅgamā-bhūmi), ⑧부동지(不動地, ṣacalā-bhūmi), ⑨선혜지(善慧地, ṣsādhumatī-bhūmi), ⑩법운지(法雲地, ṣdharmameghā-bhūmi)이다.

- 25) 『화엄경』에는 해인삼매(海印三昧)가 세 차례 나온다. 명효가 의거한 60권본 『화엄경』에는 권6 「현수보살품(賢首菩薩品)」, 권27 「십지품(十地品)」, 권34 「보왕여래성기품(寶王如來性起品)」에 나온다. 「현수보살품」에서는 계송 중에 해인삼매 세력을 설했고, 「십지품」에서는 보살마하살께서 지혜를 행하시어 불위지에 가까이 가서 보살이구삼매(菩薩離垢三昧) 등이 바로 앞에 나타남을 얻음을 설하는 중에 해인삼매가 나오며, 「보왕여래성기품」에서는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여래광명의 전광(電光)을 보여주시고 나서 여러 가지 삼매의 뇌진음성(雷震音聲)을 내시는 중에 해인삼매뇌성(海印三昧雷聲)이 있다. 여기서는 「십지품」의 내용을 들었다. (『大方廣佛華嚴經』 권27 「十地品」 大9 p.571c9~15.)

論曰，此法門者，能開一切菩薩慧眼，能果一切菩薩所願。一切行者，欲生淨土，當依此門，念念習學，一切時中，勿令間斷。乘此法者，用小方便，速至佛果。譬如有人，乘船入海，欲度彼岸，得好順風，用小方便，速達彼岸。乘此法者，行住坐臥，一切時中，恒入滅定。乘此法者，不久當得不礙忍地。有如是等種種利益，乃至諸佛住無數劫，說不能盡。三世諸佛祕密法藏，莫過於此陀羅尼頌。若有行者，意欲速進無上菩提，應當先發廣大妙願，於諸衆生，起大慈心，於善知識，生難遭想，敬重三寶，破除我慢，依大乘經，至心懺悔一切罪障。然後專求大善知識，諮問法要，聞說法已，繫念思惟，如說修行，一切時中，無間斷心。若能如是，不久當入陀羅尼門。如上所說海印三昧，出華嚴經十地品中。其印像者，以義安也，其頌文者，總述一部經中要義，以爲頌耳。

5. 도인의 모양과 읽기

왜 도인(圖印)의 길에 시작과 끝이 없는가?

하나의 도는 삼세의 한계를 떠나 있어 앞의 한계와 뒤의 한계를 받아들이 수 없음을 나타내고자 하기 때문이다.

왜 도인의 길에 꺾이고 구불구불한 것이 있는가?

하나의 도가 인연에 따르고 근기에 맞추어 삼승의 수행에 호응하여 차별을 나타내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이다.

어떤 뜻으로 56모서리가 함께 도인을 이루는가?

십지 이전의 40심위(心位)²⁶⁾와 십지와 등각과 묘각의 이와 같은 52위²⁷⁾

수행인 등이 모두 하나의 도에 의지하여 사섭법(四攝法)²⁸⁾을 닦아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기 때문이다. 52모서리는 52가지의 사람을 나타낸 것이고, 나머지 네 모서리는 사섭법을 나타낸 것이다. 십신(十信)²⁹⁾의 계위에서는 하나의 도와 사섭법을 우러러 믿기 때문이고, 십해(十解)³⁰⁾의 계위에서는 하나의 도와 사섭법을 믿고 이해하기 때문이며, 십행(十行)³¹⁾

26) 40심위(心位) : 52위 중 10지 이전의 10신위 · 10주위 · 10행위 · 10회향위. 화엄에서는 10신위를 제외한 30위를 삼현(三賢)이라 하여 십지의 십성(十聖)과 대비시켜 말한다.

27) 52위 : 대승보살이 처음 보리심을 발하여 수행을 쌓아 불교에 이르기까지의 수행 계위. 10신위 · 10주위 · 10행위 · 10회향위 · 10지위 · 등각위 · 묘각위. 보살의 수행 계위에 대해서는 경전마다 다르게 나온다. 『화엄경』에서는 10주 · 10행 · 10회향 · 10지 · 등각의 41위를 말한다. 『인왕경』은 10선(善) · 30심 · 10지 · 불지(佛地)의 51위이다. 『영락경』은 10신심(信心) · 10심주(心住) · 10행심(行心) · 10회향심(迴向心) · 10지심(地心) · 입법계심(入法界心) · 적멸심(寂滅心)의 52위이다. 『능엄경』은 10신 앞에 건혜지(乾慧地), 10회향 다음에 4선근을 넣어 57위를 말한다. 이들 중에 『영락경』의 체계가 가장 정연하여 널리 쓰이고 있다.

28) 사섭법(四攝法) : 보살이 중생을 거두어 들어 친애하는 마음을 일으켜 불도에 들어가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네 가지의 방법. 원뜻은 네 가지의 파악하는 법이다. ①보시섭(布施攝, ⑤dāna-saṃgraha). 베푸다는 생각이 없는 마음으로 진리를 주거나[法施] 재물을 줌[財施]에 따라 친애하는 마음을 일으켜 도를 받는 것. ②애어섭(愛語攝, ⑥priya-vāḍita-saṃgraha). 중생의 근성에 의해 좋은 말로 위로하여 친애하는 마음을 일으켜 보살을 따라 도를 받는 것. ③이행섭(利行攝, ⑦arthacaryā-saṃgraha). 몸과 입과 뜻으로 선행을 하여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친애하는 마음을 일으켜 도를 받게 하는 것. ④동사섭(同事攝, ⑧samānārthatā-saṃgraha). 중생과 친하여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 하고 법안으로 중생의 근성을 보아 그 좋아하는 대로 형상을 나타내 이익을 함께 누리게 하여 도에 들어가게 하는 것.

29) 십신(十信) : 보살의 수행계위 52위 중 처음의 10위. 부처님의 교법을 믿어 의심이 없는 계위. ①신심(信心), ②염심(念心), ③정심(精心), ④혜심(慧心), ⑤정심(定心), ⑥불퇴심(不退心), ⑦회향심(迴向心), ⑧호법심(護法心), ⑨계심(戒心), ⑩원심(願心).

의 계위에서는 하나의 도와 사섭법을 믿고 실천하기 때문이고, 십회향(十廻向)³²⁾의 계위에서는 이해와 실천을 원만하게 갖추어 하나의 도와 사섭법을 실천하기 때문이며, 십지(十地)³³⁾의 계위와 등각(等覺)³⁴⁾의 계위에서는 하나의 도를 바르게 증득하여 사섭법을 실천하기 때문이며, 묘각(妙覺)³⁵⁾

-
- 30) 십해(十解) : 십주위(十住位). 수행계위 52위 중 제11위부터 제20위까지의 계위. 10신(信)의 계위를 지나서 마음이 진제(眞諦)의 이치에 안주하게 되는 계위. ①발심주(發心住), ②치지주(治地住), ③수행주(修行住), ④생귀주(生貴住), ⑤구족방편주(具足方便住), ⑥정심주(正心住), ⑦불퇴주(不退住), ⑧동진주(童眞住), ⑨법왕자주(法王子住), ⑩관정주(灌頂住).
- 31) 십행(十行) : 보살의 수행계위 52위 중 제21위부터 제30위까지의 계위. 보살이 십주의 마지막에 부처님의 아들이 되는 인가를 얻은 후에 나아가 이타의 수행을 완성하기 위하여 중생제도에 노력하는 계위. ①환희행(歡喜行), ②요익행(饒益行), ③무위역행(無違逆行), ④무요굴행(無屈撓行), ⑤무치란행(無癡亂行), ⑥선현행(善現行), ⑦무착행(無著行), ⑧난득행(難得行), ⑨선법행(善法行), ⑩진실행(眞實行).
- 32) 십회향(十廻向) : 보살이 수행하는 계위인 52위 중에서 제31위부터 제40위. 10행을 마치고 지금까지 닦은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여러 행을 일체중생을 위하여 돌려주는 동시에 이 공덕으로 불과를 향해 나아가는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지위. ①구호중생회향(救護衆生廻向), ②이중생상회향(離衆生相廻向), ③불괴(不壞), ④등일체제불회향(等一切諸佛廻向), ⑤지일체처회향(至一切處廻向), ⑥무진공덕장회향(無盡功德藏廻向), ⑦입일체평등선근회향(入一切平等善根廻向), ⑧등수순일체중생회향(等隨順一切衆生廻向), ⑨진여상회향(眞如相廻向), ⑩무박무착해탈회향(無縛無著解脫廻向), ⑪입법계무량회향(入法界無量廻向).
- 33) 십지(十地) : 보살의 52위 수행계위 중 제41위부터 제50위. 부처의 지혜를 만들고 머물러 움직이지 않으며 일체중생을 교화하여 마치 대지가 만물을 싣고 이를 운택하게 하는 것과 같은 지위.
- 34) 등각(等覺) : 52위 가운데 51위. 삼아승기 백대겁의 장기간의 수행을 완성하고, 지금부터 묘각(妙覺)의 불과(佛果)를 얻으려는 지위. 내용적으로는 불타의 깨달음과 동일하고 실제로는 불타의 한발 앞에 있는 지위.
- 35) 묘각(妙覺) : 52위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로 온갖 번뇌를 끊고 지혜가 원만하게 갖추어진 부처의 경지.

의 계위에서는 하나의 도의 근원을 궁극적으로 원만하게 증득하여 미래가 다하도록 사섭법으로써 중생들을 교화하기 때문이다.

왜 계송에는 가로 세로가 모두 열 네 글자가 있는가?

보살행이 비록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류이지만 십바라밀과 사섭법을 떠나지 않음을 드러내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시방의 끝없는 일체 세계의 모든 보살들은 모두 이 실천에 의지하여 근본을 삼기 때문이다.

왜 계송에는 시작과 끝이 있는가?

겁 많고 약한 보살들을 안심시키고 편안하게 하여 불도(佛道)가 비록 멀지만 수행을 그만두지 않아 끝내 성불하여 물러서지 않도록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왜 계송의 시작과 끝이 모두 한 가운데에 있는가?

초발심(初發心) 보살이 익힌 올바른 관찰이 여래의 바른 관찰의 지혜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이다.

왜 가로 세로의 네 둘레를 따라 읽으면 모두 구절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매우 깊은 다라니의 뜻은 단견(斷見)³⁶⁾이나 상견(常見)³⁷⁾이나 치우친 견해(邊見)를 가진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이다.

왜 가운데에서부터 구절을 찾을 수 있게 하였는가?

매우 깊은 다라니의 뜻은 중도(中道)³⁸⁾의 올바른 관찰로만 알 수 있음을

36) 단견(斷見) : 斷ucceda-dṛṣṭi. 만유는 무상한 것이어서 실재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인간도 죽으면 몸과 마음이 모두 없어져 공으로 돌아간다고 고집하는 그릇된 소견. 상견(常見)에 대칭되는 말.

37) 상견(常見) : 常nitya-dṛṣṭi 或 śāśvata-dṛṣṭi. 인간은 죽지만 자아는 없어지지 않으며 오온은 과거나 미래에 항상 머물러 불변하여 끊어지는 일이 없다고 고집하는 그릇된 견해. 단견(斷見)에 대칭되는 말.

38) 중도(中道) : 中madhyama-pratipad. 치우치지 않는 중정(中正)인 도의 뜻. 불교의 근본적 입장. 12연기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상견과 단견, 유견(有見)과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이다.

왜 도인 밖에는 다시 계송이 없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비록 티끌이나 모래보다 많지만 하나의 도를 떠나지 않고, 하나의 도 밖에는 다시 법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이다.

왜 계송의 뜻을 해석하지 않는가?

수행하는 이가 짧은 문장 가운데 많은 뜻을 알도록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여러 수행자들이 근본을 버리고 지말을 좇아 몇 구절을 탐하느라 큰 이익을 잃을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경에서 말하기를, “차라리 적게 듣고 뜻을 많이 아는 것이 낫지, 많이 듣고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³⁹⁾ 라고 한 것처럼, 수행자들이 얻는 이익의 많고 적음과 근기의 깊고 얕음과 수행이 낯것인지 익었는지를 시험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작은 견해를 가진 교만한 중생들이 올바른 법 가운데서 중시하는 마음을 내도록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云何印道無始終者? 欲顯一道離三世際, 前際後際不可攝故.
云何印道有盤曲者? 欲顯一道, 隨緣稱機, 應三乘行, 現差別故. 以何義故, 五十六角共成印者? 欲顯地前四十心位及與十地等覺妙覺, 如是五十二位人等, 皆依一道而修四攝, 度衆生故. 五十二角, 表其五十二種人也, 餘四角者, 表四攝也. 十信位中仰信一道四攝法故, 十解位中信解一道四攝法故, 十行位中信行一道四攝行故, 十迴向中解行俱圓而行一道四攝行故, 十地位中及等覺位, 正證一道行四攝故, 妙覺位中究竟圓證一道根原, 盡未來際以四攝法化衆生故. 云何頌中縱橫同有十四

무견(無見) 등 치우친 견해로부터 떠나므로 12연기를 옳게 관하는 것이 중도의 정견이 된다.

39) 『대반열반경』 권28 大12 p.534a3~4. 寧當少聞多解義味, 不願多聞於義不了.

字者? 欲顯菩薩行雖無量種, 不離於十波羅蜜四攝行故. 十方無邊一切世界諸菩薩等, 皆依此行爲根本故. 云何頌中有始終者? 爲欲安慰怯弱菩薩, 佛道雖遠, 修行不絕, 終歸成佛, 勿退行故. 云何頌首及與頌末俱處中者? 欲顯初心所習正觀, 不異如來正觀智故. 云何縱橫四圍循讀, 皆失句者? 欲顯甚深陀羅尼義, 非斷常見及邊見人所能知故. 云何從中尋得句者? 欲顯甚深陀羅尼義, 中道正觀乃能知故. 云何印外更無頌者? 欲顯佛教雖越塵沙, 不離一道, 一道以外更無法故. 云何不釋頌中義者? 欲令行者, 於少文中多解義故. 恐諸行者, 棄本逐末, 貪數文句, 失大益故. 如經中言, “寧以少聞多解義味, 不願多聞於義不了.” 欲驗行者, 得利多少, 根機深淺, 行生熟故. 欲令小見憍慢衆生, 於正法中生重心故.

6. 다라니의 이해

그러나 이 깊은 뜻은 아홉 종류의 사람은 알 수 있는 경계가 아니다. 무엇이 그 아홉 사람인가? 첫째 범부가 알 수 있는 경계가 아니다. 둘째 세간지를 가진 변별력 있고 총명한 사람이 알 수 있는 경계가 아니다. 셋째 법의 현상[法相]을 분별하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경계가 아니다. 넷째 성문(聲聞)과 연각(緣覺)이 알 수 있는 경계가 아니다. 다섯째 공에 집착하는 견해를 가진 수행자가 알 수 있는 경계가 아니다. 여섯째 산란한 마음으로 많이 듣기만 한 사람이 알 수 있는 경계가 아니다. 일곱째 치우친 견해[邊見]를 가진 중생이 알 수 있는 경계가 아니다. 여덟째 단견(斷見)을 가진 중생이 알 수 있는 경계가 아니다. 아홉째 상견(常見)을 가진 중생이 알 수 있는 경

계가 아니다.

이러한 무리들이 서로 헐뜯어 말하기를, “나의 지혜는 뛰어나고 저들의 지혜는 틀림없이 모자라다. 오직 나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알 수 있다”라고 한다. 이와 같은 무리는 참으로 불쌍하다. 다섯 자 밖에 안 되는 몸으로 길고 큰 자아를 일으키고, 사방 한 마디밖에 안 되는 마음으로 허공을 다 헤아리려고 하니, 또한 어린 아이가 표주박으로 바닷물을 떠내고 말하기를, “오직 나만이 큰 바다를 다 잤다”고 하는 것과 같다. 좁은 견해를 가진 중생들이 불법을 재서 헤아리는 것이 이와 같다.

저들이 만일 아만을 깨뜨려 없애지 않고 본심을 참회하지 않는다면 (불법을) 가르쳐 보이기 힘들 것이다. 설사 입으로 암송하게 해도 깊은 이치를 알지 못하며, 비록 많이 듣게 해도 오직 교만함만 키울 뿐이어서 헛되이 수고롭기만 하고 아무런 이익이 없다. 경전의 계송에서 “비유하면 가난한 사람이 밤낮으로 다른 사람의 보배를 헤아리지만, 자기는 반 푼의 돈도 없는 것과 같이 많이 듣기만 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⁴⁰⁾ 라고 한 것과 같다.

이와 같은 갖가지 중생이 있어 그들을 보호하고자 하기 때문에 다시 뜻을 해석하지 않는 것이다. 저들의 그릇된 견해[惡見]를 더욱 증가시켜, 영원히 고해에서 빠져 나올 기약도 없게 될까 염려해서이다. 경의 계송에서 “법을 부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삼악도(三惡道)⁴¹⁾에 떨어지게 된다. 나는 차라리 설법하지 않고, 빨리 열반에 들어가리라.”⁴²⁾ 라고 한 것과 같다.

40) 『대방광불화엄경』 권5 「보살명난품(菩薩明難品)」 大9 p.429a3~4.

41) 삼악도(三惡道): 윤회하는 중생이 그 지은 업에 따라 가게 되는 곳 중에서 악업을 지어 가는 세 가지 좋지 못한 곳인 지옥(地獄, ㉩naraka-gati)과 아귀(餓鬼, ㉩preta-gati)와 축생(畜生, ㉩tiryagyoni-gati). 지옥으로 갈수록 더 힘든 곳이다. 이에 비해 선한 업을 쌓아 가게 되는 삼선도(三善道)는 천상(天上, ㉩deva-gati)과 인간(人間, ㉩manuṣya-gati)과 아수라(阿修羅, ㉩asura-gati)를 말한다. 이들을 모두 합쳐 육도(六道) 또는 육취(六趣)라고 한다.

이상에서 말한 것과 같이 다라니의 뜻은 무변행(無邊行) 등의 법계지(法界智)⁴³⁾로서만 알 수 있는 경계이다.⁴⁴⁾ 경의 계송에서 “허공에서 노니는 것처럼 법계에서 마음을 노니니, 이 사람이야말로 부처님의 경계를 아는 것이다.”⁴⁵⁾라고 한 것과 같다.

무슨 까닭으로 (세부는 없고) 근본만 남겨 놓았는가?

올바른 가르침은 끝내 항상 머물러 삼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함께 의지하는 것임을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이니, 비유하면 먹줄⁴⁶⁾을 먹이는 것은 변

42) 『묘법연화경』 권1 「방편품(方便品)」 大9 p.9c15~16.

43) 무변행(無邊行) 등의 법계지(法界智): 『화엄경』 「보살십주품(菩薩十住品)」에서 말하는 관정주(灌頂住)보살이 배워야 하는 지혜. 십주품에서는 삼세지(三世智)에서 지무변제불지(知無邊諸佛智)에 이르는 10지를 말하는데, 그중 네 번째가 법계무량무변지(法界無量無邊智)이다. 중생의 색법과 심법의 제법이 곧 법계임을 알아 일체세간에 두루 충만하여 끝이 없는 지혜를 말한다.(『화엄경』(60) 권8 「菩薩十住品」 大9 p.44b19) 『화엄경』에는 「노사나불품」에서도 무량무변법계지(無量無邊法界智)를 말한다.(『화엄경』 권3 「盧舍那佛品」 大9 p.408b29~c1. 爾時一切諸佛與普賢菩薩入一切智力, 與入無量無邊法界智, 與能詣三世諸佛所智) 여기서 말하는 다라니와 법계지의 연관에 대해서는 「십지품」에서 설하고 있다. “곧 시방의 여러 부처님께서는 금강장에게 진실하고 위없는 몸을 주고 걸림없이 잘 말하는 변재를 주고(……) 일체 부처님의 가장 미묘한 몸과 입과 뜻의 업을 주었다. 왜냐 하면 보살의 큰 지혜 광명 삼매를 얻었기 때문이요(……) 다라니문을 잘 얻어 깨뜨릴 수 없기 때문이요, 법계 지혜의 인(印)으로 잘 인가하기 때문이다.”(『화엄경』 권23 「十地品」 大9 p.542c8~18. 卽時十方諸佛與金剛藏真實無上身, 與無障礙樂說辯, 與善分別清淨智慧, 與善憶念不忘, 與善決定慧, 與至一切智處, 與諸佛無壞力, 與諸佛無所畏, 與諸佛無礙智分別諸法善開法門, 與一切諸佛上妙身口意業. 何以故? 以得菩薩大智慧光明三昧故, 亦是菩薩本願力故, 直心清淨故, 智慧明白故, 善集助道法故, 善修本業故, 念持無量法故, 信解清淨光明法故, 善得陀羅尼門不可壞故, 法界智印善印故.)

44) 위에서 말한 아홉 가지 알지 못하는 종류의 중생과 대비되는 구절이다.

45) 『대방광불화엄경』 권3 「노사나불품(盧舍那佛品)」 大9 p.409c1.

46) 원문의 승묵(繩墨)은 먹줄. 건물을 짓는데 바닥이나 벽 등 바탕과 건물 부재 등

하지 않는 법칙으로서 과거의 장인이나 미래의 장인이 함께 의지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또한 다음으로 이름만 보살인 자들이 지말을 버리고 근본을 찾아 본래의 근원에 통달하게 하고자 하기 때문이며, 올바른 법이 항상 머물러 없어지지 않고, 법의 빛이 항상 비추어 끝내 끊어지지 않아서 중생들의 무명의 어두움을 깨뜨려 없애게 하고자 하기 때문이며, 중생들이 세세생생(世世生生)에 태어나는 곳마다 부처의 종자⁴⁷⁾를 끊이지 않게 하고자 하기 때문에 (불법의) 근본을 남겨둔 것이다.

경전의 중요한 뜻을 대략 서술하면 이와 같다. 그 근원을 다하고자 하면 오직 부처님만이 완전히 알 수 있을 뿐이니, 다만 가르침을 우리러 믿어 이해하고 찬양할 뿐이다.

然此深義，非九種人所知境界。何等爲九？一非凡夫所知境界。二非世智辨聰境界。三非分別法相境界。四非聲聞緣覺境界。五非空見行者境界。六非散心多聞境界。七非邊見衆生境界。八非斷見衆生境界。九非常見衆生境界。如是等輩互相嫌言，“我智則勝，彼智必弱。唯我獨能盡解佛法。”如是等輩，甚可憐愍。於五尺身，起長大我，將方寸意，量虛空盡，亦如小兒蠡盃酌海，謂言“唯我量大海盡。”小見衆生度量佛法，亦復如是。彼等若不破除我慢，不悔本心，難可教示。設使口誦，不會深理，縱使多聞，唯長憍慢，徒勞無益。如經偈言，“譬如貧窮

에 먹을 문혀 곧게 줄을 쳐서 규준으로 삼는다.

- 47) 부처의 종자: 불종(佛種). 부처가 될 수 있는 종자. 곧 불성(佛性). 불과(佛果)를 얻기 위한 인(因). 그 인에 네 가지가 있다. ①중생이 본래 갖추고 있는 불성, 곧 연기의 이치, 중도의 이치, 제법의 본성이 공하다는 이치 등. ②번뇌. 번뇌 밖에 따로 깨달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온갖 잘못된 견해나 번뇌가 모두 부처의 종자이다. ③보리심(菩提心). 보리심의 인이 없으면 불과를 얻을 수 없다. ④칭명(稱名)염불 또는 문명(聞名)이 인에 의해 부처가 될 수 있다.

人, 日夜數他寶. 自無半錢分, 多聞亦如是.” 有如是等種種衆生, 欲護彼故, 更不釋義. 恐彼惡見轉加增長, 永沈苦海, 無出期故. 如經偈言, “破法不信故, 墜於三惡道. 我寧不說法, 疾入於涅槃.” 如上所說, 陀羅尼義, 是無邊行等法界智所知境界. 如經偈言, “遊心法界如虛空, 是人乃知佛境界.” 以何義故存其本者? 欲顯正法畢竟常住, 三世諸佛共所依故, 譬如繩墨是常法, 則前匠後匠共所依故. 復次欲令假名菩薩, 捨末尋本, 達本原故, 欲令正法, 常住不滅, 法光恒照, 畢竟不絕, 破除衆生無明闇故, 欲令衆生, 世世生處, 佛種不斷, 故存本也. 契經要義, 略述如是. 欲盡其原, 唯佛窮了, 但仰信解讚揚教耳.

7. 회향송(廻向頌)

큰 서원을 내고자 하여 계송으로 찬탄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매우 넓고 커서

크기가 허공과 같은데

내가 이미 말한 뜻은

한 털구멍 정도라네

말한 모든 공덕을

널리 중생들에게 베풀어

빨리 십지 지위에 올라

모두 함께 불과를 이루소서

欲發弘願, 以偈讚. 曰

佛法甚廣大 量同於虛空

我已所述義 如一毛孔分
所述諸功德 普施衆生類
速登十地位 皆共成佛果



表員 표원

【華嚴經文義要決問答 화엄경문의요결문답】

해제

1. 7처와 9회의 의미 _____
2. 육상의 의미 _____
3. 십전을 세는 비유의 의미 _____
4. 연기의 의미 _____
5. 깊은 뜻을 탐구하는 의미 _____
6. 보법의 의미 _____
7. 법계의 의미 _____
8. 일승의 의미 _____
9. 교법을 나누는 의미 _____
10. 십지의 의미 _____





解題 해제

『화엄경문의요결문답』은 신라 승려 표원(表員)이 중국과 신라 학자들의 견해를 모아 자신의 관점에 따라 화엄의 중요 이론을 정리한 것이다.

표원은 8세기 중반경까지 황룡사(皇龍寺)에 적을 두고 활동하였던 인물이다. 『요결문답』에 나타난 사상 경향으로 보면 표원은 법장의 사상에 경도된 원효계통의 화엄학자, 곧 신라 화엄의 주류인 의상계와는 경향을 달리 하는 화엄가로 추정된다. 표원이 의거한 『화엄경』은 칠처구회의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듯 법장이나 원효가 의거한 60권본이 아닌 80권본 『화엄경』이다. 그러나 법장의 견해를 가장 많이 인용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등장하는 『화엄경』 구절은 60권본이 대부분이다.

『요결문답』은 모두 18장으로 구성되었다. 이중 ①칠처구회의(七處九會義), ②설경시의(說經時義), ③설경불의(說經佛義)는 『화엄경』에 대한 해설이고, ④육상의(六相義), ⑤수십전유의(數十錢喻義), ⑥연기의(緣起義), ⑦탐현의(探玄義), ⑧보법의(普法義), ⑩실제의(實際義), ⑪여여의(如如義), ⑫법계의(法界義), ⑬일승의(一乘義), ⑭분교의(分教義)는 중국 화엄종에서 형성된 교의이며, ⑨발보리심의(發菩提心



義)와 ⑮십주의(十住義), ⑯십행의(十行義), ⑰십회향의(十迴向義), ⑱십지의(十地義)는 화엄의 수행 계위를 해설한 실천론이다.¹⁾ 표원은 인용 문헌에서 과목의 명칭을 직접 인용하거나 내용의 핵심을 과목 명칭으로 설정하고, 각 과목마다 ①석명(釋名) ②출체(出體) ③문답분별(問答分別)의 차례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 책에 인용된 논서는 정영사 혜원(慧遠)의 『대승의장(大乘義章)』·『십지경론의기』 등 29회, 안륜(安禪)의 『법경론(法鏡論)』 등 19회, 원효의 『법화중요』 등 14회, 의상의 『일승법계도』 3회, 법장의 『탐현기』·『오교장』·『지귀』·『삼보장』·『문의강목』·『기신론의기』 등 68회, 정법사 혜원(慧苑)의 『간정기(刊定記)』 등 20회이다.²⁾ 법장의 인용이 전 권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며, 정영사 혜원은 대부분이 십주의 이후의 보살 실천 계위에 집중되어 있고, 안륜은 연기의로부터 일승의까지와 십지의에 집중되어 있다. 원효는 설경불의와 육상의·십전유의·연기의·보법의·그리고 법계의·일승의에 집중되어 있으며, 의상은 십전유의와 연기의에, 정법사 혜원은 칠처구회의·설경시의·설경불의의 전반부와 탐현의·법계의·일승의·분교의에 많이 인용되었다. 이런 인용 중에서 안륜 1회, 의상 1회, 정법사 혜원 2회는 비판한 내용이다.

표원의 인용은 자신의 관점에 따른 독자적인 것이다. 연기의에서는 다섯

1) 18과를 김인덕은 1~3의 화엄경 문제, 4~8의 화엄철학, 10~12의 실제·여여·법계, 13~14의 일승과 분제, 9와 15~18의 보살도로 다섯 부류로 나누었고(金仁德, 1982 「表義의 華嚴學」 『韓國華嚴思想研究』, 113~114쪽), 김천학은 신(信)·해(解)·행(行)·증(證)으로 나누어, 신은 1~3, 해는 4~8과 12의 존재론, 10~11의 인식론, 13~14의 해석학, 행은 9와 15~18, 그리고 증은 본래 과목을 설정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남아 있지 않는 권5에서 다룬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김천학, 1998 『화엄경문의요결문답』, 민족사, pp.426~428)

2) 김천학, 위의 책, pp.424~426

사람의 견해를 고루 들어 조직하였고, 탐현의는 법장과 혜원, 보법의는 원효와 법장, 법계의는 안륜 원효 법장 혜원을 고루 인용하였다. 칠처구회의는 법장과 정법사 혜원을 수용하면서 독자의 문장으로 구성하고 9회 설법의 내용은 자신의 견해에 맞추어 해석하였다. 이처럼 표원은 법장의 사상에 기본 바탕을 두면서도 여러 이론 중에서 자신의 취지에 맞는 것만을 수용하여 독자적으로 구성하였다.

표원이 『요결문답』에서 의상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인용하고 원효의 학설을 많이 활용하며, 여래장사상에 바탕한 정법사 혜원의 견해를 다수 인용한 것은 원효와 같이 『기신론』을 통해 『화엄경』을 이해하려는 사상적 경향을 가졌기 때문으로 이해된다.³⁾

『요결문답』은 나라시대의 목록(「奈良朝現在一切經目錄」)에 등재된 이래 일본의 여러 목록에 올라 있어 많이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존 사본은 모두 여섯 가지로 알려졌다. 8세기 나라시대 사본인 권1의 사토(佐藤)본, 799년에 서사된 권1,2의 엔라쿠지(延曆寺)본, 역시 권1,2의 도다이지(東大寺) 사성장서(四聖藏書)본(18세기 초로 추정)과 도다이지 마츠하라(松原)문고본(1899년, 明治 32년), 4권 전체의 류코쿠(龍谷)대학본(1714년)과 교토(京都)대학본이다.⁴⁾ 이들 사본은 18세기 이전까지는 권1,2만 유통되었는데 18세기 이후에 권3,4가 더해졌고, 책 이름은 『화엄문의요결문답』이 본래에 가깝다고 추정된다.⁵⁾ 여기서의 기존의 예에 따라 『화엄경문의요결문답』으로 하였다.

이 책에서 번역한 부분은 18장 중에서 다음 10장의 일부분이다.

3) 高翊晉, 1989『韓國古代佛教思想史』, 동국대학교출판부, pp.343~346

4) 鄭在永, 2009『『華嚴文義要訣問答』에 대한 文獻學的 研究』『口訣研究』 23 김천학, 앞의 책, pp.414~422

이중 1권 1축의 권자본(卷子本)인 사토본은 1945년에 소실되어 1939년에 간행한 복제본만 남아 있다.

5) 鄭在永, 앞의 글, 결론

- 1) 7처와 9회의 의미[七處九會義]
- 2) 육상의 의미[六相義]
- 3) 십전을 세는 비유의 의미[數十錢喻義]
- 4) 연기의 의미[緣起義]
- 5) 깊은 이치를 탐구하는 의미[探玄義]
- 6) 보법의 의미[普法義]
- 7) 법계의 의미[法界義]
- 8) 일승의 의미[一乘義]
- 9) 가르침을 나누는 의미[分教義]
- 10) 십지의 의미[十地義]

화엄교학이 중심이 되는 부분과 신라 화엄교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분을 골라 번역하였다. 번역의 대본은 『한국불교전서』 2, pp.350b1~397a21에 수록된 본이다. 『한국불교전서』의 저본은 대일본속장경 수록본인데, 교토대본을 저본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각 장의 첫머리에 『한국불교전서』의 해당 부분을 명기하였다.

참고문헌

- 김천학 역주, 1998 『화엄경문의요결문답』, 민족사
- 黃圭燦, 1998 『新羅 表員의 華嚴學』, 民族社
- 高翊晉, 1989 『韓國古代佛敎思想史』, 東國대학교출판부
- 김두진, 2002 『신라 화엄사상사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金相鉉, 1991 『新羅華嚴思想史研究』, 民族社
- 金仁德, 1982 「表員의 華嚴學」 『韓國華嚴思想研究』, 東國대학교출판부
- 鄭在永, 2009 「『華嚴文義要訣問答』에 대한 文獻學的 研究」 『口訣研究』 23

화엄경문의요결문답

華嚴經文義要決問答

황룡사(皇龍寺)¹⁾ 석(釋) 표원(表員)²⁾ 지음

1. 7처와 9회의 의미[七處九會義]

세 가지 문으로 분별한다. 첫째는 이름을 풀이함[釋名]이고, 둘째는 본체를 드러냄[出體]이고, 셋째는 문답으로 분별함[問答分別]이다.

皇龍寺釋表員集

七處九會義.³⁾

三門分別. 第一釋名, 第二出體, 第三問答分別.

-
- 1) 황룡사(皇龍寺): 경상북도 경주시에 구황동에 있던 절. 신라 진흥왕 때인 553년에 착공하여 569년에 완공된 신라불교의 중심 사찰로 지금은 탑과 금당 강당지 등 절터만 보존되어 있다. 높이 225척의 장대한 구층탑(九層塔)과 3만 5천근의 장륙존상과 십대제자상, 49만근의 거대한 황룡사종 등을 갖추었던 신라의 국찰(國刹)이다.
 - 2) 표원(表員): 8세기 전반에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라 화엄 승려. 이 『화엄경문의요결문답』에 나타난 것으로 보면 법장의 사상을 바탕으로 원효를 계승한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 3) 韓2 pp.350b2~353a5

1) 이름을 풀이함

7과 9는 숫자이다.<대수석(帶數釋)⁴⁾이다.> 처(處)는 머무름이니 그쳐서 머무는 곳을 이른다. 회(會)는 만남, 또는 크게 계산하는 것이다.<『가원(佳苑)』⁵⁾에 “사방의 군국(郡國)⁶⁾들이 일대의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총합하여 계산하였는데, 이것을 회(會)라 한다.”⁷⁾라고 하였다.> 지금 살펴보니, 여기서는 다함없는 법계(法界)⁸⁾

4) 대수석(帶數釋): 두 낱말 이상으로 만들어진 복합어를 해석하는 방식인 육리합석(六理合釋) 중의 하나이다. 육리합석은 의주석(依主釋), 지업석(持業釋), 상위석(相違釋), 유재석(有財釋), 인근석(隣近釋), 대수석(帶數釋)이다. 의주석은 주체가 되는 낱말에 의지하여 해석하는 것으로서, 가령 ‘왕자’라는 복합어는 ‘왕’이라는 단어에 의거하여 ‘아들’의 성격을 분명히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지업석은 주어와 수식어를 구별하여 해석하는 것으로서, 가령 ‘고산(高山)’을 ‘높은 산’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상위석은 서로 어긋나는 낱말이 묶여 있는 단어를 해석하는 것으로서, 가령 ‘왕신(王臣)’을 ‘왕과 신하’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유재석은 복합어 자체가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령 ‘황의(黃衣)’라고 하면 그 뜻이 ‘황의를 입은 사람’ 혹은 ‘황의의 성자’로 해석되는 것이다. 인근석은 그 말을 해석할 적당한 단어가 없을 경우 비슷한 개념의 단어를 사용하여 해석하는 것으로서, 가령 ‘강의 근처’를 한문으로 ‘하반(河畔)’이라고 하여 ‘두둑[畔]’을 의미하는 단어를 끌어와 해석하는 것과 같다. 대수석은 숫자가 들어 있는 단어를 해석하는 것으로서, 가령 삼계(三界), 오온(五蘊) 등의 복합어이다.

5) 『가원(佳苑)』: 작자와 간행시기에 대해서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내용으로 보아 한(漢)나라 이후의 저술일 것으로 추정된다.

6) 군국(郡國): 한나라 때 실시된 지방의 통치제도이다. 수도와 가까운 곳은 ‘군(郡)’을 두어 황제가 직접 다스리고 먼 지역은 ‘국(國)’을 두어 제후를 봉하였다.

7) 『주례(周禮)』 「천관(天官)」 소제(小宰)에 “요와 회로써 출납을 다스린다.”(聽出入以要會)라고 하였는데, 그 주(註)에서 “한 달을 계산하는 것을 요라 하고, 한 해를 계산하는 것을 회라 한다”(月計曰要 歲計曰會)라고 하였다.

8) 법계(法界): 우주에 있는 존재를 ‘법(法)’이라고 하며, 그 존재 세계를 ‘법계’라고 한다. 혹은 진리의 표출이라 보아서 진여(眞如) 또는 법신(法身)과 동의어로 사용하기도 한다.

의 대중이 다함없는 법계의 공간에 모였으므로 회라고 이름한 것이다.

第一釋名者.

七九數名.〈帶數釋也〉處者居也, 謂止居之處. 會者遇也, 又大計也.〈佳苑云, “四方郡國, 錄一代之事, 總而計之, 名曰會也.”〉今案無盡法界大衆, 集會無邊法界處中, 故名會也.

2) 본체를 드러냄

법장(法藏)⁹⁾ 스님은 말했다. “소승(小乘)¹⁰⁾은 색(色) 등의 사진(四塵)¹¹⁾과 사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대(四大)¹²⁾와 같은 실체의 물질[實色]을 본

9) 법장(法藏)스님 : 643~712. 화엄종의 제3조. 자는 현수(賢首), 호는 국일법사(國一法師)이며, 향상대사(香象大師)라고도 부른다. 화엄종의 제2조 지엄(智儼)에게 수학했다. 화엄종의 대성자이며, 측천무후에게 신임을 받았다. 77세의 나이로 천복사(薦福寺)에서 입적하였다. 저서로는 『화엄경탐현기(華嚴經探玄記)』, 『화엄료간(華嚴料簡)』, 『화엄오교장(華嚴五教章)』, 『대승밀교경소(大乘密教經疏)』, 『범망경소(梵網經疏)』,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 『화엄장목(華嚴綱目)』, 『화엄현의장(華嚴玄義章)』 등이 있다.

10) 소승(小乘) : ‘작은 수레’라는 의미로서 대승(大乘)에 상대적으로 붙여진 명칭이다. 대승이 큰 수레로서 중생을 제도한다면 소승은 작은 수레로 중생을 제도한다는 의미이다. 이 명칭은 부파불교 시대에 대승을 자칭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의 교학을 폄하하여 붙인 말로서 소승의 사람들은 자신의 깨달음에만 안주하여 중생구제에 소홀하다고 비판하였다.

11) 사진(四塵) : 물질[色] · 냄새[香] · 맛[味] · 감촉[觸]의 네 가지의 대상 영역[四境]을 말한다.

12) 사대(四大) : ㉠catvāri mahā-bhūtāni, 사대종(四大種) 또는 사계(四界)의 약칭. 지(地) · 수(水) · 화(火) · 풍(風)의 네 가지 요소를 말한다. 대(大)는 원소라는 뜻이다. 지는 견고한 것을 본질로 하고 그 본질을 보존하며 유지하는 작용, 수는 습성(濕性)을 본질로 하는 작용, 화는 열을 본질로 가져 태우는 작용, 풍은 움직이는 성질이 있고 만물을 성장시키는 작용. 이 네 가지 요소가 모여 물질이 생긴다

체로 삼는다. 삼승(三乘)¹³⁾ 가운데 초교(初敎)¹⁴⁾는 범부와 소승과 초지(初地)¹⁵⁾ 이전의 보살들은 모두 아뢰야식(阿賴耶識)¹⁶⁾을 본체로 삼는다. 초지 이상의 보살들은 두 가지 뜻이 있으니, 보토(報土)¹⁷⁾의 보살들은 똑같이 아뢰야식을 본체로 삼고, 이지(二智)¹⁸⁾가 드러난 보살들은 유식지(唯識智)¹⁹⁾

고 생각하였다.

- 13) 삼승(三乘) : 성문승(聲聞乘), 연각승(緣覺乘), 보살승(菩薩乘)을 합하여 이르는 말이다. 성문승은 사성제(四聖諦)의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구하는 자이며, 연각승은 연기법(緣起法)을 관조하여 깨달음을 구하는 자이다. 그러나 이들은 중생 구제의 발심을 아직 일으키지 않은 유정(有情)이다. 그러므로 소승(小乘)으로 분류된다. 보살승은 성문승과 연각승의 깨달음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중생 구제의 발심을 일으킨 유정이다. 그러나 아직 정(情)의 습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각유정(覺有情)이라고도 부른다.
- 14) 초교(初敎) : 삼승(三乘)을 초교(初敎)와 종교(終敎)의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초교는 성문성과 연각승, 그리고 초지(初地) 이전의 십신(十信), 십주(十住), 십행(十行), 십회향(十迴向)까지의 보살에 대한 가르침이고, 종교는 초지 이상의 십지(十地)보살에 대한 가르침을 말한다.
- 15) 초지(初地) : 십지(十地)의 첫 번째 지위를 말한다. 십지(十地)는 보살이 부처가 되기까지 수행해야 하는 52단계 중에서 제41단계부터 제50단계까지(화엄 41위에서는 31위에서 40위까지)이다. 지(地)는 주처(住處)·주지(住持)·생성(生成)의 뜻이다. 십지는 차례대로 초지(初地), 2지, 3지 10지 등으로 부르기도 하고, 제1 환희지(歡喜地), 제2 이구지(離垢地), 제3 명지(明地), 제4 염지(焰地), 제5 난승지(難勝地), 제6 현전지(現前地), 제7 원행지(遠行地), 제8 부동지(不動地), 제9 선혜지(善慧地), 제10 법운지(法雲地) 등으로 부른다.
- 16) 아뢰야식(阿賴耶識) : ⑤ ālaya-vijñāna의 음역으로서 제8식을 말한다. 유식설(唯識說)에서 말하는 식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식(識). 과거에 지은 업의 영향이 종자로서 축적되어 현재와 미래에 걸쳐 자기의 심신은 물론 경계를 만들어내는 근원이 되는 것.
- 17) 보토(報土) : 이타(利他)의 국토로서 타수용신(他受用身)이 사는 정토이다. 여기서의 타수용신은 초지 이상의 보살을 위해 설법하고 교화하는 부처님의 몸이다.
- 18) 이지(二智) : 근본지(根本智)와 후득지(後得智)이다. 근본지는 ⑤ mūla-jñāna이고, 궁극적인 진리를 깨달은 지혜이다. 후득지는 ⑥ prṣṭha-labdha-jñāna이고, 근

를 본체로 삼는다. 종교(終敎)²⁰⁾의 경우는 다만 여래장진여(如來藏眞如)²¹⁾를 본체로 삼는다. 일승(一乘)²²⁾은 다함없는 법계의 삼세(三世)²³⁾ 전체에 있는 사람[人]과 법(法), 원리[理]와 현상[事] 등의 모든 법을 본체로 삼는다.”²⁴⁾〈생각건대, 지금은 뒤의 일승을 가지고 앞의 소승과 삼승 등을 바로잡았다. 핵심으로 안목이 되는 것은 뒤에 요약되어 나온다.〉

第二出體者.

法藏師云, “若小乘者, 色等四塵并能造四大實色爲體. 若三乘中, 初教者, 凡小地前, 俱以賴耶識爲體, 地上二義, 報土亦同, 賴耶爲體, 若二智所現, 卽以唯識智爲體. 若依終敎, 但以如來藏眞如爲體. 若一乘, 以無盡法界通三世間人法理事等諸法爲體.”〈案, 今正以後也前小三乘等. 宗爲眼目, 出後門中略也.〉

본지를 얻은 이후에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일으키는 지혜이다.

- 19) 유식지(唯識智): 모든 현상을 인식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아는 지혜이다.
- 20) 종교(終敎): 앞의 주) 14 참조. 삼승을 초교와 종교로 나눈 가운데에서 초지 이상의 십지보살에 대한 가르침을 말한다.
- 21) 여래장진여(如來藏眞如): 여래장은 모든 중생에게 여래의 성품이 있다는 의미이고, 진여는 진리의 다른 말이다. 그러므로 여래장진여는 모든 중생에게 여래의 성품이 있는 것이 진리라는 의미이다.
- 22) 일승(一乘): 유일무이(唯一無二)의 수레로써 중생을 구제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일승 사상의 근거는 『화엄경』과 『법화경』 등에서 찾는다. 일승 사상에 의하면, 성문승(聲聞乘)과 연각승(緣覺乘)과 보살승(菩薩乘)의 삼승(三乘)도 모두 일승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이라고 한다. 즉 일승은 대승불교의 궁극적 진리를 의미한다.
- 23) 삼세(三世): 과거, 현재, 미래의 세계.
- 24) 『화엄경탐현기(華嚴經探玄記)』 권3 「노사나불품(盧舍那佛品)」 大35 p.158b23~c2. 若小乘 以子母七微及色等四塵并能造四大實色爲體 若三乘中凡小地前 俱以賴耶識爲體 地上二義 報土亦同賴耶識爲體 若二智所現 卽以唯識智爲體 故攝論云 菩薩及如來 唯識智乃至爲淨土體故 若依終敎 俱以如來藏眞如爲體 若一乘以無盡法界通三世間 人法理事等諸行相卽互爲其體.

3) 문답으로 분별함

묻는다. 7처는 어디이며 9회는 어떤 것인가?

답한다. 인간 세상의 3곳, 천상의 4곳이다.〈이것이 7처이다.〉 제2회, 제7회, 제8회는 보광명전(普光明殿)²⁵⁾에서 거듭 모였으므로 9회가 된다.〈진역(晉譯) 『화엄경』²⁶⁾에는 8회로 되어 있는데, 제7회가 빠져 있다. 참고하라.〉 그런데 이 뜻을 요약하여 세 가지 문으로 간략히 하면, 첫째는 가르침의 뜻[教義]과 현상의 모습[事相]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는 장행의 과목[長科]과 본문의 부분[本分]을 말하는 것이고, 셋째는 생겨나는 순서를 말한다. 첫째에 두 가지 뜻이 있으니 앞은 총괄하여 설한 것이고 뒤는 개별적으로 설한 것이다.

第三問答分別

問云, 何七處, 何者九會耶?

答, 人中三, 天上四. 〈是七處也.〉 第二第七第八, 重會普光明殿, 爲九會. 〈晉經, 八會, 欠第七重會, 准也.〉 然將欲料簡此義, 略作三門, 一辨教義事相, 二長科本分, 三辨生起次第. 初中二義, 先總後別.

전체적으로 설한다.

묻는다. 이 경전은 어디서 설하였는가?

답한다. 연꽃처럼 더러움과 깨끗함이 원융한 곳에서 설하였다.〈이 뜻은 뒤

25) 보광명전(普光明殿): 부처님이 『화엄경』에서 제2회, 제7회, 제8회 때에 설법을 한 장소로서, 마갈타국의 보리도랑 옆에 있다고 한다.

26) 진역(晉譯) 『화엄경』: 동진시대에 불타발타라에 의해 412년에 번역된 것. 흔히 『60화엄』 또는 60권 『화엄경』 또는 진본(晉本)이라고 부른다. 그 후 대주시대(695~699)에 실차난타에 의해 80권 『화엄경』이 간행되어 『80화엄』 또는 주본(周本)이라고 부른다.

에 따로 나온다.〉

묻는다. 언제 설하였는가?

답한다. 부처님께서 처음 성도한 후 14일에 설하셨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일체의 구세(九世)와 십세(十世)²⁷⁾를 포섭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시기의 설은 곧 일체 시기의 설이다.〈이 뜻도 역시 뒤에 따로 나온다.〉

묻는다. 이 경전은 누가 설하였는가?

답한다. 이 경전은 시불(十佛)²⁸⁾의 노사나불(盧舍那佛)²⁹⁾이 설하였다. 이 부처님은 일체의 부처님을 포섭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번의 설법은 곧 일체의 설법이다.〈이 뜻도 역시 뒤에 나온다.〉

27) 구세(九世)와 십세(十世) : 구세(九世)는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에 각각 3세가 있으므로 9세가 된다. 십세(十世)는 화엄교학에서 말하는 것으로서 구세에 전체를 통괄하는 하나를 더한 것이다.

28) 시불(十佛) : 『화엄경』에서 설하는 열 가지 종류의 불신(佛身). 해경십불(解境十佛)과 행경십불(行境十佛)이 있다. 해경십불은 진실한 지혜로써 일체의 존재를 보면 모두 부처님의 현신(現身)이라는 의미로서 그 모습을 열 가지로 나눈 것이다. 그것은 중생신(衆生身), 국토신(國土身), 업보신(業報身), 성문신(聲聞身), 벽지불신(壁支佛身), 보살신(菩薩身), 여래신(如來身), 지신(智身), 법신(法身), 허공신(虛空身)이다. 그리고 행경십불은 보살의 수행이 완성된 부처의 경계를 열 가지로 나눈 것이다. 그것은 정각불(正覺佛), 원불(願佛), 업보불(業報佛), 주지불(住持佛), 화불(化佛), 법계불(法界佛), 심불(心佛), 삼매불(三昧佛), 성불(性佛), 여의불(如意佛)을 말한다.

29) 노사나불(盧舍那佛) : ㉔ Vairocana-Buddha.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이라고도 한다. 『화엄경』을 설하는 교주. 구역 60권 『화엄경』에서는 노사나불로, 신역 80권 『화엄경』에서는 비로자나불로 번역하였다. 『화엄경』에 따르면 노사나불은 한량 없는 겁 동안 공덕을 수행하여 정각을 이루고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에 머물면서 대광명을 놓아 시방을 두루 비추며 털구멍에서 화신의 구름을 내어 끝없는 경전의 바다를 연출한다고 한다. 중국 불교교학에서는 노사나불과 비로자나불을 구분하여 법신 비로자나불, 보신 노사나불, 화신 석가모니불의 삼신설을 세웠다.

묻는다. (이 경전은) 어떤 근기(根機)³⁰⁾들을 위하여 설하였는가?

답한다. 보현보살 등 해회(海會)³¹⁾의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설하였다. 왜냐하면 하나의 해회(海會) 대중이 일체의 해회 대중을 포섭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해회 대중을 위하여 설한 것은 곧 일체의 해회 대중을 위하여 설한 것이다.(아래의 문장에서 말하는 것과 같다.)

묻는다. 이 경전은 무슨 선정에 의거하였는가?

답한다. 해인삼매(海印三昧)³²⁾에 의거하였다. 해인삼매가 일체의 삼매를 포섭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삼매에 의거한 것은 곧 일체의 삼매에 의거한 것이다.(아래 문장에서 말하는 것과 같다.)

묻는다. 이 경전은 무슨 법을 설하였는가?

답한다. 화엄무진법문해(華嚴無盡法門海)를 설하였다. 화엄의 하나하나가 모두 일체의 법문을 포섭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법을 설한 것은 곧 일체의 법을 설한 것이다.(아래의 문장에서 말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뜻은 별도로 서술할 것이다.)

묻는다. 몇 가지 경전을 설하였는가?

답한다. 두 가지이다. 첫째는 이 세계의 교설이고, 둘째는 시방(十方)³³⁾

30) 근기(根機): 사람이 가진 종교적인 소질이나 능력을 뜻하는 말로 근(根)은 근본이 되는 힘이고, 기(機)는 발동하는 능력이다. 근기는 사람마다 타고난 정도가 다르므로 사람에 따라 교법을 이해하는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31) 해회(海會): 바다같이 넓은 곳에 청중이 들어찬 모임. 여러 성중들의 모임을 말하는데, 바다가 덕이 높고 크다는 것을 비유하여 하는 말이다. 징관의 『화엄경수소연의초』 참조. (『華嚴經隨疏演義鈔』 권1 大36 p.5c2~4. 云被難思之海會者, 以深廣故, 謂普賢等衆, 行德齊佛, 數廣利塵, 故稱爲海.)

32) 해인삼매(海印三昧): ① sāgara-mudrā-samādhi. 일체의 모든 사물이 바닷물에 비추어 나타나듯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이 마음속에 나타나는 삼매이다.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할 때 해인삼매에 들었다고 한다. 주 1) 참조.

33) 시방(十方): 열 가지 방향으로서 동, 서, 남, 북, 동남, 서남, 서북, 동북의 팔방에

의 교설이다. 이 세계의 교설 가운데 또 세 가지 본(本)이 있다. 상본(上本)은 십삼천대천세계미진수(十三大千世界微塵數)³⁴⁾의 계송으로 이루어진 사천하미진수(四天下微塵數)³⁵⁾의 품이고, 중본(中本)은 49만 8천 8백 개의 계송으로 이루어진 1천 2백개의 품이고,〈이상의 두 가지 본은 용궁에 숨겨져 있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하본(下本)은 10만 개의 계송으로 이루어진 38개의 품이다.³⁶⁾〈옛날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했지만 후에는 바뀌어 48품을 설했다고도 하고 또는 39품을 설했다고도 한다.³⁷⁾ 참고하라. 또한 『보안경(普眼經)』³⁸⁾이 있는데, 수미산에서 만들어 모은 붓으로 4대해(大海)의 물로 만든 먹물을 가지고 한 개의 품을 쓰더라도 끝까지 다 쓰지 못하는데, 이와 같은 품들이 티끌의

상, 하를 더해 시방이다.

- 34) 십삼천대천세계미진수(十三大千世界微塵數) : 십삼천대천세계(十三大千世界)는 열 개의 삼천대천세계이고, 미진수(微塵數)는 티끌만큼이나 많은 수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열 개의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티끌만큼이나 많은 수를 뜻한다.
- 35) 사천하미진수(四天下微塵數) : 사천하(四天下)는 수미산의 사방에 있다고 하는 네 개의 대륙으로서 남섬부주(南瞻部洲), 동승신주(東勝身洲), 서우화주(西牛貨洲), 북구로주(北俱盧洲)이다. 미진수(微塵數)는 티끌만큼이나 많은 수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천하미진수는 사천하에 있는 티끌만큼이나 많은 수를 뜻한다.
- 36) 『화엄경』을 상본(上本), 중본(中本), 하본(下本) 등으로 나누어 설명한 내용은 『화엄경탐현기』 권1(大35 p.122b12~21)과 『화엄경문의강목(花嚴經文義綱目)』 권1(大35 p.493b1~5) 등에 나온다.
- 37) 법장(法藏)의 『화엄경전기(華嚴經傳記)』 권1(大51 p.153b2~3)에는 48품으로 되어 있고, 혜원(慧苑)의 『속화엄경약소간정기(續華嚴經略疏刊定記)』 권1(大3 p.570b18~19)에는 39품으로 되어 있다.
- 38) 『보안경』은 『화엄경』 「입법계품(入法界品)」에 등장하는 해운(海雲)비구의 내용에서 언급된 경전으로서, 부처님이 해운비구에게 보안(普眼) 법문을 설하신 경전이다. 『화엄경』은大本(大本)과 약본(略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에서의 상본(上本), 중본(中本), 하본(下本)을 합친 것이 약본(略本)이고, 『보안경』이大本(大本)이다.

수보다 많다. 이 경전은 오직 대보살 등이 다라니(陀羅尼)³⁹⁾의 힘으로 받아 지닐 수 있는 것이지 패엽(貝葉)⁴⁰⁾에 기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⁴¹⁾ 왜냐 하면 이 세계의 교설이 총(總)이 되어十方세계(十方世界)의 교설이 권속(眷屬)이 됨을 반드시 포섭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부(部)가 전체의 부를 포섭한다. 지금 있는 것은 10만개의 계송 가운데 단지 4만 5천개의 계송<진역『화엄경』은 3만 6천개의 계송>으로 이루어진 39품 80권<진역『화엄경』은 34품 60권 또는 50권>이 세상에 전한다.<위의 일곱 가지 문답으로 그 전체적인 설을 마친다.>

總者.

問, 此經何處說耶?

答, 蓮華染淨圓融處說. <此義後當別出.>

問, 何時說耶?

答, 佛初成道, 第二七日說. 謂卽此時中, 攝一切九世十世故.

是故一時說卽一切時說. <此義亦當後別出.>

問, 此經是誰說耶?

答, 是十佛盧舍那說. 謂此佛卽攝一切佛故. 是故一說卽一切

39) 다라니(陀羅尼): 𑖀𑖔𑖡𑖫𑖔 (總持) 등으로 한역되기도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신비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고 믿어지는 주문.

40) 패엽(貝葉): 패다라엽(貝多羅葉)의 약어. 𑖀𑖔𑖡𑖫𑖔는 잎이라는 뜻인데 이를 한역하여 ‘패다라엽’이라고 하였다. 고대 인도에서는 종려 잎을 따서 장방형으로 잘라 표면을 편평하게 한 후 그곳에 문자를 새기고 기름을 흘려 새긴 문자의 자취를 검게 만들었으며, 그 잎마다 중앙에 구멍을 내어 하나로 묶어 책을 만들었다고 한다.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경전을 만들 때에도 패다라엽에 문자를 새겼기 때문에 불경(佛經)을 패엽경(貝葉經)이라고도 한다.

41) 『화엄경담현기』 권1 大35 p.122b8~12. 如下海雲比丘所受持普眼經 以須彌山聚筆 四大海水墨 書一品修多羅 不可窮盡 如是等品 復過塵數 此是諸大菩薩陀羅尼力之所受持 亦非貝葉所能書記.

說也. 〈此義亦當後出之.〉

問, 爲何機說耶?

答, 爲普賢等海會諸菩薩說. 以此一海會衆, 卽攝一切海會衆故. 是故爲一海會衆說, 卽爲一切海會衆說. 〈如下文云云.〉

問, 此經依何定耶?

答, 謂依海印三昧. 以此海印三昧, 卽攝一切三昧故. 是故依一三昧, 卽是依一切三昧. 〈如下文云云.〉

問, 此經說何法耶?

答, 謂說華嚴無盡法門海. 以此華嚴一一皆攝一切法門. 故說一法卽說一切法. 〈如下文云云. 此義下當別述也.〉

問, 說幾許經耶?

答, 有二種, 一此界說, 二十方說. 此界之中卽有三本. 上本, 有十三千大千世界微塵數偈四天下微塵數品. 中本, 有四十九萬八千八百偈一千二百品. 〈此上二本, 隱在龍宮不出.〉下本, 有十萬偈三十八品. 〈舊常說如此也, 更後說四十八品, 又云三十九品也. 准之.〉又有普眼經, 以須彌山聚筆, 四大海水墨, 書一品修多羅, 猶不能窮盡, 如是等品, 復過塵數. 此亦但是大菩薩等, 陀羅尼力之所受持, 亦非貝葉所能書記. 以此界所說爲總, 必攝十方所說爲眷屬故. 是故一部卽攝一切部. 今此所有, 卽是十萬偈中, 唯有四萬五千偈 〈晉經, 三萬六千偈〉三十九品八十卷 〈晉經, 三十四品六十卷, 亦是五十卷〉, 流傳於此. 〈上來七問答, 辨其總竟.〉

여기서부터는 개별적 교설을 밝힌다.

제1회는 부처님께서 연화장장엄세계해(蓮華藏莊嚴世界海)⁴²⁾의 마가다국⁴³⁾의 보리도랑(菩提道場)⁴⁴⁾에서 해회(海會)의 보살들과 함께 계실 때 보

현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威神力)을 받아서 모든 부처님의 비로자나여래 장신삼매(毗盧舍那如來藏身三昧)〈진역 『화엄경』의 여래정장삼매(如來淨藏三昧)이다〉에 들어 화장세계(華藏世界)⁴⁵⁾의 의과(依果)⁴⁶⁾와 대위광동자(大威光童子)⁴⁷⁾의 정인(正因)⁴⁸⁾을 설하였다. 여기에는 모두 6품 11권이 있다. 「세주

42) 연화장엄세계해(蓮華藏莊嚴世界海) : 연화장세계의 광대하고 끝이 없는 바다에 비유한 것.

43) 마가다국 : Magadha. 마게다(摩揭陀)로 음역. 삭존 당시에 가장 강성했던 인도의 나라. 인도 동북부에 있는 비하르(Bihar)주 남부를 중심으로 번영했던 왕국으로, 서기전 6세기에 빔비사라(ᄇ Bimbisāra, 頻毘娑羅)왕이 왕사성(王舍城, ᄇ Rājagṛha)으로 도읍을 옮겨 나라를 확장하기 시작하였다. 아들 아자타샤트루(ᄇ Ajātaśatru, 阿闍世)가 즉위하여 코살라(ᄇ Kosalā)국, 카시(ᄇ Kāśī)국, 바이샬리(ᄇ Vaiśālī)국을 정복하였다. 이후 난다(ᄇ Nanda)왕조, 마우리아(ᄇ Maurya)왕조를 거치면서 파트나(ᄇ Patna)를 중심으로 북인도 통일제국을 건설하고 수세기 동안 북인도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서기 4세기에 굽타(ᄇ Gupta)왕조가 마가다에서 일어나 북인도를 통일하고 광대한 영토를 확보하여 번영을 누렸으나, 6세기 중엽에 굽타왕조가 멸망하면서 마가다의 지위는 급속히 하락하였다.

44) 보리도량(菩提道場) :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장소이다. 즉 지금의 붓다가야에 있는 보리수 밑의 금강좌를 말한다.

45) 화장세계(華藏世界) :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 연꽃에서 나온 세계, 또는 연꽃중에 들어 있는 세계라는 뜻. 비로자나불의 과거의 발원과 수행에 의해 청정하게 장엄된 세계이고 십불이 교화를 베푸는 경계. 세계의 가장 아래에 풍륜(風輪)이 있고, 그 위에 향수해(香水海)가 있고, 그중에 하나의 대연화가 있고 미진수(微塵數)의 세계가 20종으로 중첩되는 중앙세계종을 중심으로 111세계가 그 물처럼 둘러 세계망(世界網)을 구성하고, 갖은 보물로 꾸며, 부처님께서 출현하시고 중생들도 충만한 광대무변한 세계. 『화엄경』의 이런 묘사와 달리 『법마경』에서는 1천 잎의 대연화가 있고, 그 잎 하나하나에 백억의 수미산·사천하·남염부제 등이 있으며, 비로자나불이 본원으로서 꽃대 위에 앉아 몸을 변화하여 1천 석가가 되어 천 개의 잎마다 존재한다고 묘사한다.

46) 의과(依果) : 과보(果報)에 정과(正果)와 의과(依果)가 있는데, 정과는 깨달음에 의한 과보이고, 의과는 숙업(宿業)에 의해 받은 과보이다.

묘엄품(世主妙嚴品)」 제1<5권이며, 제1권부터 제5권까지이다. 진역 『화엄경』의 「세간 정안품(世間淨眼品)」이다.>은 그 서분(序分)을 밝혔다.<다음은 정종분(正宗分)을 밝힌다.> 「여래현상품(如來現相品)」 제2<1권이며, 제6권이다.>, 「보현삼매품(普賢三昧品)」 제3, 「세계성취품(世界成就品)」 제4<이상의 2품은 합하여 1권이며, 제7권이다.>, 「화장세계품(華藏世界品)」 제5<3권이며, 제8권부터 제10권까지이다.>, 「비로자나품(毗盧遮那品)」 제6<1권이며, 제11권이다. 진역 『화엄경』은 이상의 5품을 따로 「노사나불품(盧舍那佛品)」이라고 하였다.>이다. 이 5품 중에서 앞의 4품은 비로자나불의 의과(依果)를 밝혔고, 마지막 1품은 부처님의 과거세의 정인(正因)을 밝혔으니 즉 대위광동자이다.

自下明其別說.

第一會, 佛在蓮華藏莊嚴世界海, 摩竭提國, 菩提場中, 與海會菩薩衆俱, 普賢菩薩, 承佛神力, 入一切諸佛毗盧舍那如來藏身三昧 <晉經, 如來淨藏三昧>, 說華藏依果, 威光正因也. 合六品一十一卷. 世主妙嚴品第一 <五卷, 從第一至第五, 晉經, 世間淨眼品>, 明其序分 <次明正宗>. 如來現相品第二 <一卷, 第六>, 普賢三昧品第三, 世界成就品第四 <已上兩品共一卷, 第七>, 華藏世界品第五 <三卷, 從第八至第十>, 毗盧遮那品第六 <一卷, 第十一. 晉經, 此上五品, 分名盧舍那佛品>. 此五品中, 初四品, 明毗盧舍那依果, 最後一品, 明佛往因, 卽大威光童子也.

제2회는 부처님께서 보광명전에서 해회의 보살들과 함께 계실 때 문수사리(文殊師利)⁴⁹⁾ 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서 여래의 삼업(三業)⁵⁰⁾

47) 대위광동자(大威光童子): 『화엄경』 권11 「비로자나품」(大10 p.54c11~15)에 나오는 인물로서焰광명대성(焰光明大城)의 희견선혜왕(喜見善慧王)의 태자이다.

48) 정인(正因): 직접적인 원인.

과 십신(十信)⁵¹⁾의 법문을 설하였다. 여기에는 6품(4권)이 있다. 「여래명호품(如來名號品)」⁵²⁾ 제7, 「사성제품(四聖諦品)」 제8(이상의 2품을 합하여 1권이며, 제12권이다.), 「광명각품(光明覺品)」 제9, 「보살문명품(菩薩問明品)」 제10(이상의 2품을 합하여 1권이며, 제13권이다.), 「정행품(淨行品)」 제11, 「현수품(賢首品)」 제12이다.(이상의 2품이 2권이며, 제14권과 제15권이다.) 이 6품 중에 앞의 3품은 부처님의 삼업(신(身), 어(語), 의(意)의 순서는 이에 준거한 것이다.)을 밝혔고, 뒤의 3품은 십신의 행법(해(解), 행(行), 덕(德)의 순서는 이에 준거한 것이다.⁵³⁾ 다른 곳에서는 처음에 행(行), 다음에 원(願), 마지막에 덕(德)으로 풀이하기도 하였다.⁵⁴⁾

49) 문수사리: 문수보살을 말한다. 문수보살은 부처님의 협시보살로서 지혜와 깨달음을 관장한다.

50) 여래의 삼업(三業): 삼업이란 원래 신업(身業), 구업(口業), 의업(意業)으로서 몸과 언어와 마음으로 짓는 선악의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여래의 삼업이란 여래의 몸과 언어와 마음이 나타난 모습을 형용한 것을 말한다. 즉 문수사리보살이 「불명호품」에서는 여래의 몸에 대해서 설하였고, 「사성제품」에서는 여래의 가르침을 설하였으며, 「광명각품」에서는 여래의 깨달은 마음에 대해 설하였다.

51) 십신(十信): 보살이 부처가 되기까지 수행해야 하는 52단계 중에서 최초의 10단계이다. 『화엄경』에서 설하는 보살행의 단계는 41위이지만 일반적인 52위에 따라 이 부분의 법문을 십신으로 해석한 것이다. 신(信)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극히 믿는 것이다.

52) 원문의 「불명호품」은 『80화엄경』에서는 「여래명호품」이다.

53) 『화엄경탐현기』 권4 「명호품(名號品)」에는 “이 「불명호품」은 신업이 편만하게 응함을 밝혔으니, 부처님의 명호가 몸에 의지하여 세워졌기 때문이다. 「사제품」은 부처님의 구업이 널리 두루함을 밝혔고, 「광명각품」은 부처님의 의업이 편만하게 깨달았음을 밝혔다.”(大35 p.167a20~22. 此明正報, 正報之中不過三業, 此品明身業遍應, 謂名號依身而立故. 四諦品, 明佛口業普周, 光明覺品, 明佛意業遍覺.)라고 하였다.

54) 『화엄경탐현기』 권4 「명난품(明難品)」에는 “신위 가운데에 해, 행, 덕이 있는데, 「명난품」은 해를 밝혔다.”(大35 p.175b21~22. 信中解行及德, 明難辨解.)라고 하였는데, 여기서의 「명난품」은 본문에서의 「보살문명품」에 해당한다. 그리고 권4

을 밝혔다.

第二會，佛在普光明殿，與海會菩薩衆俱，文殊師利，承佛神力，說如來三業，及信位法門。於中六品〈四卷〉。佛名號品第七，四聖諦品第八〈已上二品共一卷，第十二〉。光明覺品第九，菩薩問明品第十〈已上二品共一卷，第十三〉。淨行品第十一，賢首品第十二〈已上二品共二卷，第十四第十五〉。此六品中，初三品，明佛三業〈身語意，如次准之〉，後三品，辨信行法〈解行德，如次准之。又釋初行次願後德〉。

제3회는 부처님께서 도리천궁(忉利天宮)⁵⁵⁾의 묘승전(妙勝殿) 위에서 해회의 보살들과 함께 계실 때 법혜보살(法慧菩薩)⁵⁶⁾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서 보살무량방편삼매(菩薩無量方便三昧)에 들어가 십주(十住)⁵⁷⁾ 등의 법문을 설하였다. 여기에는 모두 6품이 있다. 「승수미산정품(昇須彌山頂品)」⁵⁸⁾ 제13, 「수미정상게찬품(須彌頂上偈讚品)」 제14, 「십주품(十住品),」

에는 “「정행품」의 뜻이 있게 된 것은 해 다음에는 행, 또 행 다음에는 원이니, 의미가 차례대로 있기 때문에 「정행품」이 오게 된 것이다.”(大35 p.184c20. 來意者, 前解次行, 又前行次願, 義次第故來.)라고 하였다.(김천학, 1998, p.30 주 49), 50), 51) 참조)

- 55) 도리천궁(忉利天宮) : 도리천에 있는 궁전. 도리(忉利)는 𑖣𑖦𑖯𑖪𑖳𑖫의 음역으로서 33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도리천은 삼십삼천(三十三天)이라고 한역된다. 도리천은 육계의 여섯 하늘 중에 두 번째 하늘로서 수미산의 정상에 있으며, 그 중앙에는 제석천의 궁전인 선견성(善見城)이 있고 그 안에 도리천궁이 있다고 한다.
- 56) 법혜보살(法慧菩薩) : 혜(慧)라는 글자가 붙은 열 명의 보살 곧 십혜(十慧)보살 중에서 첫 번째 지위의 보살이다. 십혜보살은 각각 시방의 자기 자리에 머물며 설법하여 십주(十住)를 완성한다. 법혜보살의 자리는 동방이다.
- 57) 십주(十住) : 보살이 부처가 되기까지 수행해야 하는 52단계 중에서 제11단계부터 제20단계까지이다. 주(住)는 마음이 진실한 공(空)의 이치에 안주하는 것이다.

제15<이상의 3품은 합하여 1권이며, 제16권이다>, 「범행품(梵行品)」 제16, 「초발심공덕품(初發心功德品)」 제17<이상의 2품은 합하여 1권이며, 제17권이다>, 「명법품(明法品)」 제18이다.<1권이며, 제18권이다.> 이 6품 중에 처음의 2품은 제3회의 서분<경을 설한 장소와 집회의 대중>에 해당한다. 그리고 뒤의 4품 중에 앞의 3품은 자분(自分)⁵⁹⁾<해, 행, 덕의 순서는 이에 준거한 것이다.⁶⁰⁾>을 밝히는 것이고, 나중의 1품은 승진분(勝進分)⁶¹⁾으로서 이후의 방편에 나아가려는 것이다.

第三會，佛在忉利天宮，妙勝殿上，與海會菩薩衆俱，法慧菩薩，承佛神力，入菩薩無量方便三昧，說十住等法門。於中合六品。昇須彌頂品第十三，須彌頂上偈讚品第十四，十住品第十五〈已上三品，共一卷，第十六〉。梵行品第十六，初發心功德品第十七〈已上二品，共一卷，第十七〉。明法品第十八〈一卷第十八〉。此六品，初二品，是當會序〈嚴處集衆〉。後四品中，初三品，明自分〈解行德，如次准之〉，後一是其勝進，趣後方便也。

제4회에서는 부처님께서 야마천궁(夜摩天宮)⁶²⁾의 보장엄전(寶莊嚴殿)

58) 원문의 「승수미정품」은 『80화엄경』에서는 「승수미산정품」이다.

59) 자분(自分): 수행 하나하나의 계위마다 자분(自分)과 승진분(勝進分)이 있다. 자분은 그 계위의 과덕(果德)을 말하고, 승진분은 더 높은 계위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60) 『화엄경탐현기』 권5 「십주품」에는 “「십주품」은 위(位)를 밝혔고, 「범행품」은 행(行)을 밝혔고, 「초발심공덕품」은 덕(德)을 찬탄하였다. 또 처음은 해, 두 번째는 행, 세 번째는 덕인데, 위의 「명난품(明難品)」 등의 세 품과 같다.”(大35 p.195c14~16. 初品明位 次品明行 後品歎德 又初是解 次是行 後顯德 同上明難等三品)라고 하였다.(김천학, p.31 주 55) 참조)

61) 승진분(勝進分): 수행의 계위에서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62) 야마천궁(夜摩天宮): 야마천에 있는 궁전. 야마천은 ㉔ Yāma-deva의 음역으로서 육계의 여섯 하늘 중에서 세 번째 하늘이다.

에서 해회의 보살들과 함께 계실 때 공덕림보살(功德林菩薩)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서 보살선사유삼매(菩薩善思惟三昧)(진역 『화엄경』에는 보살선복삼매(菩薩善伏三昧)라고 되어 있다.)에 들어가 십행(十行)⁶³⁾ 법문을 설하였다. 여기에는 모두 4품(3권)이 있다. 「승야마천궁품(昇夜摩天宮品)」 제19, 「야마궁중계찬품(夜摩宮中偈讚品)⁶⁴⁾」 제20, 「십행품(十行品)」 제21(이상의 3품은 합하여 2권이며, 제19권, 제20권이다.), 「십무진장품(十無盡藏品)」 제22이다.(1권이 며, 제21권이다.) 이 4품 중에 앞의 2품은 서분(앞의 제3회와 같다)이고, 뒤의 2품은 제4회의 정중분(처음의 1품은 정위(正位)이고, 나중의 1품은 오래 쌓은 수행으로 성취를 이룬 이후의 단계이다.)에 해당한다.

第四會，佛在夜摩天宮 寶莊嚴殿，與海會菩薩衆俱，功德林菩薩，承佛神力，入菩薩善思惟三昧〈晉經，菩薩善伏三昧〉，說十行法門。於中合四品〈三卷〉。昇夜摩天宮品第十九，夜摩天宮中偈讚品第二十，十行品第二十一〈已上三品共二卷，第十九，第二十〉。十無盡藏品第二十二〈一卷，第二十一〉。此四品中，初二品，序〈同前會〉，後二品，是當會正宗〈初一品，正位，後一品，蘊行成就，生起後位〉。

제5회는 부처님께서 도솔천궁(兜率天宮)⁶⁵⁾의 일체보장엄전(一切寶莊嚴殿)에서 해회의 보살들과 함께 계실 때 금강당보살(金剛幢菩薩)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서 보살지광삼매(菩薩智光三昧)(진역 『화엄경』에는 보살명지

63) 십행(十行) : 보살이 부처가 되기까지 수행해야 하는 52단계 중에서 제21단계부터 제30단계까지이다. 행(行)은 이타행(利他行)을 가리킨다.

64) 원문의 「야마천궁중계찬품」은 『80화엄경』에서는 「야마궁중계찬품」이다.

65) 도솔천궁(兜率天宮) : 도솔천에 있는 궁전. 도솔천은 ㉔ Tuṣita-deva의 음역으로서 육계의 여섯 하늘 중에서 네 번째 하늘이다.

삼매(菩薩明智三昧)로 되어 있다.)에 들어가 십회향(十迴向)⁶⁶⁾ 법문을 설하였다. 여기에는 모두 3품(12권)이 있다. 「승도솔천궁품(昇兜率天宮品)」 제23(1권이며, 제22권이다.), 「도솔궁중계찬품(兜率宮中偈讚品)」 제24, 「십회향품(十迴向品)」 제25이다.〈전품과 합쳐 모두 11권이다. 제23권부터 제33권까지이다.〉 이 3품 중에 앞의 2품은 서분〈앞에서와 같다.〉이고, 뒤의 1품은 제5회의 정중분을 밝혔다.

第五會，佛在兜率天宮，一切寶莊嚴殿，與海會菩薩衆俱，金剛幢菩薩，承佛神力，入菩薩智光三昧〈晉經，菩薩明智三昧〉，說十迴向法門。於中合三〈一十二卷〉。昇兜率天宮品第二十三〈一卷，第二十二〉。兜率宮中偈讚品第二十四，十迴向品第二十五〈并前品合一十一卷，從第二十三至三十三〉。此三品中，初二品，序〈同前〉，後一品，辨其正宗。

제6회는 부처님께서 타화자재천궁(他化自在天宮)⁶⁷⁾의 마니보장전(摩尼寶藏殿)에서 해회의 보살들과 함께 계실 때 금강장보살(金剛藏菩薩)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서 대지혜광명삼매(大智慧光明三昧)〈진역 『화엄경』에는 보살대승광명삼매(菩薩大乘光明三昧)라고 되어 있다.〉에 들어가 십지(十地) 법문을 설하였다. 여기에는 1품 6권이 있으니, 「십지품(十地品)」 제26이다.〈6권이며, 제34권부터 제39권까지이다.〉

第六會，佛在他化自在天宮，摩尼寶藏殿，與海會菩薩俱，金

66) 십회향(十迴向) : 보살이 부처가 되기까지 수행해야 하는 52단계 중에서 제31단계부터 제40단계까지이다. 회향(迴向)은 자리(自利)와 이타(利他)에 의해 쌓인 모든 공덕을 중생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67) 타화자재천궁(他化自在天宮) : 타화자재천에 있는 궁전. 타화자재천은 ㉔ Parā-nirmita-vāśa-vartin의 한역으로서 욕계의 여섯 하늘 중에서 여섯 번째 하늘이다.

剛藏菩薩，承佛神力，入大智慧光明三昧〈晉論經，菩薩大乘光明三昧〉，說十地法門。一品六卷。十地品第二十六〈六卷，從第三十四至第三十九〉。

제7회는 부처님께서 다시 보광명전에서 해회의 보살들과 함께 계실 때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서 찰나제제불삼매(刹那際諸佛三昧)에 들어가 십정(十定)⁶⁸⁾ 등 수생(修生)⁶⁹⁾과 본유(本有)⁷⁰⁾의 인과법문을 설하였다. 여기에는 모두 11품(13권)이 있다. 「십정품(十定品)」 제27〈4권이며, 제40권부터 제43권까지이다. 진역 『화엄경』에는 이 품이 빠져 있다〉, 「십통품(十通品)」 제28〈진역 『화엄경』의 「십명품(十明品)」이다〉, 「십인품(十忍品)」 제29〈이상의 2품은 합하여 1권이며, 제44권이다〉, 「아승기품(阿僧祇品)」 제30, 「수량품(壽量品)」 제31〈진역 『화엄경』의 「수명품(壽命品)」이다〉, 「제보살주처품(菩薩住處品)」⁷¹⁾ 제32〈이상의 3품은 합하여 1권이며, 제45권이다〉, 「불부사의법품(佛不思議法品)」 제33〈2권이며, 제46권과 제47권이다〉, 「여래십신상해품(如來十身相海品)」 제34, 「여래수호광명공덕품(隨好光明功德品)」 제35이다.〈진역 『화엄경』의 「불소상광명공덕품(佛小相光明功德品)」⁷²⁾이다. 이상의 2품은 합하여 1권이며, 제48권이다.〉 이 9품

68) 십정(十定): 열 가지 큰 삼매로서, 보광대삼매(普光大三昧), 묘광대삼매(妙光大三昧), 차제편왕제불국토심통삼매(次第遍往諸佛國土神通大三昧), 청정심심향대삼매(淸淨深心行大三昧), 지과거장엄장대삼매(知過去莊嚴藏大三昧), 지광명장대삼매(智光明藏大三昧), 요지일절세계불장엄대삼매(了知一切世界佛莊嚴大三昧), 중생차별신삼매(衆生差別身三昧), 법계자재대삼매(法界自在大三昧), 무에륜대삼매(無礙輪大三昧)이다. 大10 p.212c9~15 참조.

69) 수생(修生): 수행에 의해 얻어진 것.

70) 본유(本有):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

71) 원문의 「보살주처품」은 『80화엄경』에서는 「제보살주처품」이다.

72) 원문의 「소상광명공덕품」은 『60화엄경』에서는 「불소상광명공덕품」이다.

은 차별인과(差別因果)⁷³⁾를 밝혔는데 이것은 또한 수생인과(修生因果)라고도 말한다. 「보현행품(普賢行品)」 제36(1권이며, 제49권이다), 「여래출현품(如來出現品)」 제37(진역 『화엄경』의 「보왕여래성기품(寶王如來性起品)」이다. 3권이며, 제50권부터 제52권까지이다.)의 2품은 평등인과(平等因果)⁷⁴⁾를 밝혔는데 이것은 또한 본유인과(本有因果)라고도 말한다(운운).

第七會，佛重會在普光明殿，與海會菩薩俱，普賢菩薩，承佛神力，入剎那際諸佛三昧，說十定等修生本有因果法門。於中合一十一品〈一十三卷〉。十定品第二十七〈四卷，從第四十至第四十三，晉經，欠此品也〉。十通品第二十八〈晉經，十明品〉，十忍品第二十九〈已上二品共一卷，第四十四〉。阿僧祇品第三十，壽量品第三十一〈晉經，壽命品〉，菩薩住處品第三十二〈已上三品共一卷，第四十五〉。佛不思議法品第三十三〈二卷，第四十六第四十七〉，如來十身相海品第三十四，隨好光明功德品第三十五〈晉經，小相光明功德品，已上二品共一卷，第四十八〉。此九品，明差別因果，亦是修生因果〈云云〉。普賢行品第三十六〈一卷，第四十九〉，如來出現品第三十七〈晉經，寶王如來性起品，三卷，從第五十至第五十二〉。此二品，明平等因果，亦名本有因果〈云云〉。

제8회는 보광명전에서 해회의 보살들과 함께 제실 때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서 불화장엄삼매(佛華莊嚴三昧)(진역 『화엄경』에는 장(莊)자가 빠져있다.)에 들어가 보혜보살(普慧菩薩)이 200구로 묻자, 보현보살이 2,000구로 답하여 6단계의 행덕(行德) 법문을 설하였다. 여기에는 1품(7권)이 있

73) 차별인과(差別因果): 수행에 따라 생겨난 인과.

74) 평등인과(平等因果):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인과.

으니 「이세간품(離世間品)」 제38이다.〈7권이며, 제53권부터 제59권까지이다.〉

第八會，普光明殿，與海會菩薩衆俱，普賢菩薩，承佛神力，入佛華莊嚴三昧〈晉經，脫莊字也〉，普慧菩薩二百句問，普賢菩薩二千句答，說六位行德法門。於中一品〈七卷〉，謂離世間品第三十八〈七卷，從第五十三至第五十九〉。

제9회는 부처님께서 실라벌국(室羅筏國)⁷⁵⁾ 서다림(逝多林) 급고독원(給孤獨園)⁷⁶⁾의 대장엄중각(大莊嚴重閣)에서 해회의 보살들과 함께 계실 때 부처님께서 스스로 사자빈신삼매(師子頻申三昧)에 들어가〈진역 『화엄경』의 사위국 기환림⁷⁷⁾ 내지 사자분신삼매(師子奮迅三昧)⁷⁸⁾이다.⁷⁹⁾〉돈점입법계법문(頓漸入法界法門)⁸⁰⁾을 설하셨다.⁸¹⁾ 여기에는 1품〈21권〉이 있으니, 「입법계품(入法

75) 실라벌국(室羅筏國) : 슈라바스티(Śrāvastī), 사위국(舍衛國), 중인도 왕국이다. 본래는 코살라(Ś Kosalā)국 도성 이름이었는데 나라 이름으로 대신하였다. 석존이 살아 계실 때 프라세나짓(Ś Prasenajit, 波斯匿)왕이 이 나라를 통치하였다. 유명한 기원정사가 있어 부처는 성도 후 45년 설법하는 동안 이곳에서 25년을 머물만큼 자주 와서 지냈고 많은 중요한 설법이 이루어졌다.

76) 급고독원(給孤獨園) : 기수급고독원(祇樹給孤獨園)의 줄임말이다. 코살라국의 제타(祇陀, Ś Jeta) 태자가 소유한 숲에 급고독장자(給孤獨長者, Ś Anāthapiṇḍada, 수닷타 Ś Sudatta)가 세운 절이란 의미이다. 왕사성의 죽림정사(竹林精舍)와 함께 초기의 불교 사원을 대표하는 곳이다. 부처가 이곳에서 여름 안거를 가장 많이 지냈고, 이곳에서 설했다고 하는 경전도 많다.

77) 『화엄경』(60) 권44 「입법계품」에서는 사위성 기수급고독원 대장엄중각강당(佛在舍衛城 祇樹給孤獨園 大莊嚴重閣講堂)이라 하였다.

78) 사자분신삼매(師子奮迅三昧) : Ś simha-vijṛmbhita-samādhi, 사자빈신삼매(師子頻申三昧)라고도 한다. 사자가 분발하여 떨쳐 일어나면 그 기세가 빠르고 웅대한 것처럼 부처의 대위신력을 나타내는 선정이 그와같음을 비유한 것이다. 『화엄경』 입법계품 등에 나온다.

79) 『화엄경』(60) 권44 「입법계품」 大9 p.676a6~677a15

80) 돈점입법계법문(頓漸入法界法門) : 법계에 한 순간에 들어가는 돈(頓)과 점차적

界品)」 제39이다.(21권이며, 제60권부터 제80권까지이다.)

第九會，佛在室羅筏國，逝多林，給孤獨園，大莊嚴重閣，與海會菩薩衆俱，佛自入師子頻申三昧〈晉經，舍衛國祇桓林中，乃至奮迅三昧〉，說頓漸入法界法門。於中說一品〈二十一卷〉，入法界品第三十九〈二十一卷，從第六十至第八十〉。

묻는다. 이 경전을 설하는 곳은 정토인가, 예토인가?

답한다. 어디라고 한들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묻는다. 둘 다 잘못이 있다. 만약 예토라고 한다면 보배연못과 보배나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게다가 “이때에 화장세계가 여섯 가지로 진동⁸²⁾하였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 만약 정토라면 설한 9회의 장소가 어찌하여 모두 사바세계인 인간과 천상에 있는가?

답한다. 혜원(慧苑)⁸³⁾ 스님은 말하기를, “화장세계와 사바세계는 그 모습으로 보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모습의 본성에서 본다면 결림 없이 원융하다.”⁸⁴⁾라고 하였다.(비록 이러한 말이 있기는 하지만 분명하지 않다.)

으로 들어가는 점(漸)의 법문.

81) 부처님이 스스로 설법하였다는 견해는 표원의 독특한 해석으로 평가된다.(김천학, p.35 주) 75 참조)

82) 여섯 가지로 진동: 세상에 상서로운 조짐이 있을 때 대지가 여섯 가지로 진동한다고 한다. 여섯 가지는 한 방향으로 움직임[動], 흔들려 일어남[起], 솟아 오름[涌], 큰 소리[擊], 은은한 소리[震], 포효하는 소리[吼]이다.

83) 혜원(慧苑): 673~743? . 현수 법장의 제자. 스승인 법장이 『화엄경』의 소(疏)를 완성하지 못하고 입적하자 스승의 뜻을 이어 완성한 것이 『속화엄경약소간행기(續華嚴經略疏刊行記)』이다. 후대에 청량 징관(?~839)에 의해 혜원의 견해는 법장의 견해와 다른 것이 많다고 하여 배척받았으며 결국 화엄종의 정계(正系)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84) 『속화엄경약소간정기(續華嚴經略疏刊定記)』 권2 「세주묘엄품」 卍3 p.601c20~

법장스님은 말하기를, “몇 가지 4구(四句)⁸⁵⁾가 있다. 첫째, 염(染)과 정(淨)의 4구이다. 첫째는 염이니, 마가다국의 7처 9회 등은 정상(淨相)을 덮기 때문이다. 둘째는 정이니, 화장세계해는 그 자리가 금강처럼 견고하여 염상(染相)이 다 없어지기 때문이다. 셋째는 둘 다 갖춤이니, 화장세계 안의 사바세계는 염과 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여 숨고 나타남에 장애가 없다. 넷째는 둘 다 갖추지 못함이니, 염과 정이 모습이 다한 동일한 법계에서는 각각의 모습이 형태를 잃어 두 가지 모습이 다 없어지기 때문이다. 둘째, 통(通)과 국(局)의 4구이다. 첫째는 국이니, 이 하나의 세계를 말한다. 둘째는 통이니, 시방의 세계 모두를 말한다. 셋째는 둘 다 갖춤이니, 하나와 시방의 세계를 다 갖춘 것을 말한다. 넷째는 둘 다 갖추지 못함이니, 모습이 다하여 본성으로 돌아간 것을 말한다. 첫째 국은 이곳이 일체의 국토를 포섭하고, 또 이곳의 하나하나의 티끌 등이 모두 일체의 끝없는 국토의 바다를 포섭한 것을 말한다. 둘째 통은 이 세계가 일체 국토에 들어가고, 또 이 하나하나의 티끌 등이 모두 일체 모든 국토의 티끌 등에 통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둘 다 갖춤은 포섭하고 들어감이 함께 나타남을 말한다. 넷째 둘 다 갖추지 못함은 모습이 없어져 둘 다 사라짐을 말한다. 셋째, 의(依)와 정(正)의 4구이다. 첫째는 정이 의에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자리에 계시고, 또 부처님이 곧 국토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의가 정에 있는 것이다. 국토가 부처님 안에 있고, 또 국토가 곧 부처님의 몸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둘 다 갖춤이고, 넷째는 둘 다 갖추지 못함이다.〈아울러 준거하여 생각하라.〉”⁸⁶⁾

21. 華藏娑婆 就相說異 以相從性 無礙圓融.

85) 사구(四句): 존재에 대한 4종의 분류법이다. 즉 존재를 유(有), 무(無), 역유역무(亦有亦無), 비유비무(非有非無)의 4종류로 나누어 고찰하는 것이다.

86) 염정사구(染淨四句)와 통국사구(通局四句)는 지관(澄觀)의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권1 大35 p.505b13~20. 或唯染, 摩竭等覆淨相故. 或唯淨, 其地金剛染相盡故. 或俱, 隱顯無礙故. 或俱非, 各相形奪二相盡故. 次明通局交徹二四句

라고 하였다.

問, 說此經處, 爲淨爲穢耶?

答, 設爾何失.

問, 二俱有過. 謂若是穢, 不現寶池寶樹, 亦不應言 ‘爾時華藏世界六種振動’. 若是淨者, 說九會處, 何故皆在娑婆人天?

答, 慧苑師云, “華藏娑婆, 就相說異, 以相從說性, 無礙圓融也.”〈雖有此說, 無分明也.〉法藏師云, “有數四句. 一染淨四句. 或染, 謂摩竭提國, 七處九會等, 覆淨相故. 或淨, 謂華藏海, 其地金剛等, 染相盡故. 或俱, 謂華藏內娑婆界, 染淨存泯, 隱顯無礙. 或俱非, 謂染淨相盡, 同一法界, 各相形奪, 二相盡故. 二通局四句. 或局, 謂此一界. 或通, 謂該於十方. 或俱, 謂要具前二. 或俱非, 謂相盡歸性. 或局, 謂此處攝一切刹, 又此處一一塵等, 皆攝一切無邊刹海. 或通, 謂此界入一切刹, 又此一一塵等, 皆通一切諸刹塵等. 或俱, 謂攝入俱現. 或俱非, 謂形奪雙泯. 三依正四句. 或正在依, 謂佛在坐等, 又佛卽刹故. 或依在正, 謂刹居佛內, 又刹卽佛身故. 或俱. 或非.”〈並准思之〉

묻는다. 만약 위에서 설한 바와 같다면⁸⁷⁾ 7처 9회가 모두 서로 뒤섞여 혼

者. 謂或局, 此一界故. 或通, 該十方故. 或俱, 卽此卽遍故. 或泯, 二相盡故. 又或局, 此界攝一切故. 或通, 此入一切故. 或俱, 卽攝卽入故. 或泯, 形奪相盡故.)의 내용과 유사하고, 의정사구(依正四句) 또한 같은 책의 내용(『大方廣佛華嚴經疏』 권1 大35 p.504b13~15. 有四句. 一或唯依, 佛卽刹故. 二或唯正, 刹卽佛故. 三俱. 四泯. 思之可知.)과 유사하다. 그런데 표원의 활동 연대가 740년 전후이므로 이 글을 저술할 당시에 정관의 『대방광불화엄경소』를 보았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사구(四句)의 내용은 『화엄경탐현기』 등에서 취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일치하는 문장은 보이지 않는다. 김천학, p.37 주 84) 참조.

란스러울 것이다. 예를 들면, 도리천에서 십주를 설할 때 이미 허공에 편만하여 한 명의 어리석은 범부[毛道]⁸⁸⁾에까지 이르렀다고 하였다. 그런데 야마천 등에서 십주를 설하였는지, 설하지 않았는지 알지 못하겠다.

답한다. 어느 쪽이라 한들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묻는다. 둘 다 잘못이 있다. 만약 그곳에서 설하지 않았다면 설한 곳이 편만하지 않았을 것이고, 만약 그 곳에서도 설했다면 무엇 때문에 『화엄경』에서 다만 “도리천에서는 십주법을 설하였고 야마천 등에서는 십행 등을 설하였다”⁸⁹⁾고 하겠는가?

답한다. 여기서 십주를 설한 도리천은 이미 시방의 모든 진도(塵道)⁹⁰⁾에 편만해 있다. 그러므로 야마천 등에는 모두 도리천이 있는 것이다. 즉 이와 같이 야마천 등에 편만한 도리천에서 십주법을 설하였으므로 도리천이 널리 편만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도리천이 그대로 야마천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야마천 등에서 십행 등을 설한 것도 모두 도리천 등에 편만하나 야마천이 그대로 도리천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마땅히 이렇게 알아야 한다. 만약 십주와 십행 등의 모든 계위가 상호 포섭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피차가 없게 되어 각각 법계에 편만하고, 만약 모든 계위가 서

87) 이 부분의 문답은 법장의 『화엄경지귀(華嚴經旨歸)』(大45 p.590a13~b11)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설한 바”의 의미는 본문의 사구(四句)에 대한 것이 아니라 『화엄경지귀』의 문장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즉 『화엄경지귀』에서는, 『화엄경』은 일체의 모든 장소에서 동시에 설해졌다고 설명한 이후에 “만약 위에서 설한 바와 같다면 7처 9회가 모두 서로 뒤섞여 혼란할 것이다.”라고 질문하고 있다.(김천학, p.40 주 93)

88) 어리석은 범부[毛道]: 毘bala-prthag-jana의 한역인 모도범부(毛道凡夫)의 줄임 말로서 어리석은 범부라는 뜻이다.

89) 『화엄경』의 7처 9회에서, 제3회에는 도리천궁에서 십주법을 설하였고, 제4회에는 야마천궁에서 십행법을 설하였는데, 그것을 말한다.

90) 진도(塵道): 예토(穢土)와 같은 의미로서, 번뇌에 가득 차 있는 세계를 말한다.

로 돕는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피차가 있게 되어 함께 법계에 편만하다. 나머지 각각의 품에 있는 각각의 곳도 모두 이와 같다.

問, 若如上說, 則七處九會, 皆悉雜亂. 如忉利天說十住時, 既遍虛空, 周側毛道. 未知夜摩等處亦說住不.

答, 設爾何失.

問, 二俱有過. 謂若彼不說, 則說處不遍, 若彼亦說, 何故, 經中唯云, “忉利說十住法, 夜摩等處說十行”等?

答, 此說十住, 忉利天處, 既遍十方一切塵道. 是故夜摩等處, 皆有忉利. 卽於如是遍夜摩等忉利天處, 說十住法, 是故忉利無不普遍, 仍非夜摩. 夜摩等處說十行等, 皆亦遍於忉利等處, 仍非忉利. 當知亦爾. 若約十住與十行等, 全位相攝, 則彼此互無, 各遍法界, 若約諸位相資, 則此彼互有, 同遍法界. 餘一一品一一處, 皆亦如是.

묻는다. 다른 부처님이 설한 곳과 노사나불이 설한 곳은 서로 보는가? 보지 않는가?

답한다. 어느 쪽인들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묻는다. 둘 다 잘못이 있다. 만약에 서로 본다면 서로 편만함에 어그러지고, 서로 보지 못한다면 주인[主]과 손님[伴]⁹¹⁾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91) 주인[主]과 손님[伴]: 주체와 그에 딸린 것. 주체와 종속. 화엄학에서 법계연기(法界緣起)를 말할 때 이것이 주(主)가 되면 저것이 반(伴)이 되고, 저것이 주가 되면 이것이 반이 되어, 이와 같이 주와 반이 갖추어져 덕을 포섭함이 무진한 것을 주반구족(主伴具足)이라고 한다. 또 만유가 각각 주가 되고 반이 되어 상즉상입하여 중중무진한 것을 주반무진(主伴無盡)이라 한다. 이런 설명은 화엄 법계연기의 내용을 설하는 십현문(十玄門)의 하나인 주반원명구덕문(主伴圓明具德門)을 가리킨다.

답한다. 서로 주인이 되고 손님이 되는 것에는 통틀어 4구(四句)가 있다. 주인과 주인이 서로 보지 못하고, 손님과 손님도 또한 그러하니, 각각 법계에 편만하여 피차가 서로 없으므로 서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주인은 손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서로 보고, 손님은 주인과의 관계에서 또한 그러하니, 모두 법계에 편만하여 피차가 서로 있으므로 서로 보지 못함이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노사나불이 주인이 되고 증득한 곳이 손님이 되어 주인이 없으면 손님이 없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노사나불과 증득한 곳은 동시에 법계에 편만하다. 가령 동쪽에서 보면 법을 증득한 곳이 동쪽이니, 거기에는 노사나불이 있다. 즉 동쪽이 있고 노사나불이 그곳에 와서 증득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하나가 법계에 편만하며 일체의 예토에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다. 생각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問, 餘佛說處, 與舍那說, 爲相見不?

答, 設爾何失

問, 二俱有過. 謂若相見, 卽乖相遍, 若不相見, 不成主伴.

答, 互爲主伴, 通有四句. 謂主主不相見, 伴伴亦爾, 各遍法界, 彼此互無, 故無相見. 主之與伴, 其必相見, 伴主亦爾, 共遍法界, 此彼互有, 故無不見. 如舍那爲主, 證處爲伴, 無有主而不俱伴. 故舍那與證處, 同遍法界. 設於東方, 證法東處, 彼有舍那. 還有東方而來作證. 如是一一, 遍周法界, 一切塵道, 無障無礙. 思之可見.

묻는다. 무슨 문헌을 증거로 일처(一處)가 곧 일체처(一切處)라고 하는가?

답한다. 『화엄경』에서 “하나하나의 티끌 속에 불국의 바다가 안주해 있고, 부처님이 구름처럼 두루 지켜 주시어 일체를 완전히 감싸주시네.”⁹²⁾라고 하였고, 또 “한 털 구멍 속에 한량없는 불국토가 청정하게 장엄되어 널

리 안주하며, 저 일체처에 계신 노사나불이 해회의 대중 속에서 바른 법을 연설하신다.”⁹³⁾라고 하였으니, 하물며 7처 9회로써 시방법계를 모두 포섭하지 못하겠는가?

묻는다. 마가다국에서 설하였는데, 그 나라 중생들이 모임에 참석하였는가, 참석하지 않았는가?

답한다. 헤원스님은 “어느 쪽인들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묻는다. 둘 다 잘못이 있다. 만약 참석했다면 경전에서 왜 말하지 않았는가? 만약 참석하지 않았다면 왜 그곳에서 설법했겠는가?

답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법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둘째는 근기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법을 드러낸다고 한 것은 마가다국이 모든 나라 가운데 으뜸이고, 제1회가 9회 중에서 제일 처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였다. 근기에 대응한다고 말한 것은 모임 가운데 시방에서 새로 온 보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서원에 따라 이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것이 곧 근기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굳이 교화 받는 중생인 속인들을 열거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위의 두 문은 별기(別記)에서 설한 것과 같다.>⁹⁴⁾

問, 以何文證, 知乎一處卽一切處等耶?

92) 『화엄경』(60) 권3 「노사나불품」 大9 p.410b27~28. 一一微塵中, 佛國海安住. 佛雲遍護念, 彌綸覆一切.

93) 『화엄경』(60) 권3 「노사나불품」 大9 p.410c22~24. 一毛孔中, 無量佛刹, 莊嚴清淨, 曠然安住, 彼一切處, 盧舍那佛, 於衆海中, 演說正法.

94) 이 부분의 문답은 혜원(慧苑)의 『속화엄경약소간정기(續華嚴經略疏刊定記)』 권2 「세주묘엄품」(卍3 p.601c22~602a3)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그래서 “운운(云云)”이라는 글자로서 이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속화엄경약소간정기』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별행장(別行章)에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별기도 이 별행장을 말한다.(김천학, p.47 주 122) 참조)

答, 經云, “一一微塵中, 佛國海安住, 佛雲遍護念, 彌綸覆一切.” 又云, “一毛孔中, 無量佛刹, 莊嚴清淨, 曠然安住, 彼一切處, 盧舍那佛, 於衆海中, 演說正法.” 況七處九會處而不該攝十方方法界耶.

問, 旣在摩竭說, 彼國衆生, 有預會不?

答, 慧苑師云, “設爾何失.”

問, 二俱有過. 若有預者, 經何不言耶, 若無預者, 何須此說耶?

答, 此有二義, 一爲表法, 二爲應機. 言表法者, 謂摩竭國, 是諸國之上首, 第一會爲九會之最初, 故此說也. 言應機者, 會中菩薩, 除十方新來, 餘皆隨願, 生於此國, 斯卽應機. 何必要列凡俗方是所化之衆. (云云. 後二門如別記說.)

2. 육상의 의미[六相義]

세 가지 문으로 분별한다.

1) 이름을 풀이함

육(六)은 숫자이다. 모든 법의 본체적인 형상을 상(相)이라고 한다. 즉 총상(總相)과 별상(別相), 동상(同相)과 이상(異相), 성상(成相)과 괴상(壞相)을 말한다. 법장스님은 “총상이란 하나가 다덕(多德)⁹⁵을 포함하는 것이고, 별상이란 다덕이 동일하지 않은 것이니, 별상은 총상에 의지하여 저 총상

95) 다덕(多德): 많은 구성요소를 의미한다. 여기서의 덕(德)은 존재를 구성하는 온갖 요소를 의미한다.

을 완성시킨다. 동상이란 다의(多義)가 서로 어긋나지 않으면서 함께 하나의 총상을 완성시키는 것이고, 이상이란 다의가 서로 상대하여 각각 다른 것이다. 성상이란 이러한 여러 뜻이 연기(緣起)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괴상이란 여러 뜻이 각각 자법(自法)⁹⁶⁾에 머물러서 옮겨가지 않는 것이다.”⁹⁷⁾라고 하였다.

六相義.⁹⁸⁾ 三門分別.

第一釋名者.

六者數名. 諸法體狀, 目之爲相. 謂總相別相, 同相異相, 成相壞相. 法藏師云, “總相者, 一含多德故, 別相者, 多德非一故, 別依止總, 滿彼總故. 同相者, 多義不相違, 同成一總故, 異相者, 多義相望, 各各異故. 成相者, 由此諸義緣起成故, 壞相者, 諸義各住自法, 不移動故.”

2) 본체를 드러냄

능법사(懷法師)⁹⁹⁾는 “통괄해서 보면 법계연기(法界緣起)¹⁰⁰⁾를 본체로 삼

96) 자법(自法): 자기의 존재모습.

97) 『화엄일승교의분제장(華嚴一乘教義分齊章)』 권4 大45 p.507c6~10. 總相者 一含多德故 別相者 多德非一故 別依止總 滿彼總故 同相者 多義不相違 同成一總故 異相者 多義相望 各各異故 成相者 由此諸義緣起成故 壞相者 諸義各住自法 不移動故.

98) 韓2 p.355c7~358a17.

99) 능법사(懷法師): 누구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안륜(安廩, 507~583)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안륜은 위(魏)에서 12동안 『사분율』과 대승 경론을 강설하고 양무제(梁武帝) 때 『화엄경』을 강연하였다.

100) 법계연기(法界緣起): 법계무진연기(法界無盡緣起), 무진연기(無盡緣起), 십현연기(十玄緣起), 일승연기(一乘緣起)라고도 한다. 화엄교학의 연기론으로서, 우주

지만, 개별적으로 보면 총상은 중도(中道)¹⁰¹⁾를 본체로 삼고, 별상은 이제(二諦)¹⁰²⁾를 본체로 삼으며, 동상은 여여(如如)¹⁰³⁾를 본체로 삼고, 이상은 만법(萬法)을 본체로 삼으며, 성상은 연집(緣集)¹⁰⁴⁾을 본체로 삼고, 괴상은 연기(緣起)¹⁰⁵⁾를 본체로 삼는다.”라고 하였다.

第二出體者.

懷法師云, “通則法界緣起爲體, 別則總相以中道爲體, 別相以二諦爲體, 同相以如如爲體, 異相以萬法爲體, 成相以緣集爲體, 壞相以緣起爲體.”

만유가 서로 인과 관계를 맺고 있어서 하나가 곧 일체이고 일체가 곧 하나라는 논리이다.

- 101) 중도(中道): 단(斷)과 상(常)의 두 견해와 유(有)와 무(無)의 두 극단을 떠난 진리의 길.
- 102) 이제(二諦): 진제(眞諦)와 속제(俗諦). 제는 실다운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성자가 본 참다운 진리의 가르침이라는 뜻. 진제(眞Paramārtha-satya)는 승의제(勝義諦)·제일의제(第一義諦)라고도 한다. 사성제(四聖諦)의 고(苦)·집(集)·멸(滅)·도(道)의 사제(四諦)를 말하는데, 이 가르침이 진실되고 돌도 아니기 때문에 진제라고 부른다. 속제(眞saṃvṛti-satya)는 세속제(世俗諦)·세제(世諦)라고도 하며, 세속의 법을 따라 생멸 등의 진리가 존재한다고 설하는 논리. 즉 세간의 사실과 속지(俗地)의 이치를 가리킨다.
- 103) 여여(如如): 如tathatā. 생멸변화하기 이전의 본래의 상태이며, 우주 만유(萬有)의 보편적인 상주 불변하는 본체. 여여는 진여(眞如)·여실(如實)·법계(法界)·법성(法性)·실제(實際)·실상(實相)·여래장(如來藏)·법신(法身)·불성(佛性)·자성청정신(自性淸淨身)·일심(一心)·부사의계(不思議界) 등으로 불린다.
- 104) 연집(緣集): 여러 조건이 모여 새로운 존재를 성립시킴.
- 105) 연기(緣起): 새로운 조건이 발생하여 존재를 변화시킴.

3) 문답으로 분별함

묻는다. 무슨 의도로 육상을 말하였는가?

답한다. 법장스님은 말하기를, “정집견(定執見)¹⁰⁶⁾을 깨뜨려 연기가 원용한[緣起圓融]¹⁰⁷⁾ 법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러한 이치가 앞에 드러나면, 일체의 미혹과 장애는 하나가 단절됨에 따라 일체가 단절되고, 수행의功德은 하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일체가 이루어진다.”¹⁰⁸⁾라고 하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한결같고 원인과 결과가 동시이므로 차이가 없다.(자세한 것은 경전에 실한 것과 같다.)

第三問答分別.

問, 以何意故, 辨六相耶?

答, 法藏師云, “破定執見, 以顯緣起圓融之法. 此理現前, 一切惑障, 一斷一切斷, 行德, 一成一一切成.” 始終皆齊, 因果同時等. 〈廣說如經〉

묻는다. 육상은 4구(四句)와 8불(八不)¹⁰⁹⁾ 등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답한다. 불자생(不自生)과 불타생(不他生) 등의 4구¹¹⁰⁾와 불유(不有)와 불무(不無) 등의 4구¹¹¹⁾, 불생(不生) 등의 8불(八不)과 10불(十不)¹¹²⁾ 등은

106) 정집견(定執見): 확신하여 집착하는 견해.

107) 연기가 원용한[緣起圓融]: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 원만하게 융화되는 것.

108) 『화엄경담현기』 권9 십지품 大35 p.282a21~23. “一切惑障, 一滅一切滅, 一切行位, 一成一一切成”으로 다소 다르다.

109) 8불(八不): 여덟 개의 부정으로서 불생(不生), 불멸(不滅), 부단(不斷), 불상(不常), 불일(不一), 불이(不異), 불거(不去), 불래(不來)이다.

110) 불자생(不自生), 불타생(不他生), 불공생(不共生), 불무인생(不無因生)의 4구를 말한다. 김천학, p.79 주 281) 참조.

모두 현상[相]을 모아 원리[理]에 들어감으로써 하나의 적멸에 순응하는 것이다. 지금의 육상은 원리에 들어가 원용하고 저 현상을 상즉(相卽)하고 상입(相入)¹¹³⁾하게 하여 보현법(普賢法)¹¹⁴⁾을 성취하게 한다. 이러한 점이 차이가 있다.

問, 其四句八不等, 有何差別耶?

答, 不自生不他生等四句, 及不有不無等四句, 并不生等八不等, 皆悉會事入理, 以順一寂. 今此入理圓融, 彼事使相卽相入, 成普賢法. 有斯左右耳.

묻는다. 무엇 때문에 다만 여섯이고 더 많지도 적지도 않은가?

답한다. 무릇 모든 연기법은 세 가지 문을 필요로 한다. 첫째는 지말(枝末)이 근본에 의지하여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음이 있는 것이다.〈『논』에서 “별상이 근본에 의지한다.”고 한 것은 총상에 의거하여 별상을 여는 것을 밝힌 것이며, “저 근본을 가득 채운다.”고 한 것은 별상이면서 오히려 총상을 성립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¹¹⁵⁾〉

111) 불유(不有), 불무(不無), 불역유불역무(不亦有不亦無), 불비유비무(不非有非無)의 4구를 말한다.

112) 10불(十不): 8불(八不)에 다른 두 개의 부정을 더한 것이다. 『대지도론』 권34(大25 p.313a11~12)에서는 불수(不受), 부동(不動), 불착(不著), 불의(不依)를 더하여 12불(十二不)을 설하고 있다.

113) 상입(相入): 현상적으로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을 개념상에서 융합시킨다는 의미.

114) 보현법(普賢法): 부처님의 자비가 지극한 것을 보현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보현법은 부처님의 지극한 자비라고 할 수 있다.

115) 『십지경론』 권1에서 “총상은 근본인 일(一)의 들어감이고 별상은 나머지 구(九)의 들어감이다. 별상이 근본에 의지하여 저 근본을 완전하게 하기 때문이다.”(大26 p.125a2~4. 總者是根本入別相者 餘九入別依止本 滿彼本故)라고 하였고, 『화엄경탐현기』 권9(大35 p.282b16~17. 別依本者 明依總開別 滿彼本者 還能成總)에서 본문과 같이 해석한 것이다.

둘째는 저 일어난 바의 지말이 이미 근본을 떠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대하여 (둘 사이에) 같음과 다름이 있는 것이다. 셋째는 저 근본을 떠 지말이 이미 근본이 되기 때문에 본체에 대해 보존됨과 무너지짐이 있는 것이다. 만약 이 세 가지를 갖추지 못하면 연기법을 성립시키지 못한다. 그 세 가지에 각각 둘이 있기 때문에 다만 여섯이라고 하였다.

問, 何故唯六不多不小耶?

答, 汎諸緣起法, 要有三門. 一末依於本, 有起不起. 〈謂論云, “別依本者, 明依總開別, 滿彼本者, 還能成總也.” 二彼所起末, 既帶於本, 是故相望, 有同有異. 三彼帶本之末, 既爲本收, 是故當體, 有存有壞. 若不具此三, 不成緣起. 三中各二故, 但唯六.

묻는다. 연기법이 일체의 장소에 통한다고 하는데, 그 뜻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우니 그 모습[相]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기 바란다.

답한다. 법장스님이 지금 또 조건[緣]으로써 집을 이루는 비유를 간략히 들어 설명하였다.¹¹⁶⁾

묻는다. 무엇이 총상(總相)인가?

답한다. 집[舍]이 그것이다.

묻는다. 집은 단지 서까래 등의 여러 조건[緣]들로 이루어진 것일 뿐인데 무엇이 집인가?

답한다. 서까래가 곧 집이다. 왜냐하면 서까래가 있어야만 집을 지을 수 있고, 만약 서까래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서까래를 얻은 때라면 집을 얻게 되는 것이다.

묻는다. 만약 서까래가 완전히 독자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다면 기와 등

116) 이 아래의 문답은 법장의 『화엄일승교의분제장』 권4(大45 p.507c20~509a3)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이 없어도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인가?

답한다. 아직 기와 등이 없는 때라면 서까래가 아니므로 지을 수 없다는 것이지, 서까래인데 지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니다. 지금 지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단지 서까래가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일 뿐이지, 서까래가 아닌데 집을 짓는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서까래는 원인과 조건이기 때문이다. 아직 집을 완성하지 못했을 때에는 원인과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서까래가 아니다. 만일 이것이 서까래라면 반드시 집을 전체적으로 완성하겠지만, 만일 완전히 지을 수 없다면 서까래라고 이름할 수 없다.

묻는다. 만약 서까래 등의 여러 조건들이 각자 작은 힘을 내어 집을 짓되 완전하게 짓지 못한다면 무슨 잘못이 있는가?

답한다. 단(斷)과 상(常)의 잘못이 있다. 만약 집을 완전하게 이룰 수 없고 작은 힘뿐이라면 여러 조건들 각각의 힘이 부족한 것이다. 이 여러 개의 작은 힘으로는 하나의 완전한 집을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斷)이다. 모든 조건들의 힘이 부족하여 집이 완전하게 될 수 없는 데도 완전한 집이 있다고 집착한다면 원인도 없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상(常)이다. 또한 만약 완전하게 이루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의 서까래가 없는 때에도 집이 완성되어 있는 것 같지만 집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작은 힘으로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묻는다. 하나의 서까래가 없을 때에는 왜 집이 성립되지 않는가?

답한다. 단지 이것은 망가진 집이고, 훌륭한 집이 아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집은 온전히 하나의 서까래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하나의 서까래에 달려 있다면 서까래가 곧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묻는다. 이미 집이 곧 서까래라는 것은 나머지 널판자와 기와 등도 곧 서

까래라는 것인가?

답한다. 총괄하면 모두 서까래이다. 왜냐하면 만약 서까래를 없애버리면 (나머지 조건들도) 없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 서까래가 없으면 집이 성립될 수 없고, 집이 성립되지 못하면 들보나 기와 등의 명칭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들보와 기와 등은 곧 서까래이다. 만약 (들보와 기와 등이 서까래와) 상극하지 않는다면 집은 성립할 수 없고 들보와 기와 등도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이제 이미 함께 성립되었기 때문에 상극함을 알 수 있다. 하나의 서까래가 이미 이러하니 나머지 서까래도 따라서 그러하다. 그러므로 일체의 연기법이 성립되지 않으면 그만이겠지만 성립된다면 서로 녹아 융통하여 걸림 없이 자재하며 원만하고 지극해서 헤아리기 어렵고 인식 밖에 벗어나 있다. 법성(法性)의 연기(緣起)는 일체처에 통한다. 준하여 알라.

問, 緣起法, 一切處通, 難窮其趣, 冀確陳其相也.

答, 法藏師, 今且略就緣成舍辨.

問, 何者是總相?

答, 舍是.

問, 此但椽等諸緣, 何者是舍耶?

答, 椽卽是舍. 何以故. 爲椽令獨能作舍, 若離椽, 舍卽令不成故. 若得椽時, 卽得舍耶.

問, 若椽全自獨作舍者, 未有瓦等, 亦應作舍?

答, 未有瓦等時, 不是椽故不作, 非謂是椽而不能作. 今言能作者, 但論椽能作, 不說非椽作. 何以故. 椽是因緣. 由未成舍時無因緣故, 非是椽也. 若是椽者, 其畢全成, 若不全作, 不名爲椽.

問, 若椽等諸緣, 各出小力作, 不全作者, 有何過失?

答, 有斷常過. 若不全成, 但小力者, 諸緣各少力. 此多箇少, 不成一全舍. 故是斷也. 諸緣並少力, 皆無有全, 孰有全舍者, 無因有. 故是常也. 又若不全成者, 去却一椽時, 舍應猶成在, 舍既全不成. 故知非小力並全成故.

問, 無一椽時, 豈非舍耶?

答, 但是破舍, 無好舍也. 故知好舍全屬一椽, 既屬一椽. 故知椽卽是舍也.

問, 既舍卽是椽者, 餘椳瓦等, 應卽是椽耶?

答, 總並是椽. 何以故. 却椽卽無故. 所以然者. 若無椽, 卽舍不成, 舍不成故, 不名椳瓦等. 是故椳瓦等卽是椽也. 若不卽者, 舍卽不成, 椳瓦等並皆不成. 今既並成故, 故知相卽耳. 一椽既爾, 餘椽例然. 是故一切緣起法, 不成卽已, 成則相容融, 無礙自在, 圓極難思, 出過情外. 法性緣起, 一切處. 准知.

묻는다. 둘째 별상(別相)이란 무엇인가?

답한다. 서까래 등의 여러 조건들이 전체와 구별되기 때문이다. 만약 구별되지 않는다면 전체의 의미는 성립되지 않는다. 개별이 없을 때는 전체도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본래 개별로써 전체를 이루기 때문에 개별이 없으면 전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개별이란 곧 전체가 있기 때문에 개별이 되는 것이다.

묻는다. 만약 전체가 그대로 개별이라면 전체가 성립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답한다. 전체가 그대로 개별이기 때문에 전체가 성립될 수 있다. 마치 서까래가 곧 집이므로 총상이라고 하며, 집이 곧 서까래이므로 별상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만약 집과 상즉하지 않는다면 서까래가 아니고, 만약 서까래와 상즉하지 않는다면 집이 아니니, 총상과 별상은 상즉한다.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묻는다. 만약 상즉한다면 왜 별상을 설하는가?

답한다. 상즉하기 때문에 별상이 성립된다. 만약 상즉하지 않는다면 총상은 별상의 밖에 있게 되므로 총상이 아니고, 별상은 총상의 밖에 있게 되므로 별상이 아니다.〈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묻는다. 만약 구별하지 않는다면 무슨 잘못이 있는가?

답한다. 단(斷)과 상(常)의 잘못이 있다. 만약 개별로서의 서까래와 기와가 없다면 그 때문에 전체로서의 집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斷)이다. 만약 개별적인 서까래나 기와 등이 없는데 전체로서의 집이 있다고 한다면 원인도 없이 집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상(常)이다.

問, 第二別相者, 何耶?

答, 椽等諸緣, 別於總故. 若不別者, 總義不成, 由無別時, 卽無總故. 此義云何? 本以別成總, 由無別故, 總不成也. 是故別者, 卽以總爲別也.

問, 若總卽別者, 應不成總耶?

答, 由總卽別故, 是故得成總. 如椽卽是舍, 故名總相, 卽是椽故, 名別相. 若不卽舍, 不是椽, 若不卽椽, 不是舍, 總別相卽. 可准思之.

問, 若相卽者, 云何說別?

答, 只由相卽, 是故成別. 若不相卽者, 總在別外, 故非總也, 別在總外, 故非別也. 〈思之可解.〉

問, 若不別者, 有何過失耶?

答, 有斷常過. 若無別椽瓦, 無別椽瓦故, 不成總舍. 故是斷也.
若無別椽瓦等, 而有總舍者, 無因有舍. 故是常也.

묻는다. 셋째 동상(同相)이란 무엇인가?

답한다. 서까래 등의 여러 조건들이 조화되어 집을 지을 때 서로 어긋나지 않으므로 그 모두를 집의 조건이라고 이름하고, 다른 것을 짓는 것이 아니므로 동상이라고 이름한다.

묻는다. 이것은 총상과 어떻게 다른가?

답한다. 총상은 오직 하나의 집에 대해서만 말한 것이다. 지금 여기서의 동상은 서까래 등 여러 조건들에 의거한 것이다. 비록 (조건들의) 본체는 각각 다르지만 집을 완성하는 능력의 측면에서는 그 뜻이 같기 때문에 동상이라 이름 한다.

묻는다. 만약 그 뜻이 같지 않다면 무슨 잘못이 있는가?

답한다. 만약 그 뜻이 같지 않다면 단(斷)과 상(常)의 잘못이 있다. 왜냐하면 만약 그 뜻이 같지 않다면 서까래 등의 여러 조건들이 서로 위배되어 집을 지을 수 없어서 집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斷)이다. 만약 서로 어긋나 집을 지을 수 없는데도 집이 있다고 집착한다면 원인도 없이 집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상(常)이다.

問, 第三同相者, 何耶?

答, 椽等諸緣, 和同作舍, 不相違故, 皆名舍緣, 非作餘物故, 名同相也.

問, 此與總相, 何別耶?

答, 總相, 唯望一舍說. 今此同相, 約椽等諸緣. 雖體各別, 成舍力義齊故, 名同相也.

問, 若不同者, 有何過耶?

答, 若不同者, 有斷常過也. 何者. 若不同者, 椽等諸緣, 互相違背, 不得作舍, 舍不得有. 故是斷也. 若相違不作舍, 而執有舍者, 無因有舍. 故是常也.

묻는다. 넷째 이상(異相)이란 무엇인가?

답한다. 서까래 등의 여러 조건들이 각자의 형태와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묻는다. 만일 다르다면 같지 않은 것이 아닌가?

답한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것이다. 만약 다르지 않다면 서까래가 1장 2척일 경우 기와도 똑같은 크기가 되어서 본래의 조건법[本緣法]¹¹⁷⁾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앞에서 모두 함께 집을 완성한다고 한 뜻을 잃게 된다. 지금은 이미 집을 완성하여 똑같이 조건이라고 이름하였지만 다르다는 것을 알 것이다.

묻는다. 이것은 별상과 어떻게 다른가?

답한다. 앞의 별상이라는 것은 다만 서까래 등의 여러 조건들이 하나의 집과 구별되기 때문에 별상이라고 하였고, 지금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서까래 등의 여러 조건들이 번갈아가며 서로 상대하여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묻는다. 만약 다르지 않다면 무슨 잘못이 있는가?

답한다. 단(斷)과 상(常)의 잘못이 있다. 왜냐하면 만약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기와는 곧 서까래와 똑같이 1장 2척이 되어야 하므로 본래의 조건법을 무너뜨리게 되어 집을 완성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斷)이다. 만약 본래의 조건법을 무너뜨려 집을 완성하지 못하였는데 집이 있다고 집착한다면 원인도 없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117) 본래의 조건법[本緣法]: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서의 존재.

상(常)이다.

問, 第四異相者, 何耶?

答, 椽等諸緣, 隨自形類, 相差別故.

問, 若異者, 應不同耶?

答, 只由異故, 所以同耳. 若不異者, 椽旣丈二, 瓦應亦爾, 壞本緣法故, 卽失前齊同成舍義也. 今旣舍成, 同名緣者, 當知異也.

問, 此與別相, 何異耶?

答, 前別相者, 但椽等諸緣, 別於一舍, 故說別相. 今異相者, 緣等諸緣, 迭互相望, 各各異故.

問, 若不異者, 何失?

答, 有斷常失也. 何者. 若不異者, 瓦卽同椽, 丈二壞本緣法, 不成舍. 故是斷也. 若壞緣不成舍, 而執有舍者, 無因有. 故是常也.

묻는다. 다섯째 성상(成相)이란 무엇인가?

답한다. 이러한 여러 조건들로 말미암아 집의 의미가 성립된다. 집을 완성하기 때문에 서까래 등을 조건이라고 하였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집과 조건의) 두 가지가 모두 성립되지 못한다. 그런데 지금 성립되었기 때문에 성상임을 알 수 있다.

묻는다. 지금 서까래 등의 여러 조건들을 보면 각기 자신의 존재[自法]에 머물러 있어 본래 집을 짓지 않았다. 무슨 원인으로 집의 의미가 성립된다고 하는가?

답한다. 단지 서까래 등의 여러 조건들이 짓지 않기 때문에 집의 의미가 성립될 수 있다. 왜냐하면 만약 서까래가 집을 짓는다면 본래의 조건법[本

緣法]을 잃기 때문에 집의 의미가 성립될 수 없다. 지금은 집을 짓지 않기 때문에 서까래 등의 여러 조건들이 바로 앞에 드러나 있다. 이렇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집의 의미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또 만약 집을 짓지 않았다면 서까래 등은 조건이라 이름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이미 조건이라는 이름을 얻었으니 집을 지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묻는다. 만약 (집의 의미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무슨 잘못이 있는가?

답한다. 단(斷)과 상(常)의 잘못이 있다. 왜냐하면 집은 본래 서까래 등의 여러 조건들로 성립되는데 지금은 이미 모두가 집으로 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斷)이다. 본래 집이 완성되어야 서까래라고 이름하는데 지금은 이미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곧 서까래도 없으니, 이 또한 단(斷)이다. 만약 집이 완성되지 않는다면 집은 원인도 없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상(常)이다. 또한 서까래가 집을 짓지 않았는데 서까래라는 이름을 얻었다면, 이 또한 상(常)이다.

問, 第五成相者, 何耶?

答, 由此諸緣, 舍義成故. 由成舍故, 椽等名緣. 若不爾者, 二俱不成. 今現得成, 故知成相耳.

問, 現見椽等諸緣, 各住自法, 本不作舍. 何因得有舍義成耶?

答, 只由椽等, 諸緣不作故, 舍義得成. 所以然者. 若椽作舍者, 卽失本緣法故, 舍義不得成. 今由不作故, 椽等諸緣現在前. 由此現前故, 舍義得成矣. 又若不作舍, 椽等不名緣. 今旣得緣名, 明知定作舍也.

問, 若不成者, 何失?

答, 有斷常過. 何者. 舍本作椽等諸緣成, 今旣並不得有舍. 故是斷也. 本以成舍名爲椽, 今旣不作舍, 故卽無椽, 亦是斷. 若不成者, 舍無因有. 故是常也. 又椽不作舍, 得椽名者, 亦

是常也.

묻는다. 여섯째 괴상(壞相)이란 무엇인가?

답한다. 서까래 등의 여러 조건들이 각각 자신의 존재에 머물러 있어 본래 집을 짓지 않기 때문이다.

묻는다. 지금 서까래 등의 여러 조건들을 집을 지어 완성한 것을 보는데, 무엇 때문에 본래 짓지 않는다고 하는가?

답한다. 다만 짓지 않기 때문에 집의 존재[舍法]가 성립된다. 만약 집을 짓는다면 자신의 존재에 머물지 않는 것이니, 집의 뜻은 성립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짓는다는 존재를 잃게 되어 집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이미 집이 성립되었으므로 짓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묻는다. 만약 짓는다면 무슨 잘못이 있는가?

답한다. 단(斷)과 상(常)의 두 가지 잘못이 있다. 만약 서까래가 짓는다고 말한다면 곧 서까래의 존재를 잃는 것이다. 서까래의 존재를 잃기 때문에 집은 조건이 없게 되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斷)이다. 만약 서까래의 존재를 잃고도 집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서까래가 없이 집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상(常)이다.

問, 第六壞相者, 何耶?

答, 椽等諸緣, 各住自法, 本不作故.

問, 現見椽等諸緣, 作舍成就. 何故, 乃說本不作耶?

答, 只由不作, 舍法得成. 若作舍者, 不住自法者, 舍義即不成. 何以故. 作者失法, 舍不成故. 今既舍成, 明知不作也.

問, 若作者, 有何失?

答, 有斷常二失. 若言椽作者, 即失椽法. 失椽法故, 舍即無緣, 不得有. 故是斷也. 若失椽法, 而有舍者, 無椽有. 故是常也.

묻는다. 어떤 이치에 의거하여 육상을 밝힌 것인가?

답한다. 원효스님은 말했다. “이 가운데 총상과 별상의 두 가지 상은 법계연기의 도리를 드러낸 것이니, 그 개별의 조건들으로써 전체의 덕을 일으킨 것이다. 동상과 이상의 두 가지 상은 그 연기가 상응(相應)하는 도리를 밝힌 것이다.〈별상은 동상이 없으면 총상을 이루지 못하고, 동상은 이상이 없으면 완전히 성립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별상 가운데에 동상과 이상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상응하여 하나의 총상이 완전히 성립된다.¹¹⁸⁾〉성상과 괴상의 두 가지 상은 이 연기가 단(斷)과 상(常)의 양 극단을 떠난 도리를 드러낸 것이다.〈성립되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며, 무너지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단지 성립되기만 하고 무너지지 않으면 늘어나기만 하는 극단에 떨어지고, 오직 무너지기만 하고 성립되지 않으면 줄어들기만 하는 극단에 떨어진다. 지금은 성립됨과 무너지짐이 있으므로 두 극단을 떠났다. 두 극단을 떠났기 때문에 이것이 곧 중도이다. 성립됨도 있고 무너지짐도 있는 것은 하나의 중간이 아니라 이것은 깊고 깊은 연기의 도리를 말하는 것이다.〉”¹¹⁹⁾

問, 約何道理, 明六相耶?

答, 元曉師云, “此中總別二相, 標其法界緣起道理, 以其別緣, 而起總德. 同異二相, 明其緣起相應道理. 〈以別無同相, 不成總故, 同無異相, 不成滿故. 以有別中有同異相, 乃得相應, 成一總滿〉成壞二相, 顯此緣起, 離邊道理. 〈以成故非無, 以壞故非有. 若但成非壞, 墮增益邊, 唯壞無成, 墮損減邊. 今有成壞, 故離二邊. 二邊離故, 即是中道, 有成有壞, 亦非一中, 是謂甚深緣起道理.〉”

118) 원문에서 주(註)로 처리된 이 부분과 아래의 부분은 원효스님의 글에 대해 표원이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인 것 같다.

119) 이 부분은 출처가 불분명하다. 다만 이와 똑같은 문장이 수령(壽靈)의 『화엄오교장지사(華嚴五教章指事)』 중권(大72 p.252b)에 실려 있다.(김천학, p.95 주 373) 참조)

묻는다. 『논』에서 “현상[事]은 제외하니, 현상[事]이란 음계입(陰界入)¹²⁰⁾ 등이다.”¹²¹⁾라고 하였으니 무슨 뜻인가?

답한다. 법장스님은 말했다. “이는 그 뜻을 분별하고 정한 것으로서, 도리에 의거하여 융통(融通)을 설한 것이지 오음(五陰)¹²²⁾ 등의 현상의 모습[事相]을 분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한 것이다.”¹²³⁾ “위에서 ‘언설의 해석이다’라고 한 것은 부처님의 교설임을 정한 것이다. 이 가운데에서 육상의 언설을 살펴본다고 하는 것은 경문을 해석하기 위해서이니, 마땅히 이 뜻을 알아야 한다. 또한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육상을 풀이한 것은 이것이 『십지경』의 글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논주(論主)¹²⁴⁾가 해석한 뜻일 뿐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¹²⁵⁾〈이 글은 아래 경전의 제4 대원(大願)의 첫 부분에

120) 음계입(陰界入) : 모든 삼라만상을 세 가지로 나눈 것으로서 음(陰)은 5온(蘊), 계(界)는 18계(界), 입(入)은 12처(處)를 의미한다. 오온은 일체 유위법을 모아 다섯 가지 종류로 구별한 색(色)·수(受)·상(想)·행(行)·식(識)을 말한다. 12처는 주관에 속하는 감각기관인 안(眼)·이(耳)·비(鼻)·설(舌)·신(身)·의(意)의 6근(根)과 객관에 속하는 지각되는 대상인 색(色)·성(聲)·향(香)·미(味)·촉(觸)·법(法)의 6경(境)을 합친 것이다. 그리고 18계는 감각기관인 안·이·비·설·신·의의 6근과, 그 지각 대상인 색·성·향·미·촉·법의 6경과, 이 감각기관과 대상을 연하여 생긴 인식 주관인 안·이·비·설·신·의의 6식(識)을 합친 것이다.

121) 『십지경론(十地經論)』 권1 大26 p.125a1, 除事, 事者, 謂陰界入等.

122) 오음(五陰) : 오온(五蘊, ṣpañca-skandha). 물질계와 정신계의 양면에 걸치는 일체 유위법(有爲法)을 모아 다섯 가지 종류로 구별한 색(色)·수(受)·상(想)·행(行)·식(識)의 총칭.

123) 『화엄경담현기』 권9 십지품 大35 p.282b14~15. 此辨定其義, 謂約道理說融通, 非是陰等事相中辨, 故除箇之.

124) 논주(論主) : 여기서의 논(論)은 『십지경론』이므로 논주는 『십지경론』의 저자인 세친을 말한다.

125) 『화엄경담현기』 권9 십지품 大35 p.282b10~13. 此言說解釋者, 是定教. 謂於此中, 安此六相之言說, 爲欲解釋經文, 應知此意. 又釋此中釋六相, 非是此處經文, 但

나오는 것으로서 경전 해석가의 자설(自說)이지 논주가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니다.¹²⁶⁾ “또한 이 가운데 동상과 이상은 진역 『화엄경』에서의 유상(有相)과 무상(無相)이다.¹²⁷⁾ 이는 다른 종류이지만 각각 총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유’는 ‘동’이라 했고, 그러나 각각은 서로 (자성이) 없기에 ‘무’는 ‘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¹²⁸⁾

問, 論云, “除事, 事謂陰界入等,” 何耶?

答, 藏師云, “此辨定其義, 謂約道理說融通, 非是陰等事相中辨, 故除簡之.” “上言, 言說解釋者, 是定教, 謂於此中, 安此六相之言說, 爲欲釋經文, 應知此意. 又釋此中釋六相, 非是此處經文, 但是論主解釋之意, 應知.” <謂此文, 出在下經第四大願初中, 經家自說, 非是論主率意而作>, “又此中同相異相者, 晉經, 有相無相者. 以於別類, 各帶於總, 名有是同, 然各互無, 名無是異. 故不相違.”

묻는다. 『논』에서 “세계의 성괴(成壞)와 같다.”¹²⁹⁾ 고 한 것은 무슨 뜻인가?

답한다. 원효스님은 말했다. “쉬운 것으로 어려운 것을 드러낸 것이니, 삼천의 세계가 하나의 세계를 성립시키는 것처럼 곧 성(成)이면서 곧 괴(壞)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 구절을 설한 것은 현상을 들

是論主解釋之意, 應知.

126) 『화엄경담현기』 권9 십지품 大35 p.282a28~29.此文 出在下經第四大願中, 經家自說, 非是論主, 率意而作.

127) 『대방광불화엄경』 권23 십지품 大9 p.545b27~28. 總相, 別相, 有相, 無相, 有成, 有壞.

128) 『화엄경담현기』 권9 십지품 大35 p.308a24~26. 論中同相異相, 此名有相無相者, 以於別類, 各帶於總, 名有是同, 然各互無, 名無是異, 故不相違.

129) 『십지경론』 권1 大26 p.125a5. 如世界成壞.

어 원리를 비유한 것이니, 세계가 성립될 때는 풍륜(風輪)¹³⁰⁾ 등의 법이 차례로 모여서 세계가 있고, 세계가 무너질 때는 산과 바다 등의 사물이 차례로 흩어져 없어져 세계가 없는 것과 같다. 십구의(十句義)¹³¹⁾의 전체와 개별도 그 뜻이 서로 비슷하다. 개별을 묶어서 전체를 성립시키는 것은 세계가 성립되는 것과 유사하여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전체를 흩어서 개별을 만드는 것은 세계가 무너지는 것과 유사하여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다만 세계의 성괴는 현상의 성괴이므로 성립될 때에는 무너짐이 아니고, 무너질 때에는 성립이 아니다. 육상의 성괴는 원리의 성괴이므로 성립이 곧 무너짐이요 무너짐이 곧 성립이다. 단지 약간 비슷한 점을 취하여 비유를 삼았을 따름이다.”¹³²⁾

법장스님은 말했다. “백억 개의 사천하(四天下)¹³³⁾가 모여 하나의 사바세계를 성립시키듯이 드러냄을 나타낸 것을 간략히 말하여 성(成)이라고 한다. 만일 분별하여 자세히 말하면 백억 개의 차별된 것이 하나의 사바세계로 하여금 의지하여 머물 데가 없게 하므로 괴(壞)라고 한다.”¹³⁴⁾

130) 풍륜(風輪): 수미산의 맨 밑에 있으면서 세계를 바치고 있는 네 종류의 대륜(大輪) 중의 하나이다. 그 네 종류는 아래부터 허공륜(虛空輪), 풍륜(風輪), 수륜(水輪), 금륜(金輪)의 순서로 있다고 한다.

131) 십구의(十句義): 구의(句義)는 ṣpada-artha의 한역으로서, 말에 의해 나타난 대상이라는 뜻이다. 십구의는 존재가 생겨나고 없어지는 원리를 열 가지 말의 범주에 의해 설명하는 것이다. 그 열 가지는 실(實), 덕(德), 업(業), 동(同), 이(異), 화합(和合), 유능(有能), 무능(無能), 구분(俱分), 무설(無說)이다.

132) 이 부분은 출처가 불분명하다. 다만 이와 똑같은 문장이 수령(壽靈)의 『화엄오교장지사(華嚴五教章指事)』 중권(大72 252c)에 실려 있다. (김천학, p.98 주 391) 참조)

133) 사천하(四天下): 수미산의 사방에 있다고 하는 네 개의 대륙. 사대주(四大洲)라고도 한다. 사천하는 남赡부주(南瞻部洲), 동승신주(東勝身洲), 서우화주(西牛貨洲), 북구로주(北俱盧洲)이다.

134) 『화엄경담현기』 권9 십지품 大35 p.282b20~22. 如百億四天下, 合成一娑婆界, 略言標顯爲成, 若分別廣說, 百億差別, 合一娑婆無所依住, 故爲壞.

수나라의 혜원(慧遠)법사¹³⁵⁾는 말했다. “현상[事]은 제외하니, 현상[事]이란 음계입(陰界入) 등이다.’ 피차가 서로 상대하니 개별 현상은 막히고 결림이 있어 이러한 육상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외한다고 한 것이다. 만약 현상의 모습[事相]을 포섭하여 본체의 뜻을 따른다면 음과 계와 입 등의 하나하나에 모두 무량함을 갖추게 된다. 지금은 또한 하나의 색음(色陰)¹³⁶⁾에서 동일한 몸에 갠지스강의 모래알 같이 많은 불법을 갖추고 있으니, 고(苦), 무상(無常), 공(空), 무아(無我) 등의 일체 불법을 말한다. 이러한 모든 법은 의미는 다르지만 본체는 같으며 서로 연집(緣集)하여 하나의 형상을 성립시키니, 그 형상을 총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총상에서 모든 형상을 내놓으니, 고(苦)의 형상에서부터 진실인 연기(緣起)의 형상에까지 이르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한량없는 차별의 형상을 별상이라고 한다. 고(苦) 등의 법에는 모두 형상의 뜻이 있으므로 이를 동상이라고 한다. 형상의 뜻이 비록 같지만 저 형상의 고(苦)는 형상의 무상(無常)과 다르므로 이를 이상이라고 한다. 의미의 문은 비록 다르지만 그 본체는 다르지 않아서 형상이 융섭되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성상이라고 하니, 성상은 간략함[略]¹³⁷⁾과 같다. 본체는 비록 구별되지 않지만 뜻의 문은 항상 달라서 여러 형상이 되어, 그것을 가리켜 괴상이라 하니, 괴상은 자세함[廣]¹³⁸⁾

135) 혜원(慧遠)법사: 523~592. 흔히 정영사(淨影寺) 혜원(慧遠)이라 부른다. 13세에 출가하였다. 북주 무제의 폐불 칙령에 맞서 환속한 이후 무제를 찾아가 논박하기도 하였다. 그 후 은거하였다가 무제가 죽고 난 이후 문제에게 존경을 받았다. 저서로는 『대승의장(大乘義章)』, 『십지경론의기(十地經論義記)』, 『화엄경소(華嚴經疏)』, 『대반열반경의기(大般涅槃經義記)』, 『법화경소(法華經疏)』, 『유마경의기(維摩經義記)』, 『승만경의기(勝鬘經義記)』, 『무량수경의소(無量壽經義疏)』 등이 있다.

136) 색음(色陰): 오온(五蘊)의 색(色)·수(受)·상(想)·행(行)·식(識) 중에서 색(色)만을 표현한 것이다.

137) 간략함[略]: 위에서 법장이 ‘간략히 표현하면 성(成)이 된다.’고 한 의미와 같다.

과 같다. 실제로 근거해서 말하면, 앞에서 말한 네 개의 문은 의미를 충분히 나타냈고, 같고 다름에 의거하여 (성상과 괴상의) 두 문이 성립되기 때 문에 육(六)이 된다. 이것이 바로 대승의 깊은 강령이며 원만하고 원통한 묘문이다.”¹³⁹⁾라고 하였다.〈능법사도 모든 문에 대해 자세히 서술했지만 번잡하여 생략한다.〉

법장스님은 아래와 같이 계송을 지었다.¹⁴⁰⁾

하나가 곧 여럿을 갖추니 총상이라 이름하고
여럿은 곧 하나가 아니니 이는 별상이네.
여러 종류 스스로 전체에서 동상을 이루고
각각 몸은 달라서 같은 데서 이상을 나타내네.
하나와 여럿의 연기의 이치 오묘하게 성상이 되고
괴상은 자기 법에 머물러 항상 짓지 않네.
오직 지혜의 경계일 뿐 현상적인 인식이 아니니
이러한 방편으로 일승에 모이네.

問, 論云, “如世界成壞者,” 何義耶?

答, 曉云, “以易顯難, 如三千界成一世界, 卽成卽壞. 易可了知. 又說此句舉事喻理, 謂如世界成時, 風輪等法, 次第聚集, 則有世界, 世界壞時, 山海等物, 次第散滅, 則無世界. 十句總別, 其義相似. 攬別成總, 似世界成, 不可說無, 散總作別, 似世界壞, 不可說有. 但世界成壞, 是事成壞故, 成時非

138) 자세한 [廣]: 위에서 법장이 ‘자세히 말하면 괴(壞)가 된다.’고 한 의미와 같다.

139) 『대승의장(大乘義章)』 권3 大44 p.524a8~b15의 내용을 줄인 것이다.

140) 아래의 계송은 『화엄일승교의분제장(華嚴一乘教義分齊章)』 권4(大45 p.508c24~509a3)에 있는 것이다. 이 계송은 원래 법장의 스승인 지엄(智嚴, 602~668)이 지은 것이라고 한다.(김천학, p.101 주 410) 참조)

壞，壞時非成。六相成壞，是理成壞故，成卽是壞，壞卽是成。但取小分相似爲喻。”藏師云，“如百億四天下，合成一娑婆界。略言標顯爲成。若分別廣說，百億差別，令一娑婆無所依住故爲壞。”隋慧遠法師云，“‘除事，事謂陰界入等’，彼此相望，事別隔礙，不具斯六，所以除之。若攝事相，以從體義，陰界入等一一之中，皆具無量。今且就一色陰之中，同體具有恒沙佛法。謂苦無常空無我等一切佛法。是等諸法，義別體同，其相緣集，以成一色，色名爲總。就此總中，開出諸色，所謂苦色，乃至真實緣起之色。如是無量差別之色，是名爲別。苦等法上，皆有色義，名之爲同。色義雖同，然彼色苦，異色無常，是名爲異。義門雖殊，其體不別，色攝爲一，是故爲成，成猶略也。體雖不別，義門恒異，得爲多色，目之爲壞，壞猶廣也。拷實論之，說前四門，辨義應足，爲約同異，成前二門，故有六也。此乃大乘之淵綱，圓通之妙門。”〈懷法師諸門廣述，繁言故略之。〉藏法師，乃爲頌曰，

一卽具多名總相，多卽非一是別相。

多類自同成於總，各體別異現於同。

一多緣起理妙成，壞住自法常不作。

唯智境界非事識，以此方便會一乘。

3. 십전을 세는 비유의 의미[數十錢喻義]

세 가지 문으로 분별한다.

1) 이름을 풀이함

수(數)는 수량이니 1부터 10에 이르는 것 등이다. 일은 숫자의 명칭으로, 한번에 두루 원만한 숫자에 의지하여 십을 나타내니, 다함이 없음을 나타내고자 하기 때문이다. 전(錢)은 재화로서 개원보(開元寶)¹⁴¹⁾ 등을 말한다. 유(喻)는 비유하고 견주는 것이다. 법의 유사한 점을 서로 견주어 보는 것이 유(喻)의 의미이다.

數十錢喻義.¹⁴²⁾ 三門分別.

第一釋名者.

數者數量也, 以一至十等也. 一者數名. 依一周圓數, 以表十也, 欲表無盡故. 錢者財也, 謂開元寶等也. 喻者比也, 類也. 況法相似, 是喻義也.

2) 본체를 드러냄

막힘 없고 걸림 없는 연기의 법계를 본체로 삼는다.

第二出體者.

以無障無礙緣起法界爲體.

141) 개원보(開元寶): 개원통보(開元通寶)의 줄임말로써 당나라의 대표적인 동전이다. 여기서의 개원(開元)은 연호가 아니고 개국건원(開國建元)을 의미한다. 이 동전은 당나라 초기인 621년(武德 4) 처음으로 주조 발행되었고, 그 후 역대 왕조 화폐의 표준이 되었다.

142) 韓2 p.358a18~360b8.

3) 문답으로 분별함

묻는다. 돈을 세는 비유로 무슨 뜻을 드러내고자 하는가?

답한다. 법장스님은 “대연기다라니법(大緣起陀羅尼法)을 나타내고자 하기 때문이다.”¹⁴³⁾라고 하였고, 의상(義相)스님¹⁴⁴⁾은 “연기실상다라니법(緣起實相陀羅尼法)을 보이고자 한다.”¹⁴⁵⁾고 하였으며, 원효스님은 “보법(普法)¹⁴⁶⁾의 뜻을 말한 것이다.”¹⁴⁷⁾라고 하였다.

-
- 143) 『화엄일승교의분제장』 권4에서 “묻는다. 이미 일(一)이라고 말했으면 왜 일 가운데 십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답한다. 대연기다라니법이다. 만약 일이 없다면 일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음을 확실히 아는 것이다.”(大45 p.503c4~6. 問, 既言一者, 何得一中有十耶? 答, 大緣起陀羅尼法, 若無一卽一切不成故, 定知如是.)라고 하였다.
- 144) 의상(義相)스님 : 625~702. 신라 화엄종의 개창자. 황복사에서 출가한 후 당에 유학하여 지엄에게서 화엄을 배우고 『일승법계도(一乘法界圖)』를 지어 일(一)과 다(多)가 결립 없이 거듭 전개되는 법계연기 사상을 정립하였다. 귀국한 후 부석사(浮石寺)를 비롯한 여러 절을 세우고 많은 제자들과 화엄사상을 연마하고 정진하며 화엄종을 펴 나갔다. 한편으로 교단에서 관음신앙과 미타신앙을 선도하여 사람들이 불교 신앙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하였다. 제자들이 확장하여 창건하고 운영한 화엄십찰은 통일신라 불교계의 중추를 이루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일승법계도』 외에 『아미타경의기』가 저술로 알려졌고, 「백화도량발원문」 등 의상의 사상을 담고 있다고 알려진 저술이 몇 개 있지만 저술은 많지 않다. 제자로는 지통(智通) 진정(眞定) 도신(道身) 표훈(表訓) 등 여러 뛰어난 제자가 있다.
- 145) 『일승법계도(一乘法界圖)』 권1에서 “만약 연기실상다라니법을 보려면 먼저 십전을 헤아리는 법을 깨달아야 한다.”(韓2 p.6a22~23. 若欲觀緣起實相陀羅尼法者, 先應覺數十錢法.)라고 하였다.
- 146) 보법(普法) : 화엄 교학에서 말하는 별교일승(別敎一乘). 일체법이 서로 투영되고 교섭하여 하나의 법에 모든 법이 갖추어져 있는 도리이다.
- 147) 이 문장은 원효의 『보법기(普法記)』에서 인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보법기』가 현존하지 않아 자세히 알 수 없다.

이 가운데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이체(異體)이고, 둘째는 동체(同體)이다. 처음의 이체에서 보면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상입(相入)이고 다른 하나는 상즉(相卽)이다. 이렇게 두 가지 문이 있는 이유는 모든 연기에 두 가지 뜻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유력(有力)과 무력(無力)의 의미로서 이것은 작용력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유체(有體)와 무체(無體)의 의미로서 이것은 자체(自體)에 대한 것이다. 앞의 뜻으로 인해 상입할 수 있고, 뒤의 뜻으로 인해 상즉할 수 있다. 처음에 자신은 온전히 유력(有力)이어서 타자를 포섭할 수 있고, 타자는 온전히 무력(無力)이어서 자신에게 들어갈 수 있다. 타자가 유력(有力)이고 자신이 무력(無力)이면 그 반대가 됨을 알 수 있다. 자체(自體)에 의거하지 않으므로 상즉이 아니고 작용력이 서로 통하므로 상입이 성립된다. 또한 둘 다 유력(有力)이거나 둘 다 무력(無力)인 경우는 각각 완전히 갖추지 못했으므로 저것이 상입하지 않음이 없고, 유력무력(有力無力)과 무력유력(無力有力)인 경우는 둘 다 아니기 때문에 항상 상입한다.

둘째는 공(空)과 유(有)의 경우이다. 자신이 있다면 그때 타자는 반드시 없으므로 타자는 자신과 상즉한다. 왜냐하면 타자는 자성(自性)이 없고 자신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음에 자신이 공(空)이라면 그때 타자는 반드시 유(有)이므로 자신은 타자와 상즉한다. 왜냐하면 자신은 자성(自性)이 없고 타자가 작용하기 때문이다.〈혹은 말하기를, “만약 하나의 조건(緣)이 없다면, 나머지도 일어남[起]을 성립시키지 못하며, 일어남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조건의 뜻이 무너진다. 그러나 하나의 조건을 얻게 되면 온전히 일체가 일어남을 성립시키며, 하나의 일어남이 성립되기 때문에 조건의 뜻이 비로소 성립된다. 그러므로 하나의 조건은 일어남의 주체[能起]이고, 여러 조건과 결과는 모두 일어남의 대상[所起]이다. 이는 곧 여럿이 하나를 위해 성립되므로 여럿은 무체(無體)이고, 하나가 능히 여럿을 만들므로 하나는 유체(有體)¹⁴⁸⁾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의미는 나중에 다시 설명할 것이다.〉 둘 다 유(有)

이거나 둘 다 공(空)인 경우는 각각 완전히 갖추지 못했으므로 저것이 상
 즉하지 않음이 없다. (자신은) 있고 (타자는) 없거나 (자신은) 없고 (타자는)
 있는 경우는 둘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항상 상즉한다.¹⁴⁹⁾ 또 본체가 작용을
 수용하여 별도의 작용이 없으므로 오직 상즉할 뿐이다. 그렇지 않다면 연
 기(緣起)는 성립되지 않는다. 자성(自性)이 있다는 등의 잘못된 견해는 이
 를 보면 알 수 있다.

第三問答.

問, 欲顯何義, 以數錢喻耶?

答, 法藏師云, “欲表大緣起陀羅尼法故.” 義相師云, “欲示緣
 起實相陀羅尼法.” 元曉師云, “詮普法義故.” 此中有二, 一者
 異體, 二同體. 就初中有二, 一相入, 二相即. 所以有此二門者,
 以諸緣起皆有二義故. 一有力無力義, 此望力用, 二有體無體
 義, 望此自體. 由初義故得相入, 由後義故得相即. 初中自有全
 力, 所以能攝他, 他全無力故, 所以能入自. 他有力自無力, 反
 上可知. 不據自體, 故非相即, 力用交徹, 故成相入. 又由二力
 二無力各不俱故, 無彼不相入, 有力無力無力有力無二故, 是
 故常相入. 二空有中, 由自若有時他必無, 故他即自. 何以故.
 由他無性以自作故. 二由自若空時他必是有, 故自即他. 何以
 故. 由自無性用他作故. <一云, “若闕一緣, 餘不成起, 起不成故, 緣義則
 壞. 得此一緣, 全一切成起, 一起成故, 緣義方立. 是故一緣是能起, 多緣及果俱

148) 『화엄경담현기』 권1 대35 p.124b19~23. 以若闕一緣, 餘不成起, 起不成故, 緣義即
 壞. 得此一緣, 令一切成起, 所起成故, 緣義方立. 是故一緣是能起, 多緣及果俱是所
 起. 是即多爲一成, 多是無體, 一能作多, 一是有體.

149) 이 부분의 해석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어 고려의 균여는 이들 견해를 정리
 소개하였다.(김천학, p.108 주 438) 참조)

是所起。是即多爲一成，多是無體，一能作多，一是有體。”然此義後更說也。〉以
 二有二空各不俱故，無彼不相卽，有無無有無二故，是故常相
 卽。又以體收用，無別用故，唯是相卽。若不爾者，緣起不成。
 有自性等過，見之可思。

처음의 이체문 중에서 상업을 먼저 밝힌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이 있다.
 하나는 세어 올라감[向上去]¹⁵⁰⁾이고 다른 하나는 세어 내려옴[向下來]¹⁵¹⁾
 이다.¹⁵²⁾ 세어 올라감에 열 가지 문이 있다. 첫 번째는 일(一)로서 이는 근
 본수이다. 왜냐하면 조건(緣)으로 성립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열 번째는
 일중십(一中十)이다. 왜냐하면 일이 없다면 십(十)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
 이다. 즉 일에 전력(全力)이 있기 때문에 십을 포섭하는 것이다. 따라서 십
 은 일이 아니다. 나머지 아홉 문을 논하는 것도 이와 같으니, 하나하나에
 모두 십이 있음을 이의 예에 따라 알 수 있다.〈의상스님이 “중문(中門)¹⁵³⁾에서 세
 어 올라옴[向上來]과 세어 내려옴[向下去]을 말하고 즉문(卽門)¹⁵⁴⁾에서 세어 올라감[向
 上去]과 세어 내려옴[向下來]을 말한”¹⁵⁵⁾ 것은 앞뒤의 말에 착오가 있으므로 취하지 않는
 다.¹⁵⁶⁾〉 세어 내려오는 수[向下數]에 또 열 가지 문이 있다. 첫 번째는 십이
 다. 왜냐하면 조건(緣)으로 성립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열 번째는 십중일

150) 세어 올라감[向上去]: 동전을 제1전부터 제2전, 제3전에서 제10전으로 세어 올
 라가는 것.

151) 세어 내려옴[向下來]: 동전을 제10전부터 제1전으로 세어 내려오는 것.

152) 법장이 『오교장』에서 말한 이 부분의 표현은 없고 바로 향상수(向上數) 그리고
 향하수(向下數)로 표현하였으며, (大45 p.503b24 ; 28) 다음에 이체문 중에서 향상
 거 향하래를 표현하였다.(p.503c26)

153) 중문(中門): 위에서 말한 “일중십 십중일(一中十十中一)”의 내용이다.

154) 즉문(卽門): 위에서 말한 “일즉십 십즉일(一卽十十卽一)”의 내용이다.

155) 『일승법계도』 韓2 p.4a24~b2 ; c14~15.

(十中一)이다. 만약 십이 없다면 일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일은 전력(全力)이 없어서 십에 귀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은 십이 아니다. 나머지도 예와 같다. 이처럼 근본과 지말의 두 문(門) 가운데 열 가지 문을 갖추고 있듯이 나머지 하나하나의 동전 가운데에도 이에 준하여 생각하면 된다.〈여기서 수를 세는 법은 첫 번째는 십이고, 두 번째는 십중구(十中九)이고, 내지 열 번째는 십중일(十中一)이다.¹⁵⁷⁾ 이것은 이문(異門)에 의거하여 서로 상대하여 설한 것이다.¹⁵⁸⁾

156) 이 십전유설의 설명을 법장은 이를 이체와 동체로 나누고, 이체문을 상입과 상즉으로 나누어 각각 향상거와 향상래로 설명하고, 동체문을 중문과 즉문으로 나누어 각각 일중다 다중일과 일즉다 다즉일로 설명하였다. 이에 비해 의상은 중문과 즉문으로 나누어 중문은 향상래와 향하거, 즉문은 향상거와 향하래로 나누어 말하였다. 의상의 설명 방식이 법장에게서 이체와 동체로 거듭된 형태로 변화하였다. 그런데 표원은 의상의 설명 중 향상래와 향하거라는 표현이 맞지 않으므로 이를 쓰지 않는다고 언명하였다. 이는 표원이 보다 정리된 법장의 수 십전유를 따르고 의상의 것을 따르지 않았음을 말해 준다. 이점에서도 표원의 사상적 계승을 확인할 수 있다.

157) 표원이 의상의 향상래, 향하거 표현을 문제삼아 부정하고 법장의 저술을 인용하였지만, 의상의 저술과도 유사한 표현이 많다. 이는 법장이 의상의 견해를 수용 발전시켜 수 십전유를 설명하였음을 말해준다. 의상은 “若欲觀緣起實相陀羅尼法者，先應覺數十錢法。所謂一錢乃至十錢，所以說十者，欲顯無量故。”(『일승법계도』 韓2 p.6a22~24.)라고 전제하고 중문과 즉문으로 나누어 설명한다.(p.6a24~b12. 此中有二，一者一即十，十中一，二者一即十，十即一，初門中有二，一者向上來，二者向下去，言向上來中，有十門不同，一者一，何以故，緣成故，即是本數，乃至十者一中十，何以故，若無一，十即不成，仍十非一故，餘門亦如是，准例可知，言向下去中，亦有十門，一者十，何以故，緣成故，乃至十者十中一，何以故，若無十，一即不成，仍一非十故，餘亦如是，生變如是，勘當即知，一一錢中，具足十門，如本末兩錢中具足十門，餘八錢中，准例可解.)

158) 이 문단은 『화엄일승교의분제장』 권4 大45 p.503b24~c4의 내용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같다. 주 151)과 같이 『오교장』에 없는 부분이 있어 이를 원효의 저술에서 인용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음부터 십전유 끝부분까지 『오교장』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원효의 저술이 그렇

於中先明相入. 此中有二門, 一向上去, 二向下來. 向上去中, 亦有十門. 一者一是本數. 何以故, 緣成故. 乃至十者, 一中十. 何以故, 若無一, 卽十不成故. 則一有全力故, 攝於十也. 仍十非一. 餘九門, 亦如是, 一一皆有十, 准例可知. 〈義相師云, “中門中, 向上來, 向下去, 卽門中, 向上去, 向下來,” 前後言錯, 故不用也.〉 向下數中, 亦十門. 一者十. 何以故, 緣成故, 乃至十者, 十中一. 謂若無十, 則一不成故. 則一無全力, 歸於十也. 仍一非十矣. 餘例然. 如是本末二門中, 具足十門, 餘一一錢中, 准以思之. 〈此中數數法者, 一者十, 二者十中九, 乃至十者十中一.〉 此約異門, 相望說耳.

묻는다. 이미 일이라고 말했다면 어찌하여 일 가운데에 십(十)이 있을 수 있는가?

답한다. 대연기다라니법은 만약 일이 없다면 일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음을 확실히 아는 것이다. 이 뜻은 무엇인가? 일이라고 말한 것은 자성(自性)으로서의 일이 아니라 조건[緣]으로 성립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 가운데에 십이 있는 것이니, 이것이 조건으로 일이 성립된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성은 조건이 없어서 일이라고 이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일체의 연기하는 것은 모두 자성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조건을 제거하면 일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 가운데에 다(多)를 갖추고 있어야 비로소 연기(緣起)의 일이라고 이름 하는 것이다.

묻는다. 하나의 조건을 제거하여 (일체가) 성립되지 않으면 이것이 곧 자성이 없는 것이다. 자성이 없는데 어떻게 일과 다의 연기가 성립될 수

게 같은 내용을 서술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만 원효의 인용이라고 하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다. 『오교장』의 인용에 표원이 표제 등과 마지막 게송 등 일부 구절을 추가하여 구성했다고 보는 것이 더 가능성이 크다.

있는가?

답한다. 오직 자성이 없어야만 일과 다의 연기가 성립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연기가 바로 법계가(法界家)의 진실한 덕이기 때문이며 보현경계의 구비된 덕으로서, 자재하여 장애가 없기 때문이다. 『화엄경』에 “보살은 연기법을 잘 관찰하니, 하나의 법에서 많은 법을 이해하고 많은 법에서 하나의 법을 이해한다.”¹⁵⁹⁾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일중십(一中十)과 십중일(十中一)이 서로 용납하여 걸림이 없어 서로 옳다고 고집하지 않음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하나의 문(門)에 이미 열 가지 의미가 갖추어져 있으니, 그 하나의 문에 모두 무진(無盡)의 뜻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 문도 이와 같다.

묻는다. 하나의 문에 십(十)을 남김 없이 포섭하였는가, 그렇지 못한가?

답한다. 남김 없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왜냐하면 일중십(一中十)이므로 남김이 없고, 십중일(十中一)이므로 남김이 없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4구에 의한 잘못된 방지, 오류의 제거, 덕의 드러냄 등의 예에 준하여 알 수 있다. 개별적인 여러 문도 이와 같은 예에 준한다. 연기의 오묘한 이치도 이와 같이 알아야 한다.〈첫 번째 문을 마친다.〉¹⁶⁰⁾

159) 『화엄경』(60) 권28 「십인품(十忍品)」에서 “이 보살은 모든 법이 다 허깨비 같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다. 연기법을 관찰하여 하나의 법에서 수많은 법을 이해하고 수많은 법에서 하나의 법을 이해하는 것이다.”(大9 p.580c27~29. 此菩薩深入諸法皆悉如幻 觀緣起法 於一法中解衆多法 衆多法中解了一法.)라고 하였다.

160) 『화엄일승교의분제장』 권4 大45 p.503c4~25. 의상의 서술도 유사하다.(『일승법계도』 韓2 p.6b13~17. 問既言一者, 何得一中名爲十也? 答大緣起陀羅尼法, 若無一, 一切卽不成. 定知如是其相. 如所言一者, 非自性一, 緣成故一. 乃至十者, 非自性十, 緣成故十.; b24~c10. 是故當知, 一中十, 十中一, 相容無礙, 仍不相是. 旣一門中具足十門. 故明知. 一門中有無盡義, 如一門, 餘亦如是. 問一門中攝十盡不盡? 答盡不盡. 所以者何. 須盡卽盡, 須不盡卽不盡故. 其義云何? 以一事辨一多故卽盡, 以異事辨一多故卽不盡. 又一事中一多義不相是, 卽是多一事故卽多. 是一四句護過失非顯德. 准之可解. 異事

問, 旣言一者, 何得一中有十耶?

答, 大緣起陀羅尼法, 若無一卽一切不成故, 定知如是. 此義云何? 所言一者, 非自性一, 緣成故. 是故一中有十者, 是緣成一. 若不爾者, 自性無緣, 不得名一也. 是故一切緣起, 皆非自性. 何以故, 隨去一緣, 卽一切不成. 是故一中則具多, 方名緣起一耳.

問, 若去一緣而不成者, 此卽無性. 無自性者, 云何得成一多緣起?

答, 由只無性, 得成一多緣起. 何以故, 由此緣起, 是法界家實德故, 普賢境界具德, 自在無障礙故. 華嚴云, “菩薩, 善觀緣起法, 於一法中, 解衆多法, 衆多法中, 解一法.” 是故當知, 一中十中一, 相容無礙, 仍不相是. 一門中, 旣具足十義, 故知一門中, 皆有無盡義. 餘門亦如是.

問, 一門中攝十, 盡不盡?

答, 盡, 不盡. 何以故. 一中十故盡, 十中一故不盡. 四句護過去非顯德等, 准之可解耳. 別別諸門中, 准例如是. 緣起妙理, 應如是知. 〈第一門竟〉

처음의 이체문 중에서 두 번째는 즉(卽)의 의미이다. 이중에 두 가지 문이 있다. 하나는 세어 올라감[向上去]이고, 다른 하나는 세어 내려옴[向下來]이다. 세어 올라감에 열 가지 문이 있다. 첫 번째는 일(一)이다. 왜냐하면 조건[緣]으로 성립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열 번째는 일즉십(一卽十)

亦准同.) 여기 제시한 두 글 사이에 의상 사상의 특징으로 지적되는 중도의(中道義)와 무주(無住)의 서술이 있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다. 왜냐하면 일이 없다면 십이 없기 때문이다. 일은 체(體)가 있지만 나머지는 모두 공(空)하므로 이 일이 곧 십이다. 이와 같이 세어 올라가서 열 번째에 이르면 모두 앞과 같으니, 그에 준하여 알 수 있다. 세어내려오에도 열 가지 문이 있다. 첫 번째는 십이다. 왜냐하면 조건으로 성립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열 번째는 십즉일(十卽一)이다. 왜냐하면 십이 없다면 일도 없기 때문이다. 일은 체가 없지만 나머지는 체가 있으므로 그러므로 이 십이 곧 일이다. 이와 같이 세어 내려가서 첫 번째에 이르면 모두 앞과 같으니, 그에 준하여 알 수 있다. 이러한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동전이 곧 여러 동전임을 알아야 한다.¹⁶¹⁾

初異體門中, 第二卽義者. 此中有二門, 一者向上去, 二者向下來. 初門中有十門. 一者一. 何以故, 緣成故. 乃至十者, 一卽十. 何以故, 若無一, 卽無十故. 由一有體, 餘皆空故, 此一卽是十矣. 如是向上, 乃至第十, 皆各如前, 准可知耳. 言向下者, 亦有十門. 一者十. 何以故, 緣成故. 乃至十者, 十卽一. 何以故, 若無十, 卽無一故. 由一無體, 是餘有故, 是故此十卽是一矣. 如是向下, 乃至第一, 皆各如前, 准可知耳. 以此義故, 當知一一錢卽是多錢耳.

묻는다. 만약 일(一)이 십(十)에 즉(卽)하지 않는다면 무슨 잘못이 있는가?
 답한다. 만약 즉(卽)하지 않는다면 두 가지 잘못이 있다. 첫째는 (일이) 십전(十錢)을 성립할 수 없다는 잘못이다. 왜냐하면 만약 일이 십에 즉하지

161) 『화엄일승교의분제장』 권4 大45 p.504c25~505a6. 의상의 서술도 유사하다. (『일승법계도』 韓2 p.6c14~21. 第二門. 此中二門, 一者向上去, 二者向下來. 初門中十門不同. 一者一. 何以故, 緣成故. 乃至十者一卽十. 何以故, 若無一, 十卽不成故, 緣成故. 第二門中亦有十門. 一者十. 何以故, 緣成故. 乃至十者十卽一, 若無十, 一卽不成故. 餘者准例. 以此義故, 當知一一錢中具足十門.)

않는다면 여러 하나하나가 십을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 하나가 모두 십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이미 십이 성립되었다면 일이 곧 십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둘째는 일이 성립되지 못하는 잘못이 있다. 왜냐하면 만약 일이 십에 즉하지 않는다면 십이 곧 성립될 수 없고, 십이 성립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의 뜻도 성립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만약 십이 없다면 무엇이 일이겠는가. 그러므로 지금 이미 일을 얻었다면 일이 십에 즉함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또 만약 상즉하지 않는다면 연기문에서 공과 유이 두 뜻이 바로 앞에 드러나지 않아 곧 큰 잘못을 이루게 된다. 자성(自性) 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생각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묻는다. 만약 일이 십에 즉한다면 마땅히 일이 아니어야 하고, 만약 십이 일에 즉한다면 마땅히 십이 아니어야 한다.

답한다. 단지 일이 곧 십이 되기 때문에 일이라고 이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이라는 것은 이른바 일이 아니라 조건(緣)으로 성립된 것으로 자성(自性)이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이 여럿[多]에 즉(卽)하는 것을 일이라고 이름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일이라고 이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일은 자성이 없어서 조건 없이는 일이 성립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십이 일에 즉하는 것도 앞의 예에 준하여 취하고 함부로 집착하면 안 된다. 마땅히 준하여 알아야 한다.

묻는다. 위에서의 일과 여럿의 뜻은 동시에 함께 원만한가? 아니면 전후의 차이가 있는가?

답한다. 동시적인 원만함에 즉하기도 하고 전후의 차이에 즉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이 법성의 연기는 역(逆)과 순(順)을 갖추고 있어서 동체에 어긋나지 않으며 덕용(德用)에 자재하고 걸림이 없기 때문에 모두 그와 같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묻는다. 위에서 말한 감[去]과 옴[來]의 뜻은 그 모습이 어떠한가?

답한다. 본래의 자리는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항상 가고 온다. 왜냐하면 감[去], 음[來], 움직이지 않음[不動]은 곧 하나의 현상[一物]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혜를 내어 원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고 온다는 등의 뜻을 설할 따름이다. 만약 지혜를 없애버린다면 일체를 말할 수 없게 된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은 과분(果分)이 바로 그런 것이다.¹⁶²⁾

묻는다. 만약 지혜로 말미암는다면 애초부터 있는 것이 아닌데 어찌하여 “예로부터 이와 같다”고 말하는가?

답한다. 만약 지혜를 없애버린다면 연기를 논할 수 없으니, 지혜에 의거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와 같다”고 설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립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성립된다면 처음과 끝을 떠난 것이기 때문이다. 지혜와 법은 예로부터 성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묻는다. 지혜로 말미암기 때문인가? 법이 그와 같기 때문인가?

답한다. 지혜로 말미암는다고도 하고, 법이 그와 같다고도 한다. 왜냐하면 동시에 구축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뜻은 이에 준하여 생각하라. 이체문의 대단을 마친다.¹⁶³⁾

問, 若一不卽十者, 有何過失?

答, 若不卽, 有二失. 一不成十錢過. 何以故, 若一不卽十者, 多一亦不成十. 何以故, 一一皆非十故. 今旣得成十, 明知一卽是十也. 二一不成過. 何以故, 若一不卽十, 十卽不得成, 由十不成故, 一義亦不成. 何以故, 若無十, 是誰一. 故旣得一,

162) 이 부분의 2개의 문답은 의상의 서술과 유사하면서도 다소 차이가 있다. (『일승법계도』 韓2 p.7a1~9. 問如上多門, 一時俱圓耶, 前後不同耶? 答卽圓卽前後不同. 何故如是. 須圓卽圓, 須前後卽前後. 何以故, 法性家內德用自在無鄣礙故, 由緣成故. 皆得如是. 問如上所說來去義, 其相云何? 答自位不動, 而恒來去. 何以故, 來去者隨緣義, 卽是因緣義. 不動者向本義, 卽是緣起義.)

163) 『화엄일승교의분제장』 권4 大45 p.505a6~b7.

明知一卽十. 又若不相卽, 緣起門中, 空有二義, 卽不現前, 便成大過. 謂自性等, 思之可知.

問, 若一卽十者, 應當非是一, 若十卽一者, 應當非是十.

答, 只爲一卽是十故, 是故名爲一. 何以故, 所言一者, 非是所謂一, 緣成無性一. 爲此一卽多者, 是名一. 若不爾者, 不名一. 何以故, 由無自性故, 無緣不成一也. 十卽一者, 准前例取, 勿妄執矣. 應准知之.

問, 上一多義門, 爲一時俱圓耶? 爲前後不同耶?

答, 卽圓, 卽前後. 何以故, 由此法性緣起, 具足逆順, 同體不違, 德用自在無障礙故, 皆得如是.

問, 如上所說去來義, 其相云何?

答, 自位不動, 而恒去來. 何以故, 去來不動, 卽一物故. 但爲生智顯理故, 說去來等義耳. 若廢智, 一切不可說. 如上果分者, 卽其事也.

問, 若由智者, 卽非先有, 云何說言, “舊來如此”?

答, 若廢智, 卽不論緣起, 由約智故, 卽說“舊來如此.” 何以故, 不成卽已, 成卽離始終故. 智及與法, 舊來成故.

問, 爲由智耶? 爲法如是耶?

答, 爲由智耶, 爲法如是耶. 何以故, 同時具足故. 餘義, 准以思之. 大段異體門說.

두 번째 동체문에도 두 가지 뜻이 있다. 첫 번째는 일중다(一中多) 다중일(多中一)이고, 두 번째는 일즉다(一卽多) 다즉일(多卽一)이다. 첫 번째의 문에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일중다(一中多)이고 둘째는 다중일(多中一)이다. 첫째의 일중다(一中多)는 열 가지 문이 같지 않다. 첫째는 일(一)

이다. 왜냐하면 조건[緣]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근본수인 일에 십(十)을 갖추고 있다. 왜냐하면 이 일전(一錢) 자체가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二)가 일이 되기 때문에 곧 이의 일이 되고, 더 나아가 십이 일이 되기 때문에 곧 십의 일이 된다. 그러므로 이 일 가운데에 스스로 열 개의 일을 갖추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일은 십이 아니다. 이것은 즉(卽)의 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처음의 일전(一錢)이 이미 그러하므로 나머지 이(二), 삼(三), 사(四), 이상의 구(九)의 문도 모두 이와 같으니, 예에 준하여 알 수 있을 뿐이다. 둘째의 다중일(多中一)도 열 가지 문이 있다. 첫째는 십이다. 왜냐하면 조건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십중일(十中一)이다. 왜냐하면 이 일이 십과 더불어 일이 되기 때문이다. 즉 저 처음의 일은 십의 일 가운데 있으니, 십의 일을 떠나서는 처음의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일은 십 가운데의 일이다. 따라서 십은 일이 아니다. 나머지 구(九), 팔(八), 칠(七), 내지 일까지 모두 이와 같으니, 예에 준하여 생각해야 한다.

第二同體門中，亦有二義。一者一中多，多中一，二者一卽多，多卽一。初門中二，一者一中多，二者多中一。初一中多者，十門不同。一者一。何以故，緣成故，是本數一中具十。何以故，由此一錢自體是一。復與二作一故，卽爲二一，乃至與十作一故，卽爲十一。是故此一之中，卽自具有十箇一耳。仍一非十也。以未是卽門故。初一錢旣爾，餘二三四已上九門中，皆各如是，准例可知耳。二者多中一，亦有十門。一者十。何以故，緣成故，十中一。何以故，由此一與十作一故。卽彼初一，在十一之中，以離十一卽無初一故。是故此一卽十之中一也。仍十非一矣。餘下九八七，乃至於一，皆各如是，准例思之。

묻는다. 이것은 앞의 이체와 어떻게 다른가?

답한다. 앞의 이체는 처음의 일이 뒤의 아홉 가지 다른 문에 대해서 상입할 뿐이다. 지금 여기서는 동체로서 일 가운데에 본래부터 십을 갖춘 것이지 전후의 다른 문에 대하여 설한 것이 아니다.¹⁶⁴⁾

問, 此與前異體, 何別耶?

答, 前異體者, 初一望後九異門相入耳. 今此同體一中自具十, 非望前後異門說也.

두 번째의 즉(卽)의 뜻 가운데 일즉십(一卽十)과 십즉일(十卽一)의 두 가지 문이 있다. 첫째의 일즉십(一卽十)에도 열 가지 문이 있어 같지 않다. 첫째는 일이다. 왜냐하면 조건[緣]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일즉십이다. 왜냐하면 이 십이 곧 그대로 처음의 일이기 때문이며, 별도의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십이 그대로 일이다. 나머지 아홉 문도 모두 이와 같음을 준하여 알 수 있다. 둘째의 십즉일(十卽一)에도 열 가지 문이 있어 같지 않다. 첫째는 십이다. 왜냐하면 조건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십즉일이다. 왜냐하면 저 처음의 일이 곧 그대로 십이기 때문에 다시는 자체의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처음의 일이 그대로 십이다. 나머지 아홉 문도 예에 준하여 알 수 있다.

二者卽義中, 一卽十, 十卽一, 亦有二門. 一者一卽十, 亦有十門不同. 一者一. 何以故, 緣成故, 一卽十. 何以故, 由此十卽是初一故, 無別自體故. 是故此十卽是一也. 餘九門皆亦如是, 准之可知. 二者十卽一者, 亦十門不同. 一者十. 何以故, 緣成故, 十卽一. 何以故, 以彼初一卽是十故, 更無自一故. 是故初一卽是十也. 餘九門, 准例知之.

164) 『화엄일승교의분제장』 권4 大45 p.505b7~24.

묻는다. 이 동체문에서의 일즉십(一卽十) 등은 다만 이 십을 포섭하는 것인가, 무진(無盡)을 포섭하는 것인가?

답한다. 이것은 모두 지혜로부터 성립되므로 십이어야 할 경우는 그대로 십이고, 무진이어야 할 경우는 그대로 무진이다. 이러한 (숫자상의) 증감은 지혜에 따라 취한 것이다. 그대로 십이라는 것은 앞에서 해석한 것과 같다. 무진이라는 말은 하나의 문에 이미 십이 있는 것이다. 이 십은 다시 스스로 번갈아가며 상즉 상입하여 겹겹의 무진을 성립한다. 그러나 이 무진중중(無盡重重)¹⁶⁵⁾은 모두 처음의 문에 포섭된다.

묻는다. 다만 자체의 하나의 문에 있는 무진중중을 포섭하는가, 다른 문의 무진까지도 포섭하는가?”

답한다. 혹은 함께 포섭하기도 하고, 혹은 자체의 무진만을 포섭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만약 자체의 하나의 문에 무진이 없다면 다른 일체의 문에도 무진이 모두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처음의 동체문이 동체문과 이체문에 있는 무진을 남김 없이(십중무진에 이르기까지) 포섭하여 그 원만한 궁극의 법계를 모두 포섭하지 않음이 없다. 혹은 다만 동체문의 무진만을 포섭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나머지 이체문이 허공과 같기 때문이며, 서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스스로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포섭할 것이 없다. 이것은 다만 지혜에 따라 일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어긋남이 없다. 이와 같이 하나의 문이 이미 무궁함을 구축하여 무진하게 하며, 상즉과 상입 등이 무진을 성립하기에 이른다. 나머지 하나하나의 문도 모두 이와 같이 각각 무진의 무진이 성립함을 이에 준하여 알아야 한다. 이것은 세간에 쓰이는 동전에 의거하여 저 일승연기(一乘緣起)의 무진다라니법을 비유한 것일 뿐이고, 그 법이 단지 이런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경험

165) 무진중중(無盡重重) : 중중무진(重重無盡)과 같은 의미. 끝없이 겹치고 겹치는 모습.

[情]을 버리고 이치에 맞게 생각해야 한다.¹⁶⁶⁾ 야마천궁(夜摩天宮) 정진림 보살(精進林菩薩) 계송에서 다음과 같이 읊은 것과 같다.¹⁶⁷⁾

수를 세는 법에 비유하여
하나를 더하여 무량에 이르는 것처럼
세는 법에는 체성이 없으나
지혜 때문에 차별이 있네.

問, 此同體中, 一卽十等者, 爲只攝此十耶, 爲攝無盡耶?

答, 此並隨智而成, 須十卽十, 須無盡卽無盡. 如是增減, 隨智取矣. 卽十如前釋. 言無盡者, 一門中既有十. 然此十, 復自迭相卽入重重成無盡也. 然此無盡重重, 皆悉攝在初門中也.

問, 但攝自一門中無盡重重, 皆悉亦攝餘異門無盡耶?

答, 或俱攝, 或但攝自無盡. 何以故, 若無自一門中無盡, 餘一切門中無盡, 皆悉不成故. 是故初門同體, 卽攝同異二門中無盡無餘(乃至十重), 窮其圓極法界, 無不攝盡耳. 或但攝自同體一門中無盡. 何以故, 由餘異門如虛空故, 不相知故, 自具足故, 更無可攝. 此但隨智而取一, 不差失也. 如此一門, 既具足無窮, 令無盡, 及相卽相入等, 成無盡者. 餘一一門中, 皆悉如是, 各無盡無盡成, 宜准知之. 此且約現事錢中, 況彼一乘緣起無盡陀羅尼法, 非謂其法只如此也. 應可去情, 如理思之. 如夜摩天宮精進林菩薩偈云, “譬如算數法, 增一至無量, 數法無體性, 智慧故差別.”

166) 『화엄일승교의분제장』 권4 大45 p.505b24~c22, 『화엄경』 계송 전까지 『오교장』에서 인용하였다.

167) 계송은 『화엄경』(80) 권19 「야마궁중계찬품(夜摩宮中偈讚品)」(大10 p.101b17~18. 譬如算數法, 增一至無量, 數法無體性, 智慧故差別.)에 나오는 것이다.

4. 연기의 의미[緣起義]

세 가지 문은 앞과 같다.

1) 이름을 풀이함

능(懷)법사는 말하였다. “서로 서로 말미암으니 그것을 조건[緣]이라고 하고, 조건이 일정하게 머물러 있지 않아서 일(一)과 다(多)가 조건을 따르니 그것을 일어남[起]이라고 한다. 『대반야경』에서는 ‘평등하여 일어나지 않으니, 그래서 연기라고 한다.’¹⁶⁸⁾라고 하였다.”

緣起義.¹⁶⁹⁾ 三門同前,

第一釋名者.

懷法師云, “更互相由, 名之爲緣, 緣無住著, 一多從緣, 名之爲起. 大般若經云, ‘平等不起, 故名緣起.’”

2) 본체를 드러냄

법장과 원효 두 스님은 무애법계(無礙法界)를 본체로 삼았다. 능법사는 말했다. “일(一)이면서 이(二)인 것이 연기의 본체이다. 일은 스스로 일이 아니라 이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일이 생겨난다. 이는 스스로 이가 아니라 일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가 생겨난다. 이의 일이 일이 되고 일의 이가 이가 되는 것이 연기의 본체이다. 일이라고 말한 것은 유(有)도 아니고 무(無)도 아니다. 하나의 모습이면서 모습이 없는 것이니, 일이 아닌 일이다. 이라고 말한 것은 유가 아닌 유이고 무가 아닌 무이다. 유가 아닌 유

168) 『대반야경』 권593 大7 p.1069a25. 平等無起 故名緣起.

169) 韓2 pp.360c4~362a12.

는 토끼 뿔¹⁷⁰⁾의 무를 깨뜨리고, 무가 아닌 무는 허공의 유를 깨뜨린다. 유를 깨뜨려 무를 설하니 이것은 무이되 무가 아니고, 무를 깨뜨려 유를 설하니 이것은 유이되 유가 아니다. 유가 아니기 때문에 유이면서 무이고, 무가 아니기 때문에 무이면서 유이다. 이것이 유이고 이것이 무인 것을 이름하여 이라 한다. 이는 이라는 모습이 없으며, 이가 없으면서 이이다.”

第二出體者.

藏曉二師，以無礙法界爲體. 懷師云，“而一而二¹⁷¹⁾爲緣起體. 一不自一，緣二故起一，二不自二，緣一故起二. 二一爲一，一二爲二，爲緣起體. 所言一者，無有無無. 一相無相，非一爲一. 所言二者，非有之有，非無之無. 非有之有，以破兔角之無，非無之無，以破虛空之有. 破有說無，此無非無，破無說有，此有非有. 以非有故，有而是無，以非無故，無而是有. 是有是無，名之爲二. 二無二相，無二而二也.”

3) 문답으로 분별함

묻는다. 연기라는 것은 그 뜻이 무엇인가?

답한다. 여러 스님의 설이 있다.

第三問答分別.

170) 토끼 뿔: 거북이의 털과 함께 없는 것을 들어 다투는 잘못을 말함. 거북이는 본래 털이 없고 토끼는 뿔이 없다. 거북이가 물 속에서 헤엄을 치다 몸에 물풀이 붙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물풀을 털로 잘못 알았다. 또 귀를 종긋 세운 토끼를 보고 귀를 뿔로 잘못 알았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거북이 털과 토끼 뿔[龜毛兔角]을 현실 중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유명무실(有名無實)한 것을 말하면서, 이를 범부가 실재의 아(我)나 실재의 법에 잘못 집착하는 것에 비유하였다.

171) 원문의 爲二를 而一而二로 교감함

問, 緣起者, 其義云何?

答, 有數師說.

첫째, 의상스님은 말했다. “연기는 성(性)을 따라 분별됨이 없는 것으로서, 곧 상즉하고 상융(相融)하여 평등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니 바로 제일의 제(第一義諦)¹⁷²⁾의 체에 따른 것이다. 인연(因緣)은 세속에 따른 차별로서, 곧 원인[因]과 조건[緣]이 서로 상대하여 무자성(無自性)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니 바로 속제(俗諦)¹⁷³⁾의 체이다.”¹⁷⁴⁾

一義相師云, “緣起者, 隨性無分別, 卽是相卽相融, 顯平等義, 正順第一義諦體也. 因緣者, 隨俗差別, 卽是因緣相望, 顯無自性義, 正俗諦體也.”

둘째, 수나라의 혜원스님은 말했다. “인연(因緣)의 뜻은 연기(緣起)라고도 이름하며, 연집(緣集)이라고도 이름한다. 이는 원인과 조건을 가탁하여 모든 법이 있기 때문에 인연이라고 말하고, 법이 조건에 의지하여 일어나므로 연기라고 말하며, 법이 조건을 따라서 모이므로 연집이라고 말한다. 이를 나누면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유위(有爲), 둘째는 무위(無爲), 셋째는 자체(自體)이다. 유위라는 것은 생사(生死)의 법이니, 그 본체가 무상

172) 제일의제(第一義諦) : ㉠paramārtha-satya. 제(諦)는 진리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제일의제는 최고의 진리라는 의미이다. 즉 완전한 깨달음의 지혜로서 도달할 수 있는 경지를 말한다. 진제(眞諦) · 승의제(勝義諦) 등으로 불린다.

173) 속제(俗諦) : ㉠saṃvṛti-satya. 세속의 법을 따라 생멸 등의 진리가 존재한다고 설하는 논리. 즉 세간의 사실과 속지(俗地)의 이치를 가리킨다. 진제(眞諦)와 대칭되는 말로 세속제(世俗諦) · 세제(世諦) · 유제(有諦) 등으로 불린다.

174) 의상의 『일승법계도』에는 글의 순서가 바뀌어 있다. (韓2 p.7a11~16. 因緣者 隨俗義別 卽是因緣相望 顯無自性義 正俗諦體也 緣起者 隨性無分別 卽是相卽相融 顯平等義 正隨第一義體也.)

(無常)하여 생멸함이 있으므로 유위라고 한다. 업으로부터 생겨난 번뇌는
 원인과 조건에 의해 있는 것이므로 인연이라고 한다. 무위라는 것은 이른
 바 열반이니, 그 본체가 생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위라고 한다. 도리에 의
 거하여 있으므로 인연이라고 한다. 이 두 법은 모두 앞의 원인에 따라 뒤의
 결과가 모여 일어난 것으로서 이것은 사연기(事緣起)¹⁷⁵⁾이다. 자체라는 것
 은 앞에서 말한 생사와 열반의 법으로서 법의 자성(自性)에 해당하니 모두
 연기이다. 그 모습은 어떠한가? 생사의 본성이 곧 여래장이라고 말한 것과
 같다. 여래장 가운데 갠지스강의 모래알같이 많은 일체의 불법을 구족하고
 있어도 이 모든 법이 체성이 같고 서로 서로 연하여 모여 있어 홀로 자성을
 지키고 있는 법은 하나도 없다. 비록 하나의 자성도 없지만 자성 아닌 것이
 없다. 하나의 자성도 없기 때문에 모든 법이 같고, 자성 아닌 것이 없기 때
 문에 법계의 문이 다르다. 생사가 이미 그러하니 열반도 또한 그러하다. 동
 체의 모든 법도 서로 모여 성립되기 때문에 인연이라고 하고, 또 연기라고
 도 하고, 연집이라고도 한다. 이 자체 가운데 다시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유위(有爲)의 여래장(허망을 따라 염(染)이 된다.)이며, 둘째는 무위(無爲)의 여
 래장(허망을 떠나므로 정(淨)이라 한다.)이며, 셋째는 자체(조건을 없애고 실상을 논
 한다.)이다.”¹⁷⁶⁾

二隋慧遠師云, “因緣之義, 亦名緣起, 亦名緣集. 謂假因託緣,
 而有諸法, 故曰因緣, 法起藉緣, 故稱緣起, 法從緣集, 故名緣
 集. 分別有三, 一是有爲, 二是無爲, 三是自體. 言有爲者, 生
 死之法, 體有無常生滅所爲, 故名有爲. 從業煩惱因緣而有, 故
 名因緣. 言無爲者, 所謂涅槃, 體非生滅, 名曰無爲. 藉道而有,
 故曰因緣. 此之二法, 皆從前因, 集起後果, 是事緣起. 言自體

175) 사연기(事緣起): 현상에서 일어난 연기법.

176) 『십지경론의기』 권1(卍45 p.34c9~23)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者, 卽前生死涅槃之法, 當法自性, 皆是緣起. 其相云何? 如說生死本性卽是如來之藏. 如來藏中, 具足一切恒沙佛法, 而此諸法, 同一體性, 互相緣集, 無有一法獨守自性. 雖無¹⁷⁷⁾一性, 而無不性. 無一性故, 諸法皆如, 無不性故, 法界門別. 生死既然, 涅槃亦爾. 同體諸法, 互相集成, 故曰因緣, 亦名緣起, 及與緣集. 此自體中, 復有三種. 一者有爲如來之藏〈隨妄爲染〉. 二者無爲如來之藏〈離妄名淨〉. 三者自體〈撥緣論實〉.”

셋째, 능법사는 말했다. “연기의 본체는 둘이 없지만, 작용을 펼치면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유위연기(有爲緣起), 둘째는 무위연기(無爲緣起), 셋째는 자체연기(自體緣起), 넷째는 법계연기(法界緣起)이다. 유(有)는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무(無)를 조건으로 하여 유가 일어난 것이므로 유위연기라고 한다. 무는 스스로 없는 것이 아니라 유를 조건으로 하여 무가 일어난 것이므로 무위연기라고 한다. 유위와 무위가 두 가지 작용이 되고, 유위도 아니고 무위도 아닌 둘이 아닌 것[不二]이 본체가 된다. 둘이 아닌 것은 스스로 둘이 아닌 것이 아니라 연기한 둘이 아닌 것이다. 자(自)는 스스로 자인 것이 아니라 타(他)를 조건으로 하여 자를 일으킨 것이며, 체(體)는 스스로 체인 것이 아니라 용을 조건으로 하여 체를 일으킨 것이므로 자체연기라고 한다. 둘도 없고 둘이 아님도 없는 것이 평등이 되고, 둘이고 둘이 아닌 것이 차별이 된다. 차별은 스스로 차별이 아니라 평등을 조건으로 하여 차별이 일어나고, 평등은 스스로 평등이 아니라 차별을 조건으로 하여 평등이 일어난다. 평등과 불평등이 모두 평등하니, 이것을 법계연기라 한다.

묻는다. 어떤 글에서 증명할 수 있는가?

177) 대본의 是를 뒤 문장에 의해 無로 교감함(『대승의장』 권1 大44 p.488b3 참조)

답한다. 「이세간품」에서 ‘하나 가운데 무량한 것이 있고, 무량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있으니, 막히지도 않고 걸리지도 않는다.’라고 하고, 전체적으로 결론짓기를 ‘이 모든 것이 연기이다. 만약 한 법이라도 연기가 아니라면 부처님 법이 아니다.’¹⁷⁸⁾라고 하였다. 또 『유마경』에서는 ‘연기에 깊이 깨달아 들어가 모든 잘못된 견해를 끊으며, 유와 무의 두 극단에 더 이상의 습기는 없다.’¹⁷⁹⁾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연기에 깨달아 들어가지 못하면 잘못된 견해를 면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등을 말했다〉

三懷師云, “緣起體無二, 開用爲四種. 一有爲緣起, 二無爲緣起, 三自體緣起, 四法界緣起. 謂有不自有, 緣無起有, 名有爲緣起也. 無不自無, 緣有起無, 名無爲緣起也. 有爲無爲爲二用, 非有爲非無爲不二, 爲本體也. 不二, 非自不二, 緣起二不二. 又自, 不自自, 緣他起自, 又體不自體, 緣用起體, 故名自體緣起也. 無二無不二爲平等, 亦二亦不二爲差別. 差別, 不自差別, 緣平等起差別, 平等, 不自平等, 緣差別起平等. 平等不平等, 皆悉平等, 名法界緣起. 問, 何文爲證? 答, 離世間品, ‘一中有無量, 無量中有一, 無障無礙.’ 總結云, ‘悉是緣起, 若有一法非緣起者, 非佛法也.’ 又維摩云, ‘深入緣起, 斷諸邪見, 有無二邊, 無復餘習.’ 故知不入緣起, 未免邪見. 〈云云〉”

넷째, 법장스님은 말했다.

178) 『화엄경』 「이세간품」에 일치하는 문장은 발견되지 않는다. 본문에서 인용한 것은 그 전체의 뜻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구절로는 권5 「여래광명각품」 대9 p.423a1 一中解無量, 無量中解一과 권33 「보현보살행품」 대9 p.609a17 一中知無量, 無量中知一 정도가 있다.

179) 『유마경』 권1 「불국품(佛國品)」 대14 p.537a20~21. 深入緣起, 斷諸邪見, 有無二邊, 無復餘習.

“묻는다. 어떤 원인과 조건이 있어서 이 모든 법이 이와 같이 혼융무애함을 얻을 수 있는가?

답한다. 원인과 조건이 무량하여 자세히 말하기 어렵다. 대략 열 가지를 들어 이 무애(無礙)를 해석한다. 첫째, 연기하여 서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둘째, 법성이 융통하기 때문이다. 셋째, 각각 마음만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넷째, 허깨비 같아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섯째, 무한한 원인으로 생겨나기 때문이다. 일곱째, 과덕(果德)¹⁸⁰⁾이 원만하고 지극하기 때문이다. 여덟째, 뛰어나게 통달하여 자재하기 때문이다. 아홉째, 삼매의 큰 작용 때문이다. 열째, 해탈을 헤아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처음에 ‘연기하여 서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것은(나머지 아홉 문은 다른 곳에서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문이 있다. 첫째는 모든 조건이 각각 다르다는 의미이다.(또한 모든 조건이 서로 다른 문[諸緣互異門]이라고도 한다. 즉 이체이다.) 둘째는 서로 두루하고 서로 돕는다는 의미이다.(또한 모든 조건이 서로 호응하는 문[諸緣互應門]이라고도 한다. 즉 동체이다.) 셋째는 함께 존재하여 결림이 없다는 의미이다.(또한 다른 것에 응함에 결림이 없는 문[應異無礙門]이라고도 한다. 즉 동체와 이체를 함께 말한다.) 첫째 모든 조건이 각각 다르다는 것은 모든 조건이 서로 상대하여 있으므로 체(體)와 용(用)이 각각 구별되어 서로 섞이지 않아 비로소 연기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모든 조건이 어지럽게 섞여 본래의 조건법[本緣法]을 잃게 되어 연기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는 모든 조건이 각각 스스로의 하나를 지키는 것이다. 둘째 서로 두루하고 서로 돕는다는 것은 이 모든 조건들이 서로 두루 응해야만 비로소 연기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또 만약 한 조건이 많은 조건에 두루 응한다면 각각 저 많은 조건과 더불어 전체로서의 하나

180) 과덕(果德): 결과로서의 공능.

가 되기 때문이다. 이 하나는 많은 조건을 갖춘 하나이다. 만약 이 하나의 조건이 여럿 중의 하나를 갖추지 않으면 돕고 응함에 두루하지 않아서 연기가 성립되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하나가 각각 일체로서의 하나를 갖추는 것이다. 셋째 함께 존재하며 결립이 없다는 것은 무릇 하나의 조건이 앞의 두 가지를 갖추어야 연기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스스로 하나에 머물면서 두루 응할 수 있고, 많은 조건에 두루 응해야 드디어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唯一]와 여럿 중의 하나[多一]가 자재하여 결립이 없다. 이상의 세 가지 문은 모두 연기 본래의 법을 밝힌 것이다.

문는다. 이미 연기 본래의 법의 이름이라고 들었는데, 그 뜻을 알지 못하겠는데 무슨 뜻인가?

답한다. 이상의 세 가지 문에 각각 세 가지 뜻이 있어서 서로 의지하고 있다. 첫째는 유력(有力)과 무력(無力)의 뜻으로, 이로써 상입할 수 있다. 둘째는 서로 형상을 빼앗는 유체(有體)와 무체(無體)의 뜻으로, 이로써 상즉할 수 있다. 셋째는 체(體)와 용(用)이 유(有)와 무(無)를 융섭한다는 뜻으로, 이로써 상즉과 상입이 동시에 자재하다. 첫째의 이문(異門)이 상입하는 것은 모든 조건의 작용력이 서로 번갈아 의지하여 서로 형상을 빼앗기 때문에 각각 온전한 유(有力)과 온전한 무력(無力)의 뜻을 가져 연기가 비로소 성립됨을 말한다. 『십지경론』에서 ‘원인이 생기지 않음은 조건이 생기기 때문이고, 조건이 생기지 않음은 스스로의 원인이 생기기 때문이다.’¹⁸¹⁾라고 한 것과 같다. 만약 각각 유력만 있고 무력이 없다면 결과만 많아지는 잘못이 있게 되니, 하나하나가 각각 생기기만 하기 때문이다. 만약 각각 무력

181) 『십지경론』 권8에는 “깊이 관찰하는 데에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타자가 짓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원인이 생겨나는 것이고, 둘째는 스스로 짓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생겨나는 것이다.”(大26 p.170b19~20. 深觀者有四種。一者有分非他作自因生故，二者非自作緣生故。)라고 하였다.

만 있고 유력이 없다면 결과가 없는 잘못이 있게 되니, 함께 조건을 갖추지 못해 모두 생겨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기는 서로 말미암는 뜻을 필요로 하고 유력과 무력을 갖추어야 한다. 하나의 조건이 없으면 일체가 성립되지 못한다. 나머지도 이와 같다. 그러므로 하나가 능히 여럿을 지닐 수 있으면 하나는 유력이어서 여럿을 포섭할 수 있다. 여럿이 하나에 의지하면 여럿은 무력이어서 하나에 스며들어간다. 하나의 유력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더불어 여럿의 유력을 갖출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떤 하나도 여럿을 포섭하지 않음이 없다. 또 여럿의 무력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더불어 하나의 무력을 갖출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떤 여럿도 하나에 들어가지 않음이 없다. 만약 하나가 지니고 여럿이 의지함[一持多依]이 이미 그렇다면 여럿이 지니고 하나가 의지함[多持一依] 또한 그러하다. 위와 반대로 생각해 보라. 그러면 여럿이 하나를 포섭하지 않음이 없으며, 하나가 여럿에 들어가지 않음이 없다. 하나가 여럿을 상대하여 지님과 의지함이 있고 유력과 무력이 있으며, 항상 여럿이 자기 속에 포함되고 자기는 여럿 속에 스며들어 동시에 결립이 없게 되는 것과 같다. 여럿이 하나를 상대하는 것도 그러함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둘 다 존재하고 둘 다 없어진다[俱存雙泯]는 두 문구가 결립이 없음도 이에 준하여 생각해 보라.”¹⁸²⁾

四法藏師云, “問, 有何因緣, 令此諸法, 得有如是混融無礙?
答, 因緣無量, 難可具陳. 略提十類, 釋此無礙. 一緣起相由故.
二法性融通故. 三各唯心現故. 四如幻不實故. 五大少無定故.
六無限因生故. 七果德圓極故. 八勝通自在故. 九三昧大用故.
十難思解脫故. 初言 ‘緣起相由故’ 者 〈餘後九門, 別處說, 云云.〉
曲有三門. 一諸緣各異義 〈亦名諸緣互異門, 卽異體也.〉. 二互遍相

182) 『화엄경담현기』 권1(大35 p.124a8~b18)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資義〈亦名諸緣互應門，卽同體也〉。三俱存無礙義〈亦名應異無礙門，卽雙辨同異也〉。言諸緣各異義者，謂諸緣相望，要須體用各別，不相和雜，方成緣起。若不爾者，諸緣雜亂，失本緣法，緣起不成，此則諸緣，各各守自一也。二互遍相資義者，謂諸此緣，要互相遍應，方成緣起。且如一緣遍應多緣，各與彼多，全爲一故。此一，則具多箇一也。若此一緣不具多一，則資應不遍，不成緣起。此則一一各具一切一也。三俱存無礙義者，謂凡是一緣，要具前二，方成緣起。以要住自一，方能遍應，遍應多緣，方是一故。是故唯一多一，自在無礙。此上三門，總明緣起本法。問，旣聞緣起本法名也，未知其義何耶？答，此上三門中，各有三義，互相依持。初有力無力義，由此得相入也。二互相形奪有體無體義，由此得相卽也。三體用融有無義，由此卽入同時自在也。初異門相入者，謂諸緣力用遞相依持，互形奪故，各有全力全無力義，緣起方成。如十地論云，‘因不生緣生故，緣不生自因生故。’若各唯有力，無無力，則有多果過，一一各生故。若各唯無力，無有力，則無果過，以同非緣俱不生故。是故緣起要相由義，具力無力。如闕一緣，一切不成。餘亦如是。是故一能持多，一是有能攝多。多依於一，多是無力潛入一。由一有力，必不得與多有力俱。是故無有一而不攝多也。由多無力，必不得與一無力俱。故無有多而不入一也。如一持多依旣爾，多持一依亦然。反上思之。是則亦無多不攝一，一不入多者也。如一望多有持有依，全¹⁸³⁾力無力，常含多在己中，潛己在多中，同時無礙。多望於一，當知亦爾。俱存雙泯，二句無礙，亦准思之。”

183) 대본의 ㅅ을 ㅅ으로 교감함

5. 깊은 뜻을 탐구하는 의미[探玄義]

세 가지 문(門)은 앞과 같다.

1) 이름을 풀이함

뜻의 바다가 매우 깊어서 정념의 표현을 넘었고, 생각하여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현(玄)이라고 이름한다. 추구하고 추구하여 의미를 드러내기 때문에 탐(探)이라고 이름한다. 깊은 까닭이 있기 때문에 의(義)라고 이름한다.

探玄義¹⁸⁴⁾

三門同前.

第一釋名者, 義海究深, 超過情表, 不可思議, 故名爲玄. 推攬顯意, 故名爲探. 有深所以, 故名爲義.

2) 본체를 드러냄

걸림이 없는 법계(法界)¹⁸⁵⁾를 근본으로 삼는다. 혜원(慧苑)¹⁸⁶⁾ 스님은 말

184) 韓2 pp.363b17~366a12

185) 법계(法界): [dharma-dhātu, 모든 사물의 근원을 뜻한다. 특히 대승불교에서는 종교적인 본원을 의미하며, 여기에 경계라는 의미의 '계'를 붙여 진리의 세계를 상징한다. 그래서 법계는 진여(眞如)와 동의어로 쓰이기도 한다. 진리 자체로서의 부처, 즉 범신불을 뜻하기도 하며, 화엄(華嚴)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세계를 뜻하기도 한다.

186) 혜원(慧苑): 673?~743. 법장(法藏)에게 사사하여, 법장이 이룩하지 못한 『신역 화엄경(新譯華嚴經)』의 주석을 완성하였고, 『속화엄경약소간정기(續華嚴經略疏刊定記)』 15권을 저술하였다. 그러나 법장과 교판론에 차이가 있어 이후 전통적으로 두순(杜順)→지엄(智儼)→법장→정관(澄觀)→종밀(宗密)의 5조설(五祖說)을 취하고 혜원은 배제되었다.

했다. “두 종류의 본질적인 사상[體事]¹⁸⁷⁾이 있다. 첫째는 순수하고 깨끗하여 번뇌가 없는 것으로 이것은 덕상(德相)이 의지하는 본질적인 사상이다. 둘째는 번뇌와 번뇌 없음에 통하는 것으로 이것은 업용(業用)이 의지하는 본질적인 사상이다. 물질[色]·마음[心]·시간[時]·장소[處]·몸[身]·세계[方]·가르침[敎]·의의[義]·실천[行]·지위[位]를 말하니, 이러한 열 가지 법을 들어 앞의 두 가지를 통틀어 분별한다.”¹⁸⁸⁾〈등등〉

第二出體者. 以無礙法界爲體. 慧苑師云, “二種體事. 一純淨無漏, 是德相所依體事. 二通漏無漏, 是業用所依體事. 謂色心時處身方教義行位, 舉十法, 通辨前二.”〈云云〉

3) 문답으로 분별함

묻는다. 이미 정념(情)을 초월했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답한다. 법장 스님이 말했다. “대략 열 가지 문을 들어서 그 요점을 파악해보면, 첫째 동시에 모두 갖추어 상응하는 원리[同時具足相應門], 둘째 넓고 좁음이 자재하여 걸림이 없는 원리[廣狹自在無礙門], 셋째 하나와 여럿이 서로 받아들이면서도 같지 않은 원리[一多相容不同門], 넷째 온갖 법이

그런데 표원은 혜원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그는 저작에서 여러 논사들의 설을 많이 인용했지만, 징관(738~839)의 말은 인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표원은 법장 이후 징관이 5교관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한 후, 혜원의 설을 부정했을 때 생존하지 않았거나 저술을 남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87) 혜원은 사사무애(事事無礙)를 설명하면서 총상이 삼상(三相)에 의해 드러나는데, 삼상은 체사(體事), 덕상(德相), 업용(業用)이라 하고, 체사는 존재 세계의 사상(事象)을 내포와 외연의 구조로 분류하고 그것을 사사무애의 체로 여기는 본질로서의 사상을 말하며, 덕상은 내포의 양상, 업용은 내포의 작용으로 설명하였다.(김천학, p.153 주 627) 참조)

188) 『속화엄경약소간정기(續華嚴經略疏刊定記)』 권1 卍3 p.590c9~11

서로 하나 되어 자재한 원리[諸法相卽自在門], 다섯째 숨음과 드러남이 은밀히 성립되는 원리[隱密顯了俱成門], 여섯째 미세한 것들이 서로 받아들여 세워지는 원리[微細相容安立門], 일곱째 인드라 그물 같은 법계의 원리[因陀羅網法界門], 여덟째 사법에 의탁하여 법을 드러내고 앎을 내는 원리[託事顯法生解門], 아홉째 십세가 하나가 되나 다르게 이루어지는 원리[十世隔法異成門], 열째 주체와 객체가 원융하게 밝아 덕을 갖춘 원리[主伴圓明具德門]이다.¹⁸⁹⁾ 그러나 이 열 가지 문은 같은 연기로 걸림 없이 원만하게 융합되어 있으니, 한 가지 문을 따라 일체가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마땅히 생각할 수 있다.

189) 이상 열가지 문을 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동시구족상응문(同時具足相應門): 제법(諸法)이 동시에 구족 원만하여 서로 조응(照應)하는 것, ② 광협자재무애문(廣狹自在無礙門), 고심현에서는 제장순잡구덕문(諸藏純雜具德門): 수행하는 데 일(一)·다(多)의 행이 서로 즉입(卽入)함을 말하며, 순일(純一)한 행 가운데 복잡한 행이 그대로 덕으로서 갖추어져 서로 구애받지 아니하는 것, ③ 일다상용부동문(一多相容不同門): 알과 다가 서로 융섭하여 장애가 없지만, 항상 각자의 특징을 잃지 않고 그 본성을 유지하는 것, ④ 제법상즉자재문(諸法相卽自在門): 알과 다의 체(體)가 융통무애하여 다가 곧 일이고, 일이 곧 다인 것, ⑤ 은밀현료구성문(隱密顯了俱成門): 일과 다는 은밀하고 현묘하지만, 연기에 의하여 둘 사이에 선후가 없는 것, ⑥ 미세상용안립문(微細相容安立門): 일은 다를 함유하고 다는 일을 포용하여 일과 다가 파괴되지 않는 것, ⑦ 인다라망법계문(因陀羅網法界門): 일체, 즉 알과 다가 상즉 상입(相卽相入)하여 마치 인드라[因陀羅]의 그물에 달린 수많은 보주(寶珠)가 서로 그림자를 비추듯이, 서로 포용함이 한이 없는 것, ⑧ 탁사현법생해문(託事顯法生解門): 차별적 사물[현상계]에 가탁하여 법[진리]을 나타내고, 사람으로 하여금 요해(了解)의 지(智)가 생기게 하는 것. 현상계의 사물 그대로가 진리임을 가리킨다. ⑨ 십세격법이성문(十世隔法異成門): 세(世) 즉 시간의 관점에서 보아 알과 다의 상즉 상입을 밝히는 것. 과거·현재·미래의 3세에 또 각각 3세가 있어 9세가 되며, 9세는 상즉 상입하여 일념(一念)이 된다. 9세에 일념이 더해져 10세가 된다. ⑩ 주반원명구덕문(主伴圓明具德門): 일체는 여래장심(如來藏心)을 그 본성으로 하여 이 마음 이외의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견해이다.

첫째 문 가운데 열 가지 뜻이 갖추어져 있다. 첫째 교법과 의의[敎義]를 갖추, 둘째 원리와 현상[理事], 셋째 대상과 지혜[境智], 넷째 실천과 지위[行位], 다섯째 원인과 결과[因果], 여섯째 의지와 주체[依正], 일곱째 본체와 작용[體用], 여덟째 사람과 법[人法], 아홉째 부정과 긍정[逆順], 열째 감응[應感]을 갖추이다.”¹⁹⁰⁾

이상의 열 가지 법은 동시에 상응하여 하나의 연기를 이루어 앞과 뒤, 처음과 끝과 같은 것들의 구별이 없으며, 하나를 따라 각각 나며지 모든 뜻이 갖추어지니 섞여 있어도 잡스럽지 않아 연기의 궁극을 이룬다.

혜원스님은 “이 문은 총괄한 것이고, 뒤의 아홉 가지 문은 각론이다.”라고 하였다.¹⁹¹⁾

190) 『화엄경탐현기(華嚴經探玄記)』 권1 大35 p.123a28~b8.

이후 표원은 십문(十門)의 순서나 명칭은 법장의 『탐현기』를 따르며, 그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탐현기』와 『화엄오교장』을 교차로 인용하거나 요약하여 인용하고 있다. 십문(十門)은 내용과 순서에 따라 고십현(古十玄)과 신십현(新十玄)으로 구분한다. 즉 법장은 『화엄오교장』에서는 스승인 지엄의 십현문을 그대로 따랐으나 『탐현기』를 저술하면서 수정을 하였다. 그래서 『탐현기』 이후에 보이는 십현설을 신십현(新十玄)이라 하고, 그 이전의 십현설을 고십현(古十玄)이라고 부른다. 고십현에 속하는 것은 지엄(智儼)의 『십현문』과 『대방광불화엄경수현분제통지방귀(大方廣佛華嚴經搜玄分齊通智方軌)』, 법장의 『화엄문의강목(華嚴文義綱目)』, 『화엄금사자장(華嚴金獅子章)』, 『화엄일승교의분제장(華嚴一乘敎義分齊章)』이며, 법장의 『탐현기』와 청량정관(淸涼澄觀)의 『화엄경소(華嚴經疏)』 등의 십현은 신십현이라고 한다. 신십현에서는 고십현의 제장순잡구덕문(諸藏純雜具德門)과 유심회전선성문(唯心迴轉善成門)을 광협자재무애문(廣狹自在無碍門)과 주반원명구덕문(主伴圓明具德門)으로 고쳤는데, 이는 사사무애연기를 이사무애로 혼동할까 염려해서였다. 그리고 고십현의 비밀은현구성문(秘密隱顯俱成門)은 은밀현료구성문(隱密顯了俱成門)으로 명칭을 바꾸었으나 그 내용은 같다.

191) 『간정기』 권1 “이 때문에 이 문은 뒤 아홉 문의 총론이고, 뒤 아홉 개는 이 문의 각론이다.”(卽3 p.591b17. 是故此門，爲後九門之總，後九，是此一門之別.)

第三問答分別.

問, 旣言超情, 豈得可知耶?

答, 法藏師云 “略舉十門, 攝其綱要. 謂一同時具足相應門, 二廣狹自在無礙門, 三一多相容不同門, 四諸法相卽自在門, 五隱密顯了俱成門, 六微細相容安立門, 七因陀羅網法界門, 八託事顯法生解門, 九十世隔法異成門, 十主伴圓明具德門. 然此十門, 同一緣起, 無礙圓融, 隨有一門, 卽具一切, 應可思之. 就初門中, 有十義具足. 一教義具足, 二理事, 三境智, 四行位, 五因果¹⁹²⁾, 六依正, 七體用, 八人法, 九逆順, 十應感具足.”

此上十法, 同時相應, 成一緣起, 無有前後始¹⁹³⁾終等別, 隨一各具餘一切義, 參而不雜, 成緣起際. 慧苑師云, “此門爲總, 後九是別.”

둘째 광협무애문(廣狹無礙門)이란 나눔[分]은 나눔이 없음[無分]이며 나눔이 없음은 나눔이니, 결림이 없이 자재한 것이다. 마치 하나의 티끌이 법계에 두루 퍼져 있으면서도 본래의 자리를 파괴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 때문에 혹은 오직 넓어서 끝이 없고, 혹은 한계가 분명하고, 혹은 그대로 넓고 그대로 좁고, 혹은 넓고 좁음이 둘 다 없어진다. 혹은 앞의 네 가지를 갖추니 이는 깨닫는 경지[解境]이기 때문이다. 혹은 앞의 네 가지를 끊으니 이는 실천의 경지[行境]이기 때문이다. <아래는 모두 이를 기준으로 한다.>¹⁹⁴⁾

192) 대본에는異이나『탐현기』에 따라 果로 교정함

193) 내용에 의해 如를 始로 교정함

194) 『화엄경탐현기』 권1 大35 p.123b27~c3. 二卽彼華葉普周法界而不壞本位. 以分卽無分無分卽分, 廣狹自在無障無礙. 下云, 此大蓮華其葉遍覆一切法界. 是故或唯廣無際, 或分限歷然, 或卽廣卽狹, 或廣狹俱泯, 或具前四, 以是解境故, 或絕前五, 以

二廣狹無礙者，以分卽無分，無分卽分，無礙自在也。如一微塵，普周法界，而不壞本位也。是故或唯廣無¹⁹⁵⁾際，或分限歷然，或卽廣卽狹，或廣狹俱¹⁹⁶⁾泯，或具前四¹⁹⁷⁾，以是解境故，或絕前四，以是行境故。〈下皆准此〉

셋째 일다상용문(一多相容門)은 곧 하나의 법이 펼쳐져 두루 일체 법 가운데 들어가서 일체를 포섭하여 자기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펼쳐지고 포섭하는 것이 같은 시간에 이루어지니 이미 막힘과 걸림이 없다. 『화엄경』의 계송에서 “하나의 부처님의 땅으로 시방을 채우고, 시방이 하나에 들어가니 또한 남음이 없네.”¹⁹⁸⁾ 세계의 본래 모습 또한 무너지지 않으니, 비할 바 없는 공덕이기에 그럴 수 있네.”라고 하였다.¹⁹⁹⁾〈혜원 스님은 “일다상망(一多相望)의 여섯 구절은 하나 가운데 하나가 있는 것, 여럿 가운데 여럿이 있는 것, 하나 가운데 여럿이 있는 것, 여럿 가운데 하나가 있는 것, 하나 가운데 여럿 중의 하나가 있는 것, 여럿 가운데 하나 중의 여럿이 있는 것이다.”²⁰⁰⁾ 라고 하였으니, 나머지 크고 작은 것들도 이것에 준한다.〉

三一多相容門者，則此一法舒已，遍入一切法中，卽攝一切，令入己內。舒攝同時，旣無障礙。此經偈云，“以一佛土滿十方，

是行境故。下皆准此。

195) 『탐현기』에 의거하여 無礙를 無로 교감함

196) 『탐현기』에 의거하여 俱廣狹泯을 廣狹俱泯으로 교감함

197) 『탐현기』는 五이나 이 대본의 四가 맞는 것으로 생각된다.

198) 『화엄경탐현기』 권1 大35 p.123c3~7. 三卽此華葉，舒已遍入一切法界中，卽攝一切令入己內，舒攝同時旣無障礙，是故鎔融，或有四句六句，准前思之。下云，以一佛土滿十方，十方入一亦無餘。

199) 『화엄경』 권3 「노사나품」 大9 p.414b21~22.

200) 『간정기』 권1 卍3 p.591c11~15.

十方入一亦無餘. 世界本相亦不壞, 無比功德故能爾.”〈慧苑師云, “一多相望六句, 謂一中有一, 多中有多, 一中有多, 多中有一, 一中有多一, 多中有一多.” 餘太少等准之.)

넷째 제법상즉문(諸法相卽門)은 하나의 현상이 자기를 없애고 타자와 것과 같아지는 것이다. 본체를 들어 온전히 저 일체법이 되며 항상 다른 것을 포섭하여 자기와 같게 하니, 저 일체법 전체가 곧 자기의 본체이다. 하나와 여럿이 상즉(相卽)하여 섞이지만 장애나 걸림이 없다.²⁰¹⁾ 『화엄경』에서 “초발심 보살이 곧 부처이다.”²⁰²⁾라고 하였다. 이러한 연기의 미묘한 이치로 말미암아 처음과 끝이 모두 균등하여, 처음을 얻음이 곧 끝을 얻음이며 궁극의 끝이 바야흐로 근원의 시작이다. 또 말하기를 “하나의 지(地)의 지위에 있으면서 두루 일체의 모든 지의 공덕을 포섭한다.”²⁰³⁾고 하였다. 이 때문에 하나를 얻으면 일체를 얻는 것이다. 또 말하기를 “하나가 여럿이고 여럿이 하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²⁰⁴⁾라고 하였으니 십신(十信)의 마지막 마음의 지위가 곧 부처가 된다는 것이 그러한 것이다.

四諸法相卽門者, 謂此一事, 廢己同他. 舉體全是彼一切法, 而恒攝他同己, 全彼一切法, 卽是己體. 一多相卽, 混無障礙. 經云, “初發心菩薩卽是佛故.” 由此緣起妙理, 始終皆齊, 得始卽得終, 窮終方原始. 又云, “在於一地, 普攝一切諸地功德

201) 『화엄경담현기』 권1 大35 p.123c7~10. 四此一華葉, 廢己同他. 舉體全是彼一切法, 而恒攝他同己, 全彼一切, 卽是己體. 一多相卽, 混無障礙.

202) 『화엄경』 권9 「초발심공덕품」 大9 p.452c4.

203) 『화엄경』 권1 「세간정안품(世間淨眼品)」 大9 p.395b25~26. 住於一地, 普攝一切, 諸地功德.

204) 『화엄경』 권8 「보살십주품(菩薩十住品)」 大9 p.446a4~5. 所謂知一卽是多, 多卽是一.

也。”是故得一卽得一切。又云，“知一卽多，多卽一故也。”十信終心卽作佛者，卽其事也，

묻는다. 동체일문(同體一門) 가운데 그대로 일체가 남김 없이 포섭된다면 일시에 모두 나타나는 것인가, 전후가 있는 것인가?²⁰⁵⁾

답한다. 하나의 문 가운데 일시에 환하게 일체를 드러내 보이는 것은 미세문(微細門)의 포섭에 속하는 것이고, 숨김과 비춤이 서로 겹겹으로 나타나는 것은 인다라 포섭에 속하는 것이다. 나머지 의미는 곧 같음이자 곧 다름이며, 곧 많음이자 곧 적음이며, 곧 있음이자 곧 없음이며, 곧 시작이자 곧 마침이다. 이와 같이 자재롭게 일체의 끝없는 법문을 갖추고 있다. 이에 (하나를) 들어 으뜸으로 삼으면 나머지는 곧 따르게 된다. 도리에 하나라도 차이나 잃음이 없으니, 예로부터 이와 같았다.²⁰⁶⁾

묻는다. 일문 가운데 일체가 갖추어져 있으면 나머지 문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답한다. 나머지 문은 허공과 같다. 왜냐하면 동체일문 가운데 일체를 포섭하여 다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다.²⁰⁷⁾

묻는다. 이 동체 가운데 일체를 포섭한다는 것은 단지 스스로의 문[自門]

205) 『화엄일승교의분제장』 권4 大45 p.505b14. 이하 질문 7개는 『오교장』에서 취하였다.

206) 『화엄일승교의분제장』 권4 大45 p.505b14~20. 이하 답 7개는 『오교장』에서 취하였다. 問如同體一門中卽攝一切無盡者，爲一時俱現耶，爲前後耶？答於一門中，一時炳然現一切者，屬微細攝，隱映互現重重者，屬因陀羅攝，餘義卽同卽異，卽多卽少，卽有卽無，卽始卽終。如是自在具足一切無盡法門。仍隨舉爲首，餘卽爲伴，道理一不差失舊來如此。

207) 『화엄일승교의분제장』 권4 大45 p.505b22~24. 問若一門中，卽具足一切無盡自在者，餘門何用爲？答餘門如虛空，何以故，同體一門并攝一切無不盡故。

가운데 일체인데, 어찌 나머지 문 가운데 일체를 포섭한다고 하는가?

답한다. 이미 자신의 일체를 포섭하고 후에 나머지 하나하나의 문 가운데 남김 없이 일체를 포섭한다. 왜냐하면 법계연기는 하나가 없으면 일체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단지 법계의 집[法界家]²⁰⁸⁾의 진실된 덕만을 논하기 때문에 그 끝의 한계는 말할 수 없다.

『화엄경』의 계송에서는 말한다.

“말할 수 없는 여러 집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일체를 연설하네.

말할 수 없는 집은 오히려 다 함이 있지만,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은 다 할 수 없네.”²⁰⁹⁾

또 계송에서 말한다.

“일체 중생의 마음은 모두 분별하여 알 수 있고

모든 국토의 먼지도 오히려 그 수를 헤아릴 수 있으며

시방 허공 세계의 털 하나도 헤아릴 수 있지만,

보살의 초발심은 끝내 헤아릴 수 없네.”²¹⁰⁾

진실로 일승법문을 말미암아 하나를 얻으면 곧 일체를 얻기 때문이며, 원인과 결과가 모두 평등하여 선후의 구별이 없기 때문이다. 『십지경론(十地經論)』에서는 “십신 지위의 보살로부터 생각하여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의 법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연기이다. 육상(六相)²¹¹⁾의 총상(總相)과 별상

208) 『오교장』에서는 법성가(法性家)임.(大45 p.505b29)

209) 『화엄경』 권29 「심왕보살문아승기품(心王菩薩問阿僧祇品)」大9 p.586c18~23의 계송을 부분 인용하였다.

210) 『화엄경』 권9 「초발심보살공덕품(初發心菩薩功德品)」大9 p.458b21~24.

211) 육상(六相): 화엄종에서 만유의 모든 법에 낱낱이 6종의 모양이 있음을 말한다. 총상(總相)·별상(別相)·동상(同相)·이상(異相)·성상(成相)·괴상(壞相) 등이다.

(別相) 등의 의미로 그것을 포괄한다.”²¹²⁾고 하였다.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서로 용납하고 서로 상즉하여 각기 일체를 포섭하여 서로 주체가 되거나 객체가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서,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만 하니, 이 일은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 또 말하기를 “처음에 마음을 냈을 때 바로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것으로서, 지혜의 몸이 갖추어지는 것이지 다른 사람으로 인해 깨닫는 것이 아니다.”²¹³⁾라고 하였다. <이러한 말은 헤아릴 수 없다.>²¹⁴⁾

묻는다. 이러한 것들은 원인 가운데 덕을 찬탄하는 것일 뿐인데, 어떻게 결과인 덕이라 할 수 있는가?

답한다. 이 일승(一乘)의 뜻은 원인과 결과가 바탕을 같이 하여 하나의 연기를 이루는 것이니, 이것을 얻으면 저것을 얻고 저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상즉하기 때문이다. 만일 결과를 얻지 못하면 원인도 원인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왜냐하면 결과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²¹⁵⁾

212) 『십지경론』 권1 환희지(歡喜地)의 해석에서 취합하였다.

213) 『화엄경』 권8 「범행품(梵行品)」 大9 p.449c14~15. 初發心時, 便成正覺, 知一切法真實之性, 具足慧身, 不由他悟.

214) 『화엄일승교의분제장』 권4 大45 p.505b26~c17. 問此同體中所攝一切者, 但應攝自門中一切, 豈可攝餘門中一切耶? 答既攝自一切, 復攝餘一一門中無盡一切, 如是重重窮其法界也. 何以故. 圓融法界無盡緣起, 無一切並不成就, 此但論法性家實德故, 不可說其邊量. 故此經偈云, 不可言說諸劫中, 演說一切不可說. 不可說劫猶可盡, 說不可說不可盡. 又偈云, 一切衆生心, 悉可分別知. 一切剎微塵, 尚可算其數. 十方虛空界, 一毛猶可量. 菩薩初發心, 究竟不可測. 良由此一乘圓極自在無礙法門, 得一即得一切故耳. 因果俱齊無前後別. 故地論云, 以信地菩薩乃至與不可思議佛法爲一緣起, 以六相總別等義而用括之, 明知, 因果俱時相容相即, 各攝一切互爲主伴, 深須思之此事不疑. 又此經云, 何以故, 此初發心菩薩即是佛故, 悉與三世諸如來等, 亦與三世佛境界等, 悉與三世佛正法等, 得如來一身無量身三世諸佛平等智慧, 所化衆生皆悉平等. 又云, 初發心時便成正覺, 具足慧身不由他悟. 如是云云無量, 廣如經文.

묻는다. 곳곳에서 과분(果分)²¹⁶⁾은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단지 인분(因分)²¹⁷⁾만을 말한다고 하였다. 무슨 까닭에 십신의 마지막 마음[終心]에 부처가 되어 과법(果法)을 얻는다고 하는가?²¹⁸⁾

답한다. 지금 부처가 되었다고 말한 것은 단지 처음에 듣고 본 이후에 두 번째 생에 이르러서 부처가 되는 실천을 완성하고,²¹⁹⁾ 마지막 마음의 지위에서 원인의 지위[因位]가 끝까지 가득찬 자가 세 번째 생에 저 궁극의 경지의 자재하고 원융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 원인의 본질은 결과에 의해 성립되기 때문이다. 다만 원인이 가득찬 자가 그대로 깨달음의 바다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 이는 깨달음의 경계이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뿐이다. 이는 용녀나 보장엄동자(普莊嚴童子)나 선재동자(善財童子)나 도솔천자(兜率天子) 등이 삼생(三生) 가운데 곧 그 과보를 얻었다는 뜻과 같다. 자세한 것은 경에서 말한 것과 같다.²²⁰⁾

215) 『화엄일승교의분제장』 권4 大45 p.505c17~20. 問此等歎因中德耳，豈可即滿德果耶？答此一乘義，因果同體成一緣起，得此即得彼，由彼此相即故。若不得果者因即不成因，何以故，不得果等非因也。

216) 과분(果分) : 분은 분제(分齊)의 뜻. 인의 범위를 인분(因分), 이에 대한 과의 범위를 과분(果分)이라 함. 불타의 깨달음의 내용인 진여의 세계는 불과(佛果)를 깨달은 이가 아니면 알 수 없고 중생에게는 설명해 보일 수 없는 것이고[果分不可說], 불타가 될 인의 위치에 있는 중생을 위해 그 기연에 따라 설한 가르침은 그 중생이 알 수 있는 것[因分可說]이라 한다. 『십지경론』에서 설한 것을 법장이 『화엄오교장』에서 해설하였다.

217) 인분(因分) : 위의 주 과분(果分) 참조.

218) 『화엄일승교의분제장』 권4 大45 p.505c20~22. “묻는다. 위에서 과분(果分)은 연(緣)을 떠나 상(相)을 말할 수 없는 것이어서 다만 인분(因分)을 논한다고 하였다. 어째서 십신의 마지막 마음에 부처가 되어 결과로서의 법을 얻는다고 분별하는가?”(問上言果分離緣不可說相，但論因分者，何故十信終心，即辯作佛得果法耶?)

219) 원문의 ‘至第二生 即成佛行’은 『오교장』에서는 ‘至第二生 即成解行’이라 하였다.

220) 『화엄일승교의분제장』 권4 大45 p.505c22~29. 『오교장』에 의하면 마지막에 ‘應

後也？

答，於一門中，一時炳然，現一切者，屬微細門攝，隱昧互現重重，屬因陀羅攝者。餘義卽同卽異卽多卽少卽有卽無卽始卽終。如是自在具足一切無盡法門。仍隨舉爲首，餘卽爲伴。道理一不差失，舊來如是。

問，若一門中，卽具足一切者，餘門何用？

答，餘門如虛空。何以故，同體一門中，並攝一切，無不盡故。

問，此同體中所攝一切者，但應自門中一切。豈可攝餘門中一切耶？

答，旣攝自一切，後攝餘一一門中，無餘一切。何以故，法界緣起無一，一切並不成故。此但論法界家實德故，不可說其邊量。此經偈云，“不可言說諸劫中，演說一切不可說。不可說劫猶可盡，說不可說不可盡。”又偈云，“一切衆生心，悉可分別知。一切剎塵微，尚可算其數。十方虛空界，一毛猶可量。菩薩初發心，究竟不可測。”良由一乘法門，得一卽得一切故，因果俱齊，無先後別故。地論云，“以信地菩薩，乃至與不可思議佛法。爲一緣起，以六相總別等義而用括之。”明知因果俱時，相容相卽，各攝一切，互爲主伴，深須思之，此事不疑。又云，“初發心時便成正覺，具足慧身，不由他悟。”〈云云無量〉

問，此等歎因中德耳。豈可卽果德耶？

答，此一乘義，因果同體，成一緣起，得此卽得彼，由彼此相卽故。若果不得者，因卽不成因。何以故，不得果，故非因也。

問，處處果分不可說，但說因分者。何故十信終心，卽辨作佛得果法也？

答，今言作佛者，但初從見聞已去，至第二生，卽成佛行，終心

因位窮滿者，於第三生，即得彼究竟自在圓融果矣。由是因體依果成故。但因滿者，即沒於果海中也。爲是證境界故，不可說耳。此如龍女及普莊嚴童子善財童子兜率天子等，於三生中，即尅彼果義等。廣如經辨。

問，上云，“一念即作佛”者。三乘之中，已有此義，與此何別？
答，三乘望理爲一念即作佛。今此一乘，一念即得具足一切教義理事因果人法等，皆悉同時，同時〈十重〉作佛。然此一念與百千劫，無有異也。宜須思之。

다섯째 은밀현묘문(隱密顯了門)²²³⁾은 하나가 여럿을 포섭하면 하나가 드러나고 여럿이 숨으며, 일체가 하나를 포섭하면 하나가 숨고 여럿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드러남과 드러남은 함께 갖추어지지 않고 숨음과 숨음은 병존하지 않아서, 숨음과 드러남, 드러남과 숨음은 동시에 걸림이 없다.²²⁴⁾ 『화엄경』에서 말하기를 “이쪽에서 정수(正受)²²⁵⁾에 들어가면 저쪽에서 삼매에서 일어난다. 안근(眼根)²²⁶⁾이 정수에 들어가면 색진(色塵)²²⁷⁾이 삼매

223) 이 은밀현묘문은 『탐현기』의 은밀현묘구성문(隱密顯了俱成門)의 꽃의 비유와 『오교장』의 비밀은현구성문(祕密隱顯俱成門) 내용을 함께 인용하여 구성하였다.

224) 『화엄경탐현기』 권1 大35 p.123c11~15. 五華能攝彼，卽一顯多隱，一切攝華，卽一隱多顯。顯顯不俱，隱隱不並，隱顯顯隱，同時無礙，全攝俱泯，存亡俱成。句數同前。下云，東方見入正受，西方見三昧起等。

225) 정수(正受) : 대경(對境)을 관하는 마음과 관할 바 대경이 일치되어, 바른 마음으로 대경을 섭입(攝入)하는 마음의 상태

226) 안근(眼根) : ㉠cakṣur-indriya, 5근의 하나. 안식(眼識)의 있는 데가 되어 안식으로 하여금 형태·색채 등을 감각케 하는 시각 기관. 곧 눈.

227) 색진(色塵) : 5진(塵)의 하나. 6진의 하나. 안근(眼根)·안식(眼識)의 대경. 곧 물질 세계. 진성(眞性)을 더럽히고, 번뇌를 일으키므로 진(塵)이라 함.

에서 일어난다.”²²⁸⁾고 했다. 마치 첫째 동전 가운데 열 개의 동전을 완전히 드러남[顯了]이라 하고, 둘째 동전이 첫째 동전 중 열 개를 기대하는 것을 깊숙이 숨음[隱密]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왜냐 하면 이것을 보면 저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 서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록 서로 보지 못하지만 이쪽이 이루어지면 저쪽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함께 이루어진다[俱成]고 한다.²²⁹⁾

五隱密顯了門者，謂一能攝多，則一顯多隱，一切攝一，則一隱多顯。顯²³⁰⁾顯不俱，隱²³¹⁾隱不並，隱顯顯隱，同時無礙。經云，“於此方入正受，他方三昧起。根入正受，色塵三昧起。”如第一錢中十錢名爲顯了，第二錢望第一錢中十卽爲隱密。何以故，見此不見彼故，不相知故。雖不相見，然此成卽彼成故，名俱成也。

여섯째 미세상용문(微細相容門)은 이 위의 여러 뜻이 처음과 끝, 같음과 다름, 앞과 뒤, 거스름과 순응함 등 일체 법문이 한 생각 중에 동시에 밝게 빛나고 머리를 가지런히 하여 드러나 명확하지 않음이 없으니, 비유하면 날아오는 화살의 머리가 가지런하여 분명히 드러나는 것과 같다. 『화엄경』에서 “보살이 한 생각 가운데 도솔천에서 내려와 태(胎)에 들어감으로부터 사리를 유통시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했으며,²³²⁾

228) 『화엄경』 권7 「현수보살품(賢首菩薩品)」(大9 p.438b17~c6)을 요약한 『오교장』을 인용하였다.(권4 大45 p.506b23~24.)

229) 『화엄일승교의분제장』 권4 大45 p.506c5~8. 如上第一錢中十錢名爲顯了，第二錢望第一錢中十卽爲祕密。何以故，見此不見彼故，不相知故。雖不相知見，然則成此彼成故，俱名成也。

230) 『탐현기』에 의해 多를 顯으로 교감함

231) 『탐현기』에 의해 一을 隱으로 교감함

또 “한 티끌 안에 미세한 국토가 있어 청정하게 장엄되어 밝고 편안히 머문다.”고 하였다.²³³⁾〈마땅히 이치대로 생각해야 한다.〉²³⁴⁾

六微細相容門者，此上諸義，始終同別，前後逆順等一切法門，於一念中，炳然同時，齊頭顯現，無不明了，猶如來箭齊頭現了故。經云，“菩薩於一念中，從兜率天，降神入胎，乃至流通舍利，皆悉顯現。”又云，“於一塵中，微細國土，莊嚴清淨，曠然安住。”〈宜如理思〉

일곱째 인다라망문(因陀羅網門)은 하나하나의 작은 티끌 가운데 각각

232) 『화엄경』 「이세간품(離世間品)」 “보살마하살은 이와 같은 모든 깨끗한 업을 갖추었기 때문에, 도솔천에서 세간을 내려오신다.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은 열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천상에서 내려와 그 어머니 태에 의탁한다. 그 열 가지란 이른바 마음이 용렬한 중생들을 교화하여 성숙시키기 위한 것이다.”(권42 대9 p.666b14~17. 菩薩摩訶薩，具足如是等一切淨業故，從兜率天下生世間，佛子 菩薩摩訶薩，有十種事故，降神母胎，何等爲十，所謂爲教化成熟小心衆生故。)를 요약한 것이다.

233) 『화엄경담현기』 권1 대35 p.123c15~16. 六此華葉中微細剎等，一切諸法，炳然齊現。下云，於一塵中，微細國土，曠然安住。 이는 『화엄경』 권3 「노사나불품」 대9 p.410c21~26 “한 티끌 중에 한없는 부처 세계 청정한 장엄으로 편안히 머물렀네. 그 모든 곳마다 계시는 노사나불 대중 바다 가운데서 바른 법 연설하네. 한 티끌 안에 작은 국토가 있고, 모든 티끌들이 그 가운데 들어 있네.”(一毛孔中，無量佛刹，莊嚴清淨，曠然安住。彼一切處，盧舍那佛，於衆海中，演說正法。於一塵內，微細國土，一切塵等，悉於中住。)에서 뜻을 엮어 쓴 것.

234) 『화엄일승교의분재장』 권4 대45 p.506b10~17. 五者微細相容安立門。此上諸義，於一念中具足始終同時別時前後逆順等一切法門，於一念中，炳然同時，齊頭顯現，無不明了。猶如束箭，齊頭顯現耳。故此經云，菩薩於一念中，從兜率天降神母胎，乃至流通舍利，法住久遠，及所被益諸衆生等，於一念中皆悉顯現。廣如經文。又云，一毛孔中無量佛刹，莊嚴清淨曠然安住。又云，於一塵內，微細國土，一切塵等，悉於中住。宜可如理思之。

모든 끝없는 세계²³⁵⁾가 두루 나타나고, 세계 가운데 다시 작은 티끌이 있으며, 저 모든 티끌 안에 다시 세계가 있어 이처럼 거듭하여 다함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는 마음의 작용으로[心識] 생각하여 헤아림이 미치는 것이 아니니, 마치 세석천의 그물의 하늘의 구슬이 밝게 빛나서 서로 서로 비추고 그림자는 또 그림자를 나타내어 다하여 없어짐이 없는 것과 같다. 『화엄경』에서 “인다라망 세계 등과 같다.”²³⁶⁾ 고 하였고,²³⁷⁾ 또 “하나의 작은 티끌 중에 각각 나유타처럼 무수히 많은 여러 부처님이 나타나시어 그 가운데에서 법을 설하신다.<지정각세간[智正覺世間]>²³⁸⁾ 하나의 작은 티끌 중에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의 나라와 수미산, 금강위산(金剛圍山)²³⁹⁾이 나타나는데 세간은 좁아지지 않는다.<기세간[器世間]>²⁴⁰⁾ 하나의 작은 티끌 가운데 삼악도(三惡道)²⁴¹⁾와 하늘·인간·아수라가 나타나는데 각각 업보를 받는다.”²⁴²⁾(중

235) 찰해(刹海)는 찰토대해(刹土大海)로서十方세계, 곧 우주를 를 말함. 찰은 국토, 해는 대해의 의미임.

236) 『화엄경』 권23 「십지품(十地品)」 大9 p.545c12~13.

237) 『화엄경담현기』 권1 大35 p.123c16~21. 七華葉一一微塵之中, 各皆竝現無邊刹海, 刹海之中復有微塵, 彼諸塵內復有刹海, 如是重重不可窮盡, 非是心識思量所及, 如帝釋網天珠明徹, 互相影現, 影復現影, 而無窮盡. 下文 如因陀羅網世界等.

238) 지정각세간(智正覺世間): 화엄종에서 말하는 세 종류의 세간 중 하나이다. 일체의 번뇌·망상을 떠난 지혜에 따라 정각을 얻은 지자(智者)의 세계, 즉 삼계윤회를 초월한 출세간(出世間)을 가리킨다.

239) 금강위산(金剛圍山): ㉔Cakravāḍa-parvata, 철위산(鐵圍山)·윤위산(輪圍山)·금강산(金剛山)이라고도 한다. 불교의 세계관에 따르면, 세상 한 가운데 있는 수미산을 9개의 산과 8개의 바다가 둘러싸고 있다. 이를 구산팔해(九山八海)라 하는데, 이 중 가장 바깥쪽에 있는 산이 금강위산이다.

240) 기세간(器世間): 화엄종에서 말하는 세 종류의 세간 중 하나이다. 중생이 살고 있는 국토를 가리킨다.

241) 삼악도(三惡道): 악인이 죽어서 가는 세 가지의 괴로운 세계. 지옥도·축생도·아귀도를 말한다.

생세간[衆生世間]²⁴³⁾”고 하였다. 또 “모든 부처님 세계의 작은 티끌처럼 (많은), 그곳에 부처님들께서 한 터럭 구멍에 앉아가시고, 모두 헤아릴 수 없는 보살의 무리가 있어, 각각 보현행(普賢行)을 함께 설하신다. 헤아릴 수 없는 세계의 한 터럭에도 모두 보리연화좌에 앉아서 일체 제 법계에 두루 가득 차 계셔서, 일체의 터럭 구멍에 자재롭게 나타난다.”²⁴⁴⁾고 하였다. 또 “하나의 작은 티끌에 나타나 보이는 것처럼 일체의 작은 티끌도 이와 같다.”²⁴⁵⁾고 하였다.<등등>

이러한 것들은 모두 진실된 의미이며, 변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은 여리지(如理智)²⁴⁶⁾ 중의 여량경(如量境)이다. 그 나머지의 변하여 이루어진 것 등은 이 예에 포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법성(法性)의 진실된 덕성이기 때문이다. 법이 이와 같으니 분별하여 말하는 경계가 아

242) 『화엄경』 권26 「십지품(十地品)」 大9 p.564a16~21. 於一微塵中, 各示那由他, 無量數諸佛, 於中而說法. 於一微塵中, 見無量佛國, 須彌金剛圍, 世間不迫迤. 於一微塵中, 見有三惡道, 天人阿脩羅, 各各受業報.

이 내용을 『오교장』에서 인용한 부분을 재인용한 것이다. 『화엄일승교의분제장』 권4 大45 p.506a15~19.

243) 중생세간(衆生世間): 화엄종에서 말하는 세 종류의 세간 중 하나이다. 중생과 국토를 형성하는 요소로서의 오온, 즉 색(色)·수(受)·상(想)·행(行)·식(識)을 가리킨다.

244) 『화엄경』 권3 「노사나불품」 大9 p.408a15~18

245) 『화엄경』 권6 「현수보살품」 大9 p.434c18.

246) 여리지(如理智): 근본지(根本智). ⑤mūla-jñāna, 근본무분별지(根本無分別智)·실지(實智)·진지(眞智)라고도 한다. 무분별지(無分別智)의 하나. 후득지(後得智) 곧 여량지(如量智)에 상대된다. 모든 지의 근본이 되며 진여의 미묘한 이치를 증득할 수 있는 것으로, 평등하여 여실하며 차별이 없기 때문에 무분별지라고 한다. 10바라밀 중의 반야바라밀을 말한다. 이에 비해 여량지는 근본지에 의해 진리를 깨달은 후에 다시 분별하는 얇은 지혜를 일으켜서 의타기성의 세속의 경계를 아는 지혜이다.

니다.²⁴⁷⁾〈정념을 버려야 생각할 수 있다〉

七因陀羅網門者，謂此一微塵之中，各皆普現無邊剎海，剎海之中，復有微塵，彼諸塵內，復有剎海。如是重重不可窮盡。非是心識思量所及，如帝釋網天珠明徹，互相影復現影而無窮盡。經云，“如因陀羅網世界等。”又云，“於一微塵中，各示那由他，無數億諸佛，於中而說法〈智正覺世間〉，於一微塵中，現無量佛國，須彌金剛圍山，世間不迫迤〈器世間〉，於一微塵中，現有三惡道，天人阿修羅，各各受業報。〈衆生世間〉”又云，“一切佛剎微塵等，爾所佛坐一毛孔，皆有無量菩薩衆，各爲具說普賢行。無量剎海處一毛，皆坐菩提蓮華座，遍滿一切諸法界，一切毛孔自在現。”又云，“如一微塵所示現，一切微塵亦如是。”〈云云〉此等並是實義，非變作成。此是如理智中，如量境也。其餘變作等者，不入此例。何以故，此是法性實德。法爾如是，非分別情謂境界也。〈可去情思之〉

묻는다. 위에서 “하나의 티끌 중에 헤아릴 수 없는 국토가 나타난다”고

247) 『화엄일승교의분제장』 권4 大45 p.506a13~27. 원문의 ‘此是法性實德’은 『오교장』에서는 ‘此並是法性家實德’이며, ‘非分別情謂境界也’는 ‘분별된 정념의 인식의 경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非謂分別情識境界)’이다. 四者因陀羅網境界門. 此但從喻異前耳. 此上諸義體相自在, 隱顯互現重重無盡. 故此經云, 於一微塵中, 各示那由他, 無數億諸佛, 於中而說法. 於一微塵中, 現無量佛國, 須彌金剛圍, 世間不迫迤. 於一微塵中, 現有三惡道, 天人阿脩羅, 各各受果報. 此三偈卽三世間也. 又云, 一切佛剎微塵等, 爾所佛坐一毛孔, 皆有無量菩薩衆, 各爲具說普賢行. 無量剎海處一毛, 悉坐菩提蓮華座. 遍滿一切諸法界, 一切毛孔自在現. 又云, 如一微塵所示現, 一切微塵亦如是. 餘者云云無量, 廣如經辯. 此等並是實義非變化成, 此是如理智中如量境也. 其餘變化等者不入此例. 何以故, 此並是法性家實德, 法爾如是也.

한 것은, 이것은 한번 거듭 나타났을 뿐인데 어떻게 중중(重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가?

답한다. 이곳에서 화엄을 설할 때 모든 티끌 중에서도 이와 같이 (설한다)고 하며, 그 작은 티끌 중에서 화엄을 설할 때도 또한 모든 티끌 중에서도 이렇게 설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변화하고 거듭하여 다함이 없고 다함이 없다.

묻는다. 만일 이 글에 근거한다면 거듭하고 거듭되어 다함이 없는 것은 어떤 구분이 있고 어떻게 그 처음과 끝 등을 분별할 수 있는가?

답한다. 그 지혜에 따라 취하는 것이니, 하나를 들어 으뜸으로 삼으면 나머지는 따르게 된다. 그 으뜸된 것에 근거하는 것을 중심(當中)이라 하고 나머지는 따르는 식구(眷屬)가 되어, 법계가 다하도록 인다라가 이루어진다.

묻는다. 이 뜻은 위의 미세문과 어떻게 다른가?

답한다. 머리를 가지런히 하여 밝게 나타나는 것은 미세문의 포섭이며, 거듭거듭 은밀하게 비추어 서로 나타내는 것은 인다라문의 포섭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뜻은 모두 달라서 같지 않으니, 마땅히 자세하게 생각해야 한다.²⁴⁸⁾

問, 上云, “於一塵中現無量剎”等者, 此是一重現而已, 何成重重²⁴⁹⁾耶?

248) 『화엄일승교의분제장』 권4 大45 p.506a28~b10. 『오교장』에서는 네 번째에 인다라망경계문을, 다섯 번째에 미세상용안립문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질문과 답은 다섯 번째인 미세상용안립문 부분에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순서가 바뀌었을 뿐 그 둘의 차이점을 설명하여 혹시 있을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내용은 같다. 問上一塵中現無量佛剎等者, 此但是一重現而已, 何故乃云重重現耶? 答此方說華嚴經時, 云一切微塵中亦如是說彼微塵中說華嚴經時, 亦云一切微塵中亦如是說, 如是展轉即重重無盡也, 宜準思之. 問若據此文重重無盡, 有何分齊云何辯其始終等耶? 答隨其智取, 舉一爲首餘則爲伴, 據其

答, 此方說華嚴時, 一切塵中亦如是, 彼微塵中說華嚴時, 亦云一切塵中亦是說. 如是展轉重重, 無盡無盡.

問, 若據此文, 重重無盡, 有何分齊, 云何辨其始終等也?

答, 隨其智取, 舉一爲首, 餘卽爲伴. 據其首者, 卽名當中, 餘卽眷屬, 盡窮法界因陀羅成也.

問, 此義與上微細, 云何別耶?

答, 齊頭炳然現者微細攝, 重重隱映互現因陀羅攝. 此等諸義, 並別不同, 宜細思之.

여덟째 탁사현법문(託事顯法門)은 사상(事相)을 보는 것을 말하니, 끝이 다함이 없는 법계를 보는 것으로, 이는 이것에 의탁하여 따로 드러낼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화엄경』에서 “이 화개(華蓋) 등은 무생법인(無生法忍)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²⁵⁰⁾

八託事顯法門者, 謂見此事, 卽是見於無盡法界, 非是託此別有所表. 經云, “此華蓋等, 從無生法忍所起等.”

묻는다. 삼승 중에 이러한 뜻이 있는데 이것과 어떻게 다른가?

首者卽當中, 餘者卽眷屬圍繞. 如上教義等, 並悉如是自在成耳. 反前相卽相入自在等, 皆悉如是攝一切法無窮法界並悉因陀羅成也.; b19~22. 問是義與上因陀羅何別耶? 答重重隱映互現, 因陀羅攝齊頭炳然顯著微細攝. 此等諸義並別不同. 宜細思之.

249) 『오교장』에 의해 重을 重重으로 교감함

250) 『화엄경담현기』 권1 大35 p.123c21~23. 八見此華葉, 卽是見於無盡法界, 非是託此別有所表. 下云, 此華蓋等, 從無生法忍所起等. 『화엄경』의 구절은 명확하지 않으나, 권13 「여래승도솔천궁일체보전품(如來昇兜率天宮一切寶殿品)」에 나오는 (大9 p.482a17~19. 無生法忍所起雜寶鈴網普覆莊嚴一切法界, 出過諸天所供養上, 供養如來, 入無礙智慧.) 정도가 근접한다.

답한다. 삼승은 다른 사상(事相)에 의탁하여 다른 이치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이 일승이 의탁한 사상은 저 드러난 도리와 다시 다르지 않으니, 모든 원리와 현상과 교법과 의미를 갖추고 있어 포섭하여 다하지 않음이 없다.²⁵¹⁾

問, 三乘之中, 以有此義, 與此何別?

答, 三乘託異事相, 表顯異現. 今此一乘所託之事相, 卽是彼所顯道理, 更無異也, 具足一切理事教義, 無不攝盡者也.

아홉째 십세격법문(十世隔法門)은 위의 여러 가지 뜻이 일체법에 두루 하며 일체의 시간을 갖추는 것이다. 삼세에 각각 세 가지가 있고, (이것을) 포섭하여 일념이 되기 때문에 십세(十世)가 되는 것을 말한다. 시간은 따로 체(體)가 없이 법(法)에 의지하여 세워지는데 법이 이미 걸림이 없으니 시간 또한 그와 같다. 『화엄경』에서 “과거의 모든 겁을 미래와 지금에 안치 하고, 미래와 현재겁²⁵²⁾을 돌려 과거세에 둔다.”²⁵³⁾고 하였으며,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시간이 곧 한 생각이고, 한 생각은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시간이다.”²⁵⁴⁾라고 하였다.²⁵⁵⁾ 또한 “혹 긴 겁이 짧은 겁에 들어가고 짧은 겁이 긴

251) 『화엄일승교의분제장』 권4 大45 p.507a22~26. 問三乘中以有此義, 與此何別? 答三乘託異事相表顯異理. 今此一乘所託之事相, 卽是彼所現道理, 更無異也. 具足一切理事教義及上諸法門, 無不攝盡者也. 宜可如理思之.

252) 『화엄경』에 는 未來劫이 未來現在劫이다.

253) 『화엄경』 권43 「이세간품(離世間品)」 大9 p.674b17~18. 未來劫은 『화엄경』에서 는 未來現在劫이다. 『탐현기』에는 未來一切劫이라 하였다.(『화엄경탐현기』 권1 大35 p.123c27)

254) 『화엄경』 권9 「초발심공덕품」 大9 p.451a20~21.

255) 『화엄경탐현기』 권1 大35 p.123c24~29. 九卽此一華既具遍一切處, 亦復該一切時. 謂三世各三, 攝爲一念, 故爲十世也. 以時無別體, 依華以立, 華既無礙, 時亦如之. 是故下云, 過去一切劫, 安置未來今, 未來一切劫, 迴置過去世. 又云, 無量劫卽一念, 一念卽無量劫等.

겁에 들어가며, 부처님이 계시는 겁이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겁에 들어가고,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겁이 부처님이 계시는 겁에 들어간다.”²⁵⁶⁾라고 하였다.<등등>

이상의 여러 뜻은 모두 십세 중에 자재롭게 나타나 연기를 이루기 때문에 상즉과 상입이 된다.

九十世隔法門者，此上諸義，遍一切法，復該一切時。謂三世各三，攝爲一念，故爲十世也。以時無別體，依法以立，法旣無礙，時亦如是。經云，“過去一切劫，安置未來今，未來現在²⁵⁷⁾劫，迴置過去世。”又云，“無量劫卽一念，一念卽無量劫等。”又云，“或以長劫入短劫，短劫入長劫，有佛劫入無佛劫，無佛劫入有佛劫等。”<云云>

此上諸義，悉於十世，自在顯現，成緣起故，得卽入也。²⁵⁸⁾

열째 주반원명문(主伴圓明門)은 이 원교(圓教)²⁵⁹⁾의 법은 이치가 홀로

256) 『화엄경』 권27 「십지품」 大9 p.572c19~25. 所謂一劫攝阿僧祇劫，阿僧祇劫攝一劫，有數劫攝無數劫，無數劫攝有數劫，一念攝劫，劫攝一念，劫攝非劫，非劫攝劫，有佛劫攝無佛劫，無佛劫攝有佛劫，過去未來劫攝現在劫，現在劫攝過去未來劫，未來過去劫攝現在劫，現在劫攝未來過去劫，長劫攝短劫，短劫攝長劫，諸劫攝相，皆如實知. 이 내용 중에 일부를 인용한 것이 『오교장』이다. 大45 p.506c23~507a2. 故此經云，或以長劫入短劫，短劫入長劫，或百千大劫爲一念，一念卽百千大劫，或過去劫入未來劫，未來劫入過去劫，如是自在時劫無礙，相卽相入渾融成矣. 이것이 다시 요약되어 이 『요결문답』의 구절이 되었다.

257) 『화엄경』에 의해 現在 추가

258) 『화엄일승교의분제장』 권4 大45 p.506c21~22. 此十世具足別異，同時顯現成緣起故，得卽入也.

259) 원교(圓教) : 원만한 교법. 『화엄경(華嚴經)』에 ‘원만인연수다라(圓滿因緣修多羅)’ 또는 ‘원만경’이란 말이 있는 데서 기인하여 이것으로 교상판석(敎相判釋)을 삼고, 점돈원(漸頓圓)의 3교를 세웠다. 『화엄경』을 원교라 한 것은 북위(北魏)

일어남이 없이 반드시 주체와 객체가 따라서 생기는 것이다. 『화엄경』에서 “이 대연화(大蓮華)는 세계의 바다의 티끌의 수와 같은 꽃이 있어 이를 권속을 삼는다.”²⁶⁰⁾ 고 하였다. 또 “대위광태자(大威光太子)²⁶¹⁾〈진경(晉經)에서는 보장엄동자(普莊嚴童子)〉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일체법계무구장엄경(一切法界無垢莊嚴經)』을 듣고 세계의 작은 티끌 수 만큼의 수다라가 있는 것으로써 권속을 삼았다.”²⁶²⁾ 고 하였다. 또 “한쪽이 주체가 되면 시방은 객체가 되는 것처럼, 나머지 방위도 그러하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주체와 주체, 객체와 객체는 각각 서로 보지 못하며 주체와 객체, 객체와 주체는 갖추어진 덕

의 혜광(惠光)이 처음이며, 그 후 천태의 4교, 화엄의 5시(時), 도선(道宣)의 교판에 이 명목을 사용하면서 자기가 가장 믿는 경전을 원교에 배당한다.

- 260) 『화엄경』에서 일치하는 구절은 없으나, 권4 「노사나불품」(大9 p.416c23~a1)의 다음 구절이 비슷한 용례이다. 時彼林中, 有一道場, 名寶華莊嚴. 其道場前, 有大蓮華, 名華焰具足, 縱廣百億由旬, 十億蓮華眷屬圍遶. 時彼世界過百歲已, 有佛出世, 如是次第, 有十須彌山塵數如來出興于世. 其最初佛, 名一切功德本勝須彌山雲. 時佛處彼大蓮華上, 眉間白毫放大光明, 名一切功德覺. 有十佛世界塵數光明以爲眷屬.
- 261) 대위광태자(大威光太子): 『화엄경』에서 사승신(四勝身)으로 성불하는 동자. 구역에서는 보장엄동자(普莊嚴童子). 석가모니불의 전신으로, 견문(見聞)·해행·중입(證入)의 삼생(三生) 성불 중 해행(解行)성불의 승신으로서 그 마지막에 과해(果海)에 들어가 끝내 성불한다.
- 262) 『화엄경』 권4 「노사나불품」 大9 p.418a18~24. “보장엄동자는 그 부처님을 보고는 부처를 생각하는 삼매와 넓은 문이며 바다의 창고인 삼매, 한량없는 지혜로 법륜을 굴리는 삼매, 매우 깊은 즐거워하는 삼매 등을 얻었다. 그 때 부처님은 일체법계자성이구장엄(一切法界自性離垢莊嚴)이라는 경과 그에 따른 세계의 티끌 수 만큼의 수다라를 권속으로 삼아 말씀하셨다. 보장엄동자는 그 경을 듣자 곧 삼매를 얻었으니, 그 이름은 모든 법의 넓은 문이며 기쁨의 창고인 삼매와 일체 법에 들어가는 방편 바다의 삼매였다.”(普莊嚴童子, 見是如來已, 即得念佛三昧, 普門海藏三昧, 無量智持轉法三昧, 甚深法樂三昧, 時佛說經, 名一切法界自性離垢莊嚴, 有世界微塵等修多羅, 以爲眷屬, 普莊嚴童子, 聞是經已, 即得三昧, 名一切法普門歡喜藏三昧, 入一切法方便海三昧.)

을 원만하게 밝힌다.²⁶³⁾

十主伴圓明門者, 此圓教法, 理無孤起, 必主伴隨生, 經云, “此大蓮華, 有世界海塵數華, 以爲眷屬”, 又云, “大威光太子〈晉經普莊嚴童子〉, 聞佛說一切法界無垢莊嚴經, 有世界微塵數修多羅, 以爲眷屬”, 又, “如一方爲主, 十方爲伴, 餘方亦爾”, 是故主主伴伴各不相見, 主伴伴主, 圓明具德.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으니, 하나는 같은 동류(同類)이고 다른 하나는 이류(異類)이다. 첫째 동류는 마치 십주(十住)²⁶⁴⁾를 설하는데 시방에 각각 열 가지 땅의 티끌 수 만큼의 보살이 와서 증명하여 같이 법혜(法慧)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도 십주를 설하는데 대중의 식구와 언설[名味句]²⁶⁵⁾ 등이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과 같다.²⁶⁶⁾ 그러니

263) 『화엄경담현기』 권1 大35 p.123c18~22. 第十主伴圓備門者, 謂此普法教, 不孤起, 必主伴隨生. 如下文普莊嚴童子聞佛說一切法界無垢莊嚴經, 有世界微塵數修多羅以爲眷屬. 如是等文處處皆有.; 123c29~124a4. 十此圓教法理無孤起, 必眷屬隨生. 下云, 此華有世界海塵數蓮華以爲眷屬. 又如一方爲主, 十方爲伴, 餘方亦爾, 是故主主伴伴, 各不相見, 主伴伴主, 圓明具德.

264) 십주(十住): 보살 수행계위 52위 중 제11위부터 제20위까지의 계위. 화엄41위에서는 제1위부터 제10위. 10신(信)의 계위를 지나서 마음이 진제(眞諦)의 이치에 안주하게 되는 계위. ①발심주(發心住), ②치지주(治地住), ③수행주(修行住), ④생귀주(生貴住), ⑤구족방편주(具足方便住), ⑥정심주(正心住), ⑦불퇴주(不退住), ⑧동진주(童眞住), ⑨법왕자주(法王子住), ⑩관정주(灌頂住).

265) 명미구(名味句)는 아비담(阿毗曇) 9분 중의 하나. ①분별설계(分別說戒) ②분별설세간(分別說世間) ③분별설인연(分別說因緣) ④분별설계(分別說界) ⑤분별설동수득(分別說同隨得) ⑥분별설명미구(分別說名味句, 名句文) ⑦분별집정(分別集定) ⑧분별설집업(分別說集業) ⑨분별설제음(分別說諸陰)(원측, 『解深密經疏』 권1 韓1 p.22b13)

266) 『화엄경』 권8 「십주품」 大9 p.446c3~10. 佛子善說是法, 我等諸人, 同名法慧. 所從來國, 同名法雲. 彼諸如來, 同號妙法. 我等佛所, 亦說十住. 大衆眷屬名味句身, 等

하나의 『십주경(十住經)』이 시방에 각각 열 개의 국토가 있어 티끌 수 만큼의 수다라를 권속으로 삼는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하나의 십주처럼 나머지 모든 곳에서 설한 십주도 모두 티끌 수 만큼의 권속을 포섭한다. 십주가 이미 그러하니 나머지 십행(十行) 등 하나하나의 품(品)과 모임자리(會座)도 모두 법의 수와 양을 증명함이 있다. 미루어 해석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한 장소와 한 세계에 따라 한 부류의 근기를 위해 한 회좌의 법을 설함이 이미 시방 등에서 설한 것과 결합되고 통합이 없음을 말한다.²⁶⁷⁾ 때문에 주체가 되는 경전은 아니지만 역시 주체와 함께 뛰어난 방편이 되기에 일가가 된다. 이 때문에 주체가 되는 경전은 반드시 시방의 티끌 수 만큼 많은 세상에서 동시에 같이 설하지만, 수반되는 경전은 그렇지 않아서 장소에 따라 각기 다르다. 이 때문에 하나하나의 주체가 되는 경전은 각기 티끌 수 만큼이나 많은 권속이 있다.²⁶⁸⁾

또한 옛 장소(章疏) 가운데 제장순잡구덕문(諸藏純雜具德門)과 유심회전선성문(唯心迴轉善成門)을 설하여²⁶⁹⁾ 그 의미의 문이 헤아릴 수 없으니

無有異. 是故佛子, 我等承佛神力, 來詣此土, 爲汝作證. 如此四天下須彌山頂妙勝殿上說十住法, 十佛世界微塵數等諸大菩薩來此作證, 一切十方亦復如是.

267) 『화엄경탐현기』에서는 ‘既無結通十方等說’로 ‘無’자가 있다. 따라서 『탐현기』를 따른다면 “이미 시방 등에서 설한 것과 결합하여 통합이 없다.”가 된다.

268) 『화엄경탐현기』 권1 大35 p.119c22~120a5. 此眷屬經有其二義, 一同類, 二異類. 初同類者, 如說十住十方各有十剎塵數菩薩來證, 同名法慧, 我等佛所亦說十住. 大衆眷屬名味句身等無有異. 是故當知一十住經十方各有十剎塵數修多羅等以爲眷屬, 如一十住餘一切處所說十住皆攝爾許塵數眷屬. 十住既爾餘十行等一一品會皆有證法, 數量准釋可知. 二異類者, 謂隨一方一界爲一類機說一會法. 既無結通十方等說, 故非主經. 然亦與主爲勝方便故爲眷屬. 是故主經必十方塵道同時同說, 伴經不爾隨方各別. 是故一一主經各有塵數眷屬.

269) 범장은 『화엄오교장』에서는 스승인 지엄의 십현문을 그대로 따랐으나 『화엄경

모두 말할 수 없을 뿐이다.

然此有二義，一同類，二異類。初同類者，如說十住，十方各有十刹塵數菩薩來證，同名法慧，我我等佛所，亦說十住，大衆眷屬，名味句身，等無有異。是故當知，一十住經，十方各有十刹塵數修多羅等，以爲眷屬。如一十住，餘一切處所說十住，皆攝爾許塵數眷屬。十住既爾，餘十行等，一一品會，皆有證法數量。准釋可知。二異類者，謂隨一方一界爲一類機，說一會法，既無²⁷⁰⁾結通十方等說。故非主經，然亦與主爲勝方便，故爲眷屬。是故主經必十方塵道同時同說，伴經不爾，隨方各別。是故一一主經，各有塵數眷屬。亦古章疏中，說諸藏純雜具德門，唯心迴轉善成門，義門無量，不可具陳耳。

위에서 밝힌 열 가지 문의 뜻들은 같은 연기여서 걸림이 없이 원융하여 한 가지 문에 따라 일체가 갖추어진다는 것을 마땅히 생각할 수 있다.²⁷¹⁾ 처음이 이미 그렇다면 나머지 광협문 등의 아홉 가지 문이 모두 각기 앞의 십시(十時)를 갖추었는데 단지 문에 따라 다를 뿐이다. 이 때문에 하나하나의 문 가운데 각기 백천 개의 (문)들이 있다.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

탐현기』를 저술하면서 수정을 하였다. 그래서 『탐현기』 이후에 보이는 십현설을 신십현(新十玄)이라 하고, 그 이전의 십현설을 고십현(古十玄)이라고 부른다. 고십현의 제장순잡구덕문(諸藏純雜具德門)과 유심회전선성문(唯心迴轉善成門)을 광협자재무애문(廣狹自在無碍門)과 주반원명구덕문(主伴圓明具德門)으로 고쳤는데, 이는 사사무애연기를 이사무애로 혼동할까 염려해서였다. 그리고 고십현의 비밀은현구성문(秘密隱顯俱成門)은 은밀현료구성문(隱密顯了俱成門)으로 명칭을 바꾸었으나 그 내용은 같다.

270) 『탐현기』에 의해 無 추가

271) 『화엄경탐현기』 권1 大35 p.123b4~5. 然此十門，同一緣起，無礙圓融，隨有一門，卽具一切，應可思之。

다.²⁷²⁾ <하나의 사상(事相)의 법이 스스로 열 가지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열 가지 문을 갖추고 있으니 백 문이 되는 것과 같음을 말한다. 나머지 교법과 의미 등도 또한 각기 이에 준하기 때문에 천 문이 이루어진다. 교법과 의미 등이 자신의 부류의 열 가지 뜻과 동시의 십문을 기대하면 천 문이 있게 된다. 저 동시문 등도 또한 자신의 부류의 십문과 교법과 의미 등을 기대하면 역시 천 문이 이루어진다. 미루어 생각하면 알 수 있다.²⁷³⁾>

上來所明十門義等者，同一緣起，無礙圓融，隨有一門，卽具一切，應可思之。如初旣爾，餘廣狹等九門，皆各具前十時，但隨門異耳。是故一一門中，各有百千等。思之可見。〈謂如一事法帶自十義，具此十門，則爲一百。餘教義等，亦各准之，故成千門。如教義等望自類十義，及同時十門有此千門。彼同時等亦望自類十門及教義等亦成千門。准思可見。〉

6. 보법의 의미[普法義]

세 가지 문(門)은 앞과 같다.

1) 이름을 풀이함

보(普)는 두루 미친다는 것이니, 두루한다는 뜻을 보(普)라고 말한다. 법(法)은 자체(自體)라는 뜻이고 법칙(軌則)이라는 뜻이다.(일반적인 설명과 같

272) 『화엄경탐현기』 권1 大35 p.123b10~13. 隨一各具餘一切義，如初門旣爾，餘廣狹等九門，皆各具前十對，但隨門異耳。是故一一門中各有十百千等。思之可見。

273) 『화엄경탐현기』 권1 大35 p.124a4~8. 如一事華帶自十義，具此十門卽爲一百門。餘教義等，亦各准之，故成千門。如教義等望自類十義，及同時等十門，有此千門。彼同時等，亦望自類十門，及教義等，亦成千門。準思可見。

다. 일체법이 상입(相入)하고 상시(相是)하는 것을 말한다. 상입이라 하는 것은 원효 스님이 말하기를 “일체 세계가 하나의 작은 티끌에 들어가고, 하나의 작은 티끌이 일체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하나의 작은 티끌처럼 일체 또한 그러하다〉 삼세의 모든 겁이 한 찰나에 들어가고, 한 찰나가 삼세의 모든 겁에 들어간다.”라고 하였다.〈한 찰나와 같이 일체의 찰나도 그러하다.〉 마치 모든 크고 작은 것과 빠르고 (느린) 상입과 같이 나머지 모든 문의 상입도 그러하다.²⁷⁴⁾ 상시(相是)를 설하는 것도 또한 그러하여, 모든 법과 모든 문에서 하나가 곧 일체이고 일체가 곧 하나임을 말한다. 이처럼 넓고도 넓어서 보법이라고 한다.²⁷⁵⁾

普法義²⁷⁶⁾

三門同前.

第一釋名者. 普者溥也, 謂遍義是普也. 法自體義, 軌則義. 〈如常說也〉 謂一切法相入相是. 言相入者, 曉云, “謂一切世界入一微塵, 一微塵入一切世界. 〈如一微塵一切亦爾〉 三世諸劫入一剎那, 一剎那入三世諸²⁷⁷⁾劫. 〈如一剎那, 一切亦爾〉 如諸大少促相入, 餘一切門相入亦爾, 如說相是亦爾, 謂一切法及一切門, 一是一切, 一切²⁷⁸⁾是一. 如是廣蕩, 名爲普法.

274) 원효의 『화엄경소』 韓1 p.495a5~6에서는 ‘大少促’을 ‘非大非小非促非奢’이라 하였다.

275) 원효의 교판사상에서 중요한 보법의 의미를 풀이한 현존 자료로서 유일하다.

276) 韓2 p.366a13~367c18.

277) 원문의 謂는 諸로 교감함

278) 다른 사본에 의해 一切 보완(김천학, p.176 주 743) 참조)

2) 본체를 드러냄

장애 없는 법계를 근본으로 삼는다.

第二出體者. 以無礙法界爲體.

3) 문답으로 분별함

묻는다. 어떠한 인연으로 이 모든 법(法)이 이와 같이 융화되어 걸림이 없게 하는가?

답한다. 법장 스님은 말했다. “인연은 헤아릴 수 없어 갖추어 말할 수 없지만 열 가지를 들어 이 걸림없음[無礙]을 설명한다. 첫째, 크고 작은 것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大少無定] 둘째, 각각 오직 마음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各唯心現] 셋째, 환상과 같아서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다.[如幻不實] 넷째, 한 없는 원인으로 생기기 때문이다.[無限因生] 다섯째, 뛰어나게 통달하여 자재하기 때문이다.[勝通自在] 여섯째, 삼매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三昧大用] 일곱째, 생각하기 어려운 해탈이기 때문이다.[難思解脫] 여덟째, 결과의 덕이 원만하고 지극하기 때문이다.[果德圓極] 아홉째, 연기가 서로 말미암기 때문이다.[緣起相由] 열째, 법성이 융통하기 때문이다.[法性融通].”²⁷⁹⁾

279) 질문과 답은 『탐현기』를 인용하였는데 순서가 다르다. 『화엄경탐현기』 권1 大35 p.124a8~14. 問有何因緣令此諸法得有如是混融無礙. 答因緣無量難可具陳, 略提十類釋此無礙. 一緣起相由故, 二法性融通故, 三各唯心現故, 四如幻不實故, 五大小無定故, 六無限因生故, 七果德圓極故, 八勝通自在故, 九三昧大用故, 十難思解脫故. 『화엄경지귀(華嚴經旨歸)』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순서는 같으나 내용이 다소 다르다. 『화엄경지귀』 大45 p.594c25~29. 法相圓融實有所因, 因緣無量略辨十種. 一爲明諸法無定相故, 二唯心現故, 三如幻事故, 四如夢現故, 五勝通力故, 六深定用故, 七解脫力故, 八因無限故, 九緣起相由故, 十法性融通故.

원효 스님은 말했다. “요약해서 말하면 열 가지 종류의 원인이 있다. 첫째, 하나와 일체는 서로 거울과 그림자가 되는 것이 제석천의 그물과 같기 때문이다. 둘째, 하나와 일체와 함께 서로 인연이 모여서 돈을 세는 법과 같기 때문이다. 셋째, 모든 것은 오직 식(識)이어서 마치 꿈의 경계와 같기 때문이다. 넷째, 모든 것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어서 마치 환상과 같기 때문이다. 다섯째, 동상과 이상이 일체에 통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지극히 크고 지극히 작아서 동일하여 한가지이기 때문이다. 일곱째, 법성의 연기는 현상과 본성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여덟째, 일심(一心)의 법체(法體)는 같지도 다르지도 않기 때문이다. 아홉째, 걸림없는 법계는 극단도 중도도 없기 때문이다. 열째, 법계는 법 그대로여서 막힘도 걸림도 없기 때문이다.”²⁸⁰⁾

위의 두 스님은 각각 열 가지 문을 두어 비록 번거롭고 자세히 말했지만, 지금 법장스님의 첫째 항목과 원효 스님의 여섯째 항목을 취해 그 핵심을 보인다.

법장 스님이 말했다. “크다 라고 하는 것은 크다고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것에 들어갈 수 있고, 작은 것은 작다고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것을 용납할 수 있다. 『십주품』에서 ‘금강위산의 수가 헤아릴 수 없으나, 모두 하나의 터럭 끝에 안치할 수 있으니, 지극히 큰 것에 작은 모습의 있음을 알고자 하여, 보살이 이로 인해 처음 발심하였네.’라고 하였다.”²⁸¹⁾ 해석하면, 여기에서 크다는 것은 크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작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²⁸²⁾

280) 이에 따르면 원효와 법장이 모든 법의 혼융무애(混融無碍)한 이유를 설명하는 말은 다르지만, 그 내용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281) 『화엄경』 권3 「십주품」 대9 p.447b2~3.

282) 『화엄경지귀』 대45 p.595a1~5. 初無定相者, 謂以小非定小故能容大, 大非定大故能入小. 十住品云, 金剛圍山數無量, 悉能安置一毛端, 欲知至大有小相, 菩薩因此

第三問答分別.

問, 以何因緣故 令此諸法得有如是混融無礙?

答, 法藏師云, “因緣無量難可具, 提十類, 釋此無礙. 一大少無定故, 二各唯心現故, 三如幻不實故, 四無限因生故, 五勝通自在故, 六三昧大用故, 七難思解脫²⁸³⁾故, 八果德圓極故, 九緣起相由故, 十法性融通故.”

元曉師云, “略而言之, 有十種因. 一者, 一與一切, 互爲鏡影, 如帝網故. 二者, 一與一切, 更互緣集, 如錢數故. 三者, 皆唯是識, 如夢境故. 四者, 皆非實有, 如幻事故. 五者, 同相異相²⁸⁴⁾, 通一切故. 六者, 至大至少, 齊一量故. 七者, 法性緣起, 離相²⁸⁵⁾離性故. 八者, 一心法體, 非一非²⁸⁶⁾異故. 九者, 無礙法界, 無邊無中故. 十者, 法界法爾, 無障無礙故.”

上來二師, 各有十門, 雖繁廣述, 今取藏師初門曉公第六, 示其綱要.

法藏師云, “謂大非定大, 故能入少, 少非定少, 故能容大. 十住品云, ‘金剛圍山數無量, 悉能安置一毛端. 欲知至大有少相, 菩薩因此初發心.’ 解云, 此中明大非大故有少相也.”

묻는다. 세계가 작은 티끌에 들어가고 수미산이 겨자씨에 들어갈 때, 이
미 크고 작은 형태가 있어 작은 것이 늘어나지 않고 큰 것이 줄어들지 않는

初發心. 解云, 此中明大非大故有小相也.

283) 『담현기』에 의해 說을 脫로 교감함

284) 다른 사본에 의해 相 보완(김천학, p.178 주 749) 참조

285) 다른 사본에 의해 離相 보완(김천학, p.178 주 750) 참조

286) 다른 사본에 의해 非 보완(김천학, p.178 주 751) 참조

다면 어떻게 서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답한다. 공의 이치의 뜻[空理義]으로 말하면, 세속제(世俗諦)에서는 헛되고 임시적인 것이지만 승의제(勝義諦)에서는 본래 공이다. 헛되고 임시적인 것에 미혹되면 작은 것과 큰 것으로 장애가 되지만, 환상으로 변한 것임을 완전히 깨달아 뜻에 통달하면 어찌 서로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하물며 크고 작은 차이가 드러나는 것은 미혹된 집착이 있기 때문이니, 공(空)의 진정한 뜻에 통달하면 어찌 결림이 있어 통하지 않음이 있겠는가?(이것은 청변종(淸辨宗)²⁸⁷⁾이다.)

이치에 맞는 뜻[應理義]²⁸⁸⁾으로 말하면, 대략 여덟 가지 해석이 있다. 첫째, 집착하는 것이 있다고 집착하기에 크고 작은 것이 매우 다르다. 집착하는 대상이 공(空)하다는 것을 알면 무엇이 작고 무엇이 크겠는가? 둘째, 의타기성(依他起性)²⁸⁹⁾을 통달하지 않아 진실로 크고 작은 것이 있다고 한다. 본체가 허망하고 거짓인데 어떻게 이치에 통하지 않겠는가? 셋째, 사물이

287) 청변종(淸辨宗) : 청변 등이 주장하던 일체개공(一切皆空)의 학설을 선양한 인도의 학파, 곧 중관학파를 말한다. 청변(淸辨, ㉔Bhāvivieka, 500~570경)은 인도 중관학파의 논사로 승호(僧護, ㉔Samgharakṣita)에게 사사(師事)하고 대승경전과 용수(龍樹)의 교설을 익혔다. 후에 남인도에서 공(空)의 뜻을 선양하였고, 호법(護法, ㉔Dharmapāla)과 공유(空有)논쟁을 했다고 전해진다. 청변은 용수를 따라 진유(盡有)의 공을 주장했다. 『중론석(中論釋)』·『대승장진론(大乘掌珍論)』·『반야등론석(般若燈論釋)』·『중관심론송(中觀心論頌)』 등의 저술이 있다.

288) 응리(應理)는 유식과 연관이 있는 말이다. 법상종의 완성자 규기(窺基)는 자은 8종(慈恩八宗)에서 제7종 승의개공종(勝義皆空宗) 다음으로 마지막 제8종을 응리원실종(應理圓實宗)이라 하여, 법상종의 다른 이름으로 쓰인다.

289) 의타기성(依他起性) : ㉔para-tantra-svabhāva, 유식 삼성(三性) 가운데 하나. 다른 인연에 의존해서 생기는 상태. 일체의 현상은 모두 인연이 화합하여 생겨나고, 인연이 다하면 모든 법도 사라져 없어진다. 즉 일체의 법은 유(有)이면 비유(非有)이고 무(無)이면서 비무(非無)이다.

크고 작음을 이루기에 혹은 용납할 수 없다. 원성실성(圓成實性)²⁹⁰⁾은 융통한데 어떻게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는가? 넷째, 법이 작용이 있다고 짐작하면 크고 작은 것이 이에 어긋난다. 법의 원인과 조건을 알아 함께 허망하면 어찌 융통하겠는가? 다섯째, 미혹한 마음으로 경계에 짐작하면 실제의 경계는 누가 수용할 것인가? 깨달음의 경계는 모두 식(識)인데 어찌 누구인들 얻지 못하겠는가? 여섯째, 법에 진실로 모습이 있다면 크고 작음을 수용하지 못한다. 모습이 없다는 것을 진실로 삼으면 무엇이 크고 무엇이 작겠는가? 일곱째, 진여(眞如)에 들어맞지 못하여 어리석은 마음으로 멀리 떨어지게 된다. 진실을 알아서 거짓임을 통달하면 지혜가 밝아져 통할 수 있다. 여덟째, 낮은 단계의 범부의 마음은 통달하여 품을 수 없다. 높은 단계의 사람의 위력이라면 어떤 일에 능하지 않겠는가?〈이것은 호법종(護法宗)²⁹¹⁾이다.〉²⁹²⁾

290) 원성실성(圓成實性): ⑤pariniṣpanna-svabhāva, 유식 삼성(三性) 가운데 하나. 진실성(眞實性)이라고도 한다. 의타기성(依他起性)의 식(識)으로부터 허망한 분별이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의타기성 이외에 특별한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현상세계를 있는 그대로 아는 것, 실체를 그대로 자각하는 것, 존재의 진상을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원성실성이다. 의타기성에서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인 주체가 원성실성의 깨달음으로 전환한다. 스스로 미망에 싸여있는 것은 변계소집성이며, 자기를 깨닫는 것은 원성실성이다.

291) 호법종(護法宗): 인도의 유식논사인 호법이 선도한 학파, 곧 유식학파. 호법(護法, ⑤Dharmapāla, 530~561경)은 유식 10대논사 중의 한 사람. 남인도 출신으로 대·소승교학에 정통하여 마가다국 날란다사에서 널리 교화하여 학도가 수천 명이었다고 한다. 29세에 대보리사(大菩提寺)로 가서 저술에 전념하다 입적하였다. 저술로는 『대승광백론석론(大乘廣百論釋論)』·『성유식보생론(成唯識寶生論)』·『관소연론석(觀所緣論釋)』 등이 있다. 그의 사상이 현장에 의해 『성유식론(成唯識論)』으로 정리되어 법상종의 교학이 성립되었다.

292) 이 부분의 원전은 밝혀지지 않았다. 김천학은 문맥상으로 보아 원효의 저술에 서의 인용으로 본다.(김천학, p.180 주 754) 참조)

問, 世界入微塵, 須彌入芥時, 既有大少之形, 而不増少不減大, 如何得相容耶?

答, 空理義云, 世俗虛假, 勝義本空. 迷虛假以礙心, 小大由隔, 悟幻化而通意, 何不相容? 況乎大少懸著, 由迷執有, 達空勝義, 何礙不通? 〈此清辨宗也〉應理義云, 略有八釋. 一執有所執, 大小懸殊. 知所執空, 何少何大? 二不達依他, 謂真大少. 體之虛偽, 何理不通? 三事成大少, 或不能容. 圓成融通, 何不相納? 四執法有用, 大少乃乖. 知法因緣, 同虛豈融? 五迷心執境, 實境誰容? 悟境皆識, 何誰不得? 六法真有相, 大小不容. 無相爲真, 何大何小? 七未契真如, 愚心杳隔. 知真達偽, 智洞能通. 八下位庸心, 不能通舍. 上人威力, 何事不能? 〈此護法宗也〉

원효스님이 말했다. “첫째로는 남방의 설에서 말하기를, ‘이미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고 칭하였으니 오직 성인의 경계이다. 이승이 헤아릴 수 없는데 범부가 어찌 알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그래서 내버려두고서 해석하지 않을 뿐이다.

둘째는 북방의 논사²⁹³⁾가 말하기를 ‘큰 것은 크다는 형상이 없기 때문에 큰 것이 작은 것에 들어갈 수 있고, 작은 것은 작다는 형상이 없기 때문에 작은 것이 큰 것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셋째는 논사²⁹⁴⁾가 말하기를 ‘큰 것은 스스로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것으로

293) 『정명현론(淨名玄論)』 권3 大38 p.870c3~5. 北土地論師云, 大無大相, 故大得入少, 少無少相, 故少得容大. 이 구절과 비교하면 원문의 此主는 北土地論師 곧 土의 오기임을 알 수 있다.

294) 이 견해는 삼론가(三論家)의 설로 본다.(김천학, p.183 주 763) 참조) 길장의 『정

말미암기 때문에 큰 것이며, 작은 것은 스스로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것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작은 것이다. 작은 것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큰 것이니 큰 것을 소대(小大)라고 하고, 큰 것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작은 것이니 작은 것을 대소(大小)라고 한다. 작은 것은 것이 바로 대소이기 때문에 큰 것을 수용할 수 있고, 큰 것이 바로 소대이기 때문에 작은 것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였다. 즉 이는 둘째 논사가 세운 뜻을 깨뜨린 것이다. 이미 크다는 형상이 없다고 말했으니 곧 큰 것이 없는데, 어떤 큰 것이 작은 것에 들어가는가? 작은 것은 작다는 형상이 없으니 곧 작은 것이 없는데, 무엇이 큰 것을 수용하겠는가? 만일 형상이 없는 큰 것과 형상이 없는 작은 것이 있기 때문에 수용하고 들어간다고 말한다면, 지금 거듭 그것을 생각해 보건데 형상 없는 큰 것이란 큰 것이 있는 것인가, 큰 것이 없는 것인가? 만일 큰 것이 있다고 말한다면 오히려 형상이 있는 것이 되고, 형상이 없다고 한다면 큰 것이 없는 것이 된다. 형상이 없으면서 큰 것이 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²⁹⁵⁾

넷째는 셋째 논사의 견해를 논파하는 것이다. 소대(小大)라고 말한 것은 대소(大小)보다 큰 것인가, 대소보다 크지 않은 것인가? 만일 크지 않다고 말한다면, 소대(小大)라고 이름 하지 못한다. 소대는 대소와 같기 때문이다. 만일 크다고 말한다면, 대소는 소대에 들어갈 수 없다. 대소는 소대보다 작기 때문이다. 만일 비록 대소는 소대보다 작고 소대는 대소보다 커지만

명현론』의 구절과 유사하다.

295) 『정명현론』 권3 大38 p.870c5~11. 今請問之, 既大無大相, 是則無大, 誰入小耶. 小無小相, 是即無小, 誰容大耶. 若云有無相之大無相之小, 故得容入者, 今重考之, 無相之大, 爲猶有大, 爲無大耶. 若有大, 即猶有相, 如其無相, 則無有大. 若言大無相而有大有者, 亦應無大而有相耶. 雖有此言, 未見其理, 故並不用之.

『정명현론』은 길장(吉藏)이 『유마경』의 요지를 해설한 책이므로, 길장의 견해를 원효가 인용하였고, 이 원효의 저술을 다시 『요결문답』에서 인용한 것이 된다.

들어가지 못함의 들어감[不入入]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다면, 들어감의 들어가지 못함[入不入]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니, 들어감의 들어가지 못함은 들어가지 못함의 들어감과 다르기 때문이다. 대소가 소대와 다른 것과 같기 때문에 대소는 소대에 대해서 들어가지 못함의 들어감이므로 들어갈 수 있고, 소대는 대소에 대해서 들어감의 들어가지 못함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 만일 들어가지 못함의 들어감이기 때문에 소대도 대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다면, 크지 않음의 큼이기 때문에 소대도 또한 대소이다.

元曉師云, “一南方說言, 既稱不思議, 唯聖境界. 二乘不測, 凡豈能解? 故且置而不釋耳. 二北土²⁹⁶⁾師云, ‘大無大相故, 大得入小²⁹⁷⁾, 小無小相故, 小得容大.’ 三師云, ‘大不自大, 由小故大, 小不自小, 由大故小. 由小故大, 大名小大, 由大故小, 小名大小. 以小是大小, 故得容大, 大是小大, 故得入小.’ 則破第二師立義, 言既無大相, 是即無大, 誰大入小耶? 小無小相, 是即無小, 誰容大耶? 若言有無相之大無相之小故得容入者, 今重考之, 無相之大, 猶有大而無大耶? 若言有大, 即猶有相, 如其無相, 即無有大. 無相有大, 不應理故. 四破第三師義. 言所言小大, 爲大於大小耶? 爲不大於大小耶? 若言不大者, 即不名小大, 以小大同於大小故. 若言大者, 即不得入大小於小大. 以大小小於小大故. 若言雖大小小於小大, 小大²⁹⁸⁾大於大小, 而以不入入故得入者, 以入不入, 故不能入, 以不入入異

296) 『정명현론』에 따라 此主는 北土로 교감함.(김천학, p.182 주 762) 참조)

297) 少는 小로 교감. 이후 이 문단에서 小와 少가 함께 쓰였으나 의미상 모두 小로 바꿈.

298) 다른 사본에 의해 小大 보완.(김천학, p.185 주 769) 참조)

於入不入故. 如大小異於小大故, 大小於小大, 以不入入故得入, 小大於大小, 以入不入故, 不得入. 若言以不入入故, 小大亦入大小者, 以不大大故, 小大亦是大小.

만일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저것 또한 허용되지 않으며, 만일 모두 허용된다면 대소가 어지럽게 섞이니, 이 때문에 셋째 논사의 견해도 상입(相入)의 의미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미 상입하지 못하는데 어찌 상시(相是)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지금 곧 상입과 상시를 밝힌다. 상입의 이유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지금 또 하나를 내면, 지극히 크고 지극히 작다는 것은 균등하여 동일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것이 있는 것이 모두 상입할 수 있다. 『화엄경』에서 ‘지극히 큰 것이 작은 형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자, 보살이 이로 인해 처음으로 발심하였네.’²⁹⁹⁾라고 한 것과 같으니, 이 뜻이 무엇인가? 지극히 크다고 말하는 것은 바깥이 없음[無外]을 말하니, 그 바깥이 있다면 지극히 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극히 작은 것도 이와 같아서 안이 없음[無內]을 말하니, 안이 있다고 한다면 지극히 작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바깥이 없이 큰 것은 크게 비어 있음[大虛]을 말한 것이고, 안이 없이 작은 것은 허공에 가까움[隣虛]을 말한 것이다. 안이 없기 때문에 바깥도 없으니, 바깥과 안은 반드시 상대(相待)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지극히 작은 것은 지극히 큰 것과 균등한 것이다. 크게 비어 있음은 바깥이 없기 때문에 안도 또한 없다. 이는 곧 지극히 큰 것은 지극히 작은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지극히 큰 것에 작은 형상이 있다고 말한다. 만일 이와 같이 크고 작은 것이 같은 양이라는 것을 안다면 모든 크고 작은 것에 모두 장애가 없게 되니, 이것이 불가

299) 『화엄경』 권8 「십주품」 大9 p.447b3.

사의한 해탈이다. 그러므로 이로 인하여 처음 발심했다고 말한다.

무슨 뜻인가? 수미산이 비록 크더라도 오히려 바깥이 없는 것보다는 작고, 겨자씨가 비록 작아도 오히려 안이 없는 것 보다는 크다. 크게 비어 있음은 바깥이 없어 겨자씨에 들어가도 남음이 없으니 지극히 작은 것과 같기 때문이며, 허공과 가까움은 안이 없어 수미산을 포함하고도 남음이 있으니 지극히 큰 것과 같기 때문이라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하물며 높은 자리가 방장(方丈)에 들어가고 수미산이 겨자씨에 들어가는 것에 있어 서랴! 겨자씨가 비록 작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크게 비어 있는 것보다도 크고, 수미산이 비록 크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극미(極微)보다도 작다.³⁰⁰⁾

지금 가는 극미와 같은 수미산이 작은 태허(太虛)보다도 큰 겨자씨에 들어가는데, 이와 같이 상입(相入)한다면 어떤 어려운 것이 있겠는가? 다만 겨자씨가 비록 태허보다 크다 해도 그 작은 양이 늘어나지 않고, 수미산이 비록 극미보다 작더라도 그 높은 형상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러한 도리로 말미암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일 뿐이다. 이것이 크고 작은 것이 상입(相入)하는 원인이며 상시(相是)하는 조건으로, 이는 같은 데서 나오니 동상(同相)과 이상(異相)이 서로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왜 이상(異相)이라고 하는가? 모든 법은 자상(自相)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동상(同相)이

300) 극미(極微): ㉠paramāṇu. 물질을 분석하여 아주 작은 것에 이르러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단위. 극미진(極微塵)이라고도 하고, 구역에서는 인허(鄰虛)라고 한다. 1극미를 중심으로 하여 상하와 사방의 6방으로 극미가 모인 일단을 미(微) 또는 미진(微塵)이라 하고, 7미를 1금진(金塵), 7금진을 1수진(水塵), 7수진을 1토모진(兔毛塵), 7토모진을 1양모진(羊毛塵), 7양모진을 1우모진(牛毛塵), 7우모진을 1극유진(隙遊塵)이라 한다. 금진이나 수진은 금이나 물을 통과할 정도의 작은 것을 말하며, 토끼·양·소털은 그 털 정도의 작은 크기를 말한다. 극유진은 창 틈 새로 스며들 수 있는 작은 크기로서, 우리들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빛 가운데 떠다니는 작은 먼지를 말한다. 극미는 그 작은 단계가 거듭되는 아주 작은 것을 말한다.

라 말하는 것은 모든 법이 하나의 형상의 지체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다. 일체법은 모두 존재하는 것이니 스스로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며, 또한 모두 존재하지 않으니 다른 형상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함께 옳은 것은 함께 그른 것이며, 모든 법은 모두 하나라는 것 등의 이와 같은 같고 다름은 서로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다. 다름이 같음을 떠나지 않기에 일체가 곧 하나이고, 같음이 다름을 떠나지 않기에 하나가 곧 일체이다. 이러한 도리로 말미암아 하나와 일체는 막힘도 없고 결림도 없다. 그러므로 7일이 1겁이 되고, 1겁이 7일이 된다.³⁰¹⁾〈등으로 말한다〉

若此不許，彼亦不許，若皆許者，大小雜亂。是故當知第三師義，亦不得成相入義也。既不相入，何得相是？故今便明相入相是。相入之由，非一衆多。今且出一，所謂至大至小，齊一量故，所有大小，皆得相入。如華嚴經言，‘欲知至大有小相，菩薩因此初發心。’是義云何？言至大者，所謂無外，如有³⁰²⁾其外，非至大故。至小亦爾，所謂無內，設有內者，非至小故。無外之大，所謂大虛，無內之小，所謂隣虛。無內故亦無外，外與內，必相待故。是即至小齊於至大。大虛無外故，亦無內。是即至大同於至小。故云至大有小相也。若能知如是大小同量，即

301) 『유마힐소설경(維摩詰所說經)』 권하 「부사의품(不思議品)」 대14 p.546c8~12. “또 사리불아. 혹 어떤 중생이 있는데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고 제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보살은 곧 7일을 1겁으로 늘려 그 중생에게 1겁이라고 말하도록 한다. 혹은 중생이 오래도록 머물기를 원하지 않고 제도해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보살은 곧 1겁을 7일로 줄여서 그 중생에게 7일이라고 말하게 한다.”(又舍利弗, 或有衆生樂久住世而可度者, 菩薩即延七日以爲一劫, 令彼衆生謂之一劫, 或有衆生不樂久住而可度者, 菩薩即促一劫以爲七日, 令彼衆生謂之七日.)라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302) 다른 사본에 의해 有 보완.(김천학, p.187 주 773) 참조)

於一切大小，皆得無所障礙，卽是不可思議解脫。故言因是初發心也。何者？須彌雖大，而猶小於無外，芥子雖小，而猶大於無內。當知大虛無外，入芥子而無遺，同於至小故，隣虛無內，含須彌而有餘，同於至大故。況乎高座入於方丈，須彌入於芥子。芥子雖小，而猶巨於大虛，須彌雖大，而猶細於極微。今將細極微之須彌，入寬大虛之芥子，如是相入，有何所難？但以芥子雖巨大虛，而不增其細量，須彌雖細極微，而不減³⁰³⁾其高形。由是道理不可思議耳。是謂大小相入之由，相是之緣，亦出一種，所謂同相異相不相離故。何謂異相？諸法自相各異故。言同相者，所謂諸法一相智門。謂一切法皆是有，有自相故，亦皆無，無他相故。同是是同非，皆法皆一等，如同異不相捨離。以異不離同故，一切是一也，同不離異故，一是一切。由是道理，一與一切，無障無礙。故能以七日作一劫，以一劫作七日。〈云云〉

또 모든 법이 막히거나 걸리는 것이 없다고 말한다. 『유마경』에서 ‘수보리여. 부처님을 보지 못하고 불법을 듣지 못하여 저 외도의 여섯 스승이 너의 스승이 되어, 그로 인해 출가하고 그 스승이 떨어지는 곳에 너도 역시 따라서 떨어져야 이에 음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네가 싸우지 않는 삼매[無諍三昧]를 얻으면 일체 중생도 이 삼매를 얻을 것이다. 너에게 보시한 것을 복전(福田)이라고 할 수 없고, 너에게 공양한 자는 삼악도에 떨어져 많은 마귀와 더불어 함께 손을 맞잡고 모든 수고로움의 벗이 될 것이니, 너와 여러 마귀와 모든 번뇌가 똑같아서 다르지 않다. 모든 중생에게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 부처님을 비방하고, 불법을 훼손하고, 대중의 무리에

303) 내용으로 보아 成을 咸으로 교감. 咸은 減의 뜻.(김천학, p.188 주 777) 참조)

들어가지 않아 끝내 열반³⁰⁴⁾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네가 만일 이와 같이 하면 이에 음식을 얻을 것이다.’³⁰⁵⁾라고 한 것과 같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동상과 이상이 서로 떨어지지 않은 문에서 하나와 일체가 곧 서로 상시(相是)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막힘이나 걸림이 없음을 설한 것이다. 진리법의 공과 무의 두 문에 대한 것이 아니니, 그 까닭은 법공문(法空門)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수보리³⁰⁶⁾가 통달한 것은 저 (일반 중생들이) 마땅히 듣지 못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이다.〈나머지 뜻은 별도로 말한 것과 같다. 이상의 여러 논사의 뜻을 취하고 버리는 것은 마음에 달려 있다.〉

又說諸法無所障礙，如維摩云，‘若須菩提，不見佛，不聞法，彼外道六師，是汝之師，因其出家，彼師所墮，汝亦隨墮，乃可取食。汝得無諍三昧，一切衆生，亦得是定。其施汝者，不名福田，供養汝者，隨三惡道，爲與衆魔共一手作諸勞侶，汝與衆魔及諸塵勞，等無有異。於一切衆生，而有怨心，謗諸佛，毀於法，不入衆數，終不得減度。汝若如是，乃取食。’”

案云，此就同相異相不相離門，一與一切更互相是，故作如是無障礙說。非約諦法空無二門，所以然者，對法空門。善吉³⁰⁷⁾所達，不應聞彼懼故。〈餘義如別說也。此上諸師義，取捨任情。〉

304) 멸도(滅度)는 장애를 없애고 고통을 건넜다는 뜻으로[滅障度苦], 생사의 번뇌를 넘어 열반을 이룸을 말한다.

305) 『유마힐소설경(維摩詰所說經)』 권상 「제자품(弟子品)」 大14 p.540b29~540c12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306) 선길(善吉)은 수보리(須菩提)의 의역이다.

307) 다른 사본에 따라 善吉 보완함.(김천학, p.191 주 790) 참조)

7. 법계의 의미[法界義]

세 가지 문은 앞과 같다.

1) 이름을 풀이함

법장 스님은 말했다. “법(法)에는 세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자체의 본성[自性]을 가진다는 의미이고, 둘째는 규칙[軌則]의 의미이고, 셋째는 의식의 대상[對意]이라는 의미이다. 계(界)에도 세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원인[因]의 의미로 (이것에) 의지하여 성스러운 도(道)가 생기기 때문이다. 둘째는 본성의 의미이고, 셋째는 나누어 구별한다는 의미이다.”³⁰⁸⁾

능(懷) 스님은 말했다. “자체의 있는 그대로를 법이라고 한다. 도성이 갖추어 별려진 것을 계라고 한다.”

法界義³⁰⁹⁾

三門同前.

第一釋名者. 法藏師云, “法有三義. 一是持自性義, 二是軌則義, 三對意義. 界亦三義. 一是因義, 依生聖道故. 二是性義, 三是分齊義.” 懷云, “自體如實, 名之爲法. 該羅都城, 名之爲界.”

2) 본체를 드러냄

능 스님은 “여여(如如)함을 본질로 삼는다.”고 하였다.

308) 『화엄경탐현기』 권18 大35 p.440b11~18. 『화엄경』 「입법계품」을 해석하는 네 가지 문(門) 중 첫 번째 제목을 해석함[釋名] 부분이다. 여기에는 분명(分名), 회명(會名), 품명(品名)이 있는데, 『탐현기』에서는 품명에서 인용하였다.

309) 韓2 p.372b4~373c10 ; 375a23~376a6.

혜원 스님은 말했다. “권교소승(權敎小乘)의 이교(二敎) 중에서는 사법(事法)은 심법(心法)³¹⁰⁾과 심(心)과 심불상응법(心不相應法)³¹¹⁾이 능히 만든 색(色)을 그 본성으로 삼는다. 소승교의 이법계(理法界)는 생공(生空)³¹²⁾이 나타내는 무위(無爲)를 본성으로 삼는다. 권교대승(權敎大乘)³¹³⁾의 이법계는 아공(我空)과 법공(法空)이 나타내는 불변진여(不變眞如)³¹⁴⁾를 그 본성으로 삼는다. 실교대승(實敎大乘)³¹⁵⁾의 이사무애법계(理事無礙

310) 심법(心法) : 오위의 하나. 우주 만유(宇宙萬有)를 물질적 존재와 마음의 이원(二元)으로 나눌 때, 물질적 대상에 대하여 인식 작용을 하는 것이다.

311) 심불상응법(心不相應法) : 유식에서 유위 무위의 제법을 심법(心法)·심소유법(心所有法)·색법(色法)·심불상응법·무위법(無爲法)의 다섯 가지 백법으로 분류한 중의 하나. 심과 상응하지 않는 것이라는 뜻. 유위법 중에서 물질적 존재인 색법에도, 정신인 심법에도, 정신작용인 심소유법에도 속하지 않는, 실체적으로 이해한 일종의 세력을 말한다. 득(得)·명근(命根)·중동분(衆同分)·이생성(異生性)·무상정(無想定)·멸진정(滅盡定)·무상사(無想師)·명신(名身)·구신(句身)·문신(文身)·생(生)·노(老)·주(住)·무상(無常)·유전(流轉)·정이(定異)·상응(相應)·세속(勢速)·차제(次第)·방(方)·시(時)·수(數)·화합성(和合性)·불화합성(不和合性)의 24종이다.

312) 생공(生空) : 인공(人空), 또는 아공(我空)이라 함. 상일주재(常一主宰)의 뜻을 가진 아(我)가 있다고 하는 주관적 미집(迷執)을 없애기 위하여 공(空)하다고 말하는 것. ‘나’라 하는 것은 5온(蘊)이 화합한 것으로 참으로 ‘나’라 할 것이 없고 공무(空無)한 것임을 말한다.

313) 권교대승(權敎大乘) : 권대승교(權大乘敎). 방편을 곱하지 아니한 진실한 교법을 말한 실대승교(實大乘敎)에 나아가기 위해 방편으로 설교한 교법(敎法). 석가모니가 근기가 낮은 중생을 위하여 진실한 교리에 끌어들이려는 방편으로 말한 것이다.

314) 불변진여(不變眞如) : 수연진여(隨緣眞如)에 상대되는 말. 진여의 본체는 결국 평등하여 변하지 않음을 말함. 곧 본성의 진심에 상주하는 불성. 이 불변의 본체가 외부의 무명인 조진(緣)에 따라 3계 6도에 낚는 것을 수연진여라 한다.

315) 실교대승(實敎大乘) : 실대승교(實大乘敎). 대승교 가운데 방편을 곁들이지 아니한 참된 가르침

法界)는 위(爲)와 무위(無爲)는 둘이 아니고 녹아서 융합된 법계를 그 본성으로 삼는다. 사사무애법계(事事無礙法界)는 위(爲)와 무위(無爲)는 둘이 아닌 상온(常蘊)³¹⁶⁾을 그 본성으로 삼는다.〈만일 작용을 구별하는 것과[辨用] 의 거하는 바[所依]를 겸하여 드러내면 번뇌와 오온을 통틀어 본성으로 삼는다.〉”

원효스님은 말했다. “법계를 통틀어 말하면 네 가지 구절을 벗어나지 않는다. 첫째는 유위법계(有爲法界), 둘째는 무위법계(無爲法界), 셋째는 유위무위법계(有爲無爲法界), 넷째는 비유위비무위법계(非有爲非無爲法界)이다.”

법장 스님은 말했다. “법계에는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소입(所入)법계의 뜻으로 다섯 문이 있다. 처음 네 가지 법계는 원효스님이 열거한 것과 같으며,〈뜻을 해석하는데 같지 않은 것이 있을 뿐이다.〉 다섯째는 무장애법계(無障礙法界)이다.³¹⁷⁾ 두 번째는 능입(能入)법계를 밝힌 것에 역시 다섯 문이 있다. 첫째는 정신(淨信), 둘째는 정해(正解), 셋째는 수행(修行), 넷째는 증득(證得), 다섯째는 원만(圓滿)이다.³¹⁸⁾〈등등을 말했다〉

第二出體者. 懷云, “以如如爲體.” 慧苑師云, “權小二教中, 事法以心法及心并不相應, 能所造色, 以爲其性. 小乘教, 理法界, 以生空所顯無爲性. 權教大乘, 理法界, 以二空所顯不變真如而爲其性. 實教大乘, 理事無礙法界, 以爲無爲無二, 鎔融法界, 而爲其性. 事事無礙法界, 以爲無爲無二, 常蘊爲性. 〈若兼顯辨用所依則通有漏五蘊爲性〉” 元曉師云, “通論法界, 不出四句. 一

316) 상온(常蘊): 5온의 하나. 사람에게서는 사물을 상상(想像)하는 선·악, 사(邪)·정(正)의 온갖 정상(情想)이 있음. 이것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317) 『화엄경담현기』 권18 大35 p.440b25~27. 셋째 有爲無爲法界가 亦有爲亦無爲法界로 다를 뿐 나머지 이름은 같다.

318) 『화엄경담현기』 권18 大35 p.441a14~15.

有爲法界，二者無爲法界，三者有爲無爲法界，四者非有爲非無爲法界。”法藏師云，“法界有二。先所入法界義有五門。初四法界，同曉所列〈釋義不同有耳〉，五無障礙法界。二明能入，亦有五門。一淨信，二正解，三修行，四證得，五圓滿。”〈云云〉

3) 문답으로 분별함

(1) 4종법계

문는다. 늬 스님이 “무릇 본질[體]의 차이를 논하면 헛됨과 진실됨에서 잘못된다.”고 말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답한다. 네 가지 종류로 본질을 간추리면, 첫째는 수연법계(隨緣法界), 둘째는 대연법계(對緣法界), 셋째는 망연법계(忘緣法界), 넷째는 연기법계(緣起法界)이다.

가) 수연법계

앞의 세 가지 문 중 법계의 본질이란, 법계는 경계와 지혜[境智]가 아니지만 조건에 따라 경계와 지혜를 설하며, 법계는 물질과 정신[色心]이 아니지만 조건에 따라 물질과 정신을 설하는 것이다. 이는 흘러가는 곳을 따라 여러가지 맛이 있지만 그 여러 가지 맛이 모두 본래의 맛이 아니듯이, 조건을 따라 차별이 있지만 차별이 법계는 아니다. 다만 이름과 글자가 있을 뿐 법은 없다. 정념에 따라 설하는데, 정념은 법계가 아니기 때문에 첫째 수연법계 중에는 법계의 본질이 없다.

나) 대연법계

둘째 대연법계는 무릇 있음[有]에 집착하는 병은 없음[無]을 설하여 치

료하고, 없음에 집착하는 병은 있음을 설하여 치료한다.〈항상됨[常]과 항상됨이 없음[無常] 등 모두가 이런 예이다〉병에 대응하는 것은 법계가 아니나, 치료할 수 있는 약이기에 임시로 법이라고 이름한다. 만일 다시 이 법에 집착하면 오히려 다시 병이 생긴다. 병이 치료되면 약은 버리는 것이니, 이렇게 갖추어졌을 때 청정[淨]하다고 말한다. 단지 치료했다는 것을 버릴 뿐만 아니라 버렸다는 것도 버려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연법계 중에는 법계의 본질이 없다.

다) 망연법계

셋째 망연법계는 조건을 잊고 대상[對]도 잊는 것이기 때문에 망연법계라고 한다. 얻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잊고 얻는 것이 없다는 것을 잊으며, 둘이라는 것을 잊고 둘이 아니라는 것도 잊으며, 또한 잊었다는 것도 잊는다. 단지 이름[名]을 잊을 뿐만 아니라 법계의 본질도 잊고 법계의 작용도 잊기 때문에 법계의 본질을 세우지 않는다. 무릇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 또한 법계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라) 연기법계

넷째 연기법계는 앞에서 조건을 잊어서 의지하고 집착할 것이 없고, 이제 다시 이 조건을 잊으므로 망연(忘緣)이라고 한다. 조건을 잊은 후에야 연기법계의 뜻이 세워진다.

第三問答分別.

問, 懷云, “凡論體異, 濫於虛實.” 何耶?

答, 以四種簡體, 一者隨緣法界, 二對緣法界, 三忘緣法界, 四緣起法界. 前三門中, 法界體者, 法界非境智, 隨緣說境智, 法界非色心, 隨緣說色心. 此隨流處有種種味, 然種種味. 皆非本

味, 隨緣有差別, 差別非法界. 但有名字下無法. 隨情而說, 情非法界故, 第一隨緣法界中, 無法界體,

二對緣者, 夫著有之病, 說無以治, 著無之病, 說有以治, 著無之病說有以治. 〈常無常等一切例此〉所對病, 非是法界, 能治之藥, 假名為法. 若復執此法, 還復成病. 病治藥去, 俱時說淨, 非但遣治, 亦復遣遣. 故對緣中, 無法界體.

三忘緣者, 忘緣忘對故, 曰忘緣法界也. 忘有所得, 忘無所得, 忘二, 忘不二, 亦復忘於忘. 非但忘名, 亦忘法界體, 忘法界用, 故不立法界體也. 夫不立者, 亦法界中一故.

四緣起法界者, 前忘緣既無所依著, 今復忘此緣, 謂之忘緣. 忘緣也然後, 乃立緣起法界義耳.

일체법은 여여(如如)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實相]은 본래 생기지 않으며 지금 없어짐도 없다. 늘어남도 줄어듬도 없고, 있음[有]도 없음[無]도 없으니 있으면서도 없다. 있음은 없음의 있음이고, 없음은 있음의 없음이다. 없음과 있음은 둘이 아니니, 이는 둘이 아니면서 둘이다. 있음도 없고 없음도 없으니, 이는 둘이면서 둘이 아니다. 또한 둘이기도 하고 둘이 아니기도 하며, 둘이면서 둘이 아님이 없다.〈항상됨[常]과 항상됨이 없음[無常] 등 모두가 이런 예이다.〉지금 연기법계 중에 본질이 없으면서 본질이니 여여(如如)함으로써 법계의 본질로 삼으며, 연기가 걸림이 없음을 법계의 작용으로 삼는다. 본질도 없고 작용도 없어 작용이 본질이고 본질이 작용이며, 여여함이 연기이고 연기가 여여함이다.

묻는다. 경계와 지혜라는 구절 중에 무슨 까닭에 법계가 아니라고 하였는가?

답한다. 경계와 지혜는 역시 허망한 말의 정념에서 나온다. 병든 정념은

법이 없다.

묻는다. 끊어 얻는다는 버려 얻는다는 구절 중에서 역시 궁극적으로는 제거된다고 하였는데 무엇을 법계라고 하는가?

답한다. 병에 걸리면 반드시 그것을 없애야 하는데, 병을 없애는 것이지 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묻는다. 중도(中道) 구절 중에 연(緣)을 잊고 나면 병이 없다고 하였는데, 무슨 까닭으로 법계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가?

답한다. 만일 허망함을 떠났다 해도 연기의 법을 밝히지 못한 것은 법계의 본질이 아니다. 본질에는 반드시 작용이 있는데, 이미 작용을 논하지 않았으니 역시 아직 본질을 밝히지 못한 것이다.

묻는다. 이미 연기기 아니라면 마땅히 연기법계 중에 들어갈 수 없지 않은가?

답한다. 『경』에서 말하기를 “그대는 마땅히 일체 법계를 알아 이 무분별 법을 버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였다.〈이 중 다섯 구절은 다시 『법경론(法鏡論)』을 기준으로 한다.〉

一切法如如，實相本不生，今亦無滅。無增無減³¹⁹⁾，無有無無，而有而無也。有是無有也，無是有無也。無有無二，是不二二也。無有無無，是二不二也。亦二亦不二也，無二不二也。〈常無常等一切例也〉今緣起法界中，無體而體，以如如爲法界體也，緣起無礙，爲法界用也。無體無用，用體體用，如如緣起，緣起如如。

問，境智節中，何故非法界？

答，境之與智，亦出妄語之情，病情無法。

319) 원문의 滅을 減으로 교감함.(김천학, p.234 주 932) 참조)

問, 斷得及遣得節中, 亦究竟被除, 何名法界?

答, 帶病須破之, 除病不除法.

問, 中道節中, 忘緣既無病, 何故非法界體?

答, 若離虛妄, 未明緣起法者, 非法界體, 體必有用, 既未論用, 亦未明體.

問, 既非緣起, 不應入緣起法界中?

答, 經云, “汝應知一切法界, 莫捨此無分別法”³²⁰〈此中五節更准鏡論也〉

(2) 4중연집법계

또 연법계(緣法界) 중에 네 가지 종류를 연다. 첫째는 유위연집법계(有爲緣集法界), 둘째는 무위연집법계(無爲緣集法界), 셋째는 자체연집법계(自體緣集法界), 넷째는 평등연집법계(平等緣集法界)이다.³²⁰⁾

가) 유위연집법계

만일 있음[有]을 밝힌다면 일체가 존재한다. 이는 생겨남이 있고 없어짐이 있으며,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으며, 생사가 있고 열반이 있으며, 중(中)과 중이 아님이 있으며, 일상(一相)³²¹⁾과 무상(無相)³²²⁾이 있으며, 가진 것이 없음[無所有]이 있음을 이른다. 대개 기다림[待]이 있고 대응함[對]이

320) 이 연집법계(緣集法界)를 표원 화엄학의 특색으로 보고, 표원 화엄이 차별을 초월하여 평등을 추구하고 삼매관행으로 종결지음으로써 원효의 사상을 충실히 계승하였다고 보는 연구성과도 있다.(김두진, 2002 『신라 화엄사상사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pp.161~192)

321) 일상(一相): 차별이 없고 절대 평등한 진여(眞如)의 상

322) 무상(無相): 진여(眞如) 법성(法性)은 미(迷)한 생각으로 인식하는 것과 같은 현상의 모양이 없는 것

있는 것을 유위법(有爲法)³²³⁾이라고 말한다. 생겨나지 않으면서 생겨나고, 없어지지 않으면서 없어지니, 없어지기만 하고 생겨나지 않으면 생겨난다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금 다만 생겨남과 없어짐이 성립하기 때문에 집(集)이 된다. 원인과 결과가 서로 성립하고 기다림과 대응함이 서로 성립하기에 이르러 유위연집(有爲緣集)이 되니, 집(集)이 없는 집(集)이다.

又緣法界中，開爲四種．一者有爲緣集法界，二者無爲緣集³²⁴⁾法界，三者自體緣集法界，四者平等緣集法界．若明有則一切有．所謂有生有滅，有因有果，有生死有涅槃，有中非中，有一相無相，有無所有．夫有待有對，有謂有爲法也．不生而生，不滅而滅，滅而非生，生義不成．今只生滅成，故爲集也．因果相成，乃至待對相成，爲有爲緣集，無集之集也．

나) 무위연집법계

만일 없음[無]를 밝힌다면 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른바 생겨남이 없고 없어짐이 없으며, 원인이 없고 결과가 없으며, 생사가 없고 열반이 없으며, 중(中)이 없고 중 아님이 없으며, 일상과 무상이 없으며 가진 것이 없음이 없음에 이르기까지 기다림도 없고 대응함도 없는 것을 무위법(無爲法)³²⁵⁾이라고 한다. 대개 걸림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 법을 따라 없음을 밝혔기 때문에 많은 것의 본질이 없어져 곧 무위법이 된다. 없음과 없음이 서로 성립하여 모두 둘이 없는 법수(法數)에 들어가므로 무위연집(無爲緣集)이 된다.

若明無則一切無．所謂無生無滅，無因無果，無生死無涅槃，無

323) 유위법(有爲法): 원인과 조건과의 결합을 통하여 현실로 나타나는 여러 현상

324) 원문의起的 의미상 集으로 교감함.(김천학, p.235 주 938) 참조)

325) 무위법(無爲法): 인연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생멸(生滅)의 변화를 떠나 상주 불변하는 참된 법

中無非中，無一相無相，乃至無無所有，無³²⁶⁾待無對者，謂無爲法也。夫無礙無所有，而歷法明無，故多體無，卽爲無爲法也。無無互相成，皆入無二法數，爲無爲緣集也。

다) 자체연집법계

만일 유위(有爲)도 아니고 무위(無爲)도 아니어서 둘이 아닌 것이 되면 이를 자체(自體)라고 한다. 『경』에서 “범은 자체(自體)를 이룬다.”³²⁷⁾라고 하였고, 또 “자체는 본래 공(空)하여 둘이 아니고 다함이 없다.”³²⁸⁾고 하였다. 만일 범을 따라 둘이 아님을 밝힌다면 많은 둘이 아닌 것이 있어서 모이니 자체연집(自體緣集)이 된다. 유위와 무위는 두 개의 작용이 되니,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어서 곧 있음과 없음의 본체가 된다. 본질은 조건을 따라 만들어지지 않아서 자법(自法)이라고 이름하니, 자법은 본래 공(空)이다. 만일 자체가 둘이 아닌 것을 본다면 유위를 보지 않고 무위를 보지 않으니 둘이 없음이 없지 않은 것을 평등법계(平等法界)라고 한다. 다만 둘만이 둘이 없음을 성립시키고, 다만 둘이 없음만이 둘을 성립시키며, 다만 평등만이 불평등을 성립시키고, 다만 불평등만이 평등을 성립시킨다.

若非有爲非無爲，爲不二者，謂之自體。經云，“法名自體”，又云，“自體本來空，有不二不盡。”若歷法明不二，則有衆多不二而集，爲自體緣集³²⁹⁾也。有爲無爲爲二用，非有非無，卽爲有

326) 의미상 無를 보완함.(김천학, p.235 주 940) 참조)

327) 『성실론』에 이 구절이 있으나 여기서의 인용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권7 大 32 p.289c8) 범상(法上)의 『십지론의소(十地論義疏)』에도 나오며(권1 大85 p.772a2~3) 혜원(慧遠)의 『십지경론의기(十地經論義記)』에도 나온다.(권1 大45 p.26a1)

328) 『십지경론』 권2 大26 p.132b10

329) 의미로 보아 원문의 起는 集으로 교감함.(김천학, p.236 주 942) 참조)

無之本體也. 體不從緣造, 名爲自法, 自法本來空也. 若見自體
無二, 不見有爲, 不見無爲, 不無無二, 謂平等法界. 只二成無
二, 只無二成二, 只平等成不平等, 只不平等成爲平等.

라) 평등연집법계

연집법계 중에 또 평등연집법계(平等緣集法界)에 대해서 다시 세 종류
가 있다. 첫째는 법계연집(法界緣集), 둘째는 법계무장애(法界無障礙), 셋
째는 법계해탈(法界解脫)이다. 이와 같이 평등은 진리가 없고 교설이 없으
면서 진리이고 교설이다. 교설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집(理集)이고, 진리의
교설이기 때문에 교집(教集)이며, 진리와 교설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법집
(法集)이다. 법이 없고 사람이 없으면서 법이고 사람이다. 사람의 법이기
때문에 법집이고, 법의 사람이기 때문에 인집(人集)이며, 사람과 법이 둘이
아니기에 행집(行集)이다. 행위가 사람과 법과 다름이 없고, 사람과 법이
행위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대승(大乘)이다. 이것이 대법계연집(大法界緣
集)이다.

만일 모임[集]이 없고 흩어짐[散]이 없으면서 모임이고 흩어짐이면, 흩
어짐의 모임이고 모임의 흩어짐이다. 생사의 열반과 열반의 생사, 있음의
없음과 없음의 있음, 일체의 막힘도 없고 걸림도 없는 것에 이르는 것이 법
계무장애(法界無障礙)이다.

만일 모임을 얻을 수 없고 흩어짐을 얻을 수 없으며, 생사를 얻을 수 없
고 열반을 얻을 수 없으며, 있음을 얻을 수 없는 데에 이르면, 둘과 둘이 아
님, 또한 둘임과 또한 둘이 없음, 둘이 없음과 둘이 없음이 없음 또한 얻을
수 없다. 장애 없음도 얻을 수 없고, 해탈과 불해탈도 얻을 수 없다. 이처럼
언어를 초월하면[絶言] 언어를 초월한 것도 얻을 수 없으니, 얻을 수 없음
을 법계해탈(法界解脫)이라고 한다.

緣集法界中，又就平等緣集法界中，復開爲三種。一者法界緣集，二者法界無障礙，三者法界解脫。若此平等，無理無教，而理而教。教理故理集也，理教故教集也，理教不二故法集也。無法無人，而法而人，人法故法集也，法人故人集也，人法不二故行集也。無行異人法，無人法異行，故大乘也。是爲大法界緣集也。若無集無散，而集而散，散集集散。乃至生死涅槃，涅槃生死，有無無有，一切無障無礙者，法界無障礙也。若集不可得，散不可得，乃至生死不可得，涅槃不可得，有不可得，二不二，亦二亦無二，無二無無二，亦亦不可得。無障礙不可得，解脫不解脫，亦不可得。如此絕言，只言絕亦不可得，不可得謂法界解脫也。

(3) 4법계와 5법계

가) 유위법계

묻는다. 원효와 법장 두 스님의 사법계와 오법계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답한다. 첫째는 유위법계(有爲法界)이다.〈두 스님이 동일하게 말함〉 두 가지 문이 있다. 첫째는 본식(本識)이 능히 모든 법의 종자를 지니고 있음을 법계라고 이름한다. 『섭대승론』에서 “시작이 없는 때로부터의 계(界)³³⁰⁾이다.” 등이라 한 것과 같다.〈이것은 같은 뜻에 따른 것이다.〉 둘째는 삼세의 모든 법의 차별의 끝을 법계라고 이름한다. 『화엄경』에서 “모든 부처님께서 과거의 모

330) 『섭대승론본(攝大乘論本)』大31 133b15~16. 無始時來界，一切法等依。由此有諸趣，及涅槃證得。진제(眞諦)와 불타선다(佛陀扇多)의 한역본에서는 찾아지지 않는다.

든 법계를 모두 남김 없이 알고, 미래의 모든 법계를 모두 남김 없이 알고, 현재의 모든 법계를 모두 남김 없이 안다.”³³¹⁾ 고 하였기 때문이다.³³²⁾

問, 曉與藏二師, 四乃五法界, 同異云何?

答, 初有爲法界. 〈二師同云〉有二門. 一本識, 能持諸法種子, 名爲法界. 如論云, “無始時來界”等〈此約同義〉二三世諸法差別邊際, 名爲法界. 經云, “一切諸佛, 知過去一切法界, 悉無有餘, 知未來一切法界, 悉無有餘, 知現在一切法界, 悉無有餘”故.

나) 무위법계

둘째는 무위법계(無爲法界)이다. 〈두 스님이 동일하게 말함〉 역시 두 가지 문이 있다. 첫째는 본성이 청정한 문[性淨門]으로 범부의 위치에 있지만 본성이 항상 청정하기 때문이다. 진공(眞空)³³³⁾이 한 가지 맛이어서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이 뜻은 『대지도론(大智度論)』³³⁴⁾ 등에 나온다.〉 둘째는 더러움을 떠나는 문[離垢門]이다. 대치(對治)³³⁵⁾로 말미암아 비로소 청정함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수행의 얕고 깊음을 따라 열 가지 종류로 나누기 때문에

331) 『화엄경』 권31 「불부사의법품(佛不思議法品)」 大9 p.597c12~14.

332) 『화엄경탐현기』 권18 大35 p.440b27~c4. 初有爲法界有二門. 一本識能持諸法種子名爲法界. 如論云, 無始時來界等. 此約同義. 二三世諸法差別邊際名爲法界. 不思議品云, 一切諸佛知過去一切法界悉無有餘, 知未來一切法界悉無有餘, 知現在一切法界悉無有餘等.

333) 진공(眞空): 진여의 이성(理性)은 일체 미혹한 생각으로 보는 형상을 여의었으므로 진공이라고 함.

334) 『대지도론(大智度論)』: 『대품반야경(大品般若經)』의 주석서. 산스크리트 원전은 없고 구마라집(鳩摩羅什)의 한역본만이 전한다.

335) 대치(對治): ①pratipakṣa. 도(道)로써 번뇌를 끊는 것. 번뇌를 끊는데 4가지의 대치가 있다고 한다.

편만법계(遍滿法界) 등 열 종류의 법계가 있다.<이 뜻은 『중변론(中邊論)』³³⁶⁾ 등에 나온다.>³³⁷⁾³³⁸⁾

二無爲法界. <二師同云> 亦有二門. 一性淨門, 謂在凡位, 性恒淨故. 真空一味, 無差別故. <此義出智度論等> 二離垢門, 謂由對治, 方顯淨故. 隨行淺深, 分十種故. 如遍滿等十種法界. <此義出中邊論等>

다) 역유위역무위법계

셋째는 역유위역무위법계(亦有爲亦無爲法界)이다.<법장 스님이 말함> 두 가지 문이 있다. 첫째는 형상을 따르는 문[隨相門]이다. 수온(受蘊)³³⁹⁾ · 상온(想蘊)³⁴⁰⁾ · 행온(行蘊)³⁴¹⁾ 및 다섯 종류의 색(色)³⁴²⁾, 그리고 여덟 가지 무

336) 『중변론(中邊論)』: 『중변분별론(中邊分別論)』, 대립하는 2변(邊)을 지양한 중도의 의의를 분별해서 논한 것이다. 세친(世親)이 저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계송은 무착(無着)이 미륵(彌勒)에게서 전수받아 세친에게 전한 것이고 장행 부분만 세친이 지은 것이다.

337) 『중변분별론(中邊分別論)』 大31 p.454c21~455a12에는 수행의 차이에 따른 법계에 대한 설명이 있다.

338) 『화엄경담현기』 권18 大35 p.440c4~7. 二無爲法界亦有二門. 一性淨門, 謂在凡位性恒淨故, 真空一味無差別故. 二離垢門, 謂由對治方顯淨故, 隨行淺深分十種故.

339) 수온(受蘊): 괴로움과 즐거움, 또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을 느끼는 마음의 작용.

340) 상온(想蘊): 어떤 일이나 사물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상상하여 보는 여러 가지의 감정과 생각

341) 행온(行蘊): ⑤saṃskāra-skandha, 5온의 하나. 4대로 이루어진 색온(色蘊)이 수·상의 2온(蘊)을 거치면서 더욱 단단하게 집착이 가해진 상태이다.

342) 『대승아비달마잡집론(大乘阿毘達磨雜集論)』 大31 p.696b27~28. “법처(法處)에 속하는 색(色)은 대략 다섯 종류가 있으니, 극락색(極略色) · 극형색(極迥色) · 수소인색(受所引色) · 편계소기색(遍計所起色) · 자재소생색(自在所生色)을 말한다. 法處所攝色者 略有五種 謂極略色 · 極迥色 · 受所引色 · 遍計所起色 · 自在所生色”

위(無爲)³⁴³⁾를 이르니, 이 열 여섯 가지 법은 오직 의식(意識)이 아는 것이기 때문에 18계 중에 법계라고 이름한다. 12처 문도 법처(法處)라고 한다.〈이 뜻은 『대법론(對法論)』³⁴⁴⁾에 나온다. 원효공은 이것을 세 번째 문으로 하였다.〉둘째는 걸림이 없는 문[無礙門]이다. 일심법계(一心法界)를 말하니, 진여문과 생멸문의 두 가지를 포함하고 유위와 무위가 의지하는 바를 통틀어 만든다. 진속법(眞俗法)에 치우치는 곳이 없으며, 일체문에서 통하지 않는 바가 없다. 이 때문에 장애가 없다[無礙]고 설하여 이름한다. 그것은 물을 포섭한 파도는 조용하지 않고, 파도를 포섭한 물은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다. 때문에 『화엄경』에서 “무위계(無爲界)에서 유위계(有爲界)가 나오는데 무위의 본성을 허물지 않으며, 유위계에서 무위계가 나오는데 유위의 본성을 허물지 않는다.”³⁴⁵⁾고 하였다.³⁴⁶⁾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³⁴⁷⁾에서 “하나의 법계

라고 하였다.

343) 『대승아비달마잡집론』 大31 p.702a29~702b3, “이 무위법은 다시 여덟 가지 종류가 있으니, 선법진여(善法眞如)·부선법진여(不善法眞如)·무기법진여(無記法眞如)·허공(虛空)·비택멸(非擇滅)·택멸(擇滅)·부동(不動)·상수멸(想受滅)을 말한다.(此無爲法, 復有八種, 謂善法眞如 不善法眞如 無記法眞如 虛空非擇滅擇滅 不動及想受滅.)”라고 하였다.

344) 『대법론(對法論)』: 『대승아비달마잡집론(大乘阿毘達磨雜集論)』, 『대승아비달마집론』을 주석한 것으로서, 유가행과의 법상을 해설한 이 논서는 법상종(法相宗)에서 소의(所依)로 하는 11논 가운데 하나이다. 무착의 제자인 사자각(師子覺)이 저술한 『대승아비달마집론』에 대한 주석서를 안혜(安慧)가 『대승아비달마집론』과 합하여 편찬한 것이다.

345) 『화엄경』 권15 「십회향품(十廻向品)」 大9 p.496b10~12.

‘其猶攝水之波’부터는 『화엄경탐현기』 大16 p.440c12~15에서 인용하였다.

346) 『화엄경탐현기』 권18 大35 p.440c7~15. 三亦有爲亦無爲者. 亦有二門. 一隨相門, 謂受想行蘊及五種色并八無爲, 此十六法唯意識所知, 十八界中名爲法界, 二無礙門, 謂一心法界具含二門, 一心眞如門, 二心生滅門, 雖此二門, 皆各總攝一切諸法, 然其二位恒不相雜. 其猶攝水之波非靜攝波之水非動. 故廻向品云, 於無爲界出有爲界而亦不壞無爲之性, 於有爲界出無爲界而亦不壞有爲之性.

(法界)에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서로 응하지 않아서 갑자기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무명(無明)이라고 한다.”³⁴⁸⁾라고 하였다.〈원효공은 이것을 넷째 문으로 하였다. 이 경의 중지는 바로 여기에 있다. 겹하여 세 가지가 있으나 앞에서는 이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三亦有爲亦無爲法界者. 〈法藏師云〉亦有二門. 一隨相門. 謂受想行蘊, 及五種色, 并八無爲, 此十六法, 唯意識所知故, 十八界中名法界也. 十二處門, 亦名法處. 〈此義出對法論也. 曉公此爲第三門〉二無礙門. 謂一心法界, 含有真如生滅二, 通作有爲無爲所依. 於真俗法, 無所偏黨, 於一切門, 無所不通. 是故說名無礙. 其猶攝水之波非靜, 攝波之水非動. 故經云, “於無爲界, 出有爲界, 而亦不壞無爲之性, 於有爲界, 出無爲界, 而亦不壞有爲之性.” 起信論云, “不達一法界, 故心不相應, 忽然念起, 名爲無明.” 〈曉公此爲第四門. 此經宗正在此中. 兼有三, 前不出此故.〉

라) 비유위비무위법계

넷째는 비유위비무위법계(非有爲非無爲法界)이다. 역시 두 가지 문이 있다.〈이 뒤로는 모두 법장 스님이 말한 것이다.〉 첫째는 형태가 사라지는 문[形奪門]이다. 조건이 원리의 조건이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유위(有爲)가 아니며, 원리가 조건의 원리가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무위(無爲)가 아니다. 법

347) 『기신론(起信論)』: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 마명(馬鳴)이 짓고 진제(眞諦)가 한역. 범본이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저자가 마명이라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 하여 진위 논쟁이 벌어졌으며, 지금은 대체로 중국 찬술설을 인정하는 경향이 다. 대승의 법(法)과 의(義) 및 대승에 대한 신심(信心)과 수행을 설한 논서로써, 이론과 실천의 두 측면에서 대승불교의 중심사상을 요약하여 설한다. 이 논서는 화엄종·천태종·선종·정토종·진언종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348) 『대승기신론』 大32 p.577c5~7.

의 본질은 평등하여 형태가 사라지고 (유위 무위) 둘 다 없어진다. 『대품반야경(大品般若經)』³⁴⁹⁾ 제39권에서 “수보리가 부처님께 ‘이 법은 평등한데 이것이 유위법입니까, 무위법입니까?’라고 사뢰었다. 부처님께서 ‘유위법도 아니며, 무위법도 아니다. 왜 그러한가? 유위법을 떠나서 무위법을 얻을 수 없고, 무위법을 떠나서 유위법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이것은 유위성(有爲性)이며 무위성(無爲性)이다. 이 두 법은 합쳐지지도 않고 흩어지지도 않는다.’라고 하셨다.”³⁵⁰⁾ 라고 하였다. <이것을 이른 것이다.> 둘째는 의지함이 없는 문[無寄門]이다. 이 법계는 형상을 떠나고 본성을 떠났기 때문에 (유위도 무위도) 아니다. 형상을 떠났기 때문에 유위가 아니고, 본성을 떠났기 때문에 무위가 아니다. 또 이것은 진제(真諦)이기 때문에 유위가 아니며, 안립제(安立諦)³⁵¹⁾이기 때문에 무위가 아니다. 또 두 가지 이름과 말로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둘 다 아니다. 『해심밀경(解深密經)』³⁵²⁾ 제1권에서 “일체법은 대략 두 종류가 있는데 유위와 무위이다. 이중 유위는 유위도 아니고 무위도 아니며, 무위는 무위도 아니고

349) 『대품반야경(大品般若經)』: 『대반야바라밀다경(大般若波羅蜜多經)』. 구마라집 등이 부분적으로 번역한 것은 많이 있었으나 현장이 전부 다 번역하여 끝마쳤다. 반야부의 여러 경전들을 집대성한 것으로, 현장 당시까지 번역된 경전과 현장이 새로 번역한 경전을 총체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350) 『대반야바라밀다경』 권26 大8 p.415b13~20.

351) 안립제(安立諦): 생각과 말로 미치지 못하는 진여를 가설로 차별과 명목을 세워 나타냄을 말한다.

352) 『해심밀경(解深密經)』: 유식(唯識)의 깊은 뜻을 8품으로 나누어 설한 경전. 중기 대승경전에 속하며, 정확한 성립 연대는 알 수 없으나 무착(無着, 385~470)의 저술인 『섭대승론』에 인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유식의 경계를 밝히고 유식의 관법과 행과(行果), 그리고 최고의 경지는 유무(有無)의 2가지 모습과 분별지를 떠나 있다는 것과 아뢰야식의 나타남과 그 3가지 성품을 밝혔다.

유위도 아니다.”³⁵³⁾라고 하였다.(여기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설명하였다.)³⁵⁴⁾

四非有爲非無爲者，亦有二門.〈自此以後共法藏師述之〉一形奪門. 謂緣無不理之緣故，非有爲，理無不緣之理故，非無爲. 法體平等，形奪雙泯. 大品三十九云，“須菩提白佛言，‘是法平等，爲是有爲，是無爲法.’ 佛言，‘非有爲法，非無爲法. 何以故. 離有爲法無爲法不可得³⁵⁵⁾，離無爲法有爲法不可得. 須菩提，是有爲性無爲性，是二法，不合不散.’”〈此之謂也〉二無寄門. 謂此法界，離相離性故，非此二. 由離相故，非有爲，離性故，非無爲. 又由是真諦故，非有爲，由是³⁵⁶⁾安立諦³⁵⁷⁾故，非無爲. 又非二名言所能至故，是故俱非. 解深密經第一云，“一切法者，略有二種，所謂有爲無爲. 是中有爲，非有爲非無爲，無爲³⁵⁸⁾，非無爲非有爲.”〈乃至廣說〉

353) 『해심밀경』 권1 大16 p.688c23~26, 一切法者略有二種, 一者有爲, 二者無爲. 是中有爲, 非有爲非無爲, 無爲, 亦非無爲非有爲.

354) 『화엄경담현기』 권18 大35 p.440c15~29. 四非有爲非無爲者亦二門. 一形奪門, 謂緣無不理之緣故非有爲, 理無不緣之理故非無爲, 法體平等形奪雙泯. 大品經三十九云, 須菩提白佛言, 是法平等, 爲是有爲法, 爲是無爲法. 佛言非有爲法非無爲法, 何以故. 離有爲法無爲法不可得, 離無爲法有爲法不可得. 須菩提是有爲性無爲性. 是二法不合不散, 此之謂也. 二無寄門, 謂此法界離相離性故非此二. 由離相故非有爲, 離性故非無爲. 又由是真諦故非有爲, 由非安立諦故非無爲. 又非二名言所能至故, 是故俱非. 解深密經第一云, 一切法者略有二種, 所謂有爲無爲, 是中有爲非有爲非無爲, 無爲非無爲非有爲. 乃至廣說.

355) 의미로 보아 得 보완.(김천학, p.253 주 983) 참조)

356) 『담현기』에도 非로 되어 있으나 의미로 보아 『담현기』 다른 유통본의 是를 따름.(김천학, p.253 주 985) 참조)

357) 『담현기』에 따라 諦 보완

358) 『해심밀경』과 『담현기』에 따라 無爲 보완

마) 무장애법계

다섯째는 무장애법계(無障礙法界)이다. 역시 두 가지 문이 있다. 첫째는 널리 포섭하는 문[普攝門]이다. 위의 네 가지 문은 하나를 따르면 나머지 일체를 포섭함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선재동자가 혹은 산과 바다를 보고, 혹은 집과 건물을 본 것도 모두 법계에 들어간다고 한다. 둘째는 원융한 문[圓融門]이다. 원리로써 현상을 융합하기 때문에 모든 현상에 구분된 한계[分齊]가 없음을 말한다. 작은 티끌이 작지 않아서 열 가지 국토를 수용하며, 국토의 바다가 크지 않아서 티끌에 스며들어감을 말한다. 현상으로써 원리를 융합하기 때문에 모든 원리는 한계가 없지 않다. 하나와 여럿이 결립이 없는 것을 말하니, 혹은 일법계(一法界)라 하고 혹은 제법계(諸法界)라 한다. 「성기품(性起品)」에서 “비유하자면 제법계는 한계를 둘 수 없으니 일체는 일체가 아니며, 보는 것이 아니고 취할 수도 없다.”³⁵⁹⁾ 고 하였다. 이것은 제법이 곧 제법이 아님을 밝힌 것이다. 「노사나품(盧舍那品)」에서 “이 연화장 세계 안에서 하나하나의 작은 티끌 가운데 일체 법계를 본다.”³⁶⁰⁾ 고 하였다. 이것은 하나가 곧 하나가 아님을 밝힌 것이다. 그러므로 선재동자가 혹 잠시 손을 잡으니 많은 겁이 지나고, 혹은 누각에 들어가 널리 삼천세계를 본다고 한 것이 모두 이런 부류이다.

위의 다섯 가지 문과 열 가지 뜻은 법계에 들어가는 것을 총괄적으로 밝힌 것이다. 마땅히 총상·별상의 원융한 육상(六相)을 준거로 해야 한다.³⁶¹⁾

五無障礙法界者。亦有二門。一普攝門。謂於上四門，隨一卽攝餘一切故。是故善財，或觀山海，或見堂宇，皆名入法界。二

359) 『화엄경』 권33 「보왕여래성기품(寶王如來性起品)」 大9 p.614c16~17.

360) 『화엄경』 권3 「노사나불품」 大9 p.412c7~8.

361) 『화엄경담현기』 권18 大35 p.440c29~441a14. 此明諸則非諸也를 此明諸也로 쓴 외에는 모두 일치한다.

者圓融門。謂以理融事故，全事無分齊。謂微塵非小，能容十刹，刹海非大，潛入塵也。以事融理故，全理非無分。謂一多無礙，或云一法界，或云諸法界。性起品云，“譬如諸法界，分齊不可得，一切非一切，非見不可取。”此明諸則非諸³⁶²也。舍那品云，“於此蓮華藏世界之內，一一微塵中，見一切法界。”此明一卽非一也。是故善財或暫時執手，遂經多劫，或入樓觀，普見三千，皆此類也。

上來五門十義，總明所入法界。應以總別圓融六相准之。

8. 일승의 의미[一乘義]

세 가지 문(門)은 앞과 같다.

1) 이름을 풀이함

일(一)은 다른 것이 없다는 뜻이다. 원인은 달리 향하는 바가 없고 결과는 달리 받음이 없어, 원인과 결과가 서로 성립하더라도 그 본질은 성립되지 않음을 일이라고 이름한다. 승(乘)은 실어 나른다는 뜻이다. 움직여서 사람을 운반하여 타는 것이기 때문에 승(乘)이라고 이름한다. 또 일도(一道)는 모든 성인이 다니는 길이며, 따로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일도라고 한다. 도(道)는 잘 통한다는 것을 의미로 삼으며, 승(乘)은 잘 옮기는 것을 공능으로 삼는다. 승은 움직여서 나아가고, 나아가 보리에 이른다. 도(道)는 고요하면서 통하고, 통하여 열반에 들어간다.

362) 『담현기』에 의해 則非諸 보완.

만일 이러한 뜻에 의한다면 본질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다만 도(道)는 승(乘)이 없고 행(行)은 나아가 향함이 있어, 오직 승만 있으면 도에 어긋난다. 또 『경』에서 “즉 이 법계에서 다섯 가지 도(道)에 유전하면 중생이라고 하며, 흐름을 돌이켜 근원을 다하면 부처라고 설하여 이름한다.”³⁶³⁾라고 한 것과 같다. 만일 이 뜻에 의하면 본질은 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을 따라 움직이고 움직임이 있으니 승(乘)의 뜻에 정확하게 해당한다. 행(行)은 생겨나고 없어지지만 감도 없고 옴도 없기 때문에 옮겨 움직임이 없으니 도(道)의 이름에 바로 해당한다.

깨뚫어 말해보면, 원리 가운데 도(道)와 승(乘)의 뜻을 갖추고 있다. 형상을 떠난 문[離相門]에서 보면 본래 고요하기 때문이고, 본성을 떠난 문[離性門]에서 보면 조건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작용[行] 가운데에도 도(道)와 승(乘)의 두 가지 의미를 갖추고 있다. 생겨나고 없어지는 문[生滅門]에 의하면 옮겨 움직임이 없기 때문이고, 서로 이어지는 문[相續門]에 의하면 옮겨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 명칭에 의하여 언어대로 뜻을 취하면 이것을 지혜의 장애라고 말한다. 모든 얻는 것이 있는 것은 승(乘)이 아니다. 이는 곧 본질[理]이거나 작용[行]이거나 모두 얻는 것이 없어야 비로소 성인이 다니는 곳이며

363) 여기에서 말하는 경은 『불설부증불감경(佛說不增不減經)』이다. 법장은 경의 인용이라 하여 이곳의 인용과 비슷한 구절을 말하였는데, (『화엄경탐현기』 권2 大35 p.130c21. 故經云, 法身流轉五道名曰衆生.; 권15 p.384c23~24.) 실제 『부증불감경』의 명칭을 언급한 부분에서는 경설의 내용과 비슷하게 서술하였다. (『탐현기』 권6 大35 p.226a29~b2. 不增不減經云, 衆生界法界無二無別, 卽此法身以惑汚故流轉五道名爲衆生.) 『부증불감경』의 해당 부분은 (大16 p.467b6~8.) “舍利弗, 卽此法身過於恒沙, 無邊煩惱所纏從無始世來隨順世間, 波浪漂流往來生死名爲衆生.” 이다. 원효의 『대승기신론별기』에도 비슷한 인용이 있다. (大44 p.231a9~10. 如經云, 卽此法界, 爲諸煩惱之所漂動, 流轉五道, 名爲衆.) 그러나 후반부는 전거를 확실히 알 수 없다.

타는 것이 된다. 성인이 타는 것은 작용이 없고 본질이 아니며, 성인이 타는 곳은 본질이 없고 작용이 아니다. 본질이 없고 작용이 없는 까닭에 비로소 본질과 작용이 되며, 도(道)가 없고 승(乘)이 없어야 이에 도와 승이 된다. 이름을 해석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뜻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가령 곧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명칭에 의해 뜻을 분별하더라도 다시 그 명칭의 의미를 깨뜨리지 않는다면 명칭에 얽매인다고 하지 명칭을 해석한다고 하지 않는다.<위는 원효 스님의 말이니, 마땅히 자세히 기록해서 알아야 한다.>³⁶⁴⁾

一乘義³⁶⁵⁾

三門同前.

第一釋名者. 一者無他之義. 因無異趣, 果無別酬, 因果相成, 其體不成, 名之爲一. 乘者運載之義. 行能運人, 所乘故名爲乘. 又一道, 一切聖人所遊之路, 更無別岐, 故名一道. 道以能通爲義, 乘以能運爲功. 乘動而出, 出到菩提. 道靜而通, 通入涅槃. 若依此義, 理非遷動. 但道無乘, 行有進趣, 唯乘乖道. 又如經說, “卽此法界, 流轉五道, 名爲衆生, 返流盡源, 說名爲佛.” 若依此意, 理非生滅, 故能隨緣而有運動, 正當乘義. 行是生滅, 無去無來, 故無遷動, 直當道名. 通而言之, 理中具有道乘之義. 就離相門, 本來靜故, 約離性門, 隨緣動故. 行中亦具道乘二義, 依生滅門, 無遷動故, 依相續門, 有遷動故. 若依是名, 如言取義, 是謂智障. 諸有所得非乘, 是卽若理若行, 皆無所得, 方爲聖人所遊所乘. 聖人所乘, 無行非理, 聖人所遊, 無

364) 원효의 견해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원효의 일승(一乘)에 관한 생각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365) 韓2 pp.376c20~377c20.

理非行. 所以無理無行, 方爲理行, 無道無乘, 乃爲道乘. 當知非釋名之爲難, 得意之不易耳. 設使直爾依名辨義, 不還破折其名義者, 是謂結名, 非釋名也. 〈上來元曉師言, 宜審記知之.〉

2) 본체를 드러냄

요약하여 말하면 세 가지가 있으니 본성[性], 작용[行], 작용의 결과[行果]이다. 본성에는 두 가지 뜻이 있으니 상성(常性)과 무상성(無常性)이다. 성(性)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래장의 이치로서, 강가강의 모래와 같이 많은 성덕(性德)³⁶⁶을 갖추어 작용의 결과를 가지고 바른 원인[正因]을 만들 수 있다. 『불성론(佛性論)』³⁶⁷에서 말한 것과 같다. 무상(無常)과 상(常)에 두 가지 뜻이 있으니 성종성(性種性)³⁶⁸과 습종성(習種性)³⁶⁹을 말한다. 『유가론(瑜伽

366) 성덕(性德): 만물은 모두 각각 본성에 선·악, 미(迷)·오(悟) 등 여러 가지 성능을 갖추었다는 뜻.

367) 『불성론(佛性論)』: 세친(世親) 지음. 진제(眞諦) 한역. 불성(佛性)을 체계적으로 논한 것으로서, 소승(小乘)·외도(外道)·대승(大乘)의 일부 무리가 일체 중생에게 모두 불성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음을 논박하여 중생에게는 모두 본래부터 불성이 갖추어 있는 것을 밝혔다.

368) 성종성(性種性): 선천적으로 갖추고 있는 깨달음의 소질 또는 보살의 인행(因行)으로부터 과(果)에 이르는 행위종성(行位種性)을 6위로 나눈 것. (1) 습종성(習種性), 10주위(住位)로 공관(空觀)을 연습하여 견惑(見惑)·사惑(思惑)을 깨뜨리는 성(性). (2) 성종성(性種性), 10행위(行位)로서 공(空)에 머물지 않고, 나아가 가성(假性)을 분별하는 성(性). (3) 도종성(道種性), 10회향위(廻向位)로서 중도(中道)의 묘관(妙觀)을 닦아 온갖 불법을 통달하는 성(性). (4) 성종성(聖種性), 10지(地)위로서 중도의 묘관에 의하여 무명(無明)의 일부를 깨뜨리고 성위(聖位)에 증입(證入)하는 성(性). (5) 등각성(等覺性), 다음의 묘각(妙覺)에 대하여 오직 한 등급(等級)의 차가 있을 뿐으로 전의 모든 위보다 나은 위. (6) 묘각성(妙覺性), 단증(斷證)이 끝나고 3각(覺)이 완전한 위임는 불과(佛果)

369) 습종성(習種性): 수행 등에 의해 후천적으로 갖추게 된 깨달음의 소질

論』³⁷⁰⁾에서 말한 것과 같다.) 작용의 본질은 발심한 이후 등각(等覺) 이후까지 닦는 만행을 그 본질로 삼는다. 결과의 본질은 묘각지(妙覺地)³⁷¹⁾ 중에서 삼신(三身)의 깨달음을 그 본질로 삼는다.

원효스님이 말했다. “또한 교법에 의거해서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진리를 궁극까지 설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 왜 그런가? 이(理)이고 사(事)이며, 염(染)이고 정(淨)인 모든 법이 모두 승(乘)의 본질이니, 어떤 곳에 법이 있으면서도 승(乘)이 아닌 것이 있겠는가?”

第二出體. 略說有三, 謂性行行果. 性有二義, 謂常無常性. 言性者, 如來藏理, 具恒沙性德, 能與行果而作正因. 〈如佛性論說〉無常常者, 有二義, 謂性種性及習種性. 〈如瑜伽論說〉行體者, 發心已去, 等覺以還, 所修萬行, 以爲其體. 果體者, 妙覺地中, 三身菩提, 以爲其體. 曉云, “且依法門, 應作是說, 盡理而說, 未必然也. 何者? 若理若事, 若染若淨, 一切諸法, 皆是乘體. 何處有法而非乘耶?”

3) 문답으로 분별함

묻는다. 어떻게 일체의 모든 법이 모두 승(乘)의 본질[體]인지 알 수 있

370) 『유가론(瑜伽論)』: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미륵보살 짓고, 무착보살 엮음. 현장(玄奘) 한역. 유가행자(瑜伽行者)의 경(境)·행(行)·과(果) 및 아뢰야식설·삼성설·삼무성설·유식설 등에 대해 해설한 논서로서 대승불교 완성기의 사상을 대표한다. 유식학파의 중도설과 연기론 및 3승교의 근거가 되며, 특히 법상종(法相宗)의 중요 논서이다.

371) 묘각지(妙覺地): 보살 수행의 지위 점차인 52위(位)나 41위의 마지막 지위. 등각위(等覺位)에 있는 보살이 다시 1품의 무명을 끊고 이 지위에 들어간다. 온갖 번뇌를 끊어버린 부처님의 자리이다.

는가?

답한다. 원효공께서 말했다. “기바(耆婆)³⁷²⁾라는 의사가 항상 「천하에 있는 것 중에 약이 아닌 것이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보살도 그렇다. 일체법을 설함에 깨달음이 아닌 것이 없다.³⁷³⁾ 또 『경』에서 ‘음욕이 곧 도(道)이며, 성내는 것과 어리석음도 또한 그렇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일 중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의 도(道)가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음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도를 분별한다면, 이 사람은 부처님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니 마치 하늘과 땅과 같다.’³⁷⁴⁾ 고 하였다. 이러한 글들에 의해 모든 법이 도가 아님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글은 대략 몇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자성정심(自性淨心)을 도제(道諦)³⁷⁵⁾라고 한다. 일체의 모든 법은 본성이 공(空)하지 않음이 없고, 본성이 공한 것은 본성이 청정한 깨달음[性淨菩提]이다. 그러므로 모든 법은 깨달음이 아닌 것이 없다고 설한다. 둘째는 계율·선정·지혜 등을 도(道)라고 한다. 계율·선정·지혜의 본연과 음욕·성냄·어리석음의 본연은 오직 하나같아서 둘도 없고 구별도 없다. 그래서 음욕 등이 곧 도라고

372) 기바(耆婆): ①Jīvaka, 인도의 사위성에 살던 의사. 기바가(耆婆伽)·시박가(時縛迦·尸縛迦)·기바(祇婆)·시바(時婆)라고도 한다. 석가모니에게 귀의하여 석가의 풍병과 아나율의 눈병, 아난의 창병 등을 치료하여 의왕으로 존경받았다.

373) 『대방등대집경(大方等大集經)』 권9 大13 p.54c28~55a1. 舍利弗, 如耆婆醫王常作是言. 天下所有無非是藥. 菩薩亦爾, 說一切法無非菩提.

374) 『대지도론』 권6 大25 p.107c21~24. 婬欲卽是道, 恚癡亦如是, 如此三事中, 無量諸佛道. 若有人分別, 婬怒癡及道, 是人去佛遠, 譬如天與地.

『제법무행경(諸法無行經)』 大15 p.759c13~16. 貪欲是涅槃, 恚癡亦如是, 如此三事中, 有無量佛道. 若有人分別, 貪欲瞋恚癡, 是人去佛遠, 譬如天與地.

375) 도제(道諦): ①mārga-satya, 사제(四諦)의 하나. 번뇌와 업을 끊고 열반에 도달하는 길을 이른다.

설한다. 셋째는 무분별지(無分別智)³⁷⁶⁾가 도(道)이다. 바른 본질인 무분별지는 진여를 증득할 때 삼세의 모든 법이 함께 일심(一心)에 드러나니, 하나의 법도 깨달은 마음을 떠나서 있지 않다. 그래서 나고 죽음과 도가 합치한다고 설한다. 넷째는 법계는 법 그대로이다. 일체의 모든 법이 서로 끼어드는 것이, 마치 시방 삼세가 모두 하나의 티끌에 들어가고 하나의 티끌이 시방세계에 들어가며, 한 생각이 한없는 시간에 들어가고 한없는 시간이 한 생각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처럼 모든 부처님의 지혜가 탐욕스러운 마음에 들어가고, 한 생각의 탐욕스러운 마음이 모든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간다. 그래서 나고 죽음이 도와 합치한다고 설한다. 다섯째는 막힘과 걸림 없는 법계의 법문에 의지함이다. 단지 하나와 일체가 다시 서로 끼어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의 법이 일체이며 모든 법이 하나이다. 그래서 음욕 등이 곧 도라고 설한다. 여섯째는 자기의 마음이 없음[無自心]에 이르러 들어가는 것이다. 일체는 마음으로써 마음을 삼으며 여래는 자기의 몸이 없어 일체의 몸을 몸으로 삼는다. 그 까닭은 오랜 시간 동안 쉼 없이 무아관(無我觀)³⁷⁷⁾을 닦아서 자기의 몸과 마음이 없다는데 이르며, 3아승기 겁³⁷⁸⁾ 동안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복을 쌓았기 때문에 일체의 자기의 마음

376) 무분별지(無分別智) : ㉠nirvikalpa-jñāna, 올바르게 진여를 체득하는 지혜, 진여의 모양은 우리들의 언어나 문자로서는 어떻게 형용할 수도 분별할 수도 없으므로, 분별심을 가지고는 그 체성에 계합할 수 없다. 그리하여 모든 생각과 분별을 여윈, 모양 없는 참 지혜로만 비로소 알 수 있다. 이런 지혜를 무분별지라 한다.

377) 무아관(無我觀) : 오정심관(五停心觀)중 하나. 우리들의 몸과 마음은 지·수·화·풍·공·식 등 6종의 원소가 가(假)로 모인 것이므로 어떠한 모양이나 실체가 없다고 관하는 것이다.

378) 원문의 삼무수겁(三無數劫)은 삼아승기겁(三阿僧祇劫). 삼무수대겁(三無數大劫)·삼겁(三劫)이라고도 한다. 보살이 수행을 모두 마쳐 성불에 이르는데 필요한 시간. 아승기(阿僧祇, ㉠asamkhyā)는 헤아릴 수 없는 수, 곧 겁(劫)을 말한다. 매우 오랜 시간을 일컫는 이름이다. 대(大)·중(中)·소(小)의 삼겁의 구분이 있

을 감득할 수 있다. 만일 하나의 형상을 두어 자신의 본질로 삼는다면 아집(我執)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니 성인이라 할 수 없다. 하나의 형상이 있어도 스스로가 갖추지 못하면 약이 갖추어지지 않아 의왕(醫王)이 되지 못한다. 참으로 얻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 없어서 이를 이름하여 원만하고 위없는 바른 깨달음[圓滿無上正等菩提]이라고 한다. 이러한 뜻에 의거하기 때문에 일체법이 깨달음이 아닌 것이 없다고 설하니, 기마가 말한 것과 같다. 이 성스러운 가르침과 모든 도리로 말미암아 마땅히 모든 법이 승의 본질임을 알아야 한다.”

법장 스님이 말했다. “일승에 두 문이 있으니 첫째는 별교(別教)이고 둘째는 동교(同教)이다. 별교 중에 다시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성해과분(性海果分)은 설명할 수 없는 의미에 해당하니, 가르침과 더불어 상응하지 않아 곧 시불의 경계이다. 둘째는 연기인분(緣起因分)이니 보현(普賢)의 경계이다. 이 두 가지는 둘이 아니어서, 전체를 두루 거두어들이니 물과 파도와 같다. 생각해보아라.”³⁷⁹⁾

第三問答.

問, 以何得知一切諸法皆是乘體?

答, 曉公云, “如耆婆醫, 常作是說. ‘天下所有莫非是藥.’ 菩薩亦爾. 說一切法莫非菩提. 又經云, ‘婬欲即是道, 患癡亦復然, 如是三事中, 無量諸佛道. 若有人分別, 婬怒癡及道, 是人去佛遠, 猶如天與地.’ 依此等文, 故知諸法莫不是道. 然此等

는데, 3번의 아승기대접을 삼아승기접이라 한다. 이 사이에 각 대접마다 각각 수만의 여러 부처님들이 출현한다고 한다.

379) 『화엄일승교의분제장』 권1 大45 p.477a13~19. 初明建立一乘者, 然此一乘教義分齊, 開爲二門. 一別教, 二同教. 初中二. 一性海果分, 是不可說義. 何以故, 不與教相應故, 則十佛自境界也. 故地論云, 因分可說果分不可說者是也. 二緣起因分, 則普賢境界也. 此二無二全體遍收, 其猶波水, 思之可見.

文，略有數意。一者自性淨心，名道諦。一切諸法，無不性空，性空亦是性淨菩提。故說諸法莫非菩提。二者戒定慧等，是名爲道。戒定慧如，姪怒癡如，唯一如無二無別。故說姪等卽是道也。三者無分別智是道。正體無分別智，證真如時，三世諸法，並現一心，無有一法離覺心。故說生死與道合也。四者法界法爾。一切諸法更相涉入，如十方三世皆入一塵，一塵亦入十方世界，一念入無量，無量入一念。如是諸佛智慧入貪心，一念貪心入諸佛慧。故說生死與道合。五者依無障礙法界法門。非但一與一切更相涉入，亦乃一法是一切，諸法卽是一。故說姪等卽是道也。六者至入無自心。一切以心爲心，如來無自身，一切身爲身。所以然者，長時無間，修無我觀，故能得至無自身心，三無數劫集無量福，故能感得一切自心。若存一相爲自體者，我執不除，非謂聖人。設有一相不自備者，卽藥不具，不作醫王。良由無所得故，無所不得，乃名圓滿無上正等菩提。依此義故，說一切法莫非菩提，如耆婆說。由此聖教及諸道理，當知諸法皆是乘體。”

法藏師云，“一乘爲二門，一別教，二同教。初中亦二。一是性海果分，是當不可說義，不與教相應，卽十佛境界。二緣起因分，卽普賢境界也。此二無二，全體遍收，猶水波。思之。”

9. 교법을 나누는 의미[分教義]

세 가지 문(門)은 아래와 같다.

1) 이름을 풀이함

분(分)이라 하는 것은 나눈 범위[分齊]이고, 또 나누어 판별한다는 의미이다. 교(敎)는 교법(敎法)이니, 설명된[所詮] 의미의 얕고 깊음에 따라 설명하는[能詮] 교법 역시 차별이 있다.

법장 스님은 말했다. “가르침의 종류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이것은 뜻에 대해 나눈 것으로 시기와 형식[事]에 따른 것이 아니다. 첫째는 소승교(小乘敎)이고, 둘째는 대승시교(大乘始敎)〈초교(初敎)라고도 한다〉이고, 셋째는 종교(終敎)〈취교(就敎)라고도 한다〉이고, 넷째는 돈교(頓敎)이고, 다섯째는 원교(圓敎)〈지설교(至說敎)라고도 하며, 이 별교(別敎)와 같다〉이다.

첫째 소승교는 알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승시교는 『해심밀경』 중의 제2, 제3시교가 똑같이 정성이승(定性二乘)³⁸⁰⁾은 모두 부처가 될 수 없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합쳐서 총괄하여 한 가지 가르침이 된다. 이것은 아직 대승의 법과 이치를 다하지 못

380) 정성이승(定性二乘): 정성연각(定性緣覺)과 정성성문(定性聲聞). 정성(定性)은 보살·연각·성문의 삼승에 각각 그렇게 될 유일한 종자를 갖춘 중생을 말한다. 이에 비해 세 종자를 갖추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부류를 부정성(不定性)이라 한다. 부정성은 이승의 수행을 한 뒤 대승으로 전향할 수도 있지만 정성연각과 정성성문은 각각 벽지불과와 아라한과만을 얻도록 정해진 부류이다. 법상종에서는 중생이 선천적으로 갖지 않은 성질을 가진 다섯 가지 부류로 나뉜다고 한다[五姓各別]. 그중의 첫째 보살정성에 이어 둘째 셋째가 정성이승이고, 그 다음은 부정중성(不定種性)과 무중성(無種性)이다. 무정성은 영원히 미혹한 세계에 빠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고 선인을 닦아야 인천에 태어날 수 있는 부류를 말한다.

했기 때문에 대승시교를 세운다. 셋째 종교는 정성이승과 무성천제(無性闡提)³⁸¹⁾가 모두 마땅히 부처가 되어 바로 대승의 지극한 가르침을 다한 설법이므로 종교를 세운다. 그러나 위의 (시교와 종교의) 두 가르침은 모두 교화의 지위에 따라 점차로 수행이 완성되므로 모두 점교(漸敎)라고 한다. 그래서 『법고경(法鼓經)』³⁸²⁾ 중에서, ‘공문(空門)으로 처음을 삼고 불공문(不空門)으로 끝을 삼는다.’³⁸³⁾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 경에서 ‘가섭이 부처님께 사죄기를, 「모든 대승 경전은 공(空)의 의미를 많이 설합니다.」라고 하니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이르시되, 「모든 공에 관한 경전에도 더 설할 것이 있으나, 오직 이 경전만이 위 없는 설법으로써 더 설할 것이 없다.」³⁸⁴⁾고 하셨다.’라고 하였다.³⁸⁵⁾〈이는 곧 공의 이치로 보면 나머지가 있어서 시교라고 하며, 여래장으로 보면 항상 위 없는 곳에 머무르므로 종교라고 한다.〉³⁸⁶⁾ 넷째 돈교는 단지 한 생각도 생기지 않는 것을 곧 부처라고 한다. 위치(位地)에 의해 점차 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교를 세운다. 『사익경(思益經)』³⁸⁷⁾에서 ‘모든

381) 무성천제(無性闡提): 일천제(一闡提). 성불의 인(因)이 없어서 성불할 수 없는 중생. 오성각별의 다섯째 무중성.

382) 『법고경(法鼓經)』: 대법고경(大法鼓經). 구나발타라(求那跋陀羅)가 한역하였다. 불명(佛名)의 공덕과 열반의 상주(常住), 그리고 중생들에게 여래장이 있음을 말하고, 『법화경』에 나오는 궁자(窮子)와 화성(化城)의 두 비유를 들어 3승은 방편이요 1승이 진실임을 밝혔다.

383) 이는 『오교장』에서 출처를 『대법고경』이라 한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384) 『대법고경』 권2 大9 p.296b8~10.

385) 법장의 해석 중에서 나머지는 『탐현기』의 인용이나 이 부분은 『화엄일승교의 분제장』(권1 大45 p.481b24~27)에서의 인용. 法鼓經中以空門爲始, 以不空門爲終. 故彼經云, 迦葉白佛言, 諸摩訶衍經多說空義. 佛告迦葉, 一切空經是有餘說, 唯有此經是無上說, 非有餘說.

386) 『화엄일승교의 분제장』 권1 大45 p.481c4~6. 此則約空理有餘, 名爲始敎. 約如來藏常住妙典, 名爲終敎.

387) 『사익경(思益經)』: 『사익범천소문경(思益梵天所問經)』. 망명(網明)과 사익범천

법의 바른 본성을 얻는 자는 하나의 지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모든 지위에 이른다.’³⁸⁸⁾ 고 한 것과 같고, 『능가경(楞伽經)』³⁸⁹⁾에서 ‘초지가 곧 팔지이니 무소유에 이르기까지 어떤 순서가 있겠는가?’라고 하였다.³⁹⁰⁾ 또 말하기를 ‘점(漸)이란 망고 열매³⁹¹⁾가 서서히 익는 것이지 갑자기 익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 돈(頓)이란 거울의 모습이 갑자기 나타나지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³⁹²⁾ 라고 하였다.³⁹³⁾ <이것을 이른다.>다섯째 원교는 하나의 지위가 일체의 지위이며, 일체의 지위가 하나의 지위임을 밝힌다. 이 때문에 십신(十信)이 마음에 가득차면 오위(五位)³⁹⁴⁾를 포섭하여 바른 깨달음 등을 이룬다. 보현법계에 의하면 제석천의 그물이 중첩되어 주체와 객체를

등을 위하여 만유제법의 공적인 이유를 말하였다.

388) 『사익법천소문경』 大15 p.36c6~8. “만일 어떤 사람이 모든 법의 바른 성(性)을 듣고 부지런히 정진하기를 설한 것처럼 수행한다면 일지(一地)에서 (다른) 일지(一地)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若人聞是諸法正性 勤行精進, 是名如說修行, 不從一地至一地)를 다소 다르게 인용하였다.

389) 『능가경(楞伽經)』: 『대승입능가경(大乘入楞伽經)』. 부처님이 능가산에서 대혜보살(大慧菩薩)을 위하여 여래장(如來藏) 연기(緣起)의 이치를 설한 것이다.

390) 『능가경』을 인용한 것은 『화엄일승교의분제장』 권1(大45 p.481b15~19)에서 인용하고 있다. 따라서 『탐현기』와 『오교장』에서 필요에 따라 인용했음을 알 수 있다.

391) 원문의 엄마룩과(掩摩勒菓)는 아마룩과(阿摩勒果)를 말한다. āmāla, āmlīkā, 여감자(餘甘子)라고 의역한다. 신 맛이 나는 과일로 식용 또는 약용으로 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능가경』에서 말한 것처럼 흔히 인도의 맛있는 과일로 꼽는 망고가 맞다. 망고는 암몰라(菴沒羅, āmra) 또는 암마라(菴摩羅)·암라(菴羅) 등으로 음역한다.

392) 『대승입능가경(大乘入楞伽經)』 권2 大16 p.59a25~26. 漸淨非頓, 如菴羅果漸熟非頓; b4~5. 漸而非頓, 譬如明鏡頓現衆像而無分別.

393) 『화엄일승교의분제장』 권1 大45 p.481b15~19. 故楞伽云, 漸者如菴摩勒果漸熟非頓, 此之謂也. 頓者言說頓絕理性頓顯解行頓成一念不生, 即是佛等. 故楞伽云, 頓者如鏡中像頓現非漸, 此之謂也.

394) 오위(五位): 수행의 다섯 단계. 10신, 10주, 10행, 10회향, 10지.

갖추기 때문에 원교라고 하니 이 경전 등에서 설한 것과 같다.”³⁹⁵⁾

分教義³⁹⁶⁾

三門同前.

第一釋名者. 言分者分齊, 亦分判義. 教者教法, 謂所詮義隨淺深, 能詮之教亦有差別.

法藏師云, “教類有五, 此就義分, 非約時事. 一小乘教, 二大乘始教〈亦名初教〉, 三終教〈亦名就教〉, 四頓教, 五圓教〈亦名至說教, 同此之別教〉. 初小乘可知. 二始教者, 以深密經中第二第三時教, 同許定性二乘俱不成佛故, 故令合之, 總爲一教. 此既未盡大法理, 是故立爲大乘始教. 三終教者, 定性二乘無性闡提, 悉當成佛, 方盡大乘至極之說, 立爲終教. 然上二教, 並依位地³⁹⁷⁾漸次修成, 俱名漸教. 故法鼓經中, ‘以空門爲始, 以不空門爲終.’ 故彼經云, ‘迦葉白佛言, 「諸摩訶衍經, 多說空義.」 佛告迦葉, 「一切空經是有餘說, 唯有此經是無上說, 非有餘說.」’ 〈此即約空理有餘名始教, 約如來藏常住無上名爲終教〉
四頓教者, 但一念不生, 卽名爲佛, 不依位地漸次而說, 故立

395) 『화엄경담현기』 권1 大35 p.115c4~20. 第九以義分教. 教類有五, 此就義分, 非約時事. 一小乘教, 二大乘始教, 三終教, 四頓教, 五圓教. 初小乘可知. 二始教者, 以深密經中第二第三時教同許定性二乘俱不成佛故, 今合之總爲一教. 此既未盡大乘大法理, 是故立爲大乘始教. 三終教者, 定性二乘無性闡提悉當成佛, 方盡大乘至極之說, 立爲終教. 然上二教並依地位漸次修成, 俱名漸教. 四頓教者, 但一念不生卽名爲佛, 不依位地漸次而說, 故立爲頓. 如思益云, 得諸法正性者, 不從一地至於一地, 楞伽云, 初地卽八地乃至無所有何次等. 又下地品中十地猶如空中鳥跡, 豈有差別可得. 具如諸法無行經等說. 五圓教者, 明一位卽一切位一切位卽一位, 是故十信滿心卽攝五位成正覺等, 依普賢法界帝網重重主伴具足故, 名圓教. 如此經等說.

396) 韓2 p.382c4~383c18.

397) 『오교장』에 의해 化位를 位地로 교감함.

爲頓. 如思益云, ‘得諸法正性者, 不定一地, 至於一切地.’
楞伽云, ‘初地卽八地, 乃至無所有何次?’ 又云, ‘漸者, 如掩
摩勒菓漸熟非頓, 頓者, 如鏡中像頓現非漸.’ 〈此之謂也〉五圓
教者, 明一位卽一切, 一切位卽一位. 是故十信滿心卽攝五
位, 成正覺等. 依普賢法界帝網重重主伴具足, 故名圓故. 如
此經等說.”

2) 본체를 드러냄

교법의 본질을 전체적으로 논하면 얕음에서 깊음에 이르기까지 대략 열
가지 문이 있다. 첫째, 언어로 말하여 본질을 분별하는 문[言詮辨體門], 둘
째, 말해진 것을 모두 포섭하는 문[通攝所詮門], 셋째, 두루 모든 법을 갖추
고 있는 문[遍該諸法門], 넷째, 연기는 오직 마음이라는 문[緣起唯心門], 다
섯째, 조건을 모아 실상에 들어가는 문[會緣入實門], 여섯째, 원리와 현상
이 서로 걸림이 없는 문[理事無礙門], 일곱째, 현상이 융합하여 서로 포섭
하는 문[事融相攝門], 여덟째, 제석천의 그물이 중첩되어 있는 문[帝網重重
門], 아홉째, 해인이 밝게 드러내는 문[海印炳現門], 열 번째, 주체와 객체가
원만하게 갖추어져 있는 문[主伴圓備門]이다.³⁹⁸⁾

第二出體者. 通論教體, 從淺至深, 略有十門. 一言詮辨體門,
二通攝所詮門, 三遍該諸法門, 四緣起唯心門, 五會緣入實門,
六理事無礙門, 七事融相攝門, 八帝網重重門, 九海印炳現門,

398) 『화엄경담현기』 권1 大35 p.117c10~14. 第五能詮教體者. 通論教體, 從淺至深, 略
有十門. 一言詮辯體門, 二通攝所詮門, 三遍該諸法門, 四緣起唯心門, 五會緣入實
門, 六理事無礙門, 七事融相攝門, 八帝網重重門, 九海印炳現門, 十主伴圓備門.

十主伴圓備門.

첫째, 언어로 말하여 본질을 분별하는 문[言詮辨體門]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소승(세 가지 설이 있다)이고 둘째는 대승이다. 대승 중에 네 가지 구절이 있다. 첫째는 임시적인 것을 포섭하여 진실에 의지함[攝假依實]이니, 오직 음성을 본질로 삼는다. 둘째는 거짓을 나누어 진실을 달리함[分假異實]이니, 명칭 등을 본질로 삼는다. 셋째는 임시적인 것과 진실을 합하여 분별함[假實合辨]이니, 소리도 명칭도 (본질로 삼는다.) 『십지경론(十地經論)』에서 “설하는 것은 두 가지 일로써 설하며, 듣는 것은 두 가지 일로써 듣는다.”³⁹⁹⁾라고 하였으니 음성과 명칭을 말한다. 넷째는 임시적인 것과 진실이 둘 다 부정됨[假實雙泯]이니, 소리도 명칭도 아니다. 곧 공(空)이기 때문이다. 『유마경』에서 “문자의 성질을 떠난 것, 이것이 곧 해탈이다.”⁴⁰⁰⁾라고 하였다. 이상 네 가지 구절은 하나의 가르침의 본질이다. 이 때문에 공(空)과 유(有)가 결림이 없는 것을 대승법(大乘法)이라고 한다. 공이라는 것은 유와 다르지 않으니, 유는 거짓된 유[幻有]이고, 거짓된 유는 완전하게 전체가 공이다. 유는 공과 다르지 않으니, 공은 진공이고 진공은 깊고 고요하여[湛然] 전체가 유이다. 이 때문에 공과 유는 터럭만큼의 차별⁴⁰¹⁾도 없다.⁴⁰²⁾

初中有二。先小乘〈三說云云〉後大乘。中有四句。初攝假依實，唯聲爲體。二分假異實，以名等爲性。三假實合辨，亦聲亦名

399) 『십지경론』 권1 大26 p.129a20. 說者以此二事說，聽者以此二事聞.

400) 『유마힐소설경』 권1 大14 p.540c19. 文字性離，無有文字，是則解脫.

401) 差別은 『화엄경탐현기』에는 分別임.(권1 大35 p.118a20)

402) 『화엄경탐현기』 권1 大35 pp.117c14~118a23. 법장의 설명에서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인용하였다.

等. 十地論云, “說者以二事說, 聽者以二事聞.” 謂音聲名字. 四假實雙泯, 非聲非名, 以即空故. 維摩云, “文字性離, 是即解脫.” 此上四句, 爲一教體. 是故空有無礙, 名大乘法. 謂空不異有, 有是幻有, 幻有完然舉體是空. 有不異空, 空是真空, 真空湛然, 舉體是有. 是故空有無毫差別.

둘째, 말해진 것을 모두 포섭하는 문[通攝所詮門]이다. 말하는 것에 통할 뿐만 아니라 말해진 것에도 통한다.⁴⁰³⁾ 『유가론』 81권에서 “모든⁴⁰⁴⁾ 경전의 본질은 대략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 하나는 글이며 다른 하나는 뜻이다.”⁴⁰⁵⁾라고 한 것과 같다.(해석하면 뜻은 글귀에 의지하여 드러내기 때문이다.)⁴⁰⁶⁾

二通攝所詮門者. 非但能詮, 亦通所詮, 如瑜伽八十一云, “諸契經體, 略有二種, 一文, 二義.”〈解云, 以義依文句得顯故.〉

셋째, 두루 모든 법을 갖추고 있는 문[遍該諸法門]이다. 일체의 모든 법이 모두 교법의 본질이 됨을 말한다. 유위법과 무위법으로써 중생이 깨달음을 열게 하지 못함이 없음을 말하기 때문이다. 아래 글에서 “꽃다발로 덮인 보배로운 땅과 향나무와 구름 깃 누각의 법계 법문이 부처님의 일이 아님이 없다.”라고 한 것과 같다. 마치 승음보살과 앉았던 연화대가 곧 사람과 법, 교법과 의의, 수행과 지위, 원인과 결과, 본체와 현상에 통하는 것과

403) 원문의 ‘非但能詮 亦通所詮’는 『화엄경탐현기』에서는 ‘非但如前取能詮教 亦漸通取所詮之義’이다.

404) 『유가사지론』은 謂라고 했으나 『탐현기』에서는 諸라 하였고, 이 『요결문답』은 『탐현기』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405) 『유가사지론』 권81 大30 p.750a1~2. 謂契經體, 略有二種. 一文, 二義.

406) 『화엄경탐현기』 권1 大35 p.118a23~28.

같다. <총괄하여 뛰어난 이해와 실천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모두 교법의 본질이 된다.>⁴⁰⁷⁾

三遍該諸法門者. 謂一切諸法悉爲教體. 謂有爲無爲法, 以無不能令⁴⁰⁸⁾生開覺故. 如下文, “華鬘寶地香樹雲閣, 法界法門, 無非佛事”. 如勝音菩薩及所坐蓮華, 卽通人法教義行位因果理事. <總能發生勝解行故, 並爲教體.>

넷째, 연기는 오직 마음이라는 문[緣起唯心門]이다. 이 위의 모든 차별된 교법이 모두 오직 마음이 나타난 것이 아님이 없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모두 오직 식(識)으로써 본질로 삼는다. 이상에는 두 가지 뜻이 있으니, 첫째는 본질과 그림자가 상대함[本影相對]이고 둘째는 설함과 들음을 모두 포섭함[說聽全攝]이다.

첫째 중에 네 가지 구절이 있다. 첫째는 오직 본질일 뿐 그림자는 없음[唯本無影]이다.<소승> 둘째는 본질이며 그림자임[亦本亦影]이다. 대승시교와 같다. 중생의 마음 밖에 부처의 미묘한 색과 소리 등이 있다.<호법(護法) 논사 등과 같다.> 셋째는 오직 그림자일 뿐 본질은 없음[唯影無本]이다. 대승종교와 같다. 중생의 마음을 떠나서 불과(佛果)에 색과 소리 등의 현상의 양상과 공덕이 있지 않다.<용군(龍軍)이나 견혜(堅慧)⁴⁰⁹⁾ 논사 등과 같다.> 넷째는 본질도 아니고 그림자도 아님[非本非影]이다. 돈교와 같다. 바로 마음 외에 부처의 색 등이 없고 중생의 마음 안에 나타나는 부처이다. 역시 형상이 공(空)함에 해당한다.<용수 등과 같다> 이러한 네 가지 설은 모두 하나의 교법

407) 『화엄경담현기』 권1 大35 p.118a28~b4.

408) 『담현기』에 의해 소을 수으로 교감함.

409) 견혜(堅慧) : 國Sthiramati, 서력 4~5세기 경 중인도 나란타사의 학승으로 덕혜(德慧)와 함께 유명한 스님. 저서로 『대승법계무차별론(大乘法界無差別論)』 1권과 『구경일승보성론(究竟一乘寶性論)』 5권이 있다.

의 본질로 원융하고 걸림이 없어 모두 서로 방해됨이 없다.〈각각의 성스러운 가르침은 얇은 테에서 깊은 테까지 중생을 포섭하기 때문이다.〉

둘째 설함과 들음을 모두 포섭함[說聽全攝]에도 역시 네 구절이 있다. 첫째는 마음을 떠나 그밖에 교화할 중생이 없으니 하물며 설해진 가르침에 있어 서라.〈모든 중생은 따로 자체가 없으며 여래장을 가져서 중생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여래장은 곧 부처님의 지혜를 증득하는 것을 자체로 삼으니 부처님의 마음과 지혜를 떠나서는 한 가지 법도 얻을 수 없다.〉 둘째는 모든 것이 중생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중생의 마음을 떠나서 따로 부처님의 덕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부처님이란 중생의 마음 중에서 진여를 증득하여 부처가 된 것을 말한다.〉 셋째는 하나의 성스러운 가르침에 따라 전체가 오직 두 가지 마음이니, 앞의 두 설은 서로 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중생의 마음 안의 부처가 부처의 마음 안에 있는 중생을 위해 법을 설하고, 부처의 마음 안의 중생이 중생의 마음 안의 불법을 듣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전부 받아들여 설함과 들음이 걸림이 없으니 이것을 깊고 깊은 도리라고 한다.〉 넷째는 혹 저 성스러운 가르침이 모두 두 가지 마음이 아니니, 양쪽 모두 형태를 벗어나서 나란히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고, 두 지위를 융합하여 사라지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다.⁴¹⁰⁾

四緣起唯心門者。此上一切差別教法，無不皆是唯心所現。是故俱以唯識爲體。此上有二義，一本影相對，二說聽全攝。初中四句。一唯本無影。〈小乘〉二亦本亦影。如大乘始教。衆生心外佛有微妙色聲等。〈如護法論師等〉三唯影無本。如大乘終教。離衆生心，佛果無有色聲事相功德。〈如龍軍堅慧師等〉四非本非影。如頓教中。非直心外無佛色等，衆生心內所現之佛，亦當相空。〈如龍樹等〉此前四說，總爲一教體，圓融無礙，皆無相妨。〈以各聖教，

410) 『화엄경담현기』 권1 대35 pp.118b5~119a8. 『담현기』의 이 부분의 내용을 필요에 따라 요약하여 인용하였다.

從淺至深，攝衆生故〉二說聽全攝者，亦有四句。一離心以外，無所化衆生，況所說教。〈謂諸衆生，無別自體攬如來藏，以成於衆生。然此如來藏，即是佛智證爲自體，離佛心智，無一法可得。〉二總在衆生心中，以離衆生心無別佛德故。〈謂佛證於衆生心中真如成佛〉三隨一聖教，全唯二心，以前二說不相離故。〈謂衆生心內佛，爲佛心中衆生說法，佛心中衆生，聽衆生心中佛法。如是全收，說聽無礙，是謂甚深道理。〉四或彼聖教，俱非二心，以兩俱形奪不並現故，雙融二位，無不泯故。

다섯째, 조건을 모아 진실에 들어가는 문[會緣入實門]은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근본으로써 말단을 거두어들이는[以本收末] 것이다. 모든 성스러운 가르침은 모두 진실로부터 흘러나온다.〈바다가 밀물을 일으키지만 짠 맛⁴¹¹⁾을 잃지 않는 것과 같다.〉 둘째는 양상을 모아 본성을 나타내는[會相顯性] 것이다. 저 모든 차별된 교법이 모두 연기에 따른다. 연기에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자성(自性)이 없고, 자성이 없으므로 곧 진여(眞如)이다. 그렇기 때문에 헛된 상[虛相]⁴¹²⁾이 근본으로부터 다하고 진성(眞性)이 근본으로부터 나타난다.⁴¹³⁾

五會緣入實門者，亦有二義。一以本收末，以諸聖教皆從真流。〈如海起潮，不失鹹味。〉二會相顯性，謂彼一切差別教法，悉從緣起。從緣起故必無自性，無自性故卽是真如。是故虛相本盡，真性本現。

411) 원문의 ‘鹹’은 『화엄경탐현기』에서는 ‘鹹’과 하였으나, 뜻은 같다.

412) 원문의 ‘虛相’은 『화엄경탐현기』에서는 ‘空相’이다. 그러나 의미로 보아 虛相이어야 한다고 한다.(김천학, p.313 주 1240) 참조)

413) 『화엄경탐현기』 권1 대35 p.119a8~17. 『탐현기』의 내용을 필요에 따라 요약하여 인용하였다.

여섯째, 원리와 현상이 서로 걸림이 없는 문[理事無礙門]은 역시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모든 교법은 전체가 진여이니, 현상의 양상의 뚜렷한 차별이 걸림이 없다. 둘째는 진여는 전체가 일체법이 되니, 한 가지 맛이 깊고 고요하여 평등함에 걸림이 없다. 전자는 파도가 곧 물이어서 움직이는 양상이 걸림이 없는 것과 같고, 후자는 물이 곧 파도여서 습기의 본질을 잃지 않는 것과 같다.⁴¹⁴⁾

六理事無礙門者，亦有二義。一謂一切教法舉體真如，不礙事相歷然差別。二真如舉體，爲一切法，不礙一味湛然平等。前則如波卽水，不礙動相，後則如水卽波，不失濕體。

일곱째, 현상이 융합하여 서로 포섭하는 문[事融相攝門]은 역시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상재(相在)이고 다른 하나는 상시(相是)이다.⁴¹⁵⁾〈이 두 가지 문은 보통 말한 것과 같다〉

七事融相攝門者，亦有二義，一相在，二相是。〈此二門者如常說也〉

여덟째, 제석천의 그물이 중첩되어 있는 문[帝網重重門]이다.⁴¹⁶⁾〈보통 말한 것과 같다〉

八帝網重重門者。〈如常說也〉

아홉째, 해인(海印)⁴¹⁷⁾이 밝게 드러내는 문[海印炳現門]은 앞의 무진교

414) 『화엄경탐현기』 권1 大35 p.119a17~21.

415) 『화엄경탐현기』 권1 大35 p.119a26~27.

416) 『화엄경탐현기』 권1 大35 p.119b29.

417) 해인(海印): 바다에 풍량이 그쳐 파도가 조용해지고 물이 맑아지면 삼라만상 모든 것이 도장 찍히듯 그대로 바닷물에 비쳐 보인다는 뜻으로, 이에 비유하여 부

법(無盡教法)과 같다. 모든 것은 여래의 해인삼매(海印三昧)⁴¹⁸⁾ 중에 동시에 밝게 나타난다. 교화되는 근기라고 해도 같은 연기이기 때문에 오직 이 삼매해만을 이 교법의 본질로 삼는다. <아래 글에서 “일체를 나타내 보여 남음이 없으니 해인삼매의 힘 때문이다.”⁴¹⁹⁾라고 한 것과 같다.>⁴²⁰⁾

九海印炳現門者，如前無盡教法。皆是如來海印定中，同時炳然顯現。設所化機，亦同緣起，是故唯以此三昧海，爲斯教體。〈如下文云，“一切示現無有餘，海印三昧勢力故。”〉

열째, 주체와 객체가 원만하게 갖추어져 있는 문[主伴圓備門]이다. 이 보법(普法)의 가르침은 홀로 일어나지 않고 반드시 주체와 객체에 따라 생겨남을 말한다.〈보장엄동자(普莊嚴童子)가 “부처님께서 『일체법계무구장엄경(一切法界無垢莊嚴經)』을 설하시어 세계의 작은 티끌만큼 많은 경전을 권속으로 삼는다.”⁴²¹⁾라는 것을 들은 것과 같다.>⁴²²⁾

十主伴圓備門者。謂此普法教不孤起，必主伴隨生。〈如普莊嚴童子，聞“佛說一切法界無垢莊嚴經，有世界微塵修多羅以爲眷屬”也。〉

처님의 마음 속에는 인식의 물결이 생기지 않고 맑고 깨끗하여 매우 밝고 고요해서 삼라만상이 일시에 다 비치듯 과거와 현재·미래의 모든 법이 밝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한다.

418) 해인삼매(海印三昧): ㉟ sāgaramudrā-samādhi, 조용한 바다에 삼라만상이 모두 드러나듯 인식 작용이 그쳐 맑고 깨끗하며 밝고 고요한 상태. 해인정(海印定), 『화엄경』은 이 해인정에 의해 나타난 만유를 여실하게 설한 것이라 한다.

419) 『화엄경』 권6 「현수보살품(賢首菩薩品)」 大9 p.434c6.

420) 『화엄경담현기』 권1 大35 p.119c11~15.

421) 『화엄경』 권4 「노사나불품(盧舍那佛品)」 大9 p.418a20~24. 時，佛說經名一切法界自性離垢莊嚴，有世界微塵等修多羅以爲眷屬，普莊嚴童子聞是經已，即得三昧，名一切法普門歡喜藏三昧，入一切法方便海三昧.

422) 『화엄경담현기』 권1 大35 p.119c18~21.

10. 십지의 의미[十地義]

세 가지 문(門)은 앞과 같다.

1) 이름을 풀이함

십(十)은 숫자의 이름이니, 2로 나누면 5가 되는 수를 10이라고 부른다.

지(地)는 비록 여러 논서의 해석이 다르지만, 『십지경론』에 의하면 네 가지 의미로 분별하여 해석한다. 첫째 생(生), 둘째 성(成), 셋째 주(住), 넷째 지(持)이다. 그래서 『십지경론』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만들어 완성하여 머물러 보존하는 것을 지라고 한다.”⁴²³⁾고 하였다.

혜원 스님이 말했다. “생과 성은 불과에 대해 처음에 일어나는 것을 생이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채워지는 것을 성이라고 한다. 또한 부처님에 대해 원인이 되는 것을 생이라고 하며 조건이 되는 것을 성이라고 한다. 지(地)의 한 가지 법이 어떻게 하여 원인이 되며 또 조건이 되는가? 이제 과거의 시간[因時]에 의거하면 결과가 전혀 있지 않지만 있을 수 있음을 말하기 때문에 원인이라고 한다. 저 미래의 과보[當果]에 의거하면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 있을 수 있는 법을 지(地)가 나타내게 하므로 그것을 조건이라고 한다. 또 지(地)에는 증도(證道)과 교도(敎道)의 구별이 있을 수 있고, 결과로는 성정(性淨)과 방편(方便)의 다름이 있다.”⁴²⁴⁾ 성정과(性淨果)로 보면 증득한 도리가 원인이 되고 교법의 도리가 조건이 되며, 방편과(方便果)로 보면 교법의 도리가 원인이 되고, 증득의 도리가 조건이 된다. 그래서 지에 대해서 원인을 설하고 조건을 설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住)라고 하는 것은

423) 『십지경론』 권1 大26 p.127a6~7.

424) 원문의 ‘果’는 『대승의장』에서는 ‘異’이다.

마땅히 나누는 것에 대해 말하니, 덕이 이루어지는 곳을 주라고 이름한다. 지(持)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모두 대하는 것이다. 초지가 2지를 기대하는 것을 지(持)라고 설하며, 내지 불지(佛地)를 기대하기까지 여러 지가 다음을 기대하는 것과 같으니, 차례로 그런 예이다.

지(地)의 범은 다르지만 하나의 문에 열 가지를 설하니 열 가지 이름은 무엇인가? 첫째 환희지(歡喜地), 둘째 이구지(離垢地), 셋째 발광지(發光地)〈진경(晉經)과 『십지경론』·『십지경』에서는 모두 명지(明地)라고 한다.〉, 넷째 염혜지(焰慧地)〈(『진경』·『십지경론』·『십지경』에서는 모두 염지(炎地)라고 한다.〉, 다섯째 난승지(難勝地), 여섯째 현진지(現前地), 일곱째 원행지(遠行地), 여덟째 부동지(不動地), 아홉째 선혜지(善慧地), 열째 법운지(法雲地)이다.”⁴²⁵⁾

十地義⁴²⁶⁾

三門分別.

第一釋名者. 十者數名, 數分二五, 稱之爲十.

地者, 雖諸論釋不同, 且依地論, 四義辨釋. 一生, 二成, 三住,

425) 『대승의장』 권14 大44 p.749b13~c4. ‘第一釋名者’부터 필요에 따라 인용하였다. 다른 곳에 비해 인용 글자의 차이가 많은 편이다. 옳게 판단되는 글자는 원문에서 교감으로 표시하였다. 第一釋名. 所言地者論釋不同, 依毘婆娑住處解地. 故彼論言, 十階住處名爲十地. 若依地持兩義辨釋. 一持義解地, 故彼論首標舉地法, 以持釋之. 二能生釋地, 彼論言, 自受行故名之爲住, 攝受衆生, 因之爲地. 若依地論四義辨釋, 一生二成三住四持. 故彼論言, 生成佛智住持名地, 生之與成望於佛果, 始起名生, 終滿曰成, 亦可, 望佛爲因名生, 爲緣稱成. 地之一法云何爲因, 而復稱緣. 據今因時果全未有, 辨無令有, 故名爲因. 據彼當果是可有, 可有之法地能令現, 目之爲緣. 亦可, 地有證教之別. 果有性淨方便之異, 望性淨果證道爲因, 教道爲緣, 望方便果教道爲因, 證道爲緣, 故得就地說因說緣. 所言住者當分爲言, 德成之處名之爲住. 所言持者通望因果, 如似初地望二地說持, 乃至望佛諸地望後次第例然. 良以地中備含多義故, 致釋者種種別異. 地法不同, 一門說十, 十名是何. 一歡喜地二離垢地三名明地四名炎地五難勝地六現前地七遠行地八不動地九善慧地十法雲地.

426) 韓2 p.392b3~354a13.

四持. 故彼論言, “生成佛智住持名地.” 遠公云, “生之與成, 望於佛果, 始起名生, 終滿曰成. 亦可望佛爲因名生, 爲緣稱成. 地之一法, 云何爲因, 而復稱緣? 據今⁴²⁷⁾因時, 果全未有, 辨可令有, 故名爲因. 據彼當果, 果是可有, 可有之法, 地能令現, 目之爲緣. 亦可地有⁴²⁸⁾證教之別, 果有性淨方便之異⁴²⁹⁾. 望性淨果, 證道爲因, 教道爲緣⁴³⁰⁾. 望方便果, 教道爲因, 證道爲緣. 故復就地因說緣. 所言住者⁴³¹⁾, 當分爲言. 德成之所, 名之爲住. 所言持者, 通望因果. 如似初地望二地說持⁴³²⁾, 乃至望佛, 諸地望後⁴³³⁾, 次第例然. 地法不同, 一門說十, 十名是何? 一歡喜地, 二離垢地, 三發光地 (晉經論經同名明地), 四燄慧地 (晉經論經同名炎地), 五難勝地, 六現前地, 七遠行地, 八不動地, 九善慧地, 十法雲地.”

첫째는 『십지경론』에서 “위 없는 자리이타행을 성취하여 처음으로 성인의 자리를 증득하여 기쁨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환희지라고 한다.”⁴³⁴⁾라고 하였다.

법장 스님이 말했다. “세 가지 뜻이 있으니, 첫째는 두 가지 이익을 처음으로 이루었기 때문이며, 둘째는 진리를 처음으로 증득했기 때문이며, 셋

427) 『대승의장』에 의해 今을 今으로 교감함.

428) 『대승의장』에 의해 可有를 有로 교감함.

429) 『대승의장』에 의해 果를 異로 교감함.

430) 『대승의장』에 의해 緣을 教道爲緣으로 교감함.

431) 『대승의장』에 의해 住者住者를 住者로 교감함.

432) 『대승의장』에 의해 如以初地望二持地說을 如似初地望二地說持로 교감함.

433) 『대승의장』에 의해 地望諸後地를 諸地望後로 교감함.

434) 『십지경론』 권1 大26 p.127a18~19.

째는 성인의 머무름을 새로 얻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본래 기약했던 마음에서 큰 기쁨이 많이 생겨난다.”⁴³⁵⁾

혜원 스님이 말했다. “『보살지지경』에서는 정심지(淨心地)라고도 한다. 이 지에 머무를 때 진여 가운데 마음이 청정함을 깨달으니 정심지라고 한다. 또 삼보(三寶) 가운데 청정한 믿음을 증득하니 역시 정심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초지는 앞의 범부의 지위에 대해서는 마땅히 성지(聖地)라고 이름한다. 저 범부가 자기를 취하는 장애에 대해서는 마땅히 무아지(無我地)라고 이름한다. 앞의 10신의 지위[信位]에 대해서는 마땅히 증득한 지위[證地]라고 이름한다. 뒤의 수도에 대해서는 마땅히 견지(見地)라고 이름한다. 이처럼 많은 뜻을 아울러 펴 보일 수 없으니, 먼저 이익에 대해서 환희라고 이름한다.”⁴³⁶⁾

一論云, “成就無上自利利他行, 初證聖處, 多生歡喜故, 名歡喜地.” 法藏師云, “有三義, 一二利創成故, 二真理初證故, 三聖住新得故. 遂本期心, 多生歡喜.” 遠云, “經中亦名淨心地也. 住此地時, 於真如中, 證心清淨, 名淨心地. 又於三寶, 得清淨信, 亦名淨心. 然此初地, 對前凡位, 應名聖地. 對彼凡夫取我之障, 應名無我地. 對前信位, 應名證地. 對後修道, 應名見地. 如是多義不可並陳, 且就利益, 名爲歡喜.”

둘째는 그릇된 마음을 일으켜 계를 범하는 번뇌와 더러움을 벗어나 청정한 계를 구축하기 때문에 이구지라고 한다.⁴³⁷⁾ 법장 스님이 말했다. “역시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번뇌를 여의는 것이다. 곧 원인을 떠나는 것

435) 『화엄경탐현기』 권9 大35 p.287b1~3. 『요결문답』의 ‘三聖住新得故’는 ‘三聖位新得故’이다. 『요결문답』의 ‘遂本期心 多生歡喜’는 ‘遂本期心故生歡喜’이다.

436) 『대승의장』 권14 大44 p.749c4~11. 『대승의장』을 필요에 따라 인용하였다.

437) 『십지경론』 권1 大26 p.127a19~20.

이니, (원인이란) 그릇된 마음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 등을 말한다. 둘째는 악업을 여의는 것이다. 곧 결과를 낳는 행동을 떠나는 것이니, (이는) 계를 범하는 것 등을 말한다. 세 번째는 대치(對治)⁴³⁸⁾를 여의는 것이다. 청정한 계를 구축함을 말한다.”⁴³⁹⁾

二離能起誤⁴⁴⁰⁾心犯戒煩惱垢，清淨戒具足故，名離垢地。藏師云，“亦有三義。一離煩惱。即因離，謂能起誤⁴⁴¹⁾心等。二離惡業。即果行離，謂犯戒等。三對治離。謂清戒具足也。”

셋째는 듣고 생각하고 수행하는[聞思修] 것 등에 따라 법을 비추어 드러나기 때문에 명지라고 한다.⁴⁴²⁾ 풀어 말하면 명(明)은 빛을 발하는 것이다. 법장 스님이 말했다. “역시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이 지로써 넷째 지인 지혜 광명의 모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명득정(明得定)⁴⁴³⁾ 등과 같다. 그래서 아래에서 ‘저 행함이 없고 나지도 않는 지혜, 이것을 광명이라고 한다.’고 하였다.”⁴⁴⁴⁾ 둘째는 이 지의 선(禪)에 의지해서 다음 지의 지혜의 광명이 일어나기 때문이니 대승광명삼매(大乘光明三昧) 등이다. 셋째는 세 가지 지혜를 얻어 법을 비추기 때문에 명지라고 한다. 이는 해당 지의

438) 대치(對治) : ①pratipakṣa, 도로써 번뇌 등을 끊는 것을 말한다. 이때 도는 능대치(能對治)가 되고, 번뇌는 소대치(所對治)가 된다.

439) 『화엄경탐현기』 권9 大35 p.287b3~7.

440) 『십지경론』에 의해 悞를 誤로 교감함. 뜻은 같음.

441) 『화엄경탐현기』에 의해 悞를 誤로 교감함.

442) 『십지경론』 권1 大26 p.127a20~21.

443) 명득정(明得定) : 보살이 4선근(四善根, 四加行位) 중의 난위(煖位)에서 얻는 선정. 이 선정은 초보적인 정혜의 단계로서, 대상 경계의 이름과 뜻, 자성, 차별 등의 4법이 모두 자신의 마음이 변화한 것으로 이들이 임시적으로 있는[假有] 것이며 실제로는 얻을 수 없는 것임을 관찰한다.

444) 『십지경론』 권5 大26 p.155a7~8.

가행위(加行位) 등에 대해 해석한 것이다. 『지론』에는 오직 이 문에 대해서만 해석하였다.”⁴⁴⁵⁾

三隨聞思修等照法顯現，故名明地。解云，明卽所發光也。藏師，“亦有三義。一以此地得四地智慧光明相故，如明得定等。故下說云，‘彼無行無生慧，此名光明。’二依此地禪，發起後地慧光明故，大乘光明三昧等。三得三慧照法，故名明地。此約當地加行等釋。地論唯就此門釋”⁴⁴⁶⁾。”

넷째는 불망번뇌(不忘煩惱)의 땀감을 지혜의 불로 태울 수 있기 때문에 염지라고 한다.⁴⁴⁷⁾

법장 스님이 말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내심으로 증득한[內證]⁴⁴⁸⁾ 지혜이니 미혹의 땀감을 태우기 때문에 염(炎)이라고 한다. 즉 앞의 지위에서 듣고 지님[聞持]을 잊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을 지니고 오만함을 일으키므로 번뇌라고 한다. 이것은 태워지는 것이니 비유하기를 땀감이라고 한다. 이것은 법을 이해하는데 오만한 장애이니 태워버릴 수 있는 지혜를 비유하여 염(焰)이라고 한다.”⁴⁴⁹⁾ 둘째는 후득지(後得智)⁴⁵⁰⁾에서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아래 『십지경론』에서 ‘저 증득한 지

445) 『화엄경탐현기』 권9 大35 p.287b8~16.

446) 『탐현기』에 의해 釋 보완.

447) 『십지경론』 권1 大26 p.127a21~22.

448) 내증(內證, 卽pratyātmādhigama)은 자내증(自內證), 자신의 내심이 체득하고 깨달아 증득하는 진리를 말한다. 이 내증에 기초하여 밖으로 드러내는 활동을 외용(外用)이라 한다.

449) 『화엄경탐현기』 권9 大35 p.287b16~20.

450) 후득지(後得智): 근본지에 의하여 진리를 깨달은 뒤에, 다시 분별하는 얇은 지혜를 일으켜서 의타기성(依他起性)의 속사(俗事)를 아는 지혜.

혜의 범이 마니보주(摩尼寶珠)의 광명 중에 아함의 광명을 놓음을 밝히기 때문에 염지라고 한다.”⁴⁵¹⁾〈혜원 스님 또한 이 설과 같다.〉

능 스님이 말했다. “불망번뇌란 다른 곳에서는 망(妄)이라는 글자로 해야 하니 망상(妄相)이 없음을 말한다. 지금 해석하여 힘들지 않게 정리하였으니, 논에서도 망(妄)이라는 글자로 하였다. 그런데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허망한 정념[妄情]이고, 둘째는 허망한 작용[妄用]이다. 무엇을 허망한 정념이라고 하는가? 있다고 하거나 없다고 하는 것 모두가 망상이다. 만일 실상에 집착하여 허망하지 않다고 하면, 이것을 허망하지 않다고 이름 붙이는 것이 번뇌의 땀감이 된다. 만일 이 허망함을 안다면 지혜로 그것을 끊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 해석으로 판별한다.〈지 앞에 있을 수 있다.〉 둘째는 허망한 정념을 없애서 진실된 작용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때 허망함[妄]이 진실과 다르다는 것을 보고, 진실이 허망함과 다르다는 것을 본다. (이는) 곧 진실이 허망한 것이 아니라고 집착하는 것이어서 번뇌의 땀감이 된다. 만일 진실도 아니고 허망한 것도 아니고 진실될 수 있고 허망하게 될 수 있는 것임을 안다면 이는 진여 그대로여서 연기의 지혜를 불태운다. 진실에 집착함을 제거하고 허망한 미혹과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혜의 불이 태울 수 있다고 말한다.”〈버리고 취하는 것은 뜻에 맡긴다.〉

四不忘煩惱薪智火能燒，故名焰地。藏師云，“此有二義。一內證之智，焚燒惑薪，故名爲燄。卽前地聞持名⁴⁵²⁾爲不忘，持此起慢，名爲煩惱。爲是所燒，從喻名薪。卽是解法慢障，能燒之智，就喻名焰。二就後智起用。故下論云，‘彼證智法明摩尼寶光中，放阿含光明，故名炎地。’”〈遠公亦同此說〉懷師云，“不忘煩

451) 『화엄경탐현기』 권9 大35 p.287b20~26. 『탐현기』의 내용을 필요에 따라 인용하였다. 인용하고 있는 경은 『십지경론』 권6 大26 p.162c22.

452) 『탐현기』에 의해 明을 名으로 교감함.

惱者, 他云應作妄字, 謂不妄相也. 今解不勞治, 論亦作妄字. 然有二種, 一者妄情, 二妄用. 何者名妄情? 若有若無, 皆是妄相. 若執爲實, 謂之不妄, 卽詔此不妄, 爲煩惱薪也. 若知是妄, 則智能斷之. 今判此解. 〈可在地前也〉二者除妄情而顯真實用. 爾時見妄異真, 見真異妄. 便以執真不妄, 爲煩惱薪. 若知非真非妄能真能妄, 此真如爾炎緣起之智. 能除執真乖妄之惑故, 云智火能燒也.”〈取捨任情〉

다섯째는 세간을 벗어난 지혜와 훌륭한 방편을 얻어 이르기 어려운 곳에 이르기 때문에〈도(度)는 이르는 것이다〉난승지라고 한다.⁴⁵³⁾ 법장스님이 말했다. “세간을 벗어난 지혜를 얻었다는 것 등은 승(勝)의 뜻을 해석한 것이며, 이를 수 있다는 것 등은 난(難)의 뜻을 해석한 것이다. 또 앞의 3지에 대하여 세간을 벗어난 지혜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아래의 논에서 ‘열 가지 평등은 얻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세간을 벗어난 지혜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다. 앞의 4지에 대하여 세간을 따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아래 논에서 ‘또 세간을 나타내는 것이 얻기 가장 어렵기 때문이다.’⁴⁵⁴⁾라고 하였다. 그래서 훌륭한 방편[方便善巧]이라고 한다. 즉 아래의 5지 중에 열 가지 평등한 마음과 오명처(五明處)⁴⁵⁵⁾ 등은 후자의 뜻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달라서 서로 도달하기 어려운데, 이 지 중에서 서로 도달하게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였다. 그래서 도달하기 어려운 곳에 도달할 수

453) 『십지경론』 권1 大26 p.127a22~23.

454) 『십지경론』 권7 大26 p.167b2~3. 又樂出世間智現世間智最難故.

455) 오명처(五明處): 오명(五明), 내명(內明, 불교 진리의 학문), 의방명(醫方明, 병의 원인과 예방하는 학문), 성명(聲明, 문법학), 인명(因明, 인도의 논리학), 공교명(工巧明, 여러 가지 기술학)을 말한다.

있다.”⁴⁵⁶⁾〈혜원 스님은 “세간을 벗어남을 얻었다는 등은 그 어려움을 해석하였고, 도달하기 어려운데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뛰어남을 해석하였다”라고 하였다.⁴⁵⁷⁾〉

五得出世間智方便善巧⁴⁵⁸⁾, 能度難度, 〈度者至也〉故名難勝地. 藏云, “得出世等釋勝義, 能度等釋難義.”⁴⁵⁹⁾ 又對前三地, 得出世難. 故下論言, ‘十平等甚難得故.’ 故云得出世間智也. 對前四地, 能隨世間難. 故下論云, ‘又現世間最難得故.’ 故云方便善巧也. 卽下五地中, 十平等心, 及五明處等, 是後義也. 此二相違, 難以相到, 於此地中, 能令相到, 故以爲難. 故云能度難度. 〈遠云, “得出世等也釋其難也, 能度難度解其勝也.”〉

여섯째는 반야바라밀에 차이가 있어 큰 지혜가 앞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현전지라고 한다.⁴⁶⁰⁾ 법장스님이 말했다. “여기에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뒤에 비해 열등함을 드러내는 것이니, 공(空)을 증득한 진실된 지혜를 반야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 7지 이상에서는 생각마다 항상 나타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 둘째는 앞에 비해 뛰어나를 나타내는 것이니, 바로 앞의 반야를 큰 지혜라고 한다. 이 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현전(現前)이라고 한다. 이 지는 뒤의 뜻의 입장에 대해 세운 이름인데, 앞의 뜻을 따른다면 차이가 있는 지라고 해야 한다.”라고 하였다.⁴⁶¹⁾

六般若波羅蜜有間大智現前故, 名現前地. 藏師云, “此有二

456) 『화엄경탐현기』 권9 大35 p.287b26~287c7. 『탐현기』의 내용을 필요에 따라 인용하였다.

457) 『대승의장』 권14 大44 p.750a2~4. 이 해석은 앞서 제시한 법장의 해석과 반대이다.

458) 『탐현기』에 의해 善功德을 善巧로 교감함.

459) 『탐현기』에 의해 勝을 義로 교감함.

460) 『십지경론』 권1 大26 p.127a23~24.

461) 『화엄경탐현기』 권9 大35 p.287c8~14.

義，一對後彰劣，謂證空實慧，名爲般若。七地已上，念念常現，今此未能，故名有間。二對前顯勝，自前般若名爲大智。此智現故名爲現前。此地就後義立名，從前義應名有間地。”

일곱째는 무상(無相)의 행(行)을 잘 닦아 공용(功用)⁴⁶²⁾이 궁극에 이르러 [究竟] 세간과 2승의 출세간을 뛰어넘기 때문에 원행지라고 한다.⁴⁶³⁾ 법장 스님이 말했다. “여기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이 지위 중에서 유상(有相)을 떠나고 무상(無相)을 떠나는 행을 잘 수행하기 때문에 무상의 행을 잘 닦는다고 한다. 이는 행(行)이라는 글자를 풀이한 것이다. 둘째는 공용이 궁극에 이른다는 것 등은 원(遠)을 풀이한 것이다. 이 가운데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공용을 행한 지위가 끝까지 다하여 최후에는 가장 끝이 되기 때문에 궁극에 이르렀다고 한다. 둘째, 1·2·3의 3지가 유(有)에 따른 실천의 양상이 세간과 같은 것으로 보면, 지금 여기는 거기에 비해 이미 멀리 떨어져 있어 능히 세간을 뛰어넘는다고 한다. 셋째, 4·5·6지가 도품(道品)을 익히고 연기의 양상을 잘 관찰하여 2승의 출세간위와 같은 것으로 보면, 지금 이것은 저것을 넘어서기 때문에 2승의 출세간도를 뛰어넘는다고 하고, 그래서 원행지라고 한다.”⁴⁶⁴⁾

七善修無相行，功用究竟，能過世間二乘出世間故，名遠行地。藏師云，“此亦有二義。一此位之中，善修行離有相離無相行，故云善修無相行。此釋行字也。二功用究竟等釋遠也。於中有

462) 공용(功用) : 신(身)·구(口)·의(意)로 짓는 동작과 말과 생각. 초지에서 7지에 이르는 보살은 진여를 증득하였으나 가행(加行)의 공을 쌓아야 하므로 이를 공용지(功用地)라고 한다.

463) 『십지경론』 권1 大26 p.127a23~24.

464) 『화엄경담현기』 권9 大35 p.287c14~23.

三義. 一有功用行位⁴⁶⁵⁾至窮盡, 最爲後邊, 故云究竟. 二望前三地, 隨有之行相同世間, 今此望彼, 已爲懸遠, 云能過世間也. 三望四五六地, 修習道品, 諦觀緣起相, 同二乘出世間位, 今此過彼故, 云能過二乘出世間道, 故名遠行地.”

여덟 번째는 보행(報行)이 잘 익어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부동지라고 한다.⁴⁶⁶⁾ 법장스님이 말했다. “여기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보행이 잘 익었기 때문에 공용이 움직이지 않고, 수행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보행이 성취되었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힘들이지 않고 움직이는 대로 맡겨 모든 뛰어난 행(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 익었다[純熟]고 한다. 아래 경에서 명칭을 해석하는 가운데 ‘공용이 없는 지는 앞서 이끄는 것을 잘 일으킨다.’⁴⁶⁷⁾라고 하였다. 형상이 없다[無相]는 것은 형상으로 인해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차이가 없다[無間]는 것은 무상이 항상 앞에 드러나는 것을 관하기 때문에 번뇌로 인해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아래 경에서 명칭을 해석하여 ‘가지(加地)는 다른 것으로 인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⁴⁶⁸⁾라고 하였다.”

八報行純熟無間故, 云不動地. 藏師云, “此亦二義. 一報行純熟故, 不爲功用所動, 以由修起名爲報行成就. 在此無功任運成諸勝行, 故云純熟. 下經釋名中, ‘無功用地善起先導⁴⁶⁹⁾’等也.’ 無相者, 不爲相所動也. 無間者, 以無相觀常現前故, 不爲煩惱所動也. 下經釋名 ‘加地⁴⁷⁰⁾不他動故.’”

465) 『탐현기』에 의해 行을 行位로 교감함.

466) 『십지경론』 권1 大26 p.127a26.

467) 『십지경론』 권10 大26 p.184c15~16.

468) 『화엄경탐현기』 권9 大35 p.287c23~288a1.

469) 『탐현기』에 의해 道를 導로 교감함.

아홉째는 걸림 없는 힘[無礙力]으로 법을 설하여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행을 성취하기 때문에 선행지라고 한다.⁴⁷¹⁾ 범장스님이 말했다. “여기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40무애변(無礙辯)⁴⁷²⁾을 얻으므로 걸림 없는 힘이라고 한다. 이것은 혜(慧)를 풀이한 것이다. 둘째는 교묘하게 설하여 중생을 이익되게 하므로, 법을 설하여 다른 사람을 이익되게 함을 이룬다 등으로 말한다. 이것은 선(善)을 풀이한 것이다. 이 의미는 아래 글에서 분별한 것과 같다.”⁴⁷³⁾

九無礙力說法成就利他行故，名善慧地。藏師云，“此亦二義。一得四十無礙辯，名無礙力。此釋慧。二巧⁴⁷⁴⁾說益生，名說法成利他等。此釋善。此義如下文辨。”

470) 원문의 下經釋名, 如地不他動故는 『화엄경탐현기』(권9 大35 p.287c29~288a1.)에 下經釋名爲加行地, 他不動故.이며, 『십지경론』(권10 大26 p.184c15~16.)에서는 如經名爲加地, 他不能動故, 名爲無功用地, 善起先道故.이다. 『십지경론』에 따라 加地로 한다.

471) 『십지경론』 권1 大26 p.127a26~27.

472) 원문은 四十無礙辯이라 하였고, 『요결문답』의 인용 원전인 『탐현기』 또한 四十無礙辯이라 하였다. 『십지론의소(十地論義疏)』는 4무애력, 『간정기』는 4무애해지라고 하였으나, 지엄·범장·징관 등은 한결같이 40무애지를 들고 있다. 특히 『공목장』에는 「40무애변재장(四十無礙辯才章)」을 두어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무애변재에는 40이 있으니, 10법이 있고 저마다 넷이 있어 40이 된다고 하였다. (권3 大45 p.575a26~28. 無礙辯才者, 謂四十無礙辯. 依其十法, 十法有四故成四十. 所以說十者, 欲顯無量故. 如經廣說.) 무애변재는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는 말 잘하는 솜씨를 말하며 지혜를 본질로 하는데, 4, 7, 8, 9종의 변재를 꼽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인 4무애변재로서, 4무애지(四無礙智)·4무애(四無礙)·4무애해(四無礙解)·4무애변(四無礙辯) 등으로도 불린다. 범무애(法無礙)·의무애(義無礙)·사무애(辭無礙)·요설무애(樂說無礙)가 그것이다.

473) 『화엄경탐현기』 권9 大35 p.288a14.

474) 『탐현기』에 의해 巧을 巧로 교감함.

열 번째는 대법신(大法身)⁴⁷⁵⁾을 얻어 자재로움을 갖추었기 때문에 법운지라고 한다.⁴⁷⁶⁾ 법장 스님이 말했다. “여기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법의 그릇이 되는 몸이므로 법신이라고 한다. 그런데 법계에 두루할 수 있기 때문에 대(大)라고 한다. 모든 부처님의 구름과 비 같은 설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재로움을 갖추었다고 한다. 둘째, 법을 초월한 몸이므로 법(法)이라고 하고, 일체에 두루 미치므로 대(大)라고 하며, 법의 비를 내려 번뇌를 없애고 선함을 생기게 할 수 있으므로 자재(自在)라고 한다. 아래에서 명칭을 풀이하는 부분 중에서 상세히 나눈 풀이를 갖추었기 때문에 법운지라고 한다.”⁴⁷⁷⁾〈명칭의 뜻은 이와 같다〉

十得大法身具足自在故，名法雲地。藏師云，“此亦二義。一爲法器之身，名曰法身。然能普周法界，故名爲大。能受諸佛雲雨說法，名具足自在。二爲出法之身，名曰法，普遍一切，名之爲大，能降注法雨，滅塵生善，故云自在。下釋名分中，具廣分釋，故云法雲地。”〈名義如是〉

2) 본체를 드러냄

혜원 스님이 말했다. “십지의 계위는 따로 본체가 없고 행(行)을 취하여

475) 대법신(大法身): 보살의 수행 단계 중에 최상 보살지인 10지에서 얻는 큰 법신. 보살 10지의 열 번째 법운지는 최상의 지이고 구경의 지이기 때문에 보살이 이에 이르면 대법신을 얻어 자재력을 갖춘다고 한다. 또 보살이 원력과 자재력으로 다섯가지의 생을 받을 때 그 최후의 생은 최상의 보살지인 10지에서 받고 대법신을 얻어, 깨달음을 증득하고 만행이 갖추어지기를 구하여 위없는 정등정각을 얻는다고 한다.

476) 『십지경론』 권1 大26 p.127a27~28.

477) 『화엄경탐현기』 권9 大35 p.288a5~10.

계위가 이루어진다. 계위를 이루는 행은 열고 닫음이 정해져 있지 않다. 혹은 총괄해서 하나이다. 이른바 보살은 결정적인 선을 서원하는데, 서원은 실천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두루 논한다. 혹은 둘로 나눈다. 이른바 보살의 깨달음과 교법의 두 가지 실천이다. 혹은 셋으로 나눈다. 동상(同相)⁴⁷⁸⁾의 세 가지 도(道)이니 깨달음[證]·도움[助]·머물지 않음[不住]이다. 또 계율[戒]·선정[定]·지혜[慧]로 셋으로 나눌 수도 있다. 혹은 넷으로 구별한다. 들음[聞]·생각함[思]·수행함[修]·깨달음[證]이다. 혹은 다섯 가지로 말한다. 들음[聞]·생각함[思]·수행함[修]·보생식지(報生識知)⁴⁷⁹⁾ 및 증행(證行)이다. 또 다섯 가지 방편도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으니, 관(觀)·득(得)·증상(增上)·불퇴(不退)·진지(盡至)이다. 혹은 여섯 가지로 나누니 6결정(六決定)⁴⁸⁰⁾이다. 육바라밀도 여섯 개로 나뉜다. 혹은 여덟 가지로 말한다.<저『상속해탈경(相續解脫經)』에서 설한 것과 같다.> 혹은 열 가지로 말한다.<신

478) 동상(同相): 육상의 하나. 여러 가지 차별이 있는 만물이 동일한 목적을 향하여 서로 협력하고 조화하여 통일되려는 속성을 이른다.

479) 보생(報生)은 익혀 얻어진 과보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긴 것을 말한다. 8지 이상의 보살이 몸을 바랄 때 태어남과 동시에 얻는 선정이 보생삼매이다. 본래의 수행이기 때문에 낳는 곳에 따라 저절로 일체법이 공한 것을 보고 수습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 (『대승의장』 권20 大44 p.852c2~3)

480) 6결정(六決定): ①보살이 6바라밀을 실천하여 얻는 여섯 가지 공덕. ②6종선결정(六種善決定). 초지 이상의 보살이 성스러운 지혜에 의해 진리를 증득하는 여섯 가지의 선한 결정. 1.관상(觀相)선결정은 보살이 바른 지혜로 진여의 이치를 관조함을 결정하여 일미의 잡됨이 없는 현상에 같게 되는 것. 2.진실(眞實)선결정은 보살이 진실한 지혜로 번뇌에 떨어지는 잘못을 떠날 것을 결정하여 이치를 증득하여 공허함이 없는 것. 3.승(勝)선결정은 보살의 실천이 범계처럼 크고 넓어 일체 제불의 근본이 되어 수승한 덕을 갖추는 것을 결정하는 것. 4.인(因)선결정은 보살의 실천의 원인이 성과의 공능을 낼 수 있음을 결정하는 것. 5.대(大)선결정은 보살의 이타행이 일체 중생 세계를 덮어 보호하여 한계가 없음을 결정하는 것. 6.불겁약(不怯弱)선결정은 보살이 증득한 과덕이 일체제불의 지혜의 지위에 들어가 결정하여 두려워함이 없는 것. 여기서는 ②의 뜻.

(信) 등 십행과 십바라밀이다.〉 혹은 나누어 37품⁴⁸¹⁾으로 한다. 다시 나누어 8만 4천의 모든 제도 법문⁴⁸²⁾이 된다.”⁴⁸³⁾

第二出體者. 遠公, “十地之位無有別體, 攬行以成. 成位位之行開合不定, 或總爲一. 所謂菩薩願善決定, 以願行主, 故偏論之. 或分爲二. 所謂菩薩證教二行. 或離爲三. 同相三道, 一證, 二助, 三是不住. 又戒定慧亦得分三. 或別爲四. 謂聞思修證. 或說爲五. 謂聞思修報生識智⁴⁸⁴⁾及與證行. 又五

481) 37품: 열반의 이상경(理想境)에 나아가기 위하여 닦는 도행(道行)의 종류. 4념처(念處)·4정근(正勤)·4여의족(如意足)·5근(根)·5력(力)·7각분(覺分)·8정도분(正道分).

482) 팔만사천제도법문(八萬四千諸度法門)은 팔만사천법문·팔만사천법장(八萬四千法藏) 등으로도 말한다.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교법 전체를 말한다. 중생에게는 8만 4천 번뇌의 병이 있어 부처님께서 그 병마다 맞게 8만 4천의 법문을 설하시어 고쳐주셨다. 혜원(慧遠)의 『유마의기』에 따르면, 부처의 350 공덕에 각각 6 바라밀을 갖추고 있어 2100이 되고, 탐(貪)·음(婬)·진(瞋)·치(癡)의 4중 중생이 이로써 교화하므로 8400이 되고, 1이 변해 10이 되어 8만 4천이 된다고 한다.

483) 『대승의장』의 내용에서 간추려 제시하였다.(권14 大44 p.750a26~b22. 次辨體相. 十地是位, 位無別體, 攬行以成. 成位之行開合不定, 或總爲一. 所謂菩薩願善決定海納衆行, 備苞萬德諸德相攝, 皆得爲一. 以願行主故偏論之. 或分爲二. 所謂菩薩證教兩行備如前解. 或離爲三. 謂同相三道, 一證二助三是不住, 亦如上釋. 又戒定慧亦得分三. 或別爲四, 謂聞思修證. 演教名聞, 求義曰思, 進行名修, 得實云證. 或說爲五, 謂聞思修報生識智及與證行. 又五方便亦得分五, 如地論說, 一觀方便諸地觀解, 二得方便諸地得證, 三增上方便依證所成一切行德, 四不退方便前三堅固, 五盡至方便前三滿足. 或分爲六, 謂六決定, 如前六種決定章中具廣分別. 又六波羅蜜亦得分六. 或說爲八. 如彼相續解脫經說, 一方便淨, 趣地方便, 二者心淨, 初入地心, 三悲心淨, 正住地中起行方便四波羅蜜淨, 於諸地中所修諸度, 五見佛淨, 於地果中多見諸佛, 六成熟衆生淨, 見諸佛時起四攝法成熟衆生, 七者生淨, 謂十王等, 八者力淨, 謂攝根中神力十事及願智果. 或說爲十. 謂信等十行故. 地持云, 信等十法淨一切地. 又十波羅蜜亦得分十, 並如前釋. 或復分爲三十七品. 亦得離爲八萬四千諸度法門. 廣則無量, 此等開合各據一門, 廣無量異盈狹減小. 地體如是.)

方便亦得分五, 謂觀得增上不退盡至. 或分爲六. 謂六決定.
又六波羅蜜亦得分六. 或說爲八. 〈如彼相續解脫⁴⁸⁵⁾經說〉或說爲
十. 〈信等十行, 又十度也〉或分爲三十七品. 復得離爲八萬四千
諸度法門.”

법장 스님이 말했다. “열개의 문이 있다.〈혜원 스님과 대부분 같다.〉⁴⁸⁶⁾ 대승
광명삼매를 본성으로 한다. 또 오직 깨달음으로 보면 진여가 본성이 된
다.〈(생사를) 초월한 진여이다.〉 또 오직 깨달을 수 있음으로 보면 지혜가 본성
이 된다.〈법무아지(法無我智)⁴⁸⁷⁾의 분위기이다.〉 또 본연 그대로와 지혜를 본성으
로 삼는다.⁴⁸⁸⁾ 또 일체의 유위와 무위의 공덕을 본성으로 삼는다.〈『성유식론』
의 설과 같다.〉 또 원인과 결과로 보면 바다의 십상(十相)과 같다.〈십상을 땅에

484) 『대승의장』에 의해 執生謂知를 報生識智로 교감함. (『대승의장』 권3 大44 p.514a6
~7. 或分爲五, 謂聞思修報生識智及與證智.)

485) 『대승의장』에 의해 說을 脫로 교감함.

486) 『대승의장』에서 인용한 부분은 제외하고 『화엄경탐현기』에서 인용하고 있다.

487) 법무아(法無我)는 일체(一切)의 존재는 모두 인연에 따라 존재하는 것으로서 그
실체가 없다는 뜻. 법공(法空)이라고도 한다. 그 지혜를 말함.

488) 『화엄경탐현기』 권9 大35 p.286b2~23. 第二因此通論十地體性差別略作十門,
一以此六決定爲體, 以此正是所說十地之本體故. 二以前大乘光明三昧爲性, 以
此定中具含止觀證法無礙故. 論云此三昧是法體故也. 三以教證二行爲性, 以加
行緣修唯是教行, 本智契理唯是證行, 後智具含二義通教證. 如下論說. 四以證助
不住三道爲體, 亦通釋可知. 五唯約所證真如爲性, 以能證智緣成相盡同真理故.
梁攝論云出離真如爲十地體, 下文鳥迹同空等是也. 六唯約能證之智爲性, 無性
攝論云法無我智分位名地, 此論下文亦云上來所說皆依智地, 今此亦依智地故也.
七具含境智, 謂真理妙智如前二說. 梁論後文亦云如如及智爲性. 八約通收, 唯識
論云總攝一切有爲無爲功德爲性. 九約因果, 如下文大海十相別喻十地總一大海
以喻佛地. 又云地有二分, 則所畫太空以況果分能畫十相以喻因分, 是故通能所
依俱是地體. 十通約諸門, 謂信等十行爲成地法故, 檀等十亦爾. 又三漸次等諸門
並如下辨, 悉爲地法體,

비유하고 하나의 바다를 부처에 비유한다.〉대공(大空)은 결과에 견주었고 그림은 원인에 비유하였다.”〈나머지 문은 혜원스님의 설과 같다.〉

능 스님이 말했다.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체의 체를 내는 것이고, 둘째는 행의 체를 내는 것이다. 행의 체는 다시 둘로 나뉘니 첫째는 통체(通體)이고 둘째는 별체(別體)이다. 통체는 세 가지 인연과 세 가지 인연에 따른 지혜를 지(地)의 체로 삼는다. 그 체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며, 또 둘이 아님도 아니다. 언어에 의지한다면 10이 없음이 통체이고 10이 없으면서 10인 것이 별체이다. 초지에서 깨달은 지혜는 제2지에서 깨달은 지혜가 아님을 말한다. 지(地)와 지(地)는 각각 깨달은 지혜가 있는 것이다. 행의 체란 깨달음과 교법의 두 개의 길[道]이다.”〈등등〉

藏師云, “十門. 〈與遠多同〉大乘光明三昧爲性. 亦唯約所證眞如爲性. 〈出離眞如〉又唯約能證之智爲性. 〈法無我智分位〉亦如如及智爲性. 又一切有爲無爲功德爲性. 〈如成唯識論說〉又約因果, 如海十相. 〈十相喻地, 一海喻佛〉大空況果, 畫⁴⁸⁹ 喻因分.” 〈餘門如遠公說〉懷云, “二義. 一出體體, 二出行體. 行體復二, 一是通體, 二是別體. 言通體者, 以三緣三緣緣智爲地體. 其體非一非二, 亦非不二. 寄言無十爲通體, 無十而十別體. 謂初地證智, 非二地證智. 地地各有證智. 言行體, 所謂證教二道.”〈云云〉

489) 『담현기』에 의해 畫을 畵로 교감함.



義天 의천

◀大覺國師文集 대각국사문집▶

해제

1. 序서문 _____
2. 辭사 _____
3. 表표 _____
4. 狀장 _____
5. 疏文 소문 _____
6. 文문 _____
7. 詩시 _____





解題 해제

『대각국사문집』은 고려 전기의 승려 의천의 글을 모은 문집이다.

의천(義天, 1055~1101)은 고려 문종(文宗)의 넷째 아들로 인주이씨(仁州李氏) 인예태후(仁睿太后)를 모친으로 태어났다. 11세에 화엄종의 고승인 경덕(景德)국사 난원(爛圓)에게 출가하여 영통사(靈通寺)에서 수학하고 그해 10월에 불일사(佛日寺) 계단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이로부터 학문에 전심하여 화엄 경론을 비롯하여 대소승의 경전을 탐구하고 유교와 도교 및 제자백가의 전적을 폭넓게 공부하였다. 은사 난원이 이듬해에 입적하자 문도와 함께 학문에 힘썼고, 13세에 우세(祐世) 승통(僧統)의 직위를 받았다. 23세 때부터 『40화엄경』을 정관의 소 10권과 함께 강의하기 시작하여 20년 동안 계속 강의할만큼 화엄학에 중점을 두었다.

의천은 학문의 폭을 넓히고 경론을 구하기 위해 송에 구법하고자 하는 뜻을 가졌으나 부왕 문종은 바닷길의 위험과 요와의 미묘한 외교 문제를 들어 허락하지 않았다. 부왕에 이어 형왕인 선종(宣宗)이 즉위하자 다시 송에 가는 것을 허락해 주기를 청하였으나 불허하자 31세(1085)에 제자 수개(壽介) 등 10인과 함께 송나라 입국을 결행하



였다. 고려에서는 관료와 낙진(樂眞)·혜선(慧宣)·도린(道隣)을 보내 뒤따르게 하였다. 송에 들어가서는 철종(哲宗)의 극진한 대접을 받아 화엄의 유성(有誠) 등을 소개받아 불학을 연마하였다. 의천의 입송 활동은 신법당에서 구법당으로 바뀌던 당시 송의 정치 상황과도 연계되어 있다. 그후 항주에 가서 정원(淨源)과 화엄을 비롯한 제교학을 논하고 천태산에 가서 지의(智顗)의 묘탑을 참배하고 천태교학의 전승을 다짐하였다. 의천은 이듬해 귀국하기까지 14개월 동안 송에 머물며 제종의 승려 30여 명과 교유하였다. 화엄종의 정원과 유성 외에 희중(希仲)·선충(善聰)·혜청(慧淸)·지생(智生)·도형(道亨)·도린(道隣)·정인(淨因)·희준(希俊), 천태종의 종간(宗諫)·유근(惟勤)·원정(元淨)·가구(可久), 율종의 원조(元照)·택기(擇其)·충우(沖羽), 선종의 종본(宗本)·요원(了元)·회련(懷璉)·혜원(慧圓), 유식의 혜림(慧琳)·선연(善淵) 그리고 인도 출신의 천길상(天吉祥)·소덕(紹德)과 요(遼)의 운서(雲誥)·선연(鮮演) 등이 그들이었다.

의천 모후의 염려에 따라 선종은 송에 귀국을 요청하였고 이에 의천은 장소 3천 여권을 갖고 귀국하였다. 이후 요와 일본에서도 전적을 수집하여 경론의 주석서를 집대성한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教藏總錄)』을 36세(1090년)에 완성하였다. 장소(章疏) 목록으로는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이 목록은 1,010부 4,740권에 이르는 방대한 교장(敎藏)을 체계화한 것으로, 수집한 장소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교정을 거친 후 흥왕사(興王寺)에서 간행하였다. 교장의 구성은 화엄과 천태를 우선으로 전 교학을 망라한 것으로서 선종에 비판적이었던 의천의 불교관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중에는 신라와 고려의 찬술 4백 여권과 거란의 저서 2백 여권이 포함되었다. 40세에 한때 해인사에 은거하며 유식 등 제교학을 재점검하기도 했던 의천은 형왕인 숙종(肅宗)이 즉위하자 그 요청으로 흥왕사(興王寺)에 돌아왔고, 43세(1097)에 국청사(國淸寺)가 완공되자 주지가 되어 천태종을

개창하였으나 47세에 입적하였다. 대각국사(大覺國師)의 시호를 받고 영통사와 선봉사(僊鳳寺)에 그를 기리는 비가 세워졌다.

의천은 화엄을 중심으로 전 교학에 걸쳐 폭넓은 이해를 가졌다. 그가 강의한 것만 해도 화엄과 열반, 법화현의 등 300여 권이 된다고 시에서 술회하였고, 계율을 강의하였으며 유식에도 관심을 가졌다. 선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어서 능가·기신 등의 경전 공부를 권하였다. 그중에서도 화엄과 천태가 중심이었고, 특히 출가 시기부터 공부한 화엄사상을 주축으로 삼았다. 의천이 제시한 사상은 화엄의 실천수행과 이론조직으로 구성된 삼관오교(三觀五敎)였다. 삼관은 법계연기의 진리를 증득하기 위해 수행하는 삼중의 관법으로 진공관(眞空觀)·이사무애관(理事無碍觀)·주변함용관(周遍含容觀)을 말한다. 오교는 법장이 완성한 화엄의 교판론으로 소승(小乘)·대승시교(大乘始敎)·대승종교(大乘終敎)·돈교(頓敎)·원교(圓敎)를 말한다. 그래서 의천은 배움에 뜻을 둔 이들은 이 삼관오교로 법의 이치를 깊이 연구하여 도에 들어가는 안목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고, 관은 배우지 않고 경만 배우면 인과는 알지만 삼중관법을 깨닫지 못하며, 경은 배우지 않고 관만 배우면 관법은 깨닫지만 인과는 알지 못하므로, 관도 배우지 않을 수 없고 경도 배우지 않을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示新參學徒繼秀〕

이러한 교관겸수(敎觀兼修)의 사상은 그가 교유한 정원 등 송대 화엄가의 경향과 통하며, 이는 그들이 계승했던 정관의 관행 중시에 연원을 둔다. 현존 의천 저술에서 더 이상 체계적인 교학 이론은 찾기 어렵다. 대신 의천의 사상 경향은 그가 중점을 두어 추진했던 교장의 간행에서 살펴볼 수 있다. 불교 전적에 대한 연구서를 망라한 교장은 의천이 유일하게 시도하였던 독특한 작업이었다. 의천은 이 일에서 경전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여러 학파의 교학을 모두 대상으로 삼았다. 의천이 화엄만이 아니라 여러 계통의 경전을 직접 강의하고 이의 공부를 권하지만 경전을 무시하고 논리를

초월하는 선을 경계하는 것은 경전을 바탕으로 불교의 틀을 정립하려는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의천이 성사(聖師)로서 높이 추앙한 원효에 대한 평가와도 상통하는 것이다. 의천이 천태종(天台宗)을 개창하여 선종의 개편을 시도한 것은 이와 같은 사상적 배경에서였다.

천태종의 개창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전개되었다. 일찍이 송에 가기 전부터 천태종 개창의 의지를 가져 이를 인예태후와 형 숙종에게 토로하였는데, 그 본찰로 시작한 국청사는 1089년(선종 9)에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5개월만에 중단되고 인예태후와 선종이 차례로 돌아가고 현종이 즉위하여 인주이씨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의천의 입지는 밀려나 해인사에 퇴거하였다. 숙종이 인주이씨를 제거하고 즉위함으로써(1095) 의천은 다시 홍왕사에 돌아오고 국청사가 1097년에 완공되어 천태종이 개창되게 되었다. 이로써 화엄과 천태를 중심으로 교단을 개편하여 법상종과 선종과 함께 4대 교단 체제를 이루게 되었다.

의천은 고려 전기불교가 선종과 교종이 각각 본연의 면모를 잃어가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직시하고 화엄과 천태를 중심으로 교학의 학습과 관행의 실천을 두루 강조하였다. 이러한 바탕에서 경전에 대해 두루 의미를 평가하며 모든 경론에 대한 연구서를 집대성한 교장을 편집·간행하여 한국불교사에 두드러진 자취를 남겼다. 의천이 간행한 교장은 일본에 전해져 크게 활용되었고, 불교 전적을 통한 고려와 송 그리고 거란과 일본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국제적인 문화 교류를 촉진시킨데 의천의 활동의 의의가 있다. 선종을 적극적으로 포용하지 못한 한계는 천태종을 개창하여 선종의 개편 운동을 추진함으로써 보완하였다. 의천의 활동으로 시작된 화엄과 천태, 법상과 선종 중심의 교단 운용은 고려 전기불교가 정리된 양상이었다.

의천의 글을 모은 『대각국사문집』은 모두 20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

각된다.¹⁾ 전체 간행본은 전하지 않고, 해인사에서 간행한 사간본(寺刊本)의 판목 중에 일부가 남아 있어, 현재 남아 있는 것은 137장 분량이다. 권21과 권22는 전혀 없고 권19는 온전하게 남아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일부분만 남아 있다. 법성사(法性寺) 주지인 혜관(慧觀)이 서사한 것이다.²⁾

권1은 서(序), 권2·3은 사(辭), 권5·6·7·8은 표(表), 권9·10·11·12·13은 장(狀), 권14·15는 소문(疏文), 권16은 문(文), 권17·18·19·20은 시(詩)이다. 권21·22는 전혀 남아 있지 않아 내용을 알 수 없고, 권23은 마지막 4줄이 남아 있는데 『대각국사외집』 권4의 「대송사문희중서(大宋沙門希仲書) 제5」의 내용과 일치한다.

대각국사에게 보낸 글을 모은 『대각국사외집(大覺國師外集)』이 『대각국사문집』과 같이 해인사 사간본으로 간행되었다.³⁾ 이 또한 전체가 남아 있지 않고 일부만 남아 있어 13권의 101장 분량이다. 권1부터 8까지는 예종의 진찬 외에 송의 황제와 의천과 교유한 승려들의 서간들이 수록되었고, 권9는 기(記), 권10·11은 시(詩), 권12·13은 영통사비문과 선봉사비문이다.

1) 영통사비문에는 20권으로 되어 있는데(門人集所著詩文, 殘編斷藁, 存者無幾, 紬次爲二十卷, 此皆率爾落筆, 非將以貽後也. 故於生前, 有以其文寫而刻之者, 取其板焚之), 현존하는 판목은 마지막 권이 23권이어서 모두 23권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권21·22의 내용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고 권23의 남은 마지막 장의 내용은 『문집』이 아니라 『외집』에 속하는 것으로, 『대각국사외집』 권4 3장 「대송사문희중서(大宋沙門希仲書) 제5」의 내용 그대로이다. 원래 20권으로 간행된 것이 고려 후기에 해인사에서 외집과 함께 간행되면서 일부를 문집에 부가한 것이 23권본으로 간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문집』 자체는 20권본만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2) 『대각국사문집』 권8 11장, 권12 16장, 권16 19장 말미에 ‘法性寺住持 賜紫沙門 臣 慧觀 書’의 기록이 있다.

3) 『대각국사문집』과 같이 ‘法性寺住持 賜紫沙門 臣 慧觀 書’의 기록이 외집 권4 8장에 보이며 권9 6장에도 일부가 보인다.

이 책에서는 『대각국사문집』의 권1 서(序)에서 권20 시에 이르는 전체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고루 골라 번역하였다. 특히 의천의 불교사상과 전적 편찬과 관련된 글 그리고 고려 불교계에서의 활동을 살필 수 있는 내용들을 주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왕실의 지원에 대한 답글과 같은 글이 많이 제외되었다.

대본은 『한국불교전서』 제4권 pp.528a1~567a2에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많은 글자가 미확인자인 □로 표시되어 있으나, 교감본인 건국대학교출판부 간행본은 판본에서 확인되는 글자가 편집자 교감으로 소개되어 있다. 이 책에서는 교감된 글자를 활용하였다. 또한 판본 원본과 대조하여 글자를 바로잡고, 이렇게 교감한 글자는 각주로 표시해 두었다. 원문의 『한국불교전서』 전거를 독립된 글마다 각주로 표기하였다.

참고문헌

- 건국대학교출판부, 1974 『大覺國師文集』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9 『國譯 大覺國師文集』(심재열 역)
- 姜錫瑾, 2007 「大覺國師 義天의 詩文學」 『國際言語文學』 16
- 金杜珍, 2003 「義天의 天台宗과 宋·高麗 불교계와의 관계」 『仁荷史學』 10
- 박상국, 1998 「義天의 敎藏: 敎藏總錄의 編纂과 敎藏刊行에 대한 再考察」 『普照思想』 11
- 朴鎔辰, 2004 「大覺國師 義天 研究」, 국민대학교박사학위논문
- 李萬, 1984 「大覺國師 義天의 唯識觀」 『佛教學報』 21
- 李炳熙, 2003 「大覺國師 義天의 鑄錢論」 『天台學研究』 4
- 李永子, 1978 「義天의 天台會通思想」 『佛教學報』 15
- 李永子, 1982 「義天의 新編諸宗教藏總錄의 獨自性」 『佛教學報』 19
- 장계환, 1998 「義天의 華嚴思想」 『普照思想』 11
- 趙明基, 1964 『高麗大覺國師와 天台思想』, 東國文化社
- 池昌圭, 2003 「大覺國師 義天의 天台思想」 『天台學研究』 4
- 崔柄憲, 1986 「大覺國師義天의天台宗創立と佛教界の改編」 『朝鮮學報』 116
- 崔柄憲, 1990 「大覺國師 義天의 華嚴思想 研究: 均如의 華嚴思想과의 比較를 中心으로」 『韓國史學』 11
- 崔柄憲, 1991 「大覺國師 義天의 渡宋活動과 高麗·宋의 佛教交流」 『震檀學報』 71·72 合
- 崔柄憲, 2002 「大覺國師 義天의 天台宗 創立과 宋의 天台宗」 『人文論叢』 47
- 崔柄憲, 2003 「大覺國師 義天의 佛教史的 位置」 『天台學研究』 4
- 최연식, 1993 「大覺國師碑의 建立過程에 대한 새로운 고찰」 『韓國史研究』 83
- 大屋徳城, 1936 『高麗續藏雕造考』, 京都: 便利堂



序 서문

- 1) 새로 모은 『원종문류(圓宗文類)』 서문
- 2)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教藏總錄)』 서문
- 3) 『성유식론단과(成唯識論單科)』를
간정(刊定)하는 서문



1) 새로 모은 『원종문류(圓宗文類)』¹⁾ 서문

대화엄의 가르침은 일진법계(一眞法界)²⁾의 미묘한 이치를 경전에 가득 차게 웅장하게 나타낸 것이다. 비로자나불³⁾의 마음의 근원을 밝혔고, 보현 보살의 실천의 바다를 드러냈다. 진실로 중생들의 영혼의 큰 근본이요, 본성에 어울리는 지극한 이야기이다. 그 빛이 용궁(龍宮)⁴⁾을 빛냄으로부터 상법(像法)과 말법(末法)⁵⁾시대까지 교풍이 행해져서 성현들이 이어 나와

- 1) 『원종문류(圓宗文類)』: 원종 화엄종의 수많은 전적 중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만을 간추려 모은 책. 22권으로 간행한 내용 중에 현재 권1·14·22의 3권의 내용만 전하고 있다. 권1은 발제(發題) 여러 글 21편, 권14는 행위(行位)의 여러 글 21편, 권22는 찬송(贊頌) 등의 글 50편을 수록하였다. 이를 통해 최치원의 「해동화엄초조기신원문(海東華嚴初祖忌辰願文)」 등 소중한 글을 알 수 있게 되었다.
- 2) 일진법계(一眞法界): 제불의 평등한 법신이 본래부터 생하지도 멸하지도 않고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니며, 이름과 모습을 떠나서 안도 없고 바깥도 없는 오직 하나의 진실하고 불가사의한 세계.(『大方廣佛華嚴經疏』 권3 大35 p.522c7)
- 3) 편조(遍照)는 비로자나불을 말함. ㉔ Vairocana, 비로자나(毘盧遮那)로 한역한다. 『화엄경』을 설하는 교주. 구역 60권 『화엄경』에서는 노사나불(盧舍那佛)로, 신역 80권 『화엄경』에서는 비로자나불로 번역하였다. 『화엄경』에 따르면 노사나불은 한량 없는 겁 동안 공덕을 수행하여 정각을 이루고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에 머물면서 대광명을 놓아 시방을 두루 비추며 털구멍에서 화신의 구름을 내어 끝없는 경전의 바다를 연출한다고 한다.
- 4) 용궁(龍宮): 용왕 또는 용신(龍神)이 사는 곳. 대해의 바닥에 있으며 용왕이 신력으로 용궁을 지었는데, 현세의 불법이 숨어 있을 때 용왕이 이를 보호하는 경권이 머무는 곳이라고 한다. 특히 화엄종에서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성인들이 따라서 숨어 나타나지 않아 다른 도가 다투어 일어나고 대승의 기량이 화엄경을 포용하기 어려울 때 6백년 동안 해룡의 왕궁에 있어 세상에 전해지지 않다가 용수보살이 용궁에 들어가 이를 보고 외워 가지고 나와 전하여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한다.(『華嚴經傳記』 권1 大51 p.153b19~23)
- 5) 상법(像法) 말법(末法): 불멸 후 부처님의 가르침이 시기에 따라 변천하는 모습을 정법시대(正法時代)·상법(像法)시대·말법(末法)시대 등 셋으로 구분하였는

저술을 잇달아 펴냈다.

그래서 종남산(終南山)⁶⁾의 조사 두순(杜順)존자⁷⁾가 찬탄하기를, “위대 하도다, 법계(法界)⁸⁾의 경전이여! 10지에 오른 보살이 아니고서야 어찌 능

데, 그 중 말법시대를 말대(末代) 또는 말세(末世)라고도 한다. 이 때는 교법이 쇠퇴하여 오직 교(敎)만 있고, 교에 따르는 행(行)이나 그 행을 인(因)으로 하여 얻어지는 과(果)로서의 깨달음[證]은 없다고 한다. 시간에 대해서는 이설이 많은데 대체로 석가입멸 후 500년을 정법 시대로, 그 다음 1000년을 상법 시대, 그 뒤의 1만년을 말법의 시대로 구분한다.

- 6) 종남산(終南山) : 중국 섬서성(陝西省)의 서안(西安) 곧 예전 장안(長安)의 남쪽 40km 거리에 있는 높이 2604m의 산으로 남산(南山)이라고도 한다. 진령산맥이 동서로 달리는 중에 있으며 일대의 취화산(翠華山) 남오대(南五臺) 규봉산(圭峰山) 여산(驪山) 등을 모두 포괄하여 말한다. 당대 불교의 중심지로 도선(道宣)·지엄(智儼)·종밀(宗密) 등 수많은 고승들이 수행하였고 많은 사원이 있어 계율종·화엄종·법상종·정토종·선종 등이 성행했던 수당대 중국불교의 중심지였으나 지금은 유적만 남아 있는 곳이 많다.
- 7) 두순(杜順)존자 : 557~640. 중국 화엄종의 초조로 추앙되는 인물. 웅주(雍州) 만년(萬年, 지금의 섬서성 臨潼縣 북방) 출신으로 속성이 두(杜)씨이다. 18세에 출가하여 법호를 법순(法順)이라 하였다. 인성사(因聖寺)의 승진(僧珍, 道珍)에게 사사하여 정업(定業)을 수행하였다. 뒤에 경주(慶州)에 가서 사람들에게 재회(齋會)를 베풀기를 권해서 500사람의 분량으로 1,000명을 만족시켰다고 한다. 그 외에도 두순에게는 많은 신이가 전해지고 있어 그가 하나의 교단을 조직할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있다. 세상에서 문수(文殊)의 화신이라 불렸으며, 제심존자(帝心尊者)라고도 한다. 제자인 지엄이 화엄교학을 체계화하였다. 『화엄법계관문(華嚴法界觀門)』 1권은 대체로 그의 진찬으로 보고 있다. 저술이나 화엄 초조라는 것에 대해 이론이 많다.
- 8) 법계(法界) : ①dharma-dhātu, 의식의 대상인 모든 사물로 18계의 하나. 일신 가운데 안(眼) 등의 제법이 구축되어 있어 각각 같은 종류가 상속하여 생겨나는 것을 말한다. 화엄종에서는 법계에 3가지 뜻을 말하니, 성스러운 법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 제법의 진실한 체성, 제법이 각각 구분되는 분제(分齊)를 가져 형상이 구분되는 것 등이다. 법계를 여러 가지로 구분하지만 일체는 끝내 일심법계로 귀결된다고 한다. 이는 제불과 중생의 본원의 청정심이므로 일심법계(一心法界)라고도 부른다.

히 그 글을 펼쳐 그 법을 볼 수 있겠는가? 내가 그 문을 만들어 보여주리라.”라고 하고, 이에 『법계관문(法界觀門)』⁹⁾을 지어 고제(高弟)인 지엄(智儼)존자¹⁰⁾에게 주었다. 지엄존자가 이를 받아서, 발전시켜 오교(五教)¹¹⁾를 만들고 부연하여 십현(十玄)¹²⁾을 만들었다. 현수(賢首)대사¹³⁾에 이르러 앞

-
- 9) 『법계관문(法界觀門)』: 중국 화엄종의 초조 두순이 지었다고 하는 책. 『화엄법계관문(華嚴法界觀門)』이라고 한다. 이 책은 독립된 책으로도 알려졌지만, 다른 책 가운데 수록되기도 하여 법장의 『발보리심장(發菩提心章)』이나 정관의 『법계현경(法界玄鏡)』 또는 종밀의 『주화엄법계관문(註華嚴法界觀門)』 등에서 볼 수 있다. ①진공관(眞空觀)에 4가지, ②이사무애관(理事無礙觀)에 10가지, ③주변함용관(周遍含容觀)에 10가지의 문으로 나누어 말하였다.
- 10) 지엄(智儼)존자: 602~668. 중국 화엄종의 제2조로 지상대사(至相大師) 또는 운화존자(雲華尊者)로 불린다. 신라의 의상과 중국의 법장의 스승으로서 화엄종의 창시자로 추앙되는 두순(杜順)을 따라 두순의 제자인 달(達)법사에게 배우고 법상(法常)과 지정(智正)에게 교학을 연마하였다. 화엄경을 차례대로 해석한 『수현기(搜玄記)』, 화엄사상의 요체를 담은 『공목장(孔目章)』·『오십요문답(五十要問答)』 등을 저술하여 중국 화엄종의 기반을 이루고 그를 이어 법장이 대성하도록 하였다.
- 11) 오교(五教): 화엄종에서 불교를 교리에 따라 구분하는 분류. ①4제와 12인연을 말하는 소승(小乘), ②모든 것은 실체가 없고 공이라는 반야 계통과 인연에 의해 생기는 모든 존재의 성상을 구별하여 설하는 해심밀 계통의 대승시교(大乘始敎), ③진여연기를 설하는 능가나 기신의 대승종교(大乘終敎), ④언구를 떠나 수행 계위에 구애받지 않고 문득 이성을 깨닫는 유마 등의 돈교(頓敎), ⑤원만하고 완전한 일승을 설하는 화엄과 법화 등의 원교(圓敎).
- 12) 십현(十玄): 십현문(十玄門) 또는 십현연기(十玄緣起). 육상설(六相說)과 함께 화엄종의 기본 교설로 꼽힌다. 사물 및 추상적 개념 등의 일체 현상적 존재가 그 자체로서 완전하며 자유롭고, 다른 개개의 존재 및 세계 전체와 결립이 없는 일체임을 밝히려는 것.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완비된 법장의 『탐현기(探玄記)』설에 의하면 ①동시구족상응문(同時具足相應門), ②광협자재무애문(廣狹自在無礙門), ③일다상용부동문(一多相容不同門), ④제법상즉자재문(諸法相即自在門), ⑤은밀현료구성문(隱密顯了俱成門), ⑥미세상용안립문(微細相容安立門), ⑦인다라망법계문(因陀羅網法界門), ⑧탁사현법생해문(託事顯法生解門), ⑨십세용법이성문(十世融法異成門), ⑩주반원명구덕문(主伴圓明具德門)의

에서 본받아 서술하고,¹⁴⁾ 청량(淸涼)대사¹⁵⁾는 뒤에서 본받아 밝혔으니,¹⁶⁾

10문이 있고, 이 10문은 동일한 연기의 여러 단면이며, ①교의(敎義), ②이사(理事), ③경지(境智), ④행위(行位), ⑤인과(因果), ⑥의정(依正), ⑦체용(體用), ⑧인법(人法), ⑨역순(逆順), ⑩응감(應感)의 각각 대비되는 10의(十義)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 13) 현수(賢首)대사: 643~712. 중국 화엄종의 제3조이며 화엄교학의 대성자. 이름은 법장(法藏), 호는 국일법사(國一法師) 또는 향상(香象)대사, 강장(康藏)국사라고도 한다. 선조가 강거국 사람이어서 속성은 강씨(康氏)이다. 조부가 중국에 들어와 장안에서 살았다. 어렸을 때 지엄에게 사사하여 화엄을 배웠는데, 지엄의 입적후 28세에 박진(薄塵)에게 출가하였다. 서역 여러 나라의 언어와 산스크리트어에 능하여 왕명으로 의정(義淨)의 역장(譯場)에 참여하였고, 신역『80화엄경』과 『대승입능가경(大乘入楞伽經)』 등 10여 종의 경전을 번역하였다. 측천무후의 후대를 받아 화엄사상을 집대성하고 측천무후를 위해 화엄사상의 정수인 십현연기(十玄緣起)를 설명하기 위해 궁전의 금사자에 비유한 『금사자장(金師子章)』을 짓기도 하였다. 일생 동안 30여 차례나 화엄을 강의하고 화엄사상의 조직화에 기여하고, 『능가경』·『밀엄경』·『법마경』·『기신론』 등의 경전에 주석을 지었다. 『화엄경』을 해석한 『탐현기(探玄記)』를 비롯하여 화엄종의 체계를 세운 『교분기(敎分記)』와 『기신론소(起信論疏)』·『망진환원관(妄盡還源觀)』·『범망경보살계본소(梵網經菩薩戒本疏)』·『화엄경전기(華嚴經傳記)』 등의 많은 저서가 있다. 제자로는 평관(宏觀)·문초(文超)·지광(智光)·종일(宗一)·혜원(慧苑) 등이 있다.

- 14) 조술(祖述)은 스승의 도를 본받아서 서술하여 밝힘을 말함.

- 15) 청량(淸涼)대사: 징관(澄觀, 738~839). 중국 화엄종의 제4조. 월주(越州) 산음인(山陰人)으로 속성은 하후(夏侯)씨이고, 자는 대휴(大休)이며 호는 청량(淸涼)국사이다. 11세에 보림사(寶林寺) 패(霈)선사에게 출가하여 계율과 삼론·기신·열반·화엄·전대·선을 두루 익히고 유학에도 능통하였는데, 특히 법장의 화엄학에 열중하였다. 776년에 오대산과 아미산을 순례하고 오대산 화엄사에서 방등참법(方等懺法)을 수행하고 화엄종지를 펴서 이름을 드날렸다. 796년에 덕종의 부름으로 장안에 가서 계빈삼장과 함께 (40)『화엄경』을 번역하고 종남산 초당사(草堂寺)에서 이 신경의 소를 지었다. 덕종으로부터 청량국사의 호를 받고 순종과 현종도 국사로 봉하였다. 3조인 법장의 직제자는 아니나 법장의 사상을 계승하여 4법계론을 완성하고 선종의 발흥에 대응하여 화엄사상을 발전 대성하였다. 『화엄경소(華嚴經疏)』 60권, 『수소연의초(隨疏演義鈔)』 90권, 『화엄경강요

비로소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화엄경』 대경을 강론하는 자는 모두 지엄과 법장(法藏)과 청량의 3대사의 의소(義疏)를 길이 표준으로 삼고, 여러 대가들의 저술을 곁들여 활용하여 보완하였다. 우리 해동(海東)의 부석(浮石)존자¹⁷⁾께서 중국에 법을 구한 이후로 원돈(圓頓)¹⁸⁾의 가르침이 여러 종파를 주도한 지 4백여 년이 되었다.¹⁹⁾

우리나라²⁰⁾가 삼한(三韓)을 하나로 통일한[一統三韓]²¹⁾ 지 거의 2백년이

(華嚴經綱要)』 3권, 『오온관(五蘊觀)』, 『삼성원융관문(三聖圓融觀門)』 등 30여종의 저술이 있다. 제자로는 종밀(宗密)을 비롯하여 승예(僧叡)·법인(法印)·적광(寂光) 등 백여 명이 있다.

16) 헌장(憲章)은 법. 본받아 밝힘을 말함

17) 부석(浮石)존자: 의상(義相, 625~702). 신라 화엄종의 개창자. 황복사에서 출가한 후 당에 유학하여 지엄에게서 화엄을 배우고 『일승법계도(一乘法界圖)』를 지어 일(一)과 다(多)가 걸림 없이 거듭 전개되는 법계연기 사상을 정립하였다. 귀국한 후 부석사(浮石寺)를 비롯한 여러 절을 세우고 많은 제자들과 화엄사상을 연마하고 정진하며 화엄종을 펴 나갔다. 한편으로 교단에서 관음신앙과 미타신앙을 선도하여 사람들이 불교 신앙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하였다. 제자들이 확장하여 창건하고 운영한 화엄십찰은 통일신라 불교계의 중추를 이루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일승법계도』 외에 『아미타경의기』가 저술로 알려졌고, 「백화도량발원문」 등 의상의 사상을 담고 있다고 알려진 저술이 몇 개 있지만 저술은 많지 않다. 제자로는 지통(智通)·진정(眞定)·도신(道身)·표훈(表訓) 등 여러 뛰어난 제자가 있다.

18) 원돈(圓頓): 원만돈족(圓滿頓足). 모든 사물을 원만히 결합없이 갖추어 단번에 깨달음에 이르는 것. 각 종파에서 구극으로 하는 가르침이나 실천을 원돈이라 함.

19) 의상이 귀국하여 활동한 670년 경부터 의천이 활동한 1070년 경까지 4백년이 됨.

20) 의천이 말하는 우리나라는 고려왕조를 말함.

21) 삼한(三韓)을 하나로 통일한[一統三韓]: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통일한 통일신라 시기에도 삼국이 이전의 삼한을 계승한 것으로 생각하고 삼국통일을 삼한통일로 표방하였는데,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것을 마찬가지로 삼한을 하나로 통일한 것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고 발해의 유민까지 받아들여 진정으로 통일왕조를 이룩하였음을 강조하려는 의도였다.

되어 삼보(三寶)를 빛내 드날리고, 해매는 중생을 인도하여 이끌어 여러 대에 걸쳐 외호의 인연을 두터이 하였고 지금 임금을 맞아 중흥의 교화를 도우셨으니, 계속 이어 부족할 수 있음은 진실로 나라의 대명(大明)함에 있었다. 해마다 봄가을로 궁궐의 회경전(會慶殿)²²⁾에서 백 명의 법사를 초청하여 대장경(大藏經)을 강독하는 법회²³⁾ 등의 도량불사를 개설하였다. 또 3년에 한 번씩 인왕반야(仁王般若) 백고좌대회(百高座大會)²⁴⁾를 설치하여 스님 3만인에게 공양을 베푸는 것²⁵⁾을 일정한 법식으로 삼았다. 그래서 여러 종파의 의리를 배우는 이들은 논의를 먼저 허용하지 않음이 없었다. 다만 지극한 이치의 깊고 미묘한 것은 여러 주장이 어지럽기 때문에 묻고 답할 때 이끌어 인용하기도 적잖게 어려웠다. 하물며 근세에 이르러 우리 종파의 이상한 것을 좋아하는 무리들이 근본을 버리고 지엽적인 것을 좇아 역설이 분분하여, 마침내 조사들의 깊은 뜻이 막혀서 통하지 못하게 만든

22) 회경전(會慶殿): 경기도 개성시 송악산(松嶽山)에 있던 고려시대의 왕궁의 가운데에 있는 정전(正殿). 회경전은 정사를 처리하는 가장 중요한 전각으로 정면 9칸, 측면 4칸의 규모이며 전면에 4개의 계단을 만들었고 좌우에는 동행각(東行閣)과 서행각(西行閣)이 있었다.

23) 간대장경회(看大藏經會): 대장경을 강독하는 법회

24) 백고좌대회(百高座大會): 백 명의 고승을 초청하여 『인왕호국반야바라밀다경(仁王護國般若婆羅蜜多經)』을 강설하며 나라의 태평과 백성의 평안과 기후가 순조롭기를 비는 도량. 이는 이 경에 국가가 혼란해지려 하거나 재난이 있거나 적이 침공하려 할 때 도량을 장엄하고 백 개의 불보살상을 안치하고 백 명의 법사를 초빙하여 등과 향과 의복과 음식과 방사 등을 크게 공양하고 매일 이 경을 강독하며 국왕과 대신과 사부대중이 이 경을 독송하고 여법하게 수행하면 재난이 없어진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고려에서는 대체로 궁궐의 회경전(會慶殿) 등에서 거행되었으며 1만 명 또는 3만 명 등의 반승(飯僧)과 함께 개설되었다. 궁궐 외에는 법왕사(法王寺)나 개국사(開國寺)에서 몇 차례 시행된 적이 있다.

25) 재승(齋僧)은 반승(飯僧)과 같음. 법회를 개최하고 초대한 승려들에게 공양을 대접하는 의식. 고려시대에는 국가적 행사인 백고좌대회 등을 열 때마다 1만, 3만, 5만 등의 승려들에게 반승을 베풀었다.

것이 십중 칠팔이었다. 교학과 관법[敎觀]²⁶⁾에 정통한 이들이 어찌 큰 병으로 여기지 않겠는가? 주상께서 그런 사실을 아시고 의리를 배우는 이들을 모아 논의하고 편찬하여 많은 글을 간추려 이 요람(要覽)을 만들게 하셨다. 이에 종류별로 모아 22권으로 나누어 새로 배우는 이들에게 주니 공이 될만한 일이었다. 참으로 요약한 것으로 인하여 소초(疏鈔)에 통하게 하여 경전의 뜻을 알게 하고, 경전의 뜻으로 인해 진리의 본성을 깨닫게 한다면, 어느 것이 상세하고 어느 것이 간략한가는 나의 신령한 깨달음에 있을 뿐이다. 통달한 식견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아는 자는 바로 우리 주상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부처와 조사들의 공덕을 떠받들 것이다. (이 일을) 임금께 아뢰었더니, 특별히 『원종문류(圓宗文類)』라는 이름을 내려 주시고, 이에 재주가 변변치 않은 저에게 명하여 서문을 짓도록 하셨다. 신은 굳게 사양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부족하나마 그 처음과 끝을 서술하여 삼가 서문으로 삼는다.

新集圓宗文類序²⁷⁾

大華嚴之爲敎也，一眞妙蘊，滿藏雄詮，窮遍照之心源，罄普賢之行海，誠生靈之大本，稱性之極談者歟。自景煥龍宮，風行像季，聖賢繼踵，述作連鑣。有終南祖師杜順尊者，歎曰“大哉，法界之經也。自非登地，何能披其文，見其法哉？吾設其門以示之。”於是著法界觀門，以授高弟智儼尊者。儼師得之，變之爲五教，演之爲十玄。及乎賢首祖述於前，清涼憲章於後，始

26) 교학과 관법은 교관(敎觀)으로, 의천의 사상적 특징으로 꼽힌다. 이 문집 권10에 수록된 「새로 참여한 학도 치수에게 보임(示新參學徒縉秀)」에서 배우는 이는 마땅히 삼관과 오교를 아울러 수행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삼관은 진공관, 이사무애관, 주변함용관의 관법 실천이고, 오교는 소승, 대승시교, 대승종교, 돈교, 원교의 교학을 말한다.

27) 『대각국사문집(大覺國師文集)』 권1 韓4 p.528a8~b23

可謂能事畢矣. 故講大經者, 咸以儼藏清涼三家義疏, 永爲標準, 而旁用諸家補焉. 自我海東浮石尊者求法之後, 圓頓之教, 主盟諸宗者, 四百餘年矣. 我國家一統三韓, 僅二百載, 光揚三寶, 誘²⁸⁾掖群迷, 累朝敦外護之緣, 當世協中興之化, 緬承付囑, 寔在休明. 每年春秋, 於大內會慶殿, 請百法師, 開設看大藏經會等道場佛事. 又三年一度, 置仁王般若百座大會, 齋僧三萬人, 以爲恒式. 而諸宗義學, 未始不以論議爲先容也. 但以至理幽微, 群言汗漫, 問答之際, 援引頗難. 況近世吾宗好異之輩, 棄本逐末, 臆說紛然, 遂令祖師玄旨, 壅而難通者, 十七八焉. 精於教觀者, 豈不爲之大息矣? □□□王上知其然, 乃集義學, 俾議纂修, 略彼廣文, 爲茲要覽. 以類鳩集, 離爲二十二卷, 施於新學, 可以者功. 苟或因要略, 以通疏鈔, 以得經旨, 因經旨以證理性, 則孰爲廣乎, 孰爲略乎, 在吾靈覺耳. 達識深於佛者, 方感吾君之恩, 而戴佛祖之德也. □□奏上, 特賜名曰圓宗文類, 仍命下才, 爲之序引. 臣牢讓未獲, 聊述端倪, 謹序.

2)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教藏總錄)』 서문²⁹⁾

옛날 영평(永平)³⁰⁾ 연간 이후로 경전³¹⁾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번역하여 유통한 것이 없는 때가 없었다. 정관(貞觀)³²⁾ 연간에 이르러 경전과 논서가

28) 한국불교전서 대본에는 誘이나 판본 대조 결과에 의해 誘로 교감함.

29) 이 『신편제종교장총록』은 고려는 물론 송·요·일본 등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수집한 경·율·론 삼장 이외의 삼장에 대한 주석서인 장소(章疏)를 모아 집대성한 세계 최초의 장소 목록이다. 의친은 이 서문에서, 경과 논이 갖추어졌다 하되

크게 갖추어져, 이로부터 서방 성인³³⁾의 가르침이 널리 퍼져 막을 수가 없었다. 섭도진(聶道眞)³⁴⁾과 도안(道安)³⁵⁾으로부터 명진(明旌)³⁶⁾과 도선(道

라도 장소가 없으면 법을 널리 퍼지게 할 길이 없어 교장(敎藏)을 20년 동안 찾아 이 목록을 만들고 간행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총록은 3권으로 구성되어 권상에는 경소(經疏) 561부 2,586권, 권중에는 율소 142부 467권, 권하에는 논소 307부 1,687권으로 모두 1,010부 4,740권의 방대한 분량이다.(4,822권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 중에는 권하의 『속개원석교록(續開元釋敎錄)』, 『법원주림(法苑珠林)』, 『일체경음의(一切經音義)』, 『속일체경음의(續一切經音義)』, 『대송고승전(大宋高僧傳)』, 『승사략(僧史略)』 등 교장의 범주에는 포함되기 어려운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의천은 이 목록을 토대로 흥왕사(興王寺)를 중심으로 간행하였다.

- 30) 영평(永平) : 불교가 중국에 처음 전해진 것은 여러 설이 있지만 후한(後漢) 명제(明帝) 영평(永平) 10년(서기 67)이라는 견해가 전통적으로 통용되어 왔다. 이보다 3년 전에 황제가 꿈에 목에서 빛이 나는 장륙의 금인(金人)을 보고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주 소왕 때 서방에 탄생한 성인이라고 답하여 채음(蔡愔)과 진경(秦景) 등을 보내 서역에 불도를 구하러 보냈다. 그리고 이 해에 채음 등이 대월지국에서 가섭마등(迦葉摩騰)과 축법란(竺法蘭)을 만나 불상과 경전을 싣고 낙양에 돌아왔다. 이 두 승려를 만나보고 홍려시(鴻臚寺)에 머물게 하고, 이듬해에 백마사(白馬寺)를 지었다는 것이다.
- 31) 엽서(葉書)는 패엽(貝葉)에 쓴 책이라는 뜻으로서, 경전을 말함. 패엽은 5pattra로서 종이가 없던 시대에 경전을 베껴 쓰는데 사용했던 나무 잎사귀로서, 주로 다라나무의 잎을 사용했다. 건조한 나뭇잎을 폭 2치, 길이 1자 내지 2자로 잘라서 송곳으로 글자를 새기고 먹을 묻히거나 붓으로 썼다. 쓴 후에 여러 장을 포개서 끈으로 묶고 눌러놓아 보존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남방불교에서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 32) 정관(貞觀) : 당나라 태종(太宗)의 연호. 627~649년. 신라 진평왕 49~진덕왕 3년.
- 33) 서방 성인 :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사는 곳이 중앙이라고 생각하여 불교 전래 초기에 서역을 통해 알려진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부처님을 서방에서 온 성인이라 하여 서방성인으로 불렀다. 예를 들면 『불조통기』에서 부처를 설명하는 것이 그런 예이다. (『佛祖統紀』 권54 大49 p.470a10~13. 漢明帝永平七年, 帝夢金人丈六飛行殿庭. 傳毅曰, 西方聖人, 其名曰佛. 帝乃遣蔡愔等使西域, 於月氏遇摩騰竺法蘭, 得佛像梵經, 載以白馬, 達于洛陽.)
- 34) 섭도진(聶道眞) : 서진(西晉)시대의 역경가. 섭승원(聶承遠)의 아들. 어려서부터

宣)율사³⁷⁾에 이르기까지 각각 (대장경의) 목록을 만들어 진록(晉錄)이나

부친을 따라 공부하여 내외 전적에 두루 통달하고 범어에도 능통하여 글을 짓는데 부친보다 더 낫다는 평을 들었다. 처음에 부친을 따라 축법호(竺法護)의 역장에 참여하였다가 곧 필수의 직책을 맡았다. 축법호가 서역으로 피난하자 그를 따라 갔고 축법호가 죽자 계속해서 역경사업을 이어갔다. 특히 『화엄경』 중에서 24품 38권을 번역하였다고 한다. 그밖에도 수십 부의 경전을 번역하였다.

35) 도안(道安): 314~385. 초기의 중국불교를 집대성한 동진시대의 승려. 12세에 출가하여 총명이 뛰어나 경론을 학습하는데 발군의 실력을 보였다. 불도정(佛圖澄)의 문하에 들어가 수학하였는데, 북방이 전란에 휩싸이자 호북의 양양(襄陽)에서 15년간 강설에 열중하였다. 전진(前秦)의 부견(苻堅)이 양양을 함락시키고 장안에 초청하여 활동하게 하였다. 도안은 부견에게 서역의 구마라집을 초청하도록 권유하여 성사시켰다. 도안은 여러 경전 가운데 잘못된 곳을 고치고 한역된 경전을 총정리하여 『종리중경목록(綜理衆經目錄)』을 편찬하여 중국불교의 토대를 닦았다. 경전 번역에 노력하고 22부에 이르는 여러 경전에 서문을 썼다. 또 경전의 해석을 서분(序分), 정종분(正宗分), 유통분(流通分)으로 삼분과하여 지금에 이르도록 통용되게 하였다. 승단의 의식과 행규(行規), 예참(禮懺) 등 여러 제도를 확립하였고, 출가자들에게 석씨 성을 사용하도록 하여 후세의 표준이 되었다. 반야 경전 연구를 중심으로 아함과 아비달마에도 정통하였다. 다방면에 걸쳐 중국 불교의 전개에 두드러진 업적을 쌓았다.

36) 명전(明詮): 당의 승려. 695년에 불수기사(佛授記寺) 승려로서 70인의 고승과 보리유지(菩提流志), 의정(義淨) 등도 참여하여 왕명으로 경전 목록인 『대주간정중경목록(大周刊定衆經目錄)』을 15권을 편찬하였다. 여기에는 후한으로부터 무주(武周)에 이르는 번역 경론 3,616부 8,641권이 중경목록(衆經目錄)과 위경목록(僞經目錄)으로 나뉘어 수록되었다.

37) 도선(道宣)율사: 596~667. 남산율종(南山律宗)의 창시자이자 불교사학(佛教史學)의 대가. 15세 때 일엄사(日嚴寺)의 율사 혜군(慧顧)을 사사하여 출가하고 20세에 대선정사(大禪定寺)의 지수(智首)에게 구족계를 받았다. 계율 연구에 매진하여 일엄사에서 숭의사(崇義寺)를 거쳐 중남산 방장곡(攸掌谷)에 은거하였다. 『사분율행사초(四分律行事鈔)』와 『사분율갈마(四分律羯磨)』 등을 저술하여 계율의 권위자가 되었다. 645년 현장(玄奘)의 번역사업에 필수(筆受)·윤문(潤文)으로 참가하였고, 이해에 『속고승전(續高僧傳)』의 초고를 저술하고 이어 『사분비구니초(四分比丘尼鈔)』·『계본(戒本)』·『석가방지(釋迦方志)』 등을 저술하였다. 658년에 서명사(西明寺)가 창건되자 상좌(上座)로서 교단을 지도하고 664년

위록(魏錄)³⁸⁾이라고 하였다.³⁹⁾ 그러나 같은 원본을 다르게 번역해 내어, 옛 이름과 새 이름이 혼히 그 글을 헛갈리게 하고 진짜와 가짜가 서로 뒤섞이게 되었다. 혹은 한 경전이 두 가지의 번역본이 되기도 하고, 혹은 일부가 따로 번역되기도 하여 40여 명의 주장이 어지럽게 된 지 오래되었다.

개원(開元)⁴⁰⁾ 연간에 처음으로 대법사가 있었으니 그 이름이 지승(智昇)⁴¹⁾인데, 잘못된 것은 빼버리고 중복된 것은 잘라 내어 모두 합쳐 한 책을 만들어 『개원석교록(開元釋教錄)』⁴²⁾이라 하였다. 모두 20권인데 가장

에 중남산 정업사(淨業寺)에 들어가 『대당내전록(大唐內典錄)』·『집신주삼보감통록(集神州三寶感通錄)』·『집고금불도논형(集古今佛道論衡)』·『광홍명집(廣弘明集)』 등의 저술에 전념하고 667년에 계단(戒壇)을 창설하고 『계단도경(戒壇圖經)』을 지어 후에 계단의 모범을 이루었다.

- 38) 진록(晉錄)이나 위록(魏錄): 진록은 동진의 도안이 종합 정리한 『종리중경목록(綜理衆經目錄)』, 위록은 북위의 이곽(李廓)이 편찬한 『위세중경목록(魏世衆經目錄)』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초의 목록인 도안의 목록 이래 남제 승우(僧祐)의 『출삼장기집(出三藏記集)』, 양의 보창(寶唱) 등이 편찬한 『양세중경목록(梁世衆經目錄)』, 제의 법상(法上)이 편찬한 『제세중경목록(齊世衆經目錄)』 등이 있다.
- 39) 이 구절은 『송고승전』의 지승 전기를 연상하게 한다. (『宋高僧傳』 권5 『唐京兆西崇福寺智昇傳』 大50 p.733c28~734a1. 每憊聶道真道安, 至于明佺宣律師, 各著大藏目錄, 記其翻傳年代人物者, 謂之晉錄魏漢等錄.)
- 40) 개원(開元): 당나라 현종(玄宗)의 연호. 713~741년.
- 41) 지승(智昇): 당의 승려. 출가하여 대소승을 익히고 계율에 뛰어났으며 고금의 경사에 두루 통달하였다. 도안 이래의 역대 경록의 보완과 교정에 노력하여 당 개원(開元) 18년(730)에 장안의 숭복사(崇福寺) 동탑원(東塔院)에서 『개원석교록(開元釋教錄)』 20권을 편찬하여 불교가 중국에 처음 들어온 후한 명제 영평 10년(67)부터 모록을 편찬한 개원18에 이르기까지 664년 동안 한역된 대소승 경율론 삼장과 승려들의 저술 그리고 역자를 모르는 본 등을 망라하여 5,048권의 가장 완비된 목록을 완성하여 이 분류체계에 따라 대장경에 입장하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개원석교록약출(開元釋教錄略出)』 4권, 『속대당내전록(續大唐內典錄)』 1권, 『속고금역경도기(續古今譯經圖紀)』 1권, 『속집고금불도논형(續集古今佛道論衡)』 1권, 『집제경예참의(集諸經禮懺儀)』 2권 등을 편찬하였다.

정선되고 긴요한 것이었다. 논의하는 이들이 경법(經法)의 계보로는 지승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하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전하는 그 공이 이보다 클 수 없다. 내가 생각해보니 경과 논의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장소(章疏)⁴³⁾가 없으면 법이 널리 퍼지게 할 길이 없다. 그래서 지승법사의 법을 수호하려는 뜻을 본받아 교장(敎藏)의 자취를 찾는 것을 내 임무로 생각하고, 쉬지 않고 부지런히 한 지 거의 20년이 되었다.

지금 얻은 새로 지은 것과 옛날에 지은 여러 종파의 장소를 감히 사사로이 비장하지 않고 간행하여 내놓았으며, (간행한) 뒤에도 새로 얻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수록하고, 빠진 것이 있으면 가져오려고 한다. 여기 차례매긴 함(函)⁴⁴⁾의 권질(卷帙)이 삼장(三藏)의 정문(正文)과 함께 영원히 이어진다면 내 바람은 이루어진 것이다. 때는 후고려(後高麗)⁴⁵⁾ 13대

42) 『개원석교록(開元釋教錄)』: 당(唐) 나라 현종 개원(開元) 18년(730)에 지승(智昇)이 편찬한 20권의 불서(佛書) 목록. 『개원록(開元錄)』·『지승록(智昇錄)』이라고도 한다. 전반부 10권은 「총괄군경록(總括群經錄)」으로 불교가 중국에 들어온 67년부터 730년까지 664년 동안 176명의 역경승들이 번역한 대소승 경·율·론, 합계 2,278종 7,046권의 역경을 시대별·번역자별로 열거 수록하였다. 후반부 10권은 「별분승장록(別分乘藏錄)」으로서, 이중 앞부분은 경을 위주로 7가지로 분류하여 수록한 것이고, 끝부분 2권은 대·소승의 입장목록(入藏目錄)으로서 대장경에 수록된 경전 총계 1,076부(部) 5,048권의 목록이다. 이를 기준으로 “일체 경 5천권” 등의 말이 생겨났으며, 역대 대장경의 조판은 대체로 이 목록에 따라 간행되었다. 지승은 대장경 목록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천자문(千字文) 순서에 따라 차례를 매겼다.

43) 장소(章疏): 편(篇)과 장(章)을 나누어 교의를 논한 것을 장이라 하고, 경론의 구절을 따라 해석한 것을 소라 한다. 그리고 소를 다시 주석한 것을 초(鈔)라 한다. 따라서 장소란 경론에 대한 주석서를 모두 가리키는 말이다.

44) 함(函): 대장경을 간행하는데 두루마리 수십 권(卷)을 한데 모아 상자[函]에 넣고, 천자문(千字文)의 순서에 따라 차례를 매겼다. 예를 들면 고려대장경의 부수는 1539부, 권수는 6천 여 권이고, 함수는 639개이다.

45) 후고려(後高麗): 고려를 말한다. 고려가 고구려의 계승을 표방하여 고구려 곧

(선종)께서 재위하신지 8년인 경오년 8월 8일에 해동 전화엄대교(傳華嚴大教)⁴⁶⁾사문(沙門)⁴⁷⁾ 의천은 쓴다.

新編諸宗教藏總錄序⁴⁸⁾

昔永平之後，葉書繼至，翻譯流通者，無代無之。爰及貞觀，經論大備，繇是西聖之教，霈然莫禦也。自聶道真道安，至千明佺宣律師，各著目錄，謂之晉錄魏錄等。然於同本異出，舊目新名，多惑其文，眞僞相亂。或一經爲兩本，或支品爲別翻，四十餘家，紛然久矣。開元中，始有大法師，厥號智昇，刊落訛謬，刪簡重複，總成一書，曰開元釋教錄。凡二十卷，最爲精要。議者以爲經法之譜，無出昇之右矣，住持遺教，功莫大焉。予嘗竊謂經論雖備，而章疏或廢，則流衍無由矣。輒效昇公護法之志，搜訪教迹，以爲己任，孜孜不捨，僅二十載于茲矣。今以所得新舊製撰諸宗義章，不敢私秘，叙而出之，後有所獲，亦欲隨而錄之，脫或將來，編次函帙，與三藏正文，垂之無窮，則吾願畢矣。時後高麗十三葉 在宥之八年，歲次庚午八月初八日，海東傳華嚴大教沙門某叙。

앞의 고려와 대비시켜 자신들의 고려를 후고려라고 쓴 것이다.

- 46) 전화엄대교(傳華嚴大教) : 화엄의 대교를 전하는 승려라는 뜻. 고려시대에 자신의 종파를 나타내는 말로 이해된다. 『원종문류』에 나오는 인명을 보면 편정(編定)을 맡은 책임자 의천은 전현수교관(傳賢首教觀) 겸 강천대교관(講天台教觀), 중교(重校)를 맡은 해인사·흥교사·불일사의 주지들은 전현수교관(傳賢首教觀), 나머지 상교(詳校)를 맡은 실무자들은 강현수교관(講賢首教觀)으로 구분하였다. (大屋德城, 『高麗續藏藏雕造攷』도판 권하, 103~106쪽에 수록된 『圓宗文類』 판본刊行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47) 사문(沙門) : ṣramaṇa, 출가자를 총칭하는 말. 머리를 깎고 모든 악을 그치고 몸과 마음을 수련하여 열반에 이르도록 수행하는 출가자.
- 48) 『대각국사문집』 권1 韓4 pp.528c1~529a6

3) 『성유식론단과(成唯識論單科)』를 간정(刊定)하는 서문

부처님⁴⁹⁾의 변함없는 가르침이 동쪽으로 전해 온 지 오래되었다. 주(周)⁵⁰⁾나라 때 시작하여 한(漢)⁵¹⁾나라 때 전파되었고, 위진(魏晉)⁵²⁾시대

-
- 49) 각황(覺皇)은 불타의 덕을 칭송하는 별호의 하나. 부처님께서 일체 제법의 참된 본성을 원만하게 깨달음을 일컫는 말. 부처란 깨달았다는 뜻으로 큰 깨달음[大覺]이라 하고 또 각왕(覺王)이라 하며 각황이라고도 한다.
- 50) 주(周): 중국의 왕조. 은(殷, 또는 商)나라를 이어 서기전 11세기부터 서기전 256년까지 존속했던 나라. 처음에 호경(鎬京, 지금의 섬서성 西安)에 도읍을 정했으나 서기전 771년에 견융이 호경을 공격하여 유왕(幽王)이 피살되고 평왕(平王)이 동쪽 낙읍(洛邑, 지금의 하남성 洛陽)으로 천도하였다가 마지막에 진(秦)에 멸망하였다. 서기전 771년을 중심으로 그 이전을 서주, 그 이후를 동주라 한다. 동주시대는 춘추시대와 전국시대에 해당한다.
- 51) 한(漢): 서기전 206년부터 서기 220년까지 존속했던 중국의 왕조. 전국시대를 통일한 진이 얼마 안 있어 패망하고 들어선 통일왕조이다. 고조 유방(劉邦)에 의해 건국된 이래 약 400년을 지속하였다. 중국 역사상 가장 강대했던 시기 중의 하나이고, 중국인이나 중국문화를 부를 때 사용하는 한(漢)의 표현이 여기서 유래하였다. 서기 8년부터 23년까지 왕위를 찬탈하였던 왕망의 신(新)을 중심으로 그 이전을 전한(前漢), 그 이후를 후한(後漢)이라 한다.
- 52) 위진(魏晉): 위(魏)는 후한이 망한 후 등장한 삼국 중의 위(魏, 220~265년)를 말한다. 조조(曹操)가 건국하여 삼국 중 가장 강대했던 나라였다. 265년에 진(晉)의 사마염(司馬炎)에게 나라를 물려주어 패망하였다. 진(晉)은 서진(西晉, 265~317년)과 동진(東晉, 317~420년)으로 나뉘는데, 서진은 사마염이 삼국을 통일하여 이룩한 왕조이고, 동진은 서진이 전조(前趙)에게 패망하고 사마예가 강남지방으로 내려와 건업(建業)에 도읍한 왕조로서 송(宋)에 망하였다. 그러나 위진이라고 할 때는 이 나라를 따로 말하는 것보다 위진남북조시대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 이 시기는 한의 패망 이후 수의 통일 이전까지(221~589)의 분열된 시기이다. 동진에 이어 송(宋)·제(齊)·양(梁)·진(陳)의 네 나라가 건강에 도읍하여 이를 남조(南朝)라 부르고, 이들 남조와 오(吳)·동진(東晉)을 합하여 육조(六朝)라 부른다. 북방은 5호15국의 분열을 수습한 북위(北魏)가 통일하여 지속되다가 6세기 중반에 동위(東魏)·서위(西魏)로 나뉘고, 다시 북제(北齊)·북주(北周)로 이어졌다가 북주에서 일어난 수(隋)에 의해 전까지 통일되어 남북조시

에 풍족해졌으며 수당(隋唐)⁵³⁾ 시대에 널리 퍼졌다. 계율[戒]과 선정[定]과 지혜[慧]가 서로 같지 않아 마침내 경(經)과 율(律)과 논(論)의 다름에 이르게 되었다. 예전 요진(姚秦) 때 구마라집(鳩摩羅什)⁵⁴⁾이 관중(關中)⁵⁵⁾

대가 끝났다.

- 53) 수당(隋唐): 수(隋, 581~618)는 서진이 멸망한 후 분열되어 300년 동안 지속된 남북조 시대의 혼란을 진정시키고 재통일한 왕조. 수는 2대만에 멸망하고, 그 후 곧 이어 당(唐, 618~907)이 중국을 재통일하였다. 수나라 말기의 혼란을 수습하고 장안(長安)을 수도로 세운 당나라는 영역을 넓히고 경제를 충실히 하며 국제적으로 문화를 받아들여 중국사의 번영기를 이룩하였다. 동아시아에 중국 문화가 널리 전파되어 각국의 문화가 독자적인 발전을 이룩하도록 촉진하기도 하였다.
- 54) 구마라집(鳩摩羅什): 344~413, ㉔ Kumārajīva, 동수(童壽)라고 의역한다. 쿠차국[龜茲國] 출신으로 동진에 와서 활동한 중국 역경사 상에서 현장과 견주는 2대 역경가의 한 사람. 7세에 불교 공부를 시작하여 인도에 가서 여러 스승에게 배웠다. 고국에 돌아와 왕사가 되어 활동하자 전진왕의 부견(苻堅)이 그 명성을 듣고 여광(呂光)을 보내 초빙하게 하였는데, 도중에 부견이 패망하자 여광은 나라를 세워 구마라집은 양주(涼州)에서 16,7년 동안 지냈다. 후진의 요흥(姚興)이 여광을 물리쳐 구마라집은 401년에 비로소 동진의 장안에 들어와 국사의 대접을 받으며 역경 활동에 종사하였다. 그래서 『중론』·『백론』·『십이문론』의 삼론을 번역한 이래 『반야경』·『법화경』·『대지도론』·『아미타경』·『유마경』·『십송률』 등 수많은 경론을 번역하였다. 그 수는 『개원석교록』에는 74부 384권이라 하였다. 구마라집은 산스크리트와 중국어 등 여러 외국어에 능통하여 경론의 내용을 간결한 문체에 유창하게 옮겨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지녀 그가 번역한 경전들은 후세에 널리 애용되어 읽혔다. 용수 계통의 중관학파의 학설을 소개하고 이를 제자들이 남방에 전파하여 삼론종의 원천이 되는 등 중국불교의 사상적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밖에도 그가 한역한 경론들은 천태종이나 정토 계통 그리고 미륵신앙이나 대승계율의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문하에는 4성으로 불리는 승조(僧肇)·도생(道生)·도융(道融)·승예(僧叡) 등 많은 명승들이 나와 활동하였다.
- 55) 관중(關中): 관(關) 안쪽 지역이라는 뜻으로, 중국의 지역을 가리키는 명칭. 일정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함곡관(函谷關) 서쪽의 전국시대 말기 진(秦)의 옛땅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함곡관과 무관(武關), 산관(散關), 소관(蕭關)의 네 관으로 둘러싸인 땅이다. 때로는 진령(秦嶺) 남쪽의 한중(漢中), 파촉(巴蜀)을 가리

에 들어와 대승의 논서와 학문을 처음으로 세상에 번역해냈으니 『중론(中論)』⁵⁶⁾과 『백론(百論)』⁵⁷⁾과 『십이문론(十二門論)』⁵⁸⁾ 등이 그것이다. 강남(江南)⁵⁹⁾의 육조(六朝)⁶⁰⁾ 시대에 불교를 으뜸으로 하는 이들은 모두 삼론(三論)으로 …하지 않음이 없어 (…떨어져 나감…)

키기도 하고 섬서성과 감숙성을 가리키기도 하며, 섬서성 위하(渭河) 유역 일대를 말하기도 한다.

- 56) 『중론(中論)』: ㉔Mūlamadhyamaka-kārikā, 용수가 짓고 구마라집이 번역한 책. 4권. 『중관론(中觀論)』, 『정관론(正觀論)』이라고도 하는 27품 446개의 근본중송(根本中頌), 용수 초기의 저작으로 알려진 것으로, 공(空)과 연기(緣起), 세속제(世俗諦)와 승의제(勝義諦)의 2제의 문제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부정의 부정’이라는 논법으로 중도(中道)를 밝힌 것으로 공과 가(假)를 논파하고 공에 집착하는 견해도 논파하여 생(生)·멸(滅)·단(斷)·상(常)·일(一)·이(異)·거(去)·래(來)의 팔불중도(八不中道) 곧 무소득의 중도를 주장하였다. 인도 중관학파의 근본 입장이자 중국 삼론종의 중요한 바탕이다. 이 책과 『십이문론』·『백론』을 합쳐 삼론이라 하고, 여기에 『대지도론』을 더하여 사론이라 한다.
- 57) 『백론(百論)』: ㉔Śataśāstra, 인도 중관학자 제바(提婆, ㉔Āryadeva)가 3세기 경에 짓고 세친이 주석한 것을 구마라집이 404년에 번역한 책. 2권. 용수의 『중론』을 계승하여 공과 무아(無我)설로 수론(數論)이나 승론(勝論) 등의 견해를 논파하였다. 10품으로 구성되었고 각 품마다 5개가 있으며 계문의 끝에 제바가 지은 단문이 있고, 세친이 지은 주석문이 따르는 형식이다. 원래 20품 100개였으므로 『백론』이라 하였으나, 10품 50개는 번역되지 않았다. 이 책과 『중론』·『십이문론』을 합쳐 삼론이라 한다.
- 58) 『십이문론(十二門論)』: ㉔Dvādaśamukha-śāstra, 용수가 짓고 구마라집이 409년에 한역한 책. 1권. 관인연문(觀因緣門)에서 관생문(觀生門)에 이르는 12문에 걸쳐 대승 공관(空觀)을 주장한 책. 26계송과 주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2개는 저자의 『공칠십론(空七十論)』에서 인용한 것이고, 17개는 『중론』에서 인용한 것이며, 나머지는 『중론』과 많은 유사점이 있다. 그래서 이 책이 용수의 저술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이 책과 『중론』·『백론』을 합쳐 삼론이라 한다.
- 59) 강남(江南): 일반적으로 장강(長江, 揚子江) 이남의 지역을 부르는 말. 시기적으로 가리키는 뜻이 같지 않은데, 한대 이전에는 호북성(湖北省) 양자강 이남과 호남성, 강서성 일대를 뜻했고, 이후에는 지금의 강소성(江蘇省)과 안휘성(安徽省) 남부와 절강성(浙江省) 일대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나는) 교관(敎觀)의 강주(講主)가 되었는데, 뒤에 현화사(玄化寺)⁶¹⁾의 우상(祐翔)대사에게서 『성유식론(成唯識論)』⁶²⁾ 강의를 듣고 또 항주(杭州) 혜인사(慧因寺)⁶³⁾의 정원(淨源)⁶⁴⁾공의 강석에 나아가 『화엄경』 대경을 배

60) 육조(六朝): 오(吳)·동진(東晉)·송(宋)·제(齊)·양(梁)·진(陳)의 여섯 나라. 위 진남북조시대의 남조 나라로서 거의 같은 시간·공간을 갖는 의미로 사용된다. 남경(南京)을 수도로 하고, 양자강(揚子江) 하류의 양주(揚州)를 정치·경제의 중심지로 삼았으며, 중류의 형주(荊州)를 군사상의 요지로 삼아 화북(華北)의 정권과 대항하였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귀족문화가 왕조를 달리하면서도 통일성을 지녔기 때문에 문화사적 의미로도 쓰인다.

61) 현화사(玄化寺): 지금의 개성시 장풍군 월고리(예전의 경기도 개풍군 영남현 현화리)에 있었던 절. 현종이 돌아간 부친 안종(安宗)과 모친 인혜태후(仁惠太后)의 능을 이장하고 이들과 누이 성목장공주(成穆長公主)를 위해 1017년부터 4년에 걸쳐 창건하여 이들의 진영을 봉안한 절. 『玄化寺碑』 완공한 1020년 8월에 현종이 안서도(安西道)에 명하여 둔전(屯田) 1,240결(結)을 이 절에 주게 하여 경제적 지원을 하였다. 그 해 9월에 동종을 주조하였고, 10월에는 이 절의 승려 법경(法鏡)을 왕사(王師)로 삼았으며, 1021년에는 현종이 행행(行幸)하여 비문(碑文)의 전제(篆題)를 썼다. 현종이 국가의 번영과 사직의 안녕함을 위하여 매년 4월 8일부터 사흘간 밤낮으로 미륵보살회(彌勒菩薩會)를 베풀고, 양친의 명복을 위해서는 매년 7월 15일부터 사흘간 밤낮으로 미타불회(彌陀佛會)를 열었다. 의종은 이곳에 자주 행차하여 반승과 무차대회(無遮大會)와 나한재(羅漢齋) 등을 베풀기도 하였다. 옛 절터에는 칠층석탑과 현화사비(1022년), 당간지주 등이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개성박물관에 옮겨졌다.

62) 『성유식론(成唯識論)』: ㉔ Vijñaptimātratāsiddhi-śātra, 10권. 세친(世親)의 유식사상의 대표적인 저술인 『유식삼십송(唯識三十頌)』을 당의 현장이 세친 문화의 10대논사들이 해석한 학설을 호법(護法)의 해석을 정통으로 하고 다른 견해를 비판 종합하여 659년에 번역한 책으로 중국 법상종(法相宗)의 중요 전적(典籍)이다. 8식(識)을 자세히 말하여 인식의 과정을 명백히 하고, 또 실천적 수행의 5계위(階位)를 말하였다. 아(我)와 법(法)에 대한 두 가지 집착을 제거하여 번뇌(煩惱)·소지(所知)의 두 가지 장애를 끊도록 하고, 모든 법이 유식임을 밝힌 논서이다.

63) 혜인사(慧因寺): 절강성 항주(杭州) 서호(西湖) 서남안의 적산(赤山) 인근에 있던 절. 후당(後唐) 때인 927년에 오월왕(吳越王) 전유(錢鏐)가 창건하여 혜인선

웠으며 동경(東京) 현성사(顯聖寺)⁶⁵⁾의 임(琳)⁶⁶⁾법사 문하에서 이 『성유식론』을 물어 의심을 풀었다. 그후 법등(法燈)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아 흥왕사(興王寺)⁶⁷⁾에 머물며 『화엄경』을 강의하기를 10차례를 하였다.

원(慧因禪院)이라 하였다. 북송 때 진수정원(晋水淨源)이 이 절에 머물때 의천이 와서 화엄을 배웠고, 신종(神宗, 1067~1085) 때 혜인교원(慧因敎院)이라고 고쳤다. 이는 의천이 경론의 소초 7천 5백판을 이 절에 조성한데(『杭州慧因院賢首敎藏記』) 따른 것이었다. 의천이 고려에 돌아간 다음 금서(金書) 『화엄경』 3본 180권을 정원에게 공양하여 ‘고려사(高麗寺)’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는데, 고려에서는 금탑도 조성하여 보냈다.(『捨金塔納大宋慧因院疏』) 원 지정(至正, 1341~1367) 말년에 병화로 건축물 대부분이 불탔고, 명 정덕(正德, 1506~1521) 연간에 승려들이 흩어져 황폐해졌다가 다시 화엄 강의가 성행하여 건물도 중건되었으나 청말 이후 쇠락하였다. 최근에 한국의 지원으로 본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간단한 구조의 혜인원이 중건되었다.

64) 정원(淨源): 1011~1088. 송나라의 화엄승. 복건성 진강(晉江) 출신으로 성은 양(楊)씨. 자는 백장(伯長), 호는 잠수(潛叟). 오대승천(五臺承遷)에게 화엄을 배우고 횡해명담(橫海明覃)에게서 배운 후 장수자선(長水子璿)을 사사하여 능엄과 원각과 기신을 배웠다. 천주(泉州)의 청량사(淸涼寺)와 항주의 상부사(祥符寺)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화엄의 중지를 드날렸고, 신종 때에 혜인사(慧因寺)에서 화엄을 강의할 때 의천이 와서 배웠다. 의천이 귀국한 후 1087년에 금서(金書) 『화엄경』 3본을 보내와 화엄각을 짓고 봉안하여 다음해 3월에 나라의명에 의해 혜인선원을 교원(敎院)으로 바꾸어 화엄전당으로 삼고 그해에 입적하였다. 화엄종풍을 드날린 중흥교주로 불린다. 진강(晉州)출신이라서 진수(晋水)법사라 불렸다. 『화엄망진환원관소초보해(華嚴妄盡還源觀疏鈔補解)』·『화엄원인론발미록(華嚴原人論發微錄)』 등의 저술이 있다.

65) 현성사(顯聖寺): 현성사는 보통 절강성 소흥현(紹興縣) 남쪽 운문산(雲門山)에 있는 절이 알려져 운문산현성사(雲門山顯聖寺)라 하여 특히 명대에 조동종 사찰로 이름났다. 그러나 여기서의 현성사는 동경 곧 낙양에 있는 현성사로서, 우가(右街)승록사가 설치되었던 절로 보인다.(『佛祖歷代通載』 권19 大49 p.683b20~21. 七月御批右街顯聖寺釋迦院)

66) 임(琳): 의천이 유식 강의를 들은 혜림(慧琳).

67) 흥왕사(興王寺): 경기도 개풍군 덕적산(德積山)에 있던 절. 고려 문종의 원찰(願刹)로 창건되었다. 사치스럽고 장엄하다 하여 신하들의 반대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가야산(伽耶山) 해인사(海印寺)⁶⁸⁾에 물리나와 숲과 시내의 즐거움을 사랑하다가 저술할 마음이 싹텄다. 백가의 책들을 두루 보고 장차 그 그릇될만한 이들을 이롭게 하기로는 『기신론(起信論)』⁶⁹⁾과 『성유식론』의 두 논서가 성종(性宗)⁷⁰⁾과 상종(相宗)⁷¹⁾ 양종의 핵심으로서 학인들이 마땅히 마음을

하고 12년 동안의 공사 끝에 1067년(문종 21) 정월에 낙성하였다. 총 2,800칸의 대규모로 1,000명의 승려를 뽑아 머물게 하였고, 1078년에는 144근의 금탑을 만들어 봉안하였다. 문종의 몰후 이 절에서 제사를 지냈다. 의천의 교장 간행사업이 진행되고 실현된 사찰로서, 의천은 이 절의 초대 주지를 맡았고 1087년(선종 4)에 세워진 대장전(大藏殿)은 교장 간행을 위한 것이었다. 몽고의 병란으로 완전히 소실되었다가 그 뒤 여러 차례 중창하였다가 1330년(충숙왕 17)에 9년 동안 공사 끝에 이전의 면모를 되찾았으나 다시 쇠락하여 지금은 터만 남아 있다.

68) 해인사(海印寺) : 경상남도 함천군 가야면 치인리 가야산에 있는 절.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본사이며 조계종의 총림으로, 팔만대장경판(八萬大藏經板)을 봉안한 법보사찰(法寶寺刹)이다. 신라 애장왕 3년(802)에 순응(順應)과 이정(利貞)이 대규모로 중창하여 현재의 규모를 이룬 화엄십찰의 하나이다. 고려 태조의 복전(福田)이었던 희랑(希朗)이 이곳에서 화엄의 사상을 펼쳤다. 고려 후기에 재조(再雕)하여 강화 선원사(禪源社)에 보관하던 대장경을 조선 정종 때(1398) 해인사로 옮겨 지금까지 그대로 잘 보관하고 있다. 세조 때 장경각(藏經閣)을 개수하는 등 역대로 중건을 거듭하여 말사 75개와 부속 암자 14개를 거느린 법보총림으로서 한국불교의 큰 맥을 이루고 있다. 경내에는 대적광전을 비롯하여 명부전 응진전 구광루 등 많은 건물이 있고, 주요 문화재는 국보이자 세계문화유산인 대장경판과 장경판전, 보물인 석조여래입상과 원당암 다층석탑, 반야사 원경왕사비, 목조희랑대사상, 사간 장경 등이 있다.

69) 『기신론(起信論)』 : 마명(馬鳴, ㉟Aśvaghōṣa)이 짓고 진제(眞諦, 499~569)가 한역했다고 하는 대승 논서. 대체로 진제가 활동하던 양나라 때 중국에서 찬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책은 여래장연기(如來藏緣起)의 뜻과 보살과 범부의 발심수행을 이론과 실천의 양면에서 대승불교의 중심사상을 귀결지은 불교사상의 중요한 입문서로 꼽힌다. 주요 논지는 일심(一心), 이문(二門), 삼대(三大), 사신(四信), 오행(五行)의 범문이다. 일심은 절대적 일심으로 중생심이자 여래장 진여심을 말하며, 세계 만유는 모두 진여가 드러난 것이며, 일체중생은 본래 열반 가운데 상주한다고 한다.

70) 성종(性宗) : 일체 제법은 진여법성(眞如法性)에서 생겨났다는 것에서 법성(法

다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기신론』은 일찍이 어느 정도 익혔지만 다만 『성유식론』만은 그 공력을 다하지 못하여, 그 번거로운 말에 빠져 그 중요한 뜻에 헤매일까 걱정하였다. 이에 본기(本記)를 찾아 연구하고 이전의 과목(科目)을 참조하여, 깎아내고 정리하여 3권으로 만들었다. 만일 뜻을 같이 하는 이로서 과목을 가지고 논을 음미하려는 이는 먼저 원문을 익히고 뒤에 소초(疏鈔)를 다루면 유식의 뜻을 거의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이는 “현수대사는 오교 중에서 유식과 유가(瑜伽)⁷²⁾를 대승시교(大乘始敎)⁷³⁾로 판정하였다”고 하고, 또 말하기를, “이는 진실로 구경의 현묘한 설은 아닌데 법사는 화엄을 배웠으면서 왜 공들여 (유식을 공부하는가?”라고 한다. 나는 말하기를, “불법은⁷⁴⁾ 오교를 다 다루어야 하니 그래서 겸해서 배워야 한다. 대개 화엄은 (최상의 법문이지만) 일대의 결가지가 되는 것

性)에 대한 추구를 중지(宗旨)로 하는 종파. 법성종(法性宗)이라고도 한다. 화엄종(華嚴宗), 천태종(天台宗) 등이 이에 해당된다.

71) 상종(相宗): 식(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제법의 현상을 치밀하게 분류 고찰하고 진리의 차별상을 중시하는 종파. 법상종(法相宗)이라고도 한다. 성종(性宗)에 대응하는 이름이다.

72) 유가(瑜伽): ㉠yoga, 상응(相應)이라고 의역하며 깨달음에 이르는 실천, 수련, 정신통일로 해석된다. 인도 불교의 유가행파(瑜伽行派, ㉡Yogācāra)에서는 유식사상에 의하여 유가행을 체계화하였다. 유가 유식의 교의는 현장(玄奘)의 인도 유학과 신역 경전을 통해 중국에 본격적으로 전해져서 현장의 제자 규기(窺基)에 의해 법상종(法相宗)이 개창되었다.

73) 대승시교(大乘始敎): 소승에 대하여 대승에 처음 들어가는 했으나 근기가 미숙한 이들에게 설하는 가르침. 이중에 두 가지가 있다. 공시교(空始敎)는 『반야경』 등의 교설로서 일체 물질은 일정한 실체가 본래 공임을 주장하는 가르침이고, 상시교(相始敎)는 『해심밀경』 등의 교설로서 제법이 인연에 의해 생긴다 하여 만유에 모두 주체가 있고 현상에 구별이 있다는 가르침이다.

74) 이속과 다음 줄의 () 안의 구절은 떨어져 나간 부분을 추정한 것.

이 이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은(慈恩)대사⁷⁵⁾는 소에서 육경(六經)⁷⁶⁾을 예로 인용하면서 『화엄경』을 그 최초로 두었다.” 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경이 근본이 되니 법상(法相)을 따라서 선양하며, 논은 지말의 으뜸이니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 이치를 이룬다.”⁷⁷⁾고 하였다. 서명(西明)대사⁷⁸⁾는 소 중에서 귀명개(歸命偈)의 ‘만분(滿分)’이라는 말을 해석하여

75) 자은(慈恩)대사: 규기(窺基, 632~682). 현장에 이어 중국 법상종(法相宗)을 완성한 스님. 장안(長安) 출신으로 성은 율지(尉遲)씨이고 자는 홍도(洪道)이다. 기법사(基法師)라고도 불리웠고, 자은종(慈恩宗)의 조사라는 뜻에서 자은(慈恩)대사로도 불리웠다. 17세에 출가하여 현장의 제자가 되어 자은사(慈恩寺)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현장에게서 산스크리트어와 경론을 배웠다. 25세부터 역경에 참여하여 659년에 현장을 도와 『성유식론(成唯識論)』을 번역해 내고, 현장은 그를 위해 『인명정리문론(因明正理門論)』과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등을 설해 주었다. 이후 규기는 현장이 번역한 『변중변론(辯中邊論)』 등 다수의 경론에 주석서를 썼다. 저술이 매우 많아 백본(百本)의 소주(疏主)라고 불리웠는데, 『법원의림장(法苑義林章)』·『유가론찬석(瑜伽論略纂)』 등 유가 저술이 많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미륵 경전에 대해서도 『관미륵상생도솔천경찬(觀彌勒上生兜率天經贊)』 2권을 지었다.

76) 육경(六經): 『유가사지론』 등 11론과 함께 법상종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여섯 가지 경전. 『화엄경』·『해심밀경』·『여래출현공덕장엄경(如來出現功德莊嚴經)』·『대승아비달마경(大乘阿毘達磨經)』·『능가경』, 『후엄경(厚嚴經)』.

77) 『대승법원의림장(大乘法苑義林章)』 권2 大45 p.292a8~9, 經爲根本, 義依法相以宣揚, 論是末宗, 稟佛言而成理.

78) 서명(西明)대사: 원측(圓測, 613~696). 신라의 왕족으로 전하며 어려서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고, 627년 당에 건너가 법상(法常)과 승변(僧辨)에게 유식론(唯識論)을 배우고, 이후에도 『비담론(毘曇論)』·『성실론(成實論)』·『구사론(俱舍論)』 등 다양한 교학을 익혔다. 그리고 중국어와 산스크리트어에 능통하여 현장 문하에서 경전 번역에 참여하였다. 진제 계통의 구유식을 깊이 이해하여 교학 기반을 다졌으나, 현장이 호법 계통의 신유식을 소개하자 이를 수용하여 크게 선양하였다. 원측은 현장에서 규기로 이어지는 당의 법상종 유식사상과는 달리 중관과 유식의 대립에 대한 의식에서 포용적인 관점을 보여 이를 계승하는 흐름을 서명학과(西明學派)라 한다. 신라에서는 여러 차례 원측의 귀국을 요청하였으

“‘만’이란 여래이고 ‘분’이란 금강장(金剛藏)과 해탈월(解脫月)⁷⁹⁾이다.” 라고 하였으니, 깊이 경론의 근본과 지말을 보았다고 할 수 있다. 하물며 청량대사는 “성과 상은 하늘의 해와 달과 같고 『주역(周易)』⁸⁰⁾의 건괘(乾卦)와 곤괘(坤卦)와 같은 것이니, 두 가지를 겹쳐서 배워야만 비로소 통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⁸¹⁾ 라고 하였다.

이로써 알라. 『구사론(俱舍論)』⁸²⁾을 배우지 않으면 소승의 학설을 알 수

나 당에서 허락하지 않아 끝내 신라에 돌아오지 못한다고 한다. 저서에 『해심밀경소(解深密經疏)』·『인왕경소(仁王經疏)』·『성유식론소(成唯識論疏)』·『유식이십론소(唯識二十論疏)』 등이 있다.

79) 금강장(金剛藏)과 해탈월(解脫月): 『화엄경』 십지품(十地品)의 설주(說主)와 설하는 이. 십지품은 금강장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이어 받아 해탈월보살을 위해 십지 보살의 수행을 설한 내용이다.

80) 『주역(周易)』: 복희씨(伏羲氏)가 황하에서 도형(圖形)을 보고 천문지리를 살펴 고 만물의 변화를 고찰하여 처음 8괘를 만들고, 이것을 더 발전시켜 64괘를 만들었다고 하는 등 작자에 대해 이견이 많다. 8괘(八卦)와 64괘, 그리고 괘사(卦辭)·효사(爻辭)·십익(十翼)으로 되어 있다. 태극(太極)이 변하여 음·양이 되고, 음양은 다시 변해 건(乾)·태(兌)·이(離)·진(震)·손(巽)·감(坎)·간(艮)·곤(坤) 8괘가 되며, 이것만으로는 천지자연의 현상을 다 표현할 수 없어 64괘를 만들고, 거기에 괘사와 효사를 붙여 설명한 것이 『주역』의 경문(經文)이다. 양(陽)과 음(陰)의 이원론(二元論)을 기본으로 한다. 천지만물은 모두 양과 음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강한 것은 양, 약한 것은 음 등 상대되는 모든 사물과 현상들을 양음 두 가지로 구분하고 그 위치나 생태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이 『주역』의 원리이다. 이처럼 현상은 끊임없이 변하나 그 원칙은 영원불변한 것이며, 이 원칙을 인간사에 적용시켜 비교하여 풀이한다. 유교 경전 중에서도 특히 우주철학(宇宙哲學)을 논하고 있어 동아시아 유가사상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인간의 운명을 점치는 점복술의 원전으로도 여겨졌다.

81)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 권3 大36 p.17c5~7. 然性之與相, 若天之日月, 易之乾坤, 東夏西方, 分宗開教, 學兼兩轡, 方曰通人.

82) 『구사론(俱舍論)』: 『아비달마구사론(阿毘達磨俱舍論)』. ㉔Abhidharmakośa-śāstra. 인도의 세친(世親 ㉔Vasubandhu)이 지었고 651년에 당(唐)의 현장(玄奘)이 30권으로 한역하였다.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의 견해를 바탕으로 경량부

없다. 『성유식론』을 배우지 않고서 어찌 시교(始敎)의 중지를 알 수 있겠는가? 『기신론』을 배우지 않고 어찌 종교(終敎)⁸³⁾와 돈교(頓敎)⁸⁴⁾의 뜻을 밝힐 수 있는가? 『화엄경』을 배우지 않고는 원융(圓融)한 문에 들어가기 어렵다. 진실로 얕은 것으로는 깊은 것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깊은 것이 얕은 것을 겸하게 되는 것은 이치의 당연함이다. 그래서 경의 계송에서, “언뜻이나 강물을 마실 힘도 없는데 어떻게 큰 바다를 삼킬 수 있겠는가? 이승(二乘)⁸⁵⁾법도 배우지 않고 어떻게 대승을 배울 수 있겠는가?”⁸⁶⁾ 라고 하였으니, 이 말을 믿을 만하다. 이승도 배워야 하는데 하물며 대승이겠는가?

(經量部)와 대중부(大眾部) 등의 교설에 대한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유부 교학을 비판적으로 정리하였다. 대소승 학자의 이론을 널리 수용하고 『대비바사론』의 교리를 많이 수용하였다.

- 83) 종교(終敎): 대승종교(大乘終敎). 진여수연으로 발생한 제법이 그 본체는 청정하기 때문에 이승과 일체 중생이 모두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는 가르침. 『능가경』·『승만경』·『기신론』 등의 교설이 이에 속한다. 또 이 가르침은 법성을 많이 말하고 법상은 조금 말하며, 법상은 모두 법성으로 회귀한다. 여기서 말하는 8식은 여래장에 통하며, 연에 따라 성립하여 생멸과 불생멸의 두 가지 뜻을 갖춘다. 이렇게 대승의 지극한 교설을 다하였으므로 대승종교라 한다.
- 84) 돈교(頓敎): ①천태종 화의사교 중 하나. 소승·대승의 차례를 따르지 않고 처음부터 대승 일불승(一佛乘)의 법을 설하는 가르침.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후 제일 먼저 『화엄경』을 설하여 가르친 것이 이에 해당한다. ② 대승돈교(大乘頓敎)라고도 한다. 언설을 세우지 않고 단지 진성을 분명히 하는 가르침교으로 번뇌를 끊고 진리를 증득하는 계위를 두지 않는 단번에 닦고 단번에 깨닫는 가르침이다. 『유마경』이 이에 속한다. 이 가르침은 시교나 종교의 점진적으로 수행하여 완성하는 가르침과 다르고, 원교의 두루 밝아 덕을 갖춘 가르침과도 달라 따로 한 교를 세운 것이다.
- 85) 이승(二乘): 보살과 함께 삼승(三乘)을 이루는 중의 나머지 둘인 성문승(聲聞乘)과 연각승(緣覺乘). 대승의 보살에 대비되는 소승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부처의 교설을 직접 듣고 사제(四諦)의 이치를 알아 깨달음을 얻는다는 성문과, 부처의 교설을 직접 들을 필요는 없고 스스로 12인연의 이치를 관찰하여 깨달음을 얻는다는 연각으로 나눈다.

요즘에 불법을 배우는 이들이 스스로 돈오(頓悟)⁸⁷⁾하였다고 하고 권교(權敎)⁸⁸⁾와 소승을 업신여기고, 성과 상을 말하는 이들을 멸시하다가 때때로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은 모두 겸학을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잘못이다. 어떤 자가 “예, 예.”하고 대답하였으므로 지금이나 이후에나 이 일에 중사하기를 요청하는 것이다.

고려국 전화엄대교(傳華嚴大敎) 광지개종(廣智開宗) 홍진우세승통(弘眞祐世僧統弘)……(떨어져 나감)⁸⁹⁾

刊定成唯識論單科序⁹⁰⁾

皇覺彝訓，東漸久矣。源乎周，派乎漢，汪洋于魏晉，瀚漫于隋唐。以其戒⁹¹⁾定慧之不同，遂致經律論之有異也。在昔姚秦羅什入關，大乘論學，始翻于世，則中百門等是也。江左六朝，宗釋氏者，皆以三論，爲不□之 [卷一第五-六張缺落]

86) 『대승대집지장십륜경(大乘大集地藏十輪經)』 권6 大13 p.753a26~27

87) 돈오(頓悟) : 빠르게 곧바로 궁극의 깨달음에 들어가는 것. 이에 비해 순서에 따라 점진적으로 깨닫는 것을 점오(漸悟)라 한다. 5세기 경에 『열반경』을 중심으로 단번에 깨달아 성불한다[頓悟成佛]는 견해와 점오와의 논쟁이 벌어졌는데, 도생의 돈오성불설이 40권 『열반경』이 한역됨에 따라 경문에서 확인되었다. 선종에서도 이 돈오·점오 교의에 따라 남방 혜능(慧能)계[南頓]와 북방 신수(神秀)계[北漸]의 구분이 생겨났다.

88) 권교(權敎) : 진실 그대로 드러내는 가르침인 실교(實敎)에 비해 일시적인 방편(方便)으로 가설(假說)한 가르침이라는 의미에서 권교라 한다. 여래가 스스로의 뜻에 따른 진실한 교법이 실교이고, 다른 뜻에 따른 방편의 교설이 권교이다. 특히 천태종에서는 『법화경』을 실교라 하고, 나머지 대승 경전을 권교라 한다. 방편인 권교를 열어 진실인 실교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89) 「대각화상묘지명(大覺和尚墓誌銘)」에 광지개종홍진우세승통(廣智開宗弘眞祐世僧統)이라 하였으니 이 글자가 빠졌을 것이다.

90) 『대각국사문집』 권1 韓4 p.529a7~c4

91) 대본에는 戒이나 판본에 의해 戒로 교감함.

觀講主，後聽唯識論於玄化寺祐翔大師，又就餘杭慧因寺源公講下，稟受大經，東京顯聖寺琳法師門，諮決斯論。厥後以傳燈爲己任，因住興王寺，講演雜華，周於十編。而退隱于伽耶山海印寺，愛林泉之樂，萌著述之心。泛覽百家，將利其器，以謂起信唯識二論，是性相兩宗之樞要，學人之所宜盡心者矣。然起信論，亦嘗粗習，但於唯識，未盡其功，而恐溺彼繁辭，迷其要義。於是尋研本記，斟酌舊科，刊而定之，勒爲三卷。儻同志者，持科玩論，先熟正文，後治疏鈔，則唯識之旨，庶幾乎易見矣。或曰“賢首五教中，判唯識瑜伽爲大乘始教，”而云“固非究竟玄妙之說，法師克荷於華嚴，何必橫功□□？”“□□□□窮五教，故兼學也，蓋華□□□□□□□□一代枝末，從此而出故也。故慈恩疏，引例六經，而以華嚴，冠之最初。”又云“經爲根本，隨法相以宣揚，論是末宗，稟佛言而成理。”西明疏中，釋歸命偈，滿分之言曰，“滿則如來，分是金剛藏 解脫月”者，可謂深見經論之本末也。況清涼有言，“性之與相，若天之日月，易之乾坤，學兼兩轍，方曰通人。”是知不學俱舍，不知小乘之說，不學唯識，寧見始教之宗？不學起信，豈明終頓之旨？不學花嚴，難入圓融之門。良以淺不至深，深必該淺，理數之然也。故經偈云，“無力飲池河，詎能吞大海？不習二乘法，何能學大乘？”斯言可信也。二乘尚習，況大乘乎？近世學佛者，自謂頓悟，蔑視權小，及談性相，往往取笑於人者，皆由不能兼學之過也。或曰唯唯，而今而後，請從事於斯矣。

高麗國 傳華嚴大教 廣智開宗 弘…



辭 事

- 1) 국청사(國淸寺)를 새로 짓고 강의를 열며
- 2) 『우란분경(盂蘭盆經)』 강의를 시작하며
- 3) 『원각경(圓覺經)』 강의를 시작하며
- 4) 『유교경(遺教經)』 강의를 시작하며



1) 국청사(國淸寺)⁹²⁾를 새로 짓고 강의를 열며

용궁(龍宮)에 있는 바다 같은 대장경이 크게 흘러 나오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한 문에 이미 가득찼구나
용수(龍樹)보살⁹³⁾이 경전 상자를 세는데
석 달을 세어도 조금밖에 알지 못했네
여러 부처님의 지혜는 매우 깊고 끝이 없어서
그 지혜의 문은 알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려우니,⁹⁴⁾
바다를 먹을 삼고 티끌로 점을 찍어도 다 기술하지 못하리.<라고 말한다.>
멀리 생각건대 해동(海東)에 불법이 전래된 지 7백여 년이 되어⁹⁵⁾ 비록

92) 국청사(國淸寺) : 개풍시 중서면 여룡리에 있던 절. 의천의 뜻에 따라 인예태후(仁睿太后)가 창건하였는데, 1089년(선종 6)에 착공하여 1095년에 낙성한 인예태후의 원찰(願刹)이자, 천태종의 종찰(宗刹)이다. 태후의 영정을 모신 진전(眞殿)이 있어 숙종·인종·의종·고종·충숙왕 등이 자주 찾았고, 태후의 원으로 조성된 황금 13층석탑이 1104년(숙종 9)에 이곳에 봉안되었다. 그러나 몽고의 침입으로 불타버려 충선왕 즉위 후에 재건하였다.

93) 용수(龍樹)보살 : ㉔ Nāgārjuna. 인도 대승불교 중관학과(中觀學派)의 창시자. 남인도의 브라만 출신으로 베다 등을 익히다 육신과 쾌락이 괴로움의 근본이 되는 것을 깨닫고 출가하였다. 소승을 배우다가 만족하지 못하여 설산지방으로 가서 대승 경전을 공부하고, 후에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대승 경전을 구하였다. 힘써 불법을 전파하고 대승경전의 주석서를 써서 대승교학의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대승 반야(般若) 학설을 전 인도에 두루 퍼뜨렸다. 이후 전개된 제 교학에 두루 큰 영향을 미쳐 팔종(八宗)의 조사로 추앙될만큼 대승교학의 중심을 이룬다. 저술로는 『중론(中論)』·『공칠십론(空七十論)』·『회쟁론(迴諍論)』·『대승과유론(大乘破有論)』·『보리자량론(菩提資糧論)』 등 매우 많아 천 부의 논주[千部論主]로 불리며, 『대지도론(大智度論)』·『십이문론(十二門論)』·『십주비바사론(十住毘婆沙論)』도 그의 저술로 보지만 논란이 있다.

94)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권1 「방편품」 大9 p.5b4~5. 諸佛智慧甚深無量, 其智慧門難解難入.

여러 종파가 서로 다투어 연설하고 여러 교학이 번갈아 늘어섰으나 천태종(天台宗)⁹⁶⁾ 한 줄기만은 이 시대에 때를 만나지 못했다.⁹⁷⁾ 옛날에 원효(元曉)보살⁹⁸⁾은 앞에서 아름다움을 칭찬하였고, 제관(諦觀)법사⁹⁹⁾는 뒤에

95)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때를 고구려 소수림왕 때(서기 372년)로 보면 의천의 시기(1055~1101)로부터 7백년 전이 된다.

96) 천태종(天台宗) : 천대지의(天台智顗)대사가 천태산(天台山)에서 살면서 확립한 사상을 바탕으로 창립한 교단. 중국불교의 특색을 가장 잘 드러내는 종파의 하나이다. 『법화경』에 따라 부처님 일대의 가르침을 판별하고 이 경전을 가장 높게 여긴다. 지의는 남악혜사(南嶽慧思)에게서 삼중지관과 법화삼매를 이어받았다. 575년에 천태산에 들어가 10년을 지내면서 천태삼대부를 저술하였다. 지의는 『법화경』 교리를 기초로 5시8교의 교판을 세우고 삼제원융(三諦圓融)의 이치를 내세우며 관법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관정(灌頂)이 지의를 20년 사사하고 그 가르침을 이었다.

97) 명이(明夷)는 64괘의 하나. 이하(離下) 곤상(坤上)의 괘. 현인(賢人)이 잘못된 임금을 만나 화를 당하는 상.

98) 원효(元曉)보살 : 617~686. 신라의 고승. 속성은 설씨. 경산에서 태어나 여러 스승을 찾아 배웠고 중국에 가서 새로운 불교를 배우고자 하였으나 도중에 그만 두었다. 당시 신라에 소개된 대부분의 경론을 탐구하여 하나하나에 대한 대체적인 의미를 평가한 종요(宗要)류의 저술을 펴내고, 더욱 관심이 가는 경론에 대해서는 상세한 주석서를 썼다. 이들 경론을 총괄적인 관점에서 파악한 『십문화쟁론』을 저술하여 상호 대립적이 아닌 화합의 새로운 불교관을 펼쳤다. 여러 저술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은 『기신론소』와 『금강삼매경론』에서 체계화한 일심(一心)사상으로서, 이는 신라불교의 가장 탁월한 성과로 평가된다. 요석궁주와 결혼하여 설총(薛聰)을 낳고 이후 직접 사람들을 만나 아미타불을 알려 주는 등 대중 교화에 매진하였다. 9세기 초에 그를 기리는 서당화상비(誓幢和尚碑)가 세워졌고, 고려 숙종 때 화정(和靜)국사로 추앙되기도 하였다. 주요 저서에는 앞의 세 저술 외에 『화엄경소(華嚴經疏)』·『아미타경소(阿彌陀經疏)』·『법화종요(法華宗要)』·『이장의(二障義)』·『판비량론(判比量論)』 등 80여 종이 있다.

99) 제관(諦觀)법사 : ?~970. 고려 광종 때 활동한 승려. 오월왕 전홍숙(錢弘俶)이 960년에 고려로 사신을 보내 전적을 구하자 광종은 961년에 제관에게 전적을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제관은 나계사(螺溪寺)의 의적(義寂, 919~987)을 찾아가 가르침을 청하고 10여 년 동안 천태학을 연구하다 970년에 입적하였다. 사후에

서 이를 전하여 드날렸다. 그러나 근기와 인연이 무르익지 않아 빛내고 드날릴 도리가 없었으니 다투어 무엇하겠는가? 교법의 유통은 후일을 기다려야 할 것 같았다. 마침 우리 돌아가신 어머님이신 인예태후(仁睿太后)¹⁰⁰⁾ 국모(國母)께서는 여러 생 동안 불법을 받들고 여러 겁 동안 인행(因行)을 닦으셨다. 절을 짓기 시작하여 국청사(國淸寺)의 큰 법도를 본따시고, 미묘한 법을 펴서 펼쳐 불룡산(佛隴山)¹⁰¹⁾의 높은 교풍을 옮겨오려 하셨는데, 그 큰 서원을 마치지 못하고 신과 놀고자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 오히려 생각건대 우리 주상¹⁰²⁾께서는 왕통을 계승하여 동방에 나시어 도를 지키고

저술인 『천태사교의(天台四敎儀)』가 알려졌는데, 이후 천태교학의 가장 긴요한 강요서가 되어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과 일본에서도 널리 읽혔다.

100) 인예태후(仁睿太后): 고려 제11대 왕 문종의 비. 인주(仁州) 이(李)씨로 고려 최고의 문벌가문인 이자연(李子淵)의 딸이며, 같은 문종의 왕비인 인경현비(仁敬賢妃)와 인절현비(仁節賢妃)의 언니이다. 왕실과 문벌의 혼인정책으로 동생들과 나란히 문종의 비가 되었다. 불교를 숭상하여 국청사(國淸寺)를 짓게 하고 은서(銀書) 『유가현양론』을 발원하여 아들인 숙종 때에 준공되었다. 1052년(문종6) 왕비가 되고, 1086년(선종3) 태후에 책봉되었다. 순종·선종·숙종·의천·상안공(常安公, 琇)·도생승통(導生僧統, 窺)·충혜수좌(聰惠首座, 璟) 외에 여러 왕자와 공주를 낳았다.

101) 불룡산(佛隴山): 천태산의 천태종 전당인 국청사(國淸寺)가 있는 산. 일찍이 신승 정광(定光)이 수행한 적이 있고, (灌頂, 「國淸百錄序」 大46 p.793a6~7. 先師以陳太建七年歲次乙未, 初隱天台, 所止之峰舊名佛隴. 詢訪土人云, 遊其山者多見佛像, 故相傳因而成稱.) 지의가 수행하여 지의의 별칭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遵式, 「天台智者大師齋忌禮讚文」 大46 p.966a22. 稽首天台教主佛隴禪師.) 산 이름은 수선사 남쪽에 있는 반석이 평평한데 전에 부처님께서 이곳에서 방광하였기 때문에 불룡이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하기도 하고, (智圓, 『涅槃玄義發源機要』 권4 大38 p.38a15~17. 神邕天台山記曰, 從修禪寺南行二百步有盤石, 平正猶如削成, 古老相傳佛嘗於此放光, 故名佛隴.) 위 『국청백록』의 글처럼 이 산에서 불상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고도 한다.

102) 이 때의 고려 왕은 선종(宣宗)이다. 고려(高麗)의 13대 왕. 재위 1083~1094년. 11대 문종(文宗)의 둘째 아들, 순종(順宗)의 아우, 숙종(肅宗)의 형. 선종 원년

높은 자리에 계시면서 성스럽고 선한 마음의 새김을 따르고 부처님의 부촉을 받아, 돌아가신 어머니[先妣]의 뜻을 이어 이루고자 실로 효성스런 생각이 간절하였다. 과연 문모(文母)¹⁰³⁾의 지극한 정성과 서원(誓願)의 바다가 옛날에 처음 시작되었고, 한 사람이 잘 계승한¹⁰⁴⁾ 공덕의 산이 오늘 아침에 구인(九仞)을 채움을¹⁰⁵⁾ 보는데다. 이에 깨달음의 동산에 봄이 돌아오고 황제의 가문에 회합이 열리니, 천룡(天龍)들은 조용히 듣고 기뻐하고 승속(僧俗)¹⁰⁶⁾들은 마음을 기울여 찬양하도다. 비록 사자후와 같은 웅변과 수미산 같은 큰 붓으로도 우리 주상의 훌륭한 일을 다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빈도(貧道)¹⁰⁷⁾는 전생의 무슨 다행으로 금생에 태평시절을 만나, 공문(空門)에 몸을 의탁하여 성인의 가르침에 마음을 두고, 몸을 잊고 도를 물으며 목숨을 걸고 스승을 구하여 만경창과의 큰 물결을 건너고 백개의 성의 선지식(善知識)¹⁰⁸⁾을 참방하였다. 국청사(國淸寺)와 천축사(天竺寺)에서 교학

(1084)에 처음으로 승과(僧科)를 설치하고, 법흥사(法興寺)에 교장도감(敎藏都監)을 두어 도서를 출판하는 등 불교 발전에 힘썼다.

- 103) 문모(文母): 중국 주나라 문왕(文王)의 비인 태사(太史). 태사의 성품이 어질고 도를 행하는 덕이 두터워 높여 부르는 말.
- 104) 선종이 인예태후의 뜻을 잘 계승하여 국청사를 완성함을 말함.
- 105) 높이가 구인(九仞)되는 높은 산을 쌓을 때 마지막 한 삼태기의 흙으로 산을 완성하므로 오래 쌓은 공덕이 이루어짐을 의미함.
- 106) 치소(縑素)는 검은 옷과 흰 옷이라는 뜻. 승려들이 입는 승복의 색이 검은색이고, 이에 비해 일반인들은 흰 옷을 입었으므로 승려와 속인을 함께 말할 때 치소라 함.
- 107) 빈도(貧道): 승려가 스스로 겸치하는 말. 중국에서 위진남북조시대에 승려들이 자신을 빈도라고 부르도록 조정에서 정하였다. 당 이후에는 빈승(貧僧)이라고 하였다.
- 108) 선지식(善知識): 『화엄경』 입법계품(入法界品)에서 선재(善財) 동자가 구도행을 하는 도중에 만나는 53 선지식을 백성(百城)을 두루 참방하는 구도행이라 한다. 이들은 위로는 불보살에서부터 아래로는 천이나 인간에 이르기까지 어떤 형태

(敎學)과 관행(觀行)을 이어 받고 불룡산(佛隴山)과 고산(孤山)¹⁰⁹⁾에서 탑묘(塔廟)에 예배하고 성심으로 맹세하여 목숨을 다해 법등을 전하리라 하였는데, 이제 평생의 소원이 거의 이루어지려 하도다. 옛사람들의 말에 “간절히 생각하면 돌아갈 곳이 있고, 몸을 잊으면 하는 바를 얻으니, 죽는 날이 오히려 사는 때이다.” 라고 하였다. 옛날에 그 말을 듣고 오늘 그 사실을 보니, …지극하여 손으로 춤춘들 어찌 끝이 있으랴! 감격하고 경사스러우니 바라건대 성현들은 살피소서.

新創國淸寺啓講辭¹¹⁰⁾

龍宮海藏極滔滔, 一佛教門已充滿.

龍樹菩薩數經函, 三月不能知小分.

諸佛智慧, 甚深無量, 其智慧門, 難解難入, 海墨點塵, 莫能記述. <云云>

緬惟海東佛法七百餘載, 雖諸宗競演, 衆教互陳, 而天台一枝, 明夷于代. 昔者元曉菩薩, 稱美於前, 諦觀法師, 傳揚於後. 爭奈機緣未熟, 光闡無由? 教法流通, 似將有待. 伏遇我先妣仁睿國母, 累生奉法, 積劫修因. 經始精藍, 取國淸之宏制, 發揚

인지를 가리지 않고 중생을 악을 버리고 선을 닦도록 하여 불도에 이끄는 사람들이다. 선지식이란 정직하게 가르치고 덕행을 가졌으며 바른 길로 이끌어 주는 사람을 말한다. 지식(知識)·선우(善友)·승우(勝友)라고도 한다.

109) 고산(孤山): 절강성 항주(杭州)의 서호(西湖) 서북쪽 모서리에 있는 섬. 당대에 이곳에 고산사를 세웠는데 송초에 광화사(廣化寺)로 바뀌었다가 1016년에 천태종 산외파의 고산지원(孤山智圓)선사가 이곳 마노원(瑪瑙院)에서 은거하며 처사 임화정(林和靖) 등과 교유하며 시문으로 즐겨 지냈다고 한다. 1065년에 마노원이 보승원(寶勝院)이 되었고, 다시 연승관(延勝觀)이라는 이름의 도관으로 바뀌었다. 남송 때 1132년에 다시 마노사가 되었다. 원대에 이곳에 방학정(放鶴亭)을 지어 명승이 되었다.

110) 『대각국사문집』 권3 韓4 p.530b4~c8

妙法, 移佛隴之高風, 大願未終, 神遊俄逝. 伏惟我主上, 承祧出震, 守道居尊, 遵聖善之顧懷, 受能仁之付囑, 繼成先志, 寔切孝思. 果見文母極誠誓願海, 濫觴於昔日, 一人善繼功德山, 爲仞于今朝. 茲者覺苑春廻, 皇家會啓, 天龍寂聽而歡喜, 緇素傾心而讚揚. 雖師子之吼, 須彌之筆, 固難盡述吾君之勝事. 貧道宿生何幸, 遭遇明時, 托迹空門, 潛心□□, 亡軀問道, 委命求師, 涉萬頃之洪波, 參百城¹¹¹⁾之善友. 國清天竺, 承稟教觀, 佛隴孤山, □□塔廟, 誠心所誓, 盡命傳燈, 今則平生素蘊□□□. 古人有言, 竭思有所歸, 亡軀得其□□, □死之日, 猶生之年. 昔聞其語, 今見其□, □□之至, 手舞何階! 感之慶之, 唯聖賢□□.

2) 『우란분경(盂蘭盆經)』¹¹²⁾ 강의를 시작하며

큰 자비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없고 큰 효도는 친애하지 않음이 없다.
내가 사랑하는 것만을 사랑하고 남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111) 대본에는 없으나 판본의 공란과 내용에 의해 百城으로 추정함.

112) 『우란분경(盂蘭盆經)』: ㉔ Ullambana-sūtra, 서진 축법호 한역. 방등부(方等部)에 속한다. 부처님의 십대제자인 목련(目連)존자가 그 모친이 아귀도(餓鬼道)에 떨어져 거꾸로 매달리는 고통을 받는 것을 견디지 못해 부처님께 방법을 묻자, 부처님은 7월 보름 해제의 자자일(自恣日)에 온갖 맛의 공양과 과일을 시방의 스님들께 공양하면 모친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한 내용이다. 이 경의 교설에 따라 우란분회(盂蘭盆會)가 시행되어 동아시아 국가에서 널리 환영받는 행사가 되었다. 중국불교에서 제기된 출가에 따른 불효 문제에 대한 윤리적 제시가 이 경전을 통해 이루어진 의미가 있다. 종밀은 『우란분경소』를 써서 이 경이 갖는 보은(報恩) 사상을 강조하였다.

는 큰 자비가 아니며, 지금 친애하는 것만을 친애하고 옛날에 친애하던 것을 친애하지 않으면 이는 큰 효도가 아니다. 그런데 오형(五刑)¹¹³⁾에 속하는 것이 3천 가지나 되지만 죄로서 불효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육바라밀(六波羅蜜)¹¹⁴⁾에 돌아가는 것이 팔만 가지이지만 복으로서 효도를 행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그래서 불교 문파는 오시(五時)에 두루하고 유교 경전은 육경(六經)에 통하여, 큰 것과 작은 것을 망라하여 포함하고 존귀한 것과 비천한 것에 모두 관통된다. 비록 가르침을 베푸는 데는 다름이 있지만 효도를 숭상함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우리 본사이신 대각(大覺) 세존(世尊)께서는 처음 바른 깨달음을 이루시고 과거 세상에서 근기가 무르익은 대보살중을 위해 두 번째 이레에 『화엄경』 대법의 근본 법륜을 설하셨고, 곧 『범망경(梵網經)』¹¹⁵⁾의 보살대계(菩薩大戒)¹¹⁶⁾를 설하여 말씀하시기

113) 오형(五刑): 다섯 가지의 무겁고 가벼운 형벌. 실제로 모든 형벌을 총괄하여 부르는 말. 진(秦) 이전에는 묵(墨)·의(劓)·월(刖)·궁(宮)·살(殺)의 오형이 있었는데, 『주례(周禮)』에는 오형마다 5백 형벌이 있다고 하였다. 당 이후에는 태(笞)·장(杖)·도(徒)·유(流)·사(死)의 오형을 꼽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14) 육바라밀(六波羅蜜): 육도(六度). 보살이 열반에 이르기 위해 닦는 여섯 가지 수행 덕목. 첫째는 베풀어 주고 주었다는 생각마저 버림으로써 집착을 떠나는 보시(布施, ㉮dāna), 둘째는 계와 율을 잘 지켜 악업을 없애고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지계(持戒, ㉮śīla), 셋째는 모든 어려움을 잘 참고 받아들여 원한과 노여움을 없애 마음이 안주하는 인욕(忍辱, ㉮kṣānti), 넷째는 심신을 가다듬고 쉽없이 수행하여 게으름을 없애고 선법을 키우는 정진(精進, ㉮vīrya), 다섯째는 산란한 마음을 멈추고 선과 정, 삼매를 수행하여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선정(禪定, ㉮dhyāna), 여섯째는 어리석음을 고쳐 진리를 체득하는 지혜(智慧, ㉮prajñā)이다.

115) 『범망경(梵網經)』: 본 이름은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제십(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第十). 구마라집의 한역이라고 전하지만 중국에서 만들어진 위경으로 본다. 보살이 수도하는 계위와 갖추어야 할 10중(重) 48경계(輕戒)에 대해 설명하였다. 대법천왕의 인드라그물이 거둬 교차하며 서로 장애됨이 없듯이 부처의 가르침도 중중무진하여 법신을 장엄하여 서로 장애됨이 없는 것이

를, “부모와 스승과 삼보(三寶)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라. 효도하고 순종하는 것은 지극한 도의 법이니, 효도를 계라 이름한다.”¹¹⁷⁾고 하고 10중계(重戒)¹¹⁸⁾와 48경계(輕戒)¹¹⁹⁾를 널리 설하시기에 이르니, 이는 본성에 맞는 대계이고, 효도의 지극한 것이다. 만약 근기의 적절함에 따르고 빛을 말세에 퍼려는 이에게는 이 『우란분경(盂蘭盆經)』이 참으로 긴요한 것이 될 것이다. 목련(目連)존자¹²⁰⁾로 인해 (이 경이) 일어났고 그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

범천왕의 인드라그물과 같다고 하여 범망(梵網)이라고 한다. 상권은 석가모니 불께서 노사불께 보살의 행인(行因)을 묻자 노사나불께서 10발취심(發趣心)·10장양심(長養心)·10금강심(金剛心)의 30심과 10지의 40법문을 설한 내용이고, 하권은 10중 금계(禁戒)와 48경계를 열거한 것이다. 이 경에서 설하는 계는 소승계와 달리 출가와 재가의 구별이 없고 중생이 의지해야 할 공통의 계와 불성의 자각을 주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116) 보살대계(菩薩大戒) : 대승의 보살들이 지키는 계율. 10중(十重)·48경계(四十八輕戒)를 설한 『범망경(梵網經)』 「율장품(律藏品)」이 근거가 된다. 이는 종래의 교단이 출가자를 위한 비구계와 재가자를 위한 팔관계(八關戒)를 둔 것과 달리 출가와 재가를 포괄하는 새로운 대승의 계율을 제시한 것이다.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불교계에서는 출가자를 위한 계율로서는 종래의 비구계를 사용하면서 『범망경』의 보살계를 재가신자를 위한 계율로 하였다.
- 117) 『범망경』 권2 大24 p.1004a24~25.
- 118) 10중계(重戒) : 대승의 보살들이 지키는 계율 중의 중요한 10가지 계. 살생하지 말라(不殺戒), 주지 않은 것을 훔치지 말라(不偷盜戒), 음행하지 말라(不婬戒), 거짓말하지 말라(不妄語戒), 술을 사지 말라(不酤酒戒), 남의 잘못을 말하지 말라(不說過戒),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지 말라(不自讚毀他戒), 아끼자 말라(不慳戒), 성내지 말라(不瞋戒),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不謗三寶戒) 이다.
- 119) 48경계(輕戒) : 출가와 재가의 칠중(七衆)이 공동으로 수지해야 할 계. 가벼운 허물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므로 경계라 한다. 경전에 따라 48의 내용이 다른데, 『보살계본(菩薩戒本)』과 『보살지지경(菩薩地持經)』에서는 42종,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에서는 44종, 『보살선계경(菩薩善戒經)』에서는 50종, 『우바세계경(優婆塞戒經)』에서는 25종을 들었다. 그중에 『보살지지경』·『유가사지론』·『보살선계경』 3경에서 든 것이 서로 비슷하다.
- 120) 목련(目連)존자 : ㉠Maudgalyāyana, ㉡Moggallāna. 부처님의 10대제자 중의 한분

를 드날리셨다. 자자(自恣)¹²¹⁾하는 스님을 청하여 (기르느라) 애써 힘쓴 덕에 보답하고자 하여, 음식 공양이 갖추어져 십지보살이 응하니 그 덕이 넓고 크고, 정혜가 닦여 두 장애가 없어지니 그 이익이 크고 넓다. (그러니) 미혹을 깨뜨리는 전방의 진영이며 도에 들어가는 긴요한 관문이라고 할 만하다. 불설우란분경(佛說盂蘭盆經)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 가지 깨달음이 원만한 것을 이름하여 불(佛)이라 하고, 한 음성으로 연설하는 것을 설(說)이라 한다. 우란(盂蘭)이라는 것은 서역(西域)의 말이니 한자로는 거꾸로 매달림(倒懸)이라고 한다. 분(盆)은 중국 말이니 구제하는 그릇이라는 말이다. 경(經)은 곧 변하지 않는 것이 되고 법도가 된다는 것으로, 이는 관통함 이요 포섭함이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가 백왕의 모범이 되는 것이며, 법도가 된다는 것은 덕이 천 개의 잎의 모범이 되는 것이다. 관통한다는 것은 이 미묘한 이치를 모은다는 것이며, 포섭한다는 것은 저 중생들을 거두어 들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설우란분경이라고 한다. 그 나머지 글에 따라 뜻을 낼 것이니, 이 다음은 당연히 알 것이다.

講蘭盆經發辭¹²²⁾

으로 신통(神通)제일로 꼽힌다. 마하목건련 또는 대목건련이라고 하며, 다른 이름으로는 구율타(拘律陀, 𑖕𑖄𑖔𑖀𑖔 Kolita)라고도 한다. 왕사성 밖의 콜리타마을의 브라만 출신으로 용모가 단정하고 어려서부터 사리불존자와 함께 산자야(𑖔𑖄𑖔𑖀 Sañjaya)의 제자가 되어 제자 250인을 거느리고 수행하였다. 사리불과 함께 제자들을 데리고 부처님께 귀의하여 한달만에 아라한과를 증득했다고 한다.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에 들었다.

121) 자자(自恣) : 𑖔𑖄𑖔𑖀 pravāraṇā. 다른 사람의 뜻에 따라 자기가 범한 잘못을 드러내는 것. 안거(安居)를 마치는날 대중들 앞에 자신의 보고[見], 듣고[聞], 의심한[疑] 세 가지 일로 범한 죄에 대해 다른 비구들에게 참회하는 것을 말하는데, 참회하여 청정해지고 스스로 기쁨을 내므로 자자라고한다. 이 날을 승자자일(僧自恣日)이라고 한다.

122) 『대각국사문집』 권3 韓4 p.530c9~531a16

大慈無不愛，大孝無不親。愛我之愛，不愛彼之所愛，非大慈也，親今之親，不親昔之所親，非大孝也。然以五刑之屬三千，而罪莫大於不孝，六度之歸八萬，而福莫大於行孝。故得釋門遍於五時，儒典通乎六籍，包羅大小，統貫尊卑。雖設教有殊，而崇孝無別。故我本師大覺世尊，初成正覺，爲宿世根熟大菩薩衆，於第二七日，轉花嚴大教根法輪，便說梵網菩薩大戒，云“孝順父母，師僧三寶。孝順至道之法，孝名爲戒。”乃至廣說十重四十八輕者，此是稱性大戒，孝之極也。若乃曲順機宜，流光末葉者，今此蘭盆，實爲其要。因目連而起發，故大覺以宣揚。請自恣僧，報劬勞德，供饌具而十地應，其德汪洋，定慧修而二障除，其利浩博。可謂破迷前陣，入道要門。所言佛說盂蘭盆經者，三覺圓滿，稱之爲佛，一音演暢，名之爲說。盂蘭是西域之語，此云倒懸。盆乃東夏之音，仍爲救器。經則爲常爲法，是貫是攝。常則道軌百王，法乃德模千葉。貫則集斯妙理，攝又御彼庸生。故言佛說盂蘭盆經也。其他隨文發義，次下當知。

3) 『원각경(圓覺經)』 강의를 시작하며

대개 진리[法]는 말이나 형상이 없지만 말이나 형상을 떠나지도 않는다. 말이나 형상을 떠난다면 미혹에 빠진 것이며, 말이나 형상에 집착한다면 진리에 미혹한 것이다. 다만 세상에는 완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적고, 사람은 아름다움을 다 갖추기가 어렵다. 그래서 교학을 배우는 이들은 내면을 버리고 밖으로만 구하려는 이가 많고, 선을 수행하는 이들은 인연을 잊고 내면을 밝히는 것을 좋아한다. 이들은 둘 다 한쪽에만 집착한 것이며 함

깨 두 극단에 막힌 것이어서, (있지도 않은) 토끼 뿔의 길고 짧음을 다투는 것과 같으며¹²³⁾ (보이지도 않는) 허공의 꽃이 짙은 색인가 옅은 색인가를 다투는 것과 같다. 만일 피차에 공정한 마음으로 홀로 고금을 거닌다면 선정과 지혜가 둘 다 온전하여 자신과 타인이 함께 이익될 것이다. 공(空)을 관하면 만 가지 행동이 끊어오르고 유(有)를 접하면 하나의 도가 맑고 고요할 것이다.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깊고 미묘함을 잃지 않고,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거나 법계를 떠나지 않는 이는 오직 우리 규봉(圭峰)조사¹²⁴⁾ 한 분뿐이다.

123) 토끼 뿔의 다툼: 거북이의 털과 함께 없는 것을 들어 다투는 잘못을 말함. 거북이는 본래 털이 없고 토끼는 뿔이 없다. 거북이가 물 속에서 헤엄을 치다 몸에 물풀이 붙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물풀을 털로 잘못 알았다. 또 귀를 종긋 세운 토끼를 보고 귀를 뿔로 잘못 알았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거북이 털과 토끼 뿔[龜毛兔角]을 현실 중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유명무실(有名無實)한 것을 말하면서, 이를 범부가 실제의 아(我)나 실제의 법에 잘못 집착하는 것에 비유하였다. 이밖에 뱀의 발[蛇足], 소금의 향기[鹽香], 바람의 빛깔[風色] 등도 같은 비유로 쓰인다.

124) 규봉(圭峰)조사: 종밀(宗密, 780~841). 중국 화엄종의 제5조. 당의 과주(果州, 四川省) 출신으로 속성은 하(何)씨이다. 규봉선사 또는 규산(圭山)대사라고 부른다. 807년에 과거에 급제하고 수주도원(遂州道圓)선사의 설법을 듣고 출가하였다. 정중신회(淨衆神會)의 제자인 익주남인(益州南印)과 보국사 신조(神照)에게 차례로 배우고 810년에 정관의 문하에 들어가 화엄을 배웠다. 816년에 종남산 지거사(智炬寺)에 들어가 산을 내려가지 않겠다고 서원하고 3년동안 대장경을 열람하고 『원각경과문(圓覺經科文)』을 지었다. 후에 초당사(草堂寺)에 들어가 수학하고 남쪽의 규봉난야(圭峰蘭若)로 옮겨 송경과 수선에 열중하였다. 828년에 궁중에서 강경하고 다시 산에 돌아왔다. 『선원제전집(禪源諸證集)』 100권을 저술하여 제종의 선어록을 모아 교선일치를 제창하여 당말송대 불교의 기틀을 닦았다. 『원인론(原人論)』을 지어 유교 도교에 대한 불교의 입장을 밝혔고 『우란분경소(盂蘭盆經疏)』, 『화엄경윤관(華嚴經綸貫)』, 『원각경대소(圓覺經大疏)』와 『석의초(釋義抄)』, 『주화엄법계관문(注華嚴法界觀門)』, 『중화전심지선문사자승습도(中華傳心地禪門師資承襲圖)』 등 30여부를 저술하였다.

옛날에 공자(孔子)¹²⁵⁾께서는 “나의 뜻은 춘추(春秋)¹²⁶⁾에 있다.”고 하시고, 우리 조사께서는 “내 마음은 『원각경(圓覺經)』¹²⁷⁾을 으뜸으로 한다.”고

125) 공자(孔子): 서기전 551~479. 자는 중니(仲尼), 이름은 구(丘)이다. 춘추시대에 노(魯)나라 창평향 추읍(昌平鄉 鄒邑, 지금의 山東省 曲阜縣 鄒縣)에서 태어나 우리나라의 봉건질서가 쇠퇴하여 사회적 혼란이 심해지는 시기에 공부에 열중하였다. 공자는 요순 이래 성현들이 남긴 규범과 문물전장을 익혀 어지러운 세상을 구하겠다는 뜻을 가졌다. 그의 중심사상은 인(仁)으로서 너와 나 사이에 흐르는 사랑을 강조하였고 문화현상으로 예(禮)를 일으켜 사회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정치는 말는 자는 덕을 베풀고 믿음(信)을 지켜야 하며, 사회 구성원 모두는 각자에게 부여된 이름[名]과 분수[分]를 지켜야 안정과 활합을 가져올 수 있으며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고 하였다. 공자는 자신의 수양을 하고 나면 남을 편안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치에 나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인을 단지 도덕규범이 아닌 사회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정치사상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나라를 찾아 천하를 주유했으나 실패하고 만년에 제자를 가르치고 경전을 편찬하는 일에 열중하여 오경의 체계를 확립하였다. 공자는 그때까지 전해오던 인류에 대한 모든 생각 곧 윤리도덕과 사상 및 문물제도를 집대성하고 체계화하여 유학을 정립하였다. 제자들에 의해 더욱 체계화된 유교는 한나라의 무제가 국교(國敎)로 삼음으로써 이후 전통시대 내내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사상적 길잡이 역할을 해 왔다.

126) 춘추(春秋): 기원전 5세기 초에 공자(孔子)가 엮은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사서(史書). 춘추시대(春秋時代) 노(魯)의 은공(隱公) 원년(서기전 722)부터 애공(哀公) 14년(서기전 481)까지의 사적을 연대순으로 기록한 책. 유학에서 오경(五經)의 하나로 여긴다. 공자는 사실을 간략히 기록했을 뿐 비평이나 설명은 철저히 삼갔는데, 직분(職分)을 바로잡는 정명(正名)과 엄격히 선악을 판별하는 포폄(褒貶)의 원칙에 따라 용어를 구별하여 서술하였다. 단순히 역사적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명분(大義名分)을 밝혀 그로써 천하의 질서를 바로세우려 한 것이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전국시대에 공양고(公羊高)가 지은 『공양전(公羊傳)』, 곡량숙(穀梁淑, 穀梁赤이라고도 함)의 『곡량전(穀梁傳)』, 좌구명(左丘明)의 『좌씨전(左氏傳)』이 대표적이다. 이 중 『공양전』과 『곡량전』은 경문의 해석 중심이고, 『좌씨전』은 『춘추』에 기록된 사실에 대한 실증적 해석 중심이다.

127) 『원각경(圓覺經)』: 본 이름은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불타다라의 한역이라 전하지만 중국에서 찬술된 위경으로 분류된다. 대승 원돈(圓頓)의 이치와 관행 실천의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선종에서 『유마경』,

하였다.¹²⁸⁾ 전륜성왕(轉輪聖王)의 계주(髻珠)¹²⁹⁾를 대운(大雲)¹³⁰⁾선사가 마음으로 전했고, 장자(長者)의 재산을 청량(淸涼)국사가 손으로 건네줌에 미쳐¹³¹⁾ 조용하게 한 법을 이어 받아 못 경전을 모두 깨달았다.¹³²⁾ 이로 말미암아 옛 교풍의 규범을 고치고 새로운 교화를 이루어, 권교(權敎)를 꺾고 소승을 누르며 돈교(頓敎)를 세우고 원교(圓敎)를 펼쳐,¹³³⁾ 『원각경소』 3권을 지어서 10문으로 그 뜻을 나열하였다. 가르침이 일어난 인연은 이 경의 연유를 드러낸 것이며, 삼장과 삼승의 나누어 해당함은 모든 가르침이 돌아갈 바를 통틀어 말한 것이다.¹³⁴⁾ 구분과 차이가 깊은 것은 한 마음의 법

『능엄경』과 함께 중시하는 경전이다.

- 128) 이 글은 서두를 제외한 본문의 대부분을 중밀의 『원각경대소석의초(圓覺經大疏釋義鈔)』 서문에서 따왔다. 이 구절은 서문의 중간부분이다. (卽9 p.459b20~21. 昔仲尼曰, 吾志在春秋, 今大師云, 余心宗圓覺.)
- 129) 계주(髻珠): 정수리의 구슬 장식. 『법화경』 「안락행품(安樂行品)」에서 일곱 가지 비유를 설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이다. 계주는 전륜성왕의 상투 안에 있는 구슬을 가리킨다. 여기서 전륜성왕은 여래를, 상투는 이승의 권교를, 구슬은 일승의 실제 이치를 비유한다. 구슬이 상투 안에 있는 것이 실제 이치가 권교에 숨어 있는 것과 같음을 말한 것이다. 이는 여래가 법화회상에서 권교를 열어 실교를 드러내고 이승에게 수기하시어 그들이 이미 생사를 벗어나 부처가 되는 것이 전륜성왕상투 안의 구슬을 풀어 공신들에게 주는 것과 같음을 비유한다.
- 130) 대운(大雲): 도원(道圓)선사의 호.
- 131) 장자(長者)의 재산은 『법화경』 궁자유(窮子喻)의 비유를 말함. 어려서 잃어버린 부자의 아들을 찾아 재산을 물려주는 이야기. 화엄종의 청량국사가 규봉조사에게 법을 전해준 것을 비유한 말.
이 구절은 『원각경대소석의초』 권1 卽9 p.459c1~2. 輪王髻寶大雲心傳, 長者家財淸涼手授.
- 132) 『원각경대소석의초』 권1 卽9 p.459b8. 默承一印, 懸通衆經.
- 133) 『원각경대소석의초』 권1 卽9 p.459b22~23. 由是革舊風規, 成新教化, 挫權抑小, 立頓張圓.
- 134) 『원각경대소석의초』 권1 卽9 p.459c6~7. 若乃敎起因緣, 申當經之由致, 藏乘分攝, 通諸敎之所歸.

을 밝혀 이르는 것이요, 교화를 입은 근기는 다섯 부류의 근기로 통틀어 거둔 것이다.¹³⁵⁾ 종지를 알면 해석을 잊고 마음을 닦으면 깨달음에 들어맞으니,¹³⁶⁾ 불신은 법신(法身)과 보신(報身)이 나뉘지 않고, 정토(淨土)는 나와 남이 구별되지 않으며, 설법할 때에는 마음과 경계가 다 사라지고, 법을 들을 때는 설주(說主)와 청중이 서로 원융하게 된다.

본래 일으킨 인연에 답하여 세 번 거듭 설명하고, 구경의 과위를 제창하여 하나의 이치를 원만하게 밝힌 것이 실로 이 경의 근본 골자이다. 이에 아공 범공의 이공(二空)과, 여덟 가지 식과, 미혹을 끊고 인연 따라 생겨나는 것과, 네 가지 깨달은 지혜와 육바라밀은 모두 법상종(法相宗)의 원류이다. 적광정토(寂光淨土)의 뜻과 여래장(如來藏)의 글로 무명의 근원을 다 없애고 탐애의 근본을 파헤치는 것과, 여섯 가지 문으로 부처가 되고 다섯 가지 가르침으로 진여를 증득하는 것은 법성종(法性宗)의 본말을 밝힌 것이다. 「문수장(文殊章)」¹³⁷⁾의 끝을 해석하면 마음과 경계가 둘 다 없어지고 진공관(眞空觀)의 처음을 풀이하면 6근과 6경이 두루 청정해져, 정신이 맑아짐에 힘입어 현상의 미혹이 없어지며, 생각하고 분별함으로 인해 내가 공하게 되는 것은 반야종(般若宗)의 깊은 이치이다. 네 가지 요소[四大]¹³⁸⁾

135) 『원각경대소석의초』 권1 卍9 p.459c8~9. 分齊幽深, 詮至一心之法, 所被根器, 通收五類之機.

136) 『원각경대소석의초』 권1 卍9 p.459c9~10. 忘詮修心, 須明契證之說.

137) 문수장(文殊章): 『원각경』 문수사리보살장(文殊師利菩薩章)

138) 4대(四大): ④catvāri mahā-bhūtāni. 4대종(四大種)의 약칭으로 4계(四界)라고도 한다. 불교의 원소설은 물질이 지(地)·수(水)·화(火)·풍(風)의 4대 요소로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본질이 견고한 성질을 가져 보존하며 유지하는 작용을 하는 것은 지대(地大)이고, 본질이 습한 성질을 가져 모으는 작용을 하는 것은 수대(水大)이며, 본질이 따뜻한 성질을 가져 성숙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은 화대(火大)이며, 본질이 움직이는 성질을 가져 자라는 작용을 하게 하는 것은 풍대(風大)이다.

를 분석하고 여섯 가지 감각기관[六根]을 방지하며, 여덟 가지 선정을 가득 채워 불태우고 네 가지 과위[四果]를 항복받아 끊으며, 오중계(五重戒)와 십선(十善)과 크고 작은 안거(安居)는 조복장(調伏藏)¹³⁹⁾의 규모를 말한 것이다. 법계를 삼중으로 나누니 『화엄경』의 뜻이 드러나고, 한 마음에 두 문을 여니 『기신론』의 뜻이 드러난다. 유교와 도교를 함께 받들면 공자와 노자의 깊은 근본에 통달하고, 남종과 북종의 선종을 모으면 신수(神秀)와 혜능(慧能)의 깊은 뜻을 밝히게 되니,¹⁴⁰⁾ 상에 머무는 자는 상으로 융화하고 글에 집착하는 자는 글에서 떠나게 한다.¹⁴¹⁾ 큰 자비로 굽이굽이 이루는데 게으르지 않았고, 의초(義鈔)를 모으고 또 수정하였으니,¹⁴²⁾ 모두 13권이 된다. 또 약소(略疏) 4권과 소초(小鈔) 6권과 『도량수증의(道場修證儀)』¹⁴³⁾

139) 조복장(調伏藏): 삼장의 하나로 율장(律藏)을 말함. 계율은 신(身)·구(口)·의(意) 3업을 길들여 일체의 악업을 항복받기 때문에 율장을 조복장이라고도 한다.

140) 『원각경대소석의초』 권1 卍9 p.459c11~24. 釋佛身則法報不分, 明淨土則自他無別, 說時則心境雙泯, 聽衆則主伴互融. 答本起因, 三重展轉, 提究竟果, 一理圓明. 使千朵義華頓生翰苑, 百川法水全會天池, 實謂窮此經之宗骨也. 若乃二空八識, 斷惑緣生, 四智菩提六波羅蜜, 罄法相宗之源流也. 若乃寂光土義, 如來藏章, 盡無明根, 究貪愛本, 十心成佛, 五教證如, 暢法性宗之本末也. 若乃解文殊章末, 心境雙亡, 釋真空觀初, 根塵普淨, 藉澄神而相泯, 因尋伺而我空, 兼般若宗之玄致也. 若乃分折四大, 防禁六根, 八定厭折, 四果伏斷, 五重十善, 大小安居, 該調伏藏之規模也. 分三重於法界, 華嚴之旨現焉, 開二門於一心, 起信之意著矣. 事兼二教, 暢孔李之玄樞, 禪會兩宗, 申秀能之祕旨.

141) 『원각경대소석의초』 권1 卍9 p.460a1. 使尋文者離文, 住相者融相.

142) 『원각경대소석의초』 권1 卍9 p.460a5. 大悲不倦於曲成, 採集又修於義鈔.

143) 『원각경도량수증의(圓覺經道場修證儀)』: 18권. 당 종밀 지음. 내용은 예참(禮懺)과 선관(禪觀) 등의 수행 의례와 규칙을 말한 것으로, 『원각경』에 근거하여 수행자의 실제 수행과 종교 행사에서 행하는 좌선관법과 참회멸죄(懺悔滅罪)의 법을 밝힌 것이다. 아울러 풍습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행법을 규정하였다. 특히 화엄과 선의 행법을 결합하려 한데 그 특징이 있다. 송의 정원이 이 책을 간소화하여 『원각경도량약본수증의(圓覺經道場略本修證儀)』를 지었다.

18권 등을 지어 모두 세상에 유통되었는데, 지금 강의하는 것은 약소로서, 경을 주석한 것이다.

講圓覺經發辭¹⁴⁴⁾

夫法無言像，非離言像。離言像則倒惑，執言像則迷眞。但以世寡全才，人難具美。故使學教之者，多棄內而外求，習禪之人，好忘緣而內炤。並爲偏執，俱滯二邊，其猶爭兔角之短長，鬪空花之濃淡。若乃公心彼此，獨步古今，定慧兩全，自他兼利。觀空而萬行騰沸，涉有而一道湛然。語默不失玄微，動靜不離法界者，唯我圭峯祖師一人而已。昔者仲尼云，“吾志在春秋，”吾祖云，“予心宗圓覺。”洎乎輪王髻寶，大雲心傳，長者家財，清涼手授，默承一印，懸悟衆經。由是革舊風規，成新教化，挫權抑小，立頓張圓，疏成三卷，義列十門。若乃教起因緣，現當經之由致，藏乘分攝，通諸教之所歸。分齊幽深，詮至一心之法，所被根器，通收五類之機。會旨忘詮，修心契證，佛身則法報不分，淨土則自他無別，說時則心境雙泯，聽衆則主伴互融。答本起因，三重展轉，提究竟果，一理圓明者，實爲此經之宗骨也。若乃二空八識，斷惑緣生，四智菩提，六波羅密，罄法相宗之源流也。寂光土義，如來藏章，盡無明根，究貪愛本，六門成佛，五教證如，暢法性宗之本末也。解文殊章末，心境雙亡，釋眞空觀初，根塵普淨，藉澄神而相泯，因尋伺而我空，兼般若宗之玄致也。分折四大，防禁六根，八定厭斲，四果伏斷，五重十善，大小安居，說調伏藏之規模也。分三重於法界，花嚴之旨現焉，開二門於一心，起信之義著矣。事兼二教，暢孔李之玄樞，禪會

144) 『대각국사문집』 권3 韓4 p.531b21~532a14

兩宗, 明秀能之秘旨, 遂使住相者融相, 執文者離文. 大悲不倦於曲成, 採集又修於義鈔, 凡一十三卷. 又著略疏四卷, 小鈔六卷, 道場修證儀一十八卷等, 並行於世. 今所講者, 則是略疏注經也.

4) 『유교경(遺敎經)』 강의를 시작하며

당나라의 회소(懷素)¹⁴⁵⁾와 송나라의 지원(智圓)¹⁴⁶⁾은 모두 장구(章句)를

145) 회소(懷素) : 634~707. 당의 계율에 밝은 승려. 12세에 현장(玄奘)에게 출가하여 경론을 익히고, 수제 후에는 도선(道宣)을 따라 『사분율행사초(四分律行事鈔)』를 배웠다. 그후 법려(法礪)의 제자 도성(道成)의 문하에 들어가 사분율소(四分律疏)를 배웠다. 이들에 미진함이 있음을 한탄하여 『사분율개종기(四分律開宗記)』 20권을 지었다. 여기서 옛 소의 잘못을 16가지 지적하여 사람들이 이를 신소(新疏)라고 불렀다. 이로부터 법려와 다른 회소의 새로운 견해를 동탑율종(東塔律宗)이라 불려, 법려의 상부종(相部宗)과 도선의 남산종(南山宗)과 함께 율학 삼대종(三大宗)이라 불렀다. 처음에 장안의 홍제사(弘濟寺)에 머물다 676년에 명으로 서태원사(西太原寺)에 주석하며 중풍을 드날리니 학도들이 모여들었다. 『구사론소(俱舍論疏)』·『유교경소(遺敎經疏)』·『사분비구계본소(四分比丘戒本疏)』 등을 지었다.

146) 지원(智圓) : 976~1022. 송대 천태종 산외파의 승려. 자는 무외(無外), 호는 잠부(潛夫). 8세에 전당의 용흥사에 출가하여 처음에는 유학을 배우고 시문에 능하였으나 봉선사 원청(源淸)에게 천태교관을 익혔다. 원청이 입적한 후 동문인 경소(慶昭)·오은(晤恩) 등과 산외파 학설을 선양하여 산가파의 대표인 사명지례(四明知禮)와 논변을 벌였다. 후에 서호 고산(孤山)의 마노파(瑪瑙坡)에서 요양하니 배우는 이가 많았다. 이로부터 저술에 열중하여 『한거편(閑居編)』 60권을 짓고, 『금광명경현의표징기(金光明經玄義表徵記)』 1권 등을 지었다. 유교와 제자백가에 능통하여 유 불 도 삼교의 조화를 도모하기도 하였다. 『문수반야경소(文殊般若經疏)』·『유교경소(遺敎經疏)』·『수능엄경소(首楞嚴經疏)』 등 10종의 소로 대중들을 이끌어 ‘십본소주(十本疏主)’라는 미칭으로 불렸다. 이밖에도 많

지어 이 가르침을 드날렸다. 오직 내가 받은 것은 진수(晋水)대법사께서 이 글이 후세에 전하면서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오래도록 개탄하여, 이에 경론의 격언과 교훈을 옮기고 여러 대가의 깊은 말씀을 모아 편찬하여 1부를 이루어 사방에 유포시킨 것이다. 나는 법을 중시하고 몸을 가벼이 여겨 스승을 구하고 도를 물을 때, 다행히 (법사의) 강연에서 원만한 음성을 얻어 들었으니, 지금 강의하는 것은 곧 우리 진수대법사께서 새로 모은 절요(節要)가 이것이다. 그밖의 뜻과 예는 청컨대 글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라.

講遺教經發辭¹⁴⁷⁾

李唐懷素，大宋智圓，並有章句，發揚斯教。唯我所稟，晉水大法師，久慨斯文，流芳未備，於是翻經論之格訓，集諸家之奧辭，撰成一部，流布四方。某重法輕身，求師問道，幸於講下，獲聽圓音，今所講者，則我晉水新集節要是也。其他義例，請俟入文。

은 저술이 있어 모두 170여 권에 이른다.

147) 『대각국사문집』 권3 韓4 p.532a15~22



表 目

- 1) 송나라에 들어가 법을 구하기를 청하는 표
- 2) 항주(杭州) 정원(淨源) 아사리(阿闍梨)의
처소에 가서 법을 배우기를 바라는 표
- 3) 법을 전함을 감사하는 표
- 4) 대궐에 나오라는 것을 사양하는 표



1) 송나라에 들어가 법을 구하기를 청하는 표

신은 듣건대 계송 절반을 들으려고 몸을 버린¹⁴⁸⁾ 능적(能寂)¹⁴⁹⁾은 법을 소중히 여기는데 아름다운 이름을 남겼고, 백 개의 성을 다니며 선지식에 게 물은 선재(善財)동자는 스승을 구함에 모범을 보였다 합니다. 하물며 상법(像法)의 쇠약한 때를 당하여 다시 철인(哲人)의 부름을 받고서도 만일 찾아가 도를 물을 마음이 없다고 하면 틀림없이 진리를 구하는데 게으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히 하고자 하는 것을 따라 주시는 어짊을 바라오니, 문득 진심에서 나오는 정성을 이끌어 주소서. 참람하고 외람됨을 저질렀으니 형벌을 달게 받으려 합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신 의천은 지식이 공허하고 거칠며 기량과 재능이 게으르고 나약하운데, 다행히 중국과 인연을 맺고 오랫동안 승려들의 반열에서 은총을 입었지만, 복과 이익을 준다는 칭찬은 듣지 못하고 한갓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만 쌓였습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주상께서 왕위를 이

148) 반쪽 계송을 묻다가 몸을 버린 : 설산동자(雪山童子) 수행 설화로 알려진 이야기. 석가모니부처님이 과거세에 브라만이 되어 청정한 설산에 들어가 보살행을 닦았다. 어느날 제석천이 무서운 모습의 나찰로 변하여 수행을 시험하고자 과거불이 설한 계송을 절반만 말해 주자 브라만은 이를 듣고 마음에 환희심이 생겨 나서 나머지도 말해주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나찰은 브라만의 피와 살을 먹기를 바랐고 브라만은 구법의 마음이 간절하여 나머지 계송을 듣고 약속대로 나찰에게 몸을 던졌다. 그래서야 나찰은 제석천으로 변하여 공중에서 안전하게 영접하였다. 이 인연으로 12겁을 뛰어 넘어 석가불은 미륵보다 먼저 성불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계송이 “제행은 무상하니 이것이 생멸법이다. 생멸을 모두 없애고 적멸을 즐거움으로 삼는다(諸行無常, 是生滅法. 生滅滅已, 寂滅爲樂.)”이다. 『열반경』 권14 대12 p.450a12~451b1)

149) 능적(能寂) : 능인적묵(能仁寂默)을 줄여 부른 말. 곧 석가모니불을 말한다. ㉠Śākya(釋迦)를 의역하면 능인(能仁)이 되고, ㉡muni(牟尼)를 의역하면 적묵(寂默)이 된다.

어받아 서시어 세상을 위해 오심을 만나니, (주상께서는) 전생에는 보살의 인을 돈독히 하였고 현생에는 임금의 자리를 얻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의 바른 교화를 본받고,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뒤의 끼친 법을 밝히시어, 총명한 문사(文思)¹⁵⁰⁾로 온 나라를 빛내고, 자비(慈悲)와 희사(喜捨)로¹⁵¹⁾ 온 백성들을 이롭게 하시니, 삼존(三尊)이 의지해 머무르시고 만 백성들은 힘입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오직 문치를 닦고 전쟁을 그만두어 임금의 위엄을 충분히 퍼셨고, 또 가르침을 전하여 중생을 이롭게 하고 드디어는 법왕의 영(令)을 펼치셨습니다. 다만 수도하는 사람들이 적고 강연하는 집들이 쓸쓸하여, 마침내 진실한 가르침이 이단에게 굶히고 심오한 말이 거짓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글을 읽고 뜻을 음미하면서 부질없이 옛날 현인을 사모하며, 책 상자를 지고 경권(經卷)을 끼고 다니지만 좋은 스승을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중국에 가서 학문을 배워오지¹⁵²⁾ 않으면 동방의 가린 눈을 벗겨내기는¹⁵³⁾ 진실로 어려울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원광(圓光)¹⁵⁴⁾이 주장자를 떨치고 돌아오고 의상(義

150) 문사(文思): 문은 하늘과 땅을 다스림[經天緯地]을 말하고, 사는 도덕을 순수하게 갖추는 것[道德純備]을 말함. 곧 훌륭한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

151) 자비희사(慈悲喜捨)는 불보살이 중생을 구제하여 고통을 없애고 즐거움을 얻게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네 가지 정신. 자(慈)는 중생에게 기쁨을 주는 것, 비(悲)는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주는 것, 희(喜)는 중생들이 괴로움을 떠나 즐거움을 얻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사(捨)는 모든 중생들을 평등하게 보아 친하거나 원망하고 기뻐하거나 괴로워하는 등의 구별을 두지 않는 것.

152) 문진(問津)은 나루를 묻는다는 뜻으로, 학문에 들어가는 입구, 곧 학문을 배움을 말함.

153) 결막(抉膜)은 눈을 가리는 꺼풀을 벗겨냄을 말함.

154) 원광(圓光): 589년부터 600년에 중국에 유학한 신라 승려. 신라의 고승. 전기에 따라 생애가 다른데, 생몰년은 532~630년과 554~637년의 두 가지이다. 출가하여 삼기산에서 혼자 수행하다가 신인의 권유로 589년에 중국에 가서 불법과 유

相)¹⁵⁵⁾이 배를 띄운 뒤로는, 맑은 바람이 끊어지고 높은 자취를 따르는 이
 가 없습니다. 신은 이제 감히 험한 땅 보기를 평지처럼 하고 분심을 내어
 끼니까지 잊으면서,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일으켜 옷깃을 조이며 때를 기
 다렸습니다. 그런데 작년 팔월에 송나라 양절(兩浙)¹⁵⁶⁾의 화엄 아사리(阿闍
 梨)¹⁵⁷⁾ 정원(淨源)법사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글에 “바람을
 타고 와서 입으로 가르치고 마음으로 전하면, 바늘과 겨자씨¹⁵⁸⁾가 비록 멀

학을 익혔다. 불법은 성실과 열반 반야 섭론을 주로 수학하였다. 600년에 귀국
 하여 경론을 강의하였으며, 고구려와 백제와의 싸움에 중국의 군대가 신라를
 도와주기를 요청하는 글을 짓기도 하는 등 외교문서를 많이 작성하였다. 청도
 의 가서사(嘉西寺)에서 지내며 귀산과 추항이라는 젊은이가 찾아와 가르침을
 청하자 세속에서 지킬 수 있는 오계(世俗五戒)를 알려주었고, 일반 사람들을 일
 깨우기 위해 점찰보(占察寶)를 설치 운영하였다. 불교사상의 발전과 점찰 수행
 의 보급 그리고 지방사회에 불교를 전파하는 등으로 신라불교 발전에 큰 자취
 를 남겼다.

155) 의상(義相) : 660년부터 670년까지 중국에 유학한 신라 승려.

156) 양절(兩浙) : 절동(浙東)과 절서(浙西)를 합쳐 부르는 말. 송대에 양절로(兩浙路)
 가 있었는데, 지금의 강소성 장강 이남과 절강성 전 지역에 해당한다.

157) 아사리(阿闍梨) : ㉠ācārya, 사리(闍梨)라고 줄여 부른다. 궤범사(軌範師)·정행
 (正行)·열중(悅衆)·교수(教授)·전수(傳授) 등으로 의역한다. 제자들을 가르친
 다는 뜻으로 그 행위가 단정하고 함당해야 하며 자신 스스로 제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사(導師)라고도 한다. 인도 브라마교에서 베다의 제례 규
 범과 행동의례를 가르치는 이를 아사리라 불렀는데 이것이 불교에 수용된 것이
 다. 다섯가지가 있어, ①출가(出家)아사리는 수계할 때의 10계사로서 십계(十
 戒)아사리라고도 하며, ②수계(受戒)아사리는 구족계를 받을 때의 갈마사로서
 갈마(羯磨)아사리라고도 하며, ③교수(教授)아사리는 구족계 받을 때의 위 의사
 로서 위(威儀)아사리라고도 하며, ④수경(受經)아사리는 경전의 독법과 의미
 를 가르치는 이이며, ⑤의지(依止)아사리는 비구들의 기거를 지도하는 이이다.
 이밖에 서역에서는 군지(君持, ㉡kuṇḍikā)아사리가 있는데, 관정사(灌頂師)이다.
 구족계를 받을 때 삼사(三師)는 득계화상(得戒和尚)과 갈마아사리, 교수아사리
 를 말한다.

158) 바늘과 겨자씨 : 한 알의 아주 작은 겨자씨가 도리천에서 떨어져 염부제 세상

지만 높고 낮은 것이 서로 맞힘을 기뻐할 것이며, 피리와 경쇠의 소리가 같아서 궁(宮)과 상(商)의 소리가 어울려 간절히 조화를 이루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세 번 읽었사온대 신의 뜻과 한결같이 같았습니다. 큰 이익을 생각하여 잊지 못하고 억지 인연인 줄 알지만 만나고 싶었습니다. 남방을 순회하는 법의 수레를 바라보며 굳센 정이 비록 깊지만, 서쪽으로 멀리 가는 객선을 돌아보니 구름처럼 노니는 마음이 이같이 간절합니다. 아무리 힘써도 나아가고 물러남을 제어하기 어려워 배회하면서 몇 번이나 인연을 생각하니, 뜻은 있어도 도모할 수 없어 몸을 어루만지며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앞드려 바라옵건대 주상께서는 법을 위하는 신을 가엾게 여기시고 형벌을 무릅쓰는 신을 용서하소서. 만 번의 죽음을 가벼이 여기고 긴 파도를 건너, 저쪽 언덕에 가는데 한 몸을 맡기겠습니다. 우리 주상의 큰 덕을 힘입고 우리 부처님의 그윽한 가피(加被)를 받아, 서쪽에서 전해온 지혜의 불꽃을 밝히고 동쪽으로 돌아온 법의 바퀴를 굴리면, 도의 광명은 천고에 거듭 빛나고 자비의 바람은 삼한에 더욱 펼칠 것입니다. 움츠렸던 큰 가르침이 다시 펴지고 잠겼던 그윽한 뜻이 다시 나타나면, 비록 잠깐 동안 충효를 어겼으나 나라와 집에 도움이 되기를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머리 숙여 주상의 위엄을 바라보니 진실로 두려운 마음만 더할 뿐입니다. 지금 쌍계사의 담진(曇眞) 대사 등 승속 11명이 같이 약속하고 출발하는 장삿배를 따라 가려 하오나, 감히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나이다.

請入大宋求法表¹⁵⁹⁾

에 세워져 있는 가는 바늘 끝에 꿰이게 되는 것. 일어나기 극히 어려운 가능성을 말하는 것으로, 눈먼 거북이가 큰 바다 가운데서 나무 조각을 만나는 것[盲龜遇木]과 함께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가 어려움을 비유하는데 주로 쓰인다.(『大般涅槃經』 권2 大12 p.372c15 佛如優曇花, 值遇生信難; c18 芥子投針鋒, 佛出難於是; c22~23 生世爲人難, 值佛世亦難. 猶如大海中, 盲龜遇浮孔.)

159) 『대각국사문집』 권5 韓4 pp.533c20~534b13

臣聞半偈捐軀能寂，流芳於重法，百城問友善財，垂範於務師。矧當像教之下衰，復被哲人之招引。儻無心於訪道，必有怠於求真。敢希從欲之仁，輒導由衷之懇。載循僭越，甘俟刑章。伏念臣某，智識空疎，器能慵懦，幸締¹⁶⁰⁾緣於華旦，久冒寵於緇班，蔑聞福利之稱，徒積兢慙之素。伏遇主上承祧以立，爲世而來，宿敦菩薩之因，現感皇王之位。體佛在之正化，闡佛後之遺風，聰明文思，光被率土，慈悲喜捨，利洽黎元，三尊仗以住持，兆民賴之慶樂。匪唯修文偃虎，克宣人主之威，抑亦傳教利生，聿布法王之令。但以道流寂爾，講肆閑然，遂使真趣屈於異端，玄言隱於浮僞。玩文味義，空戀於古賢，負笈橫經，罕逢於善匠。若不問津於中國，固難抉膜於東方。竊惟圓光振錫已還，義想浮杯以降，清風絕後，高迹無追。臣是敢視險若夷，發憤忘食，虛襟致想，引領俟時。於去年八月，得大宋兩浙華嚴閣梨淨源法師書一道，其書云，“因風而來，口授心傳，則鍼芥雖遠，悅高下之相投，笙磬同音，穆宮商¹⁶¹⁾而切響。”斯言三復，臣意一同。睎巨利以未忘，認強緣而得遇，望南巡之法駕，鯁戀雖深，顧西邁之客帆，雲遊斯切。僂俛難裁於進退，徘徊幾念於因緣，揣志失圖，撫軀無措。伏望主上，愍臣爲法，恕臣冒刑，輕萬死於涉長波，委一身於到彼岸。賴之以我王盛德，荷之以吾佛冥加，炳慧焰於西傳，輾法輪於東返，道光重映於千古，慈風益扇於三韓。大教卷而復舒，幽旨淪而更現，則雖暫違於忠孝，冀有補於邦家。傾望宸嚴，寔增殞越。今與雙溪寺大師曇真等緇素共一十一人同約，欲隨商客船發行，不敢專擅。

160) 판본에 의해締로 추정함.

161) 대본에는商이나 판본과 내용에 의해商으로 교감함.

2) 항주(杭州) 정원(淨源) 아사리(阿闍梨)의 처소에 가서 법을 배우기를 바라는 표

신승 의천은 아뢰입니다. 엿드려 생각건대 궁궐¹⁶²⁾에서 임금을 뵈오니 이미 북쪽에 절하는 예의¹⁶³⁾에 맞았고, 천리 밖에 계신 엄한 스승은 남쪽으로 가는 걸음을 재촉하시기에, 여기 간절한 소원으로 지극한 총명에 우러러 머리 조아리며 신승 의천은 진심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엿드려 생각하오면 신은 대궐의 영화를 사양하고 부처님의 법에 뜻을 쏟아, 깊은 이치를 연구하기 어려움을 탄식하고 바른 법이 시들어감을 슬퍼했습니다. 그리하여 잠깐 세월도 아끼면서 온갖 경전을 찾았는데, 전에 고국에서 우연히 양절의 정원(淨源) 강주께서 현수(賢首)조사의 가르침의 글을 풀이한 책을 얻어 펼쳐 보고는 느낀 바 있어, 피로한 줄도 모르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굳어지고 멀리서 제자의 예를 올렸습니다.

이제 다행히 바람을 만나 두루 힘써 바다를 건너 빨리 와서, 조정에 온 예로 뵈옵고 겨우 아뢰매 성상의 은총이 어여뻐 여기심이 특이하셨습니다. 비록 스승의 지혜가 매우 심오하매 어미소가 새끼소를 생각하는 정이 진실로 깊으나, 두루미의 자태가 맑고 여위매 지둔(支遁)¹⁶⁴⁾의 나이가 가히 두

162) 구중(九重)은 궁궐의 문, 또는 그 궁궐, 궁궐 안에 있는 임금을 말함. 옛 제도에 천자는 문이 아홉 겹인 궁궐에 산다고 하여 생긴 이름.

163) 북쪽에 절하는 예의: 왕에게 절하는 예법. 예로부터 왕은 북쪽에 앉아 신하들의 절을 받았으므로 신하들이 북쪽으로 절을 하는 것은 왕을 뵈는 것을 말함. 고례에 신하가 임금에게 절할 때 신분이 낮고 어린 사람이 신분이 높은 어른에게 절할 때와 같이 북쪽을 향해 예를 올리는 것이라 한데서 나온 말.

164) 지둔(支遁): 314~366, 동진의 승려. 속성은 관(關)씨, 자는 도림(道林). 흔히 지도림(支道林)이라고 부른다. 일찍이 무상의 이치를 깨달아 회계의 여항산(餘杭山)에 은거하며 『도행반야경』 등의 반야 경전을 공부하다가 25세에 출가하였다. 후에 수도인 건강에 가서 강론 때마다 명성이 드러났으며 손작(孫綽)·사안

럽습니다. 바라건대 가서 뵈우고 공부하기를 청하여, 학업을 넓히고 정성을 쌓고자 합니다.

앞드려 비읍건대 황제 폐하께서는 이 천한 사람의 말을 빨리 들으시고 욕심을 좇는 마음을 가없이 여기시어, 허락하시는 명령을 윤언(綸言)¹⁶⁵⁾으로 내리시고, 가르침을 받드는 마음이 그 본래의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소서.

乞就杭州源闍梨處學法表¹⁶⁶⁾

臣僧某言. 伏以九重親聖, 旣諧北拱之儀, 千里嚴師, 已迫南行之計, 爰將丹慊, 仰叩至聰, 臣某中謝. 伏念臣侯閭辭榮, 佛乘注意, 慨深文¹⁶⁷⁾之難究, 悲正法之下衰. 是惜寸陰, 擬探群典, 向者於故國, 偶得兩浙淨源講主, 開釋賢首 祖教文字, 披而有感, 閱以忘疲. 迺堅慕義之心, 遂敍爲資之禮. 今幸占風采劬¹⁶⁸⁾越海, 遙臻來庭之禮謁, 纔陳當宁之寵憐特異. 雖螭頭凝邃, 子牟之戀良深, 而鶴態清羸, 支遁之年可懼. 冀往參而請益, 欲廣業以積勤. 伏乞皇帝陛下, 念急聽卑, 仁敦從欲, 曰俞之命, 荐降於綸言, 奉誨之心, 俾成於素願.

(謝安)·왕희지(王羲之) 등과 당시에 유행했던 노장을 담론하며 사람들을 탄복시켰다. 이른바 격의불교시대의 거장으로 꼽힌다. 용모가 특이하고 말이나 학과 친하며 산림에 자적하며 글씨에 능하고 문장이 이름났다. 후에 지산사(支山寺), 오홍의 영가사(靈嘉寺), 석성산의 서광사(棲光寺) 등에서 강의하고 수행하였다. 산음에 나가 『유마경』을 강의하고, 서울의 동안사(東安寺)에서 『도행반야경』을 강의하였다.

165) 윤언(綸言): 임금의 명령인 조칙(詔勅). (『禮記』緇衣 “王言如絲, 其出如綸. 王言如綸, 其出如紉.”)

166) 『대각국사문집』 권5 韓4 p.536b6~20

167) 판본에 의해 文으로 교감함.

168) 판본에 의해 采劬로 교감함.

3) 법을 전함을 감사하는 표

신승 의천은 아뢰입니다. 전일에 성스러운 자비를 입어 청한 바를 허락하시어 항주의 화엄 강주(講主) 정원스님 계신 곳을 찾아가 법을 배워 지금 이미 큰 뜻을 전해 익혔습니다. 성인의 교화는 청정하여 사사로움이 없어(…) 간곡히 따르게 되었으니, 범부의 근기에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대승을 돈독하게 믿어 받든 이래 감격과 기쁨이 지극하였습니다.

앞드려 생각하건대 신은 몸은 동방¹⁶⁹⁾에서 태어나 일은 천축(天竺)의 풍도를 사모하였지만, 자성이 밝지 못하여 다만 스승을 구하는 마음만 간절하였습니다. 다행히 지극히 인자하신 은총을 입어 원교(圓敎)의 종지를 얻어 계승하였습니다. 범문의 바다가 더욱 깊어 비록 영원히 물가에서 다하는 듯 하였으나 관문(關門)이 갑자기 열려 오히려 큰 길에¹⁷⁰⁾ 이를 수 있습니다. 종일토록 생각하는 탄식을 면하고 이미 평생에 바라던 바를 이루었습니다. 삼가 마땅히 뜻을 강의하여 펴는데 두고 임무를 부지런히 수행하는데 두어, 향화 올리는 정성을 더욱 부지런히 하고 나라가 경사롭기를 길이 기원하나이다.

謝傳法表¹⁷¹⁾

臣僧某言. 昨蒙聖慈, 允之所請, 尋詣杭州¹⁷²⁾花嚴講主淨源所學法, 今已傳習大旨. 說者聖化淨秘, 曲從□□, 凡根何幸? 得懷大乘信奉以來, 感抃交極. 伏念 臣身生桑域, 業慕竺風, 而

169) 원문의 상역(桑域)은 뽕나무가 자라는 곳, 곧 동방의 우리나라를 말함.

170) 강장(康莊)은 여러 곳으로 통하는 변화한 큰 길. 강(康)은 오달(五達)하는 큰 길, 장(莊)은 육방(六方)으로 통하는 대로.

171) 『대각국사문집』 권7 韓4 p.38a1~12

172) 내용에 의해 杭州로 추정함.

非自性之明, 但切求師之念. 幸沐至仁之眷, 獲承圓教之宗. 法海彌深, 雖永窮於涯涘, 觀門俄闕, 猶可達於康莊. 免嗟終日之思, 已遂平生之望. 謹當志存講演, 務在進修, 益勤香火之誠, 永祝邦家之慶.

4) 대궐에 나오라는 것을 사양하는 표

신 사문 의천은 올리나이다.

10월 22일에 추밀원(樞密院)¹⁷³⁾ 좌승선(左承宣)¹⁷⁴⁾ 이부시랑(吏部侍郎)¹⁷⁵⁾ 김덕균(金德均) 등이 와서 교서(敎書) 한 통을 받들어 전하였사온 데, 성상의 자비로움을 입어 신을 대궐에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상께서 꽃다운 교서를 내리시니 절에는¹⁷⁶⁾ 영광이 되었사옵고, 은혜를 받은 이 후로 감격과 놀라움이 간절하여 신 의천은 진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엿드려 생각건대 신은 어려서 머리를 깎고 자라서 스승을 찾아, 성품이 전등(傳燈)을 사랑하여 비록 교리를 약간 알았으며, 법을 보호할 마음은 있

173) 추밀원(樞密院): 고려시대 왕명의 출납과 궁중의 숙위 및 군기를 맡아보던 관청. 중추원의 후신. 1095년(숙종 즉위년)에 중추원을 추밀원으로 바꾸었으니 바로 의천의 만년 활동기이다.

174) 좌승선(左承宣): 고려시대 중추원(추밀원)의 정3품의 관직. 정원은 1인. 지주사(知奏事)·우승선·좌부승선·우부승선과 함께 승선방(承宣房)에서 집무하면서 교대로 왕궁에 숙위하여 왕명을 출납하는 기능을 맡았다.

175) 이부시랑(吏部侍郎): 고려시대 상서6부의 정4품 관직. 판사(判事) 등 겸직을 제외하면 상서(尙書) 다음의 직책이다. 고려 초기에는 차관급이었으나 성종 이후 상서6부의 정4품 벼슬로 정착되었다. 정원은 상서이부는 1인이다.

176) 연사(蓮社)는 절을 말함. 동진(東晉) 때 혜원(慧遠)이 여산(廬山) 백련사(白蓮社)에서 승속 123인과 함께 엽불결사(念佛結社)를 시작한 데서 연유함.

었으나 시의(時宜)에 맞지 않음을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래전부터 시
끄러움을 싫어하고 일찍이 한가하고 자유롭게 되고자 하였는데, 마침내 계
곡에 은거하며 즐기고¹⁷⁷⁾ 산에 살면서 도를 알기를 바랐습니다. 만물을 감
싸 청정이 흐르게 함은 진실로 감히 바랄 바가 아니었고, 몸을 조용히 하여
조급함을 진정하려 함은 원래 그럴 능력이 없었습니다. 다만 숭상함을 좋
아하는 것이 특별했다고 하겠으나 그것은 본성이 그렇게 된 것이어서, 오
직 물러나 숨어지낼 것만 생각하고 바빠 치달리는 마음은 끊으려 합니다.

앞드려 생각건대 그러다가 대왕 전하께서 엄숙히 하늘의 징조¹⁷⁸⁾를 잡
아 단정하게 옥좌(玉座)¹⁷⁹⁾에 임하시어 스스로 보배로운 제위(帝位)¹⁸⁰⁾를
받고 우리러 불승을 사모하여, 진실하고 깨끗한 풍도를 본받아 드날리고,
미묘하고 밝은 교화를 크게 밝히려 하심을 만난 것을 어찌 다 말하겠습니
까? 그런데 신이 교문(敎門)에 각별히 뜻을 둔다고 이르시고, 신이 종실의
후예임을 염려하시어, 가까운 신하를 보내어 이 부족한 사람을 깨우쳐 주
셨습니다. 그러나 생각건대 성상께서 계시는 곳에는 영웅 호걸들이 자리해
있어 강의하고 해석하는 고승들이 벼나 삼처럼¹⁸¹⁾ 늘어서고, 참선하고 관
행하는 명덕들이 대나 갈대처럼 그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신은 나아가

177) 『시경』 위풍고반편(衛風考槃篇) “考槃在澗 硯人之寬”

178) 건부(乾符)는 제왕이 하늘로부터 명을 받은 길상의 징조를 말함.

179) 법의(法屐)는 임금의 남쪽을 향해[南面] 앉는 보좌(寶座), 곧 옥좌(玉座).

180) 보조(寶祚)는 왕의 지위 혹은 나라의 운명을 말함.

181) 벼와 삼[稻麻], 대와 갈대[竹葦]는 불교 경전에서 자주 언급하는 말이다. 『법화
경』에는 시방세계에 가득 차는 비유로 계승에서 말하고 있고, (『妙法蓮華經』 권1
「方便品」 大9 p.6a13) 『화엄경』과 『반야경』, 『아함경』 등 여러 경전에서는 국토에
보살들이 충만해 있다는 것을 사당수수, 대와 갈대, 벼와 마, 그리고 총림에 비
유하였다. (『大方廣佛華嚴經』 권39 「十地品」 大10 p.208a28~29. 一一國土得如是地菩
薩充滿, 如甘蔗 竹 葦 稻 麻 叢林.)

도 칭찬받을 일이 없고 물러나도 애석해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공업(功業)으로 동쪽(고려)사람들의 구함에 부응하겠습니까?

알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이 어리석은 충정을 굽어 살피시고 측은한 마음을 간곡히 드리우시어, 옛절에 그대로 살면서 본래 마음에 힘쓰게 하소서. 그런즉 여산(廬山)¹⁸²⁾의 자취를 따라 산수의 즐거움에 이르고, 조정에 정성을 다하고 다시 향화의 인연에 힘쓰겠나이다.

辭赴闕表¹⁸³⁾

臣沙門某言. 十月二十二日, 樞密院左承宣吏部侍郎金德均等至, 奉傳教書一道, 伏蒙王慈, 令臣赴闕者. 芝封降命, 蓮社生光, 祇荷已還, 感驚交切, 臣某中謝. 伏念臣 少而落髮, 長則尋師, 性愛傳燈, 雖粗¹⁸⁴⁾知於教理, 情存護法, 奈不適於時宜? 而自久厭囂紛, 早圖閑放, 遂考槃而在澗, 冀識道以居山. 庇物激清, 實非敢望, 靜己鎮躁, 固無其能. 但好尚之云殊, 亦性分之所至, 唯思藏縮, 絕意奔馳. 豈謂伏遇大王殿下, 肅秉乾符,

182) 여산(廬山): 광산(匡山)·광려(匡廬)라고도 한다. 전설상의 황제(黃帝)가 이곳에서 노닐었다고 한다. 또 은나라 광숙(匡俗)이라는 이가 산중에서 오두막을 짓고 선도를 닦다가 신선이 되어 가서 오두막만 남아 여산의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곳곳에 기암괴석이 있고 골짜기와 폭포, 못과 절벽이 아름다워 예부터 뛰어난 경치가 천하에 이름났다. 후한 영제 때 안세고(安世高)가 이곳에서 수행한 이래 승려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동진 태원(太元, 376~396) 초반에 도안의 문인인 혜영(慧永)이 향곡(香谷)에 서림사(西林寺)를 세웠고, 387년에는 혜영의 청으로 혜원(慧遠)이 동림사(東林寺)를 세워 이를 여산의 이림(二林)이라 한다. 390년에 반야대정사(般若臺精舍)를 세워 아미타불을 봉안하고 승려와 일반인 1백 2십여 명과 함께 백련사(白蓮社)를 결성하여 정토수행의 근본도량으로 삼아 염불법문을 제창하였다. 이후 중국 정토 성지가 되었다.

183) 『대각국사문집』 권8 韓4 p.541a15~b15

184) 판본에 의해 粗로 교감함.

端臨法展，自膺寶祚，仰慕佛乘，式揚真淨之風，丕闡妙明之化？謂臣以教門刻志，愍臣以宗室分枝，遣彼近僚，諭茲側陋。然念輦轂之城，英豪所踳，講解高流，稻麻成列，禪觀名德，竹葦連陰。而臣進無可稱，退不足惜，將何功業，以副東求？伏望殿下，俯察愚衷，曲垂仁惻，仍栖古寺，俾協素心。則追迹廬峯，庶適林泉之樂，翹誠魏闕，更勤香火之緣。



狀 장

- 1) 정원(淨源)법사께 올리는 글
- 2) 송나라 정원(淨源)법사께 올리는 글 1
- 3) 송나라 정원법사께 올리는 글 2
- 4) 송나라 정원법사께 올리는 글 3
- 5) 송나라 선총(善聰)법사께 드리는 글 1
- 6) 송나라 선총법사께 드리는 글 2
- 7) 송나라 선총법사께 드리는 글 3
- 8) 송나라 정인(淨因)법사께 드리는 글
- 9) 송나라 원소(元炤)율사께 답하는 글



1) 정원(淨源)법사께 올리는 글

의천은 올립니다.

요드려 생각건대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져 중국과 인근이¹⁸⁵⁾ 다 사모하고 우러르며, 가까이 있는 이나 멀리 있는 이나 모두 진리의 바람에 풀처럼 구부리고, 서쪽에서나 동쪽에서 모두 지혜의 태양에 해바라기처럼 기울었습니다. 삼가 생각하면 화엄 강주 아사리(阿闍梨)께서는 여래의 사자로서 천자의 조정에 태어나, 논문을 짓고 경전을 주석하여 그 자취는 사의(四依)보살¹⁸⁶⁾에 응하며, 원교를 칭송하고 대승을 찬탄하여 범부를 일대사(一大事)인연¹⁸⁷⁾에 펼쳐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종승(宗乘)을 개척하여 처음을 열었고, 조업을 추승하여 완성하였습니다.¹⁸⁸⁾ 혹은 전단 나무에 다듬어 형상을

185) 화이(華夷)는 중화(中華) 곧 중국과 중국 인근의 여러 나라를 말함. 중국 주변의 나라를 동이(東夷), 서융(西戎), 남만(南蠻), 북적(北狄)의 사이(四夷) 또는 이적(夷狄)이라 하여 중화와 구분하였다.

186) 사의(四依) 보살: ①사의를 지키는 보살, 사의는 율전에 규정한 출가자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의지해야 할 네 가지 법이다. ①분소의(糞掃衣, ṣpāṃsukūla)를 입어 세상 사람들이 버린 헤진 옷을 주워 빨아 기워 입음으로써 마음에 애착을 갖지 말 것, ②항상 결식(乞食, ṣpiṇḍa-pāta)을 할 것, ③나무 아래에 앉아[樹下坐, ṣvrkṣa-mūla] 짐을 갖지 않고 나무 아래나 동굴 등에서 수행할 것, ④새 약을 간직하지 말고 오래 묵은 진부약(陳腐藥, ṣpūtīmukta-bhaiṣajya)을 쓸 것 등이다. 이 네 가지에 의지하여 수행함으로써 탐애하거나 집착하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중생들이 믿고 의지해야 할 네 가지 사람. 사의대사(大士)또는 사의보살이라 한다. ①번뇌를 갖는 3현(三賢) 4선근(四善根)의 출세범부(出世凡夫), ②수다원(須陀洹)·사다함(斯陀含), ③아나함(阿那含), ④아라한(阿羅漢). 이 네가지 사람들은 세간을 이롭게 하고 인천을 안락하게 하기 때문에 중생들이 의지할 수 있다. 여기서는 ③를 가리킨다.

187) 일대사(一大事)인연: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 하나의 큰 목적. 곧 인생의 진실한 모습을 열어 보이신 것, 이를 하나의 큰 일[一大事]이라 한다.

188) 부궤(覆篋)는 한 삼태기의 흙을 덮는다는 뜻. 작은 것을 쌓아 큰 것을 이롭게 함을 말함.

새기고 혹은 사당을 세워 과문(科文)을 배풀며, 찬(贊)은 8장으로 간추려 크고 아름다운 공을 영원히 떨쳤고, 의식은 다섯가지 참회[五悔]¹⁸⁹⁾를 부지런히 닦아 청정한 행업¹⁹⁰⁾을 무궁토록 권하여, 끼친 교화가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고 우리 도가 없어졌다가 다시 살아나기에 충분하게 하였으니, 할 일을 마쳤으며 그 이익은 넓었습니다.

앞드려 생각건대 의천은 본래 미미한 사람인데다 더하여 태어난 곳이 멀어, 용상(龍象)¹⁹¹⁾들의 높은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여 구름과 우레와 같은 미묘한 음성을 듣기 어려웠습니다. 비록 의상(義相)대사가 진실된 중지를 시작하고 균여(均如)¹⁹²⁾대사가 깊은 뜻을 파헤쳤으나, 배와 물길이 이미 멀어졌

189) 다섯 가지 참회[五悔]: 지은 죄악을 없애는 다섯 가지 참회법. 천태종에서는 범화삼매를 수행할 때 주야로 여섯 차례 이 5종 참회법을 시행한다. ①참회(懺悔)는 죄를 뉘우치고 선과(善果)를 닦는 것, ②권청(勸請)은 시방 제불께서 법륜을 굴려 중생을 구제해 주시기를 권하여 청하는 것, ③수희(隨喜)는 다른 사람의 선행을 기뻐하고 칭찬하는 것, ④회향(迴向)은 선행을 공덕을 깨달음으로 돌리는 것, ⑤발원(發願)은 한 마음으로 성불하기를 발원하는 것이다.

190) 청정한 행업[淨業]은 세복(世福)·계복(戒福)·행복(行福)의 세 가지 복업을 말한다. 이 세 가지 복이 중생이 정토에 왕생하는 정인(正因)이며, 보살이 불국토를 정화하는 수인(修因)이기 때문에 정업이라고 한다.

191) 용상(龍象): 코끼리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을 용상이라 한다. 보살의 용맹한 능력을 비유하여 쓰이는 말로, 『유마경』 「부사의품」 등에서 볼 수 있다. (권2 大14 p.547a26. 譬如龍象蹴踏, 非驢所堪.) 나아가 가장 뛰어난 선정의 힘을 비유하여 쓰이게 되어, 그런 능력을 가진 고승을 부르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192) 균여(均如)대사: 923~973. 고려 초기의 화엄사상가. 나말 이래의 사상적으로 분열된 화엄교단의 내부적 과제와 교 선간의 갈등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러한 과제에 대응하는 사상체계를 정립하였다. 균여는 화엄의 초기 종장들인 지엄과 의상 법장의 주요 전적에 대해 10종 65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술을 이루어 신라 화엄에 대한 주석서인 『법계도원통기(法界圖圓通記)』와 『십구장원통기(十句章圓通記)』, 그리고 중국 화엄의 대성자인 법장의 저술에 대한 주석서들인 『교분기원통초(教分記圓通鈔)』, 『지귀장원통초(旨歸章圓通鈔)』, 『삼보장원통기(三寶章圓通記)』 등을 남겼다. 균여는 이들 저술에서 지엄과 의상 법장의 견해를 인용

고 연주자와 거문고가 다 없어졌습니다.¹⁹³⁾ 큰 이치는 그로부터 점점 쇠퇴하고 미묘한 말은 거의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은 조정에 들어가 나라 일에 종사함에 이르고, 우리 스승께서 세상에 계시면서 중생들을 이롭게 하심을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감히 지금 천리의 돌아가는 몸에 부탁하여, 한 장의 예의 갖춘 편지를 올리니, 드높고 통달하기를 기약함에 마음은 미처 여가가 없었습니다.

작년 8월 15일에 도강(都綱) 이원적(李元積)이 와서, 2월에 주신 편지 한 통과 손수 지으신 『화엄보현행원참의(花嚴普賢行願懺儀)』와 『대방광원각경참의(大方廣圓覺懺儀)』·『대불정수능엄참의(大佛頂首楞嚴懺儀)』·『원인론발미록(原人論發微錄)』·『망진환원관소초보해(妄盡還源觀疏鈔補解)』·『우란분예찬문(盂蘭盆禮贊文)』·『교의분제장과문(教義分齊章科文)』 등 여덟 책을¹⁹⁴⁾ 함께 넣은 상자를 받들어 무릎꿇고 받아가지고 돌아와 쉬지 않고 펼쳐 보았습니다.

그 편지에, “뜻은 형상 밖에서 얻는 것이니 뜻은 내 마음과 같은데¹⁹⁵⁾ 어

하며 자신의 입론 기초로 삼아 독자적 사상을 정립하였다. 균여의 화엄사상은 신라 화엄의 전통을 의상의 화엄사상에서 확인하면서 그에 부가하여 중국 법장의 화엄사상을 아우르는 것이었다. 균여는 화엄일승절대론의 교판론을 제시하여 『화엄경』과 화엄사상의 정당성과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신라 하대 이후 크게 위축된 화엄종의 위상 확립을 의도하였다. 또 향가 보현십원가(普賢十願歌) 11수를 지어 『화엄경』 보현행원(普賢行願)의 실천을 대중에게 전파하고자 하였다.

193) 사람이 죽어 거문고 타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말, 화엄 교학을 일으킨 고승들이 입적하여 없고, 그 법도 전해지지 않음을 비유한 말.

194) 여기 거명한 것은 7종이다.

195) 종밀,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약소(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略疏)』 권하2 大39 p.577c14~15. 不面而傳得旨繫表, 意猶吾心未知有也.

종밀, 『원각경대소석의초(圓覺經大疏釋義鈔)』 권1 卍9 p.479c22~24. 不面而傳得旨繫表〈意云得大教深旨, 出於繫象之外〉意猶吾心〈猶者似, 汝見解不異吾也〉未之有也〈卽此是明超古之詞〉.

찌 선정과 지혜만을 좋다 하였는가?”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보고는 그 장식이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걱정되었습니다. 또, “왕가에 태어나 부처와 조사를 보좌하게¹⁹⁶⁾ 되었으니, 이는 진실로 과거에 심은 천품(天品)과 큰 절개 이기에 이런 위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것인가?”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보고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또, “46책은 다 경전을 보는 무리들로 하여금 아침에 읽고 저녁에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보고는 맺은 인연의 넓음을 기뻐하였습니다. 또, “『수경(手鏡)』¹⁹⁷⁾ 백 권이 불에 탔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보고는 정성됨이 고르지 못한 것을 한탄하였습니다. 또, “바람을 타고 와서 입으로 가르치고 마음으로 전하면, 바늘과 겨자씨가 비록 멀지만 높고 낮음이 서로 맞음을 기뻐할 것이며, 피리와 경쇠의 소리가 같아서 궁(宮)과 상(商)의 소리가 어울려 간절히 조화를 이루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보고는 주고받음이 서로 맞기를 바랐습니다.

더구나 하나의 찬을 지으니 훌륭한 자취가 밝게 드러나 두루 찾는 수고를 덜어 주고, 여덟 책을 남기니 아름다운 말이 높이 뛰어나 왕성하게 유행되기를 바랐습니다. 다만 그 옛말을 해석하여 새 뜻을 밝히는 것은 영리한 사람이라면 글만 보고도 뜻을 알겠지만 둔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입으로 가르치고 마음으로 전해야 할 것입니다. 감히 백 개의 성을 다니면서 선지식에게 묻는다거나, 반구의 계승을 위해 몸을 버린다는 것은 바랄 수 없겠지만, 하물며 가르침을 받을 것을 아뢰고 아울러 힘써 제자가 되고자 하여, 여러 겹의 두터운 인연을 깨닫고 천 년의 기이한 만남의 감격이겠습니까? 비록 명령을 받고 달려가는 것은 예의로는 그러하다 하겠지만, 까닭이 있어서 더디

196) 우익(羽翼)은 새의 깃털과 날개로서, 남을 돕는 것, 보좌하는 것을 말함.

197) 징관이 『수문수경(隨文手鏡)』 100권을 지었다 하니(『불조역대통제(佛祖歷代通載)』 권14 大49 p.601b3), 이 『수문수경』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됨.

가서 감히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해, 마음에 오직 걱정스러워 백 가지 헤아림이 참으로 번거로울 뿐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고산(孤山)¹⁹⁸⁾ 법사의 『강당격몽집(講堂擊蒙集)』¹⁹⁹⁾에, “만일 그가 배우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장부의 뜻을 세웠더라도, 다만 친한 인연에 매이고 스승이나 부모에게 구애된다면, 반드시 간곡하고 교묘하게 그 본마음을 말하여 윤택함을 따르게 해야지 제 마음대로 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것을 모두 버리고 떠나면 은혜와 인정을 갑자기 끊는 것이 되어, 비록 법을 위한다 하나 의리를 해칠까 두렵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은혜를 끊을 수 없고 또 의리를 해칠 수 없어서, 우선 서쪽으로 유학 갈 계획을 보류하였더니 다만 중단하는 물음만 더하였습니다. 갈 때가 되면 빨리 갈 것이며, 인연이 모이면 홀연히 만나될 것입니다.

198) 고산지원(孤山智圓) : 976~1022. 천태종 산외파(山外派)에 속하는 승려. 자 무외(無外), 자호 중용자(中庸子) 또는 잠부(潛夫). 전당(錢唐) 출신으로 속성은 서(徐)씨. 부모의 명에 따라 출가하여 8세에 구족계를 받고 21세에 봉선사 원청(源淸)으로부터 천태삼관(天台三觀)의 요지를 전수받았다. 스승이 입적한 후 홀로 조용히 경론을 탐구하여 동문인 경소(慶昭)·오은(晤恩) 등과 함께 산외파(山外派) 학설을 세워 산가파를 대표하는 사명지례(四明知禮)와 논변을 전개하였다. 후에 항주 서호 고산(孤山)에 머물자 제자들이 많이 모여 고산지원으로 불렸다. 스스로 유학으로 몸을 닦고 불교로 마음을 다스린다고 할만큼 유·불·도 삼교에 통달하였다. 저서로는 『반야경』·『유교경(遺教經)』·『서응경(瑞應經)』·『부사의 법문경(不思議法門經)』·『무량의경(無量義經)』·『보현행법경(普賢行法經)』·『미타경』·『수능엄경』 등 10종에 대한 소가 있어 ‘십본소주(十本疏主)’라고 불렸다 하며, 『한거편(閑居編)』 60권을 비롯하여 모두 170여권의 많은 저술을 남겼다.

199) 지원, 『한거편(閑居編)』 12 「강당격몽집서(講堂擊蒙集序)」 卽56 p.883a15~24. 夫仲尼之旨, 布在六經, 世雄之法, 備乎三藏. 背叛六經者, 乃楊墨之黨, 蔑棄三藏者, 卽魔外之徒. 其人存則其道行, 其人亡則其道廢. 今既宗師接武講席相望諒世雄之道, 未墜地也, 重以王化所被, 人皆好學, 削染之子, 咸恥於不聽習焉. 猶病童蒙, 未善儀式, 遂於暇日, 聊述五篇, 始於建志擇師, 終於誠惡勸善. 前四則示接對語言之事, 令有可觀, 後一明學習流通之旨, 俾至於道, 從微至著, 得無意乎. 既題曰擊蒙, 豈免夫敘事之繁碎, 發言之鄙俚耶. 汝曹後學, 宜詳覽焉.

만일 부처님의 거룩한 위엄에 의지하고 법력의 위대함에 힘입는다면 바람으로 말미암아 길을 경계하고 자리를 묶고 바다를 건널 것입니다. 길은 주실(壽室)²⁰⁰⁾을 찾고 말은 높은 담장을 만들어, 옷깃을 바꾸고 정성을 돋우매 비로소 엄한 스승에 대한 예의를 표하며, 옷을 걷고 도를 물으매 진실로 잘 대우해 주심이 외람되웁니다. 해가 바뀔을 하례드리니 따뜻한 정이 몇 배나 더합니다. 금비(金碑)²⁰¹⁾로 눈을 열어주는 은혜를 지고, 옥진(玉塵)²⁰²⁾의 정성스런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문득 듣고 문득 생각하며 원만하게 닦고 원만하게 끊어, 한 마음의 심인(心印)을 전하매 심인마다 같고, 다함이 없는 등불을 나누매 등불마다 이어갈 것이니, 그윽한 관문을 열어 얼마 동안 쉬고, 지혜의 목숨을 늘이어 길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조그만 인연으로 (스승의) 큰 쓰임을 도와 일으키려 함에, 귀명의 지극함에 비루한 정을 맡기지 못하겠습니다.

上淨源法師書²⁰³⁾

某啓. 伏以聲教流通, 華夷景仰, 近者遠者, 皆草偃於眞風, 自西自東, 共葵傾於慧日. 恭惟本講闍梨, 爲如來之使, 誕天子之朝, 發論箋經, 應迹四依菩薩, 褒圓歎大, 奮庸一事因緣. 濫觴乎開拓宗乘, 覆簣乎追崇祖業. 或彫檀而核像, 或立祀以陳科,

200) 주실(壽室): 주지가 사는 방장. 우바국다(優波鞠多)존자가 사는 석실에 수학하는 이가 득도할 때마다 1자 4치의 산가지를 방에 던지도록 했는데, 나중에는 온 방에 가득 찬테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석씨계고략(釋氏稽古略)』 권1 大49 p.756c6~7. 『석씨요람(釋氏要覽)』 권3 大54 p.295b08~12.)

201) 금비(金碑): 금비(金篋)라고도 하며, 눈의 막을 걷어내는 의료 도구이다. 무명으로 가리워진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깨닫게 해주는 스승의 법력을 말한다.

202) 옥진(玉塵): 옥을 만든 먼지털이. 번뇌 곧 마음의 먼지를 없앴을 상징하는 법구(法具)의 한 가지.

203) 『대각국사문집』 권10 韓4 pp.543b2~544a14

讚略八章，振鴻休於不朽，禮勤五悔，勸淨業於無窮，足使遺風廢而復興，吾道消而更長，能事畢矣，其利溥哉。伏念某本以人微，加之地遠，未參龍象之高會，難聽雲雷之妙音。雖則義想權輿於真宗，均如斧藻於玄旨，舟壑已遠，人琴兩亡。大義繇是陵遲，微言幾於泯絕。迨鄉人入朝而還役，承吾師住世以利生。是敢托千里之歸軀，貢一封之禮牘，期於遠達，心所未遑。洎去年八月十五日，都綱李元積至，得捧二月書教一通，并手撰花嚴普賢行願懺儀大方廣圓覺懺儀大佛頂首楞嚴懺儀原人論發微錄還源觀疏鈔補解孟蘭盆禮贊文教義分齊章科文等八本，共盛一篋者，跪受以還，披閱無數。書曰，“得旨繫表，意猶吾心，豈獨美於定慧哉？”見此言已，慮其獎飾之過誤矣。曰，“托迹王門，羽佛翼祖，此誠善由宿植，天資大節，荷茲偉任歟？”見此言已，愧其非力之所堪矣。曰，“四十六冊，皆班橫經之徒，俾其朝而翫，夕而思。”見此言已，喜於締緣之廣矣。曰，“手鏡百軸，爲火所焚。”見此言已，嘆於誠素之未諧矣。曰，“因風而來，口授心傳，則針芥雖遠，悅高下之相投，笙磬同音，穆宮商而切響。”見此言已，企於授受之相契矣。伏況著一讚則勝躅章章，免勞博採，垂八本則嘉言卓卓，冀使盛行。只如闢其古辭，曉以新意，利可以臨文到旨，鈍心須口授心傳。敢不希問友於百城，效輕身於半偈，矧流告勒，兼勉爲資，覺累劫之厚緣，感千齡之奇遇？雖聞命奔赴，於禮則然，而有故淹回，不知其可，寸心惟慮，百計寔繁。謹按孤山法師講堂擊蒙集云，“厥若有好學心，立丈夫志，但以親緣所繫，師父所拘，必也曲巧，述其本懷，俾至從允²⁰⁴，不得專輒，捨之而去，頓絕恩情。雖云爲法，恐傷義也。”是用不敢以絕於恩，不敢以傷於義。乍寢西遊之計，但增中輟之咨，汲汲

於時行以行，忽忽於緣會以會。若也仗佛威之勝，賴法力之雄，因風而戒塗，挫席而越海。徑尋籌室，言造仞牆，則請枉翹誠，方展嚴師之禮，樞衣問道，式叨善待之私²⁰⁵⁾。奄賀星霜，倍勤溫清。荷金碑之見割，奉玉塵之款談。頓聞頓思，圓修圓斷，傳一心之印，印印皆同，分無盡之燈，燈燈相續，闡幽關於幾息，延慧命於可長。以此小緣，助興大用，卑情無任，歸命之至。

2) 송나라 정원(淨源)법사께 올리는 글 1

의천은 다시 아뢰입니다.

이 가을에 서도강(徐都綱) 등이 배로 와서 거듭 편지를 전하여, 앞드려 살피건대 법체(法體) 안녕하시다니 기쁘고 위로됨이 적지 않습니다.

의천은 어리석고 무식한데도 다행히 학인들이 모여드는데, 잘못 강론하는 것은 비록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라 하겠으나, 바라는 것은 우리 화엄종을 타락시키지 않고 우리 스승님께서 전해주신 불법을 크게 넓히는 것입니다.

갖고 계신 『신주정원화엄경(新注貞元花嚴經)』²⁰⁶⁾은 제가 여러 해 동안

204) 판본에 의해 允으로 교감함.

205) 판본에 의해 私로 교감함.

206) 『신주정원화엄경(新注貞元花嚴經)』: 당 후기 정원(貞元) 연간에 번역한 『화엄경』 40권본에 대한 징관(澄觀)의 주석서. 정원 11년(795)부터 정원 14년(798)에 걸쳐 번역된 테서 생긴 이름이므로 원본의 ‘정(正)’이 아닌 ‘정(貞)’이 맞다. 『화엄경보현행원품소(華嚴經普賢行願品疏)』, 『정원신역화엄경소(貞元新譯華嚴經疏)』, 『정원소(貞元疏)』라고도 한다. 10권. 만속장경(卍續藏經) 제7책에 수록되어 있다. 40화엄의 강요를 서술하고 경전의 글을 해석한 것이다. 40화엄의 번역이 완성된 798년에 왕명으로 찬술되었다. 80화엄에 대한 징관의 주석서인 『화엄경소』 60권의 입법계품 부분과 큰 뜻은 같지만, 이 책의 특징은 마지막에 40

모시기를 바라던 것인데, 이제 다행히 보내주시니 감격과 기쁨이 뒤섞여 쌓입니다. 옆드려 스승님의 자비로운 뜻을 받들어 다시 자세히 교감하였는데, 이제 도리어 주상께서 그 책 끝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 주시며, 이내 정재(淨財)를 희사하시어 거룩한 일을 원만히 마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의하는 자리가 번거롭고 바빠 교감을 다 마치지 못하였으니, 훗날을 기다려 부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바라건대 본 강의를 지도해 주시고 또 가르쳐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엄 대경의 체재에 의해 『과문(科文)』²⁰⁷⁾ 6책과 또 『신주법화경(新注法華經)』·『금형초(金衡鈔)』²⁰⁸⁾ 등 여러 경전의 문자를 간행하였는데, 만일 깨끗한 본으로 필사를 마쳐서 빨리 전해 드릴 수 있다면 평소의 소원을 이룰 것입니다.

보내주신 『혜인원교장기(慧因院敎藏記)』²⁰⁹⁾와 『능엄대사탑기(楞嚴大師塔記)』²¹⁰⁾와 『현수종총목도(賢首宗總目圖)』 등 여러 본의 책은 가르쳐 주신

화엄에만 있는 보현보살십대원문(普賢菩薩十大願文)을 상세하게 주석하여 수행의 핵심으로 제시한 것이다. 또한 미타정토인 극락세계가 화엄의 연화장세계와 따로 있지 않다는 해석이 있다. 정관의 40화엄 주석서로는 『별행소(別行疏)』라고 부르는 『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별행소(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別行疏)』 1권도 있다.

207) 이 『과문』은 종밀의 『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별행소초(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別行疏鈔)』 6권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08) 『금형초(金衡鈔)』: 『능엄금형초(楞嚴金衡鈔)』 6권. 송대의 화엄종 승려 무림(武林)법사 중희(仲希) 지음. (『원각소초수문요해(圓覺疏鈔隨文要解)』 권1 卮10 p.14c23~24. 晉水曾師之製楞嚴金衡鈔六卷 心經顯正記一卷刊略.)

209) 『혜인원교장기(慧因院敎藏記)』: 송 향주의 혜인원에 의천이 재원을 시주하여 경전을 간행하여 보관한 사실을 기록한 글. 『대각국사외집(大覺國師外集)』에 내용이 실려 남아 있다.

210) 『능엄대사탑기(楞嚴大師塔記)』: 송의 화엄 고승인 장수자선(長水子璿, 965~1038)의 비문. 『대각국사외집(大覺國師外集)』에 내용이 실려 남아 있다.

대로 공손히 받았습니다. 주상과 여러 친왕(親王)²¹¹⁾들께도 각각 한 본 씌드리니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더구나 『혜인원교장기』와 『능엄대사탑기』 등은 모두 우리 화엄종의 본말을 서술하고 종풍을 드날렸으니, 우리 스승님의 덕은 고금에 으뜸이요 학문은 미묘하고 심오함을 다했다 하더라도 지나친 찬사가 아닙니다. 더하여 저같은 자도 한 이름을 세우게 된 것은 진실로 큰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또 인종(仁宗)황제의 「삼보찬(三寶讚)」은 이미 주상께 올렸고, 또 그 한 벌은 모사하여 가까운 때에 비석을 세우려 하오니, 다행히 자비로써 잘 되기를 바랍니다.

上大宋淨源法師書²¹²⁾

某再啓 今秋 徐都綱等 船來, 再辱手教, 伏審法體安樂, 喜慰不小. 某愚蒙末識, 幸以學人駢集, 謬升講科, 雖謂僭飾, 所冀不墜吾宗, 恢弘我師傳授之業也. 所有新注貞²¹³⁾元花嚴經, 某佇望多年, 此者幸叨賜及, 感喜交積. 伏奉慈旨, 更令詳勘, 今却得國王, 於卷後簽銜, 仍捨淨財, 周圓勝事. 然某講席煩迫, 校勘未盡, 俟後次附去. 更望本講磨琢, 仍乞指諭. 今依大經體樣, 開板其科文六冊, 兼新注法華經, 金衡鈔等諸部文字, 若淨本寫罷, 早得傳授, 以滿素願也. 所賜慧因教藏記, 楞嚴大師塔記, 賢首宗摠目圖等諸本文字, 一依來教祇受訖. 國君及諸親王處, 並各奉一本, 甚爲忻戴. 況其慧因教藏記, 楞嚴大師塔記, 具敘吾道本末, 現揚宗風, 我師德冠古今, 學窮微奧, 斯亦

211) 친왕(親王): 황제나 국왕의 형제나 왕자 등 아주 가까운 왕족 중에서 왕에 봉한 사람.

212) 『대각국사문집』 권11 韓4 p.545a14~b13

213) 판본에도 ‘正’자가 분명하나, 정원본의 내용으로 보아 ‘貞’자가 맞다.

未爲過稱矣. 加某者, 得立一名, 誠爲大幸. 更有仁宗三²¹⁴⁾寶讚, 已呈上國王, 却摹一本, 將近立石, 幸望慈悉.

3) 송나라 정원법사께 올리는 글 2

의천은 다시 문안드립니다.

작년에 『화엄과초략(花嚴科鈔略)』을 간행하신다는 말을 듣고 은 2백냥을 올려 드린 것은, 내세(來世)를 맞을 때마다 몸을 버리거나 몸을 받거나 항상 스승님과 친근하여, 비로자나불의 연화장세계에 함께 하여 한량없는 미묘한 법을 듣는, 이 소원을 위함입니다. 지난 번에 이원적(李元積)이 왔다 갔는데, 너무 갑작스러워 서장(書狀)을 받들어 소원을 말씀드리지 못하여, 지극히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

요드려 생각건대 보내주신 편지에 가르쳐 주심은 보잘것없는 이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큰 인연에 들도록 허락하시니, 이는 모두 본강(本講) 화상(和尚)님의 두터운 사랑을 만난 덕분으로, 그 은덕에 감사함은 붓이나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또 여러 스님들이 지은 글로 『법화경』에 대한 주석을 내고자 하신다 하니, 멀리 있는 이 마음만 홀로 흠족할 뿐 아니라, 또 여러 사람의 소원에도 맞을 것입니다.

먼저 부쳐 드린 현일(玄一)²¹⁵⁾ · 대현(大賢)²¹⁶⁾ 두 스님의 출판한 저술 2부

214) 판본에 ‘一’자 획만 남아 있으나 다른 ‘一’자 글자와 비교해 보면 위치가 달라 ‘三’자의 획이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내용으로 보아도 ‘三’이 타당하다.

215) 현일(玄一): 신라의 교학승. 『신편제종교장총록』 등의 여러 목록에서 『무량수경기』 2권, 『관무량수경기』 1권, 『법화경소』 8권, 『아미타경소』 1권, 『열반경요간』 2권, 『범망경소』 3권, 『유가론소』 17권, 『중변론요간』 1권, 『유식추요사기』 1권 등의 많은 저술을 찾을 수 있다. 이중에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무량수경기』 상권

와, 또 길장(吉藏)²¹⁷⁾·원효·경흥(憬興)²¹⁸⁾·신웅(神雄) 및 예(叡) 법사 등

뿐이다. 이 책에서는 원효와 규기 그리고 범위 등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어 이들과 정토사상의 비교 검토가 이루어졌다.

- 216) 대현(大賢) : 신라 불교 교학의 융성기인 8세기 중반에 남산의 용장사(茸長寺)를 기반으로 활동하였는데 특히 미륵신앙에 돈독한 모습을 보였다. 명확한 연대 자료로는 753년(경덕왕 12년)에 궁궐에 들어가 심한 가뭄에 기우제를 지내 우물 물을 치솟게 하는 효험을 보았다는 것 뿐이다. (『三國遺事』 권4 義解 賢瑜伽海華嚴) 이 기록에서 대현을 유가조(瑜伽祖)로 평가한 데서 보듯이 대현은 신라 유식교학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유식사상가이다. 일체의 논과 중을 편력하였다고 기록될만큼 불교학의 전 분야를 두루 수학하였다. 원효 경흥과 더불어 신라 3대 저술가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그는 모두 50여 부의 저술을 남겼는데 고적기(古迹記)라는 이름을 붙인 저술이 많다. 화엄·법화·열반·반야·여래장·중관·계율·정토 등 제방면에 두루 관심을 가졌는데, 특히 유식 관계 저술이 20종으로 가장 많다. 대현은 원측(圓測)의 유식학을 계승한 도증(道證)의 제자로서 유식은 원측·도증을 따르고 화엄은 법장과 원효를 계승하여 유식과 중관에 대해 각기 그 진리성을 인정하는 공정한 입장에서 학설을 비판하고 계승하여 종합하였다고 평가된다. 저서로는 55종이 꼽히지만 현재 남아 있는 것은 5종으로서 이 『성유식론학기』 10권 외에 『약사본원경고적기(藥師本願經古迹記)』 2권, 『범망경고적기(梵網經古迹記)』 3권, 『범망경보살계본종요(梵網經菩薩戒本宗要)』 1권, 『기신론내의약탐기(起信論內義略探記)』 1권이 있다.

- 217) 길장(吉藏) : 549~623. 수의 승려. 조상이 안식인(安息人) 계통인데 금릉에 와서 살았으므로 안길장, 호장 등으로도 부른다. 3,4세 때 부친을 따라 진제(眞諦)를 만났더니 길장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부친이 출가하자 따라가서 법랑(法朗)의 삼론 강의를 듣고 출가하였다. 법랑 문하에서 삼론을 배우고 19세부터 강의하기 시작하였다. 581년 법랑이 입적하자 회계의 가상사(嘉祥寺)에 가서 강의와 저술에 전념하여 배우는 이가 매우 많았다. 그 때문에 가상대사라고 부른다. 606년에 수 양제가 4도량을 두도록 하자 길장은 양주의 혜일도량(慧日道場)에 있게 되었고, 여기서 『삼론현의』를 완성하였다. 후에 장안 일엄사(日嚴寺)에 가서 이름을 떨쳤다. 『법화경』 2천부를 서사하고 25존상을 만들어 예참하며 보현보살상과 대좌하여 실상관을 닦기도 하였다. 당 618년에 10대덕을 선발할 때 그 안에 들었으며 말년에는 연흥사(延興寺)에서 지냈다. 저술이 매우 많아 『중관론소』·『십이문론소』·『백론소』·『삼론현의』·『대승현론』·『법화현론』 등이 있고 그밖에 법화·열반·승만·유마 등 여러 경전의 주석서를 지었다. 흔히 삼론의

의 주본(注本) 7권은 모두 필사한 것인데 연대가 오래 된 것입니다.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서로 배껴 전했으나, 그 중간에 문구가 틀린 것이 없지 않을 것이어서, 이미 스님들 중에서 나이 많은 이들에게 거듭 고감하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전에 구하신 선학들의 이름과 행적 등은 뒷날 계속해서 하나하나 부쳐드려 아름다운 명령에 따를까 합니다. 바다 건너 시골에 따로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법다운 뜻을 (전하심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上大宋淨源法師書 2²¹⁹⁾

某再咨。去年承知刊勒花嚴科鈔略，貢去銀二百兩，爲當當來世，捨信受身，常親近師，同於毗盧花藏，聽聞無量妙法，是所願也。昨值李元積行計，倉卒不及奉狀，并敘願意，極負慙

중흥조라 불리는 삼론의 대가이면서 남북조불교를 종합하는 대가 중의 한 사람이다.

- 218) 경흥(憬興): 성은 수(水)씨이며 웅천주(熊川州, 지금의 충남 공주) 출신이다. 18세에 출가하여 삼장에 통달하여 당대에 명망이 높았다. 681년에 문무왕이 돌아가기 전에 신문왕에게 국사로 추천하여 신문왕이 즉위한 후 국로(國老)로 삼아 삼랑사(三郎寺)에 살게 했다. 이는 삼국통일 후 옛 백제민에 대한 배려로 해석된다. 경흥이 오래도록 병을 앓자 십일면관음보살이 화현하여 재미있는 춤을 추자 이를 보고 웃고 나았다고 한다. 경흥은 또 궁궐에 드나들며 화려하게 장식한 말을 타고 다녔는데 문수보살이 화현한 거사가 승복을 입고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이 부당함을 깨우쳐주어 다시는 말을 타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설화들은 경흥이 신문왕대에 교단의 중심 인물로서 활동했으며 그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음을 알려준다. 경흥은 40여 종의 경론에 대한 주석서를 지었다고 알려져 있어, 원효와 대현과 함께 신라 3대 저술가로 꼽힌다. 『해심밀경소』와 『성유식기』 등 유식 관계 17종을 비롯하여 정토신앙 관계 저술과 『법화경』과 『열반경』, 『금강경』, 『아미타경』, 『관정경』, 『금광명경』 및 『사분율』 등 방대한 규모에 이르는 경론 주석서를 지었다. 이중에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이 『삼미륵경소』 1권과 『금광명최승왕경약찬(金光明最勝王經略贊)』 5권, 『무량수경연의술문찬(無量壽經連義述文贊)』 3권이다.

- 219) 『대각국사문집』 권11 韓4 p.545b14~c6

悚. 伏蒙來書垂示, 不棄輕鄙, 許入大緣, 此皆本講閣梨見愛之厚, 感荷恩德, 非筆舌所能具也. 兼承欲以諸德撰述之文, 箋于法華經, 非獨愜於遠懷, 抑亦符於衆願耳. 今先附上玄一·大賢二師印本冊兩部, 其有吉藏·元曉·憬興·神雄并叡法師注本七卷, 並皆書寫者, 寢經年紀. 好事者更相傳扎, 其閒文句不無訛舛, 已令僧中耆老, 重加校勘. 并前年所索先達名目蹤迹等, 續後一一封上, 用副嘉命. 海鄉恐別有所須, 希不惜法旨.

4) 송나라 정원법사께 올리는 글 3

지난 해에 행자(行者) 안현(顔顯)이 와서, 일찍이 주신 편지 전해 받고 새겨 지니고자 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옵니다.

그때 들으니, 목사(牧使) 소식(蘇軾)²²⁰⁾이 상선의 왕래를 금하고, 편지

220) 소식(蘇軾) : 1036~1101. 북송의 문인이자 정치가. 자는 자침(子瞻), 자호는 동파(東坡).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 시와 서화에 뛰어난 일세의 명인이다. 시문은 기세가 웅혼하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과장된 기법을 잘 써서 후세에 널리 사랑받았다. 불교에도 조예가 깊어 선정겸수(禪淨兼修)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큰 집을 짓고 4보살상을 봉안하고 『법화경』을 서사하기도 하였다. 당시 송과 요 그리고 고려의 국제관계의 갈등 속에서 송 전적의 해외 유통을 금지하는 주장을 펴기도 하였다. 1080년에 강주(江州) 동림선원(東林禪院)의 상총(常總)선사와 대담하는 중에 깨달음을 얻어 그때 읊은 “시냇물 소리는 곧 부처님의 설법이니, 산 빛은 어찌 청정법신이 아니겠는가? 지난 밤의 팔만 사천 계를 다른 날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이겠나.”(溪聲便是廣長舌, 山色豈非清淨身. 夜來八萬四千偈, 他日如何舉似人.)라는 계송은 사람들에게 널리 애송되고 있다. 『동파전집(東坡全集)』 115권 외에 여러 저서가 있다.

를 지니고 왕래하는 사람은 모두 법을 어긴 죄를 받는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감히 답장을 드리지 못한 것이지 게으름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아울러 보내주신 『육제(六題)』 한 책은 펼쳐본 이래로 잠시도 손에서 놓지 않으니, 참으로 감사히 여깁니다.

문의드린 화엄종 7조(祖)²²¹⁾의 일은 높으신 의견을 갖추어 알고자 함이지 오로지 묻기를 좋아한 것이 아닌데, 더욱 겸손하고 겸허함을 보이시니 저 같은 끝자리의 배우는 이가 어찌 가벼이 의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 쪽에서도 본강(本講)에 의해 세운 것이니, 훗날 제 소견을 간단히 밝혀드릴까 하나 법좌(法座)를 더럽힐까 염려됩니다. 보내 주신 『화엄기(花嚴記)』 3권은 현수대사의 저술이 아닌 것 같고, 아마도 일을 좋아하는 자가 그 이름에 거짓으로 붙인 것 같습니다. 청컨대 자세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上大宋淨源法師書 3²²²⁾

往年，行者顏顯到來，曾辱手教，不勝銘佩。是時，聞蘇牧斷截商船，持書往復者，俱罹非法之誅，是以未敢裁答，非怠故也。兼蒙寵貺六題一冊，披閱已來，暫不釋手，珍感珍感。所議及本宗七祖之事，備審高意，非獨好問，益見謙沖，如末學者，烏可

221) 화엄종 7조(祖): 화엄종에서 조사를 헤아리는 것은 몇 가지가 있다. 종밀은 두순·지엄·법장의 3조를 들었다. 일반적으로는 5조를 꼽는데, 두순(杜順)·지엄(智嚴)·법장(法藏)·징관(澄觀)·종밀(宗密)의 중국 화엄종 5조이다. 『불조통기』 등 여기에 송의 정원은 인도의 마명(馬鳴)·용수(龍樹)를 앞에 붙여 7조설을 이루었다. 여기서 든 7조는 이를 말한다. 의천은 홍원사(洪圓寺)를 새로 개창하고 구조당(九祖堂)을 만들어 마명·용수·천진·불타(佛陀)·광통(光統)·제심(帝心, 杜順)·운화(雲華, 智嚴)·현수(賢首, 法藏)·청량(淸涼, 澄觀)의 9조설을 새로 제창하였다.

222) 『대각국사문집』 권11 韓4 p.545c8~18

輕論哉? 然此方且依本講所立, 後當略叙管見, 上瀆座右. 送下
花嚴記三卷, 似非賢首所述, 切恐好事者, 假託名字. 伏請悉察.

5) 송나라 선충(善聰)법사께 드리는 글 1

의천은 아뢰입니다.

늦가을이 벌써 쌀쌀해졌는데 오히려 생각건대 강주 대법사님의 존후(尊候)는 만복하십니까? 의천은 지난번에 멀리 서울에서 놀다가 고소(姑蘇)²²³⁾로 돌아와서, 변방의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갑자기 원종(圓宗)의 대사를 만날 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다행히 찾아 뵙고 교관(敎觀)의 교화를 입게 되었는데 돌보심이 너무 과분하여 외로운 나그네의 자취를 두루 위로하셨습니다. 받은 은혜는 더욱 많고 입은 덕은 실로 깊습니다.

고국에 돌아오게 됨에 멀리 편지²²⁴⁾를 보내주시니,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부질없이 어리석은 생각만 괴롭힙니다. 오히려 바라건대 주무시고 일어나시는 것을 잘 보전하시어, 축원하고 독송하는 것을 맞게 하십시오. 쌀쌀한 바람이 한창인데 가서 뵈을 길이 아득합니다. 사모하고 그리는 정성 이야 다 말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與大宋善聰法師狀 1²²⁵⁾

右某啓. 季秋已冷, 伏惟講主大法師, 尊候萬福? 某向者, 遠遊京輦, 旋屆姑蘇. 豈圖邊壤²²⁶⁾之孱姿, 忽際圓宗之大士? 參

223) 고소(姑蘇): 지금의 소주(蘇州)인 강소성 오현(吳縣). 한산(寒山)과 습득(拾得)의 일화로 유명한 한산사(寒山寺)가 있다.

224) 인홍(鱗鴻)은 편지를 말함.

225) 『대각국사문집』 권11 韓大 pp.545c19~546a6

承有幸，獲淦教觀之風，顧眄踰涯，頗慰羈孤之迹。受恩愈甚，荷德彌深。洎回祖禰之邦，阻附鱗鴻之信，每思言論，徒役夢魂。伏冀雅保寢興，式符祝詠。涼颺正屬，禮覲尚遙。慕戀之誠，部宣罔究。

6) 송나라 선충법사께 드리는 글 2

의천이 엮드려 생각하오니, 존안(尊顔)을 한번 떠나온 뒤로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부질없이 다시 만날 마음만 걸어두고 거듭 편지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엮드려 생각건대 강주 대법사께서는 듣고 생각하심이 오묘한 경지에 들었고 이해와 실천은 보통보다 뛰어나셔서, 오교의 요지를 얻으시고 사부대중이 마음을 기울여 사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번에 인연이 있어 도를 묻고 다행히 그 풍도를 받들게 되었으니, 감격한 이 마음은 아침 저녁를 가리지 않습니다. 부디 이 심히 추운 계절에 조심하시고 크게 정양하는 방안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與大宋善聰法師狀²²⁷⁾

右某伏念，一違風采，三易歲華。空懸再會之心，復曠重封之信。伏惟講主大法師，聞思入妙，解行軼輪，得五教之指歸，致四衆之傾慕。向緣問道，幸遂承風，感激之私，晨昏無斁。適戒沍寒之候，希臻浩養之方。

226) 판본에 의해 壤으로 교감함.

227) 『대각국사문집』 권11 韓4 p.546a7~13

7) 송나라 선종법사께 드리는 글 3

의전은 다시 아뢰입니다.

저는 고국에 돌아온 뒤로 다만 의연함이 쌓일 뿐입니다. 학인들을 모아놓고 거친 강의로 가르치느라 아침저녁으로 여가가 없어 문안드리기를 빠뜨렸습니다.

지난해에 쉽게 전해 드린 신소(新疏) 10권²²⁸⁾은 다행히 받으셨다 하오니, 저의 정성에 응해 주셔서 못내 기뻐하는 바입니다. 지금 다시 부치는 『화엄윤관(花嚴綸貫)』²²⁹⁾ 15권 14책과, 『기신론연오초(起信論演奧鈔)』²³⁰⁾ 10권과 그 『과문(科文)』 1권, 『중교용수석론(重校龍樹釋論)』 10권, 『삼보장(三寶章)』²³¹⁾ 10권, 『지귀장(指歸章)』²³²⁾ 10권 등이 도착되면 가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228) 징관의 『정원신역화엄경소』 10권을 말함.

229) 『화엄윤관(花嚴綸貫)』: 송 복암(復菴) 지음. 『복암화상화엄윤관(復菴和尚華嚴綸貫)』이라고도 한다. 80권 『화엄경』 39품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한 것이다. 송대 선종과 화엄종 연구의 중요한 저술이다. 경의 품수, 징관의 삼분설, 체호의 의미와 회와 품에서 설한 바 등을 말하고, 사분(四分), 오주인과(五周因果), 십현육상(十玄六相), 4법계, 선재동자와 선종의 교지 등으로 구성되었다.

230) 의전의 『신편제종교장총록』 권3(大55 p.1175a16)에 ‘演奧鈔 十卷 科二卷’이 송 연후(延後)의 저술로 수록되어 있다.

231) 『삼보장(三寶章)』: 지엄의 『공목장(孔目章)』에 근거하여 법장이 해석한 명법품(明法品) 중의 삼보례(三寶禮). 고려 균여는 이에 대해 『화엄경삼보장원통기(華嚴經三寶章圓通記)』를 썼다.

232) 『지귀장(指歸章)』: 법장이 『화엄경』의 중요를 밝힌 책. ①경을 설한 곳[說經處], ②경을 설한 때[說經時], ③경을 설한 부처[說經佛], ④경을 설한 대중[說經衆], ⑤경을 설한 뜻[說經義], ⑥경의 가르침의 구분[辨經敎], ⑦경의 뜻을 드러냄[顯經義], ⑧경의 뜻을 풀이함[釋經義], ⑨경의 이익을 밝힘[明經益], ⑩경의 원만함을 보임[示經圓]으로 이루어졌다. 고려 균여가 이에 대해 『화엄경지귀장원통기(華嚴經指歸章圓通記)』를 썼다.

니다. 엎드려 받은 주신 편지에, “새로 지은 의문(義文)이 있다”고 하셨는데, 혹 잘 이끌어주실 마음이 있으시면 빨리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만 번이나 만 번이나 축복드립니다.

與大宋善聰法師狀 3²³³⁾

某再啓. 某自還鄉國, 但積依然. 會集學徒, 粗敷講演, 朝夕無暇, 有曠馳問. 去年容易貢上新疏十卷, 幸蒙允納, 以副勤誠, 不勝忻抃. 今再附去花嚴綸貫十五卷十四冊, 起信論演奧鈔十卷, 科一卷, 重校龍樹釋論十卷, 三寶章十卷, 指歸章十卷等, 到希采閱. 伏承來翰, 云“有新出義門,” 儻存善誘之情, 早望示及也. 萬祝萬祝.

8) 송나라 정인(淨因)법사께 드리는 글

의천은 아웁니다.

한 번 헤어진 뒤로 몇 해나 지났는지, 사모하는 정성은 아침이나 저녁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얼마전 객선(客船)이 오는 편에 특별히 향기로운 편지를 주시니, 기억하고 계신 그 인정에 진실로 못내 감격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쳐주신 『대부사의론(大不思議論)』²³⁴⁾ 20권을 받으니, 비록 이 못난 사람이 바라던 바는 점

233) 『대각국사문집』 권11 韓4 p.546a14~23

234) 『대부사의론(大不思議論)』: 용수가 용궁에 들어가 가지고 나온 『화엄경』 중에서 하본을 가지고 이 『대부사의론』을 만들었다고 한다.(『探玄記』 권1 大35 p.122b25~27) 또 이에 대해 10만송의 해석을 썼는데 『십주비바사론』이 그 일부라고 한다.

차 본심에서 이루어졌지만, 대사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마음 쏘에 심히 번거로우셨습니다. 다시 남은 책도 간절히 부탁하건대 잊지 마시고 내년 봄의 배편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는 다 이 가슴 속에 있는데, 수륙길이 천리가 거듭되어 나아가 사례하지 못합니다. 뵈오려 가기가 멀다 하오니 부디 잘 정양하시기 바랍니다. 삼가 이편으로 우선 답합니다. 엿드려 생각하건대 맑게 살피소서.

與大宋淨因法師書²³⁵⁾

某啓. 一從睽別, 幾涉星霜, 慕戀之誠, 朝昏罔替. 近者客帆至止, 特辱芳緘, 存記之情, 良多感佩. 兼蒙附至大不思議論二十卷, 雖拙人所欲, 漸遂於本心, 而大士相成, 極煩於注意. 更有餘卷, 切託不忘, 來春便舟, 併希垂示. 其於恩惠, 盡在肺懷, 水陸千重, 莫由致謝. 趨會云遠, 善養爲宜. 謹當便次, 聊此通答. 伏惟炤察.

9) 송나라 원소(元炤)율사께 답하는 글

주신 글 잘 받았습니다.

또 보내주신 자민(慈愍)²³⁶⁾삼장의 『정토집(淨土集)』 1책과 새로 교정한

235) 『대각국사문집』 권11 韓4 p.546b1~10

236) 자민(慈愍): 혜일(慧日, 680~748). 당의 정토종 승려. 어려서 인도에서 돌아온 의정(義淨)을 보고 깊은 영향을 받아 인도에 가고자 서원하여 702년에 배를 타고 3년만에 인도에 이르렀다. 13년 동안 성적을 순례하고 경전을 구해 돌아오는 길에 간다라국에서 관음상을 보고 단식 기도하여 7일만에 관음의 현신을 감응하였다. 모두 70여국을 돌아보고 18년만인 719년에 장안에 돌아왔다. 가져온 불상과 경전을 현종에게 올리니 ‘자민삼장’이라는 호를 내렸다. 염불법문을 부지

『비구니계본(比丘尼戒本)』 등은 이미 인경소(印經所)에 다시 새겨 널리 배포하게 하였습니다. 그 『정토집』은 지금까지 유행하지 않았던 것인데, 얼마 전에 바다로 온 어떤 이가 『선종해방서(禪宗解謗書)』 1권을 가져와서 비로소 혜일(慧日)의 『정토집』이 있는 줄 알게 되었고, 그 책을 구하려던 차에 갑자기 얻어 보게 되었으니 진실로 법왕(法王)의 큰 보배가 저절로 왔다 하겠습니까. 다만 유감인 것은 겨우 구슬 반쪽만 얻고 완전한 보배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또 훌륭한 저술인 대부율승(大部律乘)과 정토문자(淨土文字)는 간절히 바라건대 부쳐 보내주시면 다행이겠습니까. 그리고 『자지기(資持記)』는 이미 간행했습니다.

요즘 또 새로 간행한 『수원왕생집(隨願往生集)』²³⁷⁾ 1부 20권과 『대무량수경』·『소아미타경』·『십륙관경』·『칭찬정토경』 등의 10여 스님의 신구 장소(章疏)도 계속해 부쳐드리겠습니다.

『능가경』의 세 가지 번역본²³⁸⁾ 가운데 4권본에 대해서는 수나라의 담천

런히 닦고 정토의 교의를 드높여, 『왕생정토집(往生淨土集)』과 『반주삼매찬(般舟三昧讚)』 등을 저술하였다. 혜일의 정토사상에는 독자적인 면모가 있어, 혜원(慧遠)과 선도(善導)의 계열과 나란히 자민류(慈愍流)라는 계통을 이룬다.

237) 『수원왕생집(隨願往生集)』: 비탁(非濁, ? ~1063)이 지은 책. 비탁은 요(遼)의 승려로 반산(盤山)에서 백산개법(白傘蓋法)을 수행하여 좌선 송경하면 산신이 공경 시립하여 병을 나았다고 한다. 1050년에 상경(上京)과 연경(燕京)의 승관을 맡았고 도종(道宗)이 즉위한후 더욱 우대하여 검교태부태위(檢校太傅太尉)직을 받았다. 자료를 모으고 빠진 것을 보완하여 『수원왕생집』 20권을 편찬하여 왕에게 올리자 대장경에 입장하도록 하였다.

238) 『능가경(楞伽經)』: ⑤ Lankāvatāra-sūtra. 본래 이름은 『능가아발다라보경(楞伽阿跋多羅寶經)』. 송 구나발다라가 443년에 한역. 능가는 산 이름이고, 아발다라는 들어간다는 뜻이다. 부처님께서 이 산에 들어가셔서 설한 보배로운 경이라는 의미이다. 세계 만유는 모두 마음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하는 경전으로 우리들의 인식작용의 대상이 외계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여래장사상과 유식 알라야식사상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인도 후기 대승경전의 하

(曇遷)선사의 소 6권과 당나라 이섭(利涉)법사의 소 5권과 또 유엄(有嚴)선사의 주 7권 등의 주석서가 있는데, 요사이 강사들은 흔히 이섭법사의 소를 쓰고 있습니다. 만일 10권본 『능가경』을 강의하려면 단지 우리나라 고덕(高德)이신 원효(元曉)대사의 소문을 써야 합니다. 신역 7권본은 장소를 볼 수 없습니다. 원효법사의 소 8권은 지금 먼저 부쳐드립니다. 그런데 원효공께서는 수나라 말엽에 태어나서 당나라 초기에 교화를 펴신 분으로, 여러 곳에 몸을 나타내시고 육방에서 열반을 보이셨으며, 경전마다 소를 지어 통하지 않는 논이 없으셨습니다. (떨어져 나감)

答大宋元炤律師書²³⁹⁾

承示. 及慈愍三藏淨土集一冊, 并新刪定尼戒本等, 已令印經所, 重彫流布也. 其淨土集, 自來未行, 而近有海客, 將到禪宗解謗書一卷, 始知慧日有淨土集, 方欲求本, 忽見流通, 誠所謂法王大寶, 自然而至也. 但恨纔獲半珠, 未窺全寶耳. 盛製大部律乘, 淨土文字, 切望寄示爲幸. 資持記, 已令開板也. 此間亦有新行隨願往生集一部二十卷, 又有大無量壽·小彌陀·十六觀·稱贊淨土等經 新舊章疏一十餘家, 續當附上. 楞伽經三譯章句, 其四卷本, 隋朝曇遷禪師有疏六卷, 大唐利涉法師有疏五卷, 又有嚴禪師注七卷等, 今時講者多依涉疏. 若講十卷本, 但用此方古德元曉法²⁴⁰⁾師疏文也. 新

나이다. 번뇌의 근원이 마음에 있음을 알아 의식의 본성을 투철하게 깨달으면 분별이 없는 세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다. 구나발다라의 4권본 한역 이외에 보리유지(菩提流支)가 513년에 한역한 10권 『입릉가경』, 실차난타가 번역한 7권 『대승입릉가경』 등이 있다. 4권본은 보리달마가 혜가에게 부족하였다 하여 선종에서 특히 중시되었다. 보리유지의 『입릉가경소』와 원효의 『능가경소』, 법장의 『입릉가심현의』 등의 주석서가 있다.

239) 『대각국사문집』 권11 韓4 p.546b17~c13

譯七卷，未見章疏。其曉疏八卷，今先寄上。然曉公降靈隋末，行化唐初，百處現形，六方告滅，有經皆疏，無論不通。昔
(…)

240) 판본에 의해 法 추가함.



疏文 소문

- 1) 동전을 주조하자는 소
- 2) 내시(內侍) 문관(文冠)에게 드리는 글
- 3) 송나라 천태(天臺)대사의 탑을 친히 참배하고 발원한 소
- 4) 일본국의 여러 법사에게 교장(敎藏)을 모아줄 것을
요청하여 보내는 소
- 5) 세자(世子)를 대신하여 교장(敎藏) 모으기를 발원하는 소
- 6) 우란분일(盂蘭盆日)에 연비(燃臂)하고 발원하는 소
- 7) 선종(宣宗)을 대신하여 여러 종파의 교장(敎藏)을
새겨 인쇄하는 소
- 8) 반야도량 소



1) 동전을 주조하자는 소²⁴¹⁾ [鑄錢疏]

(앞 부분 떨어져 나감) 주가 되는 한 물건이란 동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周)나라²⁴²⁾ 경왕(景王)²⁴³⁾ 때로부터 돈이 가벼운 것이 탈이라 하여 대전(大錢)을 주조하였으니 화폐를 고치기 시작한 것은 경왕 때 비롯되었습니다. 대부(大夫) 단기(單旗)가 간하여 “옳지 않습니다.”라고 하였으나 경왕이 듣지 않고 끝내 대전을 주조하였는데, 글자는 ‘보화유호(寶貨肉好)’라 하고 다 테두리가 있었습니다. 위요(韋曜)²⁴⁴⁾는 “유(肉)²⁴⁵⁾란 돈 모양이요,

241) 의천의 주전론(鑄錢論)은 매우 특이한 내용의 글이다. 국가경제의 시책으로서 화폐를 주조하여 유통시키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승려인 의천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은 불교 이외에 경세(經世)에 대한 공부를 했던 것 뿐만 아니라, 송에 다녀오면서 상인들과 접촉하고 교역활동을 이해하였으며 자신도 전적 구입을 위해 재화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화폐의 유용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데서 가능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의천의 주장은 숙종대의 정책 추진 경향에 부응하는 것이었으나 실제 정책은 의천이 제시한 민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2수4류의 동전보다 재정 수입의 확대에 유리한 은병(銀瓶)의 유통으로 다르게 추진되었다. 의천의 화폐 유통 주장은 분배 교환 문제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갖는 불교 경제사상의 흐름과도 연관되는 것이었다. (李炳熙, 2005 『大覺國師 義天의 鑄錢論』 『天台學研究』 4, 195~203쪽)

242) 주(周)나라: 중국의 왕조. 은(殷, 또는 商)나라를 이어 서기전 11세기부터 서기전 256년까지 존속했던 나라. 처음에 호경(鎬京, 지금의 섬서성 西安)에 도읍을 정했으나 서기전 771년에 건웅이 호경을 공격하여 유왕(幽王)이 피살되고 평왕(平王)이 동쪽 낙읍(洛邑, 지금의 하남성 洛陽)으로 천도하였다가 마지막에 진(秦)에 멸망당하였다. 서기전 771년을 중심으로 그 이전을 서주, 그 이후를 동주라 한다. 동주시대는 춘추시대와 전국시대에 해당한다.

243) 경왕(景王): 주나라 제24대 왕. 서기전 543~521년 재위.

244) 위요(韋曜): 위소(韋昭), 204~273. 삼국시대 오나라의 관인이자 학자. 명에 의해 『박학론(博奕論)』을 짓고, 회계왕이 즉위하자 태사령이 되어 『오서(吳書)』를 편찬하였다. 경제 때 중서랑 박사좌주가 되고 말제 때 시중이 되었다. 『논어』·『효경』·『국어』 등에 주석을 지었다.

호(好)²⁴⁶⁾란 돈 구멍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이것을 써서 농사를 권장하여 그 부족한 것을 보탬으므로 백성들이 이익을 얻었습니다. 초(楚)나라²⁴⁷⁾ 장왕(莊王)²⁴⁸⁾ 때에 이르러 화폐가 가볍다고 하여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바꾸었는데, 백성들이 불편하게 여겼고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시황(秦始皇)²⁴⁹⁾은 화폐를 모두 합쳐 둘로 나누었으니, 상폐(上幣)는 금이고 하폐(下幣)는 동전이었습니다.

한(漢)나라²⁵⁰⁾가 처음 일어나서 진나라 돈이 무거운 것이 탈이라 하여

245) 유(肉): 돈과 같이 가운데에 구멍이 있는 물건의 외변을 말함.

246) 호(好): 구슬이나 돈의 구멍을 말함.

247) 초(楚)나라: 주(周)나라 시대에 전국칠웅(戰國七雄)의 하나로 양자강 중류지역을 본거지로 하여 호북성(湖北省)을 중심으로 활약한 제후국(諸侯國). 주나라 성왕(成王)으로부터 초의 제후로 봉해져, 단양(丹陽)에 정착한 뒤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서기전 4세기 경 전국 여러 나라 가운데 영토가 가장 크고 인구도 가장 많았다. 그러나 진(秦)의 압박을 받아 서기전 278년 수도가 함락되고 서기전 223년 진에게 멸망당하였다.

248) 장왕(莊王): 춘추시대 초나라의 지배자. 서기전 614년부터 591년까지 집권. 춘추시대에 세력을 떨쳤던 춘추오패(春秋五霸)의 한 사람. 양자강 중류지역을 본거지로 삼았던 초나라는 서기전 7세기 중엽부터 활발한 북진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장왕 시대에는 융(戎)을 토벌하고 낙양 근처에서 위세를 떨쳤다.

249) 진시황(秦始皇): 중국 최초의 중앙 집권적 통일제국인 진(秦)나라를 건설한 전제군주. 강력한 부국 강병책을 추진하여 중국대륙의 군소 국가를 모두 통일했다. 중앙 집권 정책을 추진하여 법령을 정비하고 군현제를 실시하였으며 문자와 도량형을 통일하였다. 전국적인 도로망을 건설하고 사상의 통일을 위해 분서갱유(焚書坑儒)를 단행하였다. 대외적으로 흉노족을 격파하여 황하 이남의 땅을 확보하고 전국시대 각국의 장성을 크게 개축하여 요동에서 감숙성에 이르는 만리장성을 건설하였다. 가혹한 법치를 내세워 지나치게 급격히 추진된 통일정책은 인민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진시황이 순행 도중 사망하자 호해(胡亥)를 2세 황제로 옹립하였으나, 서기전 209년 이후 시작된 반란으로 급속히 와해되었다.

250) 한(漢)나라: 서기전 206년부터 서기 220년까지 존속했던 중국의 왕조. 전국시대

다시 풀잎같은 돈을 만들었으니, 그 무게는 수(銖)²⁵¹⁾의 반쯤이었습니다. 고황후(高皇后)²⁵²⁾ 2년에 그것이 너무 가벼워서 탈이라 하여 처음으로 8수짜리를 썼고, 6년에는 또 5푼짜리를 썼습니다. 문제(文帝)²⁵³⁾ 때에 와서는 다시 4수짜리를 만들고 위폐(僞幣)를 없애는 영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의(賈誼)²⁵⁴⁾는 사적인 주조가 천하에 횡행하면 그 화가 너무 크다 하여 드디어 간언하기를, “지금 이 큰 화를 없애면 일곱가지 복(七福)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일곱가지 복이란, 나라에서 구리를 거두어 백성에게 풀지 않으면 백성들이 돈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경죄(黥罪)²⁵⁵⁾가 쌓이지 않는 것이

를 통일한 진이 얼마 안 있어 패망하고 들어선 통일왕조이다. 고조 유방(劉邦)에 의해 건국된 이래 약 400년을 지속하였다. 중국 역사상 가장 강대했던 시기 중의 하나로서, 중국인이나 중국문화를 부를 때 사용하는 한(漢)의 표현이 여기에서 유래하였다. 서기 8년부터 23년까지 왕위를 찬탈하였던 왕망의 신(新)을 중심으로 그 이전을 전한(前漢), 그 이후를 후한(後漢)이라 한다.

251) 수(銖): 무게의 단위. 1냥(약 37.5그램)의 24분의 1의 무게.

252) 고황후(高皇后): 전한 고조 유방의 황후이며 혜제의 어머니인 여씨(高皇后 呂氏, ?~서기전 180)를 말한다. 남편인 고조의 사후, 황태후·태황태후가 되어 여후(呂后), 여태후(呂太后) 등으로 불린다. 권력을 멋대로 휘둘러 당의 측천무후, 청의 서태후와 나란히 불린다.

253) 문제(文帝): 전한의 5대 왕(재위 서기전 180~157). 묘호는 태종(太宗). 고조의 넷째 아들. 여씨(呂氏)의 난이 평정된 후 중신들의 옹립으로 즉위하였다. 고조의 군국제(郡國制)를 계승하고, 전조(田租)와 인두세(人頭稅)를 대폭 감면하여 민생안정과 국력배양에 힘을 기울였다. 문제가 죽고 그의 아들 경제가 즉위하여 선왕의 정책을 잘 이어 나가, 중국사에서 이 시기를 문경지치(文景之治)라고 부르며 풍요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불린다.

254) 가의(賈誼): 서기전 200~168. 전한 문제 때의 문인이자 학자. 진나라 때부터 내려온 율령·관제·예악 등의 제도를 개정하고, 관제를 정비하기 위한 많은 의견을 상주했다. 고관들의 시기로 좌천되자 자신의 불우한 운명을 굴원(屈原)에 비유해 「조굴원부(弔屈原賦)」를 지었다.

255) 경죄(黥罪): 얼굴에 죄명을 그려넣는 형벌.

첫째입니다. 가짜 돈이 늘지 않으면 백성들이 서로 의심하지 않는 것이 둘째입니다. 구리 캐는 일을 하지 않고 밭갈이로 돌아가는 것이 셋째입니다. 구리가 결국 나라로 돌아가 구리를 갖다 쌓는 죄의 경중을 다스림으로써 그 사물에 동화됨이 공평해지는 것이 넷째입니다. 병기를 만들어 대신들에게 빌려 주어, 어느 정도 제재하여 귀천을 구별하는데 쓰이는 것이 다섯째입니다. 모든 화폐에 대해 넘치고 비는 것을 조절함으로써 큰 이익을 거두면, 관청은 넉넉해지고 튼실해져 백성들의 빈곤함이 줄어드는 것이 여섯째입니다. 우리 재물을 낭비함을 절제하여 흉노(匈奴)²⁵⁶⁾에게 주어서 그들끼리 경쟁하게 하면 적들은 반드시 (중국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이 일곱째입니다.” 라고 하였으니 그야말로 공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제(武帝)²⁵⁷⁾ 때에 이르러 3수와 반양의 차이가 있어서 백성들이 많이 위조하였습니다. 또 적축(赤側)²⁵⁸⁾이 유행하여 한 푼이 다섯 푼과 맞먹었으니, 적축이란 붉은 구리로 테두리를 두른 것으로서 한나라 풍속으로 자감

256) 흉노(匈奴) : 서기전 3세기 말부터 서기 1세기 말까지 몽골고원과 만리장성 일대를 중심으로 활약한 유목 기마민족, 또는 그들이 형성한 몽골 북부와 중앙아시아 일대의 국가를 일컫는 말. 그 지배권은 동은 열하(熱河)에서부터 서는 동투르크스탄까지, 북은 예니세이강 상류에서부터 남은 오르도스까지 이르렀다. 흉노의 주요한 경제적 기지는 동투르크스탄에 있었고, 군수기지는 내몽골과 오르도스의 청동기를 기반으로 하였다.

257) 무제(武帝) : 전한의 7대 왕. 재위 서기전 156~87. 제후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중앙집권체제를 완성하였고,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펼쳐 영토를 크게 확장하여 한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유학자 동중서(董仲舒)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학을 관학(官學)으로 하고 태학(太學)을 설치하였으며 유교 경전인 오경(五經)의 박사(博士)를 두어 유학을 장려하였다. 원문에 ‘호제(虎帝)’라고 한 것은 고려 제2대 왕인 혜종(惠宗)의 이름이 무(武)라서 이를 피해서[왕의 이름을 피하는 것을 피휘(避諱)라 함] 뜻이 통하는 호자로 바꾸어 쓴 것.

258) 적축(赤側) : 한나라 때의 동전. 바깥 가장자리가 적동색이어서 그런 이름이 생겼다.

전(紫紕錢)이라 부르던 것이 이것입니다.

후한 초기에는 마원(馬援)²⁵⁹⁾이 5수전을 쓰자고 나라에 아뢰어 삼부(三府)²⁶⁰⁾가 그것을 막자, 마원은 조정에 들어가 호분중랑(虎賁中郎)²⁶¹⁾이 되어, 임금 앞에서 직접 열세 가지를 따지고 기록에 따라 해석하니, 광무제(光武帝)²⁶²⁾가 그 의견을 좇아 백성들이 그 이익을 입었습니다.

진(晉)나라²⁶³⁾의 안제(安帝)²⁶⁴⁾ 때에 환현(桓玄)²⁶⁵⁾이 정치를 도울 때 동전을 폐지하고 곡식과 비단을 쓰려 하자 공림(孔琳)이 반대하기를, “성왕께

259) 마원(馬援) : 서기전 14~서기 49. 후한(後漢)의 장군. 왕망(王莽)의 부름을 받고 한중랑태수(漢中郎太守)가 되었고, 광무제(光武帝)의 신하로서 태중대부(太中大夫)가 되었다. 농서태수로서 이민족을 토벌하였고, 후에 복파장군(伏波將軍)에 임명되어 교지(交趾, 북베트남) 지방의 반란의 평정하였다.

260) 삼부(三府) : 국가 최고의 행정 담당자인 삼공의 관부. 후한 때의 삼공은 태위(太尉)·사도(司徒)·사공(司空)이었다.

261) 호분중랑(虎賁中郎) : 진(秦)나라와 한(漢)나라 시대에 왕을 시위하고 왕궁과 궁문의 보위를 담당하는 경비 책임자. 낭중령(郎中令)에 예속되었고, 관위는 장군 다음이었다. 후한 말에 4 중랑장을 증설하였다.

262) 광무제(光武帝) : 후한의 초대 왕(재위 25~57). 왕망(王莽)의 군대를 격파하고 즉위하여 한 왕조를 재건한 후 36년에 전국을 평정하였다. 학문을 장려하고 유교를 존중하여 예교주의의 기초를 다졌다.

263) 진(晉)나라 : 서진(西晉, 265~317년)과 동진(東晉, 317~420년)으로 나뉜다. 서진은 사마염(司馬炎)이 위·오·촉의 삼국을 통일하여 이룩한 왕조이고, 동진은 서진이 전조(前趙)에게 패망하고 사마예가 강남지방으로 내려와 건업(建業)에 도읍한 왕조이다.

264) 안제(安帝) : 동진(東晉) 말기의 왕. 재위 395~418년.

265) 환현(桓玄) : 369~404. 동진의 대사마 환온(桓溫)의 아들. 군대를 일으켜 서월에 들어가 안제의 왕위를 찬탈하여 자립하였다. 동진의 성제(成帝) 때인 340년에 사문이 왕에게 예경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생겨났는데, 안제 때인 403년에 환현이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여 사문도 예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환현은 여산의 혜원에게 의견을 물었고, 혜원이 「사문불경왕자론(沙門不敬王者論)」을 지어 반박하자, 환현은 나중에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였다.

서 쓸데없는 화폐를 만들어 쓸데있는 재물로 유통되게 하였으니, 이미 그 대로 버리는 낭비가 없고 또 운반하기 어려운 괴로움을 덜었습니다. 이것은 동전이 거북과 조개²⁶⁶⁾의 공을 이은 것으로서 역대로 폐지하지 않았습니니다. 곡식과 포목은 보물로서 본래 입고 먹는 데 쓰이는 것인데, 그것을 나누어 화폐로 만들면 그 손실이 매우 많으며, 또 사고 파는 손에서 훼손되고, 자르고 끊어 사용하는 데서 소모되고 버리게 되니, 이것이 폐단이 뭘은 이전보다 현저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예를 들어 “위(魏)나라 명제(明帝)²⁶⁷⁾ 때 동전을 폐지하고 곡식을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자, 온 조정이 크게 의론하여, 재주가 뛰어나고 정치에 밝은 사람들이 모두 다시 돈을 쓰는 것이 옳다고 하자, 백성들은 다른 생각이 없고 조정에서도 이론이 없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공림의 말이 지당하다 여겼기 때문에 환현의 주장은 폐지되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전량(前凉)²⁶⁸⁾ 때 삭보(索輔)도 장궤(張軌)²⁶⁹⁾에게 말하기를, “옛날에는 금이나 조개, 가죽이나 비단을 화폐로 사용하여 곡식과 포목의 헤아리고 재는 소모가 없어졌고, 전한 후한 때에는 오수전(五銖錢)을 만들어 유통과 교역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태시(泰始)²⁷⁰⁾ 연간에 하서(河西)²⁷¹⁾가 황폐해져서 드디어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주(中州)²⁷²⁾가 비록 혼란하지만

266) 거북과 조개: 고대에 거북의 등껍질과 조개껍질을 화폐로 쓴 것.

267) 명제(明帝): 삼국시대 위의 조비(曹丕)에 이은 2대 왕. 재위 226~239년.

268) 전량(前凉): 301~373년. 중국의 오호십육국(五胡十六國)시대에 한족 출신의 장궤(張軌)가 건국한 나라.

269) 장궤(張軌): 오호십육국의 전량(前凉)을 건국한 이.

270) 태시(泰始): 진(晉)을 창건한 무제(武帝, 司馬炎)의 연호. 265~274년.

271) 하서(河西): 춘추전국시대에 지금의 산서성과 섬서성 사이의 황하 남단을 가리키던 말.

272) 중주(中州): ①지금의 하남성 일대. 9주의 중앙에 위치해 있어 중주라 한다.

이곳이 안전해지려면 오수전을 다시 써서 변란을 구제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장궤는 그 말을 받아들여서 베를 표준하여 동전을 사용하니, 동전이 크게 유행하여 백성들이 그 덕을 입었습니다.

후위(後魏)²⁷³⁾의 효명제(孝明帝)²⁷⁴⁾ 희평(熙平)²⁷⁵⁾ 연간에 이르러 동전을 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왕징(王澄)이 상소하기를, “돈을 일으키려면 일품(一品)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세상의 장인들에게 고르고 동일하게 하여 두루 유통시켜 끝이 없게 하면 그것을 실행시키는데 어렵지 않겠지만, 그것을 막으면 유통의 법에 어긋날 것입니다. 왜냐 하면 베나 비단은 자나 치단위로 (일일이) 나눌 수 없고, 오곡은 지고 다니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쓰는 데는 돈폐미가 이어져 있어서 말이나 섬 같은 기구가 필요 없고, 저울이나 자를 공평하게 하려는 수고가 없으므로 세상을 구제하기에 적당한 것으로 가장 깊고 으뜸된다고 하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당(唐)나라²⁷⁶⁾ 고조(高祖)²⁷⁷⁾ 무덕(武德)²⁷⁸⁾ 4년에 처음으로 오수전을 폐

②중국 문화의 핵심 지역인 주원(中原) 지역을 가리키는 말.

273) 후위(後魏): 북위(北魏), 386~534년. 중국 남북조시대에 선비(鮮卑)족의 탁발부(拓跋部)에 의해 화북지방에 세워진 왕조. 전국시대 위나라와 삼국시대 위나라와 구별하기 위해 후위 또는 북위라고 한다. 오호십육국을 통일하여 439년 북방을 평정하고 남방의 남조와 대립하였다. 남북조시대에 가장 오래 지속하고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지만 행정체계가 없어 한족을 등용하여 중국화를 추진하였다. 선비족의 문화를 중국화하는데 보편적인 가치체계를 가진 불교가 크게 기여하였다. 운강석굴과 용문석굴과 같은 대규모의 불교예술이 크게 꽃피었다.

274) 효명제(孝明帝): 북위의 8대 왕. 재위 515~528년. 생모 영태후(靈太后)와의 사이의 주도권 다툼이 일어나 528년 영태후가 효명제를 살해했다.

275) 희평(熙平): 북위 효명제의 연호. 516~518년

276) 당(唐)나라: 오랜 남북조를 통일한 수가 얼마 안 있다 패망하고 다시 중국을 재통일한 나라. 618~907년. 수나라 말기의 혼란을 수습하고 장안(長安)을 수도로 세워 영역을 넓히고 경제를 충실히 하며 국제적으로 문화를 받아들여 중국역사

지하고 개원통보(開元通寶)²⁷⁹⁾라는 동전을 유통시켰는데, 그 지름은 팔푼이고 무게는 2수 4유(銖)²⁸⁰⁾로서 가장 알맞아서 모두 편리하게 썼습니다. 주(周)나라 경왕(景王)이 화폐를 고친 뒤로부터 당나라가 법을 제정하기에 이르기까지 때에 따라 적절하게 만들었으므로, 좋아하는 것이 한결같지 않아,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며 무겁기도 하고 가볍기도 하여, 다시 고친 것이 아주 많아 이루 다 들 수 없습니다.

鑄錢疏²⁸¹⁾

(……) 主之一物之稱，蓋謂錢也。周自景王，乃患錢輕，更鑄大錢，故改幣之端，自景王始。大夫單旗諫曰不可，景王弗聽，卒鑄大錢，文曰寶貨肉好，皆有周郭。韋曜曰，“肉者，錢形也。好者，錢孔也。”是時用之以勸農，而贍不足，百姓蒙²⁸²⁾利焉。至楚莊王，以幣爲輕，用小易大，百姓不便²⁸³⁾，市復如故。秦皇兼并，分幣爲二，上幣金也，下幣錢也。漢之初興，患秦泉重，更鑄英錢，其重銖半。高后二年，患其大輕，始行八銖，六年又行

에서 번영기를 이룩하였다. 동아시아에 중국 문화가 널리 전파되어 각국의 문화가 독자적인 발전을 이룩하도록 촉진하기도 하였다.

277) 고조(高祖) : 이연(李淵). 재위 618~626년. 수나라 말기의 혼란을 수습하고 당을 건국한 이.

278) 무덕(武德) : 당 고조의 연호. 618~626년.

279) 원문에는 개통원보(開通元寶)라고 하였는데, 동전의 테두리 안쪽 네 방향에 위로부터 오른쪽으로 돌아가며 개, 통, 원, 보의 네 글자를 새겼기 때문에 글자 순서로는 원문의 ‘개통원보’가 되고, 동전 이름으로는 상-하, 우-좌의 순서로 읽어서 ‘개원통보’가 된다.

280) 유(銖) : 가장 작은 무게의 단위

281) 『대각국사문집』 권12 韓4 p.547a14~549c14. 제목은 내용에 따라 추정함.

282) 판본에 의해 蒙으로 교감함.

283) 판본에 의해 便으로 교감함.

五分。至文帝，更鑄四銖，除盜鑄令。賈誼以謂，私鑄恣於天下，其爲禍博，遂諫曰，“今博禍可除而七福可致。何謂七福。上收銅，勿令布下，則民不鑄錢，黥罪不積，一矣。僞錢不蕃，民不相疑，二矣。采銅不作，反於耕田，三矣。銅畢歸上，挾銅積以御輕重，化物必平，四矣。以作兵器，以假貴臣，多少有制，用別貴賤，五矣。以臨萬貨，以調盈虛，以收奇羨，則官富實而末民困，六矣。制吾棄財，以與匈奴，逐爭其民，則敵必懷，七矣。”夫是可謂公論也。至於虎帝，則有三銖半兩之異，民多奸鑄。又行赤側，以一當五，赤側者，以赤銅爲輪郭也，漢俗呼紫紺錢是也。後漢之初，馬援奏用五銖，三府沮之，及援入爲虎賁中郎，親對御前，詰難十三，隨牒解釋。光武從之，下賴其利。至於晉安，桓玄輔政，欲廢錢用穀帛。孔琳議之曰，“聖王制無用之貨，以通有用之財，旣無毀敗之費，又省難轉之苦，此錢所以嗣功龜貝，歷代不廢也。穀帛爲寶，本充衣食，分以爲貨，則致損甚多。又勞毀於商販之手，耗棄於割截之用。此之爲弊，著於曩昔。”又引“魏明帝時，廢錢用穀，不便於人，舉朝大議，精才達政之士，莫不爲宜復用錢，下無異情，廷無異論。”是時以琳爲至當故，桓玄之說，寢而不行。前涼之時，索輔亦言於張軌曰，“古以金貝皮幣爲貨，息穀帛量度之耗，二漢制五銖錢，通易不滯。泰始年中，河西荒廢，遂不用錢。今中州雖亂，此方安全，宜復五銖，以濟通變。”張軌納之，準布用錢，錢遂大行，民受其賜。至於後魏，孝明熙平之間，不行新鑄。王澄上疏曰，“錢之興也，始於一品。欲令世匠均同，圜流無極，行之不足爲難，塞之有乖通典。何者，布帛不可尺寸而裂，五穀則有負擔之艱。錢之爲用，貫緇相屬，不假斗斛之器，不勞稱尺之平，濟世之

宜, 謂爲深元. 及唐高祖虎德四年, 始廢五銖, 行開通元寶錢, 徑八分重二銖四綮, 最爲折衷, 遠近便之. 自周景更幣之後, 至李唐立法之閒, 隨時制宜, 所尚不一, 或小或大, 或重或輕, 更變頗多, 不可遍舉.

대개 임금으로서 돈을 만들고 화폐를 제정하는 것은 사람의 제도에 필요한 시책입니다. 앞서려 보건대 우리 해동은 삼한이 통일되기 이전에는 그 풍속이 소박하여 이른바 “선배들이 예악(禮樂)에 대해 한 것”²⁸⁴⁾이라 하겠고, 그 나라는 검소하고 아껴서 이른바 “누추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²⁸⁵⁾라고 했던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대승통(大僧統)²⁸⁶⁾ 자장(慈藏)²⁸⁷⁾ 율사는 상소하여 우리나라 풍속의 의복이 너무 누추하므로 당나라

284) 『논어』 선진(先進)편 “공자께서 말씀하시되, ‘선배들이 예악에 대해 한 것을 존스른 사람이라 하고, 후배들이 예악에 대해 하는 것을 군자라고 한다.’고 하셨습니다.”(子曰, ‘先進於禮樂, 野人也, 後進於禮樂, 君子也.’)

285) 『논어』 자한(子罕)편 “공자께서 구이에 살려고 하시니 어떤 이가 말하기를 ‘누추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였다. 공자께서 말씀하시되 ‘군자가 살면 무슨 누추함이 있겠는가?’라고 하셨습니다.”(子欲居九夷. 或曰, ‘陋, 如之何?’ 子曰, ‘君子居之, 何陋之有?’)

286) 대승통(大僧統): 삼국유사에는 자장을 대국통(大國統)이라 하였다. 국통이나 승통은 국가의 승단을 통괄하는 최위의 승관이다. 북위에서는 4세기 말에 사문통(沙門統)을 두어 이를 맡겼고, 소현통(昭玄統)이라고도 하였다. 승통 또한 북위 때의 승관이다. 동위 때는 국통(國統)이라 하였고 수에서는 대통(大統)과 소현통(昭玄統)을 두었다. 대승통이든, 대국통이든 국가의 승정을 총괄하는 승관이며, 승통이나 국통보다 고위직으로 특별히 부여한 비상설직이다.

287) 자장(慈藏): 신라의 승려. 성은 김씨. 속명은 선종랑(善宗郎). 진골 무림(茂林)의 아들. 638년에 왕명으로 당(唐)나라에 가서 오대산(五臺山)을 순례하고 문수보살의 진신을 감응하여 가사와 사리를 받았다. 이어 종남산(終南山) 운제사(雲際寺)에서 수행하고 도선(道宣)과 교유하였으며, 643년 대장경과 여러 불구(佛具)를 가지고 귀국하였다. 분황사 주지로 있으면서 궁중과 황룡사에서 『십대승론』

의 제도를 쓰기를 요청하자 국왕이 허락하시었고, 마침내 변방의 의복을 버리고 의관(衣冠)을 숭상하여 엄연히 지금에 이르기까지 매우 성대하고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생각건대 우리나라는 하늘의 (뜻을) 따라 혁명하여 삼한을 통일하고 예의를 더욱 새롭게 하고 법도를 밝게 하였습니다. 의복에는 제도가 있고 수레와 탈 것에는 변하지 않는 법이 있으니, 문물으로써 기강을 세우고 교육으로 발전시켜 백관을 통솔하고 만국을 다스리니 모두가 두려워하고 삼가지 않음이 없어 엄숙하였습니다. 또한 의관은 한 번 고치면 오래될수록 더욱 새로운 것이니, 동전을 정하는 법도 어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신 의천은 감히 자장율사의 자취를 따르지는 못하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인을 만나기 어렵고 시절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아! 고쳐야 할 것을 고치지 않으면 이것은 거문고나 비파가 고르지 않은데도 고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주상께서는 덕은 삼왕(三王)²⁸⁸⁾ 보다 뛰어나시고 도는 이제(二帝)²⁸⁹⁾ 와 나란하시며, 공은 한나라보다 높고 제도는 당나라를 이었사오니, 모든 나라들이 이곳을 향하고 백성들은 편안히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때를 맞아 곡식으로 (교환하는)

『보살계본』 등을 강론하고 대국통(大國統)의 직책을 맡아 승니(僧尼)의 규범과 승통(僧統)을 통괄하여 계율의 엄정한 준수와 실천 그리고 지방 사찰의 검열과 장엄 법식의 제도화 등을 추진하였다. 황룡사 구층탑의 창건을 건의하여 645년에 완성하고, 통도사(通度寺)를 창건하고 진신사리를 봉안하여 금강계단(金剛戒壇)을 세웠다. 649년에는 왕에게 상주하여 중국의 제도를 따라 신라에서 처음으로 관복을 입게 했으며, 당나라의 연호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만년에는 서울을 떠나 강릉에 수다사(水多寺)를 짓고, 뒤에 태백산에 석남원(石南院, 지금의淨岩寺)을 세웠다. 후에 계율종의 종조로 추앙되었다.

288) 삼왕(三王): 중국 고대의 세 임금. 하(夏)나라의 우왕(禹王), 은(殷)나라의 탕왕(湯王), 주(周)나라의 문왕(文王)을 이른다. 이제(二帝)와 함께 중국의 이상적인 제왕으로 꼽힌다.

289) 이제(二帝): 오제(五帝)의 마지막 임금인 당요(唐堯)와 우순(虞舜)의 두 임금. 삼왕(三王)과 함께 중국의 이상적인 제왕.

폐단을 고치지 않으면 후에 장차 누구를 기다리겠습니까?

대개 동전이란 그 몸은 하나이지만 뜻은 네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錢)이라고 하는 것은, 바탕은 둥글고 구멍은 네모난데, 둥근 것은 하늘을 본땀고 모난 것은 땅을 본땀 것이니, 이는 덮고 실어 들고 돌아서 끝이 없음을 말합니다. 둘째 천(泉)이라고 하는 것은, 통행하고 흘러 퍼지는 것이 마치 샘물이 다함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포(布)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백성들 사이에 퍼지고 상하에 두루 퍼져 영원히 막히지 않는 것입니다. 넷째 도(刀)라고 하는 것은, 잘 이롭게 놀리면 빈부가 나뉘어 날마다 써도 무디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간절히 말씀드리건대 지금 옛날의 원법(圓法)의 공을 본받으면 실익이 그 배가 될 것이니, 만약 단행하면 나라를 이롭게 하는 다섯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쌀을 화폐로 삼으면 멀고 가까운 곳에 교역할 때 운반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실제로 쓰이는 것은 수(銖)나 양(兩)만큼 가볍지만 헛되이 버리는 것은 천균(千鈞)²⁹⁰⁾만큼 무거운 것입니다. 혹은 수백 리에 걸쳐 쌀을 채물로 길을 나서면, 말 한 마리에 불과 두 섬을 실어 움직이는데 열흘이 넘어 걸릴 것이니, 사람이나 말의 비용으로 이미 절반이 소모될 것입니다. 혹은 한겨울이나 한여름에 백성들은 비축한 것이 없어 직접 등에 지고 가다가, 더위에 부딪히고 추위를 무릅쓰다 길에 쓰러지게 되니 그 괴로움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동전을 사용하면 (말에) 싣고 다니거나 (사람이) 지고 다니는 괴로움이 없을 것이니, 그 이익의 첫째입니다.

대개 먹는 것은 백성들이 하늘로 삼는 것입니다. 홀아비나 과부같은 곤궁한 사람들은 오직 쌀에 의존하는데, 지금 그것을 화폐로 삼으면 마음이

290) 천균(千鈞): 균(鈞)은 무게의 단위로 30근. 1석(石)은 4균(鈞), 1균은 30근(斤), 1칭(秤)은 15근, 1근은 16냥(兩)=226.5g, 1냥은 24수(銖), 1수는 100서(黍), 1수는 10류(黍). 1전(錢)은 2수4류=1돈(匁)=3.75g.

좋지 못한 교활한 무리나 이익을 탐하는 간교한 무리들이, 모래나 흙을 섞고 쪽정이나 썩어 쓸 수 없는 난알들을 보낼 것입니다. 또 작은 되를 큰 되로 속이고 가벼운 무게를 무거운 무게로 속이면, 선량하고 호소할 곳 없는 백성들은 겨우 몇 되나 몇 홑을 얻어서 키에 까붙어 일고 가리면 없어지는 것이 열 중에 너댓이 될 것이니, 비록 엄벌에 처한다 하더라도 금지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동전을 사용하면 간교한 무리들을 막고 곤궁한 이들을 돌보게 될 것이니, 그 이익의 둘째입니다.

국가에서 녹봉을 주는 제도는 쌀로 주는 것인데, 국가 창고의 저축은 1년밖에 가지 않습니다. 양반들은 받고자 하지만 다른 고을에서 가져오는 것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독축은 심하고 운반은 괴롭습니다. 혹은 바람이나 서리 때문에 지체되거나 흉년이 들면, 하급 관리 집에서는 여름만 되면 먹을 것이 떨어지고, 권세 있고 힘 있는 자들은 때를 보아가며 풀어 놓아 갑절이나 이익을 보게 되어,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곤궁하고 탐욕스러운 관리들은 더욱 날뛰게 됩니다. 심지어 청렴하고 단정한 선비들은 달리 얻는 것이 없어, 부모를 섬기고 가족을 부양하는데 오로지 녹봉에만 의존하게 되며, 더구나 미곡 중에 절반은 잡곡과 바꾸기 위해 짚어지고 시장에 들어오는 모양은 마치 행상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원법을 과감히 시행하여 녹봉의 반을 기준으로 동전으로 지급하면 독축을 줄이고 흉년에 대비할 수 있으며, 권세가와 호족을 누르고 청렴결백한 이를 우대하게 될 것이니, 그 이익의 셋째입니다.

국가의 저장은 구슬이나 옥, 거북과 조개 등의 진귀한 것과 금은이나 무소불과 상아(象牙) 같은 보물을 제외하면, 그 밖에 쌓아둔 것은 쌀과 포목 뿐입니다. 대개 포목은 오래 두면 상해서 없어지고, 쌀은 오래 두면 썩어 없어지며, 게다가 구더기와 좀이 슬고 습기가 차며 비가 새고 화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절박하게 보면 새 창고에 가득 찼던 작년의 세금 포목은 몇

번 습기가 차서 상한 것을 버리고 완전한 것을 가려보면 백에 열도 좋은 것이 없으며, 작년의 화재 때에는 한 무더기에 불이 나자 백 무더기에 함께 불이 붙어 순식간에 모두 재가 되었습니다. 지금 만일 동전을 사용한다면 저장하기에 견고할 뿐 아니라 또한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기에 매우 편리할 것이니, 이것이 그 이익의 넷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나라는 그 풍속과 교화의 아름다움은 어느 나라에 못지 않지만 ……

大抵人君，鑄錢立幣，人度之遇施也。伏觀海東，自三韓未統已前，其風朴略，語所謂先進於禮樂者也，其國儉嗇，語所謂陋如之何者也。是故新羅大僧統慈藏，上疏以本俗衣服鄙醜，乞用唐儀。國王許之，遂去邊服，尊尚衣冠，儼然至今，極爲盛美。伏自我國家，順天革命，一統三韓，增新禮儀，彰明法度。衣服有制，車騎有常，文物以紀之，聲明以發之，以臨百官，以齊萬國，莫不戒懼而肅然。且以衣冠一更，愈久而愈新，則立錢之法，豈不若是哉？臣愚不敢追蹤於慈藏。然前所謂惟聖難逢，惟時難遇。惜乎！當更而不更，是猶琴瑟不調而不改也。恭惟主上，德邁三王，道侔二帝，功高劉漢，制紹李唐，萬國向方，百姓安堵。當於斯時，米弊不更，後將孰待？夫錢之爲物，體一而義包四。一曰錢，質圓而孔方，圓以法天，方以象地，言覆載輪轉而無已也。二曰泉者，通行流行，如泉之無窮也。三曰布者，布於民間，上下周普，永遠而不滯也。四曰刀者，行有美利，分割貧富，日用而不鈍也。切謂方今，擬諸往昔圓法之功，實與相倍，儻若決行，利國有五，敢略陳之。

夫米之爲貨，遠近貿易，提荷最難。實用止銖兩之輕，虛廢有

千鈞之重. 或經數百里, 裝²⁹¹⁾米爲資, 一馬之馱, 不過二石, 動踰旬浹, 人馬之用, 已耗半矣. 或值大冬盛夏, 貧民無畜, 親自背負, 觸熱冒凍, 僵仆道途, 莫知其艱. 今用錢, 以免馱負之苦, 其利一也. 夫食者民之天也, 孤寡困窮, 獨賴田米, 今以爲貨, 無良狡猾之徒, 趣利機巧之輩, 雜以沙土, 加以塵腐無用之粒. 又有小升大升之僞, 輕量重量之奸, 良善無告之民, 僅獲升合, 簸揚淘擇, 其所亡者, 十四五焉, 雖處之嚴刑, 不能止也. 今用錢, 以絕奸狡, 而恤困窮, 其利二也. 國家均祿之制, 以米爲給, 左倉之儲, 止盈一歲. 兩班請受, 唯俟他州, 督責至嚴, 轉漕勞苦. 或風霜阻滯, 歲時凶荒, 薄官之家, 至夏未食, 權豪勢族, 則計程陪卸, 取利一倍, 細民益困, 貪吏益雄. 至於廉潔端士, 他無所獲, 仰事俯畜, 全仗俸祿. 復以百稊, 半易田糙, 負荷入市, 有同行商. 圓法果施, 准祿之半, 以錢給之, 則減督責, 而備凶荒, 抑權豪而優廉潔, 其利三也. 國家帑藏, 除珠玉龜貝之珍, 金銀犀象之寶, 其外積畜, 獨米與布. 夫布久則有彫爛之殘, 米久則有塵腐之壞, 繼之以蟲蛀霉濕, 雨漏火災. 切覩大盈新倉, 舊年貢布, 未經數靈, 擇破取完, 百無十好, 往年火災, 一堆被燃, 百堆俱發, 瞬息之際, 盡爲輕灰. 今若用錢, 非獨積蓄堅牢, 抑亦賜與大便, 其利四也. 伏以我國家, 風化之美, 不讓 (…二張缺落…)

왕망(王莽)²⁹²⁾이 찬탈한 뒤에 착도(錯刀)와 계도(契刀)를 만들었고, 또 소전(小錢)·요전(幺錢)·유전(幼錢)·중전(中錢)·장전(壯錢)·대전(大錢)

291) 판본에 의해 裝으로 교감함.

의 구별이 있었으며, 1수(銖)·3수·7수·9수·12수로 나뉘었습니다. 동탁(董卓)²⁹³⁾이 속으로 역적의 마음을 품고 끝내 오수전을 없애고, 낙양(洛陽)²⁹⁴⁾과 장안(長安)²⁹⁵⁾의 동인(銅人)²⁹⁶⁾·종거(鐘虺)²⁹⁷⁾·비렴(飛廉)²⁹⁸⁾·동

292) 왕망(王莽): 서기전 45~서기 23. 전한(前漢) 말의 정치가이며 ‘신(新)’ 왕조(8~24)의 건국자. 갖가지 권모술수를 써서 선양혁명(禪讓革命)에 의해 전한의 황제권력을 빼앗았다. 주나라 시대의 정전법(井田法)을 모방한 토지개혁을 단행하여 지방호족의 대토지소유를 제한하고 자영농민의 빈민화를 막고자 하였다. 또 가난한 농민에게 쌀 이자의 자금을 융자하여 주는 사대제도(賒貸制度)를 두기도 하였다. 호족과 이해가 엇갈려 개혁정책과 대외정책에 실패하고, 호족 유수가 군대를 일으켜 건국 15년 만에 멸망하고 후한이 한왕조를 재건하였다.

293) 동탁(董卓): ?~192. 후한 말기의 무장. 헌제를 옹립하고 정권을 잡자 동탁 토벌군이 조직되었고, 동탁은 낙양성을 소각하고 장안으로 천도했으나 횡포가 심해 사도 왕윤의 모략에 의해 부장 여포(呂布)에게 살해되었다. 동탁의 사후 장안은 부장들의 다툼으로 혼란이 거듭되었고, 헌제는 장안을 탈출하여 조조(曹操)에게 보호받아 조조가 천하를 제패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294) 낙양(洛陽): 황하(黃河)의 지류인 하남성 서부에 있는 낙하(洛河) 유역에 있는 도시. 중국의 7대 고도(古都)로 꼽힌다. 서기전 770년에 동주(東周)의 국도로 번영하였고, 후에 후한(後漢), 삼국(三國)의 위(魏), 서진(西晉), 북위(北魏)도 이곳에 도읍하였다.

295) 장안(長安): 섬서성의 성도(省都)인 지금의 서안(西安). 관중(關中)분지의 중앙에 북쪽으로 위하(渭河)가 동류하고 남쪽에 종남산이 솟은 가운데 위치한다. 주나라 무왕(武王)이 세운 호경(鎬京)에서 비롯되며, 그후 한(漢)나라에서 당(唐)나라에 이르기까지 약 1,000여 년 동안 중간에 잠시 빈 시기를 제외하고는 국도(國都)로 번영하였다.

296) 동인(銅人): 구리로 만든 인물상. 『한서(漢書)』에는 건장궁(建章宮)·미양궁(未央宮)·장락궁(長樂宮)에 종거와 동인이 있는데, 털이 한 치나 났다는 기록이 있어 궁궐에 장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97) 종거(鐘虺): 종을 거는 틀, 또는 양쪽에서 치도록 만든 종. 거(虺)는 사슴 머리에 용의 몸을 한 신성한 동물. 종은 엄청난 양의 동으로 만듬으로 항상 동전이나 무기 주조를 위해 해체가 논의되는 대상이었다.

298) 비렴(飛廉): 하늘을 나는 새. 몸체는 사슴과 같고 머리는 술잔 모양[爵]이며 뿔이 있고 뱀꼬리와 같으며 표범무늬가 있는 신성한 새.

마(銅馬)²⁹⁹⁾ 등을 거두어들여³⁰⁰⁾ 소전(小錢)을 만들었으며, 또 공손술(公孫述)³⁰¹⁾에 이르러 철전(鐵錢)을 만들었습니다. 유비(劉備)³⁰²⁾는 일당백(一當百)을 사용했고, 손권(孫權)³⁰³⁾은 일당천(一當千)을 썼습니다. 진(晉)나라 원제(元帝)³⁰⁴⁾ 때에는 작고 큰 것을 구별하여 비륜(比輪)과 심랑(沈郎)이라고 불렀습니다. 양(梁)나라³⁰⁵⁾ 고조(高祖)³⁰⁶⁾ 때는 유곽(肉郭)을 없애고

299) 동마(銅馬): 구리로 만든 말.

300) 『후한서(後漢書)』 권102 동탁열전(董卓列傳)에 “又壞五銖錢, 更鑄小錢. 悉取洛陽及長安銅人鐘虡飛廉銅馬之屬, 以充鑄焉.”이라 하였다.

301) 공손술(公孫述): 중국 후한(後漢) 때의 군웅(群雄). 처음에는 왕망(王莽)을 섬겼으나, 전한 말 경시제(更始帝)가 반란을 일으키자, 성도(成都)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촉(蜀)과 파(巴)를 평정하고, 25년 스스로 천자라 일컫고 국호를 성가(成家)라고 하였다. 촉과 파의 부(富)를 기반으로 하였으나, 36년 후한의 광무제(光武帝)에게 패하여 멸망하였다.

302) 유비(劉備): 161~223년. 삼국 시대 촉한(蜀漢)의 초대 왕, 재위 221~223년. 자는 현덕(玄德), 시호는 소열황제(昭烈皇帝). 전한 경제(景帝)의 아들인 중산정왕(中山靖王) 유승(劉勝)의 후예로 알려져 있다. 관우, 제갈량과 같은 인재들을 등용하여 당대의 패자였던 조조와 맞섰다. 220년 조비가 한나라 헌제의 양위를 받아 위의 황제가 되자, 221년 유비도 제위에 올라 한의 정통을 계승한다는 명분으로 국호를 한(漢, 蜀漢)이라 하였다.

303) 손권(孫權): 중국의 삼국시대 오나라의 초대 황제. 손견(孫堅)의 둘째 아들로 200년에 형 손책(孫策)이 죽자 그 뒤를 이어 주유(周瑜) 등의 보좌를 받아 강남 경영에 힘썼다. 208년 조조의 압력이 강화되자 유비와 연합하여 조조의 대군을 적벽(赤壁)에서 격파함으로써 강남에서의 지위가 확립되었다. 그 후 형주를 둘러싸고 유비와 대립하였으며, 219년 조조와 결탁하여 관우를 격파하고 형주를 공략하였다. 그 결과 위(魏)·오(吳)·촉(蜀) 3국의 영토가 거의 확정되었다. 손권의 오는 강소성과 안휘성 남부, 절강성·강서성·호북성·호남성·복건성 방면을 지배하였다. 조조와 유비가 잇달아 황제를 칭하자 손권도 제위에 올라 건업(建業, 南京)에 도읍하였다.

304) 원제(元帝): 동진(東晉)의 초대 왕(재위 317~322년)인 사마의 증손 사마예(司馬睿, 276~322년). 조부는 사마의의 4남인 낭야무왕 사마주(鄴野武王 司馬卞), 부친은 낭야공왕 사마근(鄴野恭王 司馬覲).

식여전(公式女錢)이라 불렀으며, 또 치전(稚錢)·대문전(對文錢)·부전(富錢)·남전(男錢)·동전(東錢)·서전(西錢)·장전(長錢) 등이 있었습니다. 또 북제의 말기에 업중(鄴中)³⁰⁷⁾에는 (동전의) 둘레가 붉고 테두리가 가는 차이가 있었고, 하남(河南)³⁰⁸⁾에는 푸르고 얇으며 납과 주석으로 만든 다름이 있었습니다. 그 가벼운 것으로 말하면 바람에 나부끼고[風飄]와 물에 뜬다[水浮]는 이름이 있었고, 그 작은 것으로 말하면 거위의 눈[鵝眼]과 실 같은 고리[線纆]라는 이름이 있었으며, 그 간사한 것으로 말하면 쇳조각[鐵鑠]과 종이풀[紙糊]로 만든 것이 있었고, 그 거짓으로 말하면 나물[菜子]과 마름풀잎[苳葉]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구구한 법이니 어찌 지금의 그것을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지금 동전을 사용한다면 그렇지 않을 것이니, 반드시 세상을 다스리는 이미 행한 제도를 참고하고 중국의 본뜬 만한 법을 참고한다면, 그 이

305) 양(梁)나라 : 502~557년. 남북조 시대에 강남에 건국된 송·제에 이은 남조 왕조. 제의 말기에 과다한 사치로 정치가 어지럽자 웅주자사였던 소연(蕭衍)이 병력을 일으켜 502년 선양을 받아 양나라를 건국했다. 무제는 48년 동안 안정된 정치를 바탕으로 학문과 예술이 발달하는 토양을 마련하였다. 강남 귀족사회의 불교가 절정에 달한 시기가 양대이고 그 중심은 남조 사대부의 정신생활을 상징하는 무제이다. 무제가 죽은 후 왕실의 대립 등으로 약해져 진에 선양하여 패망하였다.

306) 고조(高祖) : 중국 남조 양의 초대 왕인 무제(武帝). 재위 502~549년. 묘호는 고조(高祖), 시호는 무제(武帝). 문치를 닦아 국세가 크게 번영하였다. 불교를 독신하여 황제보살(皇帝菩薩)의 칭호를 들었다. 스스로 보살계를 받고 명승들을 예경하며 수도 건강에 7백개의 절을 세워 수만명의 승려들이 머물게 하였다. 527년에 동태사(同泰寺)가 이루어지자 무차대회(無遮大會)를 열어 평등과 자비정신을 만민에게 알리고 수륙법회(水陸法會)를 열었다. 계율을 지켜 네 차례나 사신(捨身)하고 일생 동안 불법을 연구하여 경전을 강의하고 여러 주석서를 지었다.

307) 업중(鄴中) : 중국 삼국시대 위나라의 도성. 지금의 하북성 임장현(臨漳縣) 서남의 업진(鄴鎭) 부근.

308) 하남(河南) : 황하(黃河) 이남 지구. 그 가리키는 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해의 구분이 마치 해와 달과 같이 분명할 것입니다. 신은 일찍이 『송현책수(宋賢策粹)』 가운데서 화폐에 관한 일편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역대로 편리하게 고친 것과 논의하는 사대부들이 임금께 옳고 그름을 아뢴 사실을 자세히 말했는데, 오직 오수전만이 적당하다 하였으니 그것은 공론입니다. 그러나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당나라 무덕 연간에 오수전을 폐지하고 이수사류전을 쓴 그 경중을 참작하여 절충한 것이 나으리라 생각합니다. 요사이 중국에서는 오수전과 이수사류전을 함께 썼는데, 오수전이란 지금 중국의 대전이라는 것으로서 하나가 둘에 해당하는[一當二] 것이며, 이수사류전이란 지금 중국의 소전이라는 것으로서 하나가 하나에 해당하는[一當一]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에서 이롭다 하는 것은 이수사류전이 통용되는 것입니다.

自王莽僭偽，乃爲錯刀契刀，又有小錢幺錢幼錢中錢壯錢大錢之別，一銖三銖七銖九銖十二銖之分。及董卓內懷賊心，畢壞五銖，取洛陽及長安銅人鐘虞飛廉銅馬之屬，充鑄小錢。至於公孫述，又作鐵錢，劉備以一當百，孫權以一當千。晉元帝時，別其小大，乃謂之比輪沈郎。梁高祖時，去其肉郭，乃謂之公式女錢，又有稚錢對文錢富錢男錢東錢西錢長錢。北齊之季，鄴中則有赤郭細眉之異，河南則有青薄鉛錫之殊。言其輕則有風飄水浮之名，言其小則有鵝眼線環之號，言其奸則有鐵鑠紙糊之造，言其僞則有菜子荇葉之稱。此皆區區亂世之法，奚足以爲方今道哉？今若用錢則不然，必稽諸理世已行之制，參於中朝可法之儀，則利害之分，皎如日月。臣嘗覽宋賢策粹。中有錢幣一篇，具陳歷代更改便宜，議士奏對是非，獨以五銖爲當，乃公論也。然臣愚見，切謂不若李唐虎德年間，廢五銖用二銖四銖，輕重酌中。比來中朝，五銖二銖四銖，並行於時，五銖者，

今中朝謂之大錢，以一當二，二銖四綮者，今中朝謂之小錢，以一當一，然民間所利，以二銖四綮爲通也。

엎드려 생각건대 신은 천하께서 이룰 수 있는 천품으로써 이룰 수 있는 시기를 만나, 전(錢)과 천(泉)과 포(布)와 도(刀)로 실로 널리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니, 공자(孔子)³⁰⁹⁾께서 말씀하신 “백성들이 이롭게 여기는 것으로 인하여 이롭게 해준다.”³¹⁰⁾는 것이 그것입니다. 신은 듣자오니, “지혜로운 사람은 천 번을 생각하면 반드시 한 번은 실수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천 번을 생각하면 반드시 한 번은 얻음이 있다. 미친 사람의 말도 성인은 채택한다.”³¹¹⁾고 하였습니다. 『시경(詩經)』에는, “뻑뻑하게 정돈된 토끼땃이여 숲 가운데 시절했도다. 씩씩한 무사여 공경제후의 심복이도다.”³¹²⁾라고 하였습니다. 또,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무꾼에게도 물어보라.”³¹³⁾고 하였습니다. 신은 학문이 얇고 속이 텅 비었사오나 어찌 토끼땃이나 풀꾼과 나무꾼 보아야 못하겠습니까? 더구나 벼슬살이하며 법을 지키는 관리가 귀는 귀 하게 여기고 눈은 천하게 여기며, 과거는 영광스러워하고 현재는 누추해하여, 이익이 백 가지가 되지 않으면 법을 고치지 않고, 공이 열 가지가 되지 않으면 기구를 바꾸지 않는다고 할까 염려되니, 이것이 참으로 탄식할 만한 일입니다.

309) 원문의 중니(仲尼)는 공자의 자(字)임. 곧 공자.

310) 『논어(論語)』 원문의 한 글자를 생략하였다. “공자 이르시되, ‘백성들이 이롭게 여기는 것으로 인하여 이롭게 해주니, 이는 은혜를 베풀되 낭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는가?’”(『論語』堯曰篇. 子曰, ‘因民之所利而利之, 斯不亦惠而不費乎?’)

311) 『사기(史記)』 권92 회음후(淮陰侯, 韓信)열전에서 이좌거(李左車)가 한신에게 한 말. “智者千慮, 必有一失, 愚者千慮, 必有一得, 故曰 狂夫之言, 聖人擇焉.”

312) 『시경』 권1 국풍(國風) 주남편(周南篇) 토저장(兔置章)

313) 『시경』 권17 대아(大雅) 판장(板章)

신은 일찍이 삼장에 마음을 쏟는 이외에, 행하고 남은 힘이 있으면 경전과 사서를 널리 읽으면서 옛사람의 어질고 어질지 않음을 관찰하였습니다. 늘 볼 때마다 조참(曹參)³¹⁴⁾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아무것도 고치지 않고 한결같이 소하(蕭何)³¹⁵⁾의 약속만 좇아서, 날마다 아무 일도 않고 맛있는 술이나 마시고 후원에 벌리고 앉아 관리들과 취하여 노래했습니다. 효혜제(孝惠帝)³¹⁶⁾가 그 말을 듣고 꾸짖자 그는 대답하기를, “고제(高帝)³¹⁷⁾께서 소하와 함께 법령을 분명히 하시니 저희들은 그것을 준수하여 잃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³¹⁸⁾라고 하였으니, 이 말은 지나침이 너무 심합니다. 맹자(孟子)³¹⁹⁾께서는, “지금의 군자들은 다만 이를 뿐만 아니라 또 다만 변명을 한다.”³²⁰⁾고 하셨는데, 저 조참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것은 양한이 끝내 주나라의 번영에 미치지 못한 것인데, 실로 고쳐야 할 것을 고치지

314) 조참(曹參): 패군 출신으로, 전한의 명장이자 개국 공신이다. 고조 유계의 거병시에 뜻을 같이하여 건국 후 평양후(平陽侯)로 책봉되고 구강왕 경포의 반란을 평정하기도 하였다. 훗날 소하의 추천으로 상국이 되었다.

315) 소하(蕭何): ?~서기전 193. 중국 전한 때 고조 유방의 재상. 한신(韓信)·장량(張良)·조참(曹參)과 함께 고조의 개국공신이다. 한나라 유방과 초나라 항우의 싸움에서는 관중에 머물러 있으면서 고조를 위하여 양식과 군병의 보급을 확보했으므로, 고조가 즉위할 때에 논공행상에서 으뜸가는 공신이라 하여 찬후로 봉해지고 식읍 7,000호를 하사받았다.

316) 효혜제(孝惠帝): 전한의 2대왕. 한혜제 유영(漢惠帝 劉盈). 재위 서기전 195~188년. 고조 유방의 차남이자 적장자로, 모친은 고황후 여씨이다. 어머니의 그늘에 가려진 불운한 황제로 알려져 있으며, 23세의 나이로 갑자기 붕어하였다.

317) 고제(高帝): 한의 시조인 고조(高祖) 유방(劉邦). 재위 서기전 202~195년.

318) 『사기』 권54 조상국세가(曹相國世家) “參曰, 陛下言之是也. 且高帝與蕭何, 定天下, 法令既明, 今陛下垂拱. 參等守職謹而勿失, 不亦可乎.”

319) 원문의 맹가(孟軻)는 맹자(孟子)의 이름임.

320) 『맹자(孟子)』의 원문은 다소 다르다. “지금의 군자들은 어찌 다만 이를 뿐이겠는가? 또 따라서 변명을 하는구나!”(『孟子』 권2 公孫丑章句下 今之君子, 豈徒順之, 又從爲之辭.)

않은 데서 연유한 것입니다.

신이 간절히 말씀드리건대, 유방(劉邦)³²¹⁾과 항우(項羽)³²²⁾가 갈라지기 전에 고조는 수천 번 싸워 비로소 천하를 평정하였으므로, 전쟁은 그치지 않고 부상은 낫지 못했으니 어느 겨를에 예약을 말하였겠습니까? 효혜제는 인자하여 온 나라가 다 편안하였는데, 그때에 제도를 쇄신하지 않고 도리어 “준수하여 잃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으니 어찌 잘못이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후세의 식견 있는 사람들은 몹시 애석해 하였던 것입니다. 전(傳)에 이르기를, “때란 만나기는 어렵고 잃기는 쉬운 것이다. 좋은 때여, 두 번 오지 않는구나.”³²³⁾라고 하였습니다.

삼가 원하옵건대, 전하께서 영명한 지혜로 혼자 결정하시어 과감히 실행하시면, 그것은 국가의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만세 백성들의 복이 될 것입니다. 만일 조정에 의심하거나 걱정하는 이가 있으면 신의 의론을 내어서 공경대부들에게 마땅한지 마땅하지 않은지, 옳은지 그른지를 보여주시기 바

321) 유방(劉邦) : 한나라의 시조인 고조(高祖). 항우(項羽)와 경쟁관계로 처음에는 패배를 거듭하였다. 서기전 206년에 유방은 항우로부터 한왕(漢王)에 봉해졌으나, 그후 4년간에 걸친 항우와의 싸움에서 소하(蕭何)·한신(韓信) 등의 도움으로 해하(垓下)의 결전에서 항우를 대파하고 천하통일의 대업을 이루었다. 서기전 202년에 유방은 황제에 오르고 수도를 장안으로 정하였다. 봉건제와 군현제를 조화시킨 군국제를 실시하여 나라의 기틀을 다졌다.

322) 항우(項羽) : 서기전 232~202년. 진(秦)나라 말기에 유방과 천하를 놓고 다툰 무장. 209년에 진승(陳勝)과 오광(吳廣)의 난으로 진나라가 혼란에 빠지자, 숙부 항량(項梁)과 함께 봉기하여 진군을 무찌르고 함곡관(函谷關)을 넘어 관중(關中)으로 들어갔다. 앞서 들어와 있던 유방과 홍문(鴻門)에서 만나 복속시키고, 진왕을 죽이고 도성을 불사른 뒤 팽성(彭城, 徐州)에 도읍하여 서초(西楚)의 패왕(霸王)이라 칭하였다. 그러나 제후를 통솔하지 못하여 해하(垓下)에서 유방에게 패하여 자살하였다.

323) 『사기』 권92 회음후(淮陰侯)열전 “夫功者難成而易敗, 時者難得而易失也, 時乎時不再來, 顧足下詳察之.”

랍니다. 신은 간절히 마원(馬援)을 본받아 전하 앞에서 열두 가지 곤란한 점을 풀어드리는 것이 소원입니다마는 감히 바라지는 않습니다. 벼슬에 나아가 정치를 피하는 것은 유자(儒者)에게는 허락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은 생각하면 군왕의 중요한 관계이니, 어찌 감히 몸을 아껴 면류관을 더럽히겠습니까? 못내 외람되고 두려움의 지극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신승 의천은 죽음을 무릅쓰고 머리를 조아려 삼가 아뢰입니다.

伏遇殿下，以可致之資，又逢可致之時。錢泉布刀，實爲博濟，仲尼所謂，“因民之利而利之者。”也。臣聞“智者千慮，必有一失，愚者千慮，必有一得，狂夫之言，聖人擇焉。”詩曰，“肅肅兔置，施于中林。赳赳虎夫，公侯腹心。”又曰，“先民有言，詢于芻蕘。”臣學雖淺近，腹雖空虛，詎兔置芻蕘之所不若也哉？復恐居官守法之吏，貴耳而賤目，榮古而陋今，以謂利不百不變法，功不十不易器，是又可吁也。臣嘗潛心三藏之外，行有餘力，則獵涉經史，以觀古人之賢不肖。每見曹叅，舉國無所變更，遵蕭何約束，日不事事，惟飲醇酒，張坐後園，與吏醉歌。孝惠聞而讓之，乃對曰，“高帝與蕭何，法令旣明，叅等遵而勿失，不亦可乎？”甚矣，其言之過也。孟軻曰，“今之君子，非徒順之，又徒爲之辭。”其曹叅之謂歟。此兩漢所以卒乎不及成周之盛者，良由當更而不更也。臣切謂劉項未分之日，高祖以叅戰數千，始定天下，兵革未息，瘡痍未瘳，奚暇道禮樂哉？孝惠仁慈，遠邇已寧。於斯時也，不新制作，反言“遵而勿失。”無乃謬乎？是故後世有識之士，深爲之痛惜也。傳曰，“時者難得而易失，時乎時不再來。”伏願殿下，至明獨斷，果敢必行，非獨國家之福，萬世蒼生之福也。儻或朝有疑慮，亦乞下臣之議，以示公卿大夫，當與不當，宜與非宜。臣切效馬援，解十二難於殿

下之前, 是所願也, 非敢望也. 出位謀政, 在儒者所不許. 然臣念君親之重, 身何敢恪, 塵黷□冕旒? 不勝踰越恐懼之極. 臣僧某, 昧死頓首謹言.

2) 내시(內侍)³²⁴⁾ 문관(文冠)에게 드리는 글

의천은 아뢰입니다.

어제 늦게 대궐의 뜻과 간곡한 유지를 다시 전해주어 주상의 생각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성상의 겸손하신 덕이 이에 이르니 감명의 지극함을 무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급작스런 사이라 어리석은 생각을 자세히 말씀드릴 겨를이 없었는데, 요즈음 어사대(御史臺)³²⁵⁾의 상주(上奏)에 따르면 신승이 승과(僧科) 시험 치르는 표백문자(表白文字)³²⁶⁾를 주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논하여 말하기를, “만일 승통이 표백의 승과 치르는 것을 맡게 한다면, 교학을 배우는 후진들은 표백의 시험을 다루는 데만 뜻을 두어 문장을 배우는 데만 힘써 근본 중지의 경론에는 정통하지 못할 것

324) 내시(內侍): 고려시대에 숙위 또는 근시의 일을 맡아본 관직. 말기에 환관이 내시직에 많이 진출함으로써 곧 환관의 별칭으로 되었다.

325) 어사대(御史臺): 고려 시대에 간쟁과 봉박(封駁), 서경(署經)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 정사를 논의하고 풍속을 바로잡으며 백관을 감찰하고 탄핵하던 관청. 불체포·불가범(不加犯) 등의 특권이 있었다. 성종 14년(995)에 사헌대를 고친 것으로, 현종 5년(1014)에 금오대로 바꾸었다가 충렬왕 원년(1275)에 감찰사로 고쳤다.

326) 표백(表白)은 법회 같은 때에 부처님 앞에서 바람과 목적을 말하고 삼보께 밝게 비취 주시기를 비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계백(啓白)이라고도 한다. 법회의 시작에 하는 것을 개백(開白)이나 개계(開啓)라고한다. 이전에 창도(唱導)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이다.

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이 그 연유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유교의 선비들이 학문에 뜻을 둘 때 과연 한 사람이라도 고시(考試)의 일을 다루는 데만 뜻을 두고 학문에 힘쓰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른바 책(策)을 뽑아내고 과거에 급제시키는 것은 반드시 성인의 도를 배우고 성인의 세상을 도와 백성들을 어질고 장수하는 경지³²⁷⁾로 이끌어 마침내는 태평한 세상을 이루는 데 있는 것이니, 이것이 대강입니다. 유교가 그러한데 불교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람됨이, 타고난 성품은 지극히 어리석지만 어린 나이에 다행히 선왕의 은혜를 입어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고, 전생의 인연에 힘입어 16,7세로부터 서방 성인³²⁸⁾의 가르침에 종사한 지 이제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국에 유통된 것이 백에 한둘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전하는 삼장의 정문(正文)은 겨우 6,7천권이지만 그 밖의 고금의 현철(賢哲)들로 주석서를 지은 이들이 1천년 동안 없던 때가 없었으니, 그 또한 다 셀 수 없습니다. 비록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도 평생 동안 그 과업을 다 연구할 수 없음이 분명하거늘 하물며 중하의 근기를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원래 불민하여 배움의 어려움을 잘 알거니와, 그래서 요즈음에 도를 중히 여기고 삶을 가벼이 여겨, 중국에 가서 학문에 입문하려는³²⁹⁾ 그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인의 마음 씀을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성인의 마음 씀은 넓고 커서 두루 갖추어 있으니, 인승(人乘)도 있고 천승(天

327) 어질고 장수하는 경지: 인수(仁壽)의 경계, 곧 어질고 덕이 있으면 자연히 수명이 길어지는 살기 좋은 곳이 된다는 것을 말함.

328) 서방 성인: 중국의 서쪽에 있는 인도의 성인인 석가모니 부처님.

329) 나루터를 묻는다[問津]는 것은 공부를 시작하는 출발점을 묻는다는 말로써 학문에의 입문을 말함.

乘)도 있으며, 성문승(聲聞乘)도 있고 연각승(緣覺乘)도 있고 보살승(菩薩乘)도 있습니다. 이 오승은 불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마땅히 마음을 다해야 할 대강입니다. 열 가지 선행[十善]과 다섯 가지 계[五戒]는 인승이요, 네 가지 선[四禪]과 여덟 가지 정[八定]은 천승이며,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四聖諦]의 법은 성문승이요, 12인연은 연각승이며, 육바라밀과 만행(萬行)은 보살승입니다. 인승으로 말하면 주공(周公)³³⁰⁾과 공자의 도와 돌아가는 곳이 같고, 천승으로 말하면 노자(老子)와 장자(莊子)의 학문과 일치합니다. 옛 현인들이 말씀하신 “유교와 도교의 도를 닦으면 인천의 과보를 잃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니, 고금의 현인과 달인들의 달통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의 삼승은 세상을 넘어선 법이니 어찌 세상 안의 가르침과 나란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개 마음이 바르지 않은 선비는 도를 말할 수 없는 자이어서 그 가르침에 구속을 받는 것이니, 여름 벌레가 겨울 얼음을 모르고 우물 안의 개구리가 큰 바다를 몰라, 제 소견에만 국한되는 것을 견주어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본다면 5승을 만든 것은 큰 실마리를 얻은 것이니, 불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마음씀을 미래가 다하도록 여가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 뜻은 선왕께서 출가를 허락해주신 은혜를 갚고, 전하께서 불법을 널리 보호하시는 뜻을 도우며, 우리 부처님께서 스승이 되어 주신 덕에 보답하고, 중생들의 잘못된 소견을 가진 마음을 구제하는데 있습니다. 진리의 수레를 다시 이 세상에³³¹⁾ 굴리고, 불법의

330) 주공(周公): 주왕조를 세운 문왕(文王)의 아들이며 무왕(武王)의 동생. 예악(禮樂)과 법도(法度)를 제정해 제도문물을 창시했다고 한다. 주왕실의 일족과 공신들을 요지에 배치해 다스리게 하는 봉건제(封建制)를 실시하고 주왕실 특유의 제도문물을 이룩하였다. 중국 고대의 정치·사상·문화 등 다방면에 공헌하여 성인으로 존송된다. 『주례(周禮)』를 지었다고 한다.

331) 염부제(閻浮提)는 4대주 중에 사람들이 사는 남쪽 대륙, 곧 이 세상.

광명이 천년토록 거듭 비치며, 네 가지 은혜³³²⁾에 (...떨어져 나감)

與內侍文冠書³³³⁾

某啓. 昨晚再傳, 中旨曲諭, 宸衷備認. 聖上謙損之德, 以至於此, 感銘所極, 無以加焉. 然於倉卒之際, 未遑曲敘鄙懷, 比緣御史臺所奏, 論臣不合掌于試僧表白文字事云, “是若使僧統, 知于表白試選, 則後進義學, 志在求掌表白之試, 攻乎章句之學, 以致本宗經論, 未至精通者.” 愚此語未悉其由. 且夫士儒志學之際, 頗有一人, 志在求掌考試之事, 以勤學問乎? 所謂拔策決科, 必在乎學聖人之道, 佐聖人之世, 駢民於仁壽之域, 終致大平, 此其大槩也. 儒旣如此, 釋不然乎? 予之爲人也, 雖稟性至愚, 早歲幸蒙先君恩度爲僧, 賴以宿因, 自十六七歲已來, 從事于西方聖人之教, 二十載于茲矣. 然釋氏之教, 流通中國者, 百不一二矣. 今所傳三藏正文, 僅六七千卷, 其他古今賢哲注疏之家, 一千年來, 無代無之, 此又不能悉數也. 雖有拔萃之器, 信乎終身不能究其業也, 況中下之人乎? 予固不敏, 而知學之難, 所以頃歲, 重道輕生, 問津中國者, 志在於何在乎?

332) 네 가지 은혜 : 사은(四恩)은 ①①어머니의 은혜[母恩]와 ②아버지의 은혜[父恩]는 낳고 길러주신 은혜, ③부처님의 은혜[如來恩]는 삼계의 도사로서 생사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 은혜, ④설법해주신 법사의 은혜[說法法師恩]는 법사가 설법해 주심으로 인해 교만을 다스리게 된 은혜.(『正法念處經』 권61) ②①부모의 은혜[父母恩], ②중생의 은혜[衆生恩]는 일체중생이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생을 거치면서 서로 부모가 되어준 은혜, ③국왕의 은혜[國王恩]는 국왕이 나라를 잘 다스려 바른 교화를 펴게 하고 공포가 없게 하며 장엄 등의 10덕을 이룬 은혜, ④삼보의 은혜[三寶恩]는 삼보의 불가사의한 은혜.(『大乘本生心地觀經』 권2) ③①스승의 은혜[師長恩], ②부모의 은혜[父母恩], ③국왕의 은혜[國王恩], ④시주의 은혜[施主恩].

333) 『대각국사문집』 권13 韓4 pp.550b8~551a5

效聖人之用心也. 聖人用心則廣大悉備, 有人乘焉, 有天乘焉, 有聲聞乘焉, 有緣覺乘焉, 有菩薩乘焉. 此之五乘, 是學佛者之所宜盡心之大槩也. 十善五戒, 人乘也, 四禪八定, 天乘也, 四聖諦法, 聲聞乘也, 十二因緣, 緣覺乘也, 六度萬行, 菩薩乘也. 以言乎人乘, 與周孔之道同歸, 以言乎天乘, 共老莊之學一致. 先民所謂修儒道之教, 可以不失人天之報, 古今賢達, 皆以爲知言也. 其或後之三乘出世之法, 豈與夫域內之教, 同日而言哉? 盖曲士不可以語道者, 束其教也, 夏虫之於冬冰, 井蛙之於大海, 局於自見, 類可知也. 由是觀之, 五乘之設, 其得大端, 學佛者之用心, 窮未來際, 在乎此也. 就近而言, 予志在乎, 報先君許度之恩, 副殿下弘護之志, 答我佛爲師之德, 救衆生邪見之心. 使法輪再轉於閻浮, 道光重映於千載. 四恩終(…)

3) 송나라 천태(天台)대사의 답을 친히 참배하고 발원한 소

저 의천은 머리 조아려 귀명(歸命)하며 천태교주(天台教主)이신 지자(智者)대사³³⁴⁾께 아뢰입니다. 일찍이 들으니 대사께서는 오시팔교(五時八教)³³⁵⁾

334) 지자(智者)대사: 지의(智顗, 538~597). 중국 수나라 때 스님이며 천태종의 개조. 자는 덕안(德安), 속성은 진(陳)씨. 591년 진왕 양광(楊廣)으로부터 지자대사라는 호를 하사받았다. 18세 때 법서(法緒)를 은사로 출가하였고 혜광(惠曠)에게 율학과 대승교를 배웠으며 560년 혜사(慧思)로부터 심관(心觀)을 전수받았다. 32세 때 와관사에서 『법화경』을 강설하고 38세 때 천태산에 들어가 수선사를 창건하고 『법화경』을 중심으로 천태종의 종지를 완성하였다. 585년에 금릉으로 가서 태극전에서 『지도론』과 『법화경』을 강설하였으며 말년에 옥천사를 창건하고 『법화현의(法華玄義)』·『마하지관(摩訶止觀)』을 강설하였으며 597년에 천

로 동쪽에 유통된 부처님 일대의 가르침을 판정하고 해석하여 다 망라하지 않음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니 후세에 불법을 배우는 이들이 어떻게 이로부터 비롯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사이신 화엄소주(華嚴疏主)³³⁶⁾께서는 “현수오교(賢首五教)³³⁷⁾는 천태와 크게 같다.”³³⁸⁾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건대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제관(諦觀)³³⁹⁾이라는 이름

태산 석성사에서 입적하였다. 법을 전한 많은 제자 중에 장안관정(章安灌頂)이 상수제자이다. 저서로는 『법화현의』·『법화문구(法華文句)』·『마하지관』의 천태삼대부와 『관음현의(觀音玄義)』·『관음의소(觀音義疏)』·『금광명현의(金光明玄義)』·『금광명문구(金光明文句)』·『관무량수경소(觀無量壽經疏)』 등이 있다.

335) 오시팔교(五時八教) : 천태종의 교판. 부처님 일대의 설법을 『법화경』을 설하기 까지의 단계로 나누어 다섯 가지 시(時)와 여덟 가지 교(教)로 설명한 것을 말한다. 5시란 부처님 50년간의 설법을 시간적으로 판단하여 다섯 가지로 구분한 것인데, 최초 화엄시(華嚴時)로부터 아함시(阿含時)·방등시(方等時)·반야시(般若時)를 거쳐 최종 법화열반시(法華涅槃時)로 구분하는 것이다. 8교란 가르침을 교화하는 형식에 따라 구분한 화의사교(化儀四教)와 교리의 내용에 따라 구분한 화법사교(化法四教)로 나뉜다. 화의사교란 돈교(頓教)·점교(漸教)·비밀교(秘密教)·부정교(不定教)이며, 화법사교란 장교(藏教)·통교(通教)·별교(別教)·원교(圓教)이다.

336) 화엄소주(華嚴疏主) : 중국 화엄종의 제4조 징관. 의천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화엄사상가. 『화엄경소(華嚴經疏)』 60권, 『수소연의초(隨疏演義鈔)』 90권을 지어 이후 80화엄 이해의 바탕을 이루었으므로 화엄소주라고 불렀다.

337) 현수오교(賢首五教) : 소승(小乘)·대승시교(大乘始教)·종교(終教)·돈교(頓教)·원교(圓教)의 오교(五教).

338) 징관의 『대방광불화엄경소』에 나온다. “교에 다섯 가지가 있으니 현수가 세운 것인데 자세하게는 따로 별장이 있다. 천태와 크게 같은데 다만 돈교를 더했다.”(『大方廣佛華嚴經疏』 권2 대35 p.512b15~16. 教類有五, 卽賢首所立, 廣有別章. 大同天台, 但加頓教.)

339) 제관(諦觀) : ?~970. 고려 광종 때의 승려. 중국 불교계가 회창폐불과 당말오대의 전란을 겪으며 경전에 바탕한 교학불교가 위축되자 오대의 오월왕(吳越王) 전홍숙(錢弘俶)이 교학 재흥을 지원하고자 해외 전적을 수집하였다. 960년에 고려로 사신을 보내 전적을 구하자, 고려에서는 961년에 광종의 명으로 제관이 전

의 법사가 있어, 대사의 교관을 강연하여 나라 밖에 유통시켰으나, 전하여
 익힘이 혹은 떨어지더니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저 의천은 감정이 북받쳐
 몸을 잊고 스승을 찾아 도를 물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전당(錢塘)³⁴⁰⁾의 자
 변(慈辯)대사³⁴¹⁾의 강석 아래에서 교관을 이어 받아 그 대략을 거칠게 알
 았습니다. 다른 날 고국에 돌아가면 목숨을 다하여 크게 드날려, 대사께서
 중생을 위해 가르침을 베푸신 노고의 덕에 보답하고자, 이에 맹세합니다.

大宋天台塔下親叅發願疏³⁴²⁾

右某, 稽首歸命, 白于天台教主智者大師曰. 嘗聞大師, 以五時
 八教, 判釋東流一代聖言, 罄無不盡. 而後世學佛者, 何莫由斯

적을 가지고 중국에 갔다. 제관은 나계사(螺溪寺)의 의적(義寂, 919~987)을 찾아가 가르침을 청하고 10여 년 동안 천태학을 연구하다 970년에 입적하였다. 그런 데 제관이 입적한 후 상사에서 방광(放光)하여 비로소 열어 보았더니 『천태사교의(天台四教儀)』가 있어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전한다.(『佛祖統紀』 권10 大49 p.206a18~b2) 『천태사교의』는 지의의 『사교의』나 관정의 『팔교대의』에서 천명한 오시팔교(五時八教)의 천태 교관은 물론 불교 전체의 체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교문과 관문의 양문으로 교관조직을 정리한 것으로 천태학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중요한 책이 되었다.

340) 전당(錢塘): 지금의 절강성 항주 지역.

341) 자변(慈辯)대사: 종간(從諫, ?~1108). 19세에 『범화경』으로 득도하여 상축사(上竺寺) 변재(辯才)를 찾아가 밤낮으로 배우고, 다시 천태종 산가과 사명지례(四明知禮)의 제자인 남병범진(南屏梵臻)에게 배우는데 물음에 대한 답변이 유창하여 범진이 탄복하였다. 명경사(明慶寺)에서 강의하여 많은 이를 이끌었고 원풍(元豐, 1078~1085)초에 수성사(壽聖寺)를 창건하였고, 1090년에는 변재가 군수 포종맹(蒲宗孟)에게 추천하여 상축사의 주지가 되었으며 포종맹은 자변대사의 호를 상주하였다. 의천이 송에 오자 포종맹의 주선으로 종간을 만나 교유하였다. 종간은 의천의 모친이 귀국을 바란다는 것을 듣고 의천에게 귀국을 권유하고 향로와 불자를 주어 법을 전수했다고 한다. 의천은 이어 지의의 탑을 찾아 종간에게서 전해받은 교관을 유통하겠다고 다짐하였다고 한다. 1108년에 수성사에 돌아와 입적하였다.(『佛祖統紀』 권13)

342) 『대각국사문집』 권14 韓4 pp.551c14~552a8

也? 故吾祖花嚴疏主云, “賢首五教, 大同天台.” 竊念本國, 昔有人師, 厥名諦觀, 講演大師教觀, 流通海外, 傳習或墜, 今也卽無. 某發憤忘身, 尋師問道. 今已錢塘慈辯大師講下, 承稟教觀, 粗知大略. 他日還鄉, 盡命弘揚, 以報大師, 爲物設教, 劬勞之德, 此其誓也.

4) 일본국의 여러 법사에게 교장(敎藏)을 모아줄 것을 요청하여 보내는 소

삼가 아뢰입니다.

여러 선지식들께서 우리나라에 인연하여 불법을 높이 받드신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저 『개원석교록(開元釋敎錄)』은 지승(智昇)스님이 편찬하였고, 『정원속개원석교록(貞元續開元釋敎錄)』은 원소(圓炤)스님이 편찬하였는데, 두 책에 수록된 경과 율과 논 등에다 송나라에 들어와 새로 번역한 경론을 합하여 모두 6천 여 권을 모두 이미 새겨 간행하여 마쳤습니다. 예부터 성인은 (…떨어져 나감)

寄日本國諸法師求集敎藏疏³⁴³⁾

敬白. 諸善友, 緣本國崇奉佛教, 日已久矣. 其開元釋敎錄, 智昇所撰, 貞元續開元釋敎錄, 圓炤所撰, 兩本所收經律論等, 洎大宋新翻經論, 摠六千來卷, 並已彫鏤施行訖. 自古聖(…)

343) 『대각국사문집』 권14 韓4 p.552a8~14

5) 세자(世子)³⁴⁴⁾를 대신하여 교장(敎藏) 모으기를 발원하는 소

〈19세에 짓다〉

제자 의천은 경건한 마음으로 본사이신 석가여래께 귀명함을 첫째로 삼고 (등등).

앞드려 비읍건대 밝게 알고자 원하는 뜻은 삼가 부처님께서³⁴⁵⁾ 가르침을 베푸심에, 참되고 변함없는 이치를 스스로만 즐길 수 없어 형상이 아닌 형상을 구름처럼 일으켰고, 대자대비로 말해 주지 않을 수 없어 말을 떠난 말로 가르치고 깨우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형상은 10중(十重)³⁴⁶⁾과 3류(三類)³⁴⁷⁾로 나누시고, 설법은 8장(八藏)³⁴⁸⁾과 5승(五乘)으로 보이셨습니다

344) 이 글을 지은 때가 의천의 19세인 1073년이니 문종(文宗) 27년으로, 이때의 세자는 뒤에 순종(順宗)으로 즉위하는 의천의 장형을 말한다. 문종(1046~1083 재위)의 왕자 중 제1자는 순종(1083 재위)이고, 제2자는 선종(宣宗, 1083~1094 재위), 제3자는 숙종(肅宗, 1095~1105 재위), 제4자가 의천이다. 이 4 왕자는 모두 인예태후(仁睿太后)의 소생이다.

345) 바가바(婆伽婆, 𑖀𑖃𑖦𑖅𑖱𑖫𑖞𑖟𑖶 bhagavat)는 부처님을 부르는 칭호의 하나. 박가범(薄伽梵)이라고도 하며 유덕(有德)·유대공덕(有大功德)·세존(世尊) 등으로 의역한다. 모든 덕을 갖추어 세상에서 존중하고 공경하는 자라는 뜻이니 곧 부처님의 존칭이다.

346) 10중(十重): 10중세계(十重世界). 『화엄경』에서는 삼천대천세계 외에 따로 초치 이상의 보살 경계에 10중세계가 있다고 한다. ①세계성(世界性) ②세계해(世界海) ③세계륜(世界輪) ④세계원만(世界圓滿) ⑤세계분별(世界分別) ⑥세계선(世界旋) ⑦세계전(世界轉) ⑧세계연화(世界蓮華) ⑨세계수미(世界須彌) ⑩세계상(世界相). (『華嚴經』(60) 권56)

347) 3류(三類): 삼류경(三類境), 3류(三類) 또는 3경(三境)이라 한다. 법상종의 교의로서, 인연하는 대상의 성질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하여 구별한 것이다. ①성경(性境)은 진실한 경계로서 본성을 지키고 마음에 따르지 않는다. ②독영경(獨影境)은 인연하는 마음이 허망 분별하여 일으키는 경계로서 본질이 없고 영상만

다. 우뢰같은 소리로 크게 올리시어 불법의 비[法雨]를 멀리 적시었고, 깨달음의 길을 가르쳐 해탈의 문을 열어주시며, 중생들의 근기를 열어 인도하시어 지극한 교화를 널리 펴시니, 이로부터 마음을 알고 성품을 보아 근원으로 돌아가는 자를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학림(鶴林)³⁴⁹⁾에서 광명을 거두시자 칠엽굴(七葉窟)³⁵⁰⁾에서 부처님 말

있다. ③대질경(帶質境)은 성경과 독영경의 힘이 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상분에 의지하는 본질을 띠고는 있지만 경계의 자상을 얻지는 못한다.

348) 8장(八藏):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여덟가지로 나눈 것. ①태화장(胎化藏)은 부처님께서 태 속에 계시면서 화현한 경전. ②중음장(中陰藏)은 지난 생에서 돌아간 다음 금생에 태어나기까지 중음에서의 경전. ③마하연방등장(摩訶衍法等藏)은 대승경전. ④계율장(戒律藏)은 율전. ⑤십주보살장(十住菩薩藏)은 보살이 수행하여 불교를 증득하는 것을 설한 대승경전. ⑥잡장(雜藏)은 삼승과 인천이 수행하여 과보를 증득하는 것을 설한 대소승의 경전. ⑦금강장(金剛藏)은 등각보살이 수행하여 과보를 증득하는 것을 설한 경전. ⑧불장(佛藏)은 여러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으로 신통변화하여 중생을 제도하는 대승경전.

349) 학림(鶴林):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쿠쉬나agara의 사라(娑羅)나무가 있는 곳.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자 사라나무숲은 동서가 합쳐 하나가 되고 남북이 합쳐 하나가 되어 보상(寶床)을 내려덮어 부처님을 덮었고, 사라나무들은 슬퍼하여 흰색으로 변해 흰두루미와 같이 되었으며 가지와 꽃과 열매와 껍질과 줄기는 터지고 떨어져 점점 말라붙어 꺾여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열반경』은 기술한다.(『大般涅槃經』 권1 大12 p.369b18~19. 爾時拘尸那城娑羅樹林, 其林變白猶如白鶴.; 『大般涅槃經後分』 권1 大12 p.905a8~12. 大覺世尊入涅槃已, 其娑羅林東西二雙合爲一樹, 南北二雙合爲一樹, 垂覆寶床蓋於如來. 其樹即時慘然變白, 猶如白鶴. 枝葉花果皮幹, 悉皆爆裂墮落, 漸漸枯悴, 摧折無餘.) 여기서 두루미와 같이 흰 숲이 되었다고 하여 학림 또는 백학림(白鶴林)·백림(白林)·곡림(鵠林)이라 한다. 그래서 학림은 곧 부처님의 열반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350) 칠엽굴(七葉窟): ㉠Sapta-parṇa-guhā. 왕사성 인근에 있는 비바라(毘婆羅, ㉡vebhāra)산 중턱에 있는 석굴. 굴 앞에 칠엽수가 있어 이런 이름이 생겨났다. 본래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던 곳이었는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가섭존자가 5백명의 뛰어난 제자를 모아 아난·우바리·가섭 등이 상수가 되어 경장과 율장의 결집(結集)을 이룩한 곳이다.

숨을 엮어 모았고[結集],³⁵¹⁾ 마명(馬鳴)³⁵²⁾과 용수(龍樹)³⁵³⁾보살 같은 선지식들이 논을 짓고 경을 크게 펴며, 무착(無着)³⁵⁴⁾과 천친(天親)³⁵⁵⁾보살 같

351) 결집(結集): ㉔ samgīti. 모아 외운다는 뜻. 부처님 열반 후 여러 불제자들이 모여 부처님께서 남기신 법의 산실을 방지하고 교권의 확립을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외워 모아 정리함으로써 교법을 전승하는데 바탕이 되도록 한 것. 부처님께서 살아 계실 때는 직접 묻고 의지하면 되었지만 열반에 드신 후에는 정리 체계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모여 각자 들은 설법 내용을 편집하여 정리한 것이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그해에 칠엽굴에서 행해진 결집이 1차 결집이고, 이후 교단과 교리의 변화를 수용하여 제2, 제3 등의 결집이 차례로 이루어졌다.

352) 마명(馬鳴): 100~160경. ㉔ Āśvaghoṣa. 브라만 집안에 태어나 가문의 전승으로 탁월한 논객의 능력을 보였다. 처음에는 외도를 공부하였으나 협존자(脅尊者)와의 대론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 불교를 공부하였다. 삼장에 두루 능통하고 내외전에 통달한 고전기 산스크리트문학의 선구자였다. 우미문체(優美文體)의 선구를 이루어 산스크리트 문학사상 불후의 명성을 얻었다. 불교를 크게 장려했던 카니쉬카왕과 깊은 관계를 맺었다. 부처님의 생애를 산스크리트어로 쓴 서사시 『불소행찬(佛所行讚, ㉔ Buddhacarita)』은 불교신앙을 열렬히 찬양한 불교문학의 명작으로 꼽힌다. 『대승장엄경(大乘莊嚴經)』을 지었으며, 『대승기신론』의 저자로 전해질만큼 대승불교를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353) 용수(龍樹): 150~250경. ㉔ Nāgārjuna, 용맹(龍猛)·용승(龍勝)이라고도 함. 인도 대승불교 중관학과(中觀學派)의 창시자. 남인도의 브라만 출신으로 베다 등을 익히다 욕심과 쾌락이 괴로움의 근본이 되는 것을 깨닫고 출가하였다. 소승을 배우다가 만족하지 못하여 설산지방으로 가서 대승 경전을 공부하고, 후에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대승 경전을 구하였다. 힘써 불법을 전파하고 대승경전의 주석서를 써서 대승교학의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대승 반야(般若) 학설을 전 인도에 두루 전파하였다. 이후 전개된 제 교학에 큰 영향을 미쳐 팔종(八宗)의 조사로 추앙될만큼 대승교학의 중심을 이룬다. 저술로는 『중론(中論)』·『공칠십론(空七十論)』·『회쟁론(迴諍論)』·『대승파유론(大乘破有論)』·『보리자랑론(菩提資糧論)』 등 매우 많아 천 부의 논주[千部論主]로 불리며, 『대지도론(大智度論)』·『십이문론(十二門論)』·『십주비바사론(十住毘婆沙論)』도 그의 저술로 보지만 논란이 있다.

354) 무착(無着): 310~390경. ㉔ Asaṅga. 4~5세기경에 활동한 인도 대승불교 유가행

은 선학들이 뒤를 이어 빛남을 더하였습니다. 그 후에 교학이 운에 따라 일어나고 때를 기다려 감화의 기운을 주어, 진나라의 감옥이 비록 형틀을 예리하게 했지만³⁵⁶⁾ 바야흐로 한나라가 시작되어 백마를 맞아들였습니다.³⁵⁷⁾ 가섭마등(迦葉摩騰)과 축법란(竺法蘭)의 이후에 현장(玄奘)³⁵⁸⁾과 의정(義

과(瑜伽行派)의 승려. 복인도 간다라국 푸루사푸라(Puruṣa-pura)의 바라문출신이다. 형제 3명이 모두 바수반두(㉔ Vasubandhu)로 불렸다. 처음에는 소승 설일체유부로 출가했으나 공의(空義)를 사유하면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자, 신통력으로 도솔천의 미륵보살(彌勒菩薩)에게 몇 번이나 왕래하며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등의 대승의 깊은 뜻을 배우고는 대승 유가의 법문을 널리 선양하였다고 전한다. 동생인 세친(世親, ㉔ Vasubandhu)도 본래는 소승을 배웠는데 후에 무착의 영향으로 대승으로 귀의하였다. 저술로는 『금강반야론(金剛般若論)』·『순중론(順中論)』·『섭대승론(攝大乘論)』·『대승아비달마잡집론(大乘阿毘達磨雜集論)』·『현양성교론송(顯揚聖教論頌)』·『육문교수습정론송(六門教授習定論頌)』 등이 있다.

355) 천친(天親) : 세친(世親, 320~400경). ㉔ Vasubandhu, 바수반두(婆數槃豆) 등으로 음역한다. 간다라국의 정통 브라만 출신. 형인 무착(無著, ㉔ Asaṅga)과 동생 사자각(師子覺)도 유명한 불교학자이다. 처음에는 소승불교 가운데의 최대학파였던 설일체유부와 경량부의 사상을 공부하여, 하루에 한 계송씩 600계를 지었다는 『아비달마구사론(阿毘達磨俱舍論)』을 저술하였다. 이 책은 소승불교의 특징 있는 여러 사상을 잘 간추려 엮은 것으로서, 인도·중국·한국·일본 등지에서 널리 읽혔다. 뒤에 형 무착의 권유로 대승불교로 전향하여, 미륵(彌勒)·무착을 이어 유식사상(唯識思想)을 『유식이십론(唯識二十論)』과 『유식삼십송(唯識三十頌)』에 결집하여 유식학(唯識學)을 완성시켰다. 무착과 세친의 대승불교는 유가행파로 불리어, 용수(龍樹) 등의 중관파와 더불어 인도 대승불교의 양대 주류를 이루었다. 저서로 『대승성업론(大乘成業論)』·『불성론(佛性論)』·『변중변론(辨中邊論)』 등이 있다.

356) 진시황이 분서갱유(焚書坑儒, 경서를 불태우고 유학자들을 파묻어 탄압한 일)한 사실을 말한다.

357) 중국에 불교가 처음 전해진 것이 후한 명제(明帝) 때인 서기 67년 경에 서역에서 흰 말에 불상과 불경을 싣고 오던 가섭마등과 축법란 두 사람을 맞아들인 데서 시작된 것을 말한다.

358) 현장(玄奘) : 602~664. 중국의 최대 역경가. 629년에 육로로 서역을 통해 인도에

淨)³⁵⁹⁾이 이미 다녀오니, 서역의 나그네가 동쪽으로 오기도 하고 중국 스님이 서쪽으로 가기도 하여, 별이 말해주는 뱃길이나 설산을 넘는 길로 가늘고 긴 길을 오고 갔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거듭 번역하여 불법의 가르침을 크게 펴니, 그 공이 크고 이 이로움이 넓었습니다. 이미 정법이 쇠퇴하고 근기와 인연이 점차 둔해져, 사의(四依)³⁶⁰⁾ 보살이 간간이 나와서 소(疏)를

가서 645년에 다시 육로로 돌아오기까지 17년 동안 각 지역을 순례하고 불법을 배웠다. 이를 기록한 가장 방대한 구법 여행기인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에는 오인도와 중앙아시아 및 기타 여러나라 모두 138개국의 불적과 나라 사정이 기술되어 있다. 현장은 인도에서 귀국하며 불상과 불사리와 산스크리트어 원전 657부를 가져왔다. 태종의 대대적인 후원으로 삼장법사(三藏法師)라는 호를 받았다. 본래 경·율·논 삼장에 통달한 고승을 삼장법사라 하지만 이런 유래 때문에 삼장법사는 흔히 현장을 가리킨다. 그는 장안에 건립한 역경원(譯經院)을 비롯한 흥복사(弘福寺)·자은사(慈恩寺) 등지에서 19년 동안 원전을 번역해냈다. 모두 74부 1,335권에 이르는 이들 경전은 당대에 모든 불전을 소개한 목록인 『개원석교록(開元釋教錄)』 수록 분량의 1/4에 해당하는 방대한 양이다. 주요 역경은 『대반야경』 600권을 비롯하여 『유가사지론』 100권, 『대비바사론』 200권, 『구사론』·『성유식론』·『섭대승론』 등이다. 이런 업적을 기려 현장의 번역을 신역(新譯)이라 하는데, 이는 이전의 번역을 대표하는 구역(舊譯)과 대비된다. 구역이 경전의 뜻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현장의 신역은 원전에 충실하고 글자 그대로 직역하는 원칙을 고수하여 정확한 인도불교의 의의 그대로를 전하고자 한 것이었다. 특히 현장은 19부 199권에 달하는 유가계 경론을 새롭게 번역 소개함으로써, 무착·세친에서 호법·계현에 이르는 학설을 정통으로 인도 유식사상을 집약하여 유식사상의 체계적인 이해를 제시하였다.

- 359) 의정(義淨) : 635~713. 당의 역경승. 어려서 출가하여 15세에 법현(法顯)과 현장(玄奘)의 서역구법을 동경하였다. 671년에 광주(廣州)에서 바닷길로 불서국(佛逝國)을 경유하여 인도에 들어간 뒤 불적을 두루 순례하고 날란다사에서 10년간 공부한 후 산스크리트본 4백부를 갖고 귀국하여 무후의 우대를 받았다. 불수기사(佛授記寺)에서 주석하며 711년까지 12년에 걸쳐 56부 230권을 한역하였다. 유식과 밀교 경전도 번역했지만 특히 계율 관계가 많다. 691년에 의정 자신이 보고 들은 인도에 구법한 승려들의 전기를 엮어 『대당서역구법고승전(大唐西域求法高僧傳)』을 편찬하였다. 구마라집, 진제, 현장과 함께 역경4대가로 꼽힌다.

만들어 교리를 드날리고, 삼장법사가 태어나서 초(鈔)를 지어 도우니, 남긴 글이 번성해져 세상에서 만들어 행하여 진실로 한 시대의 할 일을 다했다고 할 것입니다.

요드려 생각건대 저 의천은 처음부터 숙세의 인연으로 다행히 작은 선을 행하여 귀족에 몸을 의탁하여 태어남에 크게 편안함을 만났습니다. 거북이가 나무를 만나는 것처럼 어려운³⁶¹⁾ 사람의 몸을 얻어 거룩한 업을 부지런히 닦아, 용화회상(龍華會上)에서 미륵부처님을 만나 빨리 자비로운 모습을 뵈고자 하였습니다. 혹은 향기로운 먹과 은가루로 용궁(龍宮)의 장경을 베껴 이루고, 혹은 나무로 새기고 천에 그려 산같은 위엄이 비로소 판별되니, 어찌 훌륭한 채색이 원만해지지 못하고 이에 못난 몸이 병을 만나겠습니까? 비록 오음(五陰)³⁶²⁾은 싫지만 어찌 일세를 버리겠습니까? 선약(仙藥)과 영단(靈丹)은 섭생의 도라고 헛되이 말하지만, 자비의 도풍과 지혜의 감로는 실로 탐욕을 다스리는 방도입니다. 어찌 묘한 인연을 맺어 경건하게 힘써 빌어 혹은 부처님과 하늘의 보호하심에 힘입어 신체의 건강과

360) 사의(四依) 보살: 세간을 이롭게 하고 인천을 안락하게 하여, 중생들이 믿고 의지해야 할 네 가지 사람. ①3현(三賢)과 4선근(四善根)의 출세범부(出世凡夫), ②수다원(須陀洹)·사다함(斯陀含), ③아나함(阿那含), ④아라한(阿羅漢).

361) 거북이와 나무는 맹구우목(盲龜遇木)이라 하여 불법을 만나기 어려움을 비유하는 말이다. 바늘과 겨자씨의 비유인 개자침봉(芥子針鋒)과 나란히 쓰인다. 대해에 수명이 한량 없는 눈먼 거북이 한 마리가 있어 백년에 한번 그 머리를 물 위로 내미는데 바다 가운데 나무가 떠 있는데 구멍이 하나 뿐으로 파도에 따라 일렁이고 있다. 눈먼 거북이가 백년 만에 물 위에 나올 때 나무의 구멍을 만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경우이다. 그런데 불법을 만나는 것이 그처럼 어려운 기회라는 것이다. 『잡아함경』 권15 등에 나온다. 『大般涅槃經』 권2 大12 p.372c22~23 生世爲人難, 值佛世亦難. 猶如大海中, 盲龜遇浮孔.)

362) 오음(五陰): 오운(五蘊). 물질계와 정신계의 양면에 걸치는 일체 유위법(有爲法)을 모아 다섯 가지 종류로 구별한 색(色)·수(受)·상(想)·행(行)·식(識)의 총칭.

평화를 얻기에 이르며, 재앙을 씻어내고 수명을 연장하지 않을 것입니까?
대개 이와 같으니 어찌 오직 편안으로 가는 것만으로 만족하여 또한 소원을 이어 다시 닦겠습니까? 동방의 우리나라를³⁶³⁾ 돌아보고 본디 부처님의 교화를 우러러보니, 비록 경론은 갖추어졌으나 소초는 빠져 있습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요나라와 송나라의 백가의 가르침을 하나의 장경으로 모아 유통시키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부처님의 지혜가 더욱 빛나게 하고 사된 그물의 끈을 풀며, 상법(像法)을 중흥하여 국가를 널리 이롭게 하고, 사바세계의 중생들과 함께 금강의 좋은 씨앗을 심으며, 모두 보현보살의 도를 배워 길이 노사나불의 세계에서 노닐게 하소서.

代世子集教藏發願疏〈年十九作〉³⁶⁴⁾

右弟子, 虔心歸命, 本師釋迦如來爲首.(云云) 伏乞炤知願意者, 恭惟婆迦婆之設教也, 眞常不可以自樂, 故非像之像雲興, 大悲不可以無言, 故離說之說風警. 像則分乎十重三類, 說乃示其八藏五乘, 大振音雷, 遐沾法雨, 指菩提路, 開解脫門, 榮迪群機, 誕敷至化, 由是識心見性, 返本還源者, 可勝言哉? 及乎鶴樹韜光, 葉嵒結集, 馬鳴龍猛之輩, 造論而弘經, 無着天親之流, 增華於踵事. 厥後教興應運, 機感待時, 秦獄雖械其利, 方漢庭肇, 迎其白馬. 自騰蘭之後, 獎淨已還, 或梵客東遊, 華僧西邁, 星言雪踐, 線去絲來. 重譯眞詮, 丕宣名教, 厥功大矣, 其利博哉. 旣而正法下衰, 機緣漸鈍, 四依閒出, 製疏以發揚, 三藏挺生, 伸鈔以輔翼, 遺文蕃衍, 舉世奉行, 實可謂一代之

363) 원문의 뽕나무는 전설에 해가 부상(扶桑)나무 아래로 떠올라 그 나무 끝을 떨치며 솟아 오른다고 한데서, 해가 떠오르는 동방을 가리킴. 또 그 해가 떠오르는 나라인 동방의 우리나라를 상징함.

364) 『대각국사문집』 권14 韓4 p.552b20~553a12

能事畢矣. 伏念某, 肇自夙因, 幸修片善, 託于貴戚, 生遇大寧, 擬龜木之人身, 勤修勝業, 欲龍華之佛會, 早覲慈顏. 或香墨銀泥, 圖成於海藏, 或彫檀繪氎, 始辦於山儀, 何勝采而未圓, 乃眇躬而邁疾? 雖五陰而可厭, 奚一世以當拋? 仙藥靈丹, 空曰攝生之道, 慈風慧露, 實爲調耆之方. 盍締妙緣, 虔祈茂祉, 儻賴佛天之扶衛, 獲臻身體之康和, 滌蕩災萌, 增延壽筭? 夫如是則豈唯往寧以斯滿, 抑亦續願而更修? 顧茲桑木之區, 素仰竺乾之化, 雖經論而具矣, 然疏鈔以闕如. 欲以于古于今, 大遼大宋, 凡有百家之科教, 集爲一藏以流通. 俾夫佛日增光, 邪網解紐, 重興像法, 普利國家, 共沙界之群生, 播金剛之善種, 僉學普賢之道, 長遊盧舍之鄉.

6) 우란분일(盂蘭盆日)에 연비(燃臂)³⁶⁵⁾하고 발원하는 소

앞드려 생각건대, 『범망경』에 법을 중히 여기는 규범을 말하여 연비(燃臂)하는 것을 먼저 가르치셨고,³⁶⁶⁾ 『능엄경』에 빚진 것을 갚는 규범을 말하여³⁶⁷⁾ 몸을 태우는 것을 간곡히 보이셨으니, 하물며 부모의 수고하심에 어

365) 연비(燃臂) : 소비(燒臂)라고도 함. 팔을 태운다는 뜻. 불교에서 오계를 받든가 하는 의식에 팔에 초침지를 대고 태워 그 동안의 모든 업장을 태워버린다는 의미를 살린 의식.

366) 『범망경』 권2 大24 p.1006a18~20. 應如法爲說一切苦行, 若燒身燒臂燒指, 若不燒身臂指供養諸佛, 非出家菩薩.

367) 『능엄경(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권8 大19 p.945b3~5. 阿難是等皆以業火乾枯, 酬其宿債傍爲畜生, 此等亦皆自虛妄業之所招引, 若悟菩提, 則此妄緣本無所有.

찌 정신의 애닦고 간절함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저 의천은 다행히 천 년에 한 번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나 일승의 업을 오로지 하였는데, 오묘한 도가 사람에 있다 하여 비록 마음을 닦은 지 오래이나, 현묘한 말은 조짐이 끊겼으니 어찌 얼굴을 담장에 대고 오래 지내겠습니까? 몇 번이나 (송나라에) 유학하고자 하였으나 매번 장애를 만나니, 죄업의 잘못이 깊이 맺혀 있음을 탄식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쇠퇴함을 슬퍼하였습니다. 만일 그윽한 가호가 아니었다면 어찌 본래의 소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감히 몸으로 보시하는 공덕을 본받아, 가만히 지극한 정성에 감응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앞드려 빌건대 본사이신 석가세존을 으뜸으로 한 많은 여러 성중들께서는 자비를 저버리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 거두어 주소서. 원컨대 한 가닥 향으로 팔을 태워 오늘의 좋은 인연에 힘입게 하고, 몸이 백 개의 성을 다 거쳐 다른 해에 만남을 이루게 하소서. 쉬었던 진리의 바람이 다시 일고 걷혔던 불법의 비가 다시 쏟아져, 원종(圓宗)이 길이 퍼지게 하고 마침내 온전한 효도를 이루게 하소서. 의천은 북받치는 지극한 마음으로 귀명하나이다.

蘭盆日燒臂發願疏³⁶⁸⁾

右伏以, 梵網垂重法之規, 先教燒臂, 楞嚴談酬債之範, 曲示熬身, 矧惟父母之劬勞, 盍罄精神之哀懇? 某運逢千載, 業擅³⁶⁹⁾一乘, 妙道在人, 雖剝心而斯久, 玄言絕朕, 奈牆面以居多? 屢欲遊叅, 每看障礙, 嘆罪愆之深結, 悲教法之下衰. 若匪冥加, 豈諧素願? 敢効功於內施, 竊扣應於克誠. 伏乞本師世尊爲首, 多諸聖衆等, 不捨慈悲, 哀憐納受. 願使臂燒一炷, 賴今日

368) 『대각국사문집』 권15 韓4 p.553b2~15

369) 대본과 판본의 擅을 내용상 擅으로 교감함.

之良因, 躬歷百城, 遂他年之寄遇. 眞風息而復扇, 法雨收而更霧, 永播圓宗, 終成全孝. 某歸命激切之至.

7) 선종(宣宗)을 대신하여 여러 종파의 교장(敎藏)을 새겨 인쇄하는 소

의천은 앞드려 생각하건대, 삼장의 글을 펴에 백 명의 왕이 믿었고, 오래 오래 전하게 되고 우러러 사모함이 더욱 깊었습니다. 대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경(經)이며, 경에서 유래하는 것이 논(論)이니, 경전은 논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고, 논은 소(疏)를 기다려 통하며, 소는 의(義)를 총괄하여 드러나고, 의는 논사로 말미암아 서술됩니다. 이렇게 서로 이어서 실을 뽑듯이 풀어내, 역대로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자(智者)대사는 천태산(天台山)³⁷⁰에서 가르침을 세웠고, 혜원(惠遠)³⁷¹ 공은 정영사(淨

370) 천태산(天台山): 중국 절강성 천태현(天台縣)에 있는 산 이름. 575년에 지의(智顗)가 이 산에 들어가 교의를 펼치자, 수 양제가 지의의 입적 후 그를 위해 국청사를 창건하여 천태 조정이 되게 하였다. 산은 위가 여덟겹인데 아래서 보면 하나의 듯처럼 1만 8천 길이나 우뚝 솟아 북두성(北斗星)과 견우성(牽牛星)의 나뉘고 같고 위로는 삼태성(三台星)에 상응하여 천태산이라 하였다 한다. 성인이 노닐고 신선이 사는 곳으로 알려져 명소가 많고 수행처가 곳곳에 세워졌다.

371) 혜원(惠遠): 523~592. 남북조 말기에서 수에 걸쳐 활동한 승려. 13세에 승사(僧思)에게 출가하여 16세에 잠(湛)을사를 따라 업도에 가서 대소승 경전을 배우고 20세에 법상(法上)에게서 구족계를 받았다. 대은(大隱)에게 사분율을 익힌 다음 법상을 오로지 사사하였다. 북주(北周) 무제(武帝)가 폐불을 시행하자 누구도 항의하지 못했다. 혜원만이 삼보를 파멸하면 아버지육에 떨어질 것이라고 항의하였으나 무제는 백성들이 즐거움을 얻는다면 지옥도 불사하겠다고 폐불을 단행하였다. 이 사태에 은거하고 있다가 수가 일어나자 낙읍에서 법문을 크게 열었고 문제가 중히 여겨 홍선사에 주석하게 하였다. 다시 정영사(淨影寺)를 세워

影寺)³⁷²⁾에서 가르침을 내렸으며, 자은(慈恩)대사와 안국(安國)³⁷³⁾대사는 여러 학설을 3시(三時)로 모았고, 현수(賢首)대사와 청량(淸涼)대사는 서로 다른 견해를 5교(五敎)로 모았습니다. 남산종(南山宗)³⁷⁴⁾의 『행사초(行

강학하게 하니 여기서 유래하여 여산 해원과 구별하여 정영사해원이라고 불렀다. 지론종 남도파의 대가로 여러 교학에 뛰어난 남북조 불교의 중심인물이다. 만년에는 담천에게서 『섭대승론』을 들었다. 불교 술어를 집대성한 『대승의장(大乘義章)』을 비롯하여 『화엄경소(華嚴經疏)』·『대반열반경의기(大般涅槃經義記)』·『법화경소(法華經疏)』 등 20여부 1백여권의 저술을 남겼다.

372) 정영사(淨影寺) : 섬서성 서안(西安)에 있던 절. 남북조를 마감하고 천하를 통일한 수 문제가 해원을 중심으로 학승 2백여인을 모아 대흥선사(大興善寺)에서 불법을 널리 펴게 했는데, 흥선사가 비좁아 587년에 새로 정영사를 창건하여 활동하게 하였다. 해원은 이곳에서 『열반경』, 『십지론』 등을 강설하여 크게 번성하였다. 이후 해원 문하의 열반학파의 중심이 되었다.

373) 안국(安國) : 안국사의 이섭(利涉). 당의 승려. 서역인으로 브라만 집안에서 태어나 현장을 만나 출가하여 이름 높은 제자가 되었다. 중종이 중히 여겨 백관들이 그와 교유하고자 하였다. 개원(開元, 713~741)연간에 안국사(安國寺)에서 『화엄경』을 강의하는데 모인 대중들이 시주한 것이 산처럼 쌓였다고 한다. 이를 위정(韋正)이 좋지 않게 생각하여 상주하자, 현종은 불교와 도교의 대론을 벌이게 하여 위정이 이섭에게 굴복하였다. 이로 인해 『입법당론(立法幢論)』을 지었다. 후에 한동(漢東)에 유배되었다 풀려나기도 하고 용흥사(龍興寺)에서 지내기도 하였다. 생몰년은 알 수 없는데, 대력(大曆, 766~779)연간에 원조(圓照)가 그 언행을 모아 「대당안국사이섭법사전(大唐安國寺利涉法師傳)」 10권을 지었다.

374) 남산종(南山宗) : 상부종(相部宗)·동탑종(東塔宗)과 함께 당의 계율종의 3분파의 하나. 남산율(南山律)·사분종(四分宗)·행사방비지악종(行事防非止惡宗)이라고도 한다. 도선(道宣)율사가 개창하였다. 도선은 복위 혜광(慧光)으로부터 전해진 사분율의를 전수하여 626년부터 645년 사이에 남산종 5대부라고 불리는 『사분율산번보결행사초(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사분율습비니의초(四分律拾毘尼義鈔)』 등을 저술하고 중남산에 계단(戒壇)을 창설하여 수계의식을 제정하였다. 도선은 계율을 둘로 나누어 지지(止持)는 악을 짓지 않는다는 뜻으로 비구 250계, 비구니 348계를 규정한 것이고, 작지(作持)는 선을 행한다는 뜻으로 수계(受戒)·설계(說戒)·안거(安居)·의식(衣食) 등의 여러 규정을 포괄함으로써 사분율이 형식상 소승에 속하나 내용은 대승임을 표방하였다. 후세에 상부

事鈔)』³⁷⁵⁾와 동탑종(東塔宗)³⁷⁶⁾의 『개종기(開宗記)』³⁷⁷⁾ 이후로 여러 종사에 이르러 거의 백가(百家)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맹가(孟軻)와 양웅(楊雄)³⁷⁸⁾이 모두 도를 이야기하여 함께 공자(孔子)의 무리가 되었고, 공양씨(公羊氏)³⁷⁹⁾와 곡량씨(穀梁氏)³⁸⁰⁾가 경전을 받음에 나란히 『춘추(春秋)』의

종과 동탑종은 쇠퇴하고 남산종만 성행하였다.

- 375) 『행사초(行事鈔)』: 남산율종을 개창한 도선의 사분율 관련 저작 중 가장 중요한 『사분율산번보궐행사초(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 12권. 『사분율행사초』 또는 『행사초』라고 줄여 부른다. 『사분율』을 잘라내고 보완하며 그 중요한 뜻을 서술하고, 여러 율사의 설을 참작하여 계율을 행하는 실제 규정을 상세히 서술한 것이다. 이후 승풍과 위의를 확립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내용은 30편으로 나뉘어 있다.
- 376) 동탑종(東塔宗): 남산종(南山宗)·상부종(相部宗)과 함께 당의 계율종 3분파의 하나. 동탑(東塔)의 회소(懷素, 634~707) 율사는 상부종의 법려(法礪)나 남산종의 도선(道宣)과 다른 독자의 견해를 펴 동탑종의 의리를 이루었다. 12세에 현장에게 출가하여 경론을 익힌 회소는 도선에게 『사분율행사초』를 익히고 다시 법려의 제자인 도성(道成)에게서 『사분율소』를 배웠다. 그러나 고인들의 뜻이 다 드러나지 않았다고 개탄하고 『사분율개종기(四分律開宗記)』 20권을 지어 다른 소의 잘못 16군데를 지적하여 독자의 교설을 세웠다. 당시 사람들이 이를 신소(新疏)라 불러 법려의 소와 구별하였다. 이로부터 동탑종이 시작되었다.
- 377) 『개종기(開宗記)』: 당대 동탑율종의 중심이 되는 회소가 지은 사분율 주석서. 10권 혹은 20권. 『사분율소(四分律疏)』라고도 한다. 회소는 법려의 사분율을 배웠으나 법려의 설이 미진하다고 여겨 이 책을 682년에 완성하였다. 법려의 『사분율소』에 보이는 16군데의 잘못을 지적하여 법려의 구소에 대해 이를 신소라 불렀다. 이런 비판에 대해 상부종에서는 정빈(定賓)이 『사분율소식중의기(四分律疏飾宗義記)』 20권과 『파미집기(破迷執記)』 1권을 지어 반박하였다.
- 378) 양웅(楊雄): 서기전 53~18. 전한 말의 학자이자 문인. 한(漢)나라를 대표하는 식견을 지녔다. 성제(成帝) 때 궁정문인의 한 사람으로 성제의 여행에 수행하며 쓴 「감천부(甘泉賦)」, 「하동부(河東賦)」 등으로 성제의 사치를 꼬집었다.
- 379) 공양씨(公羊氏): 전국시대(戰國時代)에 『춘추(春秋)』에 대한 해석서인 『공양전(公羊傳)』을 지은 공양고(公羊高). 이 『공양전』과 곡량숙(穀梁淑)의 『곡량전(穀梁傳)』, 좌구명(左丘明)의 『좌씨전(左氏傳)』을 춘추삼전(春秋三傳)이라 한다.

학설에 자리하게 된 것과 같습니다. 마침내 왕실의 계보에 단정하고 성인의 말씀을 윤색하여 세상에 나가는 규범을 세우고 길이 깎아낼 수 없는 법을 지었습니다.

가만히 생각건대 우리나라도 원효 성사로부터 못한 이 몸에 이르기까지 여러 선업에 힘써서 나라를 보호하고 지극한 어짊에 힘입어 만물을 기르려 하였습니다. 현종(顯宗)³⁸¹⁾께서는 5천축의 비장해온 대장경을 새기셨고 문종(文宗)³⁸²⁾께서는 10만송의 경전을 새기셨습니다. 경전의 정문(正文)은 비록 멀고 가까운데 퍼졌지만 장소(章疏)는 거의 잃어버릴 정도입니다. 참으로 남은 것을 크게 보호하는 것은 진실로 …에 있으니 (떨어져 나감)

代宣王諸宗教藏彫印疏³⁸³⁾

右伏，以三藏宣文，百王取信，暨流傳之綿久，在景仰以增深。
且夫佛之說經，由經者論，經由論顯，論待疏通，疏摠義章，義

『공양전』과 『곡량전』은 경문(經文)의 해석 중심이고, 『좌씨전』은 『춘추』에 기록된 사실(史實)에 대한 역사적 실증적 해석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380) 곡량씨(穀梁氏) : 전국시대(戰國時代)에 『춘추(春秋)』에 대한 해석서인 『곡량전(穀梁傳)』을 지은 곡량숙(穀梁俶, 穀梁赤이라고도 함). 이 『곡량전』과 『공양전』과 『좌씨전』을 춘추삼전(春秋三傳)이라 한다.

381) 현종(顯宗) : 고려 제8대 왕. 재위 1009~1031년. 이름은 왕순(王詢), 자는 안세(安世), 태조(太祖)의 여덟째 아들인 안종(安宗) 옥(郁)의 아들이다. 승려가 되어 송교사(崇敎寺)와 신헌사(神穴寺)에 있다가 강조(康兆)의 정변에 의해 목종이 폐위되자, 1009년 2월에 왕위에 올랐다. 고려왕조가 성립한 지 거의 1세기가 지난 시기에 왕위에 오른 현종은 호족세력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책과 군현제의 완성으로 고려왕조의 기틀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382) 문종(文宗) : 고려 제11대 왕. 재위 1046~1083년. 이름은 휘(徽), 자는 축유(燭幽), 현종의 셋째 아들. 의천과 그의 형들인 순종·선종·숙종의 부왕. 재위 37년 동안 문물제도가 크게 정비되어 이 시기를 고려의 황금기라고 한다. 불교·유교를 비롯해서 미술·공예에 이르기까지 문화 전반에 걸쳐 큰 발전을 보았다.

383) 『대각국사문집』 권15 韓4 p.553b16~c18

由師述，繼相紬繹，歷代有人。故得智者立言於天台，遠公垂訓於淨影，慈恩安國，該衆說於三時，賢首清涼，會異端於五教。至若南山之行事，東塔之開宗，降及諸家，殆盈百氏。斯皆軻雄談道，俱爲闕里之徒，公穀受經，並列春秋之學。遂使丹青玉牒，潤色金言，垂爲出世之規，永作不刊之典。竊念國家，自從元聖，迄至眇躬，敦衆善以保邦，賴至仁而育物。顯祖則彫五千軸之秘藏，文考乃鏤十萬頌之契經。正文雖布於邇遐，章疏或幾乎墜失。苟存弘護，寔在(…)

8) 반야도량소(般若道場疏)

엎드려 생각건대 부처님³⁸⁴⁾의 덕이 두터우셔서 실로 삼계(三界)의 큰 영웅이 되셨고, 반야(般若)의 공덕이 높아 이에 사생(四生)³⁸⁵⁾의 아름다운 모범을 지으셨습니다. 의천은 일찍부터 미묘한 도를 희구하고 출가의 무리에 함부로 참여하여, 불법을 연마하고 맛보아 상법과 말법 시대에 다시 빛나게 하고자 하였고, 성상의 아침을 바르게 도와 동방(東方)³⁸⁶⁾의 나라를 길이 도울 것을 기약하였습니다. 화택(火宅)³⁸⁷⁾의 괴로운 바구니는 어떻게 하

384) 발타(勃陀)는 불타(佛陀, 卽Buddha)의 다른 음역. 부처님.

385) 사생(四生): 삼계육도의 생물이 태어나는 네 가지 종류. ①태생(胎生, 卽jarāyuja-yoni). 뱃속의 모태를 통해 낳는 사람이나 짐승. ②난생(卵生, 卽andaja-yoni). 알에서 태어나는 새나 물고기. ③습생(濕生, 卽samsvedajā-yoni). 습기로 인해 태어나는 벌레 등. 이들은 인연생(因緣生)·한열화합생(寒熱和合生)이라고도 한다. ④화생(化生, 卽upapāduka-yoni). 다른 것에 의지함이 없이 스스로의 업력에 의해 갑자기 변화하여 만들어지는 것. 제천과 지옥의 중유(中有)의 유정 등.

386) 동방(東方): 인방(仁方)은 동쪽, 곧 우리나라를 말함.

며, 혹은 머리를 태워 재앙에서 달아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감히 승려들을 이끌어 공손히 청정한 도량을 열어, 이 뛰어난 진리를 굴리고 제가 향을 사르어 정진하는 마음을 드러내려 합니다. 위엄을 삼보에 의지하기를 바라고 사마(四魔)³⁸⁸⁾의 유혹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옆드려 바라건대 여러 성인들께서는 광명을 드리워 풍성한 복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 천인은 내려 보시어 갖가지 재앙을 모두 없애 주소서.

般若道場疏³⁸⁹⁾

右伏, 以勃陀德厚, 寔爲三界之大雄, 般若功高, 乃作四生之懿範. 某早希妙道, 叨齒眞流, 研味佛乘, 擬再光於像季, 匡毗聖

387) 화택(火宅): 미혹한 중생이 사는 삼계를 비유하여 쓰는 말. 불은 오탁악세에 비유되고, 집은 삼계에 비유된다. 『법화경』의 7유 중에 화택유(火宅喻)가 있다. 중생이 삼계 가운데 온갖 고통을 받고 있으나 몸이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는 모른다. 이는 집에 불이 났는데 집 안의 아이들은 몸이 불 속에 있는 줄도 모르고 놀이를 즐기는 것과 같다. 『법화경』(권2譬喻品)에서는 문이 하나 뿐인 저택에 불이 났는데 놀이에 정신이 팔린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진귀한 물건이 양거(羊車)·녹거(鹿車)·우거(牛車)에 가득 실려 있으니 집에서 나와 가지라고 소리쳐 구한다고 한다. 이때 아이들은 중생이고 장자는 부처님을 비유한 것이다.

388) 사마(四魔): 사람의 신명(身命)과 혜명(慧命)을 앗아가는 네 가지의 마귀니. ① 온마(蘊魔, ㉠skandha-māra). 오온이 쌓여서 생긴 생사의 괴로움. ② 번뇌마(煩惱魔, ㉠kleśa-māra). 심신을 어지럽게 하여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108번뇌 등. ③ 사마(死魔, ㉠mrtyu-māra). 사대가 흠어져 죽게 되어 수행인이 혜명을 잊지 못하는 것. ④ 천자마(天子魔, ㉠deva-putra-māra).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현세의 법을 질투하여 요란하게 하여 수행인 출세간의 선근을 얻지 못하게 하는 타화자재천의 마왕. 이에 대한 대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제법이 환상과 같다는 것을 투철히 관찰하면 온마를 없앨 수 있고, 제법이 공함을 분명히 알면 번뇌마를 다스릴 수 있고, 제법이 생함도 멸함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 사마를 없앨 수 있고, 교만한 마음을 없애면 천마를 없앨 수 있다고 한다.

389) 『대각국사문집』 권15 韓4 p.553c19~554a8

旦，期永贊於仁方。其奈火宅之煩籠，或有燃頭之逃厄？今者
敢延緇侶，恭啓淨場，轉茲殊勝之詮，表我焚勤之素。庶憑威於
三寶，冀免撓於四魔。伏願衆聖垂光，用致穰穰之福，諸天降
鑑，盡祛種種之災。



文 文

- 1) 경덕(景德)국사 제문
- 2) 분황사(芬皇寺) 원효(元曉)성사 제문
- 3) 용두사(龍頭寺) 우상(祐詳)대사 제문
- 4) 새로 공부하는 학도 치수(繼秀)에게 보임
- 5) 새로 공부하는 학도 지웅(智雄)에게 보임
- 6) 새로 공부하는 학도 혜수(慧修)에게 보임
- 7) 새로 공부하는 학도 덕칭(德稱)에게 보임



1) 경덕(景德)국사 제문

유(惟) 몇 년 몇 월 몇 일에 전교(傳敎) 제자인 우세(祐世) 승통(僧統)의 천은 삼가 다과와 계절 음식의 제찬을 마련하여 돌아가신 스승이신 경덕국사(景德國師)³⁹⁰⁾의 영령에 경건히 제사를 받들어 올립니다. 돌아가신 부모에 못한 효도를 한탄함³⁹¹⁾은 옛날의 철인이 남긴 말씀이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슬퍼함³⁹²⁾은 선현 유자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불교에서도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만 풍속이 각박해지고 인심은 거칠어지며 세월이 달라지고 시대는 변하여, 스승과 제자의 의리는 알아지고 은혜와 믿음의 도는 타락했습니다. 의리를 논하고 경전을 강연하는데 비록 불법의 종장(宗匠)이라 하나 말을 살펴보고 행동을 보니 소인이 많습니다. 세상이 이와 같은데 제가 장차 무어라고 말하겠습니까? 지금 억지로 효도를 생각하여 인륜에 어긋난 행동이나 벗어나기를 바라나니, 지성의 감동에야 어찌 감응하심이 없겠습니까?

390) 경덕국사(景德國師) : 난원(爛圓, 999~1066). 고려 중기의 화엄종 승려. 안산(安山) 출신으로 현종의 국구(國舅)였던 김은부(金殷傳)의 아들이다. 문종 때 개경의 영통사(靈通寺)에 있었으며, 화엄종 도승통(都僧統)으로 활동하였다. 1058년에 왕명으로 문종의 넷째 왕자 후(熙)를 의천으로 출가시켜 화엄교관을 가르쳤다. 「영통사 대각국사비문」에는 창원(昶元)과 낙진(樂眞) 등 원래 경덕국사의 문인이었던 이들이 여러 명 의천의 문도로 올라 있다. 이는 의천이 스승인 난원의 문도들을 이끌고 자신의 문하로 재조직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391) 바람과 나무의 탄식[風樹之嘆]은 나무는 가만히 있고 싶어 하지만 바람이 멈추지 않는다는 뜻. 『한시외전(韓詩外傳)』 권9에 “나무가 조용히 하려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이 봉양하려 하나 아버지가 기다려주지 않는다.”(樹欲靜而風不止, 子欲養而親不待也.)고 하였다.

392) 서리와 이슬의 슬픔[霜露之悲]은 부모나 선조에 대한 슬픈 마음을 말한다. 비슷한 말로 상로지감(霜露之感)은 부모나 조상에 대해 생각하는 마음을 말한다.

祭景德國師文³⁹³⁾

維年月日, 傳教弟子祐世僧統某, 謹以茶菓時食之奠, 敬祭于先師景德國師之靈. 風樹之嘆, 往哲之遺言, 霜露之悲, 先儒之格訓. 在吾釋氏, 豈不然乎? 但以俗薄人衰, 時移代變, 師資義淺, 恩信道墮. 論義講經, 雖云法匠, 察言觀行, 多是小人. 世也如斯, 予將何言? 今者勉強孝思, 冀逃悖逆, 至誠之感, 寧無應乎?

2) 분황사(芬皇寺) 원효(元曉)성사 제문

유(惟) 몇 년 몇 월 몇 일에 법을 구하는 사문 의천은 삼가 다과와 계절 음식의 제찬을 마련하여 해동교주(海東敎主)이신 원효(元曉)보살께 받들어 올립니다.

엿드려 생각건대, 이치는 교학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고 도는 사람을 통해서 널리 퍼집니다. 풍속이 천박해지고 시절이 경박해짐에 미쳐 사람은 떠나가고 도는 없어지게 됩니다. 스승은 이미 그 종파의 익힘만 경계지를 뿐이요 제자 또한 그 보고 들은 것만 지킬 뿐입니다. 자은(慈恩)대사의 백본(百本)³⁹⁴⁾의 이야기는 오직 명상(名相)에 얽매었고, 천태산(天台山)에서의 구순(九旬)의 설법³⁹⁵⁾은 단지 이치로 관하는³⁹⁶⁾ 것만을 숭상했습니다. 비록

393) 『대각국사문집』 권16 韓4 p.554c5~19

394) 백본(百本): 현장(玄奘)에 이어 중국 법상종을 완성한 자은규기(慈恩窺基)가 여러 경론에 대한 주석서를 남겨 백본소주(百本疏主)라 불린다. 자은중(곧 법상종)의 가장 중요한 논서인 『성유식론』이 백가지의 논을 종합한 것이라 한다.

395) 천태 지의가 천태산에서 90일 동안 설법한 것. 송 종의(從義)의 『천태삼대부보주

본받을 만한 글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아직 두루 통하는 가르침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오직 우리 해동보살만이 성(性)과 상(相)을 원융하게 밝히시고, 고금을 조용히 묶어내어, 백가의 다른 다툼의 실마리를 화쟁하고 일대의 지극한 공론(公論)을 얻으셨습니다. 하물며 신통력은 헤아리기 어렵고 미묘한 작용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세상과 함께 하셨으나³⁹⁷⁾ 그 진면목을 더럽히지 않으셨고, 세상에서 활동하셨으나 그 본체가 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빛나는 이름은 중국과 인도에 떨치신 바 되었고, 자비로운 교화는 이승과 저승에 끼친 바 되었으니, (교화를) 도와서 드날린 업적은 참으로 비겨 의론하기 어렵습니다.

제자 의천은 하늘의 도움으로 일찍 부처님의 법을 사모하여 선대 철인들의 사이에서 두루 보았으나 성사보다 나은 이는 없었습니다. 미묘한 말씀이 꼬이고 묶인 것을 애통해 하며 지극한 도가 쇠퇴해 감을 애석히 여겨, 멀리 명산을 찾아 멀리서 사라진 저술을 구하셨습니다. 지금 계림(鷄林)³⁹⁸⁾의 옛 절³⁹⁹⁾에서 다행히 살아 계신 듯한 모습을 뵈고,⁴⁰⁰⁾ 영취산(靈鷲山)⁴⁰¹⁾

(天台三大部補注)』서문(卅28 p.121a11~13)에 “故以五義釋題，四科文句，九句宣演，明靜法門，解行俱陳，義觀兼舉，真可謂行人之心鏡，巨夜之明燈矣。”라고 하였다.

396) 천태종에서는 현상을 관함[事觀]과 이치로 관함[理觀]을 말한다. 형계잠연(荊溪湛然)은 『지관의례(止觀義例)』에서 『점찰경』을 인용하여 유식관(唯識觀)과 실상관(實相觀)을 말했다. 유식관은 삼성에 맡겨 실상의 이치에 이르게 하는 사관이요, 실상관은 실상을 통달하여 관하는 이관이라 하였다. 사관은 삼라만상의 차별된 현상을 관조하는 것이며 이관은 생함이 없는 평등한 이치를 관조하는 것을 말한다.

397) 화광동진(和光同塵)은 『노자』에 나오는 말. 빛을 감추고 세상의 티끌에 섞임.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세속에 따름을 말함. 『노자』에 “知者不言，言者不知，塞其兌閉其門，挫其銳解其粉，和其光同其塵，是謂玄同。”이라고 하였다.

398) 계림(鷄林) : 경주(慶州). 신라를 계림이라고도 불렀으며, 신라의 도읍지였던 경주를 계림이라고도 하였다.

399) 옛 절 : 원효가 주석했던 경주의 분황사(芬皇寺). 원효의 아들 설총(薛聰)이 이

의 옛날(부처님 설법하시던) 봉우리에서 처음 뵈었던 회상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⁴⁰²⁾ 겨우 변변치 못한 공양에 기대어 감히 작은 정성을 드리오니, 바라건대 두터운 자비로 밝게 굽어 살펴 주소서.

祭芬皇寺曉聖文⁴⁰³⁾

維年月日, 求法沙門某, 謹以茶菓時食之尊, 致供于海東教主元曉菩薩. 伏以理由教現, 道藉人弘. 逮俗薄而時澆, 乃人離而道喪. 師旣各封其宗習, 資亦互執其見聞. 至如慈恩百本之談, 唯拘名相, 台嶺九旬之說, 但尚理觀. 雖云取則之文, 未曰通方之訓. 唯我海東菩薩, 融明性相, 隱括古今, 和百家異諍之端, 得一代至公之論. 而況神通不測, 妙用難思. 塵雖同而不汚其眞, 光雖和而不渝其體. 命名所以振華梵, 慈化所以被幽明, 其在贊揚, 固難擬議. 某資天幸, 早慕佛乘, 歷觀先哲之間, 無出聖師之右. 痛微言之紕繆, 惜至道之陵夷, 遠訪名山, 遐求墜典. 今者雞林古寺, 幸瞻如在之容, 驚嶺舊峯, 似值當初之會. 聊憑薄供, 敢敘微誠, 仰冀厚慈, 俯垂明鑑.

절에 원효의 뼈를 갈아 만든 상을 봉안하고 예경하였다고 한다.

400) 『삼국유사』에는 원효의 아들인 설총(薛聰)이 원효의 유골을 모아 형상을 빚어 분황사(芬皇寺)에 봉안하여 예경하였다고 한다.(권4 의해 元曉不羈) 의천이 경주의 옛 절에서 보았다는 것은 이 분황사의 소상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401) 영취산: 영취산(靈鷲山, 𑖀𑖔𑖔𑖔𑖔). 음역하여 기사굴산(耆闍崛山)이라고 한다. 인도 마가다국(摩揭陀國) 왕사성(王舍城, 𑖀𑖔𑖔𑖔𑖔) 동북쪽에 있는 산으로, 산 모양이 독수리 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부처님이 이곳에서 많은 경전을 설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불교의 성지 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402) 원효의 소상을 본 것을 부처님께서 영취산(靈鷲山)에서 설법하실 때 뵈은 것에 비유하여 말한 것.

403) 『대각국사문집』 권16 韓 p.555a9~b4

3) 용두사(龍頭寺)⁴⁰⁴⁾ 우상(祐詳)대사 제문

유(惟) 몇 년 몇 월 몇 일에 흥왕사(興王寺) 주지이며 전현수교관(傳賢首敎觀)인 우세(祐世) 승통(僧統)은 삼가 시자(侍者) 아무개를 보내 다식(茶食)의 제찬을 갖추어 돌아가신 용두사(龍頭寺) 유가(瑜伽)⁴⁰⁵⁾ 강주의 영령께 제사를 올리나이다.

생각건대 대사께서는 재주와 이름이 일찍 드러났고 덕행이 일찍 알려져, 보처(補處)보살⁴⁰⁶⁾의 글을 강론하는 데 이치와 본성을 다하였고 자은(慈恩)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 은밀한 뜻을 드러내고 깊은 뜻을 열었습니다. 바야흐로 가르치고 이끄는 공에 부지런하였고 법문을 유통시켜 교화함을 크게 도왔습니다. 어찌 나이가 아직 한참인데, 어찌하여 홀연히 돌아가셨습니까? 나고 죽는 것이 끝이 있음은 비록 인연의 이치라 하지만, 소리와 모습에 살아있는 것 같은데 어찌 슬프고 가슴 아픈 마음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404) 용두사(龍頭寺): 충청북도 청주시 남문로에 있던 절. 현재는 962년에 세운 국보 제41호 철당간(鐵幢竿)만이 남아 있다. 이 절은 962년 이전에 창건되어 1011년에는 현종이 이곳에 이르러 연등회(燃燈會)를 베풀었으며, 1090년에는 범종(梵鐘)을 봉안하였다고 한다. 이후 몽고의 침공 등으로 폐사된 것으로 보인다.

405) 유가(瑜伽): 유가는 ㉠yoga의 음사. 상응(相應)이라고 의역하며, 깨달음에 이르는 실천, 수련, 정신통일로 해석된다. 인도 불교의 유가행파(瑜伽行派, ㉠Yogācāra)에서는 유식사상에 의하여 유가행을 체계화하였다. 유가 유식의 교의는 현장(玄奘)의 인도 유학과 신역 경전을 통해 중국에 본격적으로 전해져서, 이를 바탕으로 현장의 제자 규기(窺基)에 의해 법상종(法相宗)이 개창되었다. 법상종은 유가종, 유식종(唯識宗) 등으로도 불리며, 고려시대에는 유가업(瑜伽業), 자은종(慈恩宗), 상종(相宗) 등의 이름으로 나타난다.

406) 보처(補處)보살: 이번 한 생만 미혹의 세계에 묶여 있는 자. 다음 생에서는 미혹을 벗어나 세간에서 성불하는 자. 보살의 최고위인 등각을 말한다. 흔히 미륵보살이 지금 도솔천에 있으면서 이 생이 끝나면 인간세에 하생하여 성불하여 석존의 불위를 돕게 되므로 일생보처보살이라 한다.

까? 한번 제사지내는 의례를 펼치게 하여 천년의 작별⁴⁰⁷⁾을 고할까 합니다.
밝은 혼이시여 이 슬픈 마음을 아소서.

祭龍頭寺祐詳大師文⁴⁰⁸⁾

維年月日，興王寺住持傳賢首教觀祐世僧統，謹遣侍者某，備
茶食之奠，致祭于故龍頭寺瑜伽講主之靈。惟靈，才名早著，德
行夙彰，講補處之文，窮理盡性，傳慈恩之教，現微闡幽。方勤
訓導之功，式助流通之化。何年齡之未永，奈奄忽以云歸？生
滅有涯，雖曰因緣之理，音容如在，詎殫惻愴之心？俾陳一祭
之儀，用叙千齡之訣。魂兮不昧，知此悲懷。

4) 새로 공부하는 학도 치수(緇秀)에게 보임

경전에 이르기를, “만일 위없는 마음이 있으면 결정코 큰 일을 즐거워하
며, 부처의 몸을 보이기 위해 다함 없는 불법을 설하리라.”⁴⁰⁹⁾ 라고 하였으
니, 다함 없는 불법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곧 법계(法界)의 법문이다. 진실
로 그 법은 중생에게는 만 가지 미혹이 되고, 보살에게는 만 가지 실천이
되며, 여래에게는 만 가지 덕이 된다. 그러므로 비로자나불이 그것을 얻으
면 과분(果分)⁴¹⁰⁾이라 하고, 보현보살이 얻으면 인분(因分)⁴¹¹⁾이라 한다. 중

407) 천년의 작별[千齡之訣]은 죽어서 작별하는 영원한 이별을 말함.

408) 『대각국사문집』 권16 韓4 p.555b12~21

409) 『대방광불화엄경』(60) 권26 「십지품」 大9 p.567c19~20. 若有無上心，決定樂大
事。爲示於佛身，說無量佛法。 이 구절을 지엄은 『수현기』(大35 p.14b16~17)에서
경문 그대로 인용하였으나, 법장의 『오교장』(권1 大45 p.478b11~12)이나 의상의
『일승법계도』(韓2 p.8a7)에서도 모두 이곳과 같이 說無盡佛法으로 인용하였다.

410) 과분(果分): 다음의 인분(因分) 참조

생들은 날마다 쓰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법계의 도가 드러남이 적은 것이다. 구태여 그것을 말해 보면 대략 세 가지가 된다. 만일 깨달아 그것을 버리면, 본디 하나도 있는 것이 아니어서, 차거나 이지러지거나 나나 너나 하는 것은 나에게는 다 하는 바가 없는 것이다. 이른바 “범부의 지견이 부서지면 법계가 뚜렷이 나타나서 모든 중생이 성불하지 않을 이가 없다”⁴¹²⁾ 라고 하였으니, 진실되도다, 이 말이여! 어찌 부질없이 한 말이겠는가?

그러므로 청량(淸涼)국사는 찬탄하여, “천개의 문에 서로 비추고 만유를 하나로 녹였으니, 법계를 다하는 술법은 오직 대화엄뿐이다.”⁴¹³⁾ 라고 하였으니 묘함이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 경전이 세상에 유행하기는 하나 능통한 사람은 드물다. 옛날 우리 조사 두순(杜順) 존자도 찬탄하여, “위대하여라, 법계의 경전이여! 십지(十地)에 오른 보살이 아니면 누가 능히 그 글을 읽고 그 법을 볼 수 있겠는가?”⁴¹⁴⁾라 하고, 이에 『법계관문(法界觀門)』⁴¹⁵⁾의 삼중

411) 인분(因分): 분은 분제(分齊)의 뜻. 인의 범위. 이에 대해 과의 범위를 과분(果分)이라 함. 불타의 깨달음의 내용인 진여의 세계는 불과(佛果)를 깨달은 이가 아니면 알 수 없고 중생에게는 설명해 보일 수 없는 것이어서[果分不可說], 불타가 될 인의 위치에 있는 중생을 위해 그 기연에 따라 설한 가르침은 그 중생이 알 수 있는 것[因分可說]이라 한다. 『십지경론』에서 설한 것을 『화엄오교장』에서 해설하였다.

412) 『화엄경탐현기』 권16 大35 p.413c13~14.

413) 원(元) 보서(普瑞)가 『화엄현담회현기(華嚴玄談會玄記)』에서 인용한 당(唐) 배휴(裴休)가 지은 징관의 탐기인 「묘각탐기(妙覺塔記)」 중에 나오는 말. 징관이 무명(無名)대사를 찾아 선지를 배울 때의 말이다. (『華嚴玄談會玄記』 권1 卽8 p.93b10~12. 卽曰, 明以照幽, 法以達迷, 然交映千門, 融洽萬有, 廣大悉備, 盡法界之術, 唯大華嚴.)

414) 이 구절은 종밀(宗密)의 『주화엄법계관문』에 붙인 당 배휴의 서문 중에 나온다. 본문의 바로 앞 구절도 이 글에 그대로 나온다. (『註華嚴法界觀門序』 大45 p.683b19~22. 然此經雖行於世, 而罕能通之. 有杜順和尚, 歎曰, 大哉法界之經也, 自非登地, 何能披其文, 見其法哉. 吾設其門以示之. 於是著法界觀, 而門有三重.)

십문(三重十門)과 「선복송(漩洑頌)」⁴¹⁶⁾ 3수를 지어 그 수제자 지엄(智儼) 존자에게 전하고, 지엄 존자는 그것을 법장(法藏) 국사에게 전하였는데, 다 직접 말하고 마음으로 전해 주어 삼대 동안 꽃다움을 드날렸다. 그 뒤에 한 종파의 여러 논사들은 저술할 때에는 모두 삼관(三觀)으로 귀감을 삼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래서 회계(會稽) 가상사(嘉祥寺)⁴¹⁷⁾의 신수(神秀)⁴¹⁸⁾ 법사는 『화엄경소(華嚴經疏)』 가운데서 「선복송」을 인용하여, “두순 선사계

415) 『법계관문(法界觀門)』: 『화엄법계관문(華嚴法界觀門)』. 화엄법계의 관법을 ①진공관(眞空觀) ②이사무애관(理事無礙觀) ③주변함용관(周遍含容觀)의 세 가지로 밝힌 책. 두순(杜順)이 지은 것으로 전승되는데, 법장의 『발보리심장(發菩提心章)』을 초략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정관의 『법계현경(法界玄鏡)』이나 종필의 『주화엄법계관문(註華嚴法界觀門)』에도 수록되어 있다.

416) 「선복송(漩洑頌)」: 화엄종의 초조 두순(杜順)이 지었다고 전하는 글. 두 책에 인용된 부분이 있다. 송(宋) 연수(延壽) 『주심부(註心賦)』(권3 叢63 p.138b11~12. 漩洑頌云, 若人欲識真空理, 心內真如還徧外. 情與無情同一體, 處處名爲眞法界.)와 명(明) 전점익(錢謙益) 『반야심경약소초(般若心經略疏鈔)』(권1 叢26 p.763c1~3. 杜順漩洑頌曰, 若人欲識真空理, 心內真如還徧外. 不離幻色別見空, 卽此真如含一切. 祇用一念觀一境, 一切諸境同時會.)이다. 앞 구절은 같지만 뒷부분이 서로 다르다. 일본의 전승인 『화엄종장소병인명록(華嚴宗章疏并因明錄)』에는 혜원의 저술에 같은 이름이 있다.(大55 p.1133b23. 華嚴旋復章一部(未知卷數 慧苑述))

417) 가상사(嘉祥寺): 절강성 회계(會稽)에 있던 절. 동진 효무제(孝武帝) 태원(太元, 376~396) 연간에 군수 낭야왕 회인(瞿因)이 축도일(竺道壹)의 풍도를 우러러 주석하도록 세운 절이다. 축도일은 내외 경전에 박통하고 계율행이 철저하여 사방의 승려들이 모두 의지하여 구주도유나(九州都維那)라고 불렀다고 한다. 수대에 길장(吉藏)이 이 절에서 8년 동안 강경하여 이름이 천하에 떨쳐, 가상사 길장이라고들 불렀다.

418) 신수(神秀): 선종의 북종 신수가 아니라 화엄종 조사 신수이다.(金煥泰, 1988 「均如傳 妙理圓成觀의 著者」 『韓國佛敎學』 11) 『화엄경소』 30권과 『묘리원성관(妙理圓成觀)』 3권을 저술하였는데, 『新編諸宗教藏總錄』. 의천이 차례지운 것으로 보면 혜苑과澄觀 사이이다.) 『묘리원성관』은 『법계도기총수록』에 두 군데, 『관음지식품별행소』에 한 군데 인용되어 전한다. 이는 신수의 화엄교학이 신라와 고려 화엄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전승되어 왔음을 말해 준다.

서 이르기를, ‘한 경계 가운데 일체의 지혜가 있고, 일체의 지혜 가운데 모든 법계가 있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곧 화엄의 큰 가르침의 소용돌이이다. 또 『탐현기(探玄記)』의 미묘한 이치와 지상(至相)대사의 십문(十門) 같은 것은 다 근거가 있는 데서 받은 것이요 의리가 제 혼자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지금 자세히 서술하여 그 근본적인 뜻을 밝히리라.” 고 하였다.〈상이 그 글이다〉 또 청량국사는 『법계현경(法界玄鏡)』⁴¹⁹⁾ 가운데서 주변함용관(周遍含容觀)을 해석하여 십현(十玄)으로 십문에 짝지어 해석하고 그 결론에, “그러므로 십현도 이로부터 나온다.”⁴²⁰⁾ 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보아 내가 일찍이 학도들에게 교관(敎觀)의 본말을 보이며 말하기를, “지상대사가 이를 얻어, 그것을 부연하여 십현을 만들고, 그것을 변화하여 오교로 만들었다.”고 하였으니, 그 말은 거짓이 아니다.

배움에 뜻을 둔 군자들로 일승에 뜻을 같이 하고 만행을 같이 닦으며, 큰 마음을 변하지 않고 큰 서원을 몸에 두어, 보현의 교리를 손에 쥐고 노사나불의 경지에서 자유로이 노닐고자 하는 이는, 먼저 3관(三觀)과 5교(五敎)⁴²¹⁾로 법의 이치를 깊이 연구하여 도에 들어가는 안목으로 삼아야

419) 『법계현경(法界玄鏡)』: 『화엄법계현경(華嚴法界玄鏡)』. 징관이 지은 화엄종 초조 두순이 지었다는 『화엄법계관문』의 주석서. 진공관(眞空觀)·이사무애관(理事無礙觀)·주변함용관(周遍含容觀)의 법계삼관에 대해 사법계를 서술한 것이다. 종밀의 『주화엄법계관문(注華嚴法界觀門)』은 이 책을 계승하여 요지를 주석한 것이다. 이 두 책이 『화엄법계관문』이 널리 유통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420) 『화엄법계현경(華嚴法界玄鏡)』 권하 大45 p.683a11~12.

421) 3관(三觀)과 5교(五敎): 의천의 중심 사상인 교관겸수(敎觀兼修)의 구체적인 내용. 화엄의 관법과 교학 체계의 기준인 교관을 아울러 든 것. 3관은 화엄종의 관법인 법계삼관(法界三觀)이다. ①진공관(眞空觀)은 4법계 중의 이법계(理法界)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된 정념을 가려내 진성을 드러내 평등한 공성(空性)에 돌아가게 하여 진공의 묘체를 드러내는 것이다. ②이사무애관(理事無礙觀)은 이사무애법계(理事無礙法界)에 해당하는 것으로 삼라만상의 차별된 사법과 평

할 것이다.

진실로 이 보법(普法)을 떠나서는 달리 성불할 길이 없으니, 권교(權敎)의 최고의 지위는 실다운 것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조사도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돌아보면 정법의 시대에도 오히려 맑은 빛이 숨었는데, 다행히도 상법 말법의 시대에 이런 현묘한 교화를 만났다.”⁴²²⁾ 라고 하고, 나아가 “지금은 탑사견고(塔寺堅固)⁴²³⁾의 말기에 살고 있고 장차 투쟁견고(鬪諍堅固)⁴²⁴⁾의 시기가 다가오는데, 도리어 생각하기 어려운 경전을 들으니 몸을

등무차별한 이법을 관하여 사로 화합하여 걸림이 없이 자재한 것을 말한다. ③ 주변함용관(周徧含容觀)은 사사무애법계(事事無礙法界)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여의 본성은 일미평등하여 하나하나의 사상(事相)에 두루 일체 법계를 포용하는 것을 관하여 일과 다가 상호 무애하여 중중무진한 것을 말한다. 5교는 화엄종의 오교인 소승·대승시교·대승종교·돈교·원교를 말한다. 교학의 대표로 화엄의 교판을 든 것이다. 이교와 관을 함께 실천하는 교관겸수가 의천의 주장이다.

422) 『대방광불화엄경소』 권1 大35 p.503b13~15. 顧惟正法之代, 尚匿清輝, 幸哉像季之時, 偶斯玄化, 況逢聖主, 得在靈山, 竭思幽宗, 豈無慶躍.

423) 탑사견고(塔寺堅固): 5오백년 또는 5견고의 하나. 조사견고(造寺堅固). 부처님께서 입멸하신 후 2천 5백년 동안 5백년 단위로 불법 흥망의 추세를 나타낸다. ① 제1 오백년은 해탈견고(解脫堅固) 또는 학혜견고(學慧堅固)의 시기이다. 지혜로 도를 깨달은 해탈을 얻은 자가 매우 많은 시기이다. ② 제2 오백년은 선정견고(禪定堅固)의 시기이다. 선정을 얻은 자가 많은 시기이다. ③ 제3 오백년은 다문견고(多聞堅固)의 시기이다. 부처님의 법문을 열심히 듣는 자가 매우 많은 시기이다. ④ 제4 오백년은 조사견고(造寺堅固)의 시기이다. 열심히 사원을 건립한 이가 많은 시기이다. ⑤ 제5 오백년은 투쟁견고(鬪諍堅固)의 시기이다. 서로 치고 받아 자신의 견해가 낫고 다른 사람의 견해가 못하다고 싸우는 기운이 성행하는 시기이다. ①, ②는 정법(正法) 시기로서 해탈 선정을 수행하는 이가 있는 시기이고, ③, ④는 상법(像法) 시기로서 수행은 하지만 증득하는 결과가 없는 시기로서 많이 듣고 보시하는 이들만 있는 시기이고, ⑤는 말법(末法) 시기로서 수행도 증파도 없는 시기로 투쟁만을 일삼는 시기이다.

424) 투쟁견고(鬪諍堅固): 위의 주 탑사견고 참조

부수어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다.⁴²⁵⁾ 마치 큰 바다에 빠졌을 때 좋은 배를 만나고, 높은 공중에서 떨어졌을 때 신령스러운 학을 타게 된 것과 같다. 이에 기뻐 떨 듯하여 손으로 춤추며 계단을 오르니, 감격스럽고 경사스럽다. 오직 성현이라야 나를 아실 것이다.”⁴²⁶⁾ 라고 하셨다.

아아, 조사님이 계실 때는 상법의 탐사견고 시대인데도 이처럼 간절히 탄식하셨거늘, 하물며 지금은 오탁악세(五濁惡世)⁴²⁷⁾로 말법의 투쟁견고 시대인데도 원돈교를 듣게 되었으니 어찌 슬픈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그러나 성인이 떠나신 지 차츰 멀어지고 더구나 변방인지라, 세상에는 바른 도(를 행하는 이)가 적어 공부하는 이는 곧 샅된 것을 따라서 마침내 우리 불법이 거의 끊어지게 되었다. 내가 항상 한탄하는 것은, 해동의 선대 여러 스님들의 남기신 기록은 그 학문이 정묘하거나 넓지 못한데다가 역설이 더욱 많아서 몽매한 후생들의 모범이 될 만한 것은 백에 한 책도 없기 때문에, 이 성스러운 가르침으로 밝은 거울을 삼아 제 마음을 비쳐보지 못하고 일생 동안 구구히 남의 보배만 세고 있다는 것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균여(均如)·범운(梵雲)·진파(眞派)·영윤(靈潤) 등 여러 사람들의 잘못된 책들은 그 말은 문장을 이루지 못하고 그 뜻은 변통이 없으니, 조사들의 도를

425)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 권2 大36 p.14a15~17. 今居塔寺之末, 將隣鬪諍之時, 翻聞難思之經, 碎身莫酬其慶.

426)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 권2 大36 p.14b7~9. 其猶溺巨海而遇芳舟, 墜長空而乘靈鶴, 慶躍之至手舞何階, 是故感之慶之. 唯聖賢之知我也.

427) 오탁악세(五濁惡世): 사람의 수명이 차차 줄어드는 감겁(減劫)에 일어나는 다섯 가지 부정이 있는 시대. 오탁은 ①겁탁(劫濁, ㉠kalpa-kaṣāya). 감겁 중에 재앙이 일어나 중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음이 없는 것. ②견탁(見濁, ㉡dṛṣṭi-kaṣāya). 사건이 늘어나 선도를 닦지 않는 것. ③번뇌탁(煩惱濁, ㉢kleśa-kaṣāya). 애욕이 많아 샅된 법을 받아들여 심신이 어지러운 것. ④중생탁(衆生濁, ㉣sattva-kaṣāya). 폐악이 많아 효경하지 않고 과보를 두려워하지 않고 금계를 지키지 않는 것. ⑤명탁(命濁, ㉤āyu-kaṣāya). 수명이 줄어드는 것.

황무지로 만들고 후생을 미혹하게 하는 것으로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⁴²⁸⁾

내 비록 못났으나 말로써 그것을 밝힐 뜻이 진실로 있었거니와, 하물며 내가 어려서 『화엄경』을 배울 때 선재(善財)동자가 법을 구하는 뜻을 자세히 보았음에랴! 문수(文殊)보살이 선재동자에게 가르침을 보여 이끄기를, “선남자여, 여러 선지식을 가까이 모시고 공양하는 것이 일체지(一切智)⁴²⁹⁾를 갖추는 최초의 인연이다. 그러므로 그 일을 힘들어 하거나 싫어하지 말라.”⁴³⁰⁾ 라고 하였고, 또 “만일 여러 보살이 생사의 괴로움을 싫어하지 않으면, 곧 보현의 도를 갖추어 어떤 것도 깨뜨리지 못하리라.”⁴³¹⁾ 라고 하였다. 또 규산(圭山)⁴³²⁾은, “도를 구하는 이는 반드시 지혜의 눈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지혜의 눈은 스스로 뜰 수 없으니 반드시 스승을 구해 그 겨풀을 벗겨내야 한다.”⁴³³⁾ 라고 하였다. 나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책을 덮고 길게 탄식하였다.

가만히 생각하면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편 목적은 행을 일으키는 것을 귀하게 여기신 것으로서, 다만 입으로만 말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으로 행

428) 이 구절이 의천이 고려 전기 균여의 화엄사상을 비판하고 징관의 화엄사상을 중심으로한 새로운 경향을 제시하였다는 근거가 되는 부분이다. 의천이 보는 균여 화엄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429) 일체지(一切智) : ①sarvajña, 일체의 법상을 아는 지혜. 모든 존재에 관해서 총괄적으로 다 아는 지혜. 일체 세계, 중생계, 유위 무위, 인과의 차별,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 이들을 모두 다 아는 지혜.

430) 『대방광불화엄경』(80) 권62 「입법계품」 大10 p.333c1~2.

431) 『대방광불화엄경』(80) 권62 「입법계품」 大10 p.333c14~15.

432) 규산(圭山) : 종밀(宗密, 780~841). 중국 화엄종의 제5조. 당의 과주(果州, 四川省) 출신으로 속성은 하(何)씨이다. 규봉(圭峰)선사 또는 규산(圭山)대사라고 부른다. 종남산 초당사(草堂寺)에 있다 그 남쪽의 규봉난야(圭峰蘭若)에 주석하여 생긴 이름이다.

433) 이 구절은 종밀의 『주화엄법계관문』에 붙인 배휴(裴休)의 서문 중에 나온 다.(「註華嚴法界觀門序」 大45 p.683b7)

동하게 하려는 것이니, 어찌 한쪽에만 매여 쓸모 없는 사람처럼⁴³⁴⁾ 의리에 쓸모가 없어서야 되겠는가? 몸을 잊고 도를 물어 여기에 뜻을 두었더니 다 행히 과거의 인연으로 선지식을 두루 참배하다가, 진수(晋水) 대법사의 강석 밑에서 교관을 조금 배웠다. 강연하여 가르치는 틈에 일찍이 깨우쳐 말하기를, “관은 배우지 않고 경만 배우면 비록 오주(五周)의 인과(因果)⁴³⁵⁾를 들었더라도 삼중(三重)의 성덕(性德)⁴³⁶⁾은 통하지 못하며, 경은 배우지 않고 관만 배우면 비록 삼중의 성덕은 깨칠지라도 오주의 인과는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도 배우지 않을 수 없고 경도 배우지 않을 수 없다.”⁴³⁷⁾라고 하셨다. 내가 교관에 마음을 다 쓰는 것은 이 말에 감복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량국사께서 “한 치 마음을 비취 보지 않으면 헛되이 성품의 신령함을 저버린다.”⁴³⁸⁾고 하신 것도 또한 이런 뜻이다. 이를 알아서, 화엄을 전수받으면서 관문을 공부하지 않는 이는 아무리 강주(講主)라 하더라도

434) 원문의 포계(匏繫)는 시렁에 걸려 있는 바가지라는 뜻으로서, 쓸모 없는 사람을 말한다.

435) 오주(五周)의 인과(因果): 징관이 『화엄경』(80) 전체의 의리를 다섯 가지로 나누어 밝힌 것. (『華嚴經疏』 권3·4) ①소신인과(所信因果). 제1회 보리도량에서 설한 여래의 과보법문. 제1권~11권의 6품. 비로자나불의 과덕과 부처의 근본인을 천명하여 사람들이 신심을 내어 즐겁게 받아들일도록 한 법문. ②차별인과(差別因果). 제2회~제7회. 12~48권의 29품. 십신·십주·십행·십회향·십지·등각의 51위의 차별 인과를 밝힌 법문. ③평등인과(平等因果). 제7회. 49~52권의 2품. 보현 평등의 인과 비로자나 평등의 과가 둘이 아님을 밝힌 법문. ④성행인과(成行因果). 제8회. 53~59권의 1품. 오위 인행과 팔상으로 부처가 되는 과상을 보인 법문. ⑤증입인과(證入因果). 제9회. 60~80권의 1품. 불과의 대용과 보살의 수인을 드러내 인과가 함께 증입함을 밝힌 법문.

436) 삼중(三重)의 성덕(性德): 삼중관문(三重觀門). 화엄종의 실천 수행 관법인 법계삼관. 진공관, 이사무애관, 주변함용관.

437) 의천 사상의 핵심인 교관점수의 내용을 살필 수 있는 구절이다.

438) 『화엄법계현경(華嚴法界玄鏡)』 권하 大45 p.683a21.

도 나는 믿지 않는다.

이제 백 개의 성을 두루 다니면서 본래의 뜻을 폈으니, 앉아서 여러 책들을 탐구하는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이다. 내가 세상의 의학의 무리들을 보니 종일 공부하면서 공부하는 까닭을 모르는 이가 많다. 혹은 치우치고 잘못된 견해에 떨어지기도 하고, 명예와 이익에 빠지기도 하며, 혹은 교만 하거나 게으르고 혹은 (배우려는 마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기 때문에 그 몸을 마치도록 도에 들어가지 못한다.

示新叅學徒緇秀⁴³⁹⁾

經云, “若有無上心, 決定樂大事, 爲示於佛身, 說無盡佛法.” 無盡佛法是何? 卽是法界法門. 良以此法, 在衆生爲萬惑, 在菩薩爲萬行, 在如來爲萬德. 故使毗廬得之, 謂之果分, 普賢得之, 謂之因分. 衆生日用而不知, 故法界之道鮮矣. 皆強而言之, 其略爲三. 若悟而遣之, 未始有一, 虧盈自彼, 於我無爲. 所謂“情見苦破, 法界圓現, 一切衆生無不成佛”者, 誠哉, 是言! 豈徒然也? 所以清涼嘆曰, “交映千門, 融洽萬有, 盡法界術, 唯大花嚴,” 妙在茲焉. 然此經文, 雖行於世, 罕能通之. 在昔吾祖杜順尊者, 嘆曰, “大哉, 法界之經也! 自非登地, 何能披其文, 見其法哉?” 於是著法界觀三重三十門, 并漩澍頌三首, 傳于高弟儼尊者, 儼傳藏國師, 皆面言心授, 三葉騰芳. 厥後一宗諸師, 凡有著撰, 未嘗不以三觀爲龜鏡. 故會嵇嘉祥寺神秀法師, 花嚴疏中, 引漩澍頌云, “順禪師曰, ‘於一境中一切智, 一切智中諸法界.’ 斯乃大教之漩澍也. 且如探玄妙蹟, 至相十門, 皆稟有所從, 義非孤超, 今具述之, 以明宗意也.”〈已

439) 『대각국사문집』 권16 韓4 pp.555c5~556c12

上彼文〉又清涼國師玄鏡中，解周遍含容觀，却將十玄，配釋十門，其後結云，“是故十玄，亦自此出。”以此而推，予嘗謂學徒，示教觀本末云，“至相得之，演之爲十玄，變之爲五教。”其言不誣也。其有義學君子，同志一乘，同修萬行，大心不變，弘誓在躬，掌握普賢之乘，優遊盧舍之境者，莫若先以三觀五教，研窮法義，用爲入道之眼目也。良由離此普法，更無異路得成佛，故權教極果，無實事。故吾祖嘗有言曰，“顧惟正法之代，尚匿清光，幸哉像季之時，遇斯玄化。”乃至云，“今居塔寺之末，將隣鬬諍之時，翻聞難思之經，碎身莫酬其慶。猶溺巨海而遇方舟，墜長空而乘靈鶴，慶躍之至手舞何階，感之慶之，唯聖賢之知我也。”

噫，祖師之世，猶在像法塔寺之中，而亦發嘆若斯之切，況今濁世，正在末法鬬諍之時，而有得聞圓頓教者，豈不感傷哉？然爲去聖漸遠，加之邊地，世寡正道，學則隨邪，遂使吾道，或幾乎息矣。予常恨海東先代諸師，所流遺記，學非精博，臆說尤多，方軌來蒙，百無一本，不能以聖教爲明鏡，炤見自心，一生區區，但數他寶。世所謂均如梵雲真派靈潤諸師謬書，語不成文，義無通變，荒蕪祖道，熒惑後生者，莫甚於斯矣。予雖末陋，辭而闕之，實有志焉，況吾幼學大經，備見善財求法之志！而文殊教示曰，“善男子，親近供養諸善知識，是具一切智最初因緣，是故於此，勿生疲厭。”又云，“若有諸菩薩，不厭生死苦，則具普賢道，一切無能壞。”又圭山云，“夫求道者，必資於慧目。慧目不能自開，必求師以抉其膜也。”每至斯文，掩卷長嘆。竊謂聖人設教，貴在起行，非但宣之於口，實欲行之於身，豈可以飽繫一方，無用於義？亡軀問道，立志於斯，幸以宿因，歷叅

知識，而於晉水大法師講下，粗承教觀。講訓之暇，嘗示誨曰，“不學觀唯授經，雖聞五周因果，而不達三重性德，不授經唯學觀，雖悟三重性德，則不辨五周因果。夫然則觀不得不學，經不得不授也。”吾之所以盡心於教觀者，佩服斯言故也。故清涼云，“不鏡方寸，虛負性靈”者，亦斯意也。是知傳大經而不學觀門者，雖曰講主，吾不信也。今者行詣百城，已酬曩志，坐探群籍，正在此時。吾觀世之義學之流，終日學而不知所以學者多矣。或失於偏邪，或失於聲利，或慢或怠，若存若亡，故終其身，而不能入其道。

5) 새로 공부하는 학도 지웅(智雄)에게 보임

대개 스승과 제자의 도는 바로 큰 인연이다. 그러므로 『남산초(南山鈔)』⁴⁴⁰⁾에, “불법이 더욱 늘고 광대해지는 것은 진실로 스승과 제자가 서로 협조하는 것에 연유한다.”⁴⁴¹⁾고 하였다. 요즈음 현묘한 가르침이 쇠퇴하고 지혜의 바람이 부채에 가려지는 것은, 스승은 이끌어 인도하려는 마음이

440) 『남산초(南山鈔)』: 남산율종을 개창한 도선(道宣)의 사분율(四分律) 관련 저작 중 가장 중요한 『사분율산번보궐행사초(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 12권. 남산종의 사분율초를 줄여 말한 것. 『사분율』을 잘라내고 보완하여 30편으로 나누어 그 중요한 뜻을 서술하고, 여러 율사의 설을 참작하여 계율을 행하는 실제 규정을 상세히 서술한 것이다. 이후 승풍과 위의를 확립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사분율』은 당대 율종의 근본 서적으로서 가장 깊고 넓게 영향을 미친 계율 서적이다.

441) 『사분율산번보궐행사초(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 권상 大40 p.30c21 佛法增益廣大，寔由師徒相攝.

없고 제자는 받들어 행하려는 뜻이 없는데 연유한다. 그들 둘이 서로 버리고 함부로 더러운 경계에 빠진다면, 아무리 도를 빛내고자 한들 어찌 가능하겠는가?

『발진초(發眞鈔)』⁴⁴²⁾에 말하기를, “출가한 뒤에는 못난 이는 뛰어난 이에게 의지하고 범부는 성인에게 의지해야 성불에 이르게 되니, 바로 이것을 스승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⁴⁴³⁾ 라고 하였다. 또 『필삭기(筆削記)』⁴⁴⁴⁾에는, “선지식과 수행하는 사람이 서로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발심한 사람이 있어도 참된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거나, 참된 선지식이 있어도 발심한 사람을 보지 못한다면 도에 감응하여 사귀기가 실로 쉽지 않다.”⁴⁴⁵⁾ 라고 하였다. 이로써 본다면 도가 있는 이에게 나아가 의혹을 분별한다는 것은 세상에 어려운 일이라 할 것이다. 혹은 같은 시대에 있으면서도 서로 친하지 못하고 혹은 다른 시대에 나서 서로 접촉하지 못하면, 현재

442) 『발진초(發眞鈔)』: 송(宋) 윤감(允堪, 1005~1061)이 당 도선이 지은 『정심계관법(淨心誠觀法)』에 주석한 책. 윤감은 송대의 이름난 율학승으로 내외전에 통달하고 인화(仁和)에게서 남산율을 배워 깊은 뜻을 깨우쳤다. 항주의 대소경사(大昭慶寺)와 소주의 개원사(開元寺), 수주의 정엄사(精嚴寺) 등에 계단을 세워 남산 율종을 드날렸다. 도선의 저술 10부에 대해 주석서를 써서 십본기주(十本記主)라고 불렀다. 불상에 예배할 때 오른쪽으로 도는가, 왼쪽으로 도는가의 문제나 승복의 길고 짧음에 대해 영지사(靈芝寺)의 원조(元照)율사가 지은 『사분율행사초자지기(四分律行事鈔資持記)』와 견해가 달라, 사람들이 윤감을 회정종(會正宗), 원조를 자지가(資持家)라고 불렀다.

443) 송(宋) 윤감(允堪), 『정심계관발진초(淨心誠觀發眞鈔)』 권하본 卍59 p.578a17~18. 人以出家之後, 劣依於優, 凡依於聖, 直至五分法身成立, 乃至成佛, 方曰無師.

444) 『필삭기(筆削記)』: 『대승기신론필삭기(大乘起信論筆削記)』. 송의 화엄종 승려 자선(子璿)이 지은 책. 종필이 지은 『기신론주소(起信論注疏)』를 상세하게 풀이한 것이다. 『기신론』을 오교의 원교일승에 배당하여 천태의 원교 해석과 같아져 후세의 비판을 받았다.

445) 『기신론필삭기』 권14 大44 p.371a15~17. 然善友與行人相值誠難, 且如世間有欲發心者, 則不遇真善知識, 有真善知識, 則不見發心之人, 感應道交實爲不易.

와 과거가 분명히 있게 되어, 결코 스스로 보리를 증득하여 생사를 초월할 것을 서원하지 못할 것이다. 넓고 트인 도를 통달하려고 멀고 큰 뜻을 품고 교관(敎觀)으로써 자기 임무를 삼아 마침내 부처와 조사의 은덕을 갚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 누가 책상자를 짊어지고 경권을 손에 끼고 먼 길임을 잊고 유익함을 구하겠는가?

그런데 지금은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지 5백년이 되어 법이 쇠퇴한 말세요, 사람들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때이다. 대강 배우는 무리는 많으나 뜻을 굳게 가진 사람은 적어, 시작하는 사람은 없지 않으나 잘 끝맺는 이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정심계관법(淨心誠觀法)』⁴⁴⁶⁾에서는, “지금은 말법 세상이라 중생들의 마음은 각박하여 은혜를 저버리며 의리를 끊고, 홀로 조용하고 한가함을 즐기며 마음에 맞게 자재하니, 법과 같이 되지 않아 악도(惡道)에 떨어질까 두렵다.”⁴⁴⁷⁾ 고 하였다. 규봉종밀(圭峰宗密)대사가 이른바, “부처의 문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은 그 잘못이 치우치고 샅된 데 있다.”⁴⁴⁸⁾ 고 한 것은 이것을 말한 것이다.

그대 공부하는 학도들이 법을 구하려는 정성을 오로지하여 멀리서 왔으니, 내 비록 변변치 못하나 또한 즐겁지 않은가?⁴⁴⁹⁾ 혹은 만행을 같이 닦고 일승에 함께 뜻을 두면서, 법계의 문에서 걸림없이 노닐고 무위(無爲)의 경

446) 『정심계관법(淨心誠觀法)』: 당 도선이 문인들이 스스로 수행하고 교화하는 도로서 마음을 정화하고 잘못을 떠나 진리를 관찰하는 내용을 30편으로 나누어 말한 책. 2권.

447) 『정심계관법』 권2 大45 p.833b20~22. 今時末法衆生心薄背恩絕義, 易厭師僧樂獨遊居, 適情自在, 恐不如法墮於惡道.

448) 종밀, 「권발보리심문서(勸發菩提心文序)」(배휴의 『普勸僧俗發菩提心文』에 대한 서문) 卍58 p.485c12.

449) 『논어』에 “벗이 먼 곳으로부터 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論語』「學而」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의 구절을 연상하게 한다.

계에서 활달하게 지내면, 태어날 때마다 항상 좋은 벗이 되고 있는 곳마다 서로 착한 친구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내 말을 그대들이 따르고 그대들의 마음에 내가 맞추어 항상 보현행(普賢行)을 익히고 늘 원돈의 경전을 펼쳐, 티끌마다 해탈의 경계에 들어가는 법문이 되고 구절마다 비로자나의 본성의 바다를 깨달을 것이다. 제도할 것이 없는 것을 널리 제도하고 이를 것이 없는 것을 마침내 이루어, 스스로 힘쓰기도 이렇게 하고 남을 가르치기도 또한 그렇게 하여, 일체 중생들과 함께 맹세하여 위없는 묘각(妙覺)⁴⁵⁰⁾에 오르하고자 하는 것이니, 이것이 내 소원이다.

示新叅學徒智雄⁴⁵¹⁾

夫師資之道，是大因緣。所以南山鈔云，“佛法增益廣大，寔由師資相攝。”比玄教凌遲，慧風掩扇，并由師無率誘之心，資闕奉行之志。二彼相捨，妄流鄙境，欲令光道，其可得乎？發真鈔云，“出家之後，劣依於優，凡依於聖，乃至成佛，方曰無師。”又筆削記云，“善友與行人，相值誠難。有發心者，不遇真善知識，有真善知識，不見發心之人，感應道交，實爲不易。”以此觀之，就有道以辨惑，世所難也。或同時而不相親，或異代而不相接，今之與古，歷歷而有，自非決證菩提，誓超生死。達恢廓之道，懷遠大之志，能以教觀爲己任，終報佛祖之恩德者，其孰能負笈橫經，忘遐求益者哉？然今如來沒後，後五百歲，法衰末世，人濁亂時。泛學者衆，秉志者小，靡不有初，鮮克有終。

450) 묘각(妙覺): 보살 수행의 52위 또는 41위의 하나로 마지막 단계. 깨달은 행이 원만한 구경의 불과(佛果)를 말하므로 불과의 곧 불타의 불가사의한 무상정각의 별칭으로 쓰인다. 등각(等覺)의 단계에서 다시 1품의 무명을 끊어 이 묘각위에 오르게 되며, 이 계위에서는 일체의 번뇌를 끊고 지혜가 원만 미묘하고 열반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

451) 『대각국사문집』 권16 韓4 pp.556c14~557a23

故淨心誠觀云, “今時末法, 衆生心薄, 背恩絕義, 樂獨幽閑, 適情自在, 恐不如法, 墮於惡道.” 圭峯所謂, “佛門難入, 失在偏邪”者, 此之謂也. 汝曹義學, 求法誠專, 自遠方來, 吾雖無似, 不亦樂乎? 脫或同修萬行, 同志一乘, 逍遙法界之門, 放曠無爲之域, 則生生常作良朋, 處處互爲善友. 我語汝之相從, 汝心我之同契, 常習普賢之行, 常披圓頓之經, 塵塵入解脫法門, 句句了遮那性海. 廣度無度之度, 終成無成之成, 自力如是, 教他亦然, 誓與一切含生, 咸登無上妙覺, 是所願也.

6) 새로 공부하는 학도 혜수(慧修)에게 보임

대개 출가한 선비는 마음에 원대한 뜻을 품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여러 근기의 사람들을 인도하고 교화해야 하니 실로 그 책임이 무겁다. 혹은 갖가지 방편으로 거두어들이고 혹은 한 가지 맛의 평등함을 보이며, 혹은 괴롭고 즐거우며 선도(善道)에 넣고 악도(惡道)에 떨어지는 것으로 힘쓰게 하고 혹은 인과와 응보(應報)로 인도해야 하되, 밖으로는 근기를 따라 만 가지로 변하면서 안으로는 법계로 함께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법계의 도가 뒀이 넓고 모두 갖추어져 있어, 이치를 파헤치고 사리를 다하여도 생각할 수 없다.

내 비록 영민하지 못하지만 다행히 진수(晋水)⁴⁵²⁾ 대사와 각엄(覺嚴)⁴⁵³⁾

452) 진수(晋水): 의천이 화엄을 배운 송의 고승 정원(淨源)

453) 각엄(覺嚴): 낙양에 있던 절 이름이나, 여기서는 이곳에 주석하던 유성을 말함. 의천이 송에 가서 불법을 배우고자 할 때 화엄종을 배우기 위해 송 황제에게 글을 올렸더니, 양가 공덕사에 법을 전해줄 만한 이를 추천하도록 하였는데 화엄

대사 문하에서 법을 전해 받고 조금이나 대강을 깨닫게 되었으니, 내 평생의 만남에 이보다 더한 일이 없다. 너희 공부하는 학도들이 혹 그 몸을 도에 맡겨 마침내 큰 일을 기약하려 한다면 내 어찌 감히 사양하여 피하겠는가? 그러나 이 원돈(圓頓) 일승의 도는 다 수행하는 사람들의 알아야 할 경지이다. 만일 그것을 배우지 않고 헛되게 일생을 보낸다면, 보배 산에서 빈손으로 돌아온다 해도 원통해 할 것이 없을 것이다. 만일 교관에 정신을 집중하여 시작할 때처럼 끝까지 조심하면 도가 멀리 있겠는가? 어질게 하고자 하면 어둡이 이르는 것이다.⁴⁵⁴⁾

示新參學徒慧修⁴⁵⁵⁾

夫出家之士，心懷遠大，利物爲先，誘化群機，實爲任重。或攝之以種種方便，或示之以一味平等，或勉之以苦樂昇沈，或導之以因果報應，外則隨機萬變，內則法界同歸。然法界之爲道也，廣大悉備，窮理盡事，不可得而思議矣。予雖不敏，幸於晉水覺嚴門下，得蒙傳授，微領大綱，平生所遇，更無過此。汝等義學，其或以身許道，終期大事，則吾豈敢辭避也？然此圓頓一乘之道，盡是行人所應知境。如其不學，虛度一生，空返寶山，未足爲痛。若也潛神教觀，慎終如始，則道遠乎哉？欲仁，仁至矣。

을 강의한 지 오래되어 학자들에게 성가가 높은 각임사의 유성(有誠)법사가 상대가 되도록 하였다. 유성은 다시 항주 혜인원의 정원을 추천하여 자신을 대신 하도록 하였고, 이에 칙명으로 양걸(楊傑)이 의천과 함께 혜인원에 가서 법을 받도록 하였다. (『불조통기(佛祖統紀)』 권14 大49 p.223b28~c5. 義天上表，乞傳賢首教，勅兩街，舉可授法者。以東京覺嚴誠禪師對，誠學錢唐慧因淨源以自代。乃勅主客楊傑送至慧因受法.)

454) 『논어(論語)』에 나오는 말. 『논어』 술이(述而)편 제7에 “공자께서 이르시되 ‘어둡은 먼 것인가? 내가 어질고자 하니 여기 어둡이 이르렀구나.’라고 하셨다.”(子曰 仁遠乎哉. 我欲仁, 斯仁至矣.)라는 구절이 있다.

455) 『대각국사문집』 권16 韓4 p.557b1~15

7) 새로 공부하는 학도 덕칭(德稱)에게 보임

대개 스승과 제자 사이의 도는 실로 쉬운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가? 시험삼아 말해 보리라.

그 스승이 된 자가 도를 얻어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것은 진실되고 외람된 것이 아니며, 그 도를 잃고 그 이름만 훔치면 그것은 외람된 것이요 진실됨이 아니다. 그 제자가 된 자가 그 교훈을 받고 그 일을 행하면 그것은 의리요 아침이 아니며, 그 법만 취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면 그것은 아침이요 의리가 아니다.

외람됨과 아침은 군자가 부끄럽게 여기니, 내가 만일 너희를 외람됨으로써 인도하면 그것은 내가 너희를 속이는 것이요, 너희들이 만일 내게 아침으로써 구한다면 그것은 너희들이 나를 속이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중에는 다만 스승과 제자의 이름만 알고 스승과 제자의 진실을 알지 못하는 이가 때때로 있다. 진실로 스승과 제자가 그 도로써 행하지 않으면 부처와 조사의 가르침이 무엇에 의지하여 행해지겠으며, 뒷날의 스승되는 사람은 무엇을 따라 그 자리에 서겠는가? 도가 행해지지 않음은 진실로 그 때문이다. 아아, 나나 너희들이 외람된가 아침하는가는 다 여러 사람을 기다려 증명될 것이니, 너희들은 그런 줄 알라.

示新參學徒德稱⁴⁵⁶⁾

夫師資之道，實爲不易，汝知之乎？嘗試言之。其爲師也，得其道而處其位，實而非濫也，失其道而竊其名，濫而非實也。其爲資也，稟其訓而行其事，義而非諂也，取其法而背其恩，諂而非義也。濫而又諂，君子恥之，吾若誘汝以濫，則吾誑汝也，汝

456) 『대각국사문집』 권16 韓4 p.557b16~c6

若求吾以諂，則汝誑吾也。世人但識師資之名，而不知師資之實者，往往有之。苟或師資，不以其道，則佛祖之教，依何而行，後之爲師者，從何而立？道之不行，職由斯也。嗚呼，吾也汝也，濫乎諂乎，盡俟衆人訂之，汝其識之。



詩 時

- 1) 칠장사(柒長寺)에서 혜소(慧炤)국사의 영정에 예배함
- 2) 고대산(孤大山) 경복사(景福寺)의 비래방장에서 보덕(普德)성사의
영정에 예배함
- 3) 지리산 화엄사(華嚴寺)에 머물며 지음
- 4) 화엄사에서 연기(緣起)조사 영정에 예배함
- 5) 새로 대선(大選)에서 대덕(大德)을 받은 이에게 보임
- 6) 『남산율초(南山律鈔)』를 강의하던 차에 우연히 한 구절 이름
- 7) 삼각산(三角山) 인수사(仁壽寺)에서 문수보살 성상에 예배함
- 8) 윤관(尹瓘)상공이 상(常) 상인의 결사에 비기어 뜻을 담은 시를 보고
다행하고 감사함을 이기지 못해 화답하여 지음
- 9) 속리사(俗離寺)로 돌아가는 도생(道生)승통을 보내며
- 10) 봉선사(奉先寺)로 돌아가는 문인 낙진(樂眞)대사를 보내며
- 11) 문인 혜선(慧宣)대사가 주지가 되어 작별을 고하므로 지어 줌
- 12) 법왕사(法王寺) 화엄강주 이(利) 상인에게 줌
- 13) 학원에서 일삼아 쓰다
- 14) 현화사(玄化寺)에서 머물며 지음
- 15) 이자현(李資玄)거사에게 부침
-
-
-



1) 칠장사(柒長寺)⁴⁵⁷⁾에서 혜소(慧炤)국사⁴⁵⁸⁾의 영정에 예배함

불문의 공적 누구와 같다고 허락하리

임금이 받들어서 도품을 맛보았네

일은 사람과 함께 잘못되니 무엇을 한탄하라

재신이 비문을 지으니 무궁하게 빛나리

〈재신 김현(金現)이 비문을 짓고 재신 최유선(崔惟善)이 영찬을 지었다〉

柒長寺, 禮慧炤國師影⁴⁵⁹⁾

空門功業許誰同 千乘摠衣味道風

事與人非何足嘆 宰官碑贊耀無窮 〈宰臣金公現撰碑 宰臣崔公惟善述
影贊〉

457) 칠장사(柒長寺): 칠장사(七長寺).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칠현산(七賢山)에 있는 절. 신라 시대에 자장율사가 창건하였다고 하나 실제로는 고려 초기에 혜소국사(慧炤國師)가 지금의 모습으로 중창한 것으로 생각된다. 국사가 수도할 때 찾아왔던 7명의 악인을 교화하여, 7인 모두가 도를 깨달아 칠현(七賢)이 되었으므로 산 이름을 칠현산이라고 했다고 한다. 유가종의 고승인 혜소국사는 왕명으로 1014년(현종 5)에 이 절을 크게 중창하였다. 현재 국사의 비가 비신이 세 동강난 채 귀부와 이수가 따로 떨어져 보존되어 있다.

458) 혜소(慧炤)국사: 정현(鼎賢, 972~1054). 고려 전기 유가종(瑜伽宗)의 국사(國師). 성은 이씨(李氏). 어려서 출가하여 광교사(光敎寺) 충회(忠會)의 제자가 되었고, 칠장사(七長寺)의 용철(融哲)에게서 유가행(瑜伽行)을 배운 뒤, 법천사와 현화사 등에서 활동하였다. 삼각산에 홍제원(弘濟院)을 개창하여 오가는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건립, 운영하였다. 문종이 즉위하여 궁궐에서 경전을 강의하는 등 총애를 받아 1049년 문종의 왕사가 되었고, 1054년 국사가 되었다. 칠장사에 비가 남아 있다.

459) 『대각국사문집』 권17 韓4 p.559a4~7

2) 고대산(孤大山)⁴⁶⁰⁾ 경복사(景福寺)⁴⁶¹⁾의 비래방장에서 보 덕(普德)⁴⁶²⁾ 성사의 영정에 예배함

열반과 방등의 가르침

우리 스승이 전해 주셨네

두 성인이 책을 옆에 끼던 날

〈원효와 의상이 일찍이 성사에게서 『열반경』과 『방등경』을 배웠다〉

고승께서는 그때 독보적이셨네

인연 따라 (몸을) 남북에 맡겼으나

도에서는 맞이하고 따름이 따로 없네

애석하도다, 방장을 날린 후에

460) 고대산(孤大山) : 의천보다 후대에 이곳을 찾은 이규보(李奎報)는 고달산(高達山)이라 하였다. (『東國李相國全集』 권10 「十月八日, 遊景福寺. 明日訪飛來方丈, 始謁普德聖人眞容. 板上有宗聆首座李內翰仁老所題詩. 堂頭老宿乞詩, 依韻書于末云.」 『韓國文集叢刊』 1~394b ; 권23 「南行月日記」 『韓國文集叢刊』 1~529a) 조선시대의 『신증동국여지승람』(권33 全州府)에는 고덕산(高德山)이라 하고, 고달산이라고도 한다고 하였다.

461) 경복사(景福寺) :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평촌리 고달산(高達山)에 있던 절. 고구려의 고승 보덕(普德)이 659년(보장왕 9) 반룡산(盤龍山) 연복사(延福寺)에서 사찰 전체를 옮겨와 창건하였으며, 그 때 공중으로 날아서 절이 옮겨왔다고 하여 비래방장(飛來方丈)이라고 하였다. 의천 외에 이인로(李仁老)와 이규보(李奎報) 등 여러 문인이 이 절에 들러서 보덕의 진영에 예배하고 시를 지었다. 1424년(세종 6) 사원을 축소할 때 이 절은 교종(敎宗) 소속으로 승려 수는 70인이고 전지는 50결을 규정하여, 당시까지 대찰로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은 일부 터만 확인된다.

462) 보덕(普德) : 고구려 보장왕 때의 승려. 고구려 말 열반학자로서 이름이 높았다. 그러나 연개소문의 집권 후 도교를 진흥하고 불교를 억압하자 백제 영역인 전주의 고대산 경복사로 망명하였다. 신라의 원효와 의상이 중국에 유학하려다 보덕에게 열반을 배웠다. (『삼국유사』 권3 흥법 寶藏奉老普德移庵)

동명왕의 옛나라가 위태해졌네

〈성사는 원래 고구려 반룡사(盤龍寺) 스님이었는데 보장왕(寶藏王)⁴⁶³⁾이 도교에
현혹되어 불법을 폐기하자 성사는 방장(方丈)을 날려 백제의 고대산(孤大山)에
이르렀다. 후에 한 신인이 고구려의 마령(馬嶺)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나라는 패망이 머칠 안 남았다”고 하였다. 자세한 것은 해동『삼국사(三國
史)』⁴⁶⁴⁾와 같다〉

孤大山景福寺飛來方丈，禮普德聖師影⁴⁶⁵⁾

涅槃方等教

傳授自吾師

兩聖橫經日 〈元曉義想，嘗參講下，親稟涅槃維摩等經〉

高僧獨步時

從緣任南北

463) 보장왕(寶藏王): 고구려 제28대 마지막 왕. 재위 642~668. 이름은 장(臧, 藏) 또는 보장(寶臧, 寶藏). 고구려의 왕명은 대부분 시호이나 이 왕은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시호가 없다. 영류왕의 동생인 태양왕(太陽王)의 아들이다. 정변을 일으켜 영류왕을 죽이고 권력을 장악한 연개소문(淵蓋蘇文)에 의해 왕으로 옹립되었기 때문에 비록 왕위에 있었지만 실권을 제대로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재위 기간 중 국내적으로는 천제지변이 잦았고, 643년에는 연개소문의 주장에 따라 도교 진흥책을 썼다. 이에 대해 불교 세력의 반발이 심했고, 보덕은 650년에 백제로 망명하기까지 하였다. 신라와 당군과의 오랜 싸움에서 패하여 668년 9월에 멸망하였다. 고구려 멸망 후 보장왕은 당나라로 잡혀갔다가 677년에 요동도독 조선군왕(遼東都督朝鮮郡王)에 임명되어 많은 고구려인들을 데리고 요동으로 돌아왔다. 보장왕은 고구려 유민을 규합하고 말갈과 내통하여 고구려 부흥을 도모하다가 발각되어 681년 경주(綱州, 사천성 網峽)로 유배되어 682년 경에 사망하였다.

464) 『삼국사기』 권22 寶藏王 九年 夏六月，盤龍寺普德和尚，以國家奉道不信佛法，南移完山孤大山.

465) 『대각국사문집』 권17 韓4 p.559a11~19

在道絕迎隨

可惜飛房後

東明故國危〈師元是句高麗盤龍寺沙門，臧王惑於道教，廢棄佛法，師乃飛房，南至於百濟孤大山。後有神人，見於高麗馬嶺，告人曰，“汝國敗亡無日”。具如海東三國史〉

3) 지리산 화엄사(華嚴寺)⁴⁶⁶⁾에 머물며 지음

적멸당 앞에는 뛰어난 경치도 많은데
길상봉 위에서 작은 번뇌도 끊어지네
종일토록 방황하며 지난 일 생각하니
해질녘 슬픈 바람 효대⁴⁶⁷⁾에서 일어나네

466) 화엄사(華嚴寺):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지리산에 있는 절. 8세기 중반 경에 연기(緣起)가 대찰로 중창하였다. 연기는 근년에 출토되어 현존하는 755년에 이루어진 『화엄경』(80권본) 사경(寫經)의 주도 인물이기도 하다. 화엄사 장륙전(丈六殿, 지금의 각황전)에는 60화엄을 새긴 화엄석경(華嚴石經)이 있었는데 파손되어 현재 1만 여 쪽의 조각이 남아 있다. 각황전 뒤편 언덕에는 중창 시기에 조성한 것으로 보이는 뛰어난 조형의 사자석탑(獅子石塔)도 남아 있다.

467) 화엄사 각황전 뒤편 언덕에 있는 사사자삼층석탑(四獅子三層石塔)이 있는 곳을 효대(孝臺)라 한다. 8세기 중기에 만들어진 신라 이형탑의 백미로 꼽히는 삼층석탑의 기단부가 네 모서리에 웅크린 사자가 중앙의 인물입상과 함께 탑신을 받들고 있는 모양이다. 그 앞에 석등이 있고 석등 기단은 세모난 둥근 기둥 안에 한쪽 무릎을 꿇은 인물상이 공양구를 들고 앉아 있다. 이를 제자가 스승에게 공양을 올리는 모습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일찍부터 자식이 아버지에게 공양을 올리는 모습이라 하여 이를 효(孝)의 상징으로 여겼고, 이 탑과 석등이 자리한 언덕을 효대라고 불렀다. 의천 역시 이곳을 효와 관련된 설화로 이해한 것을 알 수 있다.

留題智異山華嚴寺⁴⁶⁸⁾

寂滅堂前多勝景 吉祥峯上絕纖埃

彷徨盡日思前事 薄暮悲風起孝臺

4) 화엄사에서 연기(緣起)조사 영정에 예배함

위대한 논서 웅장한 경전, 통하지 않음이 없고

〈조사는 평소에 『기신론』과 『화엄경』을 강연하였다〉⁴⁶⁹⁾

일생동안 불법 보호해 깊은 공 있었네

삼천명의 학승들 전등의 등불 나눈 후

원교 종풍이 해동에 가득찼네

〈본전에 “가르침을 전한 학도들이 3천을 헤아린다.”고 하였음〉

華嚴寺, 禮緣起祖師影⁴⁷⁰⁾

偉論雄經罔不通 〈師平昔講演起信花嚴〉

一生弘護有深功

468) 『대각국사문집』 권17 韓4 p.559b6~8

469) 화엄사를 대규모로 중창하여 화엄대찰로 만든 연기(緣起) 대사는 신라 경덕왕 때의 승려이다. 지리산 화엄사(華嚴寺)의 중창주이다. 흥덕현(興德縣, 전북 고창) 출신으로 『화엄경』 사경(寫經)의 발문에서 출신지와 참여 인원이 밝혀짐으로써 역사적 인물로 확인되었다. 이 사경은 연기의 주재하에 754년 8월에 사경을 조성하기 시작하여 755년 2월에 완성하였다. 『대승기신론주망소(大乘起信論珠網疏)』 3권(후 4권), 『대승기신론사변취묘(大乘起信論捨繁取妙)』 1권, 『화엄경개종결의(華嚴經開宗決疑)』 30권, 『화엄경요결(華嚴經要訣)』 13권(후 6권), 『화엄진류환원락도(華嚴眞流還源樂圖)』 1권 등 5종의 저서가 목록에 남아 있다. 의상계 화엄과는 달리 『기신론』을 중시한 학계였음을 알 수 있다.

470) 『대각국사문집』 권17 韓4 p.559b9~12

三千義學分燈後

圓教宗風滿海東 〈本傳云, “傳教義學數三千”〉

5) 새로 대선(大選)⁴⁷¹⁾에서 대덕(大德)⁴⁷²⁾을 받은 이에게 보임

여러 해 학문에 힘써 얼마나 힘들었는가
과업 이루어진 오늘 무리를 모두 넘어섰네
그대들은 불법 전할 뜻 잊지 말게
불법을 널리 펴는 본래 사람에게 있다네

示新授大選大德⁴⁷³⁾

務學多年幾苦辛 業成今日盡超倫
諸生莫忘傳燈志 弘道由來寄在人

471) 대선(大選): 고려시대에 승려들은 교종과 선종으로 나뉘어 종선(宗選)을 치르고, 그 합격자는 본과인 대선을 치렀다. 여기서 합격하면 대덕(大德)의 법계를 주었다. 이후 승계는 대덕-대사(大師)-중대사(重大師)-삼중대사(三重大師)로 오르고, 그 이상은 교와 선이 나뉘어 교종은 수좌(首座)-승통(僧統), 선종은 선사(禪師)-대전사(大禪師)의 승계로 상승하였다.

472) 대덕(大德): 덕이 높은 승려에게 붙이던 존칭. 당나라에서 승려에 대한 법계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신라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에는 승과 본과인 대선(大選)에 합격한 승려에게 처음으로 주는 승계(僧階)로서 쓰였다.

473) 『대각국사문집』 권17 韓4 p.559c6~8

6) 『남산율초(南山律鈔)』⁴⁷⁴⁾를 강의하던 차에 우연히 한 구절 이름

지식이 명민하지 못하고 학문을 연마하지 못하면서

내가 누구이길래 문득문득 강연하는가

단지 성인의 말씀 드날리지 못하여

먼저 부르짖어 좋은 인연 짓기 도모하네

講南山律鈔次, 偶成一絕⁴⁷⁵⁾

識非明敏學非研 予是何人輒講宣

只爲聖言無振發 且圖先唱作良緣

7) 삼각산(三角山)⁴⁷⁶⁾ 인수사(仁壽寺)에서 문수보살 성상에 예배함

오대산에 화신 나뭇은⁴⁷⁷⁾ 헛된 것이 아니니

삼각산에 분신하심 어찌 우연이리요

당나라 임금 아홉 번 돌아 봉새 가마 올리고

우리 임금 여기 오셔서 일찍 글을 남기셨네<당의 아홉 황제가 아홉 차례 오대

474) 『남산율초(南山律鈔)』: 남산종의 사분율초. 남산율종을 개창한 도선(道宣)의 사분율(四分律) 관련 저작 중 가장 중요한 『사분율산번보궐행사초(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 12권. 율종의 근본 서적으로서 가장 깊고 넓게 영향을 미친 『사분율』을 잘라내고 보완하며 30편으로 나누어 그 중요한 뜻을 서술하고, 여러 율사의 설을 참작하여 계율을 행하는 실제 규정을 상세히 서술하였다. 이후 승풍과 위의를 확립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475) 『대각국사문집』 권18 韓4 p.559b8~10

산을 찾았고, 우리 (고려에서는) 덕종(德宗)⁴⁷⁸⁾ 이래로 대대로 행행하시어 문종(文宗)의 시 1수가 있다>

三角山仁壽寺, 禮文殊聖像⁴⁷⁹⁾

五臺現化非徒爾 三角分身豈偶然

唐帝九迴鳴鳳輦 吾君累此早留篇 <有唐九帝尋九五臺山, 在□□□朝, 自德王而下, 代代行幸, 文王有詩一首.>

8) 윤관(尹瓘)⁴⁸⁰⁾ 상공이 상(常) 상인의 결사에 비기어 뜻을 담은 시를 보고 다행하고 감사함을 이기지 못해 화답하여 지음

그해 불도 찾아 소주 항주 지날 때

소경사(昭慶寺)⁴⁸¹⁾ 친히 찾으니 결사 이름이었네

연뿌리 심어놓고 몇 번이나 연꽃 향기 생각했나

476) 삼각산(三角山): 서울특별시 도봉구·강북구·종로구·은평구와 경기도 고양시에 걸쳐 있는 산. 높이 837m. 최고봉인 백운대(白雲臺)를 중심으로 북쪽에 인수봉(仁壽峯), 남쪽에 만경대(萬景臺)의 세 높은 봉우리가 있어 삼각산(三角山)이라고 하며, 근래에는 북한산(北漢山)이라고 한다. 신라 때에는 부아악(負兒嶽)이라 칭하기도 하였다. 서울의 진산으로 산 내주와 주위에 절이 많다.

477) 오대산은 문수보살의 주처로 생각되었다. 『화엄경』(60) 권29 大9 p.590a3~5. 「보살주처품(菩薩住處品)」東北方有菩薩住處, 名清涼山, 過去諸菩薩常於中住. 彼現有菩薩, 名文殊師利, 有一萬菩薩眷屬, 常爲說法.; 『화엄경』(80) 권45 大10 p.241b20~23.)

478) 덕종(德宗): 고려 제9대 왕. 재위 1031~1034년. 이름은 흠(欽). 자는 원량(元良). 현종의 장남이다. 국자감시를 처음 시행하고 거란과의 관계가 순조롭지 않아 그 침입에 대비하여 서북면의 13성과 동북면의 3성을 연결하는 1천리의 관성(關城)을 쌓았다.

479) 『대각국사문집』 권19 韓4 p.562a19~22

산 사고서 공연히 푸르고 험준함 생각하네
 세상 인연에 누가 힘든 일 알리오
 청정한 행동으로 내 생의 즐거움만 기약하리
 진중하고 우아한 글은 먼저 뜻을 보듯
 공 이루면 시절 밝아짐을 급히 알리리

竊見尹相公灌，擬常上人結社，叙意之什，不勝感幸，因而和
 酬⁴⁸²⁾

當年訪道歷蘇杭 昭慶親尋結社名
 種藕幾思香菡萏 買山空憶碧崢嶸
 塵緣誰覺勞身事 淨行唯期樂我生
 珍重雅章先見志 功成應急報時明

480) 윤관(尹瓘) : ?~1111, 고려 중기의 문신. 문종 때 과거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지내고, 1103년 이부상서 동지추밀원사(吏部尙書同知樞密院事)를 거쳐 1104년 (숙종 9)에 추밀원사로 동북면행영도통(東北面行營都統)이 되어 여진(女眞) 정벌의 임무를 맡아 정벌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9성을 축조하였다. 나중에 문하시중을 내렸으나 사양하였다. 이 시에서처럼 의천과 교유가 있었던 듯 의천 입적 후 왕명으로 영통사 대각국사비문을 지었으나,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김부식(金富軾)이 다시 지은 비문이다.

481) 소경사(昭慶寺) : 절강성 항주(杭州)의 서호(西湖) 호반에 있던 절. 오대 때 오월 왕 전원관(錢元瞿)이 건립하여 보리원(菩提院)이라 한 것을 송 태조 964년에 영지(永智)율사가 재건하였고 978년에 계단을 건립하여 매년 수계행사를 개최하였다. 982년에 대소경사(大昭慶寺)라고 사액하였다. 성상(省常)이 이곳에서 화엄정행사(華嚴淨行社) 결사를 열고 염불법문을 드날렸다. 준식(遵式)과 인악(仁岳)은 천태를 선양하였으며 윤감(允堪)을 계단을 재건하였다.

482) 『대각국사문집』 권19 韓4 p.562b7~12

9) 속리사(俗離寺)⁴⁸³⁾로 돌아가는 도생(道生)승통⁴⁸⁴⁾을 보내며

온종일 마차 멈추어도 마음은 싫증나지 않은데
 소매 잡고 갈림길 다다르니 아쉬움 어쩔 수 없네
 무슨 일로 예전 놀던 한쪽 뜻 걸어 두었나
 수정산 아래에는 흰구름만 깊구나

送道生僧統, 歸俗離寺⁴⁸⁵⁾

停驂竟日情無倦 摻袂臨歧恨莫任
 何事舊遊偏掛意 水精山下白雲深

483) 속리사(俗離寺) : 속리산의 법주사(法住寺).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에 있는 절. 고려시대의 기록에는 속리사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신라 때 진표(眞表)와 그의 제자들에 의하여 미륵신앙의 중심 도량으로 창건되었다. 진표가 금산사(金山寺)를 창건하고 제자 영심(永深) 등에게 속리산으로 들어가서 가람을 이룩하고 교법을 펴라고 하여 영심 등이 속리산에 절을 세우고 길상사(吉祥寺)라 한 것이 그 시초이다. 고려시대에도 법상종의 중요 사찰로서 많은 고승들이 활동하였다.

484) 도생(道生)승통 : 도생(導生). 고려 중기 법상종의 학승. 문종의 다섯째왕자로 이름은 정(鎭)이며, 넷째왕자인 의천(義天)의 아우이다. 1070년(문종 24) 개성 현화사(玄化寺)에서 소현(韶顯)을 은사로 하여 출가하였다. 속리산 법주사의 주지로 있으면서 승통(僧統)의 직을 받았다. 법상종의 대가였던 소현의 영향을 받아 그 역시 법상종 승려로 활동하였다. 1095년(숙종 1) 소현이 입적하자 금산사(金山寺) 주지를 겸임하며 활동하였다. 당시 왕실이나 귀족 문벌들이 화엄종과 법상종에 주로 출가하였는데, 같은 왕자들이 두 종파에 나누어 출가한 데서 고려 왕실의 교단 경향을 살필 수 있다.

485) 『대각국사문집』 권19 韓4 p.562b13~15

10) 봉선사(奉先寺)⁴⁸⁶⁾로 돌아가는 문인 낙진(樂眞)⁴⁸⁷⁾ 대사를 보내며

오월 강산을 나른하게 다시 찾아
 예전 살던 곳 돌아가 숨으니 흰구름만 깊구나
 우리 불도를 드날림이 그대에게 있음을 아네
 쓰러짐 붙들려는 호법의 마음 잊지 말게

送門人樂眞大師, 歸奉先寺⁴⁸⁸⁾
 吳越江山懶重尋 舊挹歸隱白雲深
 光揚吾道知君在 莫忘扶顛護法心

486) 봉선사(奉先寺): 개성시 만월동 유암산(由巖山)에 있던 절. (『高麗圖經』 권17 祠宇 王城内外諸寺 “隔官道之北, 由巖山, 又有奉先 彌勒二寺並列.”) 1123년의 기술인 『고려도경』보다 이 의천의 기록이 더 빠른 시기로서, 봉선사에 대한 가장 빠른 기록인 셈이다. 그러나 절 이름이 왕실의 행사와 연관이 있어 고려 초부터 세워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고려 말기에 공민왕이 이 절에 자주 행차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487) 낙진(樂眞): 1045~1114. 고려시대 화엄종의 승려. 호는 오공통혜(悟空通慧). 어렸을 때 출가하여 영통사(靈通寺) 경덕(景德)국사의 제자가 되어 학문을 닦았고, 1056년에 구족계(具足戒)를 받았다. 19세에 승과에 급제하고, 후에 의천을 따라서 송나라에 건너가 항주 혜인원(惠因院)에서 정원법사를 만나 법을 깨쳤다. 숙종 때 승통이 되었다. 의천이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教藏總錄)]』과 『원종문류(圓宗文類)]』를 편찬할 때 도왔으며, 흥왕사(興王寺)에서 교장을 개관 발간할 때 교정작업을 맡았다. 1114년에 왕사가 되었고, 그후 삼장 5천 여권을 강독하여 후학을 지도하였으며, 귀법사와 법수사의 주지를 지냈다. 시호는 원경(元景)이다. 반야사에 세웠던 원경왕사비는 현재 해인사에 옮겨져 있다. 의천의 영통사비에는 낙진이 본래 경덕국사의 문도였으나 의천의 문도가 되었다고 문도 명단에 기록하였다.

488) 『대각국사문집』 권19 韓4 p.562c2~4

11) 문인 혜선(慧宣)대사가 주지가 되어 작별을 고하므로 지어 줌

전당⁴⁸⁹⁾ 높은 회상에서 법 받은 지 오래더니

지리산 정사가람의 주지 되었네

가르침 전할 사람 얻기는 참으로 쉽지 않은데

우리 문중이 다행히도 붙들어 의지했도다

門人慧宣大師, 以住持告別, 因以贈之⁴⁹⁰⁾

錢唐高會資承久 智異精藍主領時

傳教得人誠不易 吾門多幸賴扶持

12) 법왕사(法王寺)⁴⁹¹⁾ 화엄강주 이(利) 상인에게 줌

(1)

높은 법문 파도소리처럼 대중들에 통쾌하게 들리고

489) 전당: 중국 절강성 항주지방. 전당(錢塘) 또는 전당(錢唐)이라고도 쓴다. 의천이 항주 혜인원에서 정원에게서 화엄을 배울 때 수행한 혜선이 같이 전수하였다는 것을 말함.

490) 『대각국사문집』 권19 韓4 p.562c8~10

491) 법왕사(法王寺): 개성 연경궁(延慶宮)에 있던 절. 919년에 태조가 개성 10사의 하나로서 창건하였다. 976년에 경종이, 1009년에 목종이, 1035년에는 정종이 행차하였다. 1047년부터 문종은 팔관회 때 네 차례나 행차하였고 1084년에 선종도 팔관회 때 이 절에 행차하였다. 이처럼 고려시대의 팔관회와 매우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사찰로서 국가적 대행사였던 팔관회 뒤에 왕이 거의 행차하여 분향하는 특수한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 시는 법왕사에서 화엄 강의가 이루어졌음을 알려 준다.

하늘 꽃 때때로 떨어지니 강원이 향기롭네
예나 지금이나 사람 손에 들어가기 힘드니
그윽하고 미묘한 법 얻은 이 그대 혼자뿐일세

(2)

학 모습 보지 못해 부질없이 머무니
하루가 몇 해보다 길구나
고향의 산천 소식 물어보려니
밤 되면 꿈 속에 몰래 들어오려나

贈法王寺華嚴講主利上人 二首⁴⁹²⁾

高騁潮音快衆聞 天花時落講軒芬
古今罕入餘人手 攬得玄微獨有君
未看鶴態空留 一日長於數爍
且問故山水石 夜來潛入夢不

13) 학원에서 일삼아 쓰다

깊고 고요한 절에 살 곳 정하여
문닫고 세상 시끄러움 피했네
뜻은 있으나 늙어감 가여워라
무슨 마음으로 지는 꽃 아꼇까
세상 인연 무엇하러 돌아보리

492) 『대각국사문집』 권19 韓4 p.563a22~b3

우리 불도 일어남 감탄하네
 고요하여 아는 이 없는데
 솔 창문 앞에 해는 또 기우누나

學院書事⁴⁹³⁾

卜居幽靜寺 掩戶避諠譁
 有意憐顏景 何心惜落花
 塵緣那足顧 吾道可興嗟
 寂寂無人識 松窓日又斜

14) 현화사(玄化寺)에서 머물며 지음

보배롭게 만든 장엄 경치도 맑은데
 날란다⁴⁹⁴⁾ 빈 절은 고금에 이름 높네
 푸르름 구별 어려운 천산은 점점이 서고

493) 『대각국사문집』 권19 韓4 p.563b4~8

494) 날란다: 인도의 날란다(那爛陀, 𑖇𑖧𑖫𑖜 Nālandā) 사원. 인도 마가다국의 수도 왕사성 북쪽에 있던 대사원. 지금의 라즈기르(Rajgir) 북쪽 11km 거리에 있다. 5세기 초 굽타왕조의 사카디트야(𑖇𑖧𑖫𑖜 Śākāditya, 帝日)왕이 건립하여 점차 증대되어 인도 최대이자 최고 학부가 되었다. 현장은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에서 그 유래와 현상을 상세하게 기술하였는데, 7세기 당시 1만명의 승려들이 8개로 나뉜 사원에서 대승과 소승 18부, 베다와 인명, 의학과 술수 등을 학습하는 종합대학과 같은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였다. 굽타왕조의 몰락과 힌두교의 발흥으로 점점 쇠퇴하였고, 12세기말에 이슬람의 침공으로 대부분 파괴되었다. 14세기에 지공(指空)이 날란단의 율현(律賢, 𑖇𑖧𑖫𑖜 Vinaya-bhadra)에게 출가하였다고 하므로 이때까지 명맥은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은 사원의 기반부가 일부 탑과 함께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남아 있다.

그윽한 한가로움 알려주는 몇몇 새소리
 전각은 빛나고 고승들은 달빛에 선정에 들고
 길 헤매며 노니는 나그네는 구름 밟고 가네
 동군(東君)⁴⁹⁵은 무슨 일로 아름다운 경치 가져오나
 봄 다해가니 봄빛 이쪽으로 기우네

留題玄化寺⁴⁹⁶

寶構森嚴景槩清 爛陀空檀古今名
 碧無分別山千點 巧報幽閑鳥數聲
 閣迢高僧臨月定 路迷遊客躡雲行
 東君何事將佳致 春盡春光向此傾

15) 이자현(李資玄)⁴⁹⁷ 거사에게 부침

해인의 삼라만상 벌린 곳
 세상사 대도량이라
 나는 가르침 전하는 일 급하고
 그대는 좌선하기 바쁘네
 뜻을 얻으면 둘 다 아름답고
 정을 따르면 둘 다 상하리
 원융한데 무얼 버리고 취할까

495) 동군(東君): ① 태양신(太陽神)의 이름으로 태양을 가리킴. ② 봄을 맡은 신. 여
 기서는 ②를 말한다.

496) 『대각국사문집』 권19 韓4 p.563b9~13

497) 이자현(李資玄): 1061~1125, 고려 중기의 학자. 고려 최고의 문벌인 인주이씨

법계가 바로 내 고향인데

寄玄居士⁴⁹⁸⁾

海印森羅處 塵塵大道場

我方傳教急 君且坐禪忙

得意應雙美 隨情卽兩傷

圓融何取捨 法界是吾鄉

16) 봉선사(奉先寺) 익승(翼乘)대사가 배우기를 좋아하고
싫증내지 않아 내가 그 뜻을 아름답게 여겨 『화엄경』 대
경의 청량대소를 주어 유통하게 하다

억만 계승의 원만한 교법 만법의 근원인데

청량국사 두루 알아 그 문 얻었네

도를 중히 여겨 생명 가벼이하지 않는 이 아니면

누가 불법 빛내어 큰 은혜에 보답하리

奉先寺翼乘大師，好學不倦，予佳其志，以花嚴大經清涼大疏，

(仁州李氏) 출신. 자는 진정(眞靖), 호는 식암(息庵)·청평거사(淸平居士)·희이
자(希夷子). 문벌을 형성한 이자연(李子淵)의 손자이다. 1089년에 과거에 급제하
여 대악서승(大樂署丞)이 되었으나 관직을 버리고 춘천의 청평산(淸平山)에 들
어가서 부친이 세운 보현원(普賢院)을 문수원(文殊院)이라 고치고 당우를 중창
하여 선(禪)을 수행하였다. 예종이 여러 번 불렀으나 사양하고, 1117년에 예종
이 남경(南京)에 행차하였을 때 잠깐 왕을 만나고는 다시 문수원에 들어가 수도
에 전념하였다. 시호는 진락(眞樂)이다. 이자현에 의해 고려 중기에 선이 행해져
이후 선종 진흥의 중간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평가된다.

498) 『대각국사문집』 권19 韓4 p.563b14~18

捨與流通.⁴⁹⁹⁾

億頌圓詮萬法源 清涼融識得其門

自非重道輕生者 誰肯光揚報大恩

17) 원각대참회를 삼각산(三角山) 현(玄)도인에게 부침

종남산 선관(禪觀)은 모두 그윽하고 미묘하여

삼백년 이래 아는 이 드무네

도량이 원돈 교지에 마음 두지 못하면

그 누가 번뇌의 틀 쉬어 연마하고 음미하리

以圓覺大懺, 寄三角山玄道人⁵⁰⁰⁾

終南禪觀盡幽微 三百年來識者稀

局匪留心圓頓旨 有誰研味息煩機

18) 감회를 학도에게 보임

(1)

지혜의 빛 천년 동안 어둠 깨고 비쳐와

끼치신 가르침 만나 경사가 더욱 깊네

슬프다 이 세상에 경전 배우는 이들

499) 『대각국사문집』 권19 韓4 p.563b23~c3

500) 『대각국사문집』 권19 韓4 p.563c4~6

불법을 배우지만 도대체 불법 공경하는 마음 없구나

(2)

스승은 스승답지 못하고 제자는 제자답지 못해

불도를 빛내려 해도 참으로 기약하기 어렵네

오래도록 법등 전하는 뜻 그 누가 알라

태어나 이 시절 만나니 슬프기만 하구나

感懷示徒⁵⁰¹⁾

慧日千齡罷炤臨 獲逢遺教慶彌深

堪嗟此世橫經輩 學法都無敬法心

師不能師資不資 欲令光道固難期

悠悠誰識傳燈志 生值斯時足可悲

19) 모후의 국상으로 서경에 이르러 영명사(永明寺)⁵⁰²⁾ 부벽 료(浮碧寮)에 올라

듣건대 영명사엔 좋은 경치도 많아

몇 해를 그리다가 이제야 찾아왔네

오늘 아침 강산의 색깔도 슬프게 바뀌니

풍광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줄 비로소 믿겠네

因母后喪, 到西都, 登永明寺浮碧寮⁵⁰³⁾

501) 『대각국사문집』 권19 韓4 p.563c7~11

502) 영명사(永明寺): 평양시 금수산(錦繡山)에 있는 절. 부벽루(浮碧樓)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고려 역대로 중시했던 서경(西京, 평양)의 중심에 위치한 사찰이고

聞說永明多好景 幾年凝思此游尋
今朝哀變江山色 始信風光自我心

20) 반룡산(盤龍山) 연복사(延福寺)⁵⁰⁴에 이르러 보덕(普德)
성사의 비래방장(飛來方丈) 옛 터에 예경함

방장 날린 신령한 자취 남쪽에서 보게 되어
예전 은거하신 자취 이제 절하옵니다
의상대사 원효대사 일찍이 도를 물었으니
슬픈 마음 길이 생각하며 돌아갈 줄 모르네

到盤龍山延福寺, 禮普德聖師飛房舊址⁵⁰⁵
飛房靈迹瞻南地 舊隱遺蹤禮此間
浮石芬皇曾問道 慨然長想未知還

풍광이 좋아 국왕의 행차도 찾아서 선종·숙종을 비롯한 여러 왕들이 대동강에
용선을 띄우고 노닐다가 이 절에 가서 헌향하였다. 특히 예종은 1109년에 문두
루도량(文豆婁道場)을 개설하고 이어 절의 중창을 명하기도 하였다. 의천 역시
모후의 국상으로 서경에 가서 이 절을 찾았다. 근대에도 중시되어 1911년 서도
(西道)의 본산이 되었고, 1920년에 31본산 중의 하나가 되었다.

503) 『대각국사문집』 권19 韓4 p.563c13~15

504) 연복사(延福寺): 보덕이 백제 고대산 경복사에 망명하기 전에 주석하던 절. 위
치는 알 수 없다.

505) 『대각국사문집』 권19 韓4 p.563c16~19

21) 낙진(樂眞)대사의 강의를 듣고

부처님 조사 글 지어 무슨 일에 연연했나
오로지 법을 전해 중생 교화하셨네
요즈음 강주들 모두 거칠고 게으르는데
그대 홀로 좇아서 우리들과 다르네

聽樂眞大師講⁵⁰⁶⁾

佛祖垂文緣底事 只應傳授化群萌
近來講主皆荒怠 君獨循循異衆情

22) 스스로 경계함

한가하게 정한 뜻 없어
세월 아낌이 좋은 줄 모르네
비록 경론 공부한다지만
무식 면치 못함을 어찌 알리오

自誠⁵⁰⁷⁾

悠悠無定志 不肯惜陰光
雖曰攻經論 寧知目面牆

506) 『대각국사문집』 권19 韓4 p.563c20~22

507) 『대각국사문집』 권19 韓4 p.564a21~23

23) 의천은 사신⁵⁰⁸⁾ 왕명을 받들어 와서, 천축국의 천길상(天吉祥) 삼장의 진영과 복당(福唐)⁵⁰⁹⁾ 비산계주(飛山戒珠)⁵¹⁰⁾ 장로의 진영 1폭씩을 가져와 귀의 경례하게 해주신 데 대해 감사하기 그지 없어, 삼가 시 세 수를 지어 주상께 받들어 올리고 보아 주시기를 엿드려 뵙니다

(1)

겉모양과 본래 모습 어찌 다른 사람일까
단청은 원래 정신을 중히 여김이라
임금께서 산문에 보내 주신 뜻은
호법의 인연이 이때에 있음이네

(2)

목숨 바쳐 불법 유통할 사람 대대로 있어
오는 길에 총령⁵¹¹⁾ 눈 속에 13년을 보냈네<천길상삼장이 스스로 “길에서 13년 있었다”고 말했다>

508) 중사(中使)는 궁중에서 보낸 사신을 말함

509) 복당(福唐): 복주(福州) 복당현(福唐縣). 송 계주(戒珠)가 지은 『정토왕생전(淨土往生傳)』의 서문에 ‘宋福唐飛山沙門戒珠叙’라 하였다.

510) 비산계주(飛山戒珠): 계주(戒珠, 985~1077)는 어려서 법성자광(法性子光)을 사사하였고 출가 후 선행을 즐겨 하였다. 문장에 뛰어나 사람들이 묵서(默書)라고 불렀으나 저술 십수만언을 모두 태워버리고 단지 『정토왕생전』만 남았다고 한다. 선을 법해회요(法海懷要)에게 배웠고, 황벽산에 머물 때 별전을 지었다. 선과 교의 나뉘는 것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주장하였다. 『정토왕생전(淨土往生傳)』은 양·당·송 『고승전』에서 정토왕생한 75인의 사적을 모아 엮은 것이다.

511) 총령: 총령(葱嶺)은 파미르 고원. 인도에서 중국에 들어오는 관문으로, 중앙아시아를 거쳐 불교가 중국에 전해지는 길목이다.

그해에 다행히 친히 가르침 받아
지금 모습 대하며 숙세의 인연임을 생각하네

(3)

부처님의 남기신 법문 대천세계에 가득한데
도는 사라져 더욱 멀고 넘어진 불법 붙드는 이 드무네
비산의 목자님은 어떤 분인가
크게 호법하신 공 높아 사해에 전해졌네

某承中使至，奉傳王旨，以天竺國天吉祥三藏眞容，福唐飛山
戒珠長老眞容各一軸，許令歸敬者，無任感幸之至，謹課成拙
詩三首，仰獻宸堦，伏惟賜覽。⁵¹²⁾

形貌由來豈異人 丹青元是重精神

王家寄到山門意 護法因緣在此辰

委命流通代有人 路經葱雪十三春 〈三藏自言，“在路十三年”〉

當年幸得親承訓 今對風儀念宿因

金口遺文滿大千 道消彌遠罕扶顛

飛山默子何爲者 弘護功高四海傳

24) 해인사에 물러나 지음

(1)

해인사가 여산(廬山) 절⁵¹³⁾ 보다 뛰어나구나
가야 시내는 도리어 호계(虎溪)⁵¹⁴⁾가 흐르는 듯〈가야는 시내 이름이다〉
혜원(慧遠)공의 높은 자취 이어받기 어려우나

또한 죽을 때 뜻 이미 이룬 걸 기뻐하노라

(2)

몇 해 동안 치욕 받으며 서울에 살아
불문의 공을 부끄러워 이루지 못하네
이때 도를 행해야 헛수고일뿐
숲과 샘과 거루며 마음을 즐기네

(3)

일 지나 몇 차례나 탄식했던가
해마다 나라와 부모님께 보답할 길 없어라
가련하다 젊은 시절이여 마음은 어제 같건만
어느새 벌써 40년이 흘렀네

(4)

부귀와 영화는 모두 봄 꿈과 같아

512) 『대각국사문집』 권20 韓4 p.565a14~b2

513) 여산 절이란 여산(廬山) 백련사(白蓮社)를 말한다. 동진 때 혜원(慧遠)이 염불결사를 열어 정토수행의 근본도량이 되어 정토교의 성지로 알려져 있다.

514) 호계(虎溪): 여산의 백련사 앞을 흐르는 개울이다. 호계는 호계삼소(虎溪三笑)라는 고사로 유명하다. 유학자인 도연명(陶淵明)과 도사인 육수정(陸修靜)이 백련사의 고승 혜원을 찾아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세 사람이 담소하며 걷다가 손님들을 배웅하던 혜원이 그만 담소에 빠져 자신이 스스로 넘지 않겠다고 정한 호계를 넘어서고 말았다는 이야기이다. 흔히 유·불·도 삼교가 어울리는 상징으로 얘기되어 수많은 그림의 소재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대로 보아 이 세 사람이 동시에 만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되어, 삼교화합의 상징을 후대에 만든 이야기로 판단하고 있다.

모였다 흩어지고 있다가 없어지니 물거품 같네
정신을 쉬고 마음을 편안히 하는 외에는
헤아려본들 무슨 일을 추구하리

海印寺退居有作 四首⁵¹⁵⁾

海印却勝廬岳寺 伽耶還似虎溪流 〈伽耶者溪名也〉

遠公高迹雖難繼 且喜終焉志已酬

屈辱多年寄帝京 教門功業耻無成

此時行道徒勞爾 爭似林泉樂性情

事去幾迴興嘆息 年來無計報君親

可憐少壯心如昨 不覺銷磨四十春

榮華富貴皆春夢 聚散存亡盡水漚

除却栖神安養外 算來何事可追求

25) 해동소(海東疏)⁵¹⁶⁾에 의해 『금강경』을 강설하고 축하하여 지음

뜻과 말은 문자가 아니라 부처의 마음에 들어맞고
원효대사 나눈 가르침 홀로 보통보다 낫구나
오랜 생애 외로운 이슬 밤과 같이 어두운데

515) 『대각국사문집』 권20 韓4 p.565b3~12

516) 해동소(海東疏) : 글자 그대로는 해동의 승려가 지은 소이다. 일반적으로는 원효가 지은 『기신론소』가 워낙 뛰어난 평가를 받아 중국에서 해동소로 불렸다고 하여 이를 가리킨다. 여기서는 원효의 『기신론소』에 의해 『금강경』을 강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효의 『금강경소』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오늘 만남은 겨자씨가 바늘을 만난 듯⁵¹⁷⁾

依海東疏, 講金剛經, 慶而有作.⁵¹⁸⁾

義語非文契佛心 芬皇科教獨堪尋

多生孤露冥如夜 此日遭逢芥遇針

26) 해동 교적(敎迹)을 읽고

논을 짓고 경전의 종지 세워 큰 지혜 펼치니

마명과 용수의 업적 이에 짝하누나

지금처럼 공부에 게을러 도무지 무식해지면

도리어 우리나라에 공자 있다 함과 같네

讀海東敎迹⁵¹⁹⁾

著論宗經闡大猷 馬龍功業是其儔

如今惰學都無識 還似東家有孔丘

517) 겨자씨가 바늘을 만난다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 곧 불법을 만나기가 어려움을 비유하는 말. 땅 위에 바늘 하나를 세워 두고 하늘에서 겨자씨 하나를 떨어뜨려 바늘 끝에 적중하기가 매우 어렵듯이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

518) 『대각국사문집』 권20 韓4 p.565b13~15

519) 『대각국사문집』 권20 韓4 p.565b16~18

27) 학도 중에 내 진영을 그린 이가 있는데 그 필묘를 아름
답게 여겨 그로 인해 보임

정교한 기예는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다섯 기예⁵²⁰⁾ 배움이 어찌 그리 이른가
이미 내 형상을 그렸으니
또한 내 불도 전하기를 바라노라

學徒中 有寫吾眞者, 佳其筆妙, 因而示之.⁵²¹⁾

精藝發懷抱 五明學何早

既能寫我形 亦願傳吾道

28) 당나라 배(裴)상공⁵²²⁾의 「보리심을 일으키는 글[發菩提
心文]」을 읽고

진중하신 당나라 보살께서
재상으로 설법하여 중생들을 구했네
송나라 임금 신과 통한 후로부터
진리의 바다의 물 중생들 비로소 나루터 물었네

520) 오명(五明)은 고대 인도의 학술 분류법인 5종의 학예를 말한다. ①성명(聲明, 𑖀śabda-vidyā)은 언어나 문장의 학문, ②공교명(工巧明, 𑖄śilpakarma-vidyā)은 공예나 기술 또는 산술 역학(曆學)의 학문, ③의방명(醫方明, 𑖄cikitsā-vidyā)은 의학과 약학 그리고 주술법의 학문, ④인명(因明, 𑖄hetu-vidyā)은 논리학, ⑤내명(內明, 𑖄adhyātma-vidyā)은 오승 인과의 묘리를 오로지 마음으로 사색하는 학문이나 스스로의 종지를 표명하는 학문을 말한다.

521) 『대각국사문집』 권20 韓4 p.565c2~5

讀唐朝裴相公發菩提心文⁵²³⁾

珍重唐家菩薩人 宰官說法拯沈淪

自從宋帝通神後 性海群迷始問津

29) 기묘년 6월 21일에 이방(梨房)에서 이야기한 후에 우연
히 시 한 수를 이루어 세자전하께 올림(예종(睿宗)⁵²⁴⁾께서 세자이
셨을 때이다)

예전에 함옹(咸雍)⁵²⁵⁾ 연간을 생각하니

누차 문화(文會) 있어 이 경지에 올랐네

중흥 세상 다시 만날 줄 누가 알리오

522) 배(裴)상공: 배휴(裴休, 797~870). 당의 관리이자 학자. 장경(長慶, 812~824) 연
간에 진사가 되고 대중(大中, 847~859) 연간에 병부시랑이 되고 후에 여러 지역
의 절도사가 되었다. 사람됨이 듬직하고 풍도가 우아하며 몸가짐이 엄정하여
선종이 진정한 유자라고 칭송했다고 한다. 문장에 능하고 해서를 잘 썼는데 중
밀에게서 화엄을 배워 중밀은 저술을 이룰 때마다 서문을 부탁하였다. 또 황벽
희운(黃檗希運)과 완릉에서 선에 대해 논의한 것을 기록하여 『완릉집(宛陵集)』
을 만들어 세상에 크게 유행하였다. 무종의 폐불시에 중신으로서 힘을 다해 보
호하여 곧 복구되도록 하기도 하였다. 『권발보리심문(勸發菩提心文)』을 짓고,
희운의 법요를 모은 『전심법요(傳心法要)』를 편찬하였다.

523) 『대각국사문집』 권20 韓4 p.565c21~566a1

524) 예종(睿宗): 고려 제16대 왕. 재위 1105~1122년. 숙종의 장자. 국학(國學)에 전
문 강좌인 칠재(七齋)를 설치하여 관학(官學)의 진흥을 꾀하고, 청연각(淸澣閣)
과 보문각(寶文閣)을 짓고 학사(學士)를 두어 경서(經書)를 토론하게 함으로써
유학을 크게 일으켰다. 국학에 양현고(養賢庫)라는 장학 재단을 설립한 것도 인
재를 양성하기 위한 시책이었다. 이런 정책으로 예종대는 문예가 크게 일어난
시기였다.

525) 함옹(咸雍): 요(遼)나라 도제(道帝)의 연호. 1065~1074년.

옛일 느끼고 오늘 생각하니 차마 돌아갈 수 없어라

己卯六月二十一日, 梨房攀話之後, 偶成一絕, 寫呈副君殿下. 〈睿王在東宮時〉⁵²⁶⁾

憶昔咸雍紀號間 屢因文會此躋攀
誰知再邁中興世 感舊懷今未忍還

30) 혜덕(慧德)왕사⁵²⁷⁾를 애도함

복덕과 지혜 두 가지 엄연하게 완전하고
마음 닦아 강연하고 선양하였네
천년의 불법이 흐려져도
불법 수호함은 일생의 인연일세
도술 내원에서 인이 처음 가득 차니⁵²⁸⁾

526) 『대각국사문집』 권20 韓4 p.566a2~5

527) 혜덕(慧德)왕사: 소현(韶顯, 1038~1096). 고려 중기 법상종의 고승. 고려 최고의 문벌 이자연(李子淵)의 아들이다. 11세에 출가하여 해린(海麟)국사의 제자가 되었고, 구족계를 받은 후 1061년에 오교대선장(五敎大選場)에 합격하여 대덕(大德)의 법계를 받았다. 왕실 내전(內殿)에서 법석을 주관하거나 사찰에서 강연하는 일에 몰두하다가 1079년에 금산사(金山寺)의 주지로 부임하여 절을 중창하여 규모를 확대하였다. 금산사 남쪽에 광교원(廣敎院)을 설치하여 경전을 강독하고 법상종 전적을 펴내, 『법화현찬(法華玄贊)』 등 유식계통의 장소 32부 353권을 간행하였다. 이는 의천이 홍왕사에서 교장을 간행하는 것과 대비되는 법상종 자체의 경론 잔행 작업이었다. 1083년에 개국사(開國寺)와 자운사(慈雲寺) 선장(選場)의 회주가 되고, 승통이 되어 현화사에 주석하였다. 제자에 의천의 아우이자 문종의 제5왕자인 도생승통(導生僧統)이 있다. 금산사에 비가 남아 있다.

528) 미륵보살은 브라만 집안에서 출생하여 뒤에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부처님보다 먼저 입멸하여 보살로서 천인(天人)을 위해 설법하며 도솔천(兜率天)에 살고 있

남섬부주의 과보는 이미 옮겨졌구나
 어찌 마땅히 구름과 안개 걷어내고
 앉아서 도안(道安)법사의 하늘을 보라(도안법사는 천안통(天眼通)을 얻어 멀리
 서 도솔천을 보았다)

悼慧德王師⁵²⁹⁾
 福慧二嚴全 剗心在講宣
 澆漓千載教 弘護一生緣
 內院因初滿 南洲報已遷
 何當撥雲霧 坐見道安天 <道安法師得天眼通, 遙見兜率天.>

31) 경진년⁵³⁰⁾ 6월 4일에 국청사(國淸寺)에서 천태묘현(天台妙玄)⁵³¹⁾의 강의를 마치고 나서 학도들에게 뜻을 말하여 보임

스무 해 동안 열심히 강연에 힘써

<나는 23세에 처음으로 정원본 신역 『화엄경』⁵³²⁾과 『소』⁵³³⁾ 모두 50권을 강의
 하여 그 해에 강의를 마치고, 그 후로 강연을 그만둔 적이 없다>

비단을 뒤집어 삼백권의 꽃다운 경전 꿰뚫었네

<강연한 여러 경전이 3백여 권인데, 『화엄경』 3본 모두 180권은 비록 옛 사람들

다고 한다. 미륵보살은 여러 중생을 제도하고자 처음 발심할 때 고기를 먹지 않
 겠다고 하여 이로 인해 자씨(慈氏)보살로 부른다. 석존께서 미륵에게 부처가 되
 리라고 수기할 때 그 수명이 4천세(인간의 시간으로는 약 57억 6천만년)가 될 때
 장차 도솔천에서 이 땅에 내려와 용화수(龍華樹) 아래에서 성불하고 삼회(三會)
 에 걸쳐 설법하여 각각 96억, 94억, 92억 중생을 제도한다고 한다.

529) 『대각국사문집』 권20 韓4 p.566a13~17

530) 경진년: 1100년. 의천이 입적하기 한 해 전인 46세 때.

이 전해온 견해가 있지만 나는 모두 쓰지 않고 다만 본소(本疏)⁵³⁴⁾에 의거하여 우리말로 번역하였다. 남본 『열반경』 36권 등도 또한 그렇다. 『묘현(妙玄)』 10권 등 여러 경전은 예전에 전수한 이가 없어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곧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또 10여 부가 있다. 고승전에 “번역한다는 것은 비단을 뒤집는다 는 것과 같은데 다만 꽃의 왼쪽과 오른쪽이 (다름) 뿐이다.”⁵³⁵⁾ 라고 하여 “비단

-
- 531) 천태묘현(天台妙玄): 지의의 『법화현의(法華玄義)』, 지의가 설하고 장안관정(章安灌頂)이 기록한 『법화경현의(法華經玄義)』와 역시 지의가 설하고 관정이 기록한 『법화경문구(法華經文句)』의 두 책을 아울러 말할 때 현소(玄疏), 또는 묘현묘소(妙玄妙疏)라고 한다. 『법화현의』는 10권(혹은 20권)으로 지의가 593년에 형주 옥천사(玉泉寺)에서 강술한 것을 관정이 필기한 것이다. 묘법연화경이라는 경 제목과 『법화경』의 깊은 이치를 상세히 설하였다. 법화 3대부의 하나이다.
- 532) 『화엄경』 40권본을 말한다. 『화엄경』은 동진 때 한역된 60권본[晉本], 당 무후 때 한역된 80권본[周本]이 대본이고, 당 후기 정원 연간에 한역된 40권본[貞元本]은 앞의 두 본의 입법계품만을 따로 만든 것이다. 반야(般若)가 번역하였으며, 징관과 원조, 등도 참여하여 상정하였다. 본래 이름은 『대방광불화엄경입부의해탈경계보현행원품(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脫境界普賢行願品)』이다. 두 대본과 대체로 비슷하나 문장이 더 늘어났고, 마지막 권40에 보현보살의 10종 대원을 추가한 것이 특색이다.
- 533) 징관이 지은 『화엄경소』 10권. 『화엄경』 40권본에 대한 징관(澄觀)의 주석서. 『화엄경보현행원품소(華嚴經普賢行願品疏)』, 『정원신역화엄경소(貞元新譯華嚴經疏)』, 『정원소(貞元疏)』라고도 한다. 40화엄의 강요를 서술하고 경전의 글을 해석한 것이다. 40화엄의 번역이 완성된 798년에 왕명으로 찬술되었다. 80화엄에 대한 징관의 주석서인 『화엄경소』 60권의 입법계품 부분과 큰 뜻은 같지만, 이 책의 특징은 마지막에 40화엄에만 있는 보현보살십대원문(普賢菩薩十大願文)을 상세하게 주석하여 수행의 핵심으로 제시한 것이다. 또한 미타정토인 극락세계가 화엄의 연화장세계와 따로 있지 않다는 해석이 있다. 징관의 40화엄 주석서로는 『별행소(別行疏)』라고 부르는 『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별행소(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別行疏)』 1권도 있다.
- 534) 징관의 『대방광불화엄경소』 60권을 말함.
- 535) “번역한다는 것은 비단을 뒤집으면 배면은 모두 꽃무늬인데 단지 그 꽃은 왼쪽과 오른쪽이 같지 않을 뿐이다. 이로부터 번과 역의 두 이름이 행해졌다.”(『宋高

을 뒤집는다.”고 하였다.)

애태워 힘썼으나 전등의 힘 부족해 부끄러워

〈내가 가슴에 마음에 걱정하는 병이 있는데 요즘 점차 심해져서, 경전을 보고
읽는데 매번 가슴에 통증을 느껴 학업이 황폐해졌다〉

다만 여산의 백련결사 심는 데 합하고자 하노라

〈인에태후께서 전에 일찍이 결사의 일을 발원하여, 가지고 계신 송본(宋本) 명
화인 여산 18현⁵³⁶⁾의 진용(眞容)을 사원 문에 걸어두고 법당에 안치하지 못하였
다. 나는 이 좋은 인연에 의지하여 서방 극락의 업을 닦고 왕생의 길을 빌고자
할 뿐이다〉

庚辰六月四日, 國清寺講徹天台妙玄之後, 言志示徒⁵³⁷⁾

二紀孜孜務講宣 〈予自二十三歲, 始講貞元新譯花嚴經并疏共五十卷, 其年
徹軸, 自後講演未嘗有廢.〉

錦翻三百貫花詮 〈所有講演諸部三百餘卷, 而花嚴三本共一百八十卷, 雖有
古人相承之說, 吾並不用, 但依本疏翻譯方言. 其南本涅槃三十六卷等亦爾. 妙
玄十卷等諸部, 古無傳授者, 不揆庸受, 輒譯方言, 亦有十餘部. 高僧傳云, “翻也
者, 如翻錦綺, 但花有左右耳.” 故云 “錦翻”.〉

僧傳』 권3 「唐京師滿月傳」 大50 p.723a27~29 翻也者如翻錦綺背面俱花, 但其花有左
右不同耳, 由是翻譯二名行焉.)

- 536) 여산18현(廬山十八賢) : 혜원이 여산 동림사(東林寺)에 백련사(白蓮社)를 열어
염불결사를 시행할 때 참여한 18인의 명사. 승려와 일반인 123인이 결사에 참여
하였는데, 그중 명사 18인을 부르는 말이다. 혜원 외에 혜영(慧永)·혜지(慧持)·
도생(道生)·담순(曇順)·혜예(慧叡)·담공(曇恆)·도명(道昇)·담선(曇詵)·도경
(道敬)·불타야사(佛陀耶舍)·불타발다라(佛駄跋陀羅)·유유민(劉遺民)·장야(張
野)·주속지(周續之)·장진(張詮)·종병(宗炳)·뇌차중(雷次宗) 등이다. 이들의
전기는 『연사고현전(蓮社高賢傳)』에 수록되었고, 여산에 18현을 모신 사당이 있
었다.

- 537) 『대각국사문집』 권20 韓4 p.566b11~20

惟勞愧乏傳燈力〈予有心勞之病，近日漸增，看讀經書，每覺心痛，學業荒廢。〉

祇合匡廬種社蓮〈仁睿太后 昔曾發愿結社之事，所有宋本名畫廬山十八賢

眞容，落在院門，未⁵³⁸⁾有安置堂閣。予欲仗此勝緣，修西方之業，用薦冥遊云爾。〉

538) 판본과 내용에 의해 未로 교감함.



體元 체원

◀ 白花道場發願文略解 백화도량발원문약해 ▶

해제

1. 제목을 풀이함 _____
2. 바르게 글을 해석함 _____
 - 1) 귀의하고 공경하여 몸을 이루고 능관과 소관을 잊음
 - (1) 공경하는 의식
 - (2) 모습을 관함
 - 2) 삼가 발원을 내어 일을 이어 결과를 이룸
 - (1) 귀명하는 모습
 - (2) 따로 발원을 밝힘
- 3) 귀의하여 우려름을 맺고 본사에게 회향함 _____





解題 해제

『백화도량발원문약해(白花道場發願文略解)』는 신라의 의상(義相)이 지은 「백화도량발원문」에 대해 고려 후기의 체원(體元)이 해석을 붙여 간행한 것이다.

체원(1280대~1338 이후)은 고려 후기에 관음신앙을 사상적으로 집대성한 이이다. 호는 목암(木庵), 자는 향여(向如)이다. 고려 후기의 관료가문인 경주이씨 이전(李璵, 1244~1321)의 아들로, 고려말의 대표적인 유학자인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 1287~1367)의 형이다. 체원은 스물 안팎의 나이에 출가하여 승과에 합격하고, 충선왕에게 발탁되어 여러 사찰의 주지를 지냈다. 체원은 수도 개경이 아닌 해인사를 중심으로 한 경상도 일원에서 주로 활동하였다. 해인사 인근 성주 법수사(法水寺)의 주지를 지냈고, 1324년에는 고려 반룡사(盤龍寺)에서 활동하였는데, 반룡사는 승통 요일(寥一)이 화엄결사를 창설한 도량이었다. 그리고 경주 동천사(東泉寺)의 주지를 지냈다. 이처럼 체원은 1320년에서 1330년대에 경상도의 화엄종 사찰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해인사에서 여러 종류의 불전 주해서를 펴냈다.¹⁾ 체원은 1338년에는 양가도승통(兩街都僧統)의 직책으로 『반야경』과 『화엄경』 사경



을 주도하였다.

『백화도량발원문약해』는 신라 의상이 지은 것으로 전승되던 「백화도량발원문」을 의상을 비롯한 화엄 조사들의 여러 전적을 인용하여 풀이한 책이다. 체원이 해석하고 각화사(覺華寺)의 성지(性之)가 교감한 이 책은 1328년에 집해를 이루고, 1334년에 계림부에서 개판 간행하였다. 이 약해의 간행에는 동천사(東泉社) 도인(道人) 선순(善珣)을 비롯한 승속의 여러 사람들이 서사(書寫)와 각수(刻手)로 참여하였고 계림부윤은 시주로 참여하였다. 이는 이 책 편찬의 계기가 된 체원의 사형 인원(忍源)을 비롯하여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관음신앙에 관심을 가졌음을 말해 준다. 이러한 편찬과 간행 사실을 통해 이시기 고려 사회에서 관음 신앙이 폭 넓게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백화도량발원문」은 관음보살을 관상하고 관음을 본사로 모시고 정토에 낳기를 발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글이 의상이 지은 것인지 후대의 가탁인지에 대해 근래의 논란이 있으나,²⁾ 체원은 이 책에서 의상이 낙산 관음굴에 이르러 예배 발원하고 지은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백화도량발원문」은 관음의 역할이 현세 구원적이 아니고, 『관무량수경』에서 아미타의 보조자로서 머리에 천관(天冠)을 쓰고 화불(化佛)을 모신 형상이나, 아미타불을 도와 수행자를 서방극락으로 영접하여 진실한 이치를 깨달아 이는 무생법인(無生法忍)을 얻게 하는 관음의 역할과 유사성을 보인다.

의상의 신앙은 『화엄경』 60권본에 바탕하지만 체원은 『화엄경』 80권본에 토대를 두고 이 글을 해석하였다. 백화도량이라는 표제가 징관이 80화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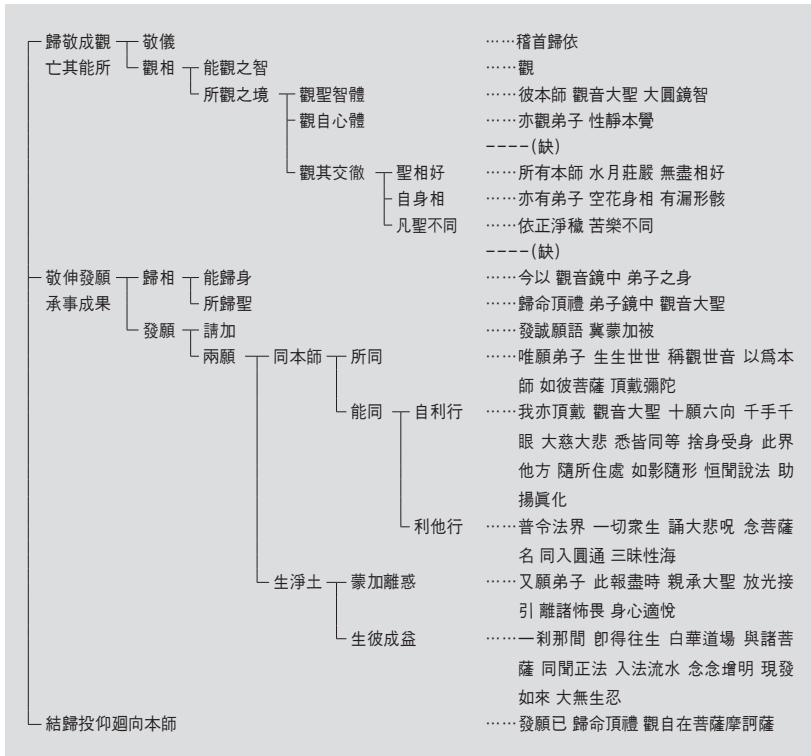
1) 蔡尙植, 1982 「體元의 著述과 華嚴思想」 『韓國華嚴思想研究』, 동국대학교출판부, pp.241~244

2) 정병삼, 1998 『의상 화엄사상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pp.203~212

의 보달락가(補怛洛迦)를 소백화수(小白花樹)라고 풀이한 데 따라 생겨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생각된다. 40화엄과 60화엄의 인용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80화엄을 인용하여 해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징관의 『화엄경소』의 인용이 가장 많다. 다음으로는 법장의 저술로 『탐현기』·『기신론의기』·『망진환원관』 등이 인용되어 가장 다양하고 많은 인용 예를 보인다. 그리고 의상의 저술인 『일승법계도』가 여러 차례 인용되었는데, 이 발원문의 해석에 체원이 의상계 화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처럼 법장과 의상의 인용이 많은 것은 이 책이 의상의 발원문에 대한 해석이므로 징관 이전의 의상과 법장대의 화엄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³⁾ 또 인용 중에 『십구장』의 내용이 균여의 저술에 나오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나 균여의 견해를 인용한 것은 체원이 균여의 저술을 잘 알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이를 통해 의상에서 균여로 계승되는 신라-고려 화엄에 대한 체원의 이해 경향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특징적인 부분은 먼저 발원문의 핵심을 이루는 원동본사(願同本師)와 원생정토(願生淨土)의 양원 구절을 징관이 『섭대승론석』에서 인용 해석한 공양원(供養願) 이하 10종원에 맞추어 구절 각 부분을 일일이 배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또 관음의 응신설에 대해 32응신과 14무외를 들고 이를 『능엄경』을 들어 설명한 것도 특색이다. 발원문의 구절 중에 『능엄경』과 관련이 있는 원통삼매(圓通三昧) 구절이 있기 때문에 관음 응신설도 『능엄경』의 견해를 따랐으리라고 생각된다. 『천수천안경』의 인용이 눈에 띄는 것은 이 발원문의 핵심 내용인 10원6향(十願六向)이 이 경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논서로는 『기신론』이 본각(本覺) 설명에, 『섭대승론석』이 자성신(自性身) 및 10종원 해석에 인용되었다.

3) 정병삼, 2009 「고려 후기 體元의 관음신앙의 특성」 『佛敎研究』 30, pp.72~73



白花道場發願文略解의 구조

『백화도량발원문약해』는 1334년에 해인사에서 간행한 판본이 유통되었는데, 현재는 전체 20장의 목판 중에서 제5장과 제7장의 두 장의 내용은 전해지지 않는다. 현재 해인사에는 7판의 판목 양면에 새긴 14장이 남아 있다.⁴⁾ 판본도 남아 있지 않은 5,7장 외에 9, 10, 13, 14장의 판목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후기에 이 판목을 인본한 책은 판목에 없는 부분을 필사로 써 넣은 유행본도 있다. 판목은 글씨체가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

4) 朴相國, 1987 『全國寺刹所藏木板集』, 文化財管理局, pp.398

체원은 이 책 외에 『화엄경관자재보살소설법문별행소(華嚴經觀自在菩薩所說法門別行疏)』를 편찬하고, 관음 관계 책들을 펴냈다. 체원은 『화엄경』 입법계품 부분을 따로 번역한 『화엄경』 40권본(『화엄경보현행원품』) 중에서, 선재동자가 관음을 찾아 보살도를 구하는 부분인 관음법문 부분만을 발췌하여 따로 지송용 『화엄경관음지식품(華嚴經觀音知識品)』을 간행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징관의 『화엄경소』와 종밀의 『화엄경소초』 등을 주로 인용하여 해석한 『별행소』를 펴냈다. 체원은 이 책에서 화엄계 관음을 『법화경』 보문품과 대비시켜 해석함으로써 두 경전의 관음신앙을 융합하고자 하였다.⁵⁾

그런데 이러한 체원의 간행 작업은 30여년 동안 관음신앙에 몰두했던 사형 인원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이는 한편으로 사형이 관음을 숭신하는 정성을 돕는 일이면서 한편으로는 같이 공부하는 이들의 뜻에 보답하는 일이라고 술회하였다. 이보다 앞서 체원은 1331년에 『삼십팔분공덕소경(三十八分功德疏經)』을 간행하였는데, 이 책은 도교의 신들을 불보살에 대비시키고 엄불 공덕을 강조하여 국가의 안녕과 백성들의 평안을 강조한 것이었다.⁶⁾

체원은 의상과 의상계 화엄을 계승하여 「백화도량발원문」의 관음 해석의 사상적 줄기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화엄교단의 구도적 관음을 확립하고 일반인들에게 화엄과 법화의 융합적 관음신앙을 확산함으로써 당대의 공덕신앙에 부응하고자 하였다.

번역의 대본으로 삼은 원문은 『한국불교전서』 6, p.570c1~577b5에 수록되어 있다.

5) 정병삼, 2009 위의 글, p.62

6) 蔡尙植, 앞의 글, pp.254~255

참고문헌

- 金煥泰, 1988 「白花道場發願文의 몇 가지 문제」 『韓國佛敎學』 13, 韓國佛敎學會
- 정병삼, 1996 「高麗 後期 觀音信仰」 『丹豪文化研究』 1, 龍仁大學校 傳統文化研究所
- 정병삼, 1998 『의상 화엄사상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정병삼, 2009 「고려 후기 體元의 관음신앙의 특성」 『佛敎研究』 30, 한국불교연구원
- 蔡尙植, 1982 「體元의 著述과 華嚴思想」 『韓國華嚴思想研究』, 東國大學校 佛敎文化研究院
- 蔡尙植, 1991 『高麗後期佛敎史研究』, 一潮閣
- 木村清孝, 1988 「白花道場發願文考」 『鎌田茂雄博士還曆記念論集 中國の佛敎と文化』, 大藏出版

백화도량발원문약해

白花道場發願文略解

체원(體元)¹⁾ 집해
신라 법사 의상(義相)²⁾ 지음

- 1) 체원(體元): 1280대~1338 이후. 고려 후기의 화엄종 승려. 호는 목암(木庵), 자는 향여(向如). 고려 후기의 관료가문인 이전(李璵, 1244~1321)의 아들로, 유학자 이제현(李齊賢, 1287~1367)의 형이다. 체원은 스물 안팎에 출가하여 승과에 합격하고, 충선왕에 발탁되어 여러 사찰의 주지를 지냈다. 주로 해인사를 중심으로 성주 법수사(法水寺)의 주지를 지냈고, 1324년에는 반룡사(盤龍寺)의 주지를 지냈으며 이어 경주 동천사(東泉寺)의 주지를 지냈다. 1338년에는 양가도승통(兩街都僧統)으로서 『화엄경』 사경도 주도하였다. 『화엄경보현행원품』 중에서 선재동자가 관음을 찾아 보살도를 구하는 부분을 발췌하여 징관의 소를 붙인 『화엄경관자재보살소설법문별행소(華嚴經觀自在菩薩所說法門別行疏)』를 간행하고, 이어 1334년에는 신라 의상이 지은 것으로 전승되던 『백화도량발원문』을 화엄 조사들의 전적을 인용하여 풀이한 『백화도량발원문약해』를 간행하였다. 그 사이에 1331년에 『화엄경관음지식품』을 지송용으로 간행하고, 같은 해에 도교를 수용하여 불보살과 대비시키고 염불 공덕을 강조한 『삼십팔분공덕소경(三十八分功德疏經)』을 간행하였다. 체원은 해인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들 간행 사업을 통해 화엄사상을 바탕으로 현실구제적 관음신앙의 이론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 2) 의상(義相): 625~702. 신라 화엄종의 개창자. 황복사에서 출가한 후 당에 유학하여 지엄에게서 화엄을 배우고 『일승법계도(一乘法界圖)』를 지어 일(一)과 다(多)가 결립 없이 거듭 전개되는 법계연기 사상을 정립하였다. 귀국한 후 부석사(浮石寺)를 비롯한 여러 절을 세우고 많은 제자들과 화엄사상을 연마하고 정진하며 화엄종을 펴 나갔다. 한편으로 교단에서 관음신앙과 미타신앙을 선도하여 사람들이 불교 신앙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하였다. 제자들이 확장하여 창건하고 운영한 화엄십찰은 통일신라 불교계의 중추를 이루었고 이후에도 지

저자

[발원문]

백화도량발원문(白花道場發願文)³⁾

[집해]

법사의 속성은 김씨이다. 당 고종(高宗) 영휘(永徽) 원년⁴⁾ 경술년(650)에 당나라에 들어가⁵⁾ 종남산(終南山)⁶⁾의 지엄(智儼)존자⁷⁾에게 투신하여

속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일승법계도』외에 『아미타경의기』가 저술로 알려졌고, 「백화도량발원문」 등 의상의 사상을 담고 있다고 알려진 저술이 몇 개 있지만 저술은 많지 않다. 제자로는 지통(智通)·진정(眞定)·도신(道身)·표훈(表訓) 등 여러 뛰어난 제자가 있다.

- 3) 「백화도량발원문(白花道場發願文)」: 이 글은 의상이 낙산을 찾아 관음진신을 친견하고 지은 것으로 전승되어 왔다. 그러나 의상의 진찬으로 보기 어려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경전에 따라 표기가 다른 관음(觀音)과 관자재(觀自在)가 혼용되고 있고, 의상 이후에 번역된 『수능엄경』의 내용이 거론된 것 등이 그것이다. 그래서 의상의 관음신앙을 반영한 후대 문도들의 저작이라고 본다. 그러나 의상의 낙산 관음 친견은 사실로 전승되어 왔고, 체원은 이 책에서 의상이 낙산 관음굴에 이르러 예배 발원하고 지은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체원은 내용의 시기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의상의 진찬으로 확정하고, 여러 경론을 인용하여 이를 폭넓게 해석하였다.
- 4) 영휘(永徽) 원년: 영휘는 당 고종의 연호(650~655). 영휘 원년은 650년, 신라 진덕여왕 4년.
- 5) 의상이 당나라에 간 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견이 있는데, 이곳의 650년이 아닌 661년에 당에 도착했다는 견해가 가장 타당성 있게 이야기된다.
- 6) 종남산(終南山): 중국 섬서성(陝西省)의 서안(西安) 곧 예전 장안(長安)의 남쪽 40km 거리에 있는 높이 2604m의 산으로 남산(南山)이라고도 한다. 진령산맥이 동서로 달리는 중에 있으며 일대의 취화산(翠華山) 남오대(南五臺) 규봉산(圭峰山) 여산(驪山) 등을 모두 포괄하여 말한다. 당대 불교의 중심지로 도선(道宣) 지엄(智儼) 종밀(宗密) 등 수많은 고승들이 수행하였고 많은 사원이 있어 계율

화엄을 공부하고 현수(賢首)국사⁸⁾와 함께 배웠는데 그때 현수국사는 아직 출가하기 전이었다. 모두 깊은 뜻에 완전히 통달하여 지엄공은 의상법사를 의지(義持)라고 부르고 현수국사는 문지(文持)라고 불렀다. 이미 깊은 관문에 도달하여 「법계도(法界圖)」⁹⁾를 지어 지엄공에게 올리니 공은 이를 보

중 화엄종·법상종·정토종·선종 등이 성행했던 수당대 중국불교의 중심지였으나 지금은 유적만 남아 있는 곳이 많다.

- 7) 지엄(智儼)존자: 602~668. 중국 화엄종의 제2조로 지상대사(至相大師) 또는 운화존자(雲華尊者)로 불린다. 신라의 의상과 중국의 법장의 스승으로서 화엄종의 창시자로 추앙되는 두순(杜順)을 따라 두순의 제자인 달(達)법사에게 배우고 법상(法常)과 지정(智正)에게 교학을 연마하였다. 화엄경을 차례대로 해석한 『수현기(搜玄記)』, 화엄사상의 요체를 담은 『공목장(孔目章)』·『오십요문답(五十要問答)』 등을 저술하여 중국 화엄종의 기반을 이루고 그를 이어 법장이 대성하도록 하였다.
- 8) 현수(賢首)국사: 643~712. 중국 화엄종의 제3조이며 화엄교학의 대성자. 이름은 법장(法藏), 호는 국일법사(國一法師) 또는 향상(香象)대사, 강장(康藏)국사라고도 한다. 선조가 강거국 사람이어서 속성은 강씨(康氏)이다. 조부가 중국에 들어와 장안에서 살았다. 어렸을 때 지엄에게 사사하여 화엄을 배웠는데, 지엄의 입적후 28세에 박진(薄塵)에게 출가하였다. 서역 여러 나라의 언어와 산스크리트어에 능하여 왕명으로 의정(義淨)의 역장(譯場)에 참여하였고, 신역 『80화엄경』과 『대승입능가경(大乘入楞伽經)』 등 10여종의 경전을 번역하였다. 측천무후의 후대를 받아 화엄사상을 집대성하고 측천무후를 위해 화엄사상의 정수인 십현연기(十玄緣起)를 설명하기 위해 궁전의 금사자에 비유한 『금사자장(金師子章)』을 짓기도 하였다. 일생 동안 30여 차례나 화엄을 강의하고 화엄사상의 조직화에 기여하고, 『능가경』·『밀엄경』·『범망경』·『기신론』등의 경전에 주석을 지었다. 『화엄경』을 해석한 『탐현기(探玄記)』를 비롯하여 화엄종의 체계를 세운 『교분기(教分記)』와 『기신론소(起信論疏)』·『망진환원관(妄盡還源觀)』·『범망경보살계본소(梵網經菩薩戒本疏)』·『화엄경전기(華嚴經傳記)』 등의 많은 저서가 있다. 제자로는 평관(宏觀)·문초(文超)·지광(智光)·종일(宗一)·혜원(慧苑) 등이 있다.
- 9) 「법계도(法界圖)」: 법계도시. 신라 화엄의 개창자 의상이 화엄사상의 핵심을 시로 지은 것. 이에 대해 의상 자신이 설명을 붙여 법계도시와 함께 엮은 의상의 대표적 저술이 『일승법계도(一乘法界圖)』이다. 『일승법계도』는 7언 30구로 이루어진 210자의 시[法界圖詩]를 구불구불 구부러진 도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고 감탄하여 말하기를, “너는 법성을 완전히 증득하고 부처의 뜻에 이르렀구나. 해석을 짓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였다. 대사는 이에 붓을 펼쳐 한 편을 이루어 합쳐서 한권으로 만들었으니¹⁰⁾ 지금 세상에 성행한다. 대사가 낙산(洛山)¹¹⁾의 관음굴(觀音窟)에 이르러 예배하고 발원하며 이 글을 지었다. 대사가 당시 행한 교화와 신이(神異)는 최치원(崔致遠)¹²⁾ 공이 지은

이어지도록 구성한 도인(圖印) 형태의 법계도인(法界圖印)과 그에 대한 해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라니(陀羅尼)라는 상징적 형태에 화엄사상의 요체를 함축하여 담아낸 독특한 저술이다. 화엄 법계연기설의 핵심으로 하나와 전체의 관계를 말하는 일중다(一中多) 다중일(多中一)과 일즉다(一卽多) 다즉일(多卽一)의 상입상즉의 연기법을 핵심으로, 이를 동전 열 개를 세는 수십전(數十錢)의 비유로 풀이하고 심현육상을 설명하였다. 법계연기의 범주를 하나와 전체의 상입상즉, 조그만 티끌과 광대한 시방세계, 한 순간과 무한한 시간, 처음 마음을 내는 것[初發心]과 궁극의 깨달음, 그리고 생사와 열반으로 이루어진 다라니 이용(理用) · 사(事) · 세시(世時) · 위(位)의 4가지로 구성한 후, 이를 자리행으로 조직하고, 여기에 이타행과 수행문을 추가하여 강한 실천적 성격의 저술을 이루었다.

- 10) 여기서 체원이 명확하게 말한 것처럼, 의상이 「법계도시」를 짓고 지엄에게 보여 인정 받은 후 이에 대한 저술 한 편을 지어 이를 합쳐 한 권으로 만든 것이 『일승법계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법계도시」의 저자에 대해 의상이라는 견해 외에 지엄이라는 견해가 있어 온 데 고려 후기 화엄학에서 의상 저술임을 분명히 한 기록이다. 이에 대해서는 고려 초 균여 시기에도 이론이 있어, 균여는 여러 자료를 비교 논증하여 의상의 저술임을 명확히 하였다.(均如, 『一乘法界圖圓通記』 권상 韓4 p.1a7~b15.)
- 11) 낙산(洛山) : 오대산 동쪽 바닷가 오봉산(五峰山)에 있는 절인 낙산사. 신라 의상이 이곳에 관음진신(觀音眞身)이 상주한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7일 동안의 기도 끝에 수정염주를 얻고 다시 7일간의 기도 끝에 여의보주를 얻은 후 진신을 친견(親見)한 이래 관음 근본도량이 되었다. 본래 『화엄경』에서 관음보살이 보타락가산(普陀洛迦山, ㉔ Potalaka)에 상주한다는 내용에 따라 낙산(洛山)의 이름을 따온 것이다.
- 12) 최치원(崔致遠) : 857~?. 신라 말기의 대표적인 학자. 자는 고운(孤雲). 868년 12세에 중국에 유학하여 빈공과에 급제하고 벼슬을 지내다 879년 황소의 난을 평

본전(本傳)¹³⁾에 갖추어져 있다. 연세 78세에 앉아서 입적하니, 곧 대주(大周)¹⁴⁾ 무측천(武則天)¹⁵⁾ 황제 장안(長安) 원년¹⁶⁾ 신축년(701) 3월이었다. 고려조에 이르러 원교국사(圓敎國師)라는 시호를 추증하고 명을 내려 해동 화엄초조(海東華嚴初祖)로 삼았다.

정하는데 종사관으로 참여하여 문장으로 이름을 떨쳤다. 885년에 귀국하여 신라에서 벼슬을 지내며 활동하다 894년에 진성여왕에게 시무책을 건의하였으나 진성여왕이 선양하고 개혁이 어렵게 되자 은거하여 경주 남산과 해인사 등지에서 지냈다. 불교 승려 3인의 비문과 승복사비문을 지어 『사산비명(四山碑銘)』이라는 이름으로 엮어 이후 비문의 전범이 되었다. 「법장화상전(法藏和尚傳)」과 「부석존자전(浮石尊者傳)」 등 중국과 신라 승려들의 전기를 지었고, 화엄 조사들을 기리는 글을 여러 편 짓기도 하였다.

- 13) 본전(本傳) : 최치원(崔致遠)이 신라 말에 지은 의상의 가장 충실한 전기인 「부석존자전(浮石尊者傳)」. 지금은 일부 단편만 남아 있다. 의천의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教藏總錄)』에 글 이름이 수록되었다. (『新編諸宗教藏總錄』 권1 韓4 p.682c13.)
- 14) 대주(大周) : 당 중간에 무측천이 690년부터 705년까지 황제가 되었던 나라. 고대의 주나라와 구별하기 위해 무주(武周)라고 부른다.
- 15) 무측천(武則天) : 흔히 측천무후(則天武后)라 하나, 황제로서는 무측천이 더 어울린다. 624~705. 재위 690~705. 중국에서 여성으로 유일하게 황제가 된 인물. 690년 당(唐)의 국호를 주(周)로 고치고 스스로 황제가 되어 15년 동안 중국을 통치하였다. 637년에 당 태종(太宗, 재위 626~649)의 후궁으로 입궁하여, 태종이 죽자 관례에 따라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었다. 651년 고종(高宗, 재위 649~683)의 후궁으로 다시 입궁하여 고종과의 사이에서 4남 2녀를 낳았다. 655년 황후가 되어 고종을 대신해서 정무를 맡아보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664년부터는 수렴청정으로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675년에 섭정으로 전권을 행사했으며, 683년 고종이 죽자 자신의 셋째 아들인 중종이 즉위했는데 684년 중종을 폐위시키고 넷째 아들인 예종을 옹립하였다. 690년 예종을 폐위시키고 자신이 직접 황제가 되어 나라 이름을 '대주(大周)'라 하고 통치하다 705년에 죽었다.
- 16) 장안(長安) 원년 : 장안은 측천무후의 마지막 연호. 701~704년. 장안 원년은 701년, 신라 효소왕 10년이다. 의상의 입적 연대는 이곳의 701년이 아닌 702년이 정확한 것으로 정리되었다.

體元集新羅法師義相製集曰

集曰, 法師俗姓金氏. 唐高宗永徽元¹⁷⁾年庚戌入唐, 投終南山智儼尊者, 受華嚴, 與賢首國師同學, 時賢首尚未出家. 皆窮通奧旨, 儼公號法師爲義持, 號賢首爲文持. 旣達玄關, 製法界圖, 進于儼公, 公覽之嗟嘆曰, “汝窮證法性, 達佛義旨, 宜造解釋.” 師乃奮筆成編, 合爲一卷, 今行於世. 師詣洛山觀音窟, 禮拜發願而述斯文也. 師當時行化神異, 具於崔公致遠所述本傳. 年七十八坐脫, 即大周則天皇帝長安元年辛丑三月也. 至本朝, 追謚圓教國師, 制爲海東華嚴初祖.

1. 제목을 풀이함[釋題名]

[집해]

이 글을 해석하는 데 크게 둘로 나눈다. 먼저 제목을 풀이하고[釋題名] 나중에 글을 바르게 해석한다[釋正文]. 이것은 제목이다. 이중에 앞의 4자[白花道場]는 귀의하여 가는 곳이고, 뒤의 3자[發願文]는 귀의하는 마음이다. 앞의 ‘백화도랑’ 중에서, 『화엄경』 정원본(貞元本)¹⁸⁾ 제16권에, “관자재

17) 판본에는 六인데, 영휘 6년은 경술년이 아니고 영휘 원년이 경술년이다. 六과 元의 유사한 글자를 잘못 새긴 것으로 추정된다.

18) 정원본(貞元本): 대승경전의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 『화엄경』의 한역본은 대본이 세 가지가 있다. 현재 산스크리트어본은 전체가 알려지지 않고 「십지품」과 「입법계품」 등 부분적으로 남아 있으며, 전체적인 경전의 구성은 대체로 서역지방에서 종합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역본은 불타발타라(佛陀跋陀羅)가 동진시대인 412년에 번역한 60권본(60화엄, 晋本)과 실차난타(實叉難陀)가 당대인 699년에 번역한 80권본(80화엄, 唐本, 周本), 반야(般若)가 당대 후반인 정원

보살(觀自在菩薩)¹⁹⁾은 보달락가(補怛洛迦)²⁰⁾산에 계신다.”²¹⁾라고 하였고, 청량(淸涼)대사²²⁾의 『화엄경소(華嚴經疏)』²³⁾에서 풀이하기를, “보달락가

14년(798)에 번역한 40권본(40화엄, 貞元本) 등 세 가지가 있다. 정원본은 60화엄이나 80화엄과 달리 『화엄경』 전체의 내용이 아니고 입법계품 부분만을 따로 번역한 것이다.

- 19) 관자재보살(觀自在菩薩) : ㉔Avalokiteśvara. 관세음(觀世音)보살이라고도 한다. 자비로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로 가장 보편적인 보살신앙의 하나이다.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서는 고난에 처한 중생들이 그 이름을 부르면 즉시 그 음성을 관하고 고난에서 구제해 준다고 하였다. 경전에서는 물에 빠지거나 불이 났을 때 등등의 현실적 고난과 자식을 낳게 해 주는 것과 함께 탐·진·치 삼독의 번뇌에서 해탈하게 해 줌을 말하고 있다. 이에 비해 『화엄경』 「입법계품」에는 선재동자가 순례 중에 관음이 사는 남방의 보타락가산을 찾아 보살도를 묻고 있어 구도행을 강조하는 것이 중심이 된다. 이에 따라 관음신앙이 성행한 나라마다 자신의 국토에 관음이 사는 보타락가산을 설정하였으니 우리나라의 낙산 등이 그것이다. 또한 관음은 대세지보살과 함께 아미타불을 돕는 협시보살의 역할로 중생들이 극락에 왕생하는 것을 돕기도 한다. 밀교시대에 이르러 관음의 폭넓은 구제력을 상징하는 여러 변화관음들이 등장하여 손이나 팔 또는 눈이 천 개, 만 개에 이르는 천수천안관음 등의 다양한 관음도 등장하였다.
- 20) 보달락가(補怛洛迦) : ㉔Potalaka, 보타락가(寶陁洛伽)로 쓰기도 한다. 관세음보살이 사는 곳으로 알려진 산. 의미로는 작은 꽃나무(小花樹)·작고 흰 꽃(小白華) 등으로 번역한다. 『화엄경』 「입법계품」에 관음이 보타락가라고 하는 해안의 아름다운 산에서 상주하고 있어 선재동자가 이곳을 순력하고 대자비의 설법을 들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관음의 상주처를 보타락가라고 해 왔는데, 인도에서는 남부 코모린갑 근처의 말라야산 동쪽이라 하고, 중국에서는 절강성 영파(寧波) 정해현(定海縣) 해중에 보타산(普陀山)과 낙가산(洛迦山)을 설정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낙산을 이것으로 설정하였다.
- 21) 『대방광불화엄경』(40)권16 大10 p.732c20~21. 善男子, 於此南方有山, 名補怛洛迦, 彼有菩薩名觀自在.
- 22) 청량(淸涼)대사 : 澄觀(澄觀, 738~839). 중국 화엄종의 제4조. 월주(越州) 산음인(山陰人)으로 속성은 하후(夏侯)씨이고, 자는 대휴(大休)이며, 청량(淸涼)국사는 호이다. 11세에 보림사(寶林寺) 패(霽)선사에게 출가하여 계율과 삼론·기신·열반·화엄·천태·선을 두루 익히고 유학에도 능통하였는데, 특히 법장의 화엄학

란 한자로는 소백화수(小白花樹)이다. 산에 이 나무가 많아 향기가 멀리까지 풍기므로 향기를 맡고 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뻐한다.”²⁴⁾ 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름하였다. ‘도량(道場)’이라는 말은 경전에서 또 “선남자여, 너는 정성무이행보살(正性無異行菩薩)²⁵⁾이 이 대중도량(大衆道場)의 바다에 온 것을 보았느냐, 보지 못하였느냐?”²⁶⁾ 등으로 말하였다. 이는 관자재보살이

에 열중하였다. 776년에 오대산과 아미산을 순례하고 오대산 화엄사에서 방등 참법(方等懺法)을 수행하고 화엄종지를 펴서 이름을 드날렸다. 796년에 덕종의 부름으로 장안에 가서 계빈삼장과 함께 『화엄경』(40)을 번역하고 종남산 초당사(草堂寺)에서 이 신경의 소를 지었다. 덕종으로부터 청량국사의 호를 받고 순종과 헌종도 국사로 봉하였다. 3조인 법장의 직제자는 아니나 법장의 사상을 계승하여 4법계론을 완성하고 선종의 발흥에 대응하여 화엄사상을 발전 대성하였다. 『화엄경소(華嚴經疏)』 60권, 『수소연의초(隨疏演義鈔)』 90권, 『화엄경강요(華嚴經綱要)』 3권, 『오온관(五蘊觀)』, 『삼성원융관문(三聖圓融觀門)』 등 30여종의 저술이 있다. 제자로는 종밀(宗密)을 비롯하여 승예(僧叡)·법인(法印)·적광(寂光) 등 백 여 명이 있다.

- 23) 『화엄경소(華嚴經疏)』: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 784~787년 사이에 정관이 저술한 80권본 『화엄경』의 주석서. 10문으로 나누어 『화엄경』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밝혔는데 두 번째 장교소섭(藏教所攝)에서 제 교관을 소개하고 화엄이 5교 중에 원교임을 밝히고 세 번째 의리분제(義理分齊)에서 이사무애 등의 법계연기설을 밝혔다.
- 24) 『대방광불화엄경소』 권57 大35 p.940a1~2. 在補怛落迦山者, 此云小白華樹, 山多此樹, 香氣遠聞, 聞見必欣.
- 25) 정성무이행보살(正性無異行菩薩): 정취보살(正趣菩薩, ㉔ Ananyagāmin-bodhisattva). 60권본이나 80권본 『화엄경』 「입법계품」에서는 정취보살이지만, 40권본 『화엄경보현행원품』에서는 이 이름으로 번역하였다. 선재동자가 구법 순례하는 도중에 관음보살에 이어 29번째로 만나는 보살. 선재는 정취보살을 찾아 보문부동속길행(普門不動速疾行) 해탈법문을 듣는다. (『大方廣佛華嚴經』 권16 大10 p.735c2)
- 26) “이때 관자재보살이 선재에게 이르셨다. ‘선남자여, 너는 정성무이행보살이 이 대회도량중에 온 것을 보았느냐, 보지 못하였느냐?’”(『大方廣佛華嚴經』(40) 권16 大10 p.735c1~3. 時觀自在菩薩, 告善財言. 善男子, 汝見正性無異行菩薩, 來此大會道場中不?)

항상 이 산에 있으면서 대비행(大悲行)을 설하여 모든 중생을 구호하고 보살도를 실천하는 도량이다. 뒤의 발원문 중에서 희망하여 가서 구하는 것을 ‘원(願)’이라 하고, 마음을 일으켜 형체 밖에 나타내는 것을 ‘발(發)’이라 하며, 내서 문채를 이루는 것을 ‘문(文)’이라 한다.

集曰，將解此文，大分爲二．先釋題名，後釋正文．此卽題名．於中前之四字所歸處，後之三字能歸心．前中，華嚴貞本經第十六卷云，“觀自在菩薩在補怛洛迦．”清涼疏釋云，“補怛洛迦者，此云小白花樹．山多此樹，香氣遠聞，聞見必欣．”故以爲名．言道場者，經亦云，“善男子，汝見正性無異行菩薩，來此大衆道場海不？”等．以是觀自在菩薩，常在此山，說大悲行，普救一切，行菩薩道之場也．後中希望趣求之謂願，起心形外謂之發，發而成彩謂之文．

2. 바르게 글을 해석함[正釋文]

1) 귀의하고 공경하여 몸을 이루고 능관과 소관을 잊음[歸敬成觀亡其能所]

(1) 공경하는 의식[敬儀]

[발원문]

머리 조아려 귀의합니다.

[집해]

두 번째 바르게 글을 해석함[正釋文] 가운데 크게 나누어 셋이 있다. 첫

째는 귀의하고 공경하여 관함을 이루고 능관과 소관을 잊음[歸敬成觀亡其能所]이고, 둘째는 지금 관음으로써 이하는 삼가 발원을 내어 일을 이어 결과를 이룸[敬伸發願承事成果]이고, 셋째 ‘발원을’ 이하는 귀의하여 우리를 맺고 본사에게 회향함[結歸投仰廻向本師]이다.

첫째 귀의하고 공경하여 관함을 이루고 능관과 소관을 잊음[歸敬成觀亡其能所]에는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전체적으로 공경하는 의식[敬儀]을 드러내고, 다음에 따로 모습을 관함[觀相]을 밝힌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공경하는 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머리를 굽혀 땅에 닿게 하여 신하가 임금을 받들듯이 하는 것이니, 우러러 받들고 의지함이 자식이 아버지를 사랑하듯이 한다. 어른을 존중하고 친한 이를 친하게 여기는 것이 공경하고 믿는 도를 다하는 것이다.

稽首歸依

集曰，二正釋文中，大分有三。一歸敬成觀亡其能所，二今以觀音下，敬伸發願承事成果，三發願已下，結歸投仰廻向本師。第一歸敬成觀亡其能所。中二。先惣標敬儀，二別明觀相。此卽惣標敬儀也。屈頭至地，如臣奉君，投仰憑托，如子拊親。尊尊親親，則敬信之道盡矣。

(2) 모습을 관함[觀相]

가) 능히 관하는 지혜[能觀之智]

[발원문]

저 본사이신 관음대성의 대원경지(大圓鏡智)²⁷⁾를 보고

[집해]

둘째 바르게 모습을 관함[觀相]을 밝힌다. 그중에 두 가지가 있다. ‘관

(觀)’의 한 글자는 능히 관하는 지혜[能觀之智]이고, ‘저 본사’ 이하는 관하는 대상[所觀之境]이다.

앞의 것 중에서 능히 관하는 것을 관(觀)이라 하니, 주인에 의지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관해지는 것을 관이라 하니, 이는 업에 의지한 해석이다. 이른바 관한다고 하는 것은 오로지 정에 마음이 매여 마음이 치달거나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교경』에서, “이 마음을 멋대로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착한 일을 잘못되게 하지만, 한 곳으로 제어하면 처리하지 못할 일이 없다.”²⁸⁾ 라고 하였다. 그러나 다만 관하는 것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행동을 그쳐야 바로 구경의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화엄경』 「여래출현품(如來出現品)」의 계송에서, “만일 부처님의 경계를 알고자 하면, 마땅히 그 뜻을 허공처럼 깨끗이 해야 한다. 잘못된 생각과 번뇌를 멀리 떠나, 마음이 향하는 데 모두 걸림이 없도록 해야 한다.”²⁹⁾ 라

27) 대원경지(大圓鏡智): 큰 거울에 삼라만상이 그대로 비치는 것과 같이 원만하고 분명한 지혜. 유식 사지(四智)의 하나. 일체법의 평등한 이성을 관하고 나와 남의 차별심이 없는 자비심으로 교화하여 이익되게 하는 지혜인 평등성지(平等性智), 모든 법의 상을 불가사의하게 관찰하여 의혹을 끊는 지혜인 묘관찰지(妙觀察智), 불과에 이르러 삼승을 위해 여러 가지 변화하는 일을 보여 이익되게 하는 지혜인 성소작지(成所作智)와 함께 부처가 갖는 네 가지 지혜인 유식 4지의 하나이다.

28) 『불수반열반약설교계경(佛垂般涅槃略說教誡經)』大12 p.1111a19~21. 이 구절은 마음을 잘 제어하여 멋대로 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부분이다.

이 구절을 해석한 세친(世親)의 『유교경론』에는 이 부분이 삼매상(三昧相)과 장법상(障法相)을 말한 것이라 한다. 이 둘은 각각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인용한 구절 중 앞의 두 구절은 장법상 중의 실제공덕장(失諸功德障)을, 뒤 구절은 삼매상의 무이념삼매상(無二念三昧相)과 기다공덕삼매상(起多功德三昧相)을 말한 것이라 한다. (『遺教經論』 권1 大26 p.285c20~22. 失諸功德障者, 如經縱此心者喪人善事故. 無二念三昧相者, 如經制之一處故. 起多功德三昧相者, 如經無事不辦故.)

29) 『대방광불화엄경』(80) 권50 「여래출현품(如來出現品)」大10 p.265b10~11. 若有欲知佛境界, 當淨其意如虛空, 遠離妄想及諸取, 令心所向皆無礙.

고 하였다. 청량대사의 『화엄경소』에서는, “위의 반 계송은 총체적으로 비유로 나타난 것이며, 아래의 반 계송은 별도로 나타난 것이다. 첫째는 망상과 번뇌를 떠나는 것이니, 저 깨끗한 하늘이 구름으로 가리지 않은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것은 참된 그침이다. 둘째는 대상에 접촉하는 데 걸림이 없는 것이니, 저 깨끗한 하늘이 걸림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참된 관이다. 내지는 이와 같이 떨어내지도 않고 맑게 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깨끗한 것이다. 깨끗함이 없는 깨끗함은 남몰래 부처의 경계를 밟는다.”³⁰⁾ 라고 하였다.

觀彼本師 觀音大聖 大圓鏡智

二正明觀相. 於中二. 觀之一字, 能觀之智. 彼本師下, 所觀之境. 前中能觀名觀, 可作依主. 所觀名觀, 卽持業釋. 所言觀者, 專情繫念, 不令馳散. 故遺教經云, “縱此心者, 喪人善事, 制之一處, 無事不辨.” 然不唯觀, 要有止行, 方成究竟. 故出現品偈云, “若有欲知佛境界, 當淨其意如虛空. 遠離妄想及諸趣, 令心所向皆無罣.” 清涼疏云, “上半偈惣以喻現, 下半偈別現. 一離於妄取, 如彼淨空無雲翳故, 斯則眞止. 二觸境無滯, 如彼淨空無障礙故, 斯則眞觀. 乃至若斯則不拂不瑩而自淨矣. 無淨之淨, 暗蹈佛境矣.”

나) 관하는 대상[所觀之境]

둘째 관하는 대상[所觀之境]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대성의 지혜의 체를 관하는[觀聖智體] 것이고, 둘째는 자심의 체를 관하는[觀自心體] 것이

30) 『대방광불화엄경소』 권49 大35 p.874c21~28. 初一誠聽勸修淨意如空, 總以喻顯. 下二句別顯. 一離妄取, 如彼淨空無雲翳故, 斯卽眞止. 二觸境無滯, 如彼淨空無障礙故, 斯卽眞觀. 此觀不作意以照境, 則所照無涯, 此止體性離, 而息妄故諸取皆寂. 若斯則不拂不瑩而自淨矣. 無淨之淨, 則闇蹈佛境矣. 此爲心要.

며, 셋째는 그 서로 통하는 것을 관하는[觀其交徹] 것이다.

ㄱ) 대성의 지혜의 체를 관함[觀聖智體]

이것은 대성의 지혜를 관하는 것이다. ‘본사(本師)’라는 것은 스스로 출가한 이래 항상 스승으로 섬긴 것을 말한다. 또 지금 생에서만 스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 없는 겁 이래로 본사가 되기를 서원한 것을 말하니, 화상은 대비의 실천문을 이어 받아 도움이 되도록 한 것이다. ‘관음대성(觀音大聖)’³¹⁾이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어로는 아발로키테슈바라(Avalokiteśvara)이고 한자로는 관세음(觀世音)이다. 곧 그 음성을 관하여(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 관한다는 것은 지혜로 비추는 것이지 귀로 인식하여 듣는 것이 아니다. 지위가 높아 비길 수 없음을 ‘대(大)’라고 한다. 자비의 원이 지극히 신령한 것을 ‘성(聖)’이라 한다.

이 중에 의보(依報)와 정보(正報)³²⁾를 관하는 것이 있고, 증득한 대상을 관하는 것이 있다. 의보와 정보를 관하는 것은 『무량수경』에서 설한 것과 같은데, 지금 증득한 대상을 관하는 것은 대원경지(大圓鏡智)이다. 이 대원경지는 중생이 의지하는 제8 아뢰야식(阿賴耶識)³³⁾이 등각의 무루(無漏)의

31) 관음대성(觀音大聖): 앞의 주 19) 관자재보살 참조.

32) 의보(依報)와 정보(正報): 전세(前世)의 업에 따라 얻은 2종의 과보. 의보는 오온(五蘊)의 화합으로 이루어진 신체가 의지하여 사는 산하대지와 국토, 의복과 음식 등을 말하고, 정보는 과거의 선하고 악한 업에 따라 감득하는 과보의 바른 몸체를 말한다. 정보는 중생[衆生世間]을, 의보는 중생이 의지하는 곳인 세계[國土世間]를 말한다.

33) 아뢰야식(阿賴耶識): 제8식(第八識), ālaya-vijñāna, 아뢰야식(阿賴耶識)·아라야식(阿羅耶識)·아려야식(阿黎耶識)·아리아식(阿梨耶識) 등으로 음역. 구역에서는 무물식(無沒識)으로, 신역에서는 장식(藏識)으로 번역됨. 식에서 8번째에 있기 때문에 제8식(第八識), 모든 법의 근본이기 때문에 본식(本識), 모든 식 작용의 가장 강한 것이기 때문에 식주(識主), 우주 만유의 근본이며 모든 것을 포함하고 존재

지위에 이르러 대원경지를 전향하여 이룬 것이다. 그래서 『성유식론』에서, “대원경지란 이 지혜가 나타나게도 하고 생겨나게도 하여 불신과 국토와 지혜가 비치어 사이도 없고 끊어짐도 없어 미래가 다하도록 둥근 거울과 같은 갖가지 색상을 나타낸다.”³⁴⁾ 고 하였다. 그래서 이것은 비유로 이름을 얻은 것이다. 이는 시교(始敎)³⁵⁾에 따라 말한 것이다. 이 아뢰야식은 번역하여 아마라식(阿摩羅識)³⁶⁾이라고 하고, 또 여래장경(如來藏鏡)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법장의 『기신론의기(起信論義記)』에서, “여래장심(如來藏心)은 만약 부처의 지위에 있으면 화합의 뜻이 없다.”³⁷⁾ 시각(始覺)은 본각(本覺)과 같으니, 곧 진여와 같다.”³⁸⁾라고 하였다. 이것은 종교(終敎)³⁹⁾에 따라

하지만 잃지 않기 때문에 장식(藏識), 성장하는 만유의 종자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종자식(種子識)이라고 함. 유식에서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식의 작용.

34) 『성유식론』 권10 大31 p.56a12~16. 一大圓鏡智相應心品。謂此心品離諸分別，所緣行相微細難知，不妄不愚一切境相，性相清淨離諸雜染，純淨圓德現種依持，能現能生身土智影，無間無斷窮未來際，如大圓鏡現衆色像。

35) 시교(始敎) : 화엄 5교(五敎)인 소승(小乘) · 대승시교(大乘始敎) · 대승종교(大乘終敎) · 돈교(頓敎) · 원교(圓敎)중의 두 번째. 모든 것은 실체가 없고 공이라는 반야(般若) 계통과, 인연에 의해 생기는 모든 존재의 성상을 구별하여 설하는 해심밀(解深密) 계통을 아울러 말함.

36) 아마라식(阿摩羅識) : Samala, 무구식(無垢識) · 청정식(淸淨識)으로 의역한다. 알라야식이 미혹을 버리고 깨달음의 모습으로 전환한 청정의 위에 이른 것을 말한다. 진제(眞諦) 등의 구역에서는 알라야식(아뢰야식) 밖에 청정무구의 아마라식을 때로 설정하였으나, 현장(玄奘) 등의 신역가는 아마라식이 염정(染淨) 두 가지 면모를 가지고 있는 아뢰야식의 청정한 면에 불과하다고 하여 따로 세우지 않는다. 여기에서 아뢰야식을 따로 번역하여 아마라식이라고 한다는 것은 명확한 설명과 맞지 않다.

37) 법장은 『대승기신론의기(大乘起信論義記)』에서 중생심을 설명하면서 여래장심에는 중생의 지위에서 보면 화합과 화합하지 않는 두 가지 문이 있고, 부처의 지위에서 보면 화합하는 뜻이 없다고 하였다.

38) 『대승기신론의기(大乘起信論義記)』 권상 大44 p.250b14~18. 初衆生心者，出其法

말한 것이다. 만약 원교(圓敎)⁴⁰⁾에서 보면 이는 해인경(海印鏡)이다. 지금 시교의 뜻에 따라 대원경을 밝히는 것은, 종교의 여래장은 사성(四聖)⁴¹⁾과 육범(六凡)⁴²⁾에 다 통하고, 원교의 해인경은 삼승에 통하지 않아서 등각(等覺)⁴³⁾의 마음을 증득하는 뜻을 간략히 들어 관하는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二所觀中三. 先觀聖智體, 二觀自心體, 三觀其交徹. 此則觀聖智也. 言本師者, 自零染已來常師事之謂也. 又非謂此世爲師, 無始劫來誓爲本師, 和尚資承大悲行門也. 言觀音大聖者, 梵云婆盧枳底攝伐多, 此云觀世音, 卽觀其音聲而得度脫也. 觀智照之, 非耳識聞也. 位高無等曰大, 悲願至神曰聖. 此中或有觀依正, 或有觀證境. 觀依正則如無量壽經所說, 今則觀證境卽大圓鏡智也. 此鏡智者, 衆生所依第八阿賴耶識, 至等覺無漏位中, 轉成大圓鏡智. 故唯識論云, “大圓鏡智者, 此

體, 謂如來藏心含和合不和合二門, 以其在於衆生位故. 若在佛地, 則無和合義. 以始覺同本, 唯是真如, 卽當所顯義也.

- 39) 종교(終敎): 화엄 5교(五敎)인 소승(小乘)·대승시교(大乘始敎)·대승종교(大乘終敎)·돈교(頓敎)·원교(圓敎)중의 세 번째인 대승종교. 진여연기를 설하는 능가나 기신 계통의 경전을 말한다.
- 40) 원교(圓敎): 화엄 5교(五敎) 중의 다섯 번째. 원만하고 완전한 일승을 설하는 화엄과 법화 등을 말함.
- 41) 사성(四聖): 10계(十界)를 범부와 성자(聖者)의 두 부류로 나눌 때 성자에 속하는 성문(聲聞)·연각(緣覺)·보살(菩薩)·불(佛)의 4계(四界). 이는 무위(無爲)의 과보라 한다.
- 42) 육범(六凡): 10계(十界)를 범부와 성자의 두 부류로 나눌 때 범부(凡夫)에 속하는 지옥(地獄)·아귀(餓鬼)·축생(畜生)·수라(修羅)·인간(人間)·천(天)의 6계(六界). 이는 유위(有爲)의 과보이다.
- 43) 등각(等覺): 보살 수행의 52위 가운데 51위. 삼아승기 백대겁의 장기간의 수행을 완성하고, 지금부터 묘각(妙覺)의 불과(佛果)를 얻으려는 지위. 내용적으로는 불타의 깨달음과 동일하고 실제로는 불타의 한발 앞에 있는 지위.

智能現能生，身土智影，無間無斷，窮未來際，如圓鏡，現衆色像。”故此乃從喻得名。此約始教說。此阿賴耶，翻爲阿摩羅識，亦卽名爲如來藏鏡。故起信論疏云，“如來藏心，若在佛地，無和合義，以始覺同本，卽如等。”此約終教說。若約圓教，是海印鏡也。今且約始教之義，明大圓鏡者，終教如來藏，通於四聖六凡，圓教海印鏡者，不通三乘故。簡舉等覺證心之義，爲所觀境。

ㄴ) 자심의 체를 관함[觀自心體]

[발원문]

또한 제자는 본성이 고요하고 본래 깨달아있음을 관하고

[집해]

둘째 자심의 체를 관함[觀自心體]이다. ‘제자’라는 것은 의상공 자신을 말하는 것이다. 대성에 수순하여 자신을 공손히 하고 법에 따라 화생함을 말한다. ‘본성이 고요하고 본래 깨달아 있다’는 것은 모든 중생이 마음의 체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대승기신론』에서는 한 마음의 법계에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심진여문(心眞如門)이요 또 하나는 심생멸문(心生滅門)임을 밝혔다. 생멸문 가운데 본성이 고요하여 본래 깨달아 있다고 한 것이 있는데, 이는 곧 번뇌에 매여 있는 진여[在纏眞如]⁴⁴⁾이다.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 말하기를, “생멸문 가운데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깨달음의 뜻이니 마음의 체가 생각과 떠남을 말한다. 이는 곧 여래의 평등한 법신이

44) 번뇌에 매여 있는 진여[在纏眞如] : 번뇌를 벗어난 진여[出纏眞如]의 상대되는 말. 제불의 자성인 진여는 번뇌의 매임에서 벗어났다 하여 출전진여 또는 무구(無垢)진여라 하고, 범부 중생의 체성인 진여는 번뇌에 더럽혀져 있으므로 재전진여 또는 유구(有垢)진여라 한다.

다.”⁴⁵⁾라고 하였다. 법장의 『기신론의기』에서, “흐름을 따르는 문을 본각이라 하고, 흐름을 거스르는 문을 시각이라 한다.”⁴⁶⁾고 하였는데, 이는 종교에 따른 것이다. 만약 시교에 따르면 아뢰야장식(阿賴耶藏識)은 근신(根身)과 기계(器界)⁴⁷⁾의 제법의 종자(種子)를 변화시킨다고 한다. 그래서 『오교장(五教章)』⁴⁸⁾에서 말하기를, “연기하여 생겨나고 사라지는 사법(事法) 가운데 아뢰야식을 세우고, 업 등의 종자에 따라 본체를 구분하여 생겨나게 하며, 이숙보식(異熟報識)⁴⁹⁾이 모든 법의 의지가 되게 한다.”⁵⁰⁾라고 하였다. 만약 원교에 의하면 비로자나의 과보의 지혜라고 할 수 있다. 비로자나

45) 『대승기신론』 大32 p.576b7~14. 心生滅者, 依如來藏故有生滅心, 所謂不生不滅與生滅和合, 非一非異, 名爲阿梨耶識. 此識有二種義, 能攝一切法, 生一切法. 云何爲二? 一者覺義, 二者不覺義. 所言覺義者, 謂心體離念, 離念相者, 等虛空界無所不遍, 法界一相即是如來平等法身, 依此法身說名本覺.

46) 법장의 『대승기신론의기(大乘起信論義記)』에는 이와 같은 구절은 없다. 관련된 구절은 『대승기신론의기』 권1 大44 p.250b20~25이다. (是心則攝一切世間出世間法, 次攝一切世出世法者, 辦法功能, 以其此心體相無礙, 染淨同依, 隨流返流, 唯轉此心. 是故若隨染成於不覺, 則攝世間法, 不變之本覺及返流之始覺, 攝出世間法. 此猶約生滅門辨.)

47) 근신기계(根身器界)는 근신은 안·이·비·설·신의 5근을 말하고, 기계는 세계가 그릇과 같다 하여 말한 것이다. 제8식은 근본식이기 때문에 염오와 청정이 같이 근원으로 하며, 모든 근신기계는 이에 의지하여 생겨남을 말한다. 법상중에서는 제8식이 종자(種子)와 근신(根身)과 기계(器界)의 세 대상을 각각 그 소연(所緣)으로 한다고 한다.

48) 원문에는 ‘고유가운(故瑜伽云)’이라 하여 『유가론』의 인용으로 말했으나, 실제로 이 구절은 법장의 『오교장』 곧 『화엄일승교의분제장』에 나오는 구절이다.

49) 이숙보식(異熟報識): vipāka-vijñāna. 알라야식의 과상(果相). 인과 업보의 주제. 이숙은 과보(果報)라고도 번역하는데, 선 또는 악의 업인에 의해 이와는 성질이 다른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결과를 낳는 것을 말한다. 유식에서는 알라야식이 선악의 업에 훈습되어 업의 종자가 되어 힘이 되는 증상연(增上緣)이 되어 이숙과(異熟果)를 불러오므로 이숙식이라 한다.

50) 『화엄일승교의분제장』 권2 大45 p.484c15~17. 故就緣起生滅事中, 建立賴耶, 從

의 과보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중생계에 갖추어져 인과 과를 만든다. 그래서 『화엄경』 「여래출현품」에서, “모든 중생은 여래의 지혜의 덕과 모습을 갖추었는데, 다만 망상에 집착하여 증득하지 못한다. 만약 망상을 떠나면 일체지(一切智)⁵¹⁾와 자연지(自然智)⁵²⁾가 바로 앞에 타나난다.”⁵³⁾ 라고 하였다. 지금은 중교를 취하여 자성청정심(自性淸淨心)⁵⁴⁾을 자심의 체로 한다.(이하 떨어져 나감)

亦觀弟子 性靜本覺

二觀自心體。言弟子者，相公自謂也。順聖恭己，從法化生之謂也。言性靜本覺者，一切衆生具有心體也。起信論明一心法界有二，一心眞如門，二心生滅門。生滅門中，有性靜本覺，卽在纏眞如。故論云，“生滅門中有二，一覺義，謂心體離念，卽是

業等種，辨體而生，異熟報識，爲諸法依。

- 51) 일체지(一切智) : ㉔sarvajña. 일체의 범상을 아는 지혜. 모든 존재에 관해서 총괄적으로 다 아는 지혜. 일체 세계, 중생계, 유위 무위, 인과의 차별,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 이들을 모두 다 아는 지혜.
- 52) 자연지(自然智) : ㉔svayambhū-jñāna. 모든 부처가 몸·입·몸으로 짓는 공용(功用)을 더하지 않고 자연히 아는 일체종지이다. 자연이란 스스로 존재한다, 독립한다는 뜻으로서 부처님께서 본래 갖추고 있는 지혜를 말한다.
- 53) 『대방광불화엄경』(80) 권51 「如來出現品」大10 p.272c22~273a3. 佛子，如來智慧亦復如是，無量無礙，能利益一切衆生，具足在於衆生身中。但諸凡愚妄想執著，不知不覺，不得利益。爾時，如來以無障礙淸淨智眼，普觀法界一切衆生而作是言。奇哉，奇哉！此諸衆生云何具有如來智慧，愚癡迷惑，不知不見？我當教以聖道，令其永離妄想執著，自於身中得見如來廣大智慧與佛無異。卽教彼衆生修習聖道，令離妄想，離妄想已，證得如來無量智慧，利益安樂一切衆生。
- 54) 자성청정심(自性淸淨心) : 본래의 마음은 그 바탕이 청정하다. 이것을 심성본정(心性本淨)이라고 하고, 이 마음을 자성청정심이라 한다. 대승에서는 이 마음을 여래장심(如來藏心)·불성(佛性)·진여(眞如)·법성(法性)이라고도 한다. 마음은 본래 청정하지만 현실에서는 번뇌에 덮여 오염되어 있다.

如來平等法身.”賢首疏云,“隨流門名本覺,返流門名始覺.”此約終教.若依始教,賴耶藏識,能變根身器界諸法種子.故瑜伽云,“緣起生滅事中,建立賴耶,從業等種,辨體而生,異熟報識,爲諸法依.”等.若依圓教,可云舍那果智也.謂舍那果智,該衆生界,作因作果.故出現品云,“一切衆生,具有如來智慧德相,但以妄想執著而不證得.若離妄想,一切智自然智,卽得現前.”等.今取終教,自性清淨心,爲自心體也.(…)

(다섯째 장이 떨어져 나감)

□□□□□(第五張缺落)

“여러 미묘함을 포함하고도 남음이 있다”⁵⁵⁾는 등이다. 지금은 뒤의 뜻에 의하면, 곧 현수대사의 『망진환원관(妄盡還源觀)』⁵⁶⁾ 중에 해인삼매에 삼라만상이 상주하는 용[海印森羅常住用]⁵⁷⁾의 뜻이다. 그러나 『망진환원관』의

55) 이는 정관이 법계를 설명한 구절로, 『화엄경소』의 첫머리에 나온다. 『대방광불 화엄경소』 권1 大35 p.503a6~7. 往復無際, 動靜一源, 含衆妙而有餘, 超言思而遍出者, 其唯法界歟!

56) 『망진환원관(妄盡還源觀)』: 당 법장(法藏)이 지은 화엄서. 본 이름은 『수화엄오지망진환원관(修華嚴奧旨妄盡還源觀)』. 화엄의 관법을 수행하여 일심의 본원에 돌아가는 것을 가르친 것. 법장은 『화엄경』의 뜻이 너무 크고 넓기 때문에 지극한 경지를 알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깊은 뜻과 중지를 총괄하여 이를 저술함으로써 후학들이 관법을 수행하여 모든 거짓을 없애고 참된 근원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라며 이를 저술하였다.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처음 3장은 원돈의 미묘한 해석을 말하고 뒤의 3장은 관법을 밝혔다. 6장은 ①현일체(顯一體), ②기이용(起二用), ③시삼편(示三偏), ④행사덕(行四德), ⑤입오지(入五止), ⑥기육관(起六觀)이다.

57) 『수화엄오지망진환원관(修華嚴奧旨妄盡還源觀)』 大45 p.637a24~26. 一顯一體, 謂自性清淨圓明體. 二起二用, 一者海印森羅常住用, 二者法界圓明自在用.

뜻은 바로 용의 가운데에 해당한다. 상주하는 용은 또한 상대(相大)를 떠나지 않는다. 이는 체와 상과 용의 삼대가 서로 버리고 떠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법구경』에, “삼라 만상은 하나의 법이 도장찍은 것이다.”⁵⁸⁾라고 한 것이 곧 그 뜻이다.〈하나의 법이란 체대이다.〉

衆妙而有餘等. 今約後義, 卽賢首還源中, 海印森羅常住用義也. 然還源之義, 正當用中, 而其常住之用, 亦不離相大, 此是體相用三, 不相捨離之義也. 經云, “森羅及萬像, 一法之所印.” 卽其義也. 〈一法卽體大也〉

ㄷ) 서로 통하는 것을 관함[觀其交徹]

[발원문]

본사께서 가지신 수월장엄(水月莊嚴)⁵⁹⁾은 상호(相好)가 끝없는 것처럼, 또한 제자도 공허한 꽃과 같은 몸과 번뇌 있는 형체가 바른 청정함과 더러움에 의지하여 괴로움과 즐거움이 같지 않습니다.

[집해]

셋째는 곧 체의 작용이다. 이는 바로 해인이 삼라만상을 포용하는 뜻이다. 이중에 셋이 있다. 처음은 대성의 상호를 밝힌 것이고, 다음에 ‘또한 있다’ 이하는 자신의 몸의 모습을 밝힌 것이고, 끝에 ‘바름에 의하는 등’은 범인과 성인이 같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58) 이 구절은 정관의 『화엄경소초』나 자선(子璿)의 『기신론필삭기(起信論筆削記)』 등에 『법구경』의 구절로 말했지만 일반 통용의 『법구경』이 아닌 돈황 사본 『법구경』에만 나오는 구절이다. 『법구경』 大85 p.1435a23 參羅及萬像, 一法之所印. 정관의 인용은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 권8 大36 p60c28~29, 故法句經云, 森羅及萬像, 一法之所印, 此以一遣多也.

59) 수월장엄(水月莊嚴): 하늘의 달이 땅 위의 모든 물에 비치어 나타나는 것과 같이 관음이 중생들의 바람에 그 음성을 관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응현함을 말함.

첫째 중에서 ‘수월장엄’이란 모든 중생이 위험하고 괴로울 때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관음대성께서 그 음성을 관하고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모든 것에 널리 응현하시는 것이 마치 달무리가 널리 모든 물에 나타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수월장엄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경에서, “보살은 청량한 달과 같고, 중생의 마음은 물처럼 맑다.”⁶⁰⁾ 고 한 것이다. ‘끝없는 상호’라는 것은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에서 이렇게 설하였다. “관세음보살은 신장이 80억 나유타(那由他)⁶¹⁾ 항하사 유순이며, 몸은 자금색(紫金色)이고, 정수리에는 육계(肉髻)가 있으며 머리 뒤에는 원광(圓光)이 있다. 얼굴은 각각 (백천유순이며) 원광에는 5백의 화불(化佛)이 있고, 석가모니불처럼 그 하나하나의 화불마다 5백 보살이 있다. 백호상(白毫相)⁶²⁾에서는 8만 4천 가지의 광명이 흘러나오며, 하나하나의 광명마

60) 『화엄경』에 일부 구절이 나오지만(『大方廣佛華嚴經』 권43 「離世間品」 大9 p.670c21 菩薩清涼月, 遊於畢竟空.) 나머지는 나오지 않는다. 이 두 구절은 자선(子璿)의 『기신론필삭기(起信論筆削記)』에만 나오는 것을 체원이 떼어 인용한 것이다.(『起信論筆削記』 권18 大44 p.393c25~27. 故華嚴云, 菩薩清涼月, 遊於畢竟空, 衆生心水淨, 菩提影現中. 上文等者, 即用大中七重問答, 廣明斯義.) 특히 자선이 중생심을 설명하면서 체와 용과 연관지어 설명한 데 체원이 착안하여 인용한 것으로 생각된다.(『起信論筆削記』 권18 大44 p.393c18.)

61) 나유타(那由他) : ㉠nayuta, 인도의 수량의 이름. 조(兆) 등으로 의역한다. 어떤 견해로는 10아유다(阿由多)가 1대아유다이고, 10대아유다가 1나유타이다. 1아유다가 10억이므로 1나유타는 1천억이 된다. 얼마를 가리키는 지에 대해서는 이 설이 많은데 극히 큰 수를 말할 때 쓰인다.

62) 백호상(白毫相) : ㉠ūrṇa-lakṣaṇa, 미간백호상(眉間白毫相)이라고 한다. 여래의 32상 중의 하나이다. 세존께서 두 눈썹 사이에 부드럽고 가늘며 매끄러운 흰 털이 한 길 켄의 길이로 자라서, 풀어놓으면 오른쪽으로 돌아나 소라와 같은 모양인데 선명하고 흰 빛이 깨끗하여 진주와 같은데 마치 태양의 한 가운데처럼 빛을 놓기 때문에 이를 백호광(白毫光)이라 한다. 중생이 이 빛을 만나면 업장을 소멸하고 심신이 안락하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여래의 여러 뛰어난 상호 중에 이것이 으뜸이라 한다. 본래 부처의 상호였지만 여기서처럼 보살의 상호도 된다고

다 해야될 수 없는 백천의 화불이 있다. 보살의 팔과 손바닥에는 각각 8만 4천의 광명이 있어 널리 일체를 비춘다. (내지) 부처님께서 아난(阿難)존자에게 이르셨다. 만약 관세음보살을 관하는 사람은 모든 재난을 만나지 않고 업장이 깨끗이 없어지고 셀 수 없는 겁 동안의 생사의 죄가 없어질 것이다. 이와 같이 보살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해야될 수 없는 복을 얻을 것이다. 하물며 살피 관함에 있어서라!”⁶³⁾

다음에 ‘또한 제자는’ 아래는 둘째로 자신의 몸의 모습을 밝힌 것이다. (이하 떨어져 나감)

所有本師，水月莊嚴，無盡相好，亦有弟子，空花身相，有漏形骸，依正淨穢，苦樂不同。

三卽體之用。正是海印森羅之義。於中三，先明聖相好，次亦有下，明自身相，後依正等者，凡聖不同。前中水月莊嚴者，一切衆生危苦之時，至心稱觀世音名者，大聖觀其音聲，而以種種相好，普應一切，猶如月輪普現衆水，故云水月莊嚴。故經云，“菩薩清涼月，衆生心水淨。”等也。無盡相好者，觀無量壽經云。

한다.

- 63) 『불설관무량수불경(佛說觀無量壽佛經)』 大12 p.343c13~344a5. 次亦應觀觀世音菩薩，此菩薩身長八十億那由他恒河沙由旬，身紫金色，頂有肉髻，頂有圓光，面各百千由旬。其圓光中有五百化佛，如釋迦牟尼，一一化佛，有五百菩薩無量諸天，以爲侍者。舉身光中五道衆生，一切色相皆於中現。頂上毘楞伽摩尼妙寶，以爲天冠，其天冠中有一立化佛，高二十五由旬，觀世音菩薩面如閻浮檀金色，眉間毫相備七寶色，流出八萬四千種光明。一一光明，有無量無數百千化佛，一一化佛，無數化菩薩以爲侍者，變現自在滿十方界，臂如紅蓮花色，有八十億微妙光明，以爲瓔珞，其瓔珞中，普現一切諸莊嚴事。手掌作五百億雜蓮華色，手十指端，一一指端有八萬四千畫，猶如印文，一一畫有八萬四千色，一一色有八萬四千光，其光柔軟普照一切。；p.344a11~14. 佛告阿難，若欲觀觀世音菩薩當作是觀。作是觀者不遇諸禍，淨除業障，除無數劫生死之罪。如此菩薩，但聞其名獲無量福，何況諦觀！

“觀世音菩薩，身長八十億那由他恒河沙由旬，身紫金色。頂有肉髻，頂有圓光，面各，圓光中有五百化佛，釋迦牟尼，一一化佛，有五百菩薩。毫相流出八萬四千種光明，一一光明有無量百千化佛。菩薩臂及手掌，各有八萬四千光明，普照一切。乃至佛告阿難，若觀觀世音菩薩者，不遇諸禍，淨除業障，除無數劫生死之罪。如此菩薩聞名，獲無量福，何況諦觀！”次亦有弟子下，二明自身相。言空(…)

(일곱째 장이 떨어져 나감)

□□□□(第七張缺落)

(묻는다.) (…)⁶⁴가르침이다. 또 대성 쪽으로 말하면 대원경지이고, 제자 쪽으로 말하면 본성이 청정한 깨달음이다. 마지막에 동체가 서로 통하는 문[同體交徹門] 가운데서 뜻으로 해인경(海印鏡)을 쓴 것은 그 뜻이 무엇인가?

답한다.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대원경지는 범인의 지위에는 통하지 않고 오직 불과의 지위에만 해당한다. 본성이 청정한 깨달음은 이미 생멸문에서 말한 것처럼 불과의 지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 동체가 즉입하는 뜻은 원교에서 바로 구경이기 때문이니, 해인경의 뜻으로 보면 끝이다. 둘째는 일불승에서 삼승을 말하는 이유는 각각 근기가 정해지지 않은 삼승을 위하여 점차 도태시켜 구경의 일승으로 인도하도록 힘쓰게 하기 때문이다. 의상공 또한 부처의 뜻에 의거하여 하근기가 상근기를 바라며 취하여 증득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차례를 만들었다. 그래서 『일승법계도』 서문에서 말하기를, “이름에 집착하는 무리들이 이름이 없는 참된 근원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⁶⁴고 한 것이 곧 이 뜻이다.

묻는다. 이미 삼교에 따라 글을 서술하였는데, 왜 소승이나 돈교는 들지

않았는가?

답한다. 소승은 생사를 두려워하고 대승을 무서워하는데, 어떻게 일승의 대원(大願)을 미리 얻을 수 있겠는가? 또 돈교(頓敎)⁶⁵⁾는 사상(事相)이 갑자기 다 없어지고 마음을 관하고 불성을 보는 것도 마음을 낸다고 하니, 한 마음이 생겨나면 부처라고 이름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을 관하고 발원한들 또 무엇을 말하겠는가? 그런데 진실로 서로 통하는 문의 체대 중에서 그 뜻을 얻어 그 가르침을 적게 포함하고 있으나, 일승의 총체와는 완전히 구별된다.

묻는다. 대원경지 중에 또한 갑자기 나타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시교와 종교는 모두 대원경지를 밝힌다. 왜 요컨대 해인경의 삼라만상으로써 구경으로 삼는가? 그렇지 않으면 시교는 방편으로 이끌어 영접하는 뜻에 대하여 대원경지를 들어 명(命)을 듣는다. 종교 또한 대원경지를 드는데, 그 뜻은 무엇인가?

답한다. 시교와 종교가 대원경지를 들지만 그러나 그 나타나는 바는 융통하지 못하니, 단지 공(空)의 뜻에 대한 것일 뿐이다. 그래서 『십구장(十句章)』⁶⁶⁾에서 말하기를, “시교는 의(義)가 있으니, 부처의 대원경지 중에 나

64) 『일승법계도』 韓2 p.1a6~7.

65) 돈교(頓敎): 화엄 5교(五敎)인 소승(小乘)·대승시교(大乘始敎)·대승종교(大乘終敎)·돈교(頓敎)·원교(圓敎)중의 네 번째. 연구를 떠나 수행 계위에 구애받지 않고 문득 이성을 깨닫는 유마 등의 경전을 말함.

66) 『십구장(十句章)』: 지엄(智儼)의 『수현기(搜玄記)』 첫장에 쓰여 있었다는 십구(十句)로 『화엄경』의 요체를 간추린 글. 이에 대해 의상(義相) 계통의 신라 화엄에서 연구가 성행하여 신림(神琳)·법용(法融)·법체(梵體)·융불(融咄)의 주석서가 이루어졌다. 고려 초기 균여가 해설하여 『십구장원통기(十句章圓通記)』 2권을 지어 현존하는 『십구장』은 신림에게 배운 법용이 10구를 해석한 문헌에 융불이 가필하고 자신의 견해를 보태 이루어진 것이다.(高翊晉, 1989『韓國古代佛敎思想史』, 323~330쪽) 곧 주저자는 법용이다.

타난 상으로서, 능의(能依)와 소의(所依)의 일신(一身)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숙교(熟敎)⁶⁷⁾는 대원경지 중에 나타난 상을 거듭 익혀 본성이 깨끗하여 마음이 생겨나는 것에 따른 것이지 새로이 마음이 갖가지 대상을 생겨나게 하는 것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는 또한 능의와 소의의 일신이다. 그러나 이는 원성실성(圓成實性)⁶⁸⁾이다. 일승 중에 체가 녹아 있기 때문에 갖가지의 모습을 나타내니 곧 물의 몸이다.”라고 하였다.⁶⁹⁾ 이 뜻으로 보기 때문에 요컨대 해인삼매와 삼라만상은 서로 통한다. 또 하물며 의상공의 『일승법계도』 석문에서 말하기를, “석가여래의 가르침의 그물이 포용하는 삼중세간이 해인삼매를 따라 빈번하게 타나나는 것을 드러내고자 함이다.”⁷⁰⁾라고 하였다. 이로써 말하면 이 서로 통하는 문 중에 삼세간⁷¹⁾을 갖춘 것이다. 본사의 수월장엄은 지정각세간(智正覺世間)을, 제자의 몸의 모습은 중생세간(衆生世間)을, 본사와 제자가 의지하는 국토는 기세간(器世

67) 숙교(熟敎): 종교(終敎)를 말함.

68) 원성실성(圓成實性): 유식의 삼성의 하나. 원만하고 성취하며 진실함을 갖춘 것. 완성된 것. 만유의진실한 본성이란 뜻으로서 진여와 같다.

69) 이 『십구장』에서의 인용은 균여의 저술에서도 확인된다. (『十句章圓通記』 권하 韓 4 p.59c14~60a1. 初敎有義, 佛大圓鏡智中現象, 是本質然第八識持種子義, 轉名无垢淨識, 故是本質, 非謂能依所依一身. 熟敎中性淨本覺, 因熏習鏡中現象, 從性淨心生, 非從新新心生種種境, 故是本質, 亦能依所依一身也. 是圓成實也. 一乘中體融, 故顯現種種像, 則直是水身.) 이는 오중해인(五重海印)을 교(敎)와 의(義)로 나누어 설명하는 중에 나온다.

70) 『일승법계도』 韓2 p.1b2~4.

71) 삼세간: 세간을 세 가지로 분류한 것. 법장의 『탐현기』에 따라 구분한 것이 다음에 본문에서 든 3종 세간이다. ①기세간(器世間)은 국토세간으로, 석가여래께서 교화 제도한 경계를 말한다. ②중생세간(衆生世間)은 석가여래께서 교화한 근기를 말한다. ③지정각세간(智正覺世間)은 여래의 큰 지혜를 갖추어 세간과 출세간의 법을 깨닫는 것으로, 석가여래께서 일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보인 3신 10불의 여러 가지를 말한다.

間)을 말한다. 이것과 대조해 보면 오히려 의심되는 것이 없다. 마지막에 역시 대원경지를 든 것은 이 대원경지가 곧 일심법계(一心法界)이고 또한 무장애법계(無障礙法界)이며, 또한 비로자나의 불과의 지혜이고, 또한 해인경이다. 삼승이 따로 집착하여 생기는 것을 깨뜨리고 우리 법의 기쁨에 같아지고자, 단지 삼승으로 일승에 참여하는 것일 뿐이다. 곧 『오교장(五教章)』 중에서 법상이 서로 참여한 것은 교의가 같아지는 것이다.⁷²⁾ 그래서 의상공은 『일승법계도』에서, “삼승의 방편 교문에 의하면 높고 낮음이 같지 않지만, 일승원교에 의하므로 앞과 뒤가 있지 않다.”⁷³⁾라고 하였다.

묻는다. 이미 말하기를, “석가여래의 해인삼매를 드러내고자 한다.”라고 하고, 또 『오교장』에서 “지금 석가불의 해인삼매를 열려고 한다.”⁷⁴⁾라고 했는데, 해인이란 부처가 처음 정각을 이룬 아침에 마음을 증득한 것을 바로 해인이라 한다. 무엇 때문에 인인(因人)이 증득한 지혜를 관하는 것을 해인이라고 하는가?

답한다. 두 가지 뜻이 있다. 지엄(智嚴)화상은 오중해인(五重海印)⁷⁵⁾을

72) 『화엄일승교의분제장(華嚴一乘教義分齊章)』 권1 大45 p.478c13~20. 初約法相交參以明一乘, 如三乘中亦有說因陀羅網及微細等事而主伴不具, 亦說華藏世界, 而不說十等, 或一乘中亦有三乘法相等. 謂如十眼中亦有五眼, 十通中亦有六通等. 而義理皆別, 此則一乘垂於三乘, 三乘參于一乘. 是則兩宗交接連綴引攝成根欲性, 令入別教一乘故也.

73) 『일승법계도』 韓2 p.2a3~5.

74) 『오교장』의 첫머리가 시작되는 구절이다. (『華嚴一乘教義分齊章』 권1 大45 p.477a6~7. 今將開釋迦如來海印三昧一乘教義, 略作十門.)

75) 오중해인(五重海印): 지엄이 설했다는 전하나, 신라 윤형(綸迥)이 만들어 지엄의 저술로 가탁하여 전했다고 보이는 해인설. ①3아승기겁을 닦은 제석이 범공의 수미산 봉우리에 올라 소지장(所知障)의 이수라와 싸울 때 3과 100법(三科百法)의 그림자가 일심진여의 바다에 나타나는 해인. ②셀 수 없는 겁을 닦은 제석이 본각(本覺)의 수미산 봉우리에 올라 근본무명의 이수라와 싸울 때 항하사 만덕의 그림자가 일심진여의 바다에 나타나는 해인. ③일념불생(一念不生)

밝혔고, 균여(均如)대사⁷⁶⁾는 또 인해인(因海印)을 더하였다.⁷⁷⁾ 또 이 관음 대성은 과거에 이미 정법명왕여래(正法明王如來)를 성취하고 지금 적문(迹門)을 나타냈으니, 어찌 불과인이 아닌가?

문는다. 만약 인해인을 논한다면, 『대집경(大集經)』⁷⁸⁾에서 말하기를, “비

의 제석이 일행삼매의 수미산 봉우리에 올라 망념의 이수라와 싸울 때 무상무 분별(無相無分別)의 상이 불이 실상의 바다에 나타나는 해인. ④이불세계 미진 수겁을 닦은 제석이 총상중도의 수미산 봉우리에 올라 분별변계(分別遍計)의 이수라와 싸울 때 10종 보법(善法)의 그림자가 세계해의 바다에 나타나는 해인. ⑤시불의 제석이 법성의 수미산 봉우리에 올라 무주실상(無住實相)의 이수라와 싸울 때 3중세간의 법이 국토해에 나타나는 해인. 이 해인설은 중국 문헌에는 전하지 않고 균여의 『십구장원통기』(韓4 p.63c3~24)와 『법계도기총수록』(韓6 p.775a10~22)에 전하고 있다.(高翊晉, 1989, 332~333쪽)

76) 균여(均如)대사: 923~973. 고려 초기의 화엄사상가. 신라말 이래 사상적으로 분열된 화엄교단의 내부적 과제와 교 선간의 갈등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러한 과제에 대응하는 사상체계를 정립하였다. 균여는 화엄의 초기 종장들인 지엄과 의상 법장의 주요 전적에 대해 10종 65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술을 이루어 신라 화엄에 대한 주석서인 『법계도원통기(法界圖圓通記)』와 『십구장원통기(十句章圓通記)』, 그리고 중국 화엄의 대성자인 법장의 저술에 대한 주석서들인 『교분기원통초(教分記圓通鈔)』·『지귀장원통초(旨歸章圓通鈔)』·『삼보장원통기(三寶章圓通記)』 등을 남겼다. 균여는 이들 저술에서 지엄과 의상 법장의 견해를 인용하며 자신의 입론 기초로 삼아 독자적 사상을 정립하였다. 균여의 화엄사상은 신라 화엄의 전통을 의상의 화엄사상에서 확인하면서 그에 부가하여 중국 법장의 화엄사상을 아우르는 것이었다. 화엄일승절대론의 교판론을 제시하여 균여는 『화엄경』과 화엄사상의 정당성과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신라 하대 이후 크게 위축된 화엄종의 위상 확립을 의도하였다. 균여는 또 향가 보현십원가(普賢十願歌) 11수를 지어 『화엄경』 보현행원(普賢行願)의 실천을 대중에게 전파하고자 하였다.

77) 균여는 『교분기원통초』에서 5중해인에 인해인(因海印)을 더하여 6중해인을 말하였다.(『석화엄교분기원통초(釋華嚴教分記圓通鈔)』 권1 韓4 p.246c4~5.)

78) 『대집경(大集經)』: 『대방등대집경(大方等大集經)』. ᱔ Mahāvaiṣṇava-mahāsanni pāta-sūtra. 복량 담무잡(曇無讖) 등 한역. 60권. 대집부(大集部) 모든 경을 모은 것. 모두 17품으로 나누어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16년째에 육계와 색계의 중간

유하자면 염부제의 모든 중생신과 나머지 외부의 색이 바다 가운데 모두 모습이 있는 것과 같으니 이것을 이름하여 대해가 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 보살도 이와 같아서 대 해인삼매를 얻는다.”⁷⁹⁾ 라고 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답한다. 『대집경(大集經)』의 해인도 모습을 나타내는 뜻이다. 단지 이는 의지하여 가지는 뜻으로서, 거듭하여 바로 들어가는 뜻이 없고, 또 나타난 것이 곧 나타난 것이라는 뜻도 없다. 지금 이 일승종 가운데 나타난 삼세간 법은 이는 대원경의 체이고, 대원경 외에 나타난 모습은 없어서, 저기에 나타난 것은 거듭하여 다함이 없고[重重無盡], 하나가 곧 일체이고 일체가 곧 하나이며, 원융하고 자재하며 장애됨이 없으며 저것과 같지 않다.

教耶。又大聖邊云大圓鏡，弟子邊云性淨覺。終於同躰交徹門中義用海印鏡，其義云何？答，有二意。一大圓鏡智者，不通凡位，唯當果位。性淨覺者，既於生滅門中所論，不屬果位。其同體卽入之義，於圓教，方究竟故，約海印鏡義而終也。二所以於一佛乘，說三乘者，各爲三乘根不定者，漸以淘汰，務令引導究竟一乘也。相公亦依佛意，爲令下機望上取證，故作次第也。故

에 대도량을 열고 시방 불찰의 제보살과 천룡 귀신을 모아 16대비(大悲)와 32업(業) 등의 깊은 미묘한 진리를 설하신 것. 대승 6바라밀법과 제법의 본성은 공하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밖에 밀교의 설법과 다라니 그리고 범천 등 제천의 호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17품 전체를 번역한 이 『대집경』 외에 일부를 번역한 여러 이역본들이 다른 이름으로 존재한다.

- 79) 『대방등대집경』 권15 大13 p.106c11~16. 善男子，喻如閻浮提一切衆生身及餘外色，如是等色海中皆有印像，以是故名大海印。菩薩亦復如是，得大海印三昧已，能分別見一切衆生心行，於一切法門皆得慧明，是爲菩薩得海印三昧，見一切衆生心行所趣. 이 부분은 균여도 거의 동일한 내용을 인용하였다.(『釋華嚴教分記圓通鈔』 권1 韓4 p.246a25~b3.) 이는 체원이 균여의 저술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法界圖序云，“冀以執名之徒，還歸無名真源，”卽此義也。

問，旣約三教述文，何故不舉小乘及頓教耶？

答，小乘則恐生死怖大乘，何得預於一乘大願？又頓教則事相頓盡，觀心見性亦曰生心，一念生卽名爲佛。故於此觀相發願，亦何所述？然苟得其意於交徹門體大之中，微含其教，然與一乘惣體全別也。

問，大圓鏡智中，亦有頓現之意，故始終皆以圓鏡智明也。何故要以海印鏡，森羅爲究竟耶？不然則始約方便引接之義，舉大圓鏡聞命矣。終亦舉其大圓鏡智，其義云何？

答，始終雖大圓鏡智，然其所現未能融通，但約卽空之義耳。故十句章云，“始教有義，佛大圓鏡智中現像，非謂能依所依一身，熟教因重習鏡中現像，從性淨心生，非從新新心生種種境。故亦是能依所依一身。然是圓成實也。一乘中體融，故顯現種種像，直是水身。”約此義故，要以海印森羅爲交徹也。又況相公法界圖釋文云，“欲表釋迦如來教網所攝三種世間，從海印三昧，繁出顯現。”以此論之，則於此交徹門中，具三世間也。謂本師水月莊嚴，卽智正覺世間，弟子身相，卽衆生世間，本師及弟子依土，卽器世間也。以此對之，尙無惑矣。其終亦舉大圓鏡智者，此鏡智卽一心法界，亦是無障礙法界，亦舍那果智，亦海印鏡也。爲破三乘別執而生，同於我法之欣，但以三乘，參於一乘耳。卽五教章中，法相交參，同教義也。故相公法界圖云，“依三乘方便教門，高下不同，依一乘圓教故。無有前後。”

問，旣云“欲表釋迦如來海印三昧。”又五教章云，“今將開釋迦佛海印三昧，”則海印者，佛始成正覺之旦證心。方曰海印也，何故觀因人證智云海印耶？

答,有二義. 智儼和尚明五重海印,而均如法師又加因海印也.

又此大聖,過去已成正法明王如來,今示迹門,豈非果人耶?

問,若論因海印者,大集經云,“喻如閻浮提一切衆生身及餘外色,於海中皆有像,以是名大海爲印.菩薩亦如是,得大海印三昧.”與此何別?

答,大集經海印,亦有現像之義.但是依持之義,無有重重卽入之義,亦無所現卽能現之義.今此一乘宗中所現三世間法,卽是鏡體,無有鏡外所現之像,而彼所現重重無盡,一卽一切,一切卽一,圓融自在,無障無碍,與彼不同也.

2) 삼가 발원을 내어 일을 이어 결과를 이룸[敬伸發願承事成果]

[발원문]

이제 관음의 거울 가운데 제자의 몸으로 제자 거울 가운데의 관음대성께 귀명하고 정례합니다.

[집해]

둘째는 삼가 발원을 내어 일을 이어 결과를 이룸[敬伸發願承事成果]이다. 그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전체적으로 귀명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總標歸相]이고, 둘째는 따로 발원을 밝힌 것[別明發願]이다.

(1) 귀명하는 모습[歸相]

이것은 귀명하는 모습[歸相]이다. 그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귀명하는 몸[能歸身]이고, 둘째는 귀명하는 대상인 대성(大聖)[所歸聖]이다.

위와 같은 대성의 대원경지와 제자의 본각(本覺)은 이미 동일한 체로서 청정하여 더러움을 떠나, 만상의 본래 그림자와 삼라만상이 갑자기 나타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이것은 혹은 하나의 법계의 체가 없을 뿐이다. 모든 부처가 증득한 과해인(果海印)과 보살이 증득한 인해인(因海印)은 단지 부분과 전체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제자는 저 관음대성의 거울 가운데 나타나고, 대성은 제자의 거울 가운데 나타난다. 미혹하면 생사가 있고 깨달으면 열반이니, 미혹함과 깨달음이 다르지만 그 체는 둘이 아니다. 그래서 『화엄경』 「성기품(性起品)」에서, “여래의 몸 중에서, 모든 중생이 보리심을 내고 등정각을 이루며 내지는 적멸하여 열반에 이르는 것을 모두 본다.”⁸⁰⁾ 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보살은 몸 가운데 부처의 깨달음이 있음을 스스로 안다. 자신의 마음과 같이 모든 중생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와 같다.”⁸¹⁾ 라고 하였다. 현수대사가 해석하여 말하기를, “여래의 몸 아래는 다섯째 인과를 드러낸 문[顯因果門]이다. 깨달음의 몸으로써 중생의 세계와 같아지기 때문에 중생들이 모두 그 가운데에 나타난다. 그 나타난 것이 나타난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중생들은 성불하지 않음이 없다. 이 글은 큰 단락이니, 다행히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⁸²⁾ 라고 하였다. 청량대사는 말하기를, “세상의 스승과 제자가 함께 하나의 거울에 대하는 것과 같으니, 만약 스승으로써 취하면 스승의 거울이고, 만약 제자로서 취하면 제자의 거울이다.”⁸³⁾ 라고 한 것이 곧 이 뜻이다. ‘귀명한다’고 말한 것

80) 『대방광불화엄경』(60) 권35 「寶王如來性起品」大9 p.627a1~4. 佛子, 如來身中, 悉見一切衆生發菩提心, 修菩薩行, 成等正覺, 乃至見一切衆生寂滅涅槃, 亦復如是, 皆悉一性, 以無性故.

81) 『대방광불화엄경』(80) 권52 「如來出現品」大10 p.279b24~26. 諸佛如來不離此心成等正覺故. 如自心, 一切衆生心亦復如是.

82) 『화엄경담현기』 권16 大35 p.413b18~22. 第五佛子如來身中下, 明現因果門. 於中三, 謂標釋結, 標中以菩提身等衆生故. 是故衆生悉於中現, 以彼所現同能現故. 是故衆生無不成佛. 此文是大節, 幸不輕之.

83)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 권13 大36 p.97a23~26. 略舉二喻. 一者如一明鏡, 師弟同對說聽. 以師取之, 卽是師鏡, 弟子取之, 是弟子鏡. 鏡喻一心.

은 현수대사가 『기신론의기』에서 “능히 귀의하여 정성스러움을 나타낸다. 귀란 의지하고 몸을 던져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⁸⁴⁾라고 하였고, (원효대사는 『기신론소』에서) “명이란 모든 감각기관을 총체적으로 제어하는 것으로, 한 몸의 요점이며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니 우선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둘이 없는 목숨을 들어 위없는 존귀한 분을 받드는 것이다.”⁸⁵⁾라고 하였다.

今以觀音鏡中弟子之身，歸命頂禮弟子鏡中觀音大聖。

第二敬伸發願承事成果。於中二，先惣標歸相，二別明發願。此則歸相。於中二，先能歸身，後所歸聖。可知如上大聖鏡智弟子本覺，既同一體，清淨離染，萬像本影，森羅頓現。只此無儻一法界體。諸佛證爲果海印，菩薩證爲因海印，但分滿異可。故弟子現彼大聖鏡中，大聖現於弟子鏡中。迷之生死，悟則涅槃，迷悟雖殊，其體莫二。故性起品云，“如來身中，悉見一切衆生發菩提心，成等正覺，乃至寂滅涅槃。”又云，“菩薩自知，身中有佛菩提，如自心，一切衆生心中亦如是。”等。賢首釋云，“如來身下，第五顯因果門。以菩提身，等衆生界，是故衆生悉於中現。以彼所現同能現故。是故衆生無不成佛。此文是大節，幸不輕之。”清涼云，“如世師資，同對一鏡，若以師取之，卽師之鏡，若以弟子取之，卽弟子鏡。”者，卽此義也。言歸命者，賢首起信疏云，“顯能歸誠。歸者，依投趣向。”“命

84) 『대승기신론의기』 권상 大44 p.246c25~28. 初歸命者，顯能歸誠至。二盡十方下，明所敬深廣。歸命，前中歸者，是趣向義。命謂己身性命，生靈所重，莫此爲先。

85) 『기신론소』 권상 韓1 p.700a6~11. 歸命二字，是能歸相，盡十方下，顯所歸德。能歸相者，敬順義是歸義，趣向義是歸義。命謂命根，總御諸根。一身之要，唯命爲主。萬生所重，莫是爲先。舉此無二之命，以奉無上之尊，表信心極，故言歸命。

者，摠御諸根，一身之要，人之所重，莫不爲先。舉此無二之命，以奉無上之尊。”

(2) 따로 발원을 밝힘[別明發願]

[발원문]

정성스럽게 발원하는 말을 내어 가피를 입기를 기대하며, 오직 제자는 생생세세토록 관세음을 칭명하며 본사로 삼아 보살께서 머리에 아미타불을 이고 있듯이

[집해]

둘째 따로 발원을 밝힘[別明發願]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가피를 청함[請加]을 나타낸 것이고, 다음에 ‘오직 원하건대’ 이하는 두 바람을 두 가지로 밝힌 것[雙明兩願]이니, 첫째는 본사와 같아지기를 바람[願同本師]이고 둘째는 정토에 낳기를 바람[願生淨土]이다.

가) 가피를 청함[請加]

가피를 청함에 대해 말하면, 중생의 원력이 비록 깊지만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성이 은근하게 도와주어 대원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니, 마치 사람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때 반드시 훌륭한 스승의 지혜와 방법에 의지해야 마침내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것과 같다. 청량대사의 『화엄경소』에, “위에는 빛나는 달이 있고 아래는 맑은 못이 받쳐준다. 못이 맑으면 달이 드러나니 기운이 감응하여 생겨난다.”⁸⁶⁾고 하였다. 물이 맑지 않으면 달이 어떻게 분명해질 것이며 마음이 정성되지 않으면 감응이 어떻게 이렇게 빠를 것인가? 그래서 정성스럽게 발원하는 말을 낸다고 한 것이다. 정원

86) 『대방광불화엄경소』 권1 大35 p.504a18~19. 其猶上有白月，下資澄潭。潭清影現，機感應生.

본(貞元本) 『화엄경소』에서 최적정바라문(最寂靜婆羅門)⁸⁷⁾이 얻은 법문을 풀이하여 말하기를, “정성스럽게 발원하는 말이란 전체적으로 말하면 거짓됨이 없다는 것이다. 따로 말하면 네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이치에 맞아서 잘못됨이 없기 때문이고, 둘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틀림이 없기 때문이고, 셋째는 스스로 실천하여 틀림이 없기 때문이고, 넷째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여 공허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네 가지를 갖추어야 정성스럽게 발원하는 말이라고 한다.”⁸⁸⁾ 라고 하였다.

發誠願語，冀蒙加被，惟願弟子，生生世世稱觀世音，以爲本師，如菩薩頂戴彌陀，

二別明發願。中二，先標請加，次惟願下雙明兩願，一願同本師，二願生淨土。就請加中，衆生願力，雖深要借，大聖冥加，能成大願，如人乘舡渡海，要依蒿師智方，方遂其志。清涼疏云，“上有白月，下資澄潭。潭清月現，機感應生。”水若不清，月豈分明，心若不誠，應何斯速？故云發誠願語等。貞元疏釋最寂靜婆羅門所得法門云，“誠願語者，摠謂無妄。別有四義，一稱理無失故，二始終無違故，三自行無違故，四利他不虛故。

87) 최적정바라문(最寂靜婆羅門) : ㉔ Śiva-varāgra.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선재동자가 문수보살의 법문을 들은 후 찾아가 차례로 법문을 듣는 선지식 중 49번째로 만나는 선지식이다. 최적정바라문은 보살성원어해탈(菩薩誠願語解脫)을 성취하고 이를 연설한다. 따라서 이곳에서 말하는 성원어를 설명하는데 적절한 인물이다.

88) 정원본 『화엄경』(40)의 ‘성원어(誠願語)’(권32 大10 p.807c29)를 해설한 정관의 『화엄경행원품소』의 내용과는 세 번째 설명이 다소 다르다.(『華嚴經行願品疏』 권9 卍5 p.170c23~171a5 識願語者，總謂無妄，別有二義。一稱理無失故，謂若乖理，皆名虛妄。二始終無違故，謂從初心，立弘誓言，必如言行，不違誓願。三自行真實故，如忍辱仙人被害，必不瞋，便立誓言，我實不瞋，令我手足還復如故，如言便復。四利他不虛故，如欲現化，便能起作，非如世人空願不能。具此四義，名誠願語。)

具此四義，名誠願語。”

ㄱ) 본사와 같아지기를 바람[願同本師]

첫째 본사와 같아지기를 바람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에는 같아짐[所同]의 예를 들었고, 나중은 능히 같게 함[能同]을 말한다.

이것은 같아짐이다. 정원본 『화엄경소』에서는 “정수리 위의 화불은 곧 본사이다.”⁸⁹⁾라고 하였다. 『능엄경』에서는, “관세음보살께서 부처님께 말 씀하시되, ‘생각해보니 제가 옛날 향하사집 이전 시절에 부처님께서 출현 하시어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처님께 보리심을 내고 그 부처님께서 저를 가르쳐주시고 듣고 생각하고 수행함⁹⁰⁾에 따라 삼마 지(三摩地)⁹¹⁾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내지) 저 부처님여래께서는 제 가 원통법문을 잘 얻었음을 찬탄하시고 대중 가운데서 제게 관세음의 명 호를 주셨습니다. 제가 관하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시방이 원만하고 밝아졌 기 때문에 관세음이라는 이름이 시방 세계에 두루 퍼진 것입니다.”⁹²⁾ 라

89) 징관의 『화엄경행원품소』에 해당 구절은 없다. 가장 비슷한 구절은 징관의 『화엄경수소연의초』에서 念誦者, 令先稱本師之名, 頂上化佛, 卽是彌陀故.(『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 권87 大36 p.680b24~25) 라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

90) 듣고 생각하고 수행하는: 문사수(聞思修) 삼혜(三慧). 문(聞)은 가르침을 들어서 얻는 지혜, 사(思)는 의리를 생각하는 지혜, 수(修)는 실천 수행하는 지혜를 말한다. 이 삼혜는 불법 수행의 차례를 말하니, 다른 사람이 교설을 설하는 것을 듣는 문혜, 내가 사유하여 얻는 사혜, 실제 수행하여 얻는 수혜이다.

91) 삼마지(三摩地): ⑤ samādhi. 삼매(三昧). 등지(等持)·정정(正定) 등으로 의역한다. 마음이 들뜨고 가라앉는 것을 떠나 오로지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여 산란되지 않게 하는 정신작용을 말한다. 수행자가 삼매에 이르게 되면 바른 지혜가 일어나 모든 번뇌를 없애고 진리를 깨닫게 된다고 한다.

92) 『대불정여래밀인수증류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6 大19 p.128b15~18. 爾時觀世音菩薩卽從座起, 頂禮佛足而白佛言. 世尊憶念我昔無數恒河沙劫, 於時有佛出現於世名觀世音, 我於彼佛發菩提心, 彼佛教我從聞思修入三摩地. …129c26~28.

고 하였다. 계환(戒環)⁹³⁾대사의 『능엄경요해(楞嚴經要解)』에서는 “스승이 되는 부처님을 또 관세음이라고 이름한 것은 원인과 결과가 서로 들어맞는 것이니 고금의 한 가지 도리이다.”⁹⁴⁾ 라고 하였다. 우리 의상공께서 관음을 섬기심도 또한 이와 같다. 현인을 보고 생각을 가지런히 하는 것은 참으로 이른바 고금의 한 가지 도리인가!

一願同本師. 中亦二, 先例所同, 后辨能同. 此則所同. 貞元疏云, “頂上化佛, 卽本師也.” 楞嚴經, “觀世音菩薩白佛言. 憶念我昔恒河沙劫有佛出現, 名觀世音. 我於彼佛發菩提心, 彼佛教我, 從聞思修, 入三摩地. 乃至云 彼佛如來歎我善得圓通法門, 於大衆中, 授記我爲觀世音號. 由我觀聽, 十方圓明, 故觀音名, 遍十方界.” 戒環疏云, “所師之佛, 亦名觀世音者, 因果相符, 古今一道也.” 我相公之師事觀音, 亦猶是也. 見賢思齊, 眞所謂古今一道歟!

[발원문]

저 또한 관음대성을 머리에 이고 십원육향(十願六向)⁹⁵⁾에서 천 눈 천 손

世尊彼佛如來, 歎我善得圓通法門, 於大會中授記我爲觀世音號, 由我觀聽十方圓明, 故觀音名遍十方界.

- 93) 계환(戒環): 송의 승려. 온릉(溫陵) 개원사(開元寺)에서 지냈기 때문에 온릉대사(溫陵大師)라고 불렸다. 법화와 화엄의 교학에 뛰어나 많은 강의와 저술을 펴냈다. 특히 『법화경요해』 『화엄경요해』 등 ‘요해(要解)’라는 이름을 붙인 여러 경전에 대한 해석서를 지었다. 고려 이래 우리나라에서 『법화경』의 이해는 이 계환의 요해를 중시하였다.

- 94) 『능엄경요해(楞嚴經要解)』 권11 卍11 p.830c19~20.

- 95) 십원육향(十願六向): 『천수경』 곧 『천수천안관자재보살대다라니경(千手千眼觀自在菩薩大陀羅尼經)』에서 관음에게 발원하는 내용. 10가지의 원은 2가지씩 짝을 이루기 때문에 실제로는 5가지이다. 첫째 지혜안을 얻어서 일체법을 알고, 둘

의 대자대비로 모두 몸을 던지고 몸을 받는 것과 같게 하여, 이 세상이나 다른 세상에서 머무는 곳따라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이 항상 설법을 듣고 참된 교화를 뽐냈습니다.

[집해]

둘째 능히 같게 함이다. 그중에 처음 『십지경론(十地經論)』⁹⁶⁾에서 말하기를, “비교하여 헤아려 뛰어난 것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헤아릴 수 없는 행을 실천함[行無量行]이니 이는 곧 스스로 이익됨이다. 둘째는 중생과 같아짐[與衆生同]이니 이는 곧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함이다.”⁹⁷⁾라고 하였

째 선방편을 얻어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셋째 고해를 건너 반야선을 타고, 넷째 열반산에 올라 계정도를 얻고, 다섯째 범성신과 같아져 무위의 집에서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다. 체원이 설명하듯이 사홍서원과 내용이 같다. 6항은 지옥, 아귀, 수라, 축생의 4악도를 없애 구제해 주기를 바라는 것인데, 지옥에 앞서 도산지옥과 화당지옥이 등장하므로 6항이 된다.(『千手千眼觀自在菩薩大陀羅尼經』 大20 p.106c17~a3. 南無大悲觀世音 願我速知一切法, 南無大悲觀世音 願我早得智慧眼, 南無大悲觀世音 願我速度一切衆, 南無大悲觀世音 願我早得善方便, 南無大悲觀世音 願我速乘般若船, 南無大悲觀世音 願我早得越苦海, 南無大悲觀世音 願我速得戒定道, 南無大悲觀世音 願我早登涅槃山, 南無大悲觀世音 願我速會無爲舍, 南無大悲觀世音 願我早同法性身, 我若向刀山 刀山自摧折, 我若向火湯 火湯自消滅, 我若向地獄 地獄自枯竭, 我若向餓鬼 餓鬼自飽滿, 我若向修羅 惡心自調伏, 我若向畜生 自得大智慧.)

96) 『십지경론(十地經論)』: 세친이 『화엄경』 「십지품」을 따로 번역한 『십지경(十地經)』을 해석한 책. 508년 보리유지와 늑나마제가 각각 한역함. 뒤에 혜광(慧光)이 두 본을 대조하여 한 본으로 만들. 보살이 수행하는 행상을 말한 것인데, 십지에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교법이 포함되어 남음이 없음을 나타냄. 『십지경론』의 한역에 따라 중국에서 『화엄경』 연구의 열기가 고조되고, 이 책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지론종(地論宗)이 형성되었다.

97) 이 구절은 징관의 『화엄경소』에서 그대로 인용한 구절이다.(『大方廣佛華嚴經疏』 권34 大35 p.762a2~3.) 원 구절은 『십지경론』에서 나온 내용이다.(『십지경론』 권3 大26 p.141a18~20. 此按量菩薩願勝有二種, 勝聲聞辟支佛, 一常勤修習無量行故, 二與一切衆生同行故.) 체원은 『십지경론』의 구절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화엄경소』의 구절을 인용하였다.

다. 그것으로 이에 준해 보면 또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 ‘십원육향’ 이하는 곧 스스로 이익되는 행동[自利行]이고, 둘째 ‘널리 법계에’ 이하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행동[利他行]이다. 이와 같이 두 가지 이익은 이승보다 뛰어나다. 그래서 앞에서는 다만 삼교만 들었고 이승의 실천을 들지 않았다.

我亦頂戴觀音大聖，十願六向，千手千眼大慈大悲，悉皆同等捨身受身，此界他方隨所住處，如影隨形，恒聞說法，助揚眞化。二能同。中 初地論云，“校量勝有二。一行無量行，卽是自利。二與衆生同，卽是利他。”以彼准此，亦有二義。一十願六向下，卽自利行，二普令法界下，是利他行。如是二利，勝於二乘，故前但舉三教，不舉二乘行也。

㉑ 스스로 이익되는 행동[自利行]

십원(十願) 등이라는 것은 혹은 이 대비주를 독송하는 이가 큰 원과 향을 낼 때 대성께서 그에 대응하여 그에게 십원육향을 모두 수행하도록 한 것이지, 대성께서 스스로 원과 향을 냈다는 것이 아님을 말한다. 혹은 대성께서 일찍이 부처님 계신 곳에서 그 원과 향을 냈기 때문에 중생들이 나처럼 이와 같은 대원을 내도록 가르쳤으니 곧 관음대성께서 본래 발원한 것이라고 한다. 『천수천안관자재보살대다라니경』에 따르면 뒤의 뜻이 경과 같다. 『천수천안관자재보살대다라니경』에 이르기를, “제가 생각해보니 과거 겁에 부처님께서 출현하시어 이름을 천광왕정주여래(千光王靜住如來)라고 하셨습니다. 저 부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또 모든 중생을 위하여 이 대비심다라니(大悲心陀羅尼)를 설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대비주를 듣고 제8지를 넘었습니다. 곧 맹세하여 말하기를, ‘만약 내가 미래세에 모든 중생을 잘 이익되게 한다면 나는 즉시 몸에서 천 개의 손

과 천 개의 눈이 모두 갖추어지게 할 것입니다. 만약 비구·비구니·우바세·우바이, 동남(童男)·동녀(童女) 등이 독송하고 지니고자 하는 자는 모든 중생에게 자비심을 일으켜 먼저 마땅히 나를 따라 이와 같은 서원을 낼 것입니다.⁹⁸⁾”라고 하였다. 이미 나를 따라서 서원을 낸다고 하였으니, 어찌 자신이 먼저 서원을 내지 않고 다만 중생들을 가르칠 뿐이겠는가?

비록 “대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합니다.” 라고 하였으나 “본사 관세음여래” 라고 할 수도 있고, 자신의 칭호를 염송하도록 가르칠 수도 있으니, 가피를 입게 하는 것이다.

십원(十願)이란 원은 비록 열 가지이나 구하는 것은 다섯 가지이니, 곧 사홍서원(四弘誓願)⁹⁹⁾으로서, 다섯 쌍의 십원[五雙十願]이라고 한다. 각각 먼저 그 원인을 원하고 나중에 그 결과를 원하였다. 다만 1, 2, 4원은 예를 들면 지혜의 눈을 얻은 후에 모든 법을 알고, 좋은 방편을 얻은 후에 중생을 구제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뒤와 같지 않은 것은 다만 앞은 인연하게 된 대상이고 뒤는 인연하는 마음이니, 대상이 있는 다음에 마음이 있다는

98) 『천수천안관자재보살대다라니경(千手千眼觀自在菩薩大陀羅尼經)』 大20 p.106b27~c1. 觀世音菩薩重白佛言, “世尊! 我念過去無量億劫, 有佛出世, 名曰千光王靜住如來, 彼佛世尊憐念我故, 及爲一切諸衆生故, 說此廣大圓滿無礙大悲心陀羅尼. ; p.106c3~7. “我於是時, 始住初地, 一聞此呪故, 超第八地, 我時心歡喜故, 卽發誓言, ‘若我當來, 堪能利益, 安樂一切衆生者, 令我卽時, 身生千手千眼具足.’ 發是願已, 應時身上, 千手千眼, 悉皆具足. ; p.106c14~16. 若有比丘比丘尼優婆塞優婆夷童男童女, 欲誦持者, 於諸衆生, 起慈悲心, 先當從我, 發如是願. 이 구절에 바로 이어 십원육향의 계송이 시작된다.

99) 사홍서원(四弘誓願): 모든 보살이 다 함께 일으키는 네 가지의 큰 서원. 그 내용은 경전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육조단경(六祖壇經)』의 설을 따른다. ①중생무변서원도(衆生無邊誓願度).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를 서원하는 것. ②번뇌무진서원단(煩惱無盡誓願斷). 모든 번뇌를 다 끊기를 서원하는 것. ③법문무량서원학(法門無量誓願學). 모든 불법을 다 배울 것을 서원하는 것. ④불도무상서원성(佛道無上誓願成). 최고의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기를 서원하는 것.

것이 인연의 의미의 차례이기 때문이다. 첫째는 알게 되는 대상이고, 둘째는 알 수 있는 마음이며, 셋째는 구제되는 것이고, 넷째는 구제하는 것이다. 앞의 두 서원(제1원, 제2원)은 범문을 배우는 것이고, 뒤의 두 서원(제3원, 제4원)은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다. 다음에 하나의 양원(제5원, 제6원) 중에서 반야란 한자로는 지혜이니, 지혜로 말미암아 생사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이 배로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아서이다. 그래서 생사에는 끝이 없어서 고통의 바다[苦海]라 하니 곧 번뇌를 끊겠다는 서원이다. 번뇌를 끊을 수 있음으로써 반드시 생사의 바다에 가라앉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 두 개의 양원 중에서 처음의 양원(제7원, 제8원)은 열반의 증과를 구하는 것이고 다음 양원(제9원, 제10원)은 자성법신(自性法身)¹⁰⁰⁾의 증과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은 응화법신(應化法身)¹⁰¹⁾이고 뒤는 자성법신이다. 이것은 불과를 이루기를 서원하는 것이다. 곧 계율과 실천을 충족시키고 나서 열반으로 향해 올라가 번뇌를 끊고 불과를 이룬다. 그래서 응화법신이라 한다. 그래서 『보살영락본업경』에서, “첫째는 자성법신이고 둘째는 응화법신이다.”¹⁰²⁾ 라고 하였고, 『섭대승론』에서는, “자성신과 법신이니, 의지함을 짓

100) 자성법신(自性法身): 응화법신(應化法身)과 함께 이중법신의 하나. 초지 이상의 보살과 불인에 통하는 개념. 법성이 있는 실제 지혜의 법신이다. 이에 비해 응화법신은 이 자성법신으로부터 응현한 일체의 법신을 말한다. 자성법신의 특색은 진실되고 보편 평등한 진리의 진여법성에 상주하는 법신이라는 것이므로, 불타의 본신(本身)을 가리킨다.

101) 응화법신(應化法身): 법신불(法身佛)로부터 응현한 불보살·인천·축생 등의 무량한 법신. 응신(應身)·화신(化身)이라고도 한다. 일체 중생의 선근이 실제 지혜에 감응한 법신으로 무량한 법신으로 응현할 수 있다. 일체 세계의 국토신(國土身), 일체 중생신, 일체 불신, 일체 보살신 등이 모두 불가사의한 법신을 나타낸다.

102) 여기서 첫째는 자성법신이라 하였으나 경에서는 법성신이라 하였다. 『보살영락본업경(菩薩瓔珞本業經)』 권상 大24 p.1015c19~21. 敬首菩薩白佛言, 世尊, 從初

기 때문이다.”¹⁰³⁾ 라고 하였다. 계족도(戒足道)¹⁰⁴⁾라는 것은 번뇌가 없는 율의[無漏律儀]¹⁰⁵⁾의 도이니, 삼취정계(三聚淨戒)¹⁰⁶⁾와 십성계(十性戒)¹⁰⁷⁾ 등을 말한다. 족(足)이란 원만하고 넉넉한 것이다. 열반은 한자로는 원적(圓寂)이라 하니, 덕이 가득참을 원이라 하고 장애가 다함을 적이라 한다. 열반으로 높이 생사의 바다를 벗어나기 때문에 산에 비유한다. 그래서 청량대사는 비슬지라거사(毗瑟底羅居士)¹⁰⁸⁾ 법문을 해석하는 중에, “해상에 산

地至後一地, 有果報神變二種法身, 一法性身, 二應化法身.

- 103) 『섭대승론』에서 다음 구절이 가장 가까운 취지로 생각된다.(『攝大乘論』 권3 大31 p.129c4~5. 此中自性身者, 是諸如來法身, 於一切法自在依止故.)
- 104) 계족도(戒足道): 『천수천안관자재보살대다라니경』의 본래 구절은 계정도(戒定道)이다.(大20 p.106c23. 南無大悲觀世音, 願我速得戒定道.)
- 105) 무루율의(無漏律儀, ㉠anāsava-samvara)는 번뇌를 모두 끊은 무루계(無漏戒)를 말한다. 별해탈율의(別解脫律儀)·정려율의(靜慮律儀)와 함께 3종 율의(律儀)의 하나. 성자(聖者)가 무루정(無漏定)에 들어갈 때 일어나 악을 방지하는 계체이다.
- 106) 삼취정계(三聚淨戒): ㉠tri-vidhāni śīlāni, 대승보살의 계법(戒法). 취(聚)는 종류라는 뜻이다. 이 삼취의 계법은 무구 청정하고 대승의 모든 계율을 포섭하여 원융무애하기 때문에 삼취정계라 한다. 대승 소승의 온갖 계를 다 받아들임으로 섭(攝)이라 하고, 그 계법이 본래 청정하므로 정(淨)이라 한다. ①섭율의계(攝律儀戒, ㉠samvara-śīla). 일체의 악을 끊어 모든 율의(律儀)를 포섭하는 악을 그치게 하는 문[止惡門]이다. 불교도 7중(七衆)이 받는 계로서, 재가와 출가에 따라 5계(五戒), 8계(八戒), 10계(十戒), 구족계(具足戒) 등의 조항이 있다. ②섭선법계(攝善法戒, ㉠kuśala-dharma-saṃgrāhaka-śīla). 일체의 깨달음의 도를 포섭하는 계. 일체의 선법을 수습하는 것으로 선을 닦는 문[修善門]이라 한다. 보살이 닦는 율의계(律儀戒)로 신·구·의 선업을 닦아 위없는 깨달음으로 회향하고 항상 부지런히 정진하여 삼보를 공양하고 마음에 게으름을 내지 않는 것이다. 만약 잘못을 범하면 법대로 참회하고 선법을 기른다. ③섭중생계(攝衆生戒, ㉠sattvārtha-kriyā-śīla). 자비로운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거두어 들어 이익되게 하므로 이익이 생기는 문[利生門]이다.
- 107) 십성계(十性戒): 보살의 십계로는 범망계의 십중계(十重戒)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가 있다.
- 108) 비슬지라거사(毗瑟底羅居士): ㉠Veṣṭhila. 안주장자(安住長者)라고도 한다. 『화엄

이 있다는 글에 이르기를, ‘대비에 따르고, 생사의 바다에 들어가며, 열반산에 머무름을 나타낸다.’¹⁰⁹⁾라고 하였다. 무위(無爲)의 집(舍)이라는 것은 대비와 법성 등의 집이다. 분별을 뒤집어 분별없음을 얻기 때문에 무위라고 한다. 집이란 『일승법계도』의 석문에서, “집은 무슨 뜻인가? 머무는 곳이기 때문이다. 법성은 진실로 공하다고 하는 것은 깨달은 자가 머물기 때문이다. 또 큰 자비의 뛰어나고 훌륭한 방편으로 중생을 덮어주므로 집이라고 이름한다. 이 뜻은 일승의 구경에 있다.”¹¹⁰⁾ 라고 하였다. 법성신이라는 것은 진실로 공한 집 가운데에서 깨달은 자를 법성신이라고 한다. 부처마다 모두 법성의 동일한 체성을 증득하기 때문에 같다[同]고 한다. 『섭대승론』에서, “이 법계로부터 흐르지 않음이 없고, 이 법계로 돌아가 증득하지 않음이 없다.”¹¹¹⁾ 라고 한 것은 이를 말한 것인가? 천수천안은 이미 앞에서 인용한 것과 같다.

육향(六向)이란 사악도에서 구제하는 것이다. 1향과 2향은 따로 도륜(刀輪)지옥¹¹²⁾과 화륜(火輪)지옥¹¹³⁾을 들었는데 이는 가장 심한 고통이기

경』 「입법계품」에서 선재동자가 순력하는 53선지식 중 관음 바로 앞에 등장하는 26번째의 선지식. 비슬지라거사는 선재에게 선도성(善度城)에서 보살이 얻은 불반열반제(不般涅槃際)해탈을 설하고, 다음에 관음보살을 찾을 것을 알려주었다.

109) 『대방광불화엄경소』 권57 大35 p.939c26~27. 言海上有山者, 大悲隨順入生死海而住涅槃山故.

110) 『일승법계도』 韓2 p.5b13~17. 家者何義, 陰覆義, 住處義故. 所謂法性真空, 覺者所住, 故名爲宅. 大悲善巧, 蔭覆衆生, 名曰爲舍. 此義在三乘, 一乘方究竟.

111) 이 구절은 진제 역 『섭대승론석』의 구절을 변용한 것으로 보인다. (『攝大乘論釋』 권13 大31 p.254a25~26. 後成佛時各觀一切法, 無不從此法身生, 無不還證此法身故.)

112) 도륜지옥(刀輪地獄) : 도산(刀山)지옥. 칼산이나 칼바퀴로 죄를 다스리는 지옥. 다른 사람의 고통을 즐기던가 중생을 죽인 자가 넣는 지옥이다. 사면이 모두 산인데, 산에는 칼이 벽돌처럼 쌓여 있고 허공에서 8백만억 개의 칼바퀴가 비처럼 쏟아진다. 죄인이 죽음에 이르면 병이 들어 가슴 속에 번민이 단단한 돌

때문이다. 세 번째는 모든 지옥을 총괄하여 들었다. 나머지 셋은 아귀(餓鬼)¹¹⁴⁾, 수라(修羅)¹¹⁵⁾, 축생(畜生)¹¹⁶⁾ 등이다. 수라는 한자로는 비천(非天)이라고 한다. 비록 천계에 속하지만 그 마음이 삿되고 게을러 천계의 실제 행동이 없기 때문에 비천이라고 한다. 나쁜 마음을 많이 내기 때문에 나쁜 마음을 조복시킨다고 한다. 축생은 어리석음이 깊고 무겁기 때문에 지혜를 얻도록 한다. 앞의 십원 중 비록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있지만 전

처럼 가득 차서 마침내 날카로운 칼로 깎아내면 상쾌하겠다는 마음이 들게 되고 옥줄은 그 마음에 응하여 날카로운 칼을 가져와 중병을 잘라내고 죄인은 크게 기뻐하며 목숨이 끊어져 칼산에 태어나면 사방의 산이 일시에 합쳐져 그 몸을 자른다. 또 옥줄이 죄인을 칼산으로 쫓으면 죄인은 산에 오르다 온 몸이 갈라지고 옥줄의 칼나무에 굴러 떨어진다. 이런 1일1야를 60억 생사를 지내고 5백세를 축생으로 나고 다시 5백세를 비천한 사람으로 나고 그제서야 선지식을 만나 비로소 발심하게 된다. (『佛說觀佛三昧海經』 권5 大15 p.670c14~671a4)

- 113) 화륜(火輪)지옥: 화거지옥(火車地獄). 화거는 몸체에 불이 붙어 죄인을 지옥으로 운반하는데 쓰이는 수레이며 혹은 죄인을 벌주는 도구로도 쓰인다. 죄인을 맞아들여 화거로 치어 죽이는 지옥이 화거지옥이다. 이 지옥에는 가로세로 40 유순이 되는 구리술이 있어 안에 불이 붙어 있는데, 아래는 12바퀴가 있고 위에는 94불바퀴가 있어,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 악을 만든 자는 죽은 후에 화거 위에서 손발이 타고 화거가 짓밟으며 가루처럼 부수는데 하늘에서 쫓는 구리가 쏘아져 그 몸을 씻어 하루 밤중에 90억 차례의생사를 받는다. 그리고 나서야 출가하여 선지식을 만나 설법을 듣고 아라한도를 이룬다. (『佛說觀佛三昧海經』 권5 大15 p.671a25~b15)
- 114) 아귀(餓鬼): ㉠preta-gati. 업에 의해 윤회하는 6도의 하나. 탐욕, 질투 등의 악업을 지은 이가 나게 되는 곳. 아무 것도 먹을 수 없는 아귀도 있고, 사람이 남긴 물건이나 사람이 주는 것만 먹을 수 있는 아귀도 있다.
- 115) 수라(修羅): 아수라(阿修羅, ㉠Asura). 업에 의해 태어나는 욕도의 하나. 인간 다음으로 네 곳의 나쁜 세계[四惡趣] 중 첫째이고, 세 곳의 좋은 세계[三善道] 중 셋째로 분류되기도 한다. 아수라는 본래 인도의 전쟁을 관장하는 신이었는데 흔히 악신으로 간주되었다. 그가 인드라신인 제석천(帝釋天)과 싸워 싸움을 그치지 않아 싸움의 상징이 되었다.

체적으로는 스스로 이익되는 것인데, 이 (육향) 중에는 전체가 다른 사람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다.

‘대자비’라고 하는 것은 자(慈)는 능히 즐거움을 주는 것이니 곧 32응신¹¹⁷⁾ 현현이고, 비(悲)는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니 곧 14무외(無畏)¹¹⁸⁾이다. 나머지는 『능엄경』이나 『법화경』 「보문품」에 설한 것과 같다.

言十願等者，或云是誦呪者，發大願向時，大聖應彼令彼十願六向皆遂，非謂大聖自發願向也。或云大聖，曾於佛所，發其願向，故令衆生，教如我發如是大願，則觀音聖本所發願也。准千手千眼經，後意如經。謂經云，“我念過去劫，有佛出世，號千光王靜住如來。彼佛憐愍我故，及爲一切衆生，說此大悲心陀羅尼。我聞此呪，超第八地。卽發誓言，‘若我當來，堪能利益一切衆生者，令我卽時 身生千手千眼，皆悉具足。若有比丘比

116) 축생(畜生): ⑤tiriyagonyi-gati, 업에 의해 윤회하는 6도의 하나. 도적질하고 살생하는 등의 악업을 지은 이가 나게 되는 곳. 고통이 많고 즐거움은 적으며 식욕만 강하고 지혜가 없어 부자 형제의 윤리가 없이 서로 싸우고 잡아먹고 산다.

117) 32응신: 관음보살이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그 근기와 종류에 따라 불신에서부터 인신, 비인신에 이르는 32가지의 몸을 나타내 설법하여 구제한다고 함. 이는 『능엄경』에 따른 것이고, 『법화경』은 33신설법으로 헤아린다. ①불신(佛身), ②독각(獨覺), ③연각(緣覺), ④성문(聲聞), ⑤범왕(梵王), ⑥제석(帝釋), ⑦자재천(自在天), ⑧대자재천(大自在天), ⑨천대장군(天大將軍), ⑩사천왕(四天王), ⑪사천왕태자(四天王太子), ⑫인왕(人王), ⑬장자(長者), ⑭거사(居士), ⑮재관(宰官), ⑯바라문(波羅門), ⑰비구(比丘), ⑱비구니(比丘尼), ⑲우바새(優婆塞), ⑳우바이(優婆夷), ㉑여주(女主), ㉒동남(童男), ㉓동녀(童女), ㉔천(天), ㉕용(龍), ㉖약차(藥叉), ㉗건달바(乾闥婆), ㉘아수라(阿修羅), ㉙긴나라(緊那羅), ㉚마호라가(摩呼羅伽), ㉛인(人), ㉜비인(非人).

118) 14무외(無畏): 『능엄경』에서 관음보살이 금강삼매의 힘으로 지방 삼세와 육도의 모든 중생들과 같이 슬퍼하고 우러러 중생들에게 얻게 한다는 14가지의 무외 공덕.

丘尼優婆塞優婆夷童男女等，欲誦持者，於諸衆生，起慈悲心，先當從我，發如是願。”既說從我發願，則豈自不先發誓，唯教衆生而已耶？雖云南無大悲觀世音，亦可云 本師觀世音如來，亦可云 教念自號，使蒙加被也。

十願者，願雖十種，所求五種，卽四弘誓願，謂五雙十願。各先願其因，後願其果。唯一二四願者，例如得智惠眼然後，知一切法，得善方便然後，度衆生也。然其與後不同者，但先是所緣境，後是能緣心，有境後心緣義次第故耳。一是所知境，二是能知心，三是所度，四是能度。前二誓學法門，後二誓度衆生也。次一兩願中，般若此云智，由智能越生死，如因舡渡海。故生死無際，故稱苦海，卽誓斷煩惱也。以能斷煩惱，必不沉沒生死海故。次二兩願中，先二願 求涅槃果，次二願 求自性法身果。然則 前是應化法身，後是自性法身。此則誓成佛果也。則戒行滿足，趣登涅槃，斷惑成果。故云應化法身也。故本業經云，“一自性法身，二應化法身。”又梁論云，“自性身與法身，作依止故也。”戒足道者，無漏律儀道也，謂三聚十性戒等。足卽圓足。涅槃此云圓寂，德滿曰圓，障盡曰寂。以其涅槃，高出生死海中，故比山也。故清涼釋毗瑟底羅居士法門中，“海上有山之文云，‘表大悲隨順，入生死海，住涅槃山。’”等。言無爲舍者，卽大悲法性等家也。背反分別，得無分別，故曰無爲也。舍者，法界圖釋文云，“家者何義，住處義故。所謂法性真空，覺者所住故。又大悲善巧，蔭覆衆生，名曰爲舍。此義在一乘究竟。”言法性身者，謂其真空宅中，覺者爲法性身也。佛佛皆證法性同一體性，故云同也。梁論云，“無不從此法界流，無不還證此法界。”此之謂歟？千手眼，已如前引。

六向者, 救四惡道. 其一二向, 別舉刀輪火輪地獄, 此極苦故, 第三摠舉諸地獄. 餘三餓鬼修羅畜等. 修羅此云非天. 雖天趣攝, 其心諂慢, 無天實行, 故云非天. 多生惡心, 故云惡心調伏. 畜生, 愚癡深重, 故令得智惠也. 前十願中, 雖有利他, 全是自利, 此中全是利他.

言大慈悲者, 慈能與樂, 卽三十二應, 悲能拔苦, 卽十四無畏. 如楞嚴經及普門品說.

㉠ 남을 이롭게 하는 행동[利他行]

[발원문]

널리 범계의 일체 중생이 대비주를 독송하고 보살의 명호를 염송하여 함께 원통삼매의 본성의 바다에 들게 하며

[집해]

둘째 남을 이롭게 하는 행동이다. 『천수천안관자재보살대다라니경』에 따르면, “관세음보살께서 부처님께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만약 여러 중생이 대비신주(大悲神呪)를 독송하고 지냈는데도 삼악도에 떨어진 자가 있다면 저는 맹세코 정각을 이루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였다.”¹¹⁹⁾라고 한 것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서원을 낸 것이다. 저 경에서 설한 것과 같이 서로 덕을 배풀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며 또한 저와 같게 되기를 바란다. 원통(圓通)이란 『능엄경』에서 말하기를, “관세음보살께서 부처님께 말씀하시되, ‘부처님께서 물으신 원통은, 저는 이문(耳門)으로부터 원조삼매(圓照三昧)를 얻습니다. 내지는 삼마지(三摩地)를 얻고 깨달음을 성취하여

119)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다라니경(千手千眼觀世音菩薩廣大圓滿無礙大悲心陀羅尼經)』大20 p.107a9~11. 復白佛言, “世尊, 若諸衆生, 誦持大悲神呪, 墮三惡道者, 我誓不成正覺.

이것이 그 첫째가 됩니다.’라고 하였다.”¹²⁰⁾ 라고 하였다. 계환의 『능엄경소』에서 말하기를, “하나도 이지러지거나 모자람이 없는 것을 원(圓)이라고 하고, 작은 것도 막힘이 없이 포용하는 것을 통(通)이라 한다.” 라고 하였다. 삼매는 한자로는 정수(正受)라고 하고, 또 등지(等持)라고도 하니, 마음을 평등하게 지녀 밖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본성의 근원이 깊고 넓기 때문에 바다에 비유한다.

普令法界一切衆生，誦大悲呪，念菩薩名，同入圓通三昧性海，二利他行。准千手眼經，“觀世音菩薩白佛言，‘世尊若諸衆生，誦持大悲神呪者，墮三惡道者，我誓不成正覺。’”等，利他發誓。如彼經說，相德利他，亦願同彼也。圓通等者，楞嚴云，“觀世音菩薩白佛言，‘佛問圓通，我從耳門圓照三昧，乃至得三摩地，成就菩提，斯爲第一。’”等。環疏云，“無一缺減曰圓，無小滯擁曰通。”三昧此云正受，亦云等持，平等持心，不令外散故。性源深廣，故比海也。

ㄴ) 정토에 넣기를 바람[願生淨土]

[발원문]

또 제자는 이 과보가 다할 때 친히 대성께서 빛을 놓으며 이끌어주심을 받들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몸과 마음이 적절하게 기쁘며, 한 찰나 사이에 곧 백화도량에 왕생하여, 모든 보살과 함께 정법을 듣고 법의 흐름에 들어가 생각생각마다 밝음을 키우고 여래의 대무생인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120) 『대불정여래밀인수증류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6 大19 p.128b15~16. 爾時觀世音菩薩卽從座起，頂禮佛足而白佛言；p.129c24~26. 佛問圓通我從耳門圓照三昧。緣心自在，因入流相，得三摩提，成就菩提，斯爲第一。

[집해]

둘째 정도에 낳기를 바람[願生淨土]이다.

묻는다. 이통현(李通玄)장자¹²¹⁾의 『화엄경론』에서 말하기를, “이 보살은 대비심이 지극하여 사물을 자라게 하고 생명을 이롭게 하며, 자신의 과보에 나가지 않고 중생들의 더러운 경계에 나아가 산다.”¹²²⁾고 하였는데, 무엇을 정도라고 하는가?

답한다. 이 백화산(白花山)은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의 안인가, 바깥인가? 사바세계는 이미 화장세계의 제13중¹²³⁾에 해당하기 때문에 백화도량은 비로자나불의 설법도량인 금강보지(金剛寶地)의 청정한 찰해¹²⁴⁾에 있다. 그래서 신수(神秀)공은 『묘리원성관(妙理圓成觀)』¹²⁵⁾에서, “묻는다.

121) 이통현(李通玄)장자: 635~730. 당의 화엄학자. 키가 7척 2촌이나 되고 외형이 특이하였다. 천품이 뛰어나 일정한 스승이 없이 공부하여 유교와 불교에 정통하였다. 719년에 태원부(太原府) 인근의 대현촌(大賢村)에서 은거하면서 몇 년 동안 매일 대추 10개와 잣나무떡 하나만을 먹으며 『화엄경』을 탐구하여 사람들이 조백대사(裘柏大士)라고 불렀다. 이후에도 이적을 보이며 화엄 연구에 집중하여 독자의 세계를 열었다. 『신화엄경론(新華嚴經論)』 40권을 비롯하여 여러 저술을 통해 중국 고유사상을 불교에 포용하여 통합하고 주석하였다. 특히 『신화엄경론』은 동아시아 불교에 큰 영향을 미쳤다.

122) 『신화엄경론』 권37 대36 p.982a3~4. 爲大悲至極熟物利生, 不就自報, 就衆生界穢境而居巖谷.

123) 『화엄경』(80) 「화장세계품」의 설에 의하면 연화장세계에는 20겹이 있는데, 그 중 13번째겹이 비로자나불이 계시는 사바화장세계라고 한다.

124) 찰해(刹海): 찰토대해(刹土大海).十方세계 곧 우주를 말함. 찰(刹, śkṣetra)은 국토(國土)의 뜻인데, 산스크리트어와 한자를 합쳐 써서 찰토(刹土)라 한다.

125) 『묘리원성관(妙理圓成觀)』: 신수(神秀)가 지은 책. 이 신수는 선종의 북종 신수가 아니라 화엄종 조사 신수이다. (金煥泰, 1988 「均如傳 妙理圓成觀의 著者」 『韓國佛敎學』 11) 『화엄경소』 30권과 『묘리원성관(妙理圓成觀)』 3권을 저술하였는데, (『新編諸宗教藏總錄』. 의천이 차례지운 것으로 보면 慧苑과 澄觀 사이이다) 『묘리원성관』은 『법계도기총수록』에 두 군데, 『관음지식품별행소』에 한 군데 인용

사바세계는 이미 연화장세계의 정국토 중에 제13중인 잡염토(雜染土)이다.¹²⁶⁾ 왜 정전에서는 보라도랑 가운데 금강지의 보배나무 등의 경계가 모두 연화장세계의 본래 국토라고 설하는가? 답한다. 근본은 근본이라 정해지지 않았고, 지말은 지말이라 정해지지 않았다. 사바세계는 비록 제13중에 있지만 그중에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보이는 것은 모두 근본국토이고, 만약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아니면 모두 지말국토이다.”¹²⁷⁾ 라고 하였다. 또 『화엄경』 「화장세계품(華藏世界品)」에서 설하기를, “세존께서는 옛날에 여러 생 동안, 티끌만큼 많은 부처님 계신 곳에서 청정행을 수행했네. 그래서 갖가지 미묘한 광명을 얻으니, 연화장 잡염의 세계해였네.”¹²⁸⁾ 라고 하였다. 만약 사바세계가 이 청정한 보배같은 국토라고 믿는다면 왜 다시 백화도랑의 깨끗하고 더러움을 묻는가?

묻는다. 왜 이통현장자는 “중생의 더러운 경계에 나아가 산다”고 했는가?

답한다. 현수법사의 『탐현기』 「사나품」에 “이제 여러 세계해에 열 가지가 있음을 두루 해석한다.”¹²⁹⁾ 〈운운〉 일승에 둘이 있다. 첫째는 과분(果分)으로 보면 시불의 자체의 국토해이니, 이는 당연히 말할 수 없고 인연에 의해

되어 전한다. 이로써 신라와 고려 화엄사상가들이 특히 관심을 가졌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126) 징관의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 권6의 취지가 유사하다.(大36 p.42a19~25. 疏, 娑婆之處未融華藏, 華藏之處必融娑婆者, 此通刊定破處異也. 餘處王城舍衛, 未言卽是華藏娑婆, 今云七處自有二義故同華藏. 一約本末分岐故, 七處亦是華藏界中, 第十三重之內. 二約淨穢該徹, 則摩竭提國其地金剛, 說初品時, 華藏世界六種震動.)

127) 징관의 『수소연의초』 참조.(권4 大36 p.25a20~25. 疏, 初淨穢中下雙釋. 先釋染淨二種四句, 前一四句, 以本剎末剎相望成四句. 華藏爲本剎, 世尊修因所嚴淨故, 剎種所持世界爲末剎, 應衆生有故. 然末剎卽狹, 本剎則寬, 末通淨穢, 本剎唯淨.)

128) 『대방광불화엄경』(80) 권8 「화장세계품」 大10 p.39b12~13 世尊往昔於諸有, 微塵佛所修淨業, 故獲種種寶光明, 華藏莊嚴世界海.

129) 『화엄경담현기』 권3 大35 p.158a5 今通釋諸世界海, 略作十門.

설하면 열이 되니 제2회에서 설한 것과 같다. 둘째는 포섭하여 교화하는 곳[攝化處]으로 보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수미산 세계와 나무 형태와 중생 형태와 세계해 등이 제1 부류가 된다. 둘째는 3천대천세계 외에 따로 10세계가 있는 것이 제2 부류가 된다. 셋째는 10연화장 장엄 세계해가 주반(主伴)¹³⁰⁾을 갖추어 인드라마 그물과 같은 것 등이 제3 부류가 된다.”¹³¹⁾ 라고 하였다. 이통현장자는 포섭하여 교화하는 국토에 대하여 제1류를 말하였는데,¹³²⁾ 비록 제1류는 잡다하게 더럽혀진 국토[雜染土]이지만 부처의 덕으로 더러운 모습을 모두 없애 오직 정토만이 있다. 그래서 비슬저라거사가 선재동자에게 지시하여 말하기를, “해상에 산이 있어 온갖 보배로 이루어져, 현인성인이 사는 곳이라 매우 청정하다.”¹³³⁾ 라고 하였다.

又願弟子此報盡時，親承大聖放光接引，離諸怖畏身心適悅，
一剎那間即得往生白華道場，與諸菩薩同聞正法，入法流水念念
增明，現發如來大無生忍。

130) 주반(主伴): 주체와 그에 딸린 것. 주체와 종속. 화엄학에서 법계연기(法界緣起)를 말할 때 이것이 주(主)가 되면 저것이 반(伴)이 되고, 저것이 주가 되면 이것이 반이 되어, 이와 같이 주와 반이 갖추어져 덕을 포섭함이 무진한 것을 주반구족(主伴具足)이라고 한다. 또 만유가 각각 주가 되고 반이 되어 상즉상입하여 중중무진한 것을 주반무진(主伴無盡)이라 한다. 이런 설명은 화엄 법계연기의 내용을 설하는 십현문(十玄門)의 하나인 주반원명구덕문(主伴圓明具德門)을 가리킨다.

131) 『화엄경담현기』 권3 大35 p.158a27~b8. 三依一乘有二，一約果分 十佛自體國土海，此當不可說，寄緣說十，如第二會說，二約攝化處 有三類，一從須彌山界及樹形等已去乃至一切衆生形世界海，爲第一類，二三千界外別有十世界，一世界性，二世界海，三世界輪，四世界圓滿，五世界分別，六世界旋，七世界轉，八世界蓮華，九世界須彌，十世界相，此等當萬子已云輪王境界，爲第二類，三十蓮華藏莊嚴世界海，具足主伴如帝網等，是佛境界，爲第三類。

132) 이통현은 『신화엄경론』 권7에서 포섭하여 교화하는 경계에 대해 설하고 있다.(大36 pp.760a11~761a2, 第八明攝化境界)

133) 『대방광불화엄경』(40) 권16 大10 p.732c24.

第二願生淨土.

問, 長者論云, “此菩薩爲大悲至極, 熟物利生, 不就自報, 就衆生穢境而居.” 何云淨土?

答, 此白花山, 是華藏內耶外耶? 娑婆旣當華藏世界第十三重, 故白花在於毗盧遮那說法道場金剛寶地清淨剎海也. 故神秀公妙理圓成觀, “問云, 娑婆旣當花藏正中剎種上第十三重雜染土. 如何經說菩提場中金剛地寶樹等境界, 全是花藏本剎耶? 答, 本不定本, 末不定末, 娑婆雖在第十三層, 中有淨穢所見全是本剎, 若非淨穢全是末剎.” 又大經花藏世界品云, “世尊往昔於諸有, 微塵佛所修淨行. 故獲種種妙光明, 花藏莊嚴世界海.” 若信娑婆是淨寶剎 何更問於白花淨穢?

問, 何故長者云 “就衆生穢境而居.”

答, 賢首法師舍那品疏云, “今通釋諸世界海有十 (云云). 一乘有二. 一約果分, 十佛自體國土海, 此當不可說, 寄緣說十, 如第二會說. 二約攝化, 處有三類. 一須彌山界及樹形衆生形世界海等, 爲第一類. 二三千界外別有十世界, 爲第二類. 三十蓮花藏莊嚴世界海, 具足主伴如帝網等, 爲第三類.” 長者約攝化土中, 第一類云也, 雖第一類雜染土, 約佛德能染相皆盡, 唯是淨土. 故毗瑟底羅居士, 指示善財云, “海上有山衆寶成, 賢聖所居極清淨.” 等.

⑦ 가피를 입어 번뇌를 떠남[蒙加離惑]

그중에 두 가지가 있으니, 처음은 가피를 입어 번뇌를 떠남[蒙加離惑]이요, 나중의 ‘일찰나’ 아래는 저 이익을 이루어냄[生彼成益]이다. 처음 중에서 ‘이 과보’란 이 한 기간의 과보를 장차 버리려 할 때를 말한다. 『화엄

경』에서 관자재보살이 선재동자에게 이르신 계송 중에, “혹은 위험이나 재난에 있어 근심과 공포가 많거든, 밤낮 육시(六時)¹³⁴⁾로 내 명호를 부르라. 나는 그때 저 사람 앞에 나타나 머물러, 가장 뛰어난 귀의처를 만들 것이다. 그는 마땅히 내 청정한 불국토에 태어나, 나와 함께 보살행을 닦을 것이다.”¹³⁵⁾라고 하였으니, 이는 정토에 낳기를 원함에 대해 응한 것이다. 또 “혹 중생이 목숨이 다할 무렵에, 죽음의 모습이 여러 나쁜 모습으로 앞에 나타나리. 그 갖가지 모습들을 보고 나면, 마음이 두려워 의지할 곳 없게 되리. 만약 지성으로 내 명호를 부르면, 그 나쁜 모습들이 모두 없어지리라. 나의 대자대비한 관자재로 말미암아, 천도와 인도의 선도(善道) 중에 나에게 하리라.”¹³⁶⁾라고 하였으니, 이는 가피를 입어 번뇌를 떠남에 대해 응한 것이다. 또 “만약 사람이 이 생의 목숨을 다 마친 후에, 삼악도와 팔난의 몸을 받지 않기를 바라면, 항상 인간과 천상의 선도에 있어, 항상 청정한 보리도를 실천하리라. 몸을 버려 정토에 낳고자 원하는 이는, 여러 부처 앞에 널리 드러나, 널리 시방의 불국토 중에, 항상 청정하고 뛰어난 보살이 되리라. 널리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뵈옵고, 여러 부처님의 설법하는 소리를 들으리라. 만약 지성으로 내 명호를 부르면, 모든 소원이 모두 원만해지리라.”¹³⁷⁾라고 하였는데, ‘만약 사람이 바라기를’ 이하의 한 계송은 가피를 입어 번뇌를 떠남을 밝힌 것이고, ‘몸을 버려 원하는’ 이하의 두 계송은 그 이익을 이루어냄을 밝힌 것이다.

또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에대비심다라니경』에서 이르기를,

134) 육시(六時): 하루 밤낮을 여섯으로 나눈 것. 낮의 3시는 이른 아침인 진조(晨朝), 한낮인 일중(日中), 오후인 일몰(日沒), 밤의 3시는 초저녁인 초야(初夜), 한밤중인 중야(中夜), 신새벽인 후야(後夜).

135) 『대방광불화엄경』(40) 권16 大10 p.734b7~9.

136) 『대방광불화엄경』(40) 권16 大10 p.734b17~20.

137) 『대방광불화엄경』(40) 권16 大10 p.734b7~9.

“만약 여러 중생이 대비신주를 독송하여 지니면, 목숨을 마칠 때 시방의 여러 부처들이 모두 와서 손을 내밀어, 어떤 불토에 낳고 싶은가를 원하는 대로 모두 왕생하게 될 것이다.”¹³⁸⁾라고 하였으니, 이는 친히 대성이 영접하여 이끌어주심을 받든다는 말이 시방의 여러 부처님과 관음에게까지 통하는 것을 말한다.

於中二，先蒙加離惑，後一刹那下，生彼成益。前中此報者，此一期之報，將捨之時也。大經 觀自在菩薩告善財偈云，“或在危厄多憂怖，日夜六時稱我名。我時現住彼人前，爲作最勝歸依處。彼當生我淨佛刹，與我同修菩薩行。”此是願生淨土之應也。又“或有衆生臨命終，死相現前諸惡色。見彼種種色相已，令心惶怖無所依。若能至誠稱我名，彼諸惡相皆消滅。由我大悲觀自在，令生天人善道中。”此當蒙加離惑之應也。又云，“若人願此命終後，不受三途八難身。恒處人天善趣中，常行清淨菩提道。有願捨身生淨土，普現一切諸佛前。普於十方佛刹中，常爲清淨勝薩埵。普見十方一切佛，及聞諸佛說法音。若能至誠稱我名，一切所願皆圓滿。”若人願此下一偈，明蒙加離惑，有願捨身等二偈，明生彼成益也。又千手千眼經云，“若諸衆生，誦持大悲神呪者，臨命終時，十方諸佛，皆來授手。欲生何等佛土，隨願皆得往生。”則所謂親承大聖接引之言，通於十方諸佛及觀音也。

138)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다라니경』大20 p.107a7~9. 世尊. 若諸人天，誦持大悲章句者，臨命終時，十方諸佛，皆來授手。欲生何等佛土，隨願皆得往生。

㉔ 이익을 이루어냄[生彼成益]

나중의 ‘찰나’라는 것은 시간이 매우 빠른 것이니, 장사가 팔이나 목을 굽혔다 펴는 것과 같다. ‘범의 흐름의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십지경론』에서 말하기를, “8지 이상은 위없는 지혜로서 성스러운 도와 범의 흐름이 순간순간에 자연스럽게 변한다.”¹³⁹⁾ 라고 하였는데, 이는 능히 증득한 부처의 지혜가 빠르게 증가하여 나아가 힘들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을 말하니, 저 빨리 흐르는 물이 흐르고 흘러 끊어짐이 없는 것과¹⁴⁰⁾ 같다.

‘여래의 (대무생인을) 드러내기를’ 이하는 바람이 같음(願同)을 바르게 밝힌 것이니, 지금 본사께서 끝내 구경의 과보를 이룬 것이다. ‘여래’란 종교로 말하면 진실한 도를 타고 와서 정각을 이룬 것이고, 돈교로 말하면 어디서 온 곳이 없고 어디로 간 곳도 없는 것이며, 원교로 말하면 처음 마음을 낼 때 번뇌를 모두 끊고 복덕과 지혜를 다 이루어 예로부터 움직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래라고 한다. ‘대무생인(大無生忍)’이라고 하는 것은 인은 참아서 아는 것이니 지혜로 밝게 비추는 것을 인가하는 것이다. 이 인을 관하여 통달하면 등각의 다음에 마음이 미세한 무명의 번뇌를 끊는다. 원교의 계위로 말하면 계위가 번뇌를 끊고 성불하는 단계이며 내지는 십신위의 초발심에서 또한 이 인을 얻는다. 지금 종교에 의지하여 지위를 설하는 뜻은 『화엄경』 「십인품(十忍品)」에서 설한 것과 같다. 그 『화엄경소』에

139) 『십지경론』에 이 구절은 없다. 관련 구절은 “是菩薩得是三昧智慧方便善清淨故, 得大悲力故, 過聲聞辟支佛地. 現前思量趣智慧地.”(권9 大26 p.177a24~26.)의 경구절을 해석한 “過聲聞辟支佛地者, 有二種相. 一修行方便智力, 二大悲力故. 現前者, 能入法流水. 思量智慧地者, 八地智慧應知.”(권9 大26 p.177a27~29.) 부분 정도가 있다. 『불지경론』에 참고되는 구절이 있다.(권6 大26 p.321c1~4. 此中唯取八地已上, 觀一切法本來無生今亦不起. 得上品忍一向清淨, 恒起無漏任運而轉, 由得此故說名證得無生法忍.)

140)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 권31 大36 p.238c24~25. 然此偈文晉經, 云譬如駛水流水流無絕已. 참조

서 말하기를, “무생인이란 만약 인은 생하는 이치가 없다는 것으로 말하면 곧 생함이 없는 인이다. 만약 생함이 없는 지혜 및 번뇌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말하면 생하지 않음이 곧 인이다. 두 가지에 통하게 해석한다.”¹⁴¹⁾라고 하였다. 만약 시교로 말하면 인과 법이 다 공해야만 생하는 이치가 없다고 말한다. 만약 종교로 말하면 여래장이 연에 따라 육도에 생멸하니, 전체가 여래장이기 때문이다. 시각의 날에 본래 시각과 분각의 다름이 없는 것을 이름하여 생하는 이치가 없다고 한다. 만약 돈교로 말하면 자신의 마음을 직관하여 수행함도 증득함도 없이 본래 청정한 것을 바로 생함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법계체성경(法界體性經)』에서 말하기를,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이르셨다. ‘너는 어떤 가르침으로 여러 선남자들이 보리심을 내게 하겠느냐?’ 문수보살이 말하기를, ‘저는 제가 마음을 봄을 내는 것을 가르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끝을 보는 것이 곧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¹⁴²⁾〈지공(指空)¹⁴³⁾의 계명(戒名)¹⁴⁴⁾은 이에 의한 것이다〉 만약 원

141) 『대방광불화엄경소』 권46 大35 p.852b13~15. 三無生忍者, 若約忍無生理即無生之忍. 若約無生之智及煩惱不生, 則無生即忍. 通二釋也.

142) 이 인용 구절은 『종경록(宗鏡錄)』에 나온다.(『宗鏡錄』 권82 大48 p.868b16~19. 如法界體性經云, “佛告文殊師利, 汝依何教法, 發菩提心. 文殊言, 教發我見心. 何以故? 我見際即是菩提故.”) 이밖에 요(遼) 지복(志福)의 『석마하연론통현초(釋摩訶衍論通玄鈔)』(권2 大46 p.135a13~15.)와 송 사회(師會)의 『화엄일승교의본제장복고기(華嚴一乘教義分齊章復古記)』(권2 大58 p.365b20~22.)에도 인용되어 있는데, 이것들과 이 『백화도량발원문약해』의 인용 구절이 모두 한두 글자씩 차이가 있다. 여기서 밝힌 『법계체성경』에서 유사한 구절은 “佛言, 文殊師利, 汝云何爲初行男子女人說法. 文殊師利言, 世尊, 我於彼諸善男子善女人所, 教發我見即是爲其說法.”(『入法界體性經』 大12 p.234c3~6.)이다.

143) 지공(指空) : 1300~1361. 인도 마가다국에서 태어나 날란다사로 출가하여 불교를 수학한 후 1318년부터 인도 여러 지역을 순례하고 1325년에는 원나라에 와서 왕을 만났다. 1326년 고려에 와서 개경의 감로사(甘露寺) 등과 금강산을 돌아보고 여러 사람에게 무생계(無生戒)를 주는 등 3년 동안 활동하다 다시 원에 갔

교로 말하면 예로부터 움직이지 않는 것을 생하는 이치가 없다고 한다. 위는 모두 오히려 설할 수 있는 교분(敎分)이다. 그러나 인분(因分)을 빌려 과분(果分)은 설할 수 없음을 증명하고자 원하면 무생인에 처한다. 그래서 대무생인이라고 한다.

後中刹那者，時之極促，如壯士屈伸臂頃也。言入法流水者，十地論云，“八地已上無相智，聖道法流，刹那刹那，任運而轉。”謂能證聖智，速疾增進，而無功用，任運而轉，如彼駛水 flowing 無絕故。言現發如來下，正明願同。今師終成究竟之果也。言如來者，若約終教，乘如實道，來成正覺故。若約頓教，無所從來，亦無所去故。若約圓教，初發心時，煩惱斷盡，福智成竟，舊來不動，故曰如來。言大無生忍者，忍謂忍解，印可智照，觀達此忍，在等覺後，心爲斷微細無明煩惱。若約圓教位，位斷惑成佛，乃至信位初心，亦得此忍。今寄終教位說義，如十忍品說。彼疏云，“無生忍者，若約忍無生理，卽無生之忍¹⁴⁵⁾，若約無生之智及煩惱不生，則無生卽忍。通二釋也。”若約始教，人法俱空曰無生理。若約終教，如來藏隨緣，六道生滅，全如來藏故。始覺之日，本無始本之異，名無生理。若依頓教，直觀自心，無修無訂，本來清淨，方曰無生。故法界體性經云，“佛告文殊，汝云何教諸善男子發菩提心？文殊言，我教發我見心，何以

다. 1348년에 원에 간 나옹혜근(懶翁慧勤)이 지공을 만나고 백운경한(白雲景閑)도 만남을 가졌다. 지공이 입적한 10년 후인 1371년에 그의 유골이 개경에 도착하여 이듬해에 나옹은 회암사에 지공의 승탑을 세우고 1378년에 탑비를 세웠다.(許興植, 1997『高麗로 옮긴 印度의 등불-指空禪賢-』, 一潮閣, 13~65쪽)

144) 무생계(無生戒). 위의 주 143) 참조.

145) 대본은 理이나 인용 원문인 징관의 『화엄경소』와 전후 의미에 따라 忍으로 수정함.

故? 我見際, 卽是菩提.”〈指空戒名依此〉若依圖教, 舊來不動, 名無生理. 上皆猶是教分可說. 然借因分, 願證果分不可說, 處無生忍. 故云大無生忍也.

이 위의 삼가 발원을 내어 일을 이어 결과를 이룬 중에서, 환희지(歡喜地)¹⁴⁶⁾에 준하면 청량대사의 『화엄경소』와 『행원품소』 또한 십종원(十種願)으로 풀이한다. 청량의 『화엄경소』에서 『섭대승론석』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첫째는 공양원(供養願)이요, 둘째는 수지원(受持願)이요, 셋째는 전법륜원(轉法輪願)이요, 넷째는 수행이리원(修行二利願)이요, 다섯째는 성숙중생원(成熟衆生願)이요, 여섯째는 승사원(承事願)이요, 일곱째는 정토원(淨土願)이요, 여덟째는 불리원(不離願)이요, 아홉째는 이익원(利益願)이요, 열째는 성정각원(成正覺願)이다.”¹⁴⁷⁾ 라고 하였다. 그것으로 풀이하면 여기서 말한 ‘관세음을 본사로 한다’ 이하는 승사원이고, ‘십원육향’ 이하는 수행이리원이고, ‘몸을 버리고 몸을 받고’ 이하는 공양원이다. 머무는 곳에 따라 그림자처럼 형태를 따르니 어찌 부처에게 비는 행동이 없겠는가? ‘항상 정법을 듣는다’는 것은 수지원이고, ‘참된 교화를 돕겠다’는 것은 전법륜원이고, ‘널리 법계에’ 이하는 성숙중생원이고, ‘이 과보가 다할 때’ 이하는 이익원이고, ‘한 순간’ 이하는 정토원이고, ‘여러 보살과 함께’ 이하는 불리원이고, ‘법의 흐르는 물에 들어가’ 이하는 성정각원이다. 아울러 그에 준하여 알 수 있으니, 이 십원 중에 인과를 갖추었다. 그래서 청량

146) 환희지(歡喜地): ④pramuditā-bhūmi, 보살의 수행단계 중 10지(地)의 첫째. 지(地)는 주처(住處)·주지(住持)·생성(生成)의 뜻. 보살이 수행하여 성불하기까지 총 41단계 중의 제31단계(『영락경』에 따르면 52단계 중의 제41단계)이다. 초지(初地)라고도 한다. 처음으로 중도지(中道智)를 얻어 불성(佛性)의 이치를 보고 견혹을 끊으며 자리이타하여 진실한 기쁨에 가득찬 지위이다.

147) 『대방광불화엄경소』 권34 大35 p.761c13~17.

대사가 말하기를, “만약 드러나는 것에 대해 말하면 앞의 아홉가지의 구함은 인이고 뒤의 한 가지의 구함은 과이다. 만약 제7 정도원을 갖추어 포섭하는 것으로 보면 또한 과를 구함이니, 이는 과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10 성정각원은 정과(正果)이고 나머지는 인이다. (내지) 단지 10원만을 말한 것은 두 가지 장엄(지혜와 복덕이다)과 두 가지 이익의 인과의 실천 계위에 두루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다. 또 이 끝없는 원을 나타내기 위함이다.”¹⁴⁸⁾ 라고 하였다.〈화엄의 10수는 모두 끝없음을 나타낸다.〉약사여래(藥師如來)의 12대원¹⁴⁹⁾과 아미타불의 48대원¹⁵⁰⁾은 모두 이 10대원 중에 포섭된다.

148) 『대방광불화엄경소』 권34 大35 p.762a8~12. 四約因果者, 若就言顯前九求因, 後一求果, 若約具攝七, 亦求果是依果故, 十是正果餘皆是因. 五立意圓融者, 先立意, 所以但說十者, 已攝二嚴二利因果行位, 無不周故, 又爲表此無盡願故.

149) 약사여래(藥師如來)의 12대원 : 약사여래가 과거에 보살로서 수행할 때 발원한 중생을 이롭게 이끄는 12가지의 대원(大願). ①약사여래가 성불할 때 광명이 밝게 빛나 무량한 세계를 비추게 하는 원. ②청정무구하여 해와 달과 같은 광명으로 어두운 중생을 모두 깨닫게 하여 가고 싶은 대로 일을 하게 하는 원. ③무량 무변한 지혜방편으로 중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모자람이 없이 쓰게 하는 원. ④삿된 도를 행하는 자가 깨달음에 안주하게 하고 이승을 행하는 자는 대승에 안주하게 하는 원. ⑤일체 중생이 청정한 행을 수행하고 삼취정계를 갖추며 악업을 범했다라도 악취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원. ⑥일체의 불구자나 병자들이 모두 완전하게 신체를 갖추게 하는 원. ⑦여러 병을 앓아 의지할 곳 없는 이가 병을 다 낫고 깨달음을 증득하게 하는 원. ⑧여인이 남자의 몸을 얻고자 하면 장부가 되어 깨달음을 얻게 하는 원. ⑨모든 중생이 마구니와 외도와 악견에서 벗어나 정견으로 위없는 깨달음을 얻게 하는 원. ⑩나라의 죄를 받아 고통을 받는 이가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원. ⑪ 굶주려 여러 악업을 짓는 중생에게 아름답고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주고 마지막에는 불법의 맛으로 안락하게 하는 원. ⑫가난하여 헐벗는 중생에게 의복과 장엄을 주어 만족스럽게 하는 원.

150) 아미타불의 48대원 : 아미타불이 과거에 범장보살(法藏菩薩)로 수행할 때 세자재왕여래(世自在王如來) 처소에서 세운 48가지의 서원.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12·13·17의 3원은 섭법신원(攝法身願), 31·32의 2원은 섭정토원(攝淨土願), 그 나머지 43원은 섭중생원(攝衆生願)이라 한다. 그중 중요한 것은 극락세계에는

그것에 준해 보면 분명하여 숨김이 없을 것이다. 이 10원을 갖추고 바로 발원하면 무릇 도라는 것은 본받을 만하지 않겠는가?

此上敬伸發願承事成果中 若准歡喜地. 清涼疏及行願品疏, 亦以十種願釋之. 謂清涼引梁攝論釋云, “一供養願 二受持願 三轉法輪願 四修行二利願 五成熟衆生願 六承事願 七淨土願 八不離願 九利益願 十成正覺願.” 若以彼釋, 此言稱觀世音以爲本師下, 承事願. 十願六向下, 修行二利願. 捨身受身下, 供養願. 謂隨所住處, 如影隨形, 豈無供佛之行? 恒聞正法者, 受持願. 助揚眞化者, 轉法輪願. 普令法界下, 成熟衆生願. 此報盡時下, 利益願. 一剎那下, 淨土願. 與諸菩薩下, 不離願. 入法流水下, 成正覺願. 並准彼可知, 此十願中具因果也. 故清涼云, “若就言現, 前九求因, 後一求果. 若約具攝七, 亦求果, 是依果故. 然第十正果, 餘則是因. 乃至所以但說十者, 以攝二嚴〈福智二也〉二利, 因果行位, 無不周故. 又爲表此無盡願也.”〈華嚴十數皆表無盡〉藥師十二願, 彌陀四十八大願, 皆攝在此十願中也. 以彼准之, 昭然無隱矣. 具此十願, 方爲發願, 凡爲道者, 可不倣焉?

악한 세계가 없기를 원하며, 수명이 한량 없기를 원하며, 중생이 장수하기를 원하며, 열 번의 염불로 극락에 왕생하기를 원하며, 임종할 때 아미타불이 영접하기를 원하는 등이다. 이들 대원의 내용에 의해 십념염불설(十念念佛說), 미타내영설(彌陀來迎說) 등의 정토사상에 대한 해석 논의가 생겨났다.

3) 귀의하여 우리름을 맺고 본사에게 회향함[結歸投仰廻向本師]

[발원문]

발원을 다 하고 나서 관자재보살마하살께 귀명하고 정례합니다.¹⁵¹⁾

[집해]

셋째 귀의하여 우리름을 맺고 본사에게 회향함[結歸投仰廻向本師]이다. 세 곳의 회향¹⁵²⁾ 중에 보리회향(菩提廻向)이니, 이는 유정을 깨달은 때문이고, 또한 이미 바른 깨달음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또 이미 본성에 맞기 때문이니, 이는 곧 실제회향(實際廻向)이다. 또 이미 두 가지의 발원과 실천을 갖추었기 때문이니, 또한 이는 중생회향(衆生廻向)이다. 이와 같이 삼처 회향을 갖추었다.

發願已，歸命頂禮觀自在菩薩摩訶薩。

第三結歸投仰 廻向本師。三處廻向中，菩提廻向也，以是覺有

151) 귀명정례(歸命頂禮)는 지극한 정성과 공경하는 몸과 마음으로 삼보에 예경하는 것. 귀명은 몸과마음을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것을 말하고, 정례는 머리를 땅에 대어 부처님의 발에 닿게 하는 예배로서 예배 중의 가장 극진한 공경을 나타낸 것을 말한다.

152) 세 곳의 회향: 삼처회향(三處廻向)은 징관이 『화엄경소』에서 『화엄경』 「십회향품」을 설명하면서 회향을 10종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세 가지 종류로 총괄한 것. 보리(菩提)회향은 인을 돌려 과를 향함[迴因向果], 못한 것을 돌려 뛰어난 것을 향함[迴劣向勝], 본품을 돌려 증득을 향함[迴比向證], 중생(衆生)회향은 스스로를 돌려 다른 것을 향함[迴自向他], 적은 것을 돌려 많은 것을 향함[迴少向多], 자인행을 돌려 타인행을 향함[迴自因行向他因行], 실제(實際)회향은 사를 돌려 이를 향함[迴事向理], 차별행을 돌려 원융행을 향함[迴差別行向圓融行], 그리고 세간을 돌려 출세간을 향함[迴世向出世]과 순리사행을 돌려 이소성사를 향함[迴順理事行向理所成事]의 2회향은 보리회향과 실제회향에 통한다고 하였다. (『대방광불화엄경소』 권26 大35 p.694c10~12. 迴向通稱今當重明隨境所向義有衆多，以義通收不出三處，謂衆生菩提及以實際。；p.695a7~9. 前十義中，初三皆迴向衆生，次三皆迴向菩提，次二迴向實際，後二義通於果及與實際.)

情故,亦是已成正覺故. 又既是稱性故,即是實際廻向. 又既具二利願行故,亦是衆生廻向. 如此則三處具矣.

간기(刊記)

우리 가형(家兄)인 보응(普應)대사 인원(忍源)공은 일생 동안 관음대성만을 신앙하여 『화엄경』의 관음법문을 독송할 것을 권장해왔다. 30 여 명이 나에게 그 경에 주석을 붙여줄 것을 요청하여, 청량징관(淸涼澄觀)의 『화엄경소』로 경문의 아래에 주해하고, 아울러 약해를 집성하여 2권을 이루었다. 또 경의 뜻에 의거하여 「백화도량발원문」을 간략히 해석하여 가형이 (관음을) 숭상하고 믿는 정성을 돕고 아울러 동학들의 교우하는 뜻에 보답하고자 하였다. 널리 불법의 재물을 베풀어 위로는 한 사람의 그윽한 복에 보탬이 되게 하고 아래로는 삼계의 아홉 부류의 중생들에게 불법이 흐르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치화(致和) 원년 무진년(1328년, 충숙왕 15년) 10월에 해인사에서 집해하다.
후학 사미 목암(木庵) 체원(體元)이 적다.

각화사(覺華寺) 주지인 비구 성지(性之)¹⁵³⁾가 교감하다.

원통(元統) 2년 갑술년(1334년, 충숙왕 후3년) 7월 일에 계림부(雞林府)¹⁵⁴⁾에서 찍어내다.

같은 원을 낸 각수 승 보□(甫□).

153) 성지(性之): 성지는 체원이 이 『백화도량발원문약해』의 저술에 앞서 지은 또 다른 저술 『화엄경관자재법문소설별행소』도 교감하였다. 이는 체원이 사형인 인원(忍源)과 이 성지 등 일련의 관음신앙을 신봉하고 널리 펴고자 하는 사람들이 강한 유대관계를 맺고 활동하였음을 말해 준다.

154) 계림부(雞林府): 지금의 경상북도 경주(慶州).

색기관(色記官) 최변(崔汴).

별색(別色) 전 부호장(副戶長) 이기(李奇).

같은 원을 낸 수재(秀才) 김신기(金神器)가 쓰다.

같은 원을 낸 동천사(東泉社) 도인(道人) 선순(善珣).

계림부권지윤(雞林府權知尹)¹⁵⁵⁾ 승봉랑(承奉郎) 도관좌랑(都官佐郎) 지
울주사(知蔚州事) 겸권농사(兼勸農使) 노□□(盧□□).

我家兄普應大師源公，一生偏信觀音大聖，勸誦花嚴觀音法門。
三十餘人，倩我注夾其經，以清涼疏，箋於經下，兼集略解，因
成二卷。又依經旨，略解白花道場文，以助家兄崇信之誠，兼答
同學交于之意。廣施法財，上資玄福於一人，下施法流於九類
云耳。

致和元年戊辰十月，在海印山寺集解。後學沙彌木庵體元誌。

覺華寺住持 比丘性之 校勘。

元統二年甲戌七月日，雞林府開板。

同願刻手僧甫□。

色記官崔汴。

別色前副戶長李奇。

同願秀才金神器書。

同願東泉社道人善珣。

雞林府權知尹承奉郎都官佐郎知蔚州事兼勸農使盧□□。

155) 계림부권지윤(雞林府權知尹): 직책 이름. 경주부의 책임자는 경윤. 권지(權知)는 관직을 임시로 맡을 때 관직 앞에 붙이는 명칭. 고려시대에는 과거 급제자를 관청에 보낼 때 일단 권지로 임용한 뒤 얼마 후에 실직(實職)을 주었고, 현재 관직을 가진 자가 다른 직책을 임시로 맡을 때도 붙였다.



索引 찾아보기



- 가상사(嘉祥寺) 340, 412
 가섭마등(迦葉摩騰) 389
 가실쌍민(假實雙泯) 231
 가실합변(假實合辨) 231
 가원(佳苑) 80
 가의(賈誼) 357
 가피(加被) 318, 522
 가행위(加行位) 242
 각수(刻手) 466
 각엄(覺嚴)대사 424
 각유심현(各唯心現) 185
 각화사(覺華寺) 466, 531
 간정기(刊定記) 76
 감인지(堪忍地) 60
 감사(岬寺) 26
 강당격몽집(講堂擊蒙集) 333
 강주(講主) 322, 417
 개원(開元) 277
 개원보(開元寶) 129
 개원석교록(開元釋教錄) 277, 385
 개원통보(開元通寶) 362
 개종결의(開宗決疑) 27
 개종기(開宗記) 397
 건나표하일승수행자비밀의기(健拏標訶
 一乘修行者秘密義記) 28
 걸림 없는 힘[無礙力] 249
 계송 45
 견등(見登) 28
 견혜(堅慧) 233
 견훤 30
 결사(結社)운동 29
 결언(決言) 29
 경(經) 395
 경권(經卷) 316
 경덕국사(景德國師)
 경덕왕 27
 경문왕 29
 경복사(景福寺) 432
 경부(經部) 59
 경왕(景王) 355
 경죄(黥罪) 357
 경진년 459
 경흥(憬興) 340
 계도(契刀) 369
 계림(鷄林) 407
 계림부(雞林府) 531
 계명(戒名) 525
 계정도 507
 계족도(戒足道) 511
 계주(髻珠) 307
 계환(戒環) 506
 고(苦) 126
 고대산(孤大山) 432
 고산(孤山) 299, 333
 고소(姑蘇) 344
 고승전 451
 고제(高帝) 375
 고조(高祖) 361, 371, 376
 고종(高宗) 472
 곡량씨(穀梁氏) 397
 공(空) 126
 공경하는 의식[敬儀] 480

공덕림보살(功德林菩薩) 95
 공론(公論) 407
 공목장(孔目章) 473
 공문(空門) 298
 공민왕 441
 공손술(公孫述) 371
 공양 30
 공양씨(公羊氏) 397
 공양원(供養願) 467, 527
 공업(功業) 325
 공용(功用) 247
 공의 이치의 뜻[空理義] 187
 공자(孔子) 306, 374
 과덕(果德) 94
 과덕원극(果德圓極) 185
 과문(科文) 330, 337, 346
 과법(果法) 166
 과보(果報) 90
 과분(果分) 140, 166, 410, 519, 526
 과위(果位) 59, 308
 과해인(果海印) 501
 관(觀) 417, 480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 466, 491
 관문(關門) 322
 관법 32
 관세음(觀世音) 483, 505
 관소연론석(觀所緣論釋) 189
 관음(觀音) 472
 관음굴(觀音窟) 474
 관음대성(觀音大聖) 483
 관음신앙 465, 477
 관자재보살(觀自在菩薩) 472, 476
 관중(關中) 281
 관행(觀行) 299
 관혜(觀惠) 30
 광명각품(光明覺品) 92
 광무제(光武帝) 359
 광협무애문(廣狹無礙門) 160
 광협자재무애문(廣狹自在無礙門) 157
 괴상(壞相) 107, 121
 교관(敎觀) 344, 413, 417
 교관겸수(敎觀兼修) 259, 417
 교도(敎道) 238
 교문(敎門) 324
 교법 183, 446
 교분(敎分) 526
 교분기(敎分記) 29
 교분기원통초(敎分記圓通鈔) 30
 교의분제장과문(敎義分齊章科文) 331
 교장(敎藏) 258
 교종 436
 교집(敎集) 208
 교판 27
 교판론 31
 교판설 21
 교학(敎學) 298
 교학과 관법[敎觀] 273
 교화 450, 474
 구나말다라 350
 구래불(舊來佛) 28
 구래성불(舊來成佛) 25
 구래성불설(舊來成佛說) 22
 구마라집(鳩摩羅什) 281
 구사론(俱舍論) 288

구사론소(俱舍論疏) 311
 구성불(舊成佛) 28
 구세(九世) 85
 구순(九旬)의 설법 406
 구족계(具足戒) 441
 국신사(國神寺) 26
 국청사(國淸寺) 259, 297, 298, 459
 궁(宮) 318
 권교(權敎) 290, 307, 414
 권교대승(權敎大乘) 199
 권교소승(權敎小乘) 198
 권속(眷屬) 88, 181
 귀명(歸命) 334, 382
 귀명계(歸命偈) 287
 귀명정례(歸命頂禮) 530
 규기(窺基) 188
 규봉종밀(圭峰宗密) 305, 307, 422
 규산(圭山) 416
 균여(均如) 25, 30, 132, 330, 331, 415, 416, 497
 극과회심(極果迴心) 24
 극미(極微) 194
 근기(根機) 86
 근기론 32
 근본지(根本智) 82
 근신(根身) 487
 금강경소 454
 금강보지(金剛寶地) 518
 금강삼매경론 296
 금강위산(金剛圍山) 172
 금강장보살 288
 금비(金碑) 334

금사자장(金師子章) 473
 금산사(金山寺) 440
 금형초(金衡鈔) 337
 금고독원(給孤獨園) 99
 기계(器界) 487
 기다공덕삼매상(起多功德三昧相) 481
 기바(耆婆) 222
 기세간(器世間) 172, 495
 기신론동이략집(起信論同異略集) 28
 기신론소 296
 기신론연오초(起信論演奧) 346
 기신론의기(起信論義記) 76, 484
 기예 456
 기환림 99
 길상사(吉祥寺) 440
 길장(吉藏) 190, 191, 340, 412
 김덕균(金德均) 323
 김부식(金富軾) 439
 김신기(金神器) 532
 깨닫는 경지[解境] 160

나유타(那由他) 491
 낙산(洛山) 474
 낙양(洛陽) 370
 낙진(樂眞)대사 258, 441, 450
 난사해탈(難思解脫) 185
 난승지(難勝地) 239
 난원(爛圓) 257
 날란다 444

남산종(南山宗) 311, 396
 남산초(南山鈔) 420
 내세(來世) 339
 내심으로 증득[內證] 243
 널리 포섭하는 문[普攝門] 215
 네 가지 과위[四果] 309
 네 가지 선[四禪] 380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四聖諦] 380
 노사나불(盧舍那佛) 85, 105, 413
 노사나불품(盧舍那佛品) 91
 노자(老子) 380
 논주(論主) 123
 뇌진음성(雷震音聲) 61
 능법사(懷法師) 108
 능가경(楞伽經) 227, 349
 능엄경 63, 393, 467
 능엄경요해(楞嚴經要解) 506
 능엄대사탑기(楞嚴大師塔記) 337
 능인(能人) 24
 능입(能入)법계 200
 능적(能寂) 315

다즉일(多卽一) 141
 단(斷) 117
 단견(斷見) 65, 67
 단혹(斷惑) 21
 담진(曇眞) 대사 318
 당 129
 대각국사문집 257, 260
 대경(對境) 169
 대공(大空) 254
 대기(大記) 25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 390
 대덕(大德) 436
 대무량수경 349
 대무생인(大無生忍) 524, 526
 대반야경 146
 대반열반경의기(大般涅槃經義記) 126, 396
 대방광불화엄경 68
 대방광불화엄경소 102
 대방광불화엄경수현분제통지방궤(大方廣佛華嚴經搜玄分齊通智方軌) 159
 대방광원각경참의(大方廣圓覺懺儀) 331
 대법계연집(大法界緣集) 208
 대법신(大法身) 250, 255
 대부사의론(大不思議論) 347
 대부율승(大部律乘) 349
 대불정수능엄참의(大佛頂首楞嚴懺儀) 331
 대비심다라니(大悲心陀羅尼) 508
 대비주 508
 대비행(大悲行) 479
 대선(大選) 436
 대성(大聖) 500

ㄷ

다덕(多德) 107
 다라니(陀羅尼) 45, 51, 88
 다문견고(多聞堅固) 414
 다섯 가지 계 380
 다섯 가지 참회 330
 다식(茶食) 409
 다중일(多中一) 141

- 대소무정(大少無定) 185
 대수석(帶數釋) 80
 대승(大乘) 208, 329
 대승광명삼매(大乘光明三昧) 242
 대승광백론석론(大乘廣百論釋論) 189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 46, 212, 285, 388, 435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 81
 대승밀교경소(大乘密教經疏) 81
 대승시교(大乘始敎) 226, 259, 286
 대승의장(大乘義章) 76, 126
 대승입능가경(大乘入楞伽經) 473
 대승장엄경(大乘莊嚴經) 388
 대승종교(大乘終敎) 259
 대승통(大僧統) 364
 대연기다라니법(大緣起陀羅尼法) 130
 대연법계(對緣法界) 201
 대운(大雲)선사 307
 대원(大願) 494
 대원경지(大圓鏡智) 480, 483, 500
 대위광동자(大威光童子) 90, 179
 대일본속장경 46
 대자비 514
 대주(大周) 475
 대중도량(大衆道場) 478
 대지도론(大智度論) 210
 대집경(大集經) 497
 대치(對治) 210
 대품반야경(大品般若經) 213
 대현(大賢) 339
 대흥선사(大興善寺) 396
 더러움을 떠나는 문[離垢門] 210
 덕상(德相) 157
 덕종(德宗) 438
 도(刀) 366
 도량(道場) 478
 도량수증의(道場修證儀) 309
 도륜(道倫) 43
 도륜(刀輪)지옥 512
 도리천(忉利天) 93, 103
 도린(道隣) 258
 도생(道生)승통 440
 도선(道宣) 178, 275, 421
 도솔천(兜率天) 95, 409, 458, 459
 도솔천자(兜率天子) 166
 도신(道身) 24
 도신장(道身章) 24
 도안(道安) 275, 459
 도용(道融) 24
 도인(圖印) 28, 44
 도제(道諦) 222
 도증(道證) 340
 도행반야경 321
 돈교(頓敎) 23, 226, 259, 289, 307, 493, 494
 돈오(頓悟) 290
 돈원일승론(頓圓一乘論) 31
 돈점입법계법문(頓漸入法界法門) 99
 동교(同敎) 224
 동교론(同敎論) 32
 동군(東君) 445
 동림사(東林寺) 325
 동마(銅馬) 370
 동방(東方) 399
 동사섭(同事攝, samānārthatā-samgraha) 63

동상(同相) 107, 117, 194, 251
 동시구족상응문(同時具足相應門) 157
 동안사(東安寺) 321
 동인(銅人) 370
 동천사(東泉寺) 465
 동천사(東泉社) 532
 동체(同體) 131
 동체일문(同體一門) 163
 동탁(董卓) 370
 동탑종(東塔宗) 397
 두순(杜順)존자 268, 411
 듣고 생각하고 수행하는[聞思修] 242
 등각(等覺) 62, 63, 64, 221, 409, 485
 등지(等持) 505, 517
 따로 모습을 관함[觀相] 480
 따르는 식구[眷屬] 175

망진환원관소초보해(妄盡還源觀疏鈔補解) 331
 맹가(孟軻) 397
 맹자(孟子) 375
 멸정(滅定) 59
 멸진정(滅盡定) 59
 명득정(明得定) 242
 명진(明臣) 275
 명제(明帝) 360
 명효(明暉) 28, 43
 목련(目連)존자 302
 묘각(妙覺) 62, 63, 64, 423
 묘각지(妙覺地) 221
 묘관찰지(妙觀察智) 481
 묘리 456
 묘리원성관(妙理圓成觀) 518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69, 295
 묘현(妙玄) 460
 무견(無見) 66
 무기법진여(無記法眞如) 212
 무량겁 21
 무량수경 59, 483
 무량수경의소(無量壽經義疏) 126
 무력(無力) 131
 무루(無漏) 483
 무명(無明) 213
 무변행(無邊行) 69
 무분별법 204
 무분별지(無分別智) 222
 무상(無相) 124, 205, 247
 무상(無常) 126
 무상무분별(無相無分別) 497

마가다국 89, 101
 마니보주(摩尼寶珠) 244
 마명(馬鳴) 388, 455
 마원(馬援) 359, 377
 마음의 작용[心識] 172
 만법(萬法) 109, 446
 만행(萬行) 380
 말법(末法) 267, 399, 414
 망상(妄相) 244, 482
 망연(忘緣) 202
 망연법계(忘緣法界) 201
 망진환원관(妄盡還源觀) 489

口

무상성(無常性) 220
 무생계(無生戒) 525
 무생법인(無生法忍) 60, 176, 466
 무생인 525, 526
 무성천제(無性闡提) 227
 무소유처(無所有處) 59
 무아(無我) 126
 무아관(無我觀) 223
 무아지(無我地) 241
 무애(無礙) 152
 무애법계(無礙法界) 146
 무위(無爲) 148, 199, 211, 422, 507, 512
 무위계(無爲界) 212
 무위법(無爲法) 206
 무위법계(無爲法界) 200, 210
 무위성(無爲性) 214
 무위연기(無爲緣起) 150
 무위연집(無爲緣集) 206
 무위연집법계(無爲緣集法界) 205
 무이념삼매상(無二念三昧相) 481
 무자성(無自性) 148
 무장무애 23
 무장애법계(無障礙法界) 200, 216, 496
 무제(武帝) 358
 무중성(無種性) 226
 무주(無住) 25, 137
 무주실상(無住實相) 497
 무진(無盡) 136
 무진교법(無盡教法) 236
 무진연기(無盡緣起) 108
 무진중중(無盡重重) 144
 무착(無着) 388

무체(無體) 131
 무측천(武則天) 475
 무한인생(無限因生) 185
 문(文) 479
 문사(文思) 316
 문수(文殊)보살 416, 438, 525
 문수사리(文殊師利) 91
 문수장(文殊章) 308
 문의강목 76
 문제(文帝) 357
 문종(文宗) 257, 398, 431
 문회(文會) 457
 미륵신앙 440
 미리사(美理寺) 26
 미세문(微細門) 163, 175
 미세상용문(微細相容門) 170
 미세상용안립문(微細相容安立門) 158
 미진(微塵) 20
 미진수(微塵數) 90
 미타내영설(彌陀來迎說) 529

ㄴ

바람이 같음[願同] 524
 반룡사(盤龍寺) 465
 반룡산(盤龍山) 449
 반야(般若) 399, 510
 반야경 465
 반야대정사(般若臺精舍) 325
 반야선 507
 반야종(般若宗) 308

반정(返情) 24
발광지(發光地) 239
발보리심의(發菩提心義) 75
발진초(發眞鈔) 421
방장(方丈) 194
방편(方便) 24, 59, 238, 509
방편과(方便果) 238
배(裵)상공 457
백고좌대회(百高座大會) 272
백련결사 461
백련사(白蓮社) 325
백론(百論) 282
백본(百本) 406
백천집 167
백호상(白毫相) 491
백화도량발원문(白花道場發願文) 472
백화산(白花山) 518
번뇌 70
번뇌 없는 지혜[無漏智] 61
번뇌에 매여 있는 진여[在纏眞如] 486
번뇌장(煩惱障) 60
범망경(梵網經) 301, 393
범망경소(梵網經疏) 81
범부 329
범수(梵修) 27
범어사(梵魚寺) 26
범여(梵如) 27
범운(梵雲) 415
범천 498
범체(梵體) 24
법경론(法鏡論) 76, 204
법계(法界) 80, 156, 212, 268, 411, 446
법계가(法界家) 136
법계관문(法界觀門) 269, 411
법계도(法界圖) 473
법계도기 30
법계도기총수록(法界圖記叢髓錄) 25
법계도원통기(法界圖圓通記) 30
법계론 23
법계무장애(法界無障礙) 208
법계무진연기(法界無盡緣起) 108
법계연기(法界緣起) 20, 21, 104, 108, 150, 259
법계연집(法界緣集) 208
법계의 집[法界家] 164
법계의(法界義) 75
법계지(法界智) 69
법계체성경(法界體性經) 525
법계해탈(法界解脫) 208
법계현경(法界玄鏡) 413
법고경(法鼓經) 227
법공(法空) 199, 308
법공문(法空門) 197
법기(法記) 25
법무아지(法無我智) 253
법상(法上) 207
법상중 440
법성(法性) 114, 173, 488
법성관 22
법성사(法性寺) 261
법성신 507, 510
법성융통(法性融通) 185
법성종(法性宗) 286, 308
법수(法數) 206

법수사(法水寺) 465
 법신(法身) 80, 308
 법왕사(法王寺) 442
 법운지(法雲地) 239
 법융(法融) 24, 26
 법의 현상[法相] 67
 법장(法藏) 23, 76, 81, 130, 159, 412, 484
 법좌(法座) 343
 법주사(法住寺) 440
 법처(法處) 211
 법체(法體) 186, 336
 법해(法海) 27
 법혜(法慧) 180
 법혜보살(法慧菩薩) 93
 법화경소(法華經疏) 126, 396
 법화삼매 330
 법화종요(法華宗要) 76, 296
 법화현찬(法華玄贊) 458
 법화회상 307
 벽지불 226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 189
 변화관음 477
 별교(別敎) 224
 별교일승절대론(別敎一乘絶對論) 31
 별상(別相) 22, 107, 115, 164, 216
 별체(別體) 254
 별행소 469
 보광명전(普光明殿) 84
 보광사(普光寺) 26
 보달락가(補怛洛迦) 467, 477
 보덕(普德) 432
 보리달마 350
 보리도 522
 보리도량(菩提道場) 89
 보리심(菩提心) 70, 505, 525
 보리연화좌 173
 보리유지(菩提流支) 350
 보림사 27
 보법(普法) 23, 27, 130, 184, 414, 497
 보법의(普法義) 75
 보살대계(菩薩大戒) 301
 보살도 469
 보살무량방편삼매(菩薩無量方便三昧) 93
 보살문명품(菩薩問明品) 92
 보살선사유삼매(菩薩善思惟三昧) 95
 보살승(菩薩乘) 82, 83, 380
 보살영락본업경 510
 보살지광삼매(菩薩智光三昧) 95
 보살지지경 241
 보생식지(報生識知) 251
 보시섭(布施攝, dāna-samgraha) 63
 보신(報身) 308
 보안경(普眼經) 87
 보원사(普願寺) 26
 보응(普應)대사 531
 보장(報障) 60
 보장엄동자(普莊嚴童子) 166
 보장엄전(寶莊嚴殿) 94
 보장왕(寶藏王) 433
 보처(補處)보살 409
 보타락가산(普陀洛迦山, Potalaka) 474, 477
 보토(報土) 82
 보행(報行) 248

보현(普賢) 224
 보현경계의 136
 보현법(普賢法) 111
 보현보살 267, 410
 보현삼매품(普賢三昧品) 91
 보현십원가(普賢十願歌) 31
 보현행(普賢行) 31, 173, 423
 보현행원(普賢行願) 497
 복당(福唐) 451
 복덕 524
 본각(本覺) 484, 496, 500, 525
 본강(本講) 339, 343
 본래의 조건법[本緣法] 118
 본사(本師) 483
 본성이 청정한 문[性淨門] 210
 본소(本疏) 460
 본식(本識) 209
 본영상대(本影相對) 233
 본유(本有) 97
 본유인과(本有因果) 98
 본전(本傳) 475
 봉선사(奉先寺) 441, 446
 부동(不動) 212
 부동지(不動地) 239, 248
 부석(浮石)존자 271
 부석사(浮石寺) 26
 부선법진여(不善法眞如) 212
 부정종성(不定種性) 226
 북위(北魏) 178
 분가이실(分假異實) 231
 분교의(分教義) 75
 분별변계(分別遍計) 497

분심 317
 분황사(芬皇寺) 407
 불공견삭다라니경(不空羼索陀羅尼經) 43
 불과(佛果) 70, 71, 496
 불국(佛國) 59
 불국토 105
 불룡산(佛隴山) 297, 299
 불리원(不離願) 527
 불망번뇌(不忘煩惱) 243, 244
 불무(不無) 110
 불변진여(不變眞如) 199
 불성(佛性) 70, 488
 불성론(佛性論) 220
 불신(佛身) 85, 308
 불유(不有) 110
 불일사(佛日寺) 257
 불자생(不自生) 110
 불종(佛種) 70
 불지(佛智) 61
 불지(佛地) 63, 239
 불찰(佛刹) 59
 불타생(不他生) 110
 불화장엄삼매(佛華莊嚴三昧) 98
 비(悲) 514
 비구니계본(比丘尼戒本) 349
 비림(飛廉) 370
 비로자나불 267, 410
 비로자나품(毗盧遮那品) 91
 비마라사(毘摩羅寺) 26
 비본비영(非本非影) 233
 비산계주(飛山戒珠) 451
 비슬저라거사(毗瑟底羅居士) 511

비유위비무위법계(非有爲非無爲法界)
200, 213

비천(非天) 513

비택멸(非擇滅) 212

빈도(貧道) 298

사(事) 474

사교관 23

4구 110

사대(四大) 81

사마(四魔) 400

사문(沙門) 279

사바세계 100, 519

사법(事法) 199, 487

사분비구계본소(四分比丘戒本疏) 311

사분율 420

사사무애(事事無礙) 157

사사무애법계(事事無礙法界) 200

사생(四生) 399

4선근 63

사섭법(四攝法) 63, 65

사성(四聖) 485

사성제(四聖諦) 82

사성제품(四聖諦品) 92

40무애변(無礙辯) 249

40심위(心位) 62

48경계(輕戒) 302

사악도 512

사연기(事緣起) 149

사용상섭문(事融相攝門) 230

사의(四依)보살 329, 390

사익경(思益經) 227

사자분신삼매(師子奮迅三昧) 99

사자후 298

사제(四諦) 109

사진(四塵) 81

사천하미진수(四天下微塵數) 87

사홍서원(四弘誓願) 507, 509

삼각산(三角山) 438, 447

삼계(三界) 399

삼관(三觀) 412, 413

삼관오교(三觀五教) 259

삼교 30

삼교화합 453

삼국사(三國史) 433

삼독(三毒) 59

삼라만상 445, 495

3류(三類) 386

삼마지(三摩地) 505, 516

삼매(三昧) 51, 505, 517

삼매대용(三昧大用) 185

삼매상(三昧相) 481

삼보(三寶) 45, 272, 302, 530

삼보장(三寶章) 76, 346

삼보장원통기(三寶章圓通記) 30

삼부(三府) 359

삼상(三相) 157

삼생(三生) 166

삼선도(三善道) 68

삼세(三世) 83

삼세간 495



삼세제불 45
삼세지(三世智) 69
삼승 유가교 28
삼승(三乘) 21, 82, 83, 167, 380, 493
3시(三時) 396
30심 63
32업(業) 498
32응신 467, 514
삼십팔분공덕소경(三十八分功德疏經)
469
3아승기집 223
삼악도(三惡道) 68, 172, 522
삼업(三業) 91
삼왕(三王) 365
삼장의 정문(正文) 379
삼존(三尊) 316
삼중(三重) 417
삼중관문(三重觀門) 417
삼중십문(三重十門) 411
삼처회향(三處迴向) 530
3천대천세계 520
삼취정계(三聚淨戒) 511
삼현(三賢) 63
삼회(三會) 459
상(常) 117
상(商) 318
상(相) 407
상견(常見) 65, 67
상근기 493
상대(相大) 490
상법(像法) 267, 315, 392, 399, 414
상부종(相部宗) 311

상성(常性) 220
상속해탈경(相續解脫經) 251
상수멸(想受滅) 212
상시(相是) 184, 236
상온(想蘊) 211
상원(常元) 24
상위석(相違釋) 80
상용(相融) 148
상입(相入) 131, 178, 184, 194
상입상즉(相入相即) 20, 21
상재(相在) 236
상종(相宗) 285
상즉(相即) 131, 162, 178
상즉상용(相即相融) 22
색(色) 211
색음(色陰) 126
색진(色塵) 169
생공(生空) 199
생멸문 493
생사즉열반 46
서광사(棲光寺) 321
서다림(逝多林) 99
서도강(徐都綱) 336
서명(西明)대사 287
서사(書寫) 466
서원(誓願) 298, 413, 516
서장(書狀) 339
서태원사(西太原寺) 311
석명(釋名) 27
석의초(釋義抄) 305
선관(禪觀) 447
선도(善道) 424, 522

선방편 507
 선법진여(善法眞如) 212
 선복송(漩復頌) 412
 선봉사(僊鳳寺) 259
 선순(善珣) 466, 532
 선약(仙藥) 391
 선원제진집(禪源諸詮集) 305
 선재(善財)동자 166, 315, 416, 477
 선정 445
 선정견고(禪定堅固) 414
 선정겸수(禪淨兼修) 342
 선종(宣宗) 213, 257, 260, 436
 선종해방서(禪宗解謗書) 349
 선지식(善知識) 45, 60, 298, 315, 417, 504
 선혜지(善慧地) 239
 설경불의(說經佛義) 75
 설경시의(說經時義) 75
 설법도량 518
 설주(說主) 308
 설총(薛聰) 407
 섭가의실(攝假依實) 231
 섭대승론 209, 214, 510
 섭대승론석 467
 섭도진(聶道眞) 275
 섭법신원(攝法身願) 528
 섭입(攝入) 169
 섭중생원(攝衆生願) 528
 성(性) 407
 성기 30
 성기(性起)사상 22
 성덕(性德) 220, 417
 성문(聲聞) 67

성문승(聲聞乘) 82, 83, 380
 성불 330, 409
 성불의(成佛義) 28
 성상(成相) 107, 119
 성상융회(性相融會) 31
 성소작지(成所作智) 481
 성숙중생원(成熟衆生願) 527
 성유식론(成唯識論) 189, 283, 285
 성유식보생론(成唯識寶生論) 189
 성정(性淨) 238
 성정각원(成正覺願) 527
 성정과(性淨果) 238
 성종(性宗) 285
 성종성(性種性) 220
 성지(聖地) 241
 성지(性之) 531
 성해과분(性海果分) 224
 세간법(世間法) 52
 세간정안품(世間淨眼品) 91
 세간지 67
 세계성취품(世界成就品) 91
 세세생생(世世生生) 70
 세속제(世俗諦) 109, 188
 세시(世時) 474
 세어 내려옴[向下來] 133
 세어 올라감[向上去] 133
 세자재왕여래(世自在王如來) 528
 세제(世諦) 109
 세주묘엄품(世主妙嚴品) 90
 세친 507
 소(疏) 390, 395
 소경사(昭慶寺) 438, 439

소년서성(少年書省) 27
 소백화수(小白花樹) 467
 소성왕 27
 소승(小乘) 81, 259, 493
 소승교(小乘敎) 226
 소식(蘇軾) 342
 소아미타경 349
 소연(所緣) 487
 소초(疏鈔) 273
 소하(蕭何) 375
 속리사(俗離寺) 440
 속제(俗諦) 109, 148
 속화엄경약소간정기(續華嚴經略疏刊定記) 106
 손권(孫權) 371
 송현책수(宋賢策粹) 373
 수개(壽介) 257
 수경(手鏡) 332
 수나라 126
 수당(隋唐) 281
 수도론 21
 수라(修羅) 513
 수미산 187, 194, 298, 496
 수보리 197
 수생(修生) 97
 수소연의초(隨疏演義鈔) 383
 수십전설 21
 수십전유(數十錢喻) 23, 27
 수십전유의(數十錢喻義) 75
 수온(受蘊) 211
 수원왕생집(隨願往生集) 349
 수월장엄(水月莊嚴) 490
 수인(修因) 330
 수주도원(遂州道圓) 305
 수지원(受持願) 527
 수행(修行) 200
 수행이리원(修行二利願) 527
 숙교(熟敎) 495
 숙업(宿業) 90
 숙종(肅宗) 258
 순옹 26
 스스로의 문[自門] 163
 습종성(習種性) 220
 승(乘) 217
 승계(僧階) 436
 승만경의기(勝鬘經義記) 126
 승사원(承事願) 527
 승속(僧俗) 298
 승의제(勝義諦) 148, 188
 승전(勝詮) 26
 승진분(勝進分) 94
 승통(僧統) 257, 440
 승통자재(勝通自在) 185
 승풍 420
 승호(僧護, Samgharaksita) 188
 승훈(僧訓) 29
 시각(始覺) 484, 525
 시경(詩經) 374
 시교(始敎) 484, 525
 十方(十方) 20, 86
 十方세계(十方世界) 88, 106
 시불(十佛) 85
 시의(時宜) 324
 시자(侍者) 409

식(識) 82, 186, 189
 신림(神琳) 24, 26
 신소(新疏) 10권 346
 신수(神秀) 309, 412, 518
 신수(神秀)계[北漸] 290
 신웅(神雄) 340
 신이(神異) 474
 신조(神照) 305
 신주법화경(新注法華經) 337
 신주정원화엄경(新注貞元花嚴經) 336
 신중 29
 신중경(神衆經) 29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教藏總錄)
 43, 258, 475
 실교(實敎) 290
 실교대승(實敎大乘) 199
 실라벌국(室羅筏國) 99
 실성(實性) 22
 실제공덕장(失諸功德障) 481
 실제의(實際義) 75
 실제회향(實際廻向) 530
 실차난타 350
 실천의 경지[行境] 160
 실천행 31
 심법(心法) 199
 심불상응법(心不相應法) 199
 심불상응행법(心不相應行法) 59
 심상(審詳) 26
 심생멸문(心生滅門) 486
 심성본정(心性本淨) 488
 심식설(心識說) 21
 심인(心印) 334
 심진여문(心眞如門) 486
 십구의(十句義) 125
 십구장(十句章) 494
 십구장원통기(十句章圓通記) 30
 십념염불설(十念念佛說) 529
 십륙관경 349
 십문(十門) 183, 413
 십문현(十門玄) 21
 십문화쟁론 296
 십바라밀 65, 252
 10불(十不) 110
 14무의(無畏) 467, 514
 십상(十相) 253
 십선(十善) 63, 309
 십성(十聖) 63
 십성계(十性戒) 511
 십세(十世) 85, 177, 178
 십세격법문(十世隔法門) 177
 십세격법이성문(十世隔法異成門) 158
 십신(十信) 63, 92, 228
 10신심(信心) 63
 10신위 63, 241
 10심주(心住) 63
 10연화장 520
 십원(十願) 508, 509
 십원육향(十願六向) 467, 506, 527
 16대비(大悲) 498
 십이문론(十二門論) 282
 12인연 380
 십정(十定) 97
 십종원(十種願) 467, 527
 십주(十住) 103, 180

십주경(十住經) 181
 10주위 63
 십주의(十住義) 76
 십주품 186
 10중(十重) 386
 십중계(十重戒) 302, 511
 십중일(十中一) 133
 십즉일(十卽一) 138
 십지(十地) 61, 62, 63, 64, 411
 십지경론(十地經論) 153, 164, 166, 231, 238, 507, 524
 십지경론의기(十地經論義記) 76, 126, 207
 십지론의소(十地論義疏) 207
 십지보살 303
 10지심(地心) 63
 10지위 63
 십지의(十地義) 76
 십지품(十地品) 61
 18과 76
 십해(十解) 63
 십행(十行) 63, 103, 181, 252
 10행심(行心) 63
 10행위 63
 십행의(十行義) 76
 십현(十玄) 31, 269, 413
 십현문(十玄門) 104, 159
 십현연기(十玄緣起) 108, 473
 십현육상론(十玄六相論) 21
 십회향(十迴向) 64, 96
 10회향심(迴向心) 63
 10회향위 63
 십회향의(十迴向義) 76

아공(我空) 199, 308
 아귀(餓鬼) 513
 아난(阿難)존자 492
 아라한과만 226
 아뢰야식(阿賴耶識) 82, 483
 아뢰야장식(阿賴耶藏識) 487
 아마라식(阿摩羅識) 484
 아마룩과(阿摩勒果) 228
 아만(我慢) 60, 68
 아미산 270
 아미타경소(阿彌陀經疏) 296
 아미타불의 48대원 528
 아사리(阿闍梨) 317
 아수라(阿修羅) 55, 497
 아유다(阿由多) 491
 아집(我執) 224
 악도(惡道) 422, 424
 악업(惡業) 60
 안거(安居) 309
 안국(安國)대사 396
 안근(眼根) 169
 안륜(安憫) 27, 76, 108
 안립제(安立諦) 214
 안세고(安世高) 325
 안식(眼識) 169
 안제(安帝) 359
 안현(顔顯) 342
 애어섭(愛語攝, priya-vāḍita-samgraha) 63
 아마천 103
 아마천궁(夜摩天宮) 94, 145

약사여래(藥師如來)의 12대원 528
 양(梁)나라 371
 양무제(梁武帝) 108
 양웅(楊雄) 397
 양원(良圓) 24
 양절(兩浙) 317
 어리석은 범부[毛道] 103
 어사대(御史臺) 378
 언설[名味句] 180
 언전변체문(言詮辨體門) 230
 엄마륵과(掩摩勒菓) 228
 업용(業用) 157
 업장(業障) 45, 60
 업중(鄴中) 372
 여덟 가지 정[八定] 380
 여래 524
 여래명호품(如來名號品) 92
 여래장(如來藏) 234, 308, 525
 여래장경(如來藏經) 484
 여래장사상 77, 349
 여래장심(如來藏心) 158, 484, 488
 여래장진여(如來藏眞如) 83
 여래현상품(如來現相品) 91
 여량경(如量境) 173
 여량지(如量智) 53
 여리지(如理智) 53, 173
 여산 18현 461
 여산(廬山) 325, 452, 461
 여여(如如) 109, 203
 여여(如如) 법계 27
 여여의(如如義) 75
 여환부실(如幻不實) 185

역유위역무위법계(亦有爲亦無爲法界)
 211
 연각(緣覺) 67
 연각승(緣覺乘) 82, 83, 380
 연기(緣起) 27, 109, 114, 148
 연기가 원융함[緣起圓融] 110
 연기(緣起) 대사 435
 연기계 30
 연기법(緣起法) 82
 연기법계(緣起法界) 201, 204
 연기상유(緣起相由) 185
 연기실상다라니법(緣起實相陀羅尼法)
 130
 연기유심문(緣起唯心門) 230, 232
 연기의(緣起義) 75
 연기인분(緣起因分) 224
 연법계(緣法界) 205
 연복사(延福寺) 449
 연집(緣集) 109, 126, 148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 267, 518, 519
 연화장장엄세계해(蓮華藏莊嚴世界海) 89
 열 가지 선행[十善] 380
 열반(涅槃) 56, 511
 염부제 498
 염불결사 453
 염정(染淨) 484
 염혜지(焰慧地) 239
 영가사(靈嘉寺) 321
 영관(靈觀) 27
 영단(靈丹) 391
 영락경 63
 영명사(永明寺) 448

영윤(靈潤) 415
 영취산(靈鷲山) 407
 영통사(靈通寺) 257, 259
 영평(永平) 274
 예(叡) 법사 340
 예종(睿宗) 457
 예토 100
 오교(五敎) 269
 5교(五敎) 396, 413
 오교장(五敎章) 76, 487, 496
 5교관 28
 오대산 270, 438
 오대승천(五臺承遷) 284
 오명처(五明處) 245
 오수전 373
 5승(五乘) 380, 386
 오시(五時) 301
 오시팔교(五時八敎) 382
 오십요문답(五十要問答) 473
 52위 수행인 62
 57위 63
 오위(五位) 228
 오음(五陰) 123, 391
 오중계(五重戒) 309
 오중해인(五重海印) 496
 오진(悟眞) 24
 오척(五尺) 25
 오탁악세(五濁惡世) 415
 오해인(五海印) 25
 오형(五刑) 301
 옥좌(玉座) 324
 옥진(玉塵) 334

옥천사(玉泉寺) 26
 왕건 30
 왕망(王莽) 369
 요진(姚秦) 281
 용군(龍軍) 233
 용궁(龍宮) 267, 391
 용두사(龍頭寺) 409
 용상(龍象) 330
 용수(龍樹) 233, 295, 388, 455
 용화수(龍華樹) 459
 용화회상(龍華會上) 391
 우란분경(盂蘭盆經) 300, 302, 303
 우란분경소(盂蘭盆經疏) 305
 우란분예찬문(盂蘭盆禮贊文) 331
 우상(祐翔) 283
 원(願) 479
 원(圓) 517
 원각경(圓覺經) 306
 원각경과문(圓覺經科文) 305
 원각경대소(圓覺經大疏) 305
 원광(圓光) 316, 491
 원교(圓敎) 31, 54, 178, 226, 259, 307, 322, 329, 485
 원교국사(圓敎國師) 475
 원돈(圓頓) 271, 423, 425
 원돈교 415
 원동본사(願同本師) 467
 원만(圓滿) 200
 원만하고 위없는 바른 깨달음[圓滿無上正等菩提] 224
 원생정토(願生淨土) 467
 원성실성(圓成實性) 189, 495

원성왕 27, 29
 원소(圓炤)스님 385
 원융(圓融) 289, 445
 원융한 문[圓融門] 216
 원인론(原人論) 305
 원인론발미록(原人論發微錄) 331
 원인의 지위[因位] 166
 원적(圓寂) 511
 원조삼매(圓照三昧) 516
 원종(圓宗) 344, 394
 원종문류(圓宗文類) 267
 원측(圓測) 340
 원통(圓通) 516
 원통삼매(圓通三昧) 467
 원행지(遠行地) 239, 247
 원효(元曉) 23, 76, 130, 340, 350
 위(位) 474
 위록(魏錄) 277
 위요(韋曜) 355
 위의 420
 위치(位地) 227
 위진(魏晉) 280
 유가(瑜伽) 286, 409
 유가론(瑜伽論) 220
 유가론기(瑜伽論記) 43
 유견(有見) 65
 유교경소(遺敎經疏) 311
 유력(有力) 131
 유마경 59, 151, 191, 197
 유마경의기(維摩經義記) 126
 유방(劉邦) 376
 유본무영(唯本無影) 233

유부(有部) 59
 유비(劉備) 371
 유상(有相) 124, 247
 유성(有誠) 258
 유식설(唯識說) 82
 유식지(唯識智) 82
 유심회전선성문(唯心迴轉善成門) 181
 유엄(有嚴)선사 350
 유영무본(唯影無本) 233
 유위(有爲) 148
 유위계(有爲界) 212
 유위무위법계(有爲無爲法界) 200
 유위법(有爲法) 206
 유위법계(有爲法界) 200, 209
 유위성(有爲性) 214
 유위연기(有爲緣起) 150
 유위연집(有爲緣集) 206
 유위연집법계(有爲緣集法界) 205
 유재석(有財釋) 80
 유정(有情) 82
 유체(有體) 131
 6결정(六決定) 251
 육경(六經) 301
 6경(境) 123, 308
 육계(肉髻) 491
 6근 123, 308
 육도 525
 육리합석(六理合釋) 80
 육바라밀(六波羅蜜) 301, 251, 380
 6바라밀법 498
 육범(六凡) 485
 육상(六相) 27, 30, 31, 164, 216

육상설 21, 23
 육상원융 22
 육상의(六相義) 75
 육시(六時) 522
 60권 화엄경 61
 육제(六題) 343
 육조(六朝) 282
 육향(六向) 512
 윤관(尹瓘) 439
 윤언(綸言) 321
 융철(融哲) 431
 은밀현료구성문(隱密顯了俱成門) 158
 은밀현료문(隱密顯了門) 169
 음계입(陰界入) 123
 응리의(應理義) 188
 응보(應報) 424
 응신(應身) 53
 응화법신(應化法身) 510
 의(義) 494
 의과(依果) 90, 91
 의관(衣冠) 365
 의보(依報) 483
 의상(義相) 20, 29, 45, 76, 130, 316, 330, 471
 의정(義淨) 389
 의주석(依主釋) 80
 의천(義天) 43, 257, 279, 315, 320, 339, 417, 475
 의타기성(依他起性) 188
 이공(二空) 308
 이구지(離垢地) 239
 이기(李奇) 532
 이무침(李無諂) 43
 이문(耳門) 516
 이법계(理法界) 199
 이변(二邊) 21
 이부시랑(吏部侍郎) 323
 이분법 32
 이사무애 159
 이사무애관(理事無碍觀) 259
 이사무애문(理事無碍門) 230
 이사무애법계(理事無碍法界) 199
 이상(異相) 107, 118, 194
 이섭(利涉)법사 350
 이수사류 373
 이숙과(異熟果) 487
 이숙보식(異熟報識) 487
 이승(二乘) 289
 이용(理用) 474
 이원적(李元積) 331, 339
 이이상즉론(理理相卽論) 21
 이익원(利益願) 527
 이자현(李資玄) 445
 이장의(二障義) 296
 이제(二帝) 365
 이제(二諦) 109
 이제현(李齊賢) 465
 이지(二智) 82
 이집(理集) 208
 이체(異體) 131
 이타(利他) 82
 이타행(利他行) 508
 이통현(李通玄) 518
 이행섭(利行攝, artha-caryā-samgraha) 63

익승(翼乘) 446
 익주남인(益州南印) 305
 인경소(印經所) 349
 인과(因果) 417, 456
 인근석(隣近釋) 80
 인다라 175
 인다라망문(因陀羅網門) 171
 인다라망법계문(因陀羅網法界門) 158
 인도 522
 인드라망 520
 인명(因明) 43
 인분(因分) 166, 410, 526
 인승(人乘) 379
 인악(仁岳) 439
 인연(因緣) 148
 인예태후(仁睿太后) 257, 297
 인왕경 63
 인왕반야(仁王般若) 272
 인왕호국반야바라밀다경(仁王護國般若
 婆羅蜜多經) 272
 인원(忍源) 531
 인인(因人) 496
 인종(仁宗)황제 338
 인지(忍地) 59
 인집(人集) 208
 인해인(因海印) 497, 501
 1겁 195
 일념 21, 167
 일다상망(一多相望) 161
 일다상용문(一多相容門) 161
 일다상용부동문(一多相容不同門) 157
 일대사(一大事) 인연 329

일법계(一法界) 216
 일상(一相) 205
 일생보처보살 409
 일승(一乘) 21, 83, 165, 493
 일승론 27
 일승법계도(一乘法界圖) 20, 25, 45, 76,
 271, 467
 일승법계도원통기(一乘法界圖圓通記) 25
 일승법문 164
 일승연기(一乘緣起) 108, 144
 일승연기법 24
 일승의(一乘義) 28, 75
 일심(一心) 186, 223
 일심법계(一心法界) 212, 496
 일엄사(日嚴寺) 340
 일중다(一中多) 141
 일중십(一中十) 133
 일즉다(一卽多) 141
 일즉십(一卽十) 137
 일진법계(一眞法界) 267
 일처(一處) 105
 일체 법계 204
 일체개공(一切皆空) 188
 일체법 162, 506
 일체법계무구장엄경(一切法界無垢莊嚴
 經) 179
 일체지(一切智) 416, 488
 일체처(一切處) 105, 114
 임(琳) 284
 입법계심(入法界心) 63
 입법계품의 53선지식 29
 있는 그대로의 모습[實相] 203

자기의 마음이 없음[無自心] 223
 자리이타(自利利他) 64
 자리이타행 240
 자리행(自利行) 508
 자민(慈愍) 348
 자법(自法) 108
 자변(慈辯)대사 384
 자분(自分) 94
 자비(慈悲) 316
 자상(自相) 194
 자성(自性) 52, 235
 자성법신(自性法身) 510
 자성신(自性身) 467
 자성정심(自性淨心) 222
 자성청정심(自性淸淨心) 488
 자신의 존재[自法] 119
 자씨(慈氏)보살 459
 자연지(自然智) 488
 자은(慈恩) 287, 396, 409
 자자(自恣) 303
 자자일(自恣日) 300
 자장(慈藏) 20, 364
 자장율사 431
 자지기(資持記) 349
 자체(自體) 131, 148
 자체연기(自體緣起) 150
 자체연집법계(自體緣集法界) 205
 잡염토(雜染土) 519, 520
 장법상(障法相) 481
 장소(章疏) 398

장안(長安) 370
 장왕(莊王) 356
 장자(長者) 307
 장자(莊子) 380
 적광정토(寂光淨土) 308
 적멸심(寂滅心) 63
 적문(迹門) 497
 전(錢) 366
 전교(傳敎) 405
 전교십찰(傳敎十刹) 26
 전당(錢塘) 384, 442
 전등(傳燈) 323
 전량(前涼) 360
 전륜성왕(轉輪聖王) 307
 전법륜원(轉法輪願) 527
 전화엄대교(傳華嚴大敎) 279
 절요(節要) 312
 점교(漸敎) 227
 정각 21
 정계(淨界) 59
 정과(正果) 90, 528
 정관(貞觀) 274
 정념[情] 157
 정명현론 190, 191
 정법 414
 정법명왕여래(正法明王如來) 497
 정보(正報) 483
 정성이승(定性二乘) 227
 정수(正受) 169, 517
 정신(淨信) 200
 정심계관법(淨心誠觀法) 421, 422
 정심지(淨心地) 241

정영사 혜원(慧遠) 76
 정영사(淨影寺) 395
 정원(淨源) 258, 283, 317, 320, 322
 정원본(貞元本) 476
 정원속개원석교록(貞元續開元釋教錄) 385
 정인(正因) 90, 91, 330
 정재(淨財) 337
 정정(正定) 505
 정중분 95
 정중신회(淨衆神會) 305
 정진립보살(精進林菩薩) 145
 정집견(定執見) 110
 정토(淨土) 30, 59, 100, 308
 정토문자(淨土文字) 349
 정토원(淨土願) 527
 정토종 213
 정토집(淨土集) 348
 정해(正解) 200
 정행(正行) 27
 정행품(淨行品) 92
 정현(定玄) 27
 제13중 518
 제관(諦觀) 296, 383
 제망중중문(帝網重重門) 230
 제법계(諸法界) 216
 제법상즉문(諸法相卽門) 162
 제법상즉자재문(諸法相卽自在門) 158
 제위(帝位) 324
 제일의제(第一義諦) 148
 제장순잡구덕문(諸藏純雜具德門) 181
 조복장(調伏藏) 309
 조사견고(造寺堅固) 414
 조참(曹參) 375
 종거(鍾廣) 370
 종교(終敎) 82, 83, 226, 289, 484
 종남산(終南山) 268, 305, 472
 종밀(宗密) 411, 469
 종승(宗乘) 329
 종자(種子) 70, 487
 종장(宗匠) 405
 종지 308
 좌승선(左承宣) 323
 주(周)나라 280, 355
 주공(周公) 380
 주반(主伴) 520
 주반구족(主伴具足) 104
 주반무진(主伴無盡) 104
 주반원명구덕문(主伴圓明具德門) 104, 158
 주반원명문(主伴圓明門) 178
 주반원비문(主伴圓備門) 230
 주변함용관(周遍含容觀) 259
 주실(壽室) 334
 주역(周易) 288
 주화엄법계관문(注華嚴法界觀門) 305, 411
 준수식(遵式) 439
 중교용수석론(重校龍樹釋論) 346
 중도(中道) 21, 65, 109, 204
 중도의(中道義) 21, 137
 중론(中論) 282
 중변론(中邊論) 211
 중본(中本) 87

중생 450
 중생세간(衆生世間) 495
 중생회향(衆生廻向) 530
 중심[當中] 175
 중중(重重) 175
 중화전심지선문사자승습도 305
 즉(卽) 137
 중도(證道) 238
 증득(證得) 200
 증득한 지위[證地] 241
 증상연(增上緣) 487
 증행(證行) 251
 지경(智憬) 28
 지공(指空) 525
 지귀 76
 지귀장(指歸章) 346
 지귀장원통초(旨歸章圓通鈔) 30
 지둔(支遁) 320
 지론 243
 지론종(地論宗) 507
 지말 519
 지상(至相)대사 413
 지송 469
 지승(智昇)스님 385
 지엄(智儼) 29, 81, 127, 159, 269, 412, 472, 496
 지업식(持業釋) 80
 지원(智圓) 311
 지의(智顗) 258, 382
 지자(智者)대사 382, 395
 지정각세간(智正覺世間) 172, 495
 지통(智通) 24

지통기(智通記) 24
 지해(智海) 27
 지혜안 506
 진(晋)나라 359
 진(晋)나라 원제(元帝) 371
 진경(晋經) 179
 진공(眞空) 210
 진공관(眞空觀) 259, 308
 진기(眞記) 25
 진록(晋錄) 276
 진류환원락도(眞流還源樂圖) 27
 진부진(盡不盡) 30
 진성(眞性) 235
 진성여왕 475
 진속법(眞俗法) 212
 진수(晋水)대사 312, 417, 424
 진시황(秦始皇) 356
 진언중 213
 진여(眞如) 80, 156, 189, 235, 484, 488
 진용(眞容) 461
 진장(眞藏) 24
 진정(眞定) 24
 진제(眞諦) 109, 148, 214, 340
 진파(眞派) 415
 진표(眞表) 440
 진홍왕 79
 정관(澄觀) 27, 101, 416, 469

차이가 없다[無間] 248
 착도(錯刀) 369
 찬(贊) 330
 천(泉) 366
 천관(天冠) 466
 천관(天冠)보살 신앙 27
 천광왕정주여래(千光王靜住如來) 508
 천길상(天吉祥) 451
 천도 522
 천룡(天龍) 298
 천수천안 512
 천수천안경 467
 천수천안관음 477
 천수천안관자재보살대다라니경 508
 천승(天乘) 379
 천안통(天眼通) 459
 천인(天人) 458
 천제석(天帝釋) 55
 천축(天竺) 322
 천축국 451
 천축사(天竺寺) 298
 천친(天親) 388
 천태 179
 천태교학 258
 천태묘현(天台妙玄) 460
 천태산(天台山) 395
 천태종(天台宗) 213, 260, 296
 천품(天品) 332
 철종(哲宗) 258
 청담사(靑潭寺) 26
 청량정관(淸涼澄觀) 270, 307, 396, 411,
 477, 527, 531
 청변(淸辨, Bhāvaviveka) 188
 청변종(淸辨宗) 188
 청정국토(淸淨國土) 59
 청정불찰(淸淨佛刹) 59
 청정한 깨달음[性淨菩提] 222
 체대 490
 체원(體元) 465, 471, 531
 초(鈔) 391
 초(楚) 356
 초교(初敎) 82
 초당사(草堂寺) 305
 초발심(初發心) 21, 65, 162
 초지(初地) 82
 총령 451
 총상(總相) 22, 107, 112, 117, 164, 216
 최변(崔汧) 532
 최적정바라문(最寂靜婆羅門) 504
 최치원(崔致遠) 267, 474
 추동기(錐洞記) 24
 추밀원(樞密院) 323
 축법란(竺法蘭) 389
 축법호 276
 축생(畜生) 513
 춘추(春秋) 306, 397
 출세간법(出世間法) 52
 충회(忠會) 431
 측천무후 81
 친왕(親王) 338
 칠엽굴(七葉窟) 387
 칠처구회의(七處九會義) 75
 칭찬정토경 349

타화자재천궁(他化自在天宮) 96
 타화자재천회(他化自在天會) 61
 탁사현법문(託事顯法門) 176
 탁사현법생해문(託事顯法生解門) 158
 탐현 27
 탐현기 26, 76
 탐현의(探玄義) 75
 탐사건고 415
 태시(泰始) 360
 태허(太虛) 194
 택멸(擇滅) 212
 통(通) 517
 통섭소전문(通攝所詮門) 230, 232
 통체(通體) 254
 투쟁건고(門諍堅固) 414, 415

판비량론(判比量論) 296
 팔관회 442
 팔난 522
 8불(八不) 110
 80권 화엄경 61
 8장(八藏) 386
 패엽(貝葉) 88
 편만법계(遍滿法界) 211
 편해제법문(遍該諸法門) 230, 232
 평등성지(平等性智) 481
 평등연집법계(平等緣集法界) 205

평등인과(平等因果) 98
 포(布) 366
 표백문자(表白文字) 378
 표원(表員) 75, 79
 표훈(表訓) 24
 풍륜(風輪) 125
 필삭기(筆削記) 421

하근기 493
 하남(河南) 372
 하사교(下四敎) 31
 학림(鶴林) 387
 학혜건고(學慧堅固) 414
 한(漢) 280, 356
 함옹(咸雍) 457
 항우(項羽) 376
 향하사집 505
 해동 435
 해동소(海東疏) 454
 해심밀경(解深密經) 214
 해인(海印) 51, 236
 해인경(海印鏡) 485, 493
 해인병현문(海印炳現門) 230
 해인사(海印寺) 26, 260, 285
 해인삼매(海印三昧) 22, 45, 86, 237, 495, 498
 해인삼매뇌성(海印三昧雷聲) 61
 해인삼매론(海印三昧論) 28, 43
 해탈건고(解脫堅固) 414

해탈월(解脫月) 288

해회(海會) 86

행(行) 247

행사초(行事鈔) 396

행업 330

행온(行蘊) 211

행원품소 527

행집(行集) 208

향수해(香水海) 90

향화 322, 325

허공(虛空) 212

허망한 작용[妄用] 244

허망한 정념[妄情] 244

현강왕 29

현중 260

헛된 상[虛相] 235

현성사(顯聖寺) 284

현수(賢首)대사 269, 320, 343, 396, 473, 489

현수오교(賢首五教) 383

현수품(賢首品) 92

현일(玄一) 339

현장(玄奘) 389

현전지(現前地) 239

현종(顯宗) 398

현준(賢俊) 29

현철(賢哲) 379

현화사(玄化寺) 283

형상이 없다[無相] 248

혜가 350

혜관(慧觀) 261

혜광(惠光) 179

혜광(惠曠) 382

혜능(慧能) 309

혜능(慧能)계[南頓] 290

혜덕(慧德)왕사 458

혜사(慧思) 382

혜선(慧宣) 258, 442

혜소국사(慧炤國師) 431

혜영(慧永) 325

혜원(慧苑) 106, 156

혜원(慧遠) 27, 126, 207, 395, 452

혜인사(慧因寺) 283

혜인원교장기(慧因院敎藏記) 337

혜일(慧日) 349

혜일도량(慧日道場) 340

호계(虎溪) 452

호법(護法, Dharmapāla) 188, 441

호법종(護法宗) 189

호분중랑(虎賁中郎) 359

혼용무애(混融無碍) 152, 186

홍제사(弘濟寺) 311

화륜(火輪)지옥 512

화불(化佛) 466, 491

화산사(華山寺) 26

화신(化身) 53

화엄 46

화엄 강주 아사리(阿闍梨) 329

화엄강목(華嚴綱目) 81

화엄경 435, 465, 473

화엄경관자재보살소설법문별행소(華嚴經觀自在菩薩所說法門別行疏) 469

화엄경론 518

화엄경문답(華嚴經問答) 24

화엄경문의강목(花嚴經文義綱目) 87
 화엄경문의요결문답(華嚴經文義要決問答) 27, 75
 화엄경소(華嚴經疏) 126, 159, 296, 383, 396, 412, 469, 477, 527
 화엄경소초 469
 화엄경요결(華嚴經要決) 27
 화엄경윤관(華嚴經綸貫) 305
 화엄경전기(華嚴經傳記) 87
 화엄경지귀(華嚴經旨歸) 103
 화엄경탐현기(華嚴經探玄記) 81, 87, 102
 화엄과초략(花嚴科鈔略) 339
 화엄금사자장(華嚴金獅子章) 159
 화엄기(花嚴記) 343
 화엄료간(華嚴料簡) 81
 화엄망진환원관소초보해(華嚴妄盡還源觀疏鈔補解) 284
 화엄무진법문해(華嚴無盡法門海) 86
 화엄문의강목(華嚴文義綱目) 159
 화엄보현행원참의(花嚴普賢行願懺儀) 331
 화엄사(華嚴寺) 26
 화엄소주(華嚴疏主) 383
 화엄오교장(華嚴五教章) 81, 166
 화엄원인론발미록(華嚴原人論發微錄) 284
 화엄윤관(花嚴綸貫) 346
 화엄일승(華嚴一乘) 20
 화엄일승교의분제장(華嚴一乘教義分齊章) 112, 127, 159
 화엄일승성불묘의(華嚴一乘成佛妙義) 28
 화엄종 213
 화엄종 7조(祖) 343

화엄현의장(華嚴玄義章) 81
 화의사교(化儀四教) 383
 화장세계(華藏世界) 90, 100, 518
 화장세계품(華藏世界品) 91
 화택(火宅) 399
 환현(桓玄) 359
 환희지(歡喜地) 60, 239, 527
 황룡사(皇龍寺) 75, 79
 회소(懷素) 311
 회연입실문(會緣入實門) 230
 횡해명담(橫海明單) 284
 효대 434
 효명제(孝明帝) 361
 효혜제(孝惠帝) 375, 376
 후고려(後高麗) 278
 후득지(後得智) 82, 243
 훌륭한 방편[方便善巧] 245
 흥왕사(興王寺) 258, 284, 409
 희랑(希朗) 30, 285
 희사(喜捨) 316



譯注者 역주자

● 鄭炳三 정병삼...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문학박사. 신라불교사와 화엄사상사를 중심으로 한국불교사상사를 연구하고 있다.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문과대학 역사문화학과 교수. 『오늘 나는 사찰에 간다』(2003) 『그림으로 보는 불교이야기』(2000) 『의상 화엄사상 연구』(1998) 『일연과 삼국유사』(1998) 『신앙과 사상으로 본 불교전통의 흐름』(2007, 공저) 『추사와 그의 시대』(2002, 공저) 『중국화엄사상사』(2005, 공역) 등의 저서와 「고려 후기 體元 관음신앙의 특성」(2009) 「몽산 저술의 간행과 16세기 조선 불교」(2007) 「신라 구법승의 구법과 전도」(2007) 「일연선사비의 복원과 고려승려비문의 문도 구성」(2006) 「慧超의 활동과 8세기 신라밀교」(2005) 「8세기 신라의 불교사상과 문화」(2005) 등의 여러 논문이 있다.

● 李鍾壽이종수...동국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일본 大谷大學 교환유학생을 거쳤다. 조선시대불교사 특히 정토사상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연구원을 지냈고 현재 동국대 사학과 강사. 주요 논문으로 「조선후기 三門修業의 성립과 전개」(2008) 「숙종 7년 중국선박의 표착과 백암성총의 불서간행」(2008) 「조선후기 불교계의 心性 논쟁-雲峰의 『心性論』을 중심으로」(2008) 등이 있다.

● 玉娜類옥나영...숙명여자대학교 문과대학 한국사학과를 졸업하고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신라불교사와 밀교사상사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관정경과 7세기 신라 밀교」(2007) 등이 있다.

● 全甫英전보영...숙명여자대학교 문과대학 한국사학과를 졸업하고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했다. 유식사상을 중심으로 신라불교사상사를 연구하고 있다.





韓國傳統思想書刊行委員會 한국전통사상서간행위원회

●간행위원회 위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伽山智冠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圓學 · 기획실장 藏寂 · 勝源(前) · 재무부장 正念

문화부장 修鏡 · 사회부장 世英 ·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玄宗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宗薰 · 불교신문사장 慧慈 · 기획국장 彌燈

●간행위원회 간행위원●

제1팀… 海住 동국대학교 교수

제2팀… 金榮郁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제3팀… 鄭炳三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제4팀… 李晉吾 부산대학교 교수

제5팀… 圓徹 해인총림 강원 前 강사

제6팀… 古玉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연구실장

제7팀… 彌山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正德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선임연구원… 金宰晟 · 金鐘仁 · 李洪九

연구원… 權奇燦 · 金惠珍

편집 · 제작… 尙賢淑 · 朴鍾壹





韓國傳統思想叢書 한국전통사상총서

韓國人の歴史와 그 文化의 最古層에 穩연히 자리하고 있는 韓國의 傳統佛敎思想은 우리 精神史의 原型이며 韓民族 數千年 知性史의 基軸이다. 일천칠백여 년간 韓國인 그리고 韓國 내에서 尤구히 傳承· 축적된 韓國의 불교문화와 사상을 代表하는 작품들을 精選하고 한글과 영문으로 주석·번역하여 “한국전통사상총서[불교편]”으로 엮었다. 韓國의 불교문화와 사상을 國內·外에 널리 刊行·流通시킴을 目標로 대한불교조계종이 文化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다.

海住	精選 元曉 … 晉譯華嚴經疏序 · 無量壽經宗要 등 17篇
海住	精選 知訥 … 勸修定慧結社文 · 修心訣 · 圓頓成佛論 등 7篇
金榮郁	精選 休靜 … 淸虛堂行狀 · 禪家龜鑑 · 禪教訣 등 5篇
海住	精選 華嚴 I … 華嚴一乘法界圖 · 法性偈 주석 모음 등 7篇
鄭炳三	精選 華嚴 II … 海印三昧論 · 大覺國師文集 등 4篇
鄭炳三	精選 諸敎學 … 三彌勒經疏 · 成唯識論學記 (選) 등 6篇
金榮郁	精選 公案集 … 禪門拈頌說話
金榮郁	精選 禪語錄 … 眞覺語錄 · 白雲語錄 등 4篇
李晉吾	精選 詩選集 … 無衣子詩集 · 湖山錄 등 26篇
鄭炳三	精選 文化 … 往五天竺國傳 · 三國遺事 (選)
圓徹	精選 戒律 I … 梵網經古述記 I
圓徹	精選 戒律 II … 梵網經古述記 II · 菩薩戒本宗要并序
智冠	精選 韓國高僧碑文 … 韓國高僧碑銘 15基

